

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발해 상경성은 발해의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도성이었다. 문왕 대흥무가 천보 말에 현주에서 상경으로 천도하면서 상경은 발해의 세 번째 도성이 되었고, 수도를 잠시 동경으로 옮겼다가 문왕과 폐왕 사망 후에 성왕 대화여가 동경에서 상경으로 환도하면서 상경은 다시 발해의 도성이 되었다. 755년부터 785년까지 약 30년간, 다시 794년부터 926년까지 약 132년간, 모두 약 162년 동안 상경성은 발해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상경성의 기원문제와 관련하여 수·당 장안성과 고구려 안학궁성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장안성의 궁성, 황성, 외성 배치, 좌우대칭, 남북-동남 방향의 정연한 도로 체계와 방 구획 등은 발해 상경성과 닮은 점이 적지 않다. 상경성과 내부 궁성의 규모, 궁전의 수, 궁전 기단의 칸 수, 너비 등이 모두 수·당 장안성의 것보다 작으나 상경성 축조 시 당의 왕성 등급 규칙을 따랐기 때문은 아니다. 상경성의 세부구조, 개별 건축물들의 모양과 규모, 당대 지방성들의 평면 모양과 구조, 규모 등을 관찰해 보면 발해 상경성은 수·당 장안성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황제의 도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안학궁성은 상경성 중 궁성 내부의 건물배치와 궁전 자체 그리고 몇몇 성문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발해는 상경성을 통해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패자로서 황제국임을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발해 최고 통치자들의 이러한 이상은 상경성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상경성에서 고구려와 백제, 수·당 장안성, 그리고 발해 고유의 새로운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발해 상경성은 외성의 둘레 길이가 16,293m로서 규모가 대단히 큰 성이다. 외성은 전체적으로 평면상 ‘凸’자 모양에 가까우나 북쪽의 돌출한 부분을 제외하면 가로 장방형이다. 성벽 밖에는 해자를 둘렀고, 외성의 성벽에서 모두 11개의 성문이 확인되었다. 이 중 외성 정남문과 정북문은 문길이 3개씩이다. 성 내부에는 가운데 북쪽에 내성이 있고, 내성 안에는 다시 궁성과 황성 구역이 있다.

외성 내부는 남북과 동서 방향의 크고 작은 도로들에 의해 정연하게 구획되었는데 내성 남벽 남쪽은 중앙대로를 기준으로 동서와 남북으로 각기 크게 4개씩의 공간으로, 다시 말해서 16개의 공간으로 나뉘었고, 각 공간은 다시 ‘田’자 모양으로 4개씩의 구역으로, 다시 말해서 64개의 방(坊)으로 구분되었다. 이곳의 방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한다. 그 북쪽은 먼저 좌우가 제5호가를 따라 황성의 성벽 선에 맞추어져 있어 너비가 아래쪽의 방보다 넓다. 이곳에는 좌우에 각 3개씩 모두 6개의 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북쪽은 구획이 궁성의 남벽 및 북벽과 대체로 일치하게 설정되었다. 서쪽에는 6개의 방이, 동쪽은 별궁의 존재로 인해 4개의 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의 방은 모두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다. 따라서 상경성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방 64개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방 16개 등 모두 80개의 방이 좌우대칭을 이루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별궁 구역에는 상경성의 엄격한 좌우대칭구도를 통해 볼 때 원래는 방이 있었다가, 나중에 왕실이 확장되면서 별궁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방들의 길이는 큰 것과 작은 것 모두 465~530m, 너비는 각각 350~370m와 235~265m이다. 방의 둘레에는 돌과 흙으로 담장을 쌓아 구분하였다. 담장의 너비는 밑부분은 1.8m, 윗부분은 1.1m였다. 외성 안에서는 집터, 절터, 생산시설 흔적, 시장, 우물 등이 발견되었다. 시장터는 현재 제6호가와 제3호가 교차로 남서쪽 방에서 발견되어 수·당 장안성의 서시와 거의 같은 위치임을 알 수 있다.

- ① 상경성 외성의 성벽에서 모두 11개의 성문이 확인되었다.
- ② 상경성의 시장은 장안성의 서시와 도성 내에서 비슷한 위치였다.
- ③ 내성 남벽 남쪽 방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 ④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이 상경성에 반영되어 있다.
- ⑤ 상경성 축조 시 당의 왕성 등급 규칙을 완벽히 따랐다.

2. 5명의 입법고시 합격생(우리, 나라, 만세, 일편, 단심)은 신입관리자 과정의 수료를 앞두고 부서 배치와 관련된 대화를 하고 있다. <조건>을 참고할 때, 옳은 것은?

<조 건>

- 5명의 신입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는 부서는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총 4곳이다.
- 1명만 배치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는 달리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최대 2명의 신입관리자가 배치될 수 있다.
- 신입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부서는 없으며 신입관리자는 5명뿐이다.
- 부서 배치는 신입관리자들의 모든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 각 신입관리자는 하나의 부서만을 택한다.

<대 화>

우리: 만세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택하지 않겠어.

나라: 만세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한다면 나는 행정안전위원회를 택하겠어.

만세: 나는 동기 없이 혼자 배치될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어.

일편: 나는 단심이 가는 곳을 택하겠어.

단심: 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하지 않겠어.

- ① 만세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한다면, 나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택할 것이다.
- ② 나라가 행정안전위원회를 택하더라도 우리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일편이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할 것이다.
- ④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부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 ⑤ 만세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하지 않는다면, 만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택할 수밖에 없다.

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남극과 북극 바다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은 유난히 낮은 온도, 몇 달씩 계속되는 낮 혹은 밤 그리고 바다가 주기적으로 얼었다 녹는 현상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은 합쳐져서 남북극에도 계절이 있게 한다. 극지라고 하면 일년 내내 얼어붙은 밋밋한 세상을 떠올리겠지만 남극과 북극의 바다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변화는 뚜렷하다. 아마 열대 바다에서 보이는 계절변화보다 심할 것이며 중위도 온대 해양에 버금갈 것이다. 계절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빛이다. 지구의를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동지와 하지를 경계로 하여 낮이 훨씬 긴 여름과 반대로 밤이 훨씬 긴 겨울이 교대한다. 이 현상은 고위도로 갈수록 두드러져 남극해에서 가장 위도가 높은 곳에서는 거의 백야 수준으로 햇빛과 어둠이 지속될 수 있다. 게다가 여름에는 해빙이 녹아 후퇴하고, 겨울에는 해빙이 확장되는 일이 반복되며 뚜렷한 계절변화를 만들어낸다.

남극해는 대륙 주변부의 늘 얼음으로 덮여 있는 해역,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바다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해역, 또 얼음에 덮이는 법 없이 늘 열려 있는 해역으로 나누어진다. 남극대륙 주변의 가장자리에는 대륙을 덮은 빙상이 미끄러져 바다로 빠져드는 곳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정착빙이 바다의 바닥 혹은 육지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영구빙 해역이 있다. 영구빙 해역을 넘어서면 여름에는 해빙이 녹아 바다 표면이 노출되고 겨울에는 바다가 얼어붙어 덮이는 계절빙 해역이 있다. 남극대륙의 면적을 넓히고 좁히는 거대한 자연의 공정이 매해 반복되는 것이다. 그 밖으로 더 나가면 남극 극전선에 이를 때까지 펼쳐지는 바다는 여전히 찬물이지만 얼음에 덮이는 경우는 없다.

남극해 대부분의 해역은 천연비료성분인 영양염이 비교적 풍부하지만 생물량은 기대하는 만큼 높지 않다. 생물생산력으로 보면 사막과 같은 초라한 바다이며 척박한 평원이다. 남극의 거센 바람은 식물플랑크톤을 빛이 닿지 않는 깊이까지 계속 밀어넣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줄인다. 무엇보다도 남극해에는 광합성에 꼭 필요한 미량금속의 양이 적다.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육지로부터 날아오는 먼지가 종종 미량 영양물질의 공급원이 되지만 남극해는 지구상 육지 어디로부터도 멀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천연비료가 풍부한 물이 솟구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미량금속 결핍이 생물의 번성을 가로막는 병목이 된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솟아오른 지형 등에 부딪힌 바닷물과 소용돌이가 미량금속을 흙탕물에 섞어 공급해주는 특별한 사건이 있으면, 풍부한 천연비료의 덕을 제대로 입어 폭발적인 생물 번성에 이르기도 한다.

남북극 바다의 생태계는 이런 계절변화와 주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진화해왔다. 봄이 찾아오고 해빙(海氷)이 녹아 풀려나오는 민물이 표층해수와 섞이면 덜 짜고 가벼운 물 덩어리가 수층의 상층부를 차지해서 성층화가 일어난다. 겨울에 비하면 바람도 한결 잦아들겠지만 이렇게 가벼운 윗물과 무거운 아랫물로 층이 나뉘지면 같은 세기의 바람이 불어도 식물플랑크톤이 빛이 미치지 않는 깊이까지 밀려 들어가기 어렵고, 또한 해가 길어지고 빛이 증가하기 때문에 남극의 바다도 새싹이 돋는 봄, 우거진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 ① 북극에는 계절이 있으나, 남극에는 계절이 없다.
- ② 남극해의 가장 북쪽에서는 거의 백야 수준으로 햇빛과 어둠이 지속될 수 있다.
- ③ 북극해는 대륙 주변부의 늘 얼음으로 덮여 있는 해역, 그리고 계절에 따라 바다가 얼고 녹기를 반복하는 해역, 또 얼음에 덮이는 법 없이 늘 열려 있는 해역으로 나누어진다.
- ④ 남극해는 육지로부터 날아오는 먼지로부터, 지구의 다른 곳만큼 미량 영양물질을 공급받는다.
- ⑤ 남극 바다에서는 민물이 표층해수와 섞여 덜 짜고 가벼운 물 덩어리가 수층의 상층부를 차지해서 성층화가 일어나는 때가 있다.

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5. 다음 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권’은 일본의 건축가 아마모토 리켄이 사생활과 보안을 중시하는 전통적 1가구 1주택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한 새로운 주거양식이다. 그는 인구구조와 사회상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관계와 일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기존의 주택들이 고착된 조건으로써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어떻게 모여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역사회권의 개념으로 종합하였다.

하나의 주택에 하나의 가족이 생활하는 1가구 1주택 시스템의 주택이 일반적으로 단독침실, 주방, 화장실의 자족적·폐쇄적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역사회권의 집은 개방공간과 사적 침실로 구성되어 외부와의 협동이 용이한 구조이다. 개방공간은 외부를 향해 열려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섞일 수 있는데, 뒷마루나 어린이 놀이터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사무실, 아틀리에 또는 가게를 차리거나 임대를 할 수도 있다. 화장실과 욕실, 작은 주방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며 이러한 공용공간의 확보는 간병, 간호, 복지, 에너지, 교통, 지역경제 등의 개념을 전면 재구성하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집이 모여 지역사회권을 형성하는데, 아마모토 리켄은 500명의 거주자를 행정서비스의 수용자 겸 자치조직의 단위로 보고 다양한 현대적 가치를 찾아내고자 했다.

지역사회권은 주택의 물적 구조를 사생활보호와 보안에 집착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전통적 구조에서 개방성과 유연성이 확보되는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사람들의 의사결정 및 행태에 변화를 주고, 가족을 대신하는 중간체적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구한다. 이는 자율적인 중간조직 안에서 상부상조를 통해 1가구 1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방식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제안이다.

전통적 공동체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평생을 같이 살아온 주민 간의, 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의식 위에서 집단적 협업을 통해 형성된다. 하지만 주거의 이동이 빈번한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모로 힘들다.

지역사회권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교환적·경제적 관계에 바탕을 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중시한다. 주민 간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주택단지 내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복지, 육아, 교통, 재정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권은 주택이 주택이라는 범위를 넘어 다른 분야에서 드러난 문제까지 의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 < 보 기 > —

ㄱ. 아마모토 리켄은 사회적 문제들의 발생 원인을 기존의 주택들이 가진 비대응성으로 보고 있다.

ㄴ. 지역사회권은 전통적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이다.

ㄷ. 전통적인 주택의 물적 구조는 개방성과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ㄹ. 공용공간의 확보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인본주의 분파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다. 이 사상은 ‘인간성’은 개별 인간의 속성이며 개인의 자유는 더할 나위 없이 신성하다고 믿는다. 자유주의자에 따르면, 인간성의 신성한 성질은 모든 개별 사피엔스의 내면에 갖춰져 있다. 개개인의 내면은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며, 모든 윤리적·정치적 권위의 원천이 된다. 만일 우리가 윤리적·정치적 딜레마와 마주친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내면에서 울리는 목소리—인간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주된 계명들은 이런 내면의 목소리가 지닌 자유를 침입이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계명들을 통칭하여 ‘인권’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중요한 분파는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다.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성’이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이 신성하게 보는 것은 개별 인간의 내면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호모사피엔스 종이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가 개개인의 최대한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 반해,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추구한다.

마지막 분파는 진화론적 인본주의로, 가장 유명한 예는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다. 나치가 다른 인본주의 분파와 구별되는 점은 ‘인간성’에 대해 진화론에 깊이 감화된 색다른 정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치는 다른 인본주의자들과 달리 인류를 보편적이고 영원한 무엇이 아니라 진화하거나 퇴화할 수 있는, 변하기 쉬운 종으로 보았다. 인간은 초인으로 진화할 수도, 인간 이하로 퇴화할 수도 있었다.

— < 보 기 > —

ㄱ. “부자가 가난한 자에 비해 특권을 누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모든 인간의 자연적 본질보다 돈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는 진술은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에 부합한다.

ㄴ. “유럽에서 살인은 인간성이라는 신성한 본성에 대한 침해로 여겨진다. 유럽인들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고문하고 처형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에 부합한다.

ㄷ. “호모사피엔스의 등장 자체가, 네안데르탈인 같은 ‘하등한’ 집단은 멸종한 데 반해 고대 인류 중 한 ‘우월한’ 집단은 진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주장은 사회주의적 인본주의의 바탕이 된다.

ㄹ.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내적 작동방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거기서 아무런 영혼도 발견하지 못했다. 인간의 행동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호르몬, 유전자, 시냅스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펴는 과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주장은 진화론적 인본주의를 반박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원후 331년에 미천왕이 죽고 고국원왕 쇄(劄)가 왕위를 이었다. 이듬해 모용외도 죽고 그의 세자 모용황이 왕위를 이었다. 모용황은 고국원왕이 제3의 환도성에 천도하였다는 말을 듣자, 고구려가 장차 북벌할 것을 알고, 먼저 고구려에 침입하여 타격을 주는 동시에, 길으로는 고구려를 피하여 멀리 달아날 곳을 가장하여 고구려로 하여금 방비를 소홀히 하게 하려고 하였다. 모용한(慕容翰)이, “고구려를 치자면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북치(北置)로부터 환도성으로 향하는 북도(北道)요, 또 하나는 남협(南峽)과 목저(木底)로 하여 환도성으로 향하는 남도(南道)인데, 북도는 평탄하고 넓으나 남도는 험하고 좁아서 고구려가 남도보다도 북도를 더 엄중히 방비할 것이니, 우리가 먼저 일부 군사를 내어 북도로 침입한다 일컫고, 가만히 대군을 내어서 남도로 공격하면 환도성을 깨뜨리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여, 모용황은 모용한의 계교를 채용하였다.

고국원왕은 모용황의 군사가 북도로 침입해온다는 보고를 듣자 저들의 계교를 모르고 아우 무(武)를 보내 5만의 군사로 북도를 방비하게 하였다. 무는 황의 장군 왕부(王富)를 목 베고 그 군사 1만 5천을 전멸시켰으나, 왕은 적은 군사로 남도를 방어하다가 황의 대군을 만나 크게 패하여 단기(單騎)로 도망하니, 환도성이 드디어 적병에게 함락되어 왕태후(王太后) 주씨(周氏), 왕후 모씨(某氏)도 모두 적병에게 잡혔다. 황은 미천왕의 능을 파 그 시체와 왕태후 주씨, 왕후 모씨를 싣고 돌아갔다. 적병은 비록 돌아갔으나 죽은 아버지와 생모가 적국에 잡혀갔으므로, 고국원왕은 부모를 찾아오기 위해 공손한 말과 많은 예물로 모용씨와 교제하고, 하는 수 없이 지나 대륙에 대한 경영을 포기함에 이르러 수십 년 동안 약한 나라가 되었다.

환도성의 세 번의 천도는 고구려 상대(上代)의 성쇠의 역사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태조왕대 왕자 수성(遂成)이 요동을 점령하고 제1의 환도성을 지금의 개평 부근에 처음으로 쌓던 때는 고구려가 가장 강성한 시기이다. 발기가 모반하여 요동을 들어 공손씨에게 항복하므로 산상왕(山上王)이 제2의 환도성을 지금의 환인현 부근에 옮겨 쌓았다가 이것까지 위의 장수 관구검에게 파괴당하려 하던 때는 고구려가 쇠퇴해진 시기이다. 미천왕이 선비를 구축하여 낙랑·현도·요동 등 군을 차례로 회복하여 중흥의 실적을 올리다가 중도에 죽고, 고국원왕이 왕위를 이어 가지고 제3의 환도성을 지금의 집안현 부근에 다시 쌓았다가 또 모용황에게 파괴당한 때는 고구려가 가장 쇠퇴해진 시기이다.

이상의 기록은 『조선사략(朝蘇史略)』과 『삼국사기』에 보이는 것을 뽑아 기록한 것이어니와, 『진서(晉書)』는 이미 대략 말한 바와 같이 당태종이 고구려를 헐뜯고 욕하기 위해 허다한 사실 아닌 기사를 거짓으로 만든 것이 많은 글이다. 그러므로 위의 기사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아니하다. 예를 들면 모용황이 미천왕의 무덤을 파갔다고 하였으나, 미천왕 때의 고구려 서울은 평양이었고, 미천왕이 돌아간 지 12년 만에 고국원왕이 환도성에 천도하였으니, 고구려 역대의 왕릉은 모두 당시 왕도 부근에 있었으므로, 미천왕은 돌아간 뒤에 반드시 평양에 묻혔을 것이고 환도성에 묻히지 않았을 것인데, 환도성을 침략한 모용황이 어찌 평양에 묻힌 미천왕의 능을 파갈 수 있으랴? 그러므로 미천왕의 능을 파갔다는 말이 극히 의심스러운 동시에, 그 이하에 기록된 왕태후와 왕후를 잡아갔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다만 이 뒤에 고구려가 30여 년 동안, 곧 모용씨가 멸망하기 이전에는 다시 지나 대륙을 경영하지 못했음을 보면 모용씨에게 크게 패하여 불리한 조건의 조약을 맺은 사실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 신채호, 『조선상고사』에서 -

<보 기>

- ㄱ. 기록에 따르면 고국원왕은 북도로 대군을 내어 침입하려는 모용황의 계교에 넘어갔다.
- ㄴ. 기록에 따르면 환도성의 천도는 고구려 상대 성쇠의 역사를 보여준다.
- ㄷ. 저자는 미천왕이 환도성이 아닌 평양에 묻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7. 다음 <조건>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항상 거짓인 진술은?

<조 건>

- 날씨가 맑으면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거나 영화관이 만석이다.
-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이고 영화관이 만석이면, 수족관이 휴업한다.
- 공원이 사람들로 북적이면 야구장이 만석이다.

- ① 날씨가 맑으면 영화관이 만석이다.
- ② 수족관이 영업 중인데 야구장이 만석이 아니다.
- ③ 야구장이 만석이 아니고 날씨가 맑다.
- ④ 영화관이 만석이 아니고 야구장이 만석이다.
- ⑤ 영화관이 만적이고 야구장이 만석이 아닌데, 수족관이 휴업했다.

10.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풍부한 감성을 지닌 공자는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뿐 아니라, 동물 또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점은 다음 구절에서 드러난다. 때는 바야흐로 까투리가 노니는 계절이었고, 공자와 자로는 아마도 산길을 가다가 쉬던 중이었을 것이다.

“핑들이 주변 기색을 살피다 날아올라 몇 바퀴 돈 다음 다시 모여들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산에 노니는 까투리로구나. 제철이지! 제철이고말고!” 자료가 핑 요리를 해드렸다. 선생님은 세 번 냄새를 맡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 구절은 그동안 해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거나, 자료가 핑에게 존경의 제스처로 두 손을 모아 쥐고 절을 하자 핑이 세 번 날갯짓을 했다는니 하는 식의 터무니없는 ‘오리엔탈리즘’적인 환상과 상상으로 인해 원래의 뜻이 가려져왔다. 주희는 이 구절에 몇 글자가 탈루되지 않았을까 추측하면서 해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다. 현대의 논어 연구자들도 이 구절을 자료가 까투리에게 존경의 표시로 두 손을 모아 잡고 고개를 숙였다는 식으로 해석하면서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위(魏)나라의 하안(何晏)의 주석에 북송(北宋)의 형병(邢昺)이 풀이를 추가한 『논어주소』는 다음과 같이 이 구절을 해석한다.

“이 구절은 공자가 동물과 감응하여 애석해 함을 기록한 것이다. 공자가 산에 있는 다리 근처를 가던 중 까투리가 물을 마시고 모이를 쪼아 먹는 것을 보고 “이 산의 까투리는 제때를 만났구나!” 라면서 사람들은 제때를 얻지 못함을 대비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자료가 그 뜻을 오해하여 선생님이 ‘제때’라고 하신 뜻이 한창 먹기 좋은 ‘제철 물건’이라는 것인 줄 생각하여 그 핑을 잡아 바친 것이다. 공자는 그것이 자신의 본뜻이 아니므로 그 요리를 먹을 수 없었겠지만, 또 한편 자료의 충심을 거스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 번 흠향하고 일어나신 것이다.”

자료는 공자를 가장 오랫동안 수행하며 온갖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하며 공자의 경호원이자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친구 같은 제자이다. 공자는 대자연에서 마음껏 노니는 까투리를 발견하고 흐뭇한 마음에서 ‘좋은 시절 마음껏 누리라.’는 뜻으로 “제철이지!”라고 했는데, 자료는 이 말을 오해해서 ‘선생님께서 핑 요리가 먹고 싶은가 보다.’라고 혼자 생각했고, 까투리를 잡아서 요리해 선생님께 바친 것이다. 핑 요리를 보는 순간 이런 사정을 순간적으로 파악한 공자는 자료를 나무랄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말로 인해서 그 핑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요리를 먹자니 핑에게 미안하고, 안 먹자니 자료에게 미안한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해석의 결정적 단서는 ‘세 번 흠향’하는 행위이다. 순자는 『예론』 편에서 제사는 귀신이 ‘있는 듯 없는 듯’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사에 사용될 요리는 완전히 익혀서는 안 되며, 진설된 음식은 세 번 냄새를 맡는 데 그치고 실제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자는 자료가 해다 바친 요리를 ‘먹을 수도 없고, 먹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요리를 ‘세 번 흠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핑 요리를 마치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물처럼 대우하고 제의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세 번 흠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A)가 (B)로 그 의미가 바뀌고 핑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료에 대한 미안함도 일거에 해결된 것이다.

- ① 『논어』에 대한 주희의 지배적 해석은 후대 학자인 형병이 저술한 『논어주소』에 의해 극복되었다.
- ② 밑줄 친 구절에 대해, 위나라 하안의 주석에 북송의 형병이 풀이를 추가한 『논어주소』의 해석은 현대의 논어 연구자들에게 통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③ 공자와 순자는 제사를 지내는 예법 중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
- ④ (A)와 (B)에 들어갈 단어는 각각 ‘식사’와 ‘제사’이다.
- ⑤ 공자는 동물을 도살하여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다.

1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조차 무엇이 폐기물인지 정의를 내리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을 스크랩 또는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통용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폐기물 정의에 대한 이런 합의 부재는 폐기물 관리와 이동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 수준의 거버넌스 개선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향력 있는 기관들이 각각 어떻게 폐기물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기관마다 상이한 내용으로 폐기물이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버린 폐기물은 회수가치가 있는 것인지, 혹은 수명이 다해 더 이상의 가치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예를 들어 옥스퍼드 영어사전이나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폐기물은 재활용의 여지가 없다. 이와는 정반대의 스펙트럼 상에서 정의된 ‘제자리에 맞지 않은 물건’으로서의 폐기물은 폐기물 연구 분야에서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는데, 이는 더러운 것(폐기물, 쓰레기)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폐기물의 국제 정치에 관한 글을 쓴 켄 거래이는 폐기물의 상황에 따른 유연성을 명료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기술하였는데, 그는 ‘인간이 사용을 원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폐기물을 정의하여, 폐기물의 사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포문을 열었으며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그 책임을 부여했다.

폐기물을 물건과 스트림이란 2개의 관점에서 본다면 폐기물이 지닌 가치와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물건으로서의 폐기물’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자원의 초기 획득에서부터 제조, 사용, 최종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와 연결된다. 반면 ‘스트림으로서의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이후를 살펴보게 한다. 즉 폐기물을 처분했다고 해서 폐기물의 수명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편 새로이 등장한 세계 폐기물 경제가 이 분야의 거버넌스 판도를 바꾸어놓았다. “모든 폐기물에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기에 하나의 특징이나 명칭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폐기물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공통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대답을 하자면 점점 더 ‘아니오’라 대답할 것 같다. 물건과 스트림이라는 대형 범주 속에서도 사용 이후의 폐기물이 ‘폐기물’ 또는 ‘버려진 것’으로 분류되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순간도 폐기물의 전체 생애를 다 담고 있지는 않다. 한편 폐기물을 단지 외부성 자원 또는 위험요소로서 간주하여 ‘파이프의 끝(사용 종료)’과 같은 존재로 다루거나 지역적 차원에서만 초점을 맞춘 폐기물 규제와 거버넌스는 새로운 세계 폐기물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글로벌 협약과 제도로 새로운 유형의 폐기물과 폐기물 스트림을 다루고 이를 근거로 폐기물을 위험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수거, 처리, 재활용의 구조는 세계적인 쓰레기 대란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폐기물 거버넌스는 소외된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2차 소재의 국내 또는 국제 시장을 창출하고 유지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순환적인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폐기물이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원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거버넌스 수립 시 산업계를 포함한 더욱 다양한 주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세계 경제에도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 ① 폐기물은 제자리에 맞지 않은 물건으로 재활용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 ② 물건으로서의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 이후 폐기물의 수명이 끝나지 않는다.
- ③ 폐기물은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며 폐기물의 특성은 물건과 스트림으로 구분될 수 있다.
- ④ 기존의 글로벌 협약과 제도로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간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⑤ 폐기물의 순환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관계없이 폐기물 거버넌스를 통하여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이아몬드 교수는 『충, 균, 쇠』에서 “농업은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농업으로 인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막대한 넓이의 토지에 살던 다양한 생물들이 농작물 한 가지에 밀려났다는 것이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발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처음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1934년이고,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면 유사 징후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보고되었다. 흔히 조류 인플루엔자는 철새들에 의해 옮겨진다고 알려져 겨울철 철새들이 전염병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철새들은 대량으로 죽지 않는다. 소수 개체가 죽기도 하지만 한 개체군이 몰살당하지는 않는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오기도 힘들 뿐더러, 잠시 쉬어가는 기착지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애써 농가까지 날아가 직접 바이러스를 배달할 만큼 친절하지도 않다. 반면, 양계장의 닭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대량으로 폐사된다. 닭은 오랜 세월 우리 인간이 오로지 알을 잘 낳도록 인위선택하여 만들어낸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세계 어느 나라 닭장이든 그 안에 있는 닭들은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양계장에 진입하면 몰살을 면치 못한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달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직접 감염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감염된 돼지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흩뿌리지 않는 한 감염률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야생 멧돼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소수가 죽기는 하지만 몰살당하는 일이 드물다. 반면 사육장 돼지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리면 집단 폐사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인간의 경우에는 한 가족이 화재로 몰살당했다는 보도는 있어도 독감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했다는 보도는 들어본 적이 없다. 가족 중 한 명이 독감에 걸려도 다른 가족이 간호하며 집안일을 해나간다.

- ① 인간들은 양계장의 닭보다 유전자 다양성 정도가 높을 것이다.
- ② 축사로 옮겨진 바이러스는 사육동물의 유전자 다양성 결여나 공장식 밀집 사육 때문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이다.
- ③ 농지를 자연상태로 복원시키면 생물 다양성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 ④ 철새들은 양계장 닭보다 유전자 다양성 정도가 높다.
- ⑤ 전염병 확산에 인간이 기여했을 가능성은 아프리카돼지열병보다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더 높다.

1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지출,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일반지출이란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상지출, 자본지출, 용자지출, 이전지출을 의미하며, 내부거래지출이란 한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넘겨주는 지출을 의미한다. 보전지출이란 한 회계나 기금이 민간에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거나(국채상환), 일반지출이나 내부거래지출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2018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총계 규모는 각각 301.4조원, 67.2조원, 594.9조원으로 이를 합산한 규모는 963.5조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합산된 총계 규모는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재정규모를 과다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중앙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2018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총수입은 총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수입 측면의 중앙정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총수입도 총지출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계와 기금 수입을 단순 합산할 경우 회계 간 거래 등을 중복 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중앙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이는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해 공통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의 관점과 유사하다. 여기서 총수입 기준의 국제외수입은 국제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의미한다.

총수입은 일반회계의 총계, 특별회계의 총계,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를 모두 더한 뒤, 회계 간 내부거래수입,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수입, 각 회계와 기금의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18년 중앙정부 총수입은 447.2조원이다.

기금 수입을 총수입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총계기준) 중 정부 내부 간 거래, 차입금, 이미 기금으로 전입되어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던 것을 회수하는 여유자금 회수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들은 제외된다. 즉, 연금보험료, 용자회수, 이자수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자체수입만을 기금 수입으로 간주한다. 둘째,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IMF 기준으로 순수 재정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총수입에서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을 합한 정부 전체의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항목들을 제외한다.

내부거래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이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차입금 예수와 같이 별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된다. 보전수입은 어느 회계나 기금 입장에서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은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총수입 산출 시 제외된다. 이렇게 산출한 수입규모는 일반

회계의 자체수입,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기금의 자체수입을 모두 더한 값과 같다.

- ① 내부거래지출이 없다면 총계와 총지출 규모는 반드시 같다.
- ② IMF가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의 관점은 총지출보다는 총계 방식과 유사하다.
- ③ 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총수입 산출 시 기금 수입과 일반회계 수입으로 중복 계상된다.
- ④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의 합이 클수록 총계와 일반지출의 차이는 커질 것이다.
- ⑤ 남은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하는 것은 정부 내부 간 거래와 달리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수입 산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

14. 다음 글에서 ㄱ~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논리학자 레이먼드 스멀리언을 통해 유명해진 퍼즐이 있다. 거짓말쟁이와 참말쟁이가 등장하는 퍼즐이다. 세상에 두 유형의 사람만 있다고 치자. 늘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과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어떤 두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누가 거짓말쟁이고 누가 참말쟁이인지 알 수 있을까?

몰리: 레오폴드는 거짓말쟁이다.

레오폴드: 우리 둘 다 거짓말쟁이다.

추론은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레오폴드가 (ㄱ)라면, 그의 말은 거짓이 되므로 모순이 된다. 따라서 그는 (ㄴ)임이 분명하다. 레오폴드와 몰리 둘 다 (ㄷ)일 리는 없다. 레오폴드가 (ㄴ)이므로, 몰리는 (ㄴ)임이 틀림없다.

| | 참말쟁이 | 거짓말쟁이 |
|---|------|---------|
| ① | ㄱ, ㄴ | ㄷ, ㄹ, ㄴ |
| ② | ㄱ, ㄷ | ㄴ, ㄹ, ㄴ |
| ③ | ㄱ, ㄴ | ㄴ, ㄷ, ㄹ |
| ④ | ㄴ, ㄹ | ㄱ, ㄷ, ㄴ |
| ⑤ | ㄷ, ㄴ | ㄱ, ㄴ, ㄹ |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당신은 친구의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이 사실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줘야 할까? 당신은 지금 큰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애인이 한눈파는 것도 모른 채 행복에 빠져 있는 친구의 환상을 깨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감춰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 당신. 친구에게 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일 테고, 친구에게 그 사실을 숨기는 것도 불편한 일이다. 친구에게 솔직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당신은 진실이 친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도 알고 있다. 게다가 친구가 진실을 알고 난 뒤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알 수 없으니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좋은 의도로 그랬다는 것을 친구가 알아주길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철학자들의 조언을 구한다면, 쉬운 답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통해 인간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파고들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은 의심의 여지없이 나쁘고,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을 것이다. 철학에서는 이를 의무론(deontology)이라고 한다. 절대적인 도덕법칙이 있을 때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 법칙을 어긴 행동은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도덕성을 바라본 철학자 중 가장 유명한 이로 임마누엘 칸트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연의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는 ‘정언 명령’을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거짓말같이 일반적으로 그릇된 행동이라 여기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예외 없이 잘못이다.

이런 흑백 이분론적 접근법은 상당히 명쾌해 보이지만, 흑과 백 사이의 회색 지대는 정말 없는 걸까? 만약 친구가 당신에게 자신의 애인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경우 솔직히 말해줄 것을 부탁했다면, 당신에게는 친구에게 진실을 말해줄 도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친구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친구에게 침묵한다 해도 사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찌면 진실을 숨겨서는 안 된다거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모든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 도덕법칙일 수도 있겠지만, 설마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까지 다 말해야 한다는 것일까?

이 딜레마에서 도덕법칙에 따르는 것은 보이는 것처럼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 이유로 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인 결과주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주의란 르네상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윤리 철학의 기반으로, 행동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관점은 특히 옳고 그름에 관한 종교적 율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결과주의 중에서도 말할 것인가 혹은 말하지 말 것인가와 관련된 것으로 제러미 벤담의 이론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특정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가져올 행복과 고통을 합산해 ‘공리’를 측정함으로써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구의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친구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거나 혹은 침묵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이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행복과 고통의 양을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야 침묵과 진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면 당신은 친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친구 애인의 행각에 대해 침묵하거나 심지어 ‘선의의 거짓말’을 해 보편적 도덕법칙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궁극적으로 친구를 위하는 마음

으로 그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단지 결과뿐 아니라 행동의 의도와 동기를 고려한다는 점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철학에서는 이를 ‘덕 윤리’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행동의 도덕성을 달리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결과주의와 유사하나, 개별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행동 주체의 ‘덕’을 고찰한다는 것이 다르다. 덕 윤리에서는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집중한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혹은 타인을 위해 그랬는지, 자신의 내적 도덕성에 따른 결정인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윤리에 따르면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스스로 옳다고 믿는 행동을 한다면, 그 선택이 거짓말일 지라도 또 그것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당신의 행동은 도덕적이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신의 도덕성을 보여준다.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보 기>

- ㄱ. 의무론자들과 달리 덕 윤리주의자는 친구의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ㄴ. 결과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윤리 철학의 기반으로, 종교적 율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 ㄷ. 공리와 덕 윤리는 양립불가능하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6. 다음 글에서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은?

문자의 전파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나는 ‘청사진 복사’라는 방법으로 세부적인 청사진을 구하여 그대로 복사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디어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아이디어밖에 얻지 못해 세부적인 내용은 새로 발명해야 하는 것이다.

오랜 옛날에도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문자체계가 많았다. 세쿼이아의 사례는 그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446년에 세종대왕이 한국어를 위해 고안한 ㉠한글 자모는 중국 글자의 네모꼴 모양과 티베트 승려들의 문자 또는 몽골문자의 알파벳 원리에 자극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자음과 모음의 형태는 물론이고 한글 자모에 만 있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도 새로 발명했다. 예를 들면 몇 개의 자음과 모음을 네모 칸 속에 묶어 음절을 만들고, ㉡소리가 서로 관련이 있는 자음이나 모음을 나타내는 글자는 그 형태도 서로 관련이 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자음 글자들의 형태는 각각 그 자음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혀와 입술의 모양을 본떴다.

A.D. 4세기경부터 켈트족이 살던 영국 일부 지역과 아일랜드에서 사용되었던 ㉢오검 알파벳도 한글처럼 기존의 유럽 알파벳들로부터 알파벳 원리를 받아들였지만 역시 독특한 글자형태를 고안했다. 그것은 다섯 손가락을 사용하는 수진호 체계를 바탕으로 만든 듯하다.

㉣한글과 오검 알파벳은 고립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발명되지도 않았고 아이디어 확산을 통해 만들어진 것도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두 사회 모두 문자를 소유한 사회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었으며 외부의 어떤 문자에서 자극을 받았는지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수메르의 설형문자와 최초의 중앙아메리카 문자는 독립적으로 발명된 것이 확실하다. 이들 문자가 처음 나타났던 시기에는 동서 어느 반구에도 자극을 줄 만한 다른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터 섬, 중국, 이집트 등지의 문자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7. 다음 글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맥루언은 자신의 핫&쿨(Hot&Cool) 이론을 통해 미디어에 의한 인간 형성의 변혁과 그 메커니즘을 밝히며 체계화를 시도했다. 핫한 미디어란 단일한 감각을 높은 수준의 정밀도까지 확장하는 것, 곧 데이터 면에서 충실한 것을 가리킨다. 반면 쿨한 미디어란 미디어가 가진 정보가 적고, 낮은 정밀도를 가진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사진은 시각적으로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시각적 정보가 많기 때문에 핫한 미디어가 된다. 또한 전화는 귀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라디오에 비해 훨씬 적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라디오에 비해 ㉠ 미디어로 불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정밀도가 낮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수용자 쪽에 파묻힌 부분이다. 이는 수용자 쪽의 참여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구텐베르크 이후 인간 문화의 핵심을 이루어 온 미디어는 인쇄물이라는 핫한 미디어였다. 핫한 미디어는 쿨한 미디어에 비해 수용자의 참여도가 ㉡. 기술사회는 주로 활자 미디어를 통해 달성되며, 교육의 보급을 전제로 한다. 이는 전문적이고 분화된 기술을 통해 부족을 해체시킨다. 그러나 전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분화적 전기 기술에 의한 미디어는 다시금 부족을 구성하게 된다. 높은 참여도가 거꾸로 참가하는 패턴의 분열을 낳은 것이다. 미디어에 대해 A라고 반응하는 타입과 B라고 반응하는 타입이 각각 개별적 문화부족을 형성한다.

- | | |
|------|------|
| ㉠ | ㉡ |
| ① 쿨한 | 낮다 |
| ② 핫한 | 높다 |
| ③ 쿨한 | 높다 |
| ④ 핫한 | 낮다 |
| ⑤ 쿨한 | 유사하다 |

18.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때 참말을 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갑돌, 을순, 병식, 정희, 무호는 각각 항상 참말을 하거나 항상 거짓말을 한다.

갑돌: 병식이는 참말을 하고 있어.

을순: 갑돌이와 병식이는 둘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

병식: 갑돌이는 참말을 하고 있어.

정희: 우리 중 적어도 2명은 참말을 하고 있어.

무호: 정희의 말이 거짓이면 나의 말은 참말이고, 정희의 말이 참말이면 나의 말은 거짓말이야.

- ① 갑돌
- ② 을순
- ③ 갑돌, 병식
- ④ 갑돌, 을순, 정희
- ⑤ 을순, 정희, 무호

1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전두피질은 뇌의 가장 앞부분에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계획 회로와 의사결정 회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뇌의 CEO라 할 수 있다. 또한, 충동과 동기를 통제하는 책임도 맡고 있다.

전전두피질은 피질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진화했으며, 다른 어떤 동물보다 인간의 뇌에서 가장 크다. 유난히 큰 전전두피질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진화상의 이점을 제공했지만 덤으로 골칫거리도 안겨주었다. 우울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 걱정과 죄의식, 수치심, 명료한 사고의 어려움, 우유부단함의 주범이 바로 전전두피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을 바꾸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며 의지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전전두피질은 수평과 수직 두 축을 따라 배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축에 의해 다시 사분면으로 나뉜다. 이 사분면은 요컨대 전전두피질의 위 중간, 위 옆면, 아래 중간, 아래 옆면이다. 물론 과학자들은 이런 말보다는 조금 더 멋진 말을 좋아해서 위쪽 부분을 ‘배’라 하고, 아래부분은 ‘복’이라 한다. 가운데(안쪽) 부분은 ‘내측’이라 하고, 양옆 부분은 ‘외측’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코는 눈보다 더 내측에 있는 셈이다.

전전두피질의 각 사분면은 서로 다른 기능 무리를 관장한다. 내측 부분들은 자아에 더욱 초점이 맞춰진 반면, 외측 부분들은 외부세계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평 차원을 따라가 보면 복측 부분들은 좀 더 감정적이고, 배측 부분들은 좀 더 이성적이다. 그러므로 전전두피질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배외측 전전두피질과 복내측 전전두피질 사이의 차이이다.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자아에 초점이 맞춰진 감정적인 부분이며, 동기 부여와 충동 조절에 특히 중요하다. ‘감정적’이라는 말이 어리둥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연계가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감정에 관해 생각하고 변연계는 감정을 느낀다고. 이에 비해 배외측 전전두피질은 외부세계에 대해 주로 생각하고,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진다.

우울증이 있으면 전전두피질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행동해야 할 어떤 동기도 느끼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복내측 전전두피질에서 세로토닌이 감소한 탓일 것이다. 계획을 세우거나 명료하게 사고하기가 어려운가? 그것은 어쩌면 배외측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한 영역이나 특정 신경전달물질계의 잘못이라고 지목하기가 어렵다. 대개는 몇 가지 영역과 신경전달물질계 사이에 일어난 의사소통의 결과이다.

- ① 전전두피질 중 내측 아래부분은 감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
- 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뇌 중 특정 영역의 활동에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 ③ 세로토닌이 감소할수록 동기 부여가 제한될 수 있다.
- ④ 전전두피질 중 충동 조절에 특히 중요한 부분은 자아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
- ⑤ 전전두피질은 뇌의 부위 중 감정을 느끼는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0.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안전조정제도는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동수로 선임한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전 중 찬성과 반대 입장 사이의 조정이 필요한 안전을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입법과정에 있어 다수결 원리의 기계적 적용에 의한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 소속 위원들의 안전심사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상대측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수용성을 전제로 한다. 강력한 정당 기속성 때문에 정당별 입장이 확고하게 사전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변화 가능성이 없고 안전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자율성이 없다면, 안전조정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사지연 수단의 하나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안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찬성과 반대 입장의 대등성은 기본적으로 양당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다당제하에서는 이러한 구성의 대등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대칭적으로 동수로 선임되는 제1교섭단체 소속이 아닌 위원 중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같은 입장을 가진 위원이 있다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대등하게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안전조정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하되, 구성 시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을 90일로 정한 것은 안전조정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면서도 안전심사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조정위원회의 구성일은 국회법 문언과 달리 안전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안전조정요구서가 제출된 시점으로 본다.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은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안전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조정안이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종료하게 된다.

- < 보 기 >
- ㉠. 안전조정위원회 구성 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안전조정위원회는 반드시 안전조정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90일까지 활동한다.
 - ㉡.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설정은 강력한 정당 기속성과 낮은 위원 자율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 안전조정요구서가 제출되었다면, 실제적으로 안전조정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시작된다.
 - ㉣.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A당 3인, B당 1인, C당 1인, D당 1인으로 안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와 A당 3인, B당 3인으로 구성한 경우를 비교하면, 전자보다 후자에서 구성의 대등성이 더 보장되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NFT의 정의를 보자.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한 인증서다. 디지털 토큰(token) 형태로 발행되어 해당 자산의 소유권(ownership),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그것이 원본임을 증명한다. 복사 또는 다른 NFT와 대체(맞교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도 한다. 바로 이 특성이 혁신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각종 유·무형 자산을 토큰화(tokenization)해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 토큰 이코노미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NFT는 가치 변동성, 사행성, 보안과 해킹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NFT는 소유권, 저작권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디지털화된 자산’은 이 NFT를 등에 업고 ‘유동화(securitization)’ 시장으로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그동안 유동화 대상 자산은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위주였으나, NFT를 도입할 수 있는 대상이 지식재산(IP)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에 없던 형태의 거래 발생이 점쳐진다. 거래는 소유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NFT가 지식재산의 소유권,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유동화 시장의 확장을 앞당길 것이다. 상대적으로 디지털화가 용이한 ‘저작권(그림, 음악, 사진 등 콘텐츠)’보다는 특허로 대변되는 ‘산업재산권’ 분야의 변화를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동화 구현은 지식재산의 권리(이용권, 소유권·저작권 등)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NFT로 분할·기록해 거래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NFT 기반 지식재산 유동화 시장 형성이 머지않았다. 그러나 국가 지식재산정책 어디에서도 NFT·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 거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NFT는 권리와 관련된 만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담 스미스 이래 자본주의 경제는 재화의 사적 소유를 강력히 인정해 왔다. 이때의 재화는 배타적 권리가 부여된 자산이다. 현재 NFT는 희소한 재화를 소유(수집)했다는 데서 오는 효용, 즉 만족감이 절대적이지만, NFT가 해당 재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증함으로써 거래와 투자를 일으켜야 ‘자산(asset)’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NFT 그 자체보다는 디지털화된 재화 및 그 재화를 소비하는 플랫폼(마켓 플레이스, 메타버스 등)이 결합되어 투자·거래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할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해진다. 최근 시장은 바로 이 잠재력에 주목하여 성장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처럼 디지털 토큰인 NFT가 자산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률상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도 볼 수 있을까? 이는 달리 말해 NFT를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금융위원회)는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는 지난 10월 28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 발표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의 결정과 다르지 않다. NFT는 암호화폐와 달리 투자나 지급·결제 수단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만약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된다면 「소득세법」 제64조의3제2항 등에 따라 양도·대여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NFT는 그 개념과 산업에서의 활용이 정립되어 가는 단계이므로 우선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는 NFT가 시장에서 투자나 거래 수단으로 기능하는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향후 규정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늘 규제라는 장벽을 마주한다. 그것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에는 공론화에 의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 적절한 수준의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

- ① NFT는 복사 또는 다른 NFT와 대체(맞교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킹의 우려로부터 자유롭다.
- ② 정부의 입장에 따라 때 NFT는 투자나 지급·결제 수단 및 가상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 ③ NFT는 희소한 재화를 수집했다는 데서 오는 만족으로 인하여 자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제공한다.
- ④ 산업재산권은 각종 저작권보다 디지털화가 용이하다.
- ⑤ 현재 국가 주도의 지식재산정책을 바탕으로 NFT 기반 지식재산 유동화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22. 국회 경내에 새로 생긴 식당 ‘어셈블리’는 가오픈 상태로, 국회 직원들의 예약을 받아 시식평을 들으려 한다. ‘어셈블리’는 총 다섯 팀(가, 나, 다, 라, 마)에 대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에 한 팀씩만 예약을 받으려 한다. 모든 팀은 한 번씩 예약을 해야 하며 예약을 하지 않는 팀은 없다. 예약은 각 팀의 모든 희망사항을 반영하여 이루어진다. 다음 대화에 따라 월요일에 예약될 팀을 고르면?(단, 각 팀은 자신의 회의날에는 예약하지 않는다.)

가: 저희 팀은 금요일에 예약을 원치 않습니다.
 나: 제가 대신 전달드리면 가 팀은 화요일 예약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저희 팀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중에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라 팀의 예약일로부터 이틀 후에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라: 나 팀과 저희 팀은 화요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목요일에는 예약을 원치 않습니다.
 마: 저희 팀은 수요일, 금요일 예약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 팀과 저희 팀은 목요일에 회의가 있습니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2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2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버섯은 독특한 향기와 맛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애용되는 식품이다. 세상에는 2만여 종의 버섯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은 1,800여 종에 불과하다. 버섯은 고단백·저칼로리 식품이면서 식이섬유, 비타민, 철,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한 건강 식품으로, 과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뛰어난 다이어트 식품으로 평가된다.

송이버섯은 독특한 향과 함께 씹는 질감과 맛으로 인해 사람들이 선호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송이는 성질이 고르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향기로우며 송기가 있고 산속의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나니 송기를 빌려 생긴 것으로 나무 버섯 중에 으뜸인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약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계절의 진미로 최고의 평가를 받는 식용 버섯이라고 할 수 있다.

표고버섯은 느타리과에 속하는 버섯으로 밤나무와 떡갈나무 등 죽은 나무에서 자란다. 향과 맛이 좋아 각종 음식의 재료로 널리 이용되는데, 생으로 이용하거나 말려서 사용한다. 표고버섯은 섬유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대변량을 증가시켜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고, 변비와 숙변을 예방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동맥경화를 막아 준다.

노루의 엉덩이 털과 닮아서 그 이름이 붙여진 노루궁뎅이버섯은 중국에서 항암, 소화 불량 치료 등을 위한 약용 버섯으로 활용된 식재이다. 만성 장염 개선, 면역 기능 증대, 치매 억제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쓴맛이 강해 대중적인 식재료로는 잘 활용되지 않았으며, 한방 약선요리나 궁중요리에 한정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건강 기능성,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식이섬유 등으로 인해 건강 식재료 각광받고 있다.

동충하초(冬蟲夏草)는 곰팡이의 일종인 동충하초균이 살아있는 곤충의 몸속으로 들어가 발생하는 곤충 기생성 약용 버섯으로, 동충하초균에 감염된 곤충은 버섯이 나오기 전까지는 죽어도 썩지 않고 '미라'처럼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삼, 녹용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알려진 동충하초는 기관지, 허리, 무릎관절 등을 보강하는 데 효과적이고, 항암효과와 면역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① 노루궁뎅이버섯과 동충하초는 약용 버섯으로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 ② 표고버섯은 죽은 나무에서 자란다는 점에서 죽은 곤충에 들어가 발생하는 동충하초균으로부터 얻어지는 동충하초와 유사하다.
- ③ 약용으로 사용되는 버섯은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④ 송이버섯과 노루궁뎅이버섯은 모두 쓴맛이 강한 버섯이지만, 송이버섯은 향이 좋아 사람들이 선호한다.
- ⑤ 『동의보감』에 따르면, 송이버섯은 맛이 달고 독이 없어 버섯 중에서 으뜸으로 평가받고 있다.

암호 방식은 최근 통신 이론의 한 분야로 정착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비밀리에 보관해야 할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아 암호 방식의 사용이 거의 없었으나,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 간의 이권, 그리고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과 개인 간의 이권에 따른 비밀 보전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암호 방식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광의의 암호는 비밀 통신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비밀 통신이라고 말할 때는 암호문(ciphertext)이 아닌 보통문장의 평문(plaintext)인 통신문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숨겨서 통신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의 머리를 깎아 통신문을 머리에 적어 머리카락이 길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제삼자의 눈에 발견되지 않게 상대방에게 노예를 보내 통신문을 전달하였다. 이후 수신자는 다시 노예의 머리를 깎아 통신문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암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통신문을 감춘다는 뜻에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 기법인 크립토그래피와 스테가노그래피를 혼동한다. 하지만 둘은 상이한 기법이다. 크립토그래피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작성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게끔 메시지를 작성하고 그 안에 비밀을 숨겨놓는다. 반면 스테가노그래피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매체 안에 메시지의 존재를 감춘다. 무해해 보이는 객체에 버섯이 비밀 메시지를 은닉해 전달하는 것이다.

한편 암호는 고대 암호와 세계 대전을 전후로 한 현대 암호 및 현대 암호로 나누어 변화를 거쳤다. 일반적으로 현대 암호가 연구되기 전의 고대 암호와 현대 암호는 문자의 위치를 바꿔 암호화하는 전치 암호(transposition cipher)와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는 환자 암호(substitution cipher) 그리고 환자 암호와 전치 암호를 복합한 적암호(product cipher)로 분류된다. 전치 암호가 주어진 문자들의 위치만 바꾸는 것이라면, 환자 암호는 각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는 암호 방식이다.

가장 오래된 암호 방식은 기원전 400년경 고대 희랍인들이 사용한 스키테일 암호이다. 이 방식은 전달하려는 평문 문자의 위치를 재배열하는 방식으로, 곤봉에 종이를 감아 평문을 횡으로 쓴 다음 종이를 풀면 평문의 각 문자의 위치가 재배치되어 평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한편, 로마시대의 시저 암호는 평문의 각 알파벳을 우측으로 3문자씩 이동시켜 다른 알파벳으로 바꾸는 암호 방식이다. 예를 들어 A는 D로, B는 E, C는 F, X는 A로 바꿔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꾼다.

- ① 암호 방식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국가가 형성되면서 암호 방식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 ②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하여 비밀을 숨겨놓는 것을 크립토그래피라 하고, 비밀정보를 매체에 은닉하여 정보의 존재 자체를 감추는 것을 스테가노그래피라 한다.
- ③ 시저 암호 방식을 사용한 암호문 'GARDEN'을 평문으로 복호화하면 'DXOABK'이다.
- ④ 노예의 머리를 깎아 통신문을 머리에 적고 머리카락이 길어지면 노예의 머리를 다시 깎아 밀서를 확인하는 방식은 스테가노그래피에 해당한다.
- ⑤ 고대 희랍인들이 사용한 스키테일 암호는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환자 암호에 해당한다.

2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필자의 생각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6.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그 어떤 윤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은,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수 많은 경우에 도덕적으로 의심스럽거나 위태로운 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정적 부작용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어느 선까지 윤리적으로 선한 목적이 윤리적으로 위태로운 수단과 부작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세계의 그 어떤 윤리도 말해 줄 수 없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폭력적) 강제성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볼 때 수단과 목적 간의 긴장이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미 전쟁 중에 하나의 원칙을 천명했는데 이 원칙을 요약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앞으로 몇 년 동안 전쟁을 더 계속 하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강화를 맺으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몇 년 동안 더 전쟁하기를 선택할 것이다.” 이에 연이어 “그럼 이 혁명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적 이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경제체제로의 이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단지 봉건적 요소와 왕조적 잔재들을 털어버렸을 뿐인 부르주아 경제체제가 다시 성립할 것이다.” 이런 하찮은 결과만 있을 뿐이지만 아직도 몇 년간 더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 경우에는 매우 확고한 사회주의적 신념을 가진 사람도 그런 수단을 요구하는 혁명이라는 이름의 목적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혁명적 사회주의에서는 상황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진영이 구체제의 폭력정치를, 그 수단의 폭력성을 이유로 해서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가소로운 일입니다. 비록 구체제 폭력정치의 목적들을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 < 보 기 >
- ㄱ.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당분간 전쟁을 지속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 ㄴ. 혁명 이후의 상황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이상적인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 ㄷ. 목적에 의한 수단의 정당화라는 원칙을 인정하더라도, 어떤 목적이 어떤 수단을 정당화하는지를 윤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 ㄹ.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의 수단은 전쟁의 지속이고 목적은 혁명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우주 공간에는 별의 재료인 가스와 먼지가 거대한 덩어리로 군데군데 모여 있다. 이들은 서로 간의 인력에 의해 점점 모여면서 커지게 되는데, 이것이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내부 온도가 높아지고 핵반응을 일으켜 별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별들은 엄청난 열에너지와 강렬한 빛을 내는 가스 덩어리라고 볼 수 있다.

빛은 전자기파라고 하는 파동으로 파장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이게 된다. 붉은색은 파장이 길고, 푸른색은 파장이 짧다. 물체에서 나오는 빛은 물질의 구성 성분이나 온도와 연관이 있다. 불꽃색으로 금속 원소를 구분하는 것은 물질에 따라 다른 파장의 빛이 나오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별에서 방출된 빛은 대기층을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원소에 흡수되는데, 지구의 실험실에서도 이와 동일한 흡수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별의 구성 원소를 밝혀내는 데 스펙트럼이 중요하게 이용된다. 헬륨(He)이 태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헬리오스(helios)에서 따온 것도 바로 지구에서는 아직 헬륨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태양의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 먼저 알려졌기 때문이다.

쇠를 가열하면 처음에는 아무런 빛도 방출하지 않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하얀색으로 환하게 빛을 낸다. 이와 같이 물체는 온도에 따라 다른 색의 빛을 방출하는데, 이는 별도 마찬가지다. 표면 온도가 3,000K 정도인 별은 붉은빛을 띠고, 약 6,000K에서는 태양처럼 노란색 빛을 방출하며, 8,000K 이상에서는 하얗게 빛나고, 30,000K를 넘으면 푸른빛을 낸다. 따라서 별의 스펙트럼형을 조사해 보면 별의 화학적 성분과 온도를 알 수 있게 된다.

1872년 헨리 드레이퍼가 최초로 별의 스펙트럼 사진을 찍어 천문학 연구에 도입한 이후, 피커링은 캐넌과 리비트 등 다른 천문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별의 스펙트럼을 활용한 HD 항성 목록을 만들었다. HD 항성 목록은 별을 온도에 따라 O, B, A, F, G, K, M 순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0~9까지 세분화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표면 온도가 약 6,000K인 태양은 G2형에, 10,000K인 시리우스는 A0형에 속한다. HD 항성 목록이 표면 온도만 고려했다면 여기에 광도까지 고려한 것이 바로 H-R도이다. H-R도는 별의 등급과 온도에 따라 별들을 2차원의 도표 위에 나타낸 것으로, 별들이 진화하는 과정에 따른 물리적 특성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항성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표로 덴마크의 헤르츠스프룽과 미국의 러셀에 의해 각각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

- < 보 기 >
- ㄱ. 스펙트럼을 통해 별의 구성 원소와 온도를 알 수 있다.
 - ㄴ. HD 항성 목록과 H-R도는 별을 구분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 ㄷ. 별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과 별의 표면 온도는 비례한다.
 - ㄹ. HD 항성 목록은 O에서 M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선시대 왕들은 국정을 처리하면서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수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왕의 창작 활동은 당시의 유교정치문화라는 기반 속에서 우러나왔다. 예컨대 왕의 작품을 대표하는 시, 서, 화는 유교정치문화의 핵심인 경연, 비답(批答) 등과 관련이 깊었다.

조선시대 왕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경연을 거행하였다. 이 같은 경연에서 왕은 사서삼경 등의 유교경전과 역사책을 공부하였다. 그 결과 왕이 공부한 책의 내용이나 토론내용이 독립된 책 또는 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실리기도 하였다. 경연에 참석했던 경연관들이 사사로이 남긴 『경연일기』라는 책도 상당수 있다. 왕 역시 경연에서 자신이 읽은 책의 목록, 터득한 지식, 비판 의견 등을 별도로 남기기도 하였다.

아침 조회 이후 승지를 비롯하여 공무가 있는 신료들이 왕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업무보고는 문서로 이루어졌다. 왕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는 8도의 관찰사들이 올린 것에서부터 중앙의 6조와 3사 관료들이 올린 공문서 그리고 수많은 양반과 백성들이 올린 상소문 등이었다. 상소문에 대한 비답이나 각각의 관서에서 올린 보고서에 대한 결재문을 왕이 직접 쓴 경우 이것은 공문서이기도 하고 또한 친필 작품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왕이 직접 창작한 작품들을 어제(御製)라고 하였고, 왕이 직접 쓴 글씨는 어필(御筆)이라고 하였다.

경연에 관련된 작품이나 비답 이외에도 왕이 창작활동을 할 기회는 많았다. 예컨대 지방관으로 발령받고 떠나는 관료들을 만날 때, 왕은 잘 하라는 당부를 하는데, 특별히 당부문을 작성해 주기도 하고 비밀지령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왕은 가족이나 신료들과 모인 자리에서 시를 짓는 경우도 많았다. 서로 시를 이어가는 연시(聯詩)를 비롯하여 각자가 따로 짓는 시도 있었다. 이외에 흥이 넘쳐 스스로 시를 지을 때도 있었다. 이처럼 왕이 직접 창작한 시들은 왕의 시작품이 되었다. 아울러 왕이 대비에게 칭송문을 지어 올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역시 왕의 작품이었다.

왕이 신료들이나 친인척들에게 편지를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궁궐이나 서원의 이름을 짓고 그 편액을 직접 쓰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그 증명서를 직접 써 주거나, 그림을 그려 남겨놓은 왕도 있었다. 이 같은 왕의 서간이나 편액 글씨 또는 재산문서, 그림 등은 중요한 문화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왕이 선왕의 능이나 지방의 온천에 행차하여 글을 지어놓은 것도 있었다. 나아가 『속대전』이나 『탁지정례』 같은 국가의 법전이나 『송자대전』 같은 개인 문집에 친필 서문을 쓰는 일도 있었다. 왕이나 대비 또는 왕족, 고관대작이 세상을 떠났을 때 왕이 짓는 제문(祭文)도 많았다. 나아가 특정한 개인의 자(字)나 호(號)를 직접 짓고 써 주기도 하고, 왕 스스로 자신의 호를 짓고 쓰기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왕의 작품들은 후대 왕에 의해 실록, 『국조보감(國朝寶鑑)』, 어제, 어필 등으로 정리, 편찬되었다. 실록은 후대 왕이 볼 수 없으므로 후대 왕으로서 긍지를 갖고 좋은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실록 중에서 좋은 내용만 골라 편찬한 것이 『국조보감』이었다. 이 같은 『국조보감』은 경연의 교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후대 왕은 실록과 『국조보감』을 편찬하면서 선왕의 어제와 어필을 함께 수집, 정리하여 대궐에 보관하였다. 이는 선왕의 치적과 학문을 세상에 드러내는 한편, 후손으로서 조상의 흔적을 길이 간직하겠다는 의미였다. 조선시대 역대 왕의 어제를 모아 놓은 것을 열성어제라고 하였고, 어필을 모아 놓은 것은 열성어필이라고 하

였다. 영조대 이후부터는 어제와 어필 중에서 시문 등을 골라 국왕 문집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왕의 작품은 왕의 개인적인 작품 수준과 궁중 문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대의 정치와 경제, 풍속, 유행 등을 두루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 자원이기도 하다.

※비답(批答): 상소에 대하여 임금이 내리는 답

<보 기>

- ㉠. 왕이 누군가의 문집의 서문을 직접 짓고 써주었다면 어제도 되고 어필도 될 수 있다.
- ㉡. 왕에게 올린 상소문에 왕이 친필로 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 ㉢. 선대 왕이 경연에서 토론한 내용을 후대 왕이 볼 수는 없었다.
- ㉣. 왕이 가족들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는 문화재라고 하기는 어렵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8.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는 서민화가들이 민간 수요의 제약·기복 등을 위해 그린 치레와 액막이 그림인 민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당시 경제상황은 민화가 특별히 조선 후기에 발전되고 확산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생산력 및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과 대외무역으로 인해 기술직 중인, 하급 관리, 시전 상인 등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확대된 사치소비 성향은 미술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기복호사 풍조를 조장하면서 집안을 치장하거나 세시와 의례 때 제약과 송축 혹은 장엄을 하기 위해 제작된 민화를 크게 범람시켰다. 따라서 신혼 부유층은 그림 생산을 촉진시키고 회화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기능하면서 민화를 유행시켰다. 이처럼 그림의 수요가 저변화됨에 따라 궁중·사대부의 장식그림에는 또 다른 미감의 새로운 형식들이 도입되었다. 결국 조선 후기 경제발전은 민화 수요를 창출하여, 궁중과 사대부가 주도하였던 기존의 화단과 함께 조선 후기 회화의 양대 축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민화는 당대 주류 회화인 궁중과 사대부 회화의 화풍과 소재를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이들 회화에서 주제를 취사선택하고 지속적으로 반복 생산하면서, 의식적인 변용과 무의식적 착오 혹은 창의적 덧붙임 등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대중적 집단 감수성을 표현하였다. 이로 인해 민화에서는 평면적 공간감이나 단순하고 도식화된 형태, 풍부한 상상력, 자유롭고 익살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현대적 감각 등 기존 회화에서는 볼 수 없는 참신하고도 새로운 감각의 독특한 조형세계를 이룩하였다.

민화는 사대부 감상회화의 영향으로 수묵민화도 있지만 채색민화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것은 화려한 채색과 길상(吉祥)적 의미가 강한 궁중회화의 영향을 주로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그림은 벽사·길상의 목적과 함께 액막이와 치레 및 장엄용으로 사용되었기에 짙고 화려한 농채가 주류를 이루었다. 민화의 소재는 다양하지만 그것들에는 부귀영화·장수·다산·번창·진경·벽사·만사형통·부부화합 등과 같은 길상성이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대부분의 민화는 길상화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민화가 크게 유행하고 확산되면서 왕실과 사대부층에서도 민화를 향유하였는데, 이러한 유행은 문화 전반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사찰 벽화, 건축물 장식, 나전칠기, 자수 등에도 민화가 응용되었다.

조선 후기 민화가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출현하였다면, 당시 길상문화의 성행은 민화의 융성을 촉발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길상 추구의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였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외적 요인으로 당시 청나라에 만연하였던 길상문화의 영향이다. 이는 18세기 중엽경 대두되었던 북학에 편승하여 중국의 물품뿐 아니라 문화까지도 폭넓게 수용한 결과이다. 중국에서 길상의 표현은 이미 상(商)·주(周) 시기 기원하여 발전하였는데, 특히 18세기 이후 청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융성하여, “그림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뜻은 반드시 길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미술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 후기 길상문화가 팽배하였던 또 다른 이유로는 몇 가지 국내적 요인이 있다. 먼저 양란 이후 조선 후기 사회의 기복신앙 변영을 들 수 있다. 더욱이 왕조 말에는 종말을 예고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더 원초적인 기복적 믿음에 의지하였다. 따라서 길상문화의 수요 또한 왕공 사대부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아래 자연스럽게 길상적 상징의 회화가 성행할 수 있었다.

이어 기복신앙 변영 이외에 경제적인 요인을 꼽을 수 있다. 18세기 후반 수도민의 80~90%가 상업에 종사하여 서울이 상업 자

본을 바탕으로 한 이익중시·물질중시 사회로 변모해간 것이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근대화로 경제적인 면에 관심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 역시 기복 추구의 길상적 도상들을 증가시켰다.

- ① 민화는 신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여 궁중·사대부가 중심의 기존 화풍과는 주제가 크게 상이하였다.
- ② 민화의 화려한 채색은 궁중·사대부가 중심의 기존 회화와 크게 차별화되는 점이였다.
- ③ 민화는 평면적 공간감, 단순한 형태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회화라는 단일한 형태로 유행하였다.
- ④ 왕조 말 종말을 예고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길상문화의 성행을 초래하였다.
- ⑤ 18세기 조선과 청나라의 길상문화는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유래 없는 현상이었다.

29. 다음 글의 ㉠~㉢에 해당하는 내용이 설명된 문단을 적절하게 짝 지은 것은?

30.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아래의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전제는?

인간 발전의 모든 국면에서 개인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모든 문화권은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수해 가는데, 이 과정이 곧 문해과정이다. 헌터(C. Hunter)와 하만(D. Harman), 프레이리(P. Freire) 등의 학자들에 따르면 문해의 개념과 수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프레이리는 이 단계를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단어가 진실로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행동은 반응과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단어를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 창조와 재창조, 결정과 선택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역사적 과정에 참여함이 결여될 때에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유네스코는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개인이 그가 속하고 있는 집단이나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습득한 능력이 자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상이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으나, 유네스코는 ‘이해를 하면서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이 단계를 터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헌터와 하만은 ‘익숙한 주제에 대해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개인이 자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떠한 표시, 숫자, 지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다) 헌터와 하만은 이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소비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사교모임이나 종교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자기들이 선택한 다른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단계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정보를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사회가 자기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능력과 그들이 직면하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은 문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 의사소통의 도구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 ㉡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습득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며, ㉢은 이러한 기능을 보다 광범위하고 고차원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 <진 술> —

아이를 잘 다루지 못하는 소아과 전문의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다. 아이를 잘 다루는 의사라면 누구나 공감능력이 뛰어나다. A는 공감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공부는 잘했다. A가 의사라면 소아과 전문의이거나 안과 전문의이다. A가 의사가 아니라면 A는 변호사이다. A가 변호사라면 A는 공감능력이 뛰어나다.

— <결 론> —

A는 안과 전문의야.

- ① 모든 변호사는 공감능력이 뛰어나거나 공부를 잘했을 거야.
- ② A는 아이를 잘 다루지 못해.
- ③ A는 돈을 많이 벌었어.
- ④ 돈을 많이 번 안과 전문의는 공감능력이 뛰어나지 않아.
- ⑤ A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A는 소아과 전문의일 거야.

- | | | | |
|---|-----|-----|-----|
| | ㉠ | ㉡ | ㉢ |
| ① | (가) | (나) | (다) |
| ② | (나) | (가) | (다) |
| ③ | (나) | (다) | (가) |
| ④ | (다) | (가) | (나) |
| ⑤ | (다) | (나) | (가) |

3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ㄷ
- ⑤ ㄷ, ㄹ, ㄷ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그 책임을 면제 혹은 감면하는 제도이다. 「감사원법」 제34조의3제1항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이다. 피감사인의 업무가 공익성에 부합해야 하고, 처리 방법·방식의 의도 및 동기도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업무의 적극적 처리’이다. 이는 공익을 위한 새로운 업무처리 방식 시도, 문제점 해소를 위한 신속한 필요적 조치 등 능동적·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의미한다. 즉, 피감사인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했거나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셋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다. 고의 또는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이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사전 컨설팅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면책한다.

적극행정면책의 유형은 직권면책과 신청면책으로 구분된다. 우선, 직권면책은 피감기관의 공식적인 신청이 없어도 감사원이 직권으로 해당 감사사항을 면책해주는 것이다. 직권면책은 감사현장(실지감사)에서 면책 검토 요청을 받거나 실지감사 중 직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현장면책’과 실지감사 종료 보고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재 과정에서 감사단 자체 판단 또는 결재권자의 면책 검토 지시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처리단계 직권면책’으로 구분된다. 현장면책의 과정은 감사 착수 시 현장면책에 대한 안내문 통지 및 설명, 면책 여부 검토 요청, 감사단 검토, 면책 여부 결정·통보로 이뤄진다. 다음으로, 신청면책은 실지감사 종료 후 피감사인 혹은 피감기관이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신청면책의 단계는 면책신청·접수, 감사권익보호관 및 감사부서 검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검토, 단계별 결재권자 검토,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다.

— <보 기> —

- ㄱ.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가 경미한 과실을 행한 경우,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통해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ㄴ. 명백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경미한 절차상 하자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통해 구제될 수 있다.
- ㄷ. 실지감사 중이라도 적극행정면책 사안의 경우 신청면책으로 구제될 수 있다.
- ㄹ. 실지감사 중 감사단 자체판단 또는 결재권자에 의한 면책 검토 지시에 따라 처리단계 직권면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 ㅁ.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3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첨단 신산업에 활용되는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광물자원 확보사업이 한계를 보이고, 각 국가별 수출규제 및 관세강화 조치 등에 따라 국제 자원시장 여건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도시광산 산업은 주요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핵심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도시광산은 ‘산업원료가 되는 금속자원이 제품 또는 폐기물의 형태로 생활주변에 소량으로 넓게 분포되어 양적으로 광산규모를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전지 등 금속자원을 주요소재로 사용한 제조업 생산제품은 모두 도시광산 자원 발생원에 해당한다. 수명이 끝난 발생원 내 함유된 철, 범용비철(구리, 아연, 알루미늄, 납), 귀금속(금, 은), 희소금속 등이 도시광산 자원 대상품목이다.

도시광산 산업은 도시광산 속에서 ‘해체·분류-파쇄-선별-정제련’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얻은 금속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이다. 도시광산 산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에서 금속물질을 분리·파쇄 및 선별하는 단계에 그치는 재활용 산업과 다르게 도시광산 산업은 정제련 단계로 이어지는 완전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폐전자제품·폐자동차 등 폐기물 중에서도 희소 금속자원 함량이 특히 높은 폐기물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자원생산성 향상 산업이다. 셋째, 천연자원 절약, 효율적 국토 이용, 환경오염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친환경적 산업이다.

일본은 핵심 희소금속 10종을 규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비축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도시광산을 통한 금속 재활용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통계구축, 기술개발, 정책제언’ 등 도시광산 정책 관련 중점적 역할을 경제산업성 주관하에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에서 담당하며, 환경성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중심으로 가전·소형가전·자동차 등 각종 품목별 자원재순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부 일본 제련기업들은 200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자원가격 급등 및 자원 확보 과열양상에 따른 제련사업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시광산 산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편, 아키타현에서는 폐금속 재활용 업체, 실증연구센터 및 국제자원대학교, 기타 관련 산업 등이 집적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에코타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순환경제촉진법」을 시행하여 자국의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11년에는 폐자원 수집체계 확립, 도시광산 산업 육성 등 주요 순환경제 중점 5개년 프로젝트를 수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도시광산 시범기지 50곳을 건설한 바 있다.

EU는 ‘자원순환사회’ 달성을 목적으로 「폐전기·전자제품 처리(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대다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 대상으로 규정하며, 폐자원 회수의무 및 관련 비용 부담 책임을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 ① 수명이 끝난 전기제품 내 함유된 알루미늄은 도시광산 자원 대상 품목이다.
- ② 정제련 단계가 없는 자원순환 시스템은 불안정한 자원순환 시스템에 해당한다.
- ③ 도시광산 산업은 산업원료가 되는 금속자원이 제품 또는 폐기물의 형태로 생활주변에 소량으로 넓게 분포되어 양적으로 광산규모를 가진 상태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금속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④ 일본은 석유 천연가스 금속광물 자원기구(JOGMEC)를 통해 10종으로 규정된 도시광산 대상품목에 대한 통계구축, 기술개발, 정책제언 등의 정책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⑤ EU의 폐전기·전자제품에 적용되는 오염자부담원칙은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폐자원 회수의무까지를 포함한다.

33. 다음 글의 문단을 <집필 의도>에 따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가) 사실주의는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시작된 문예사조다. 낭만주의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 정취나 회의와 우울에 빠져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비판하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려 하였다. 사실주의는 주로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소설의 영역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기 위한 사실적 기법과 삶의 실재성 인식을 중시하는 사실적 정신은 사실주의 문학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리 잡았다.

(나) 사실주의 문학에서 추구하는 객관성이란 대상으로서의 현실을 보는 자세와 관련된다. 이것은 문학의 창조적 주체인 작가의 개성을 강조하는 낭만주의와는 그 성향을 달리한다. 낭만주의가 고전주의에 반발하면서 개성을 강하게 옹호한 반면, 사실주의는 개성을 중시하기보다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묘사하는 객관적 인식을 중시한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로 인하여 사실주의 문학은 개인의 삶을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한 개인의 삶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지니며 사회적으로 확대된다. 이처럼 개인의 삶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역사적 관계를 떠나서는 삶의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

(다) 사실주의의 정신사적 배경으로는 19세기 유럽을 휩쓴 실증철학과 자연과학의 발전을 들 수 있다. 19세기에는 자연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과학적 관찰과 방법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사조가 지배적이었는데, 콩트의 실증철학은 사회적·역사적 현상에 대한 문제는 추상적 사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학적·실증적 방법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인간의 자유와 개성을 중시한 밀의 공리주의적 사회철학이라든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제기한 다윈의 진화론 등은 사실주의의 성립 기반을 이룬다.

(라) 사실주의 문학에서 강조하는 객관적 관찰과 사실적 묘사는 프랑스의 작가 플로베르(G. Flaubert)가 주장한 이른바 ‘일물일어설(一物一語說)’의 정신과 그대로 일치한다. 플로베르는 그의 제자인 모파상(G. Maupassant)에게 이 세상에는 똑같은 두 개의 모래가 없으며 두 마리의 파리도 없다고 충고한다. 사물의 이름에는 오직 하나의 명사, 움직임에는 하나의 동사, 그것을 형용하는 데에는 오직 하나의 형용사가 있을 뿐이므로, 작가는 바로 이 하나밖에 없는 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 플로베르의 지론이다.

(마) 사실주의 문학은 무엇보다도 삶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중시한다. 사실주의 작품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묘사하는 작법을 채택하며, 작중인물도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로 설정한다. 객관적 묘사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고자 하며, 인간의 환경적 요인과 부정적 측면마저도 사실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삶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도는 실증주의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더 이상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물학적 존재다. 그리고 그 삶은 사회적·역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탐구는 객관적인 사회과학적 방식에 의해 가능해진다.

<집필 의도>

이 글은 먼저 사실주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배경과 인식, 대표 작가를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 ① (가) - (나) - (마) - (다) - (라)
- ② (가) - (다) - (마) - (나) - (라)
- ③ (가) - (다) - (마) - (라) - (나)
- ④ (나) - (다) - (라) - (가) - (마)
- ⑤ (나) - (라) - (가) - (마) - (다)

3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한 사회적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의 소멸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97개(42.5%)이며, 지역을 세분화해 읍·면·동으로 보면 1,503개가 30년 이내에 소멸될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이 지정·고시되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소멸위기지역보다는 낙후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행 법률은 지역특성에 따라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등으로 유형화하여 차등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2024년까지 적용되는 성장촉진지역은 전국에 70개 시·군이 있다.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섬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단,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등이 있다. 접경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 의 15개 시·군이다.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은 총 371개이며, 이 중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183개이다.

일반농산어촌지역은 개발사업을 통해 농산어촌지역의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발전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이다. 일반농산어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하며, 현재 123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에 있는 읍·면 및 군(광역시외의 군은 제외) 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보 기>

-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97개이다.
-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이더라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일 경우 일반농산어촌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중 특수상황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188개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5. 다음 글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참·거짓이 분명하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동해물이 마르면 우리 기상은 불변이다. 나라를 사랑하면 괴롭거나 즐겁다. 가을 하늘이 공황하지 않으면 구름이 높지 않다. 우리 기상이 불변하지 않으면 바람 서리가 불변하지 않는다. 남산 위에 소나무가 푸르지 않으면 우리 기상이 불변하지 않는다. 가을 하늘이 공황하면 남산 위에 소나무가 푸르지 않다. 동해물이 마르면 남산 위에 소나무가 푸르지 않고 즐겁지 않다. 괴로우면 동해물이 마른다.

<보 기>

- ㉠. 동해물이 마른다.
- ㉡. 즐겁지 않으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 ㉢. 우리 기상이 불변이면 나라를 사랑한다.
- ㉣. 바람 서리가 불변하면 구름이 높지 않다.
- ㉤. 가을 하늘이 공황하지 않으면 즐겁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6. 다음 글에 따른 때 <보기>의 (A)~(D)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 지은 것은?

메타버스는 가상으로 강화(확장)된 현실세계와 현실처럼 지속하는(영구화된) 가상공간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메타버스의 특징을 가상세계(Virtual Worlds), 거울세계(Mirror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그(Lifelogging) 4개의 핵심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가상세계는 말 그대로 현실과 비슷하게 가상의 것을 만들어낸 환경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세계(Synthetic World)와 몰입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가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현물이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용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된다.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는 아바타를 통해 실제 환경을 모방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아바타 또는 에이전트와 공존하게 된다.

거울세계는 말 그대로 현실세계를 그대로 복제해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세계를 말한다. 거울세계는 가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현실에 기반을 둔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대로 디지털로 만들어져 가상세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거울세계는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컴퓨터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일반 가상세계 혹은 가상환경 공간과 유사하지만, 복제의 대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상세계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공간을 그대로 디지털 형태로 복제해 지도 서비스로 제공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더 빠른 경로를 제공하기도 한다.

증강현실은 가상의 대상물이 현실세계의 시각, 청각, 촉각에 중첩되어 정보 흐름을 증가시키는 혼합된 구조이다.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가상의 대상물을 구현하게 함으로써 실재(Reality)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실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이 결합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가상의 대상물이 현실세계에서 정확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QR코드를 인식하여 특정 웹사이트로 전환되거나 특정 정보를 보여주거나, 머리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능으로 시청 중인 영화나 비디오에 서라운드 사운드 환경을 구현하여 음성이 화면의 배우나 동작에 맞춰 3차원의 몰입형 음향으로 제공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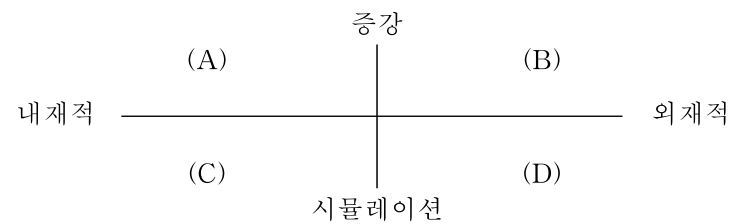
라이프로깅은 디지털로 저장되고 접근 가능한 기록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물이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온갖 종류의 기록물로, 사물과 사람의 기억, 관찰, 의사소통과 행동 등 일상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라이프로그는 센서가 수집한 일상생활의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수집, 처리, 반영하는 과정으로, 일상생활 데이터는 주로 사용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센서가 수집하지만, 사용자를 둘러싼 다양한 센서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다. 즉, 라이프로그는 사용자의 과거가 디지털화되어 사용자를 더욱 진짜처럼 만드는 증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보 기>

메타버스의 4가지 요소는 2개의 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X축은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로 구분되는데, 내재적 요소는 아바타(Avatar) 또는 실제 모습을 통해 사용자의 정체성과 행동을 나타내는 기술을 의미하고, 외재적 요소는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관한 정보와 통제력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즉, 내재적 요소는 사용자로, 외재적 요소는 사용자를 둘러싼 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Y축은 증강과 시뮬레이션으로 나뉘는데, 증강은 실제 환경에서 새로운 제어, 정보 시스템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기술을 말하고, 시뮬레이션은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으로 컴퓨터 그래픽 등을 통해 새로운 가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 | | (A) | (B) | (C) | (D) |
|---|-------|------|-------|-------|
| ① | 라이프로깅 | 증강현실 | 가상세계 | 거울세계 |
| ② | 라이프로깅 | 가상세계 | 증강현실 | 거울세계 |
| ③ | 라이프로깅 | 증강현실 | 거울세계 | 가상세계 |
| ④ | 거울세계 | 증강현실 | 가상세계 | 라이프로깅 |
| ⑤ | 거울세계 | 가상세계 | 라이프로깅 | 증강현실 |

3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술은 농산물로 만들기 때문에 지역의 술은 그 지역의 농산물로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기후와 토양에 따라 그 지역의 술이 대략 정해진다. 포도 농사가 잘되는 지중해 쪽엔 와인이,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서부, 벨기에 등 사과 농사가 잘되는 해양성 기후 지역에선 사이더가, 쌀농사가 잘되는 온난습윤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선 막걸리와 청주가 주요 주종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보리농사가 잘되는 지역에선 맥주 문화와 위스키 문화가 있다.

맥주와 위스키의 관계는 와인과 브랜디의 관계와 같고, 또 막걸리와 소주의 관계와 같다. 막걸리 또는 청주를 소줏고리에 넣어 증류를 하면 소주가 되는 것처럼 맥주를 증류기에 증류하면 위스키가 된다. 이때 쓰는 맥주는 몰트에 물을 부어 당화시킨 후 발효시킨 꾸덕한 질감의 맥주로 ‘워시(Wash)’라고 불리며, 우리가 흔히 마시는 향신료 홉(Hop)을 넣은 맑고 탄산이 팡팡 터지는 그런 맥주는 아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1기압 아래서 에탄올의 끓는점은 섭씨 78.4도로, 물의 끓는 온도인 섭씨 100도보다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워시를 증류기에 넣고 증류기의 온도를 이 두 온도 사이로 조정하면 증류기 반대편인 응축기에선 알코올 농도가 높은 액체가 담긴다. 그리고 이 증류 원액이 위스키의 원재료다.

위스키는 생산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위스키의 원조는 아일랜드이고 4~5세기부터 위스키를 양조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한 것만 스카치위스키라 이름 붙는다. 보리는 다른 곳의 것을 쓸 수 있으나 제조는 반드시 스코틀랜드에서 해야 한다. 아일랜드에서 만든 위스키는 아이리시위스키라 한다.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버번위스키(Bourbon Whiskey)와 호밀로 만든 라이위스키(Rye Whiskey)를 생산하는 미국이 3대 위스키 생산국이다. 이어 캐나다와 일본까지가 5대 생산국이다.

몰트를 주원료로 사용해서 당화, 발효, 증류 과정을 통해 추출한 증류 원액을 오크 통에 넣어 숙성하면 몰트위스키가 되는데, 문제는 이 싹을 틔운 보리, 즉 몰트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증류 방식의 효율성이 떨어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증류소 중 일부는 몰트의 함량을 최대한 낮추고 여기에 옥수수, 밀, 호밀 등 다른 곡물의 전분을 섞어 저렴한 위스키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이런 위스키를 그레이인위스키라고 한다. 여기에 1820년대 아일랜드에서 새롭게 발명된 ‘연속식 증류기’로 인해 시간 및 연료비를 절감해 수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몰트의 양을 최소화하고,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해 몰트 특유의 풍미가 많이 사라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때 블렌디드 위스키가 등장한다. 싱글 몰트의 풍미도 유지하면서 가격적인 면까지 고려한 것이었다. 풍미 좋은 몰트위스키 원액과 저렴한 그레이인위스키 원액을 섞은 것이다. 어떤 원액을 사용하고, 어떤 비율로 블렌딩하느냐가 핵심이었다. 한국인이 잘 아는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조니워커, 커티 삭, 원저 등 브랜드들이 바로 이 블렌디드 위스키다. 눈치챌겠지만 이들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전 세계 위스키 시장을 점령한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전통의 싱글 몰트위스키들이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다. 획일화된 위스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취향을 찾아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보 기>

- ㄱ. 와인을 증류해서 브랜디를 만들 수 있다.
- ㄴ. 스카치위스키는 위스키의 원조인 스코틀랜드에서 생산한 위스키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 ㄷ. 그레이인위스키는 대체로 싱글 몰트위스키보다 저렴하다.
- ㄹ. 보리 외의 농산물로도 위스키를 만들 수 있다.
- ㅁ. 연속식 증류기는 몰트의 풍미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 ① ㄱ,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ㄴ, ㄷ, ㅁ

38.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39.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핵산은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대 분자이다. 우리의 모든 유전자는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더 작은 단위체들로 이루어진 사슬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는 하나의 당 분자, 하나의 인산기, 그리고 하나의 질소 염기를 포함하고 있다.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두 종류의 핵산은 DNA(디옥시리보핵산)와 RNA(리보핵산)이다.

DNA는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두 핵산 사슬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종종 이중 나선이라고 한다. DNA에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 즉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이 있으며, 이들을 간략하게 A, C, G, T로 표시한다.

RNA도 DNA와 같이 질소 염기들에 부착된 하나의 당-인산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RNA는 세 가지 측면에서 DNA와 다르다. 첫째, RNA는 두 개의 가닥 대신에 하나의 가닥만 갖고 있다. 둘째, RNA는 디옥시리보스 대신에 리보스라는 당을 이용한다. 셋째, RNA는 타이민(T) 대신에 유라실(U)이라는 질소 염기를 이용한다.

DNA는 전사 과정에서 하나의 RNA 분자를 조립하기 위한 주형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RNA 분자는 번역 과정을 거침으로써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진핵세포에서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난다. DNA의 두 가닥이 분리되고, 한 가닥은 RNA 전사 산물을 합성하기 위한 주형으로 작용한다. 한 유전자의 시작과 끝을 표시해주는 DNA의 특정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은 전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RNA 전사 산물의 조립은 타이민(T) 대신에 유라실(U)을 이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DNA에서 확인된 동일한 염기쌍 법칙을 따른다. 그러므로 DNA에 A, C, G, T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RNA 전사 산물은 각각 ㉠, G, C, 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갖게 된다. 각각의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DNA 가닥의 상보적인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에 염기쌍을 형성하면, RNA 중합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성장 중인 RNA 분자에 뉴클레오타이드를 첨가한다. 전사가 일단 완료되면 ㉡는 이중 가닥으로 다시 채워지고, RNA 전사 산물은 가공 과정을 시작한다.

가공 과정에서 RNA 전사 산물은 언제라도 번역이 가능한 성숙된 mRNA(messenger RNA) 분자가 된다. 첫 번째, 단백질 합성에 필요 없는 인트론이라는 일정 길이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제거된다. 이때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는 엑손이라는 일정 길이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은 남는다. 이것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초고에 있는 “죽을느냐 살느냐?”라는 구절에서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제거되어야만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맞춤법에 맞는 글이 남는 것과 같다. 과학자들은 ㉢이 왜 존재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모자와 꼬리가 RNA 분자의 시작과 끝 부분에 첨가된다. 모자와 꼬리는 세포가 그 분자를 mRNA로 인식하게 해준다. 일단 가공 과정이 완료되면 mRNA 분자는 세포의 핵으로부터 세포질로 이동하여 단백질 합성을 위하여 ㉣ 된다.

-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거나 호기심이 많다.
- 스스로를 성찰하는 사람은 독서를 좋아한다.
-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스스로를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고, 결국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
- 고민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지만, 고민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
-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민이 있다.
- 나영이는 호기심이 많지 않다.

<보 기>

ㄱ. 나영이는 고민이 없거나 생각이 깊을 것이다.
 ㄴ. 나영이가 도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깊을 것이다.
 ㄷ.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한계를 느낄 것이다.
 ㄹ. 나영이가 생각이 깊지 않다면 고민이 없을 것이다.
 ㅁ. 고민이 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다.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ㅁ
- ⑤ ㄷ, ㄹ, ㅁ

| | | | | |
|---|---|-----|-----|----|
| | ㉠ | ㉡ | ㉢ | ㉣ |
| ① | T | DNA | 인트론 | 번역 |
| ② | T | RNA | 인트론 | 전사 |
| ③ | U | DNA | 인트론 | 번역 |
| ④ | U | DNA | 엑손 | 전사 |
| ⑤ | U | RNA | 엑손 | 전사 |

4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법안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법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추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즉, 입안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자를 적절히 통제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국회는 1973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예산명세서 첨부실적은 제13대 국회에서 제16대 국회까지 총 의원발의 법안 수 대비 3.8%(121건/3,171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1999년에 재정소요 추계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추계서의 첨부실적이 높지 않았다.

비용추계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제17대(2004.5.~2008.5.) 국회부터이다. 2005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명세서’라는 용어를 ‘비용에 대한 추계서(이하 비용추계서 또는 추계서)’로 표현을 변경하고, 의원발의 의안 외에 위원회제안 의안과 정부제출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부터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하였고, 정부의 경우에도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2007년부터 정부제출안에 적용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 7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4년 3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2015년 3월부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및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수반 안건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의안 발의·제안의 적시성 및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한 후 위원회 심사 전까지 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수반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용추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발의하려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하고, 회답받은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의원이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법안을 우선 발의하려는 경우로,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발의하려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요구하고, 비용추계요구서를 법안에 첨부하여 발의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의원은 이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회답받은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안비용추계는 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입안단계 후에 검토하여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 ② 1973년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 예산명세서를,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 재정소요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 ③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한 경우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한 후 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비용추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추계요구서로는 법안 발의를 할 수 없다.
- ⑤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업무가 시작되었고, 2005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발의 의안 외에도 위원회제안 의안, 정부제출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2022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 정답표(가)

| 가형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 | 헌 법 |
|-----|------|------|------|-----|
| 문1 | 5 | 4 | 2 | 3 |
| 문2 | 2 | 4 | 4 | 5 |
| 문3 | 5 | 2 | 3 | 4 |
| 문4 | 5 | 4 | 5 | 1 |
| 문5 | 1 | 4 | 2 | 4 |
| 문6 | 4 | 5 | 2 | 2 |
| 문7 | 3 | 3 | 5 | 4 |
| 문8 | 4 | 3 | 5 | 5 |
| 문9 | 2 | 1 | 1 | 1 |
| 문10 | 1 | 3 | 1 | 2 |
| 문11 | 4 | 1 | 5 | 3 |
| 문12 | 5 | 2 | 3 | 2 |
| 문13 | 4 | 5 | 3 | 5 |
| 문14 | 3 | 4 | 4 | 2 |
| 문15 | 5 | 2 | 1 | 2 |
| 문16 | 4 | 5 | 1 | 1 |
| 문17 | 1 | 3 | 5 | 3 |
| 문18 | 2 | 2 | 4 | 4 |
| 문19 | 2 | 4 | 4 | 3 |
| 문20 | 3 | 5 | 2 | 5 |
| 문21 | 2 | 2 | 1 | 1 |
| 문22 | 1 | 2 | 3 | 4 |
| 문23 | 1 | 3 | 3 | 3 |
| 문24 | 5 | 5 | 4 | 2 |
| 문25 | 5 | 전원정답 | 4 | 4 |
| 문26 | 2 | 1 | 4 | |
| 문27 | 1 | 5 | 2 | |
| 문28 | 4 | 3 | 3 | |
| 문29 | 3 | 4 | 2 | |
| 문30 | 3 | 2 | 1 | |
| 문31 | 3 | 2 | 4 | |
| 문32 | 4 | 1 | 1 | |
| 문33 | 2 | 3 | 2 | |
| 문34 | 4 | 4 | 3 | |
| 문35 | 4 | 3 | 3 | |
| 문36 | 1 | 2 | 1 | |
| 문37 | 2 | 5 | 3 | |
| 문38 | 3 | 1 | 4 | |
| 문39 | 3 | 3 | 5 | |
| 문40 | 5 | 4 | 2 | |

1.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단은 주어와 술어와의 관계로 사유되며 모든 판단에 있어서 이 관계는 두 가지로 가능하다. 하나는 술어 B가 주어 개념 A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서 주어 A에 속하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B가 A와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B가 개념 A의 밖에 있는 관계이다. 나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분석판단’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종합판단’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분석판단은 술어와 주어와의 결합이 동일성에 의해서 사유되는 판단이지만, 종합판단은 이 결합이 동일성 없이 사유되는 판단이다. 우리는 전자를 ‘설명적 판단’, 후자를 ‘확장적 판단’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술어에 의해 주어 개념에 아무것도 덧붙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분석을 통해 주어 개념을 이미 그 안에서 사유되었던 부분 개념으로 나누는데 불과하지만, 그에 반해서 후자는 주어 개념 안에서 전혀 사유되지 않아서 그 개념을 아무리 분석해도 이끌어내어질 수 없는 술어를 주어 개념에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석판단이다. 왜냐하면 ‘공간을 차지함’이 물체와 결합되어 있음을 알기 위해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물체라는 개념을 넘어서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이 물체라는 개념을 분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게를 가짐’이라는 술어는 내가 물체 일반이라는 단순한 개념에 있어서 사유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술어를 덧붙이면 종합판단이 된다.

경험판단 그 자체는 모두가 종합판단이다. 즉 분석판단을 경험위에 정초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왜냐하면 분석판단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나의 개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경험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함은 선천적으로 확실한 명제이고, 경험판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에로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나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모든 제약을 이미 개념 속에 가지고 있어서 이 개념으로부터 모순율에 의하여 술어를 이끌어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서 물체 일반이라는 개념 속에는 ‘무게를 가짐’이라는 술어가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지만, 물체라는 개념은 경험의 한 부분을 통해서 경험의 대상을 표시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동일한 경험의 다른 부분을 먼저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덧붙일 수가 있다. 물체라는 개념에 사유되어 있는 ‘공간을 차지함’, 불가침입성, 형태 등의 특징에 의하여, 나는 이 물체라는 개념을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야 나는 나의 인식을 확장한다. 즉 나는 내가 물체라는 개념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돌아다봄으로써 ‘무게를 가짐’이라는 것도 항상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과 결합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따라서 이것을 술어로서 물체라는 개념에 종합적으로 덧붙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게를 가짐’이라는 술어와 물체라는 개념을 종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경험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은 서로가 다른 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전체의 부분으로서 비록 우연적이지만 함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 ① 종합판단이 모두 경험판단인 것은 아니다.
- ② 설명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어의 개념으로부터 모순율에 의하여 술어를 이끌어내기만 하면 된다.
- ③ ‘물체’라는 개념에는 ‘형태를 가짐’이라는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 ④ ‘물체’라는 개념으로부터 모순율에 의해서 ‘공간을 차지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
- ⑤ ‘물체’라는 개념과 ‘무게를 가짐’이라는 개념의 결합은 동일성에 의해 사유될 수 있다.

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최하위 계층이자 노동력을 제공하여 사회의 생산성을 유지시키는 수단이었다. 노예는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폭력 등 물리적 통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고대 로마에서도 노예의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 체벌, 고문, 감금 등의 폭력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회들과 달리 로마에서는 제도를 통한 신분 해방과 사유재산의 보유가 가능했다. 로마의 노예들은 성실함에 대한 보상, 주인과의 결혼, 사망한 주인의 유언 등의 방법으로 자유를 얻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데, 이들을 ‘해방 노예’라고 불렀다.

노예의 해방 조건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초기 제도에 따르면 5세 이상의 아들이 있고 3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노예만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사병의 연봉이 480 세스테르티우스였음을 감안하면 재산 소유 기준을 충족하기는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이후 한번에 100명 이상의 노예를 유언으로 해방시킬 수 없다는 규정과 해방 시 소유주는 20세 이상, 대상 노예는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제도의 수혜를 받은 노예는 많지 않았을 것이나, 이와 같은 제도는 노예라도 자유와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제도는 노예를 통제하기 위한 회유책의 하나였지만, 계층 간 이동성을 보장하고 해방 노예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로마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신분 이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고대 로마의 제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몇몇 귀족들은 자신의 고향에 정착하려는 청년들이나 빈곤한 아동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재산을 기증하였다. 네르바 황제는 이와 같은 개인적인 육영사업을 ‘알리멘타’라는 국가 주도의 육영제도로 도입하였다. 이처럼 로마에서는 가난한 집안 아이들의 자립을 위한 육영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이는 고대 국가로서는 파격적인 제도였다. 『로마문명사』에 따르면 로마 정부는 토지 평가액의 12분의 1을 농민에게 빌려준 뒤 그 이자로 알리멘타 운영 기금을 마련하였다. 적출 남자는 매달 16 세스테르티우스, 적출 여자는 12 세스테르티우스, 서출 남자는 12 세스테르티우스, 서출 여자는 10 세스테르티우스를 보조받았다.

알리멘타는 40개가 넘는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지급된 돈은 상환할 의무가 없었다. 저소득층에게는 또한 매달 30kg의 식량이 무상으로 지급됐다. 후대에 세베루스 황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도 했으며, 제국 전역에 초등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2000여년 전 로마인들은 이미 복지가 지출이 아니라 사회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 ① 다른 고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의 노예는 체벌의 대상이면서도 성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사유재산 보유가 가능했다.
- ②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대 로마는 저소득층을 위한 농지 구입 자금 대출에 있어서 적출을 서출보다 우대하였다.
- ③ 고대 로마의 노예 해방 제도는 사회 통합 정책의 성격이, 알리멘타는 사회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성격이 있었다.
- ④ 국가 주도로 시작된 고대 로마의 육영사업은 저소득층의 신분 상승을 가능케 하여 계층 간 이동을 촉진하고 로마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 ⑤ 50명의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고대 로마의 귀족 甲(60세)이 사망하면서 모든 노예를 해방하라는 유언을 남긴 경우, 甲 소유의 노예 乙(40세)은 반드시 시민권을 얻는다.

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근대적 재정제도는 ‘조세금납제’를 최초로 시행한 1894년 7월 갑오경장으로부터 시작한다. 조세금납제는 재화와 용역으로 수취하던 조세를 화폐의 형태로 전환한 것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은본위 화폐제도를 채택하며 1냥(兩)=10전(錢)=100분(分)의 화폐단위를 사용하였다.

갑오개혁으로 189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흥범 14조가 제정·반포되었다. 흥범 14조에서 근대적 재정제도의 개혁을 위한 조항은 제6~9조에 규정되어 있었다. 제6조는 ‘부세(賦稅)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확립하였다. 제7조는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고 하여 세입과 세출을 단일 관청으로 통합하였다. 제8조는 ‘왕실은 술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고 하였으며, 제9조는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하여 회계연도를 1년으로 규정하였다.

흥범 14조에 이어 ‘회계법’(1895년 3월 20일, 법률 제2호)이 제정되었으며, 또 칙령으로서 수입규정, 지출규정이 각각 제정되었다. 회계법 제11조에 의하면 예산은 경상 및 임시부로 대별되고 이는 다시 관·항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당시 대한제국의 회계법은 일본 제국의 회계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이 회계법은 이후 칙령 또는 부령으로 제정된 각종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해 보완되었던 것이다. 이들 규정은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되어 일본회계법이 적용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1910년 9월 일본천황의 칙령 제406호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이 공포되고, 이의 시행을 위하여 칙령 제407호로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규칙’이 전문 11조로 제정되었다. 특별회계 규칙에 따라 ‘조선총독부 회계사무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전문 252개 조로서 70종의 서식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일본제국의 예산제도에 편입되어 조선에 적용할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의 회계법과 규칙을 따르게 되었다.

해방과 함께 1945년 9월 우리나라에 진주한 미군정청은 ‘구일본총독부의 행정제도가 대체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실제적으로 유용하며 대민행정을 운용·취급함에 있어 표준적 전력이 된다는 이유’로 구 일본식 제도를 채택하였다. 미군정은 일본의 행정조직과 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예산회계제도를 답습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형식을 택하였다. 미군정하에서도 예산제도의 법적 기초는 일본제국의 회계법이라 할 수 있다.

- ①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규칙’ 및 ‘조선총독부 회계사무 규정’ 모두 일본천황의 칙령을 그 형식으로 하여 공포되었다.
- ② 흥범 14조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재정제도가 시작되었다.
- ③ 적어도 50년 이상 우리나라의 예산회계제도는 일본 회계법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 ④ 흥범 14조는 ‘재정제도의 헌법’으로서 1895년 제정된 회계법과 마찬가지로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재정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 ⑤ 미군정청은 구 일본식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예산제도는 대한제국의 회계법에 기초하고 있다.

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RE100 캠페인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을 의미한다. 캠페인은 2014년도에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연합하여 개최한 뉴욕시 기후주간(NYC Climate) 2014에서 발족되었다. 기업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둘째, 최종적으로는 기업이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사업장 및 사무실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셋째, 각 기업은 매년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목표량에 대한 달성 수준을 CDP에 보고하여야 한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스스로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거나(자체 생산), 외부로부터 재생 전력을 구매(외부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 기업들은 초기 설비 투자비용이 큰 자체 생산 방식보다는 외부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는 경향이 높다. 외부 구매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개별적인 전력구매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 별도의 요금제(일명 ‘Green Pricing’)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에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사업장이 속한 국가별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각 기업들의 캠페인 참여 유형은 다양하다.

2014년 캠페인 시작 이후 캠페인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월 기준으로 금융, IT,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122개 기업이 참여 서명을 하였다. 재생에너지 사용 100%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고자 하는 연도는 각 기업별로 상이하며, 캠페인 참여 기업 중 일부인 25개 기업은 이미 2016년 말에 100%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현재 캠페인 참여 기업들의 본사 위치는 대부분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으나, 인도·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관련 제도 및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장이 아닌 국내 사업장에서 본격적으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아직 없다.

RE100 캠페인은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들과의 전력구매계약, 대용량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자본금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직접적으로 유입된다. 또한 유명 대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일종의 개런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들이 은행 융자를 보다 수월하게 받는 등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향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해당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및 글로벌 이미지 등을 결정하는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미진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해외 거래 중단 및 글로벌 불매 운동 등의 수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협력 업체 및 납품 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 ① RE100 캠페인의 참여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기업은 보유한 전 세계 모든 사업장 및 사무실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 ②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스스로 사용할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적다.
- ③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기업의 수는 2016년 말에 비해 2018년 1월에 97개 증가하였다.
- ④ 국내 제도 및 여건의 상황이 현 상태로 유지될 경우, 향후 국내에 사업장을 둔 우리나라 부품 제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해외 거래 중단 및 글로벌 불매 운동 등의 수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⑤ RE100 캠페인은 상당 규모 자본금의 직접 유입과 금융시장에 대한 일종의 개런티 제공 기능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5.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조 건 >

- 甲~戊는 A~E 사이의 통화 내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甲~戊 5명 중 4명의 진술은 참이고, 1명의 진술은 거짓이다.
- 통화는 일대일로 이루어진다.
- 甲: A가 B와 통화하지 않았다면, B와 C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 乙: B가 D와 통화하지 않았다면, E가 D와 통화하였거나 A가 D와 통화하였습니다.
- 丙: C가 B와 통화하였거나, D와 E가 통화하였습니다.
- 丁: A와 B가 통화하지 않았고, A와 C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 戊: 집에 손님이 잠시 방문하는 바람에 E는 D의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 보 기 >

- ㄱ. 乙의 진술은 반드시 참이다.
- ㄴ. B가 D와 통화하였을 경우, D는 E와 통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 ㄷ. 丁의 진술이 거짓인 경우, 가능한 통화 조합은 96가지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6. 다음 글의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아와 신체와 세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의 질문을 생각해 보자. 자아는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세계는 자아의 외부에 존재하는가? 먼저 자아가 있다고 인정해 보자. 생리학적 지식에 따르면 자아가 느끼는 모든 감각은 자신의 신체가 겪는 물질적 변화들과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지닌다. 따라서 신체가 파괴되면 자아도 해소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세계가 자아의 외부에 존재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아를 이루는 경험적 요소들과 세계를 이루는 경험적 요소들은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계라는 말이 지칭하는 것은 모두 자아를 이루는 바로 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세계라는 복합체는 자아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신체라는 복합체는 세계라는 복합체의 한 부분이다. 이로부터 (가) 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세계는 아주 작은 한 부분을 파괴하기만 해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슈뢰딩거는 이러한 결론이 터무니없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위의 결론이 다음의 암묵적 논리와 모순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나) . 그런데 신체는 세계의 부분이므로 신체가 없어져도 세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명제는 앞에서 도출한 결론과 모순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세계가 자아의 부분이라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아의 신체가 세계의 부분이라고 보는 데서 나온다.

(다) 면, 자아의 신체가 파괴된다고 해서 세계도 사라질 이유는 없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 한 가지 역설이 나타난다. 두 개의 구별되는 신체인 갑과 을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갑을 어떤 외적인 상황으로 데려가면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데, 가령 정원 풍경이 보인다고 하자. 한편 을은 캄캄한 방에 있다. 이제 갑을 캄캄한 방에 넣고 을은 갑이 있던 상황으로 데려가면, 정원 풍경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캄캄해진다. 갑은 나의 신체이고 을은 다른 사람의 신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순은 명백하다. 세계의 존재 속에서 자아의 신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체는 언제나 고유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 <보 기> —
- ㄱ. 부분이 없어져도 전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 ㄴ. 자아의 신체가 죽으면 세계는 사라진다
 - ㄷ. 자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세계만을 인정할 수 있다

| | (가) | (나) | (다) |
|---|-----|-----|-----|
| ① | ㄱ | ㄴ | ㄷ |
| ② | ㄱ | ㄷ | ㄴ |
| ③ | ㄴ | ㄱ | ㄷ |
| ④ | ㄷ | ㄱ | ㄴ |
| ⑤ | ㄷ | ㄴ | ㄱ |

실체는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즉 다른 어떤 것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 외부에 자기 존재를 간섭하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다. 실체의 본질은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체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체의 속성들을 알아야 한다. 실체는 실체 외부의 사물이 아니라 실체에 내재하는 속성을 통해서 파악해야 하는데, 실체란 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것의 개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체의 속성은 무한히 많다.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속성, 즉 길이, 크기, 운동의 변화와 같은 것을 연장속성이라고 한다. 한편 감정이나 생각이 품고 있는, 크기도 길이도 없는 것의 공통 속성을 사유속성이라고 부른다. 실체의 본질은 최소한 연장속성과 사유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태란 실체가 변화한 것으로서 인간, 동물, 책상, 구름, 바람, 식욕, 지구, 우주와 같은 만물을 지시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인 사물들로 이뤄져 있으며 결코 실체일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양태는 실체의 변용이라고도 하는데, 실체의 창조물이 아니라 실체가 자신을 변화시켜 만들어낸 상태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양태를 알기 위해서는 실체와 속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사물들은 속성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거나 양태의 차이에 의해서 구별된다. 책상과 컵이라는 두 사물은 크기와 모양의 차이에 의해 구별되지만 연장속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속성의 동일성 하에서도 구별이 가능한 것이 바로 양태들이다. 다수의 인간들은 동일한 연장속성과 사유를 갖고 있음에도 분명히 구별되는 데 이것을 양태적 구별이라고 한다.

반면 속성이 다르면 서로 다른 실체다. 그렇다면 하나의 속성을 공유하는 실체가 여럿 있을 수 있을까? 이 경우 두 실체는 속성이 동일하므로 양태상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속성을 가진 실체를 양태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실체를 사실상 양태로 간주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자연 안에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갖는 둘 이상의 실체는 없다. 실체들 사이에는 공통성도 없고 인과관계도 없으며, 실체는 최소한 다른 실체로부터 산출되면 안 되는 성격을 가진다. 스피노자는 이를 ‘자기원인’이라고 하는데, 자기원인이란 그 본질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서가 아니고는 그 본성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 <보 기> —
- ㄱ. 인간은 자기 외부에 자기 존재를 간섭하는 그 어떤 것도 두지 않는다.
 - ㄴ. A와 B가 스스로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사실과, A가 발생하여야만 B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서로 모순된다.
 - ㄷ. 책상은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 있지만 선망하는 감정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만 구분할 수 있다면, 책상과 선망은 양태적으로 구별된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8. (가)~(라)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법안비용추계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를 거친다.

추계대상 조항의 의미와 사업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고, 각 추계대상별 추계산식이 결정되고 난 후에는 추계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가 한정되어, 추계자는 필요한 자료만을 수집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 비용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가)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 자료가 없다면 이와 상관관계에 있는 자료, 즉 목표로 하는 자료를 유추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직접 자료를 생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료가 수집되면 수집된 자료를 추계산식에 대입하여 연도별 및 총소요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비용추계의 방식은 법률안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제정법안이나 전부개정법안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과 같으므로 무(zero)에서부터 비용이 추계되나 수정법안의 경우에는 추가 지출소요를 추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소요비용을 구하고 추가로 기존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소요비용을 구한다.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법안비용추계를 할 때는 의뢰된 해당 법안의 어느 조항이 시행될 경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지, 기존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소요재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분석하여야 한다.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안 자체의 문리적 해석 외에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물론 관련 부처 및 기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법안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부칙에 의해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라) 한편,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이라고 하여 모두 추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조항이 이미 예산이나 기금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라면 추계대상이 아니지만, 의뢰자가 사업확장을 염두에 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예산이나 기금 사업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되, 이 경우 의뢰자의 의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 비용추계서 작성이 완료되면 비용추계서 검토가 진행된다. 비용추계서 검토는 단순히 추계서가 잘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의 세 단계를 거치는 동안 오류는 없는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피고 필요하면 다시 이전 단계로 환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무리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비용추계서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된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재정수반여부 확인 결과 재정이 수반되더라도 일정 사유에 해당되어 추계서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추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추계대상을 확인하고 그 의미가 명확히 밝혀지면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추계항목에 대해 어떻게 추계할 것인지, 그렇게 추계할 경우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에서 설계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설계에 따라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다.

(라) 우선 재정수반요인별 예비조사를 통해 기존 추계사례가 있는지, 유사사업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집행을 가정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집행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특정 집행방식을 가정하면 그에 따라 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한정되는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며,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등의 계획을 세운다. 즉 집행 시나리오를 토대로 집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항목을 확인하고 각 추계항목별로 추계산식을 세우면 업무량, 단위 원가, 집행률, 신청률 등 추계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엮어서 추계할 것인가(추계산식)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추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한정되면 각각의 자료가 현실적으로 수집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수집이 불가능하여 추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① (가) - (나) - (라) - (다)
- ② (가) - (라) - (나) - (다)
- ③ (나) - (가) - (라) - (다)
- ④ (나) - (다) - (가) - (라)
- ⑤ (나) - (라) - (가) - (다)

9.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인간관계에 대해 속만 태우고 있던 내게 누군가가 권해준 책이 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다. 1936년에 출간되어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인간관계의 바이블로 읽히는 책이다. 내 반응은 시큰둥했었다. 1930년대라니, 현대 심리학이나 뇌과학의 뒷받침도 없이 그냥 동네 어른들의 좋은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 아닐까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들의 장점을 보아주고 사랑하세요’, 뭐 이런 소리 아닐까 싶었다.

그래도 훑어나 보자는 마음으로 앞부분을 넘겨보았는데, 본문 첫 장을 읽고는 내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1930년대에 쓰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첫 장을 요약하면 인간이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동물이니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름이 끼쳤다. 평소 내 생각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세요’와 정확히 정반대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31년 검거된 악명 높은 살인마 ‘쌍권총 크로우리’의 얘기로 시작된다.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관에게 총을 무차별 난사하여 살해한 사람이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후에도 참회하기는커녕, 경찰로부터 단지 ‘나를 방어한 대가’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흉악범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은 비난받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며 자기를 합리화하려 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대체로 고슴도치가 가시를 세우는 모드 전환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깨끗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이도 있을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건 너무 낮은 확률의 기대이다. 그런 기대를 할 바에야, 아예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말고 냉정하게 내가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있거나 한지 생각해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데일 카네기는 링컨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한다. 링컨은 젊어서는 참지 않고 신랄하게 남을 공격하는 성격이었다. 그러다가 격분한 상대방의 결투 신청으로 죽을 뻔한 후로 마음을 고쳐먹고는 절대 남을 비난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다. 남북전쟁 중에 망설이다가 링컨의 공격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령관이 있었다. 링컨은 격노해서 그를 질책하는 편지를 썼지만, 결국 부치지 않았다. 사령관을 교체할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최전방에 있는 그를 질책해보았자 자기 기분만 잠시 후련할 뿐,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사령관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링컨을 비난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내부 분열만 발생한다.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데일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 기본적인 테크닉 중 첫걸음으로 ‘비판이나 비난, 불평을 하지 말 것’이라고 제시한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데일 카네기는 어차피 인간 본성은 바뀌지 않으니 무의미한 비판, 비난, 불평은 피하라고 말한다. 대신 남을 대할 때 상대방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이롭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욕구, 즉 인정 욕구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가장 큰 욕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 기>

- ㄱ. 현대 심리학에 따르면 인정 욕구는 인간의 가장 큰 욕구이다.
- ㄴ. 링컨 대통령의 일화는 비난받은 인물이 보여주는 자기 합리화의 한 사례이다.
- ㄷ. 데일 카네기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비판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의 가변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10. 甲, 乙, 丙, 丁, 戊는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에서 근무하는 사무관으로, 2021년 1월 18일(월)부터 2021년 1월 22일(금)까지 5일 동안 본부 출근 기록은 <조건>과 같다. 다음 <조건>의 내용이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반드시 참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甲, 乙, 丙, 丁, 戊가 모두 출근한 날은 하루뿐이다.
- 모든 사무관은 적어도 2일 이상 출근하였고, 5일 모두 출근한 사무관은 없다.
- 화요일에 출근한 사무관은 3명이다.
- 甲은 수요일, 금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丁은 월요일, 금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 甲과 丁이 동시에 출근한 날은 하루뿐이고, 乙과 戊가 동시에 출근한 날도 하루뿐이다.
- 甲은 월요일, 乙은 화요일, 丙은 수요일, 丁은 목요일, 戊는 금요일에 출근하였다.
- 乙과 동일한 날짜만큼 출근한 사무관은 1명이다.
- 丁은 戊와 동일한 날짜만큼 출근했고, 乙보다 하루 적게 출근하였다.

<보 기>

- ㄱ. 甲은 화요일에 출근하였다.
- ㄴ. 丁은 화요일에 출근하였다.
- ㄷ. 乙은 3일 출근하였다.
- ㄹ. 乙과 동일한 날짜만큼 출근한 사무관은 丙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11. 다음 글에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2. 다음 글의 (가)~(마)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근대 초까지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을 하면서 보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일찍부터 갖게 되어, 그 생활세계가 어른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린이’나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범주가 생겨난 것은 근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청소년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취업해야 하는 청소년도 있고,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하는 청소년도 있으며, 돈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도 있다. 어느 경우든 청소년들의 취업 내지 아르바이트는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외면하는 것은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또 청소년의 노동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외면한다면,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욕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청소년 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교육현장에서 청소년의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 것은 청소년 노동시장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그러한 부정적 인식이 제거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노동을 비공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외면하는 것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오직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는 교육일 경우에만 교육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 보 기 > —
- ㄱ.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욕구를 수용한다면,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을 낳지 않을 것이다.
 - ㄴ. 교육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함의 충분조건이다.
 - ㄷ. 노동현장에서 청소년 인권침해와 같은 부작용이 없다면 교육현장에서 청소년의 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거된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 (가) 과학의 궁극적 목표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과학이론은 관측된 사실을 기술하고 새로운 현상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경험적 유효성을 가져야할 뿐 아니라, 관측 불가능한 부분까지도 옹계 설명하여야 한다. 실제로 현대과학은 자연의 진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상과 자연, 우주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은 다양한 과학이론에 의해 적합하게 설명되고 있다. 과학이론이 진리에 접근하지 못했다면 과학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 (나) 과학의 목표는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다. 과학이론은 관측 가능한 현상을 조직화하고 예측하는 형식적인 도구에 불과하다. 과학은 우리가 사고하는 데 유용한 도구일 뿐이며, 관측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형이상학의 역할이지 과학의 역할은 아니다.
- (다) 과학적 진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추구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관측할 수 없는 내용에 과학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는 과학이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이론은 경험적으로 적절하기 때문에 현상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그 이론이 세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관찰 불가능한 대상들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을 수 있다.
- (라) 과학의 성공은 생물이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것과 동일하다. 생태계는 특별한 기법을 가지고 잘 적응된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일어나는 돌연변이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사라질 뿐이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를 경험적으로 시험하여 성공적인 것만 남기므로 살아남은 이론은 당연히 성공적일 수밖에 없다.
- (마) 과학사를 되돌아보면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이론의 대부분은 나중에 틀린 것으로 판명 난 경우가 많다. 과학적 현상들을 경험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여러 변칙 사례들이 나타남에 따라 패러다임은 더 정밀하게 발전하기도 하고, 더 설명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이론에 의해 대체되기도 한다. 이처럼 과학은 정체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이론의 성공은 잘 유지되지 않는다.

- ① (가)는 관측 가능한 현상의 예측을 과학의 목표로 인정하지만, (다)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② (나)와 (다)는 모두 과학이 관측할 수 없는 대상을 탐구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 ③ (가)와 달리 (라)는 현대과학이 자연의 진리를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본다.
- ④ (다)와 (마)는 모두 과학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현상의 경험적 설명 가능성을 고려한다.
- ⑤ (라)는 현재 설명력이 가장 높은 과학이론의 성공을 인정하는 반면, (마)는 인정하지 않는다.

13. 다음 <조건>에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 건>

A부서에는 갑, 을, 병, 정 4명의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부서 총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 모든 직원이 2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를 연속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다.
- 매일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사무실에 출근하여야 한다.
- 갑과 을은 같은 날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
- 병은 수요일에는 재택근무를 하여야 한다.
- 병과 정은 같은 날 사무실에 출근할 수 없다.

<보 기>

- ㄱ. 갑이 월요일에 재택근무를 한다면, 금요일에도 재택근무를 하여야 한다.
- ㄴ. 3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명이다.
- ㄷ. 1명만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이 있다.
- ㄹ. 5일 중 을과 병이 함께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은 없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4. 다음 글과 <보기>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행 통신수사 방식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위해 허가서를 받아 시행하는 감청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이용한 우체물의 압수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목적으로 감청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인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나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요구하는 등 그 제한 수준이 비교적 약하다. 감청을 집행한 후에는 대상자에게 그러한 사실과 기간 등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이용한 통신수사는 법원이 우체물 또는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등 관련 기관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07조에 근거한다. 아울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은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내용을 다루면서, 수사기관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해 공소의 제기나 불기소처분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절차나 통제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면서부터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던 1993년 당시 동법은 전자우편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았고, 2001년 12월 29일 동법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자우편은 동법 제2조제9호를 근거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라고 정의되고 있다. 전송된 메시지도 전자우편에 해당하고 전자우편이 감청의 대상인 전기통신에 해당한다면 송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도 감청의 대상이 되는가?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문자메시지가 이미 수신자의 휴대폰에 도달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감청은 통신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재성이 요구되므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감청이란 몰래 엿듣음을 의미하므로 엿듣는 대상은 전기통신으로 국한하고 엿듣는 수단으로는 일정한 장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엿듣는 구체적 내용은 통신의 음향을 청취해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러한 법리는 문자메시지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휴대폰에 저장되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자메시지는 현재성이 없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 기>

A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수사목적으로 감청 집행위탁을 받았다. A사는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A사 어플리케이션에서 송수신하는 내용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청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감청을 집행하였다.

- ①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가안보 목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다.
- ② 수사기관이 A사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집행사실을 A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③ A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송수신의 성격이 문자메시지 송수신의 성격과 유사하다면, 법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A사 어플리케이션 송수신 내용을 감청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 ④ A사가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A사 어플리케이션에서 송수신하는 내용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경우, 법원은 현재성을 인정할 것이다.
- ⑤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당시에는 송수신이 완료된 통신이 문제되지 않았다.

15. 다음 (가)~(다)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민법」 제844조제1항*(이하 ‘친생추정 규정’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부와 자녀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익의 구체적인 비교 형량 등을 종합하면,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친생추정 규정을 친자관계의 설정과 관련된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민법」의 취지와 체계에 반한다.
- ②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족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부관계나 가족관계 등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혼인과 가족관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은 자제하여야 한다.
- ③ 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관계의 유무는 친생추정을 반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남편과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그들 사이에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파탄된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예외로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더라도 사회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함부로 친생추정 예외의 법리로써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사회적 친자관계란 부와 자 사이에 부자로서의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부가 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자를 보호·교양하는 등 생활의 실태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부부의 혼인계속 여부, 과거 가족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생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나 그 기간, 부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의 형성 여부, 친자관계의 파탄 원인과 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자녀의 연령, 사회적 친자관계의 회복 가능성, 친자관계의 파탄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인격형성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등 가족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다) 부부 중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 종래 대법원 판례에서 친생추정 예외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은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은 ‘동거의 결여’뿐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둘러싼 제반 환경의 변화와 개정된 「민법」 취지를 참작하여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사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가 ‘아

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개별 사건을 심리하는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뿐만 아니라 별거 유무와 그 기간, 부부 중 일방이 별도의 주거지를 가졌거나 외국 등 먼 장소로의 왕래가 잦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부부의 혼인관계가 종료 또는 파탄되어 자녀를 둘러싼 종래의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지 여부와 경위, 관련자들의 태도와 의사,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모, 자녀와 같이 친생자관계의 직접 이해당사자인지 여부, 자녀의 생부가 청구하는 경우 그에게 인지 및 양육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진실한 신분관계의 확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넘어선 재산적 이해관계 같이 다른 의도가 엿보이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들도 심리하고 평가하여 ‘외관상 명백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보 기 >

- ㄱ. (가)와 (나)는 남편과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가 없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 ㄴ.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로 여성의 해외 출장이 잦아져 부부가 함께할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사회 변화는 (다)의 논지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 ㄷ. 남편이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아들이 본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된 사실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은 채 아버지로서 아들을 보호·교양해 왔으나 이후 이혼 소송에 이르러 친자관계의 부정을 주장하는 경우, 친생추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가), (나), (다)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6. A, B, C, D, E 5명은 각각 다른 종의 동물(강아지, 고양이, 거북이, 물고기, 토끼)을 한 마리씩 키우고 있다. 아래의 <진술>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1명은 진실을, 고양이, 거북이, 물고기, 토끼를 키우는 4명은 거짓을 말했다고 할 때, 옳은 것은?

<진 술>

- A: B는 강아지를 키워.
- B: A가 토끼를 키운다면, D가 거북이나 고양이를 키워.
- C: 나는 거북이를 키워.
- D: A는 고양이를 키워.
- E: D는 물고기를 키워.

- ① A가 키우는 동물은 물고기이다.
- ② B가 키우는 동물은 거북이이다.
- ③ C가 키우는 동물은 물고기이다.
- ④ D가 키우는 동물은 강아지이다.
- ⑤ E가 키우는 동물은 물고기이다.

17. 다음 <조건>에 따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 건>

가수 '정'은 자신의 새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정하려고 한다. 앨범에 들어갈 곡은 A, B, C, D, E 총 5곡이며, 다음과 같은 '정'의 선호를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 A랑 E는 둘 다 신나는 곡이니까 붙어 있으면 좋겠어.
- C는 타이틀곡이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곡이었으면 좋겠어.
- D는 B보다 뒤에 나왔으면 좋겠어.

<보 기>

- ㄱ. A가 세 번째 곡이라면, D는 마지막 곡이다.
- ㄴ. B가 홀수 번째 곡이라면, A는 네 번째 곡이다.
- ㄷ. C가 첫 번째 곡인 경우의 수가 두 번째 곡인 경우의 수보다 많다.
- ㄹ. E는 세 번째 이후에 나온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8. 다음 글의 A~C의 주장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농업혁명 이후부터 대부분의 인간사회는 남자를 여자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부계사회였다. 부계사회는 남자에게 야심차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여자에게는 순종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친다. 남녀를 구분 짓는 경계를 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처벌하지만,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상하지는 않는다. 남성적이라고 평가받는 속성들은 여성적이라고 평가받는 속성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여자다움의 이상을 구현한 구성원은 남자다움의 이상을 구현한 구성원에 비해 얻는 것이 더 적다. 그렇다면 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높이 평가 받았을까? 이에 대하여 A, B, C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밭갈기나 추수처럼 힘든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독점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남자는 덕분에 식량생산을 통제할 수 있었고, 이것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B는 남자의 지배가 힘이 아니라 공격성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공격성이 강한 남자들이 전투를 위하여 군대를 조직하고, 그 중에 군 지휘자를 뽑았으며, 군의 지휘권을 가진 남자들이 민간 사회에서도 주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남자들은 민간 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해서 더 많은 전쟁을 벌였고, 전쟁의 횡수가 늘어날수록 사회에 대한 남자의 통제력도 강해졌다.

C는 남녀가 다른 생존 및 번식 전략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한다. 남자들이 가임기 여성을 임신시킬 기회를 놓고 서로 경쟁할 때, 번식에 성공할 확률은 무엇보다도 다른 남자들을 넘어서서 이기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야심차고 공격적이며 경쟁적인 남자의 남성적인 유전자들이 후대에 물려지게 되었다. 반면에 여자들은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식량을 구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남자가 내세운 조건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서 순종적인 여자의 여성적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보 기>

- ㄱ.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밭갈기나 추수와 같은 힘든 노동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A의 주장은 약화된다.
- ㄴ. 여자가 육체적 노력이 필요 없는 사제, 법률가, 정치인 같은 고위직에서도 대체로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은 B의 주장을 약화한다.
- ㄷ.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여자들끼리 협력하여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성공적으로 보장한 사례가 상당수 발견될 경우, C의 주장은 강화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1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남북관계가 순항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상승한다. 반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중단되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도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된 1990년 이후 반복되어 왔다. 2020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금의 역할이나 기금의 용도 등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이러한 논의들을 반영한 일부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보완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남북협력기금법」은 기금의 용도를 ‘인적 왕래 지원, 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 교역·경협 지원, 이산가족교류·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조성, 개성공단 조성’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심화·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다. 주로 ‘남북관계 촉진 기금역할’에 초점을 둔 것으로 관련 주요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사업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창궐을 목도하면서 남북을 하나의 보건공동체 혹은 생명공동체로 접근하는 관점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법률이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인적 왕래 지원, 사회문화협력사업 지원, 교역·경협 지원, 이산가족 교류·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조성, 개성공단 조성’ 등으로만 규정하여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의미와 특수성을 고려한 개정안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교류협력과 공통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수성을 살린 장점을 갖고 있는 바, 이러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관계 발전에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경험에서 확인된 바 있다.

셋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남북협력기금 용도에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다. 남북경협이 주로 의류, 봉제 가공 등 노동집약적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상황을 확대·심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첨단 분야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의 연구·개발에서도 남북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남북협력기금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넷째, 기금 용도에 교류협력 사전준비 사업을 추가하려는 제안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조사 등을 포함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제20대 국회의 취지와 맥락을 계승하여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초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남북교류협력의 사전 준비단계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남북협력기금의 ‘남북관계 방어역할’ 혹은 ‘안정기금 역할’에 관한 제안이다. 남북관계가 순항할 때 남북협력기금은 ‘촉진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면 충분할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가 불안정해지는 등 ‘경외외적 요소’로 인하여 남북경협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완충장치 혹은 안

정화 장치가 필요할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기업 활동이 일시적·잠정적 혹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던 단절을 경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험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으며 기업의 운용구조와 규모에 따라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이러한 ‘경외외적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남북협력기금이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이 경험중단에 따른 난관을 극복하는데 대한 지원이 보다 세부적이고 정치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4건이 발의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1건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 보 기 >

- ㄱ.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된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어 남북 협력 기금의 집행률이 꾸준히 하락했다.
- ㄴ. 2020년에는 남북협력기금의 남북관계 방어역할보다는 촉진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 ㄷ. 동서독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경험에 기초하여 중앙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ㄹ. 경외외적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험기업들에게 완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0.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의 문명에서 질병은 도시의 형태를 규정지어 왔다. 런던의 공공시설국의 구성이나 19세기의 위생처리조직 같은 도시를 관리하는 기술의 발전은 콜레라 같은 공중위생을 위협하는 질병의 발생에 대처하면서 발전해 왔다. 지금 코로나19는 뉴욕과 멕시코에서 유행했던 1918년의 스페인독감이나 2014년에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한 에볼라 바이러스 질병 같은 팬데믹 감염병 리스트에 이름을 추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공동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도시 생활을 기초에서부터 잠식해 붕괴하고 있다. 도시의 거리, 공유 주택,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은 일종의 ‘집합적 생활의 선호’에서 진화해 왔는데, ‘집합적 생활의 선호’는 우리가 모두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는 ‘집합적 생활의 선호’를 먹이로 끊임없이 번창한다. 코로나19는 반도시적이며, 군집하려는 우리의 충동을 자양분으로 삼는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교류를 원하는 우리의 열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또한 도시, 광장, 지하철, 초고층 건물을 건설해온 인류의 도시문명 배치 방식에도 역행한다. 기본적으로 도시문명은 집합적으로 점유되었을 때 생기가 돌도록 디자인 되었으며, 많은 도시시스템이 타당하게 작동하기 위한 적정밀도의 확보는 미덕이었지, 혐오의 대상은 아니었다.

코로나19는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일하는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보건위생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 더욱 고도화된 도시설계수법 개발의 필요성을 일깨우며 자영소매업의 감소 등과 같이 거리생활의 다양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도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기존의 도시가 복구되어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는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을 예견해보는 지점이 된다.

도시가 사람들의 보건위생에 나쁘다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아니다.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기간 중에 성장한 도시는 그 당시에 더럽고 오염되었으며 비위생적이었다. 19세기 세계 최대도시 런던은 석탄을 태울 때 만들어내는 독성으로 오염된 ‘런던 포그’라는 스모그로 더 잘 알려졌다. 20세기 전환기 뉴욕의 임차인들은 뉴욕시 전역에 말뚝이 산재해 있어 아마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 살았다고 추측된다.

그럼에도 그 이후 도시는 번영하고 성장했다. 뉴욕과 런던은 한 세기 전보다 더욱 깨끗하고 안전해졌다. 그것은 도시가 본질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농촌지역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교외지보다 더욱 유연한 도시는 항상 스스로를 재창조하면서 때로는 매우 놀랄 정도로 빠른 복원력을 보이며 주변 환경을 정화해왔다.

도시는 인류의 문명과 함께 등장한 이후 언제나 탁월하게 적응하고 유연하게 스스로를 재창조해 왔다. 따라서 도시가 진화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대재앙 이후처럼 다른 규범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오랫동안 도시에서 소극적으로 다뤄져 왔던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보건전문가의 도시행정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

- ① 새로운 종류의 도시는 우리가 보아왔던 것과는 다른 도시로, 코로나19와 같은 충격을 더욱 강고하게 이겨낼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 ②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반도시적 성향으로 인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도시생활은 몰락하고, 사람들은 농촌과 교외로 분산될 것이다.
- ③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기존의 ‘집합적 생활의 선호’를 바탕으로 한 도시문명의 발달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④ 새로운 도시규범으로의 전환은 상호 교류를 원하는 우리의 열망을 변화시킬 것이다.
- 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기존의 도시의 복구 및 지속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표준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 비공무상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비공무상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수당 등이 있다.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후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때 지급하게 된다.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2022년 61세, 2024년 62세, 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로 연금지급개시연령이 다르게 적용된다.

비공무상장해연금은 공무가 원인이 아닌 일반 장애상태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게 된다. 다만 비공무상장해연금은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이 아닌 퇴직연금과 같은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로서 퇴직연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유족연금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한편 재직 중 공무 이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장애등급 8급 이하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비공무상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퇴직유족연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이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였거나 퇴직 후 연금지급 중 또는 연금지급 대기 중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퇴직유족연금액은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퇴직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를 원할 때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퇴직연금일시금 지급대상자가 총 재직기간 중 일부는 퇴직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일시금을 받고자 할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직일시금은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격, 즉 10년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은 유족연금 지급자격이 있는 자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하며, 그 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하다. 그리고 퇴직유족일시금은 10년 미만 재직한 자가 사망한 때에 지급되며, 그 금액은 퇴직일시금액과 같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공무원연금은 제도 도입 이후 개혁을 거치면서 퇴직연금액 지급산식도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2009년 이전 재직기간, 2010~2015년 재직기간, 2016년 이후 재직기간 등 세 구간별로 각각 연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더하여 총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특히,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매 1년 당 연금지급률 1%에 대해서 소득재분배가 적용되어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소득수준별로 일정한 재분배 적용비율이 곱해지게 된다.

구간별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도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으로 다르다.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월액을 적용하는데, 이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액의 연지급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2010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며 이는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①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일시금의 대상자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일시금의 대상자는 10년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이다.
- ② 비공무상장해와 관련하여 비공무상장해일시금이 아닌 비공무상장해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 공무 이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장애로 장애등급을 8급 이상을 받고 퇴직하여야 한다.
- ③ 변경된 퇴직연금액 지급산식에 따르면, 퇴직연금액 산정 시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소득수준별로 1%의 일정한 재분배 적용비율이 곱해지게 된다.
- ④ 퇴직유족연금액은 퇴직연금액, 조기퇴직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퇴직유족연금일시금액은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하며, 퇴직유족일시금액 역시 퇴직일시금액과 같다.
- ⑤ 변경된 퇴직연금액 지급산식에 따라 구간별 급여액을 결정할 때,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적용하고, 2010~2015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2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2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는 아직 신약성경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을 듣고 미사를 드렸다. 사도(使徒)들은 신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구두로, 멀리 떨어진 신도들에게는 서신으로 가르침을 베풀었다. 오순절의 교회 설립 이후 30여 년이 지나서 예수의 생애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사라져가자 이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개별 공동체의 특성이 담긴 4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와 사도행전이 집필되었다.

영지주의를 비롯한 일련의 이단(異端)이 등장함에 따라 그리스도교의 정통 가르침을 담은 정경(正經)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특히 140년경에 마르치온이 자체적으로 신약성경을 편집하자, 이에 충격을 받은 교회가 정통적인 가르침을 담은 정경의 편집을 서둘렀고, 170~180년경에는 지금의 형태와 유사한 신약성경 편집본이 회람되고 있었다.

2세기 말 이레네우스를 비롯한 교부들이 정경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역사적으로 사도 또는 사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가’, ‘영적으로 그 감화력이 사도들의 것과 동일한 참된 교리인가’, ‘교회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는가’라는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그 후 오리게네스는 이 기준에 따라 정경과 위경(僞經)을 구분했다.

367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우스는 신약성경 27권이 모두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397년 카르타고 종교 회의에서는 27권 전체와 성경 목차가 확정되었다. 서방교회에서 현재 통용되는 27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히에로니무스는 오리게네스의 작업에 의존하며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모두 다시 번역함으로써, 원천으로 돌아가 성경을 학문적으로 정확했다. 그는 이렇듯 완성도가 높은 라틴어 번역을 완성하여 ‘불가타(Vulgata, 통용본)’라는 중세 이후에 계속 사용될 라틴어로 된 공식 성경을 편찬했다. 불가타는 오랫동안 서방 사회의 문학을 대표하며 현대 언어들의 진보와 문헌학 발전에 공헌했다.

정경의 확정은 이렇듯 늦어졌지만, 이미 사도 이후 300여 년간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신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초대 교회에 널리 유포되었고 회람되면서 읽혀졌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책들은 교회 회의의 인준으로 정경화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미 성경으로 읽어온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경으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었다.

- ①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정경으로 확정되어 신의 말씀으로 인정된 후에야 초대 교회에 널리 읽혀졌다.
- ② 마르치온의 신약성경 편집본은 지금의 형태와 유사한 신약성경 편집본이었을 것이다.
- ③ 오리게네스가 정경과 위경을 구분한 이후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개최되었을 것이다.
- ④ 오순절의 교회가 설립된 때에는 예수의 생애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생존해 있었을 것이다.
- ⑤ 마르치온의 신약성경 편집 이후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정경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국회의장이 제출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이로써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실질적인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개시된다. 예산안이 회부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절차는 법률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와 마찬가지로 예산안의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및 의결 순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면, 국회의장이 예비심사 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함으로써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개시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결위 심사에 앞서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며 예비심사결과는 예결위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법」은 예결위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금액을 증가시킬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예결위의 종합심사는 예산안의 상정, 정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또는 분과위원회심사), 찬반토론 및 표결 순으로 이루어진다. 종합정책질의는 모든 부처에 대해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절차를 말하고, 부별심사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누어 부처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말한다. 부별심사와 분과위원회 심사는 둘 중에 하나의 절차만 진행하는데 실제로는 부별심사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진행할 때 예결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등의 진행방법을 정한다.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치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1~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둔다.

예결위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정책질의나 부별심사에서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각 위원별로 약 10분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안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예결위의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증액심사를 진행한다.

- 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개시될 수 있다.
- ② 부별심사에서 부처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교섭단체별 질의시간을 정할 때, 예결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한다.
- ③ 예결위의 종합심사 중 종합정책질의는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안에 관하여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전체에게 질의하는 단계이다.
- ④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전체 위원 질의시간은 통상 110~150분이다.
- 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결위의 종합심사 모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찬반토론이 진행된다.

2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십우도(尋牛圖)」는 선종에서 본성을 깨닫는 과정을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한 그림입니다. 선(禪) 공부의 여정을 소와 동자를 출현시켜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서 십우도(十牛圖)라고도 합니다.

동자가 소를 찾아 떠납니다. 우연히 소의 발자국을 보고 그 자취를 따라가다 소를 보고 잡습니다. 야생의 소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동자는 채찍과 고삐로 소를 길들입니다. 그런 다음 소의 등에 올라타서 유유자적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채찍과 고삐도 놓아 버리고 소도 사라지고 동자도 사라져 텅 빈 공간만 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와 저잣거리로 나가서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그림과 시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내적 여정을 훌륭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에는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득우(得牛), 즉 소를 얻는다는 것은 본성을 체험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우(牧牛), 즉 소를 잘 길들여 나가는 것은 분별없는 본성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동자가 소를 길들인다’는 것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본래 완전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나’를 분리한 데서 비롯하므로 ‘동자(나)가 소를 본다’, ‘동자(나)가 소를 잡는다’, ‘동자(나)가 소를 길들인다’는 것은 오히려 ‘나’가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가는 공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본성을 보고 얻고 길들인다는 입장에서 체험 이후의 공부를 해 나간다면 적지 않은 혼란과 장벽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본성을 보고 얻고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되어 본성이 저절로 드러나 밝아지고, 이 과정에서 ‘나’라는 자의식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본성을 체험하고 나서 겪게 되는 혼란은 대체로 ‘나’라는 것이 공부를 주도하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본성에 대한 체험을 한 후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니 잃지 않으려고 이 자리, 이것에 집착합니다. 이 자리,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편안하기에 그 맛에 집착합니다.

이런 심리는 ‘나’라는 분리된 존재를 유지하려는 태도입니다. 나의 안위, 나의 안전을 위해 세상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긴장합니다. 일시적으로 편안함과 행복을 맛보았다더라도 이것을 유지하려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애씁니다.

해탈은 바로 이 근원적인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원적 해탈은 분리된 ‘나’라는 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나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나의 안위를 위한 투쟁이 멈추어집니다. 그러니 이 공부에서조차 자칫 나를 위한 노력과 투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편안해지기 위한 공부가 아니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편안이며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나의 안위에 상관된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소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와 ‘나’가 따로 없는 일입니다. 처음 본성을 체험했을 때는 심적으로 소(본성)가 따로인 듯 여겨지겠지만, 이것은 ‘나’라는 것이 여전히 따로 있는 듯한 분별의 습관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 소가 따로 없었다는 깨어남이 일어나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깨달음의 여정이 꿈이었음을 보게 되

어, 동자가 깨달음의 마음을 내기도 전에 본성은 완전했고 그 후의 여정 가운데서도 아무 일이 없었음을 여실히 볼 뿐입니다. 꿈은 계속되지만, 그저 꿈 그대로 깨어남임을, 분별된 세계 그대로 분별되지 않은 세계임을 스스로 납득할 뿐입니다.

- <보 기> —
- ㄱ. ‘목우’는 ‘득우’ 후에 가능하며, 최종적인 과정은 아니다.
 - ㄴ. ‘소’와 ‘나’가 하나로 되는 과정은 ‘저잣거리’로 나간 후에 도달한 단계이다.
 - ㄷ. ‘본성’에 비유되는 ‘소’는 본래 완전히 있었다.
 - ㄹ. 소를 길들이고자 하는 동자의 태도는 ‘나’라는 분리된 존재를 유지하려는 태도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5. 다음 글과 <보기>에 따를 때, 짝꿍 관계가 될 가능성이 없는 조합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초등학교 B학년 C반에는 20명의 학생이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1모둠, 2모둠, 3모둠 중 하나의 모둠에 속해 있다. C반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는데, 1모둠의 남학생은 진실만 말하고, 1모둠의 여학생은 거짓만 말한다. 2모둠의 남학생은 거짓만 말하고, 2모둠의 여학생은 진실만 말한다. 3모둠의 여학생과 남학생은 모두 거짓만 말한다.

C반에서는 짝꿍 놀이를 진행하려고 한다. C반의 모든 학생들은 놀이에 참여하고, 놀이에 참여하는 각 학생은 자신과는 모둠과 성별이 모두 다른 학생 한 명과만 짝꿍 관계가 될 수 있다. 다음 <보기>는 C반의 학생 갑, 을, 병, 정이 나눈 대화이다.

- <보 기> —
- 갑: 나는 3모둠 여학생도 아니고 1모둠 남학생도 아니야.
- 을: 나는 2모둠 남학생이거나 3모둠 남학생이야.
- 병: 나는 3모둠도 아니고 2모둠도 아니야.
- 정: 나는 1모둠 남학생이야.

- ① (갑, 을)
- ② (갑, 병)
- ③ (갑, 정)
- ④ (을, 정)
- ⑤ (병, 정)

2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2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나 민주주의, 개인주의와 같은 상상의 질서를 믿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는 위대한 신이나 자연법에 의해 창조된 객관적 실재라고 늘 주장해야 한다. 사람이 평등하지 않은 것은 함무라비가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엔틸과 마르두크가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다. 사람이 평등한 것은 토머스 제퍼슨이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신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한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세상 만물에 스며들어 있는 상상의 질서 원리들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한다. 그 원리는 요정 이야기, 드라마, 회화, 노래 등에도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평등을 믿기 때문에 한때 노동계급의 복장이었던 청바지를 부잣집 아이들도 유행 삼아 입는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계급 차이를 신봉했기 때문에 젊은 귀족이 농부의 작업복을 입는 경우는 없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조직화하는 질서가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된 요인은 세 가지이다.

첫째, 상상의 질서는 물질세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다. 상상의 질서는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지만, 우리 주변의 물질적인 실재 세계 속에 짜 넣어질 수 있다. 가령 오늘날 대부분은 개인주의를 신봉한다. ㉡.

둘째, 상상의 질서는 우리 욕망의 형태를 결정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삶을 규율하는 질서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상 모든 사람은 기존의 상상의 질서 속에서 태어났으며, 태어날 때부터 지배적인 신화에 의해 욕망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그 때문에 우리 개인의 욕망은 상상의 질서의 가장 중요한 방어물이다.

셋째, 상상의 질서는 ㉢이다. 설령 내가 초인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개인적 욕망을 상상의 질서의 속박에서 풀려나게 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상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수백만 명의 낮은 사람에게 나와 협력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상상의 질서는 내 상상력 속에만 존재하는 주관적 질서가 아니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 질서이기 때문이다.

<보 기>

- ㄱ. ㉠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으로는 ‘그 질서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는 신념을 내재화해야 한다’를 들 수 있다.
- ㄴ. ㉡에 들어갈 적절한 문장으로는 ‘현대의 집이 여러 개의 작은 방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개인이며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상상의 질서가 물질세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를 들 수 있다.
- ㄷ.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로 ‘상호 주관적’을 제시할 수 있다.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행복의 개념은 어떤 측면에서 도덕적으로 위험하다. 가령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개념은 문제가 있는 사회나 전체주의 사회를 옹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행복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로 자신의 고유한 결정을 내리는 개인의 자유가 희생된다. 자유와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통일될 수 없는 가치들이다. 그 밖에도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리가 도덕적 합법성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사회는 바람직한 행동이 비공리주의적 도덕 원리에 따라서도 인정되는 사회뿐이다. 공공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는 분명히 공공의 행복이 보다 많고 좋은 병원과 학교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합의하는 사회다.

하지만 공공 대중들 자신이 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이 공공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간주하는 사회에서 공공의 행복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열두 명으로 구성된 한 사회에서 열 명이 가학자이고, 그들이 나머지 두 사람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최대의 행복을 얻는다고 한다면, 유용성의 원리는 이 두 사람이 고통을 당할 것을 요구하는가? 벤담과 밀의 사상에 이러한 생각보다 더 낮은 것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벤담과 밀이 결코 일관된 공리주의자가 아니며 그들이 최대행복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규범들을 은밀히 사용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지금까지의 언급에서 다른 난점이 등장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개념을 매우 호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개념을 행위의 기준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행동 방식을 허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형적인 예로는 공리주의의 비판자인 캐릿(E. F. Carritt)이 발표한 것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이 공공의 행복에 매우 기여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그가 그의 가상의 재판관이자 사형집행인인 우리에게 의해 살인자로 간주되는 않는다 할지라도 공공에 있어서는 살인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처형은 미래에 있을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경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그를 처형해야 할 것이다.

<보 기>

- ㄱ. 공리주의가 도덕적으로 합당하려면, 비공리주의적인 도덕 원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 ㄴ. 소수에게 고통을 가함으로써 다수가 행복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벤담과 밀은 비공리주의적 도덕 원리에 기초하여 반대할 것이다.
- ㄷ. 죄가 없는 사람을 처형하는 일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면, 공리주의자는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8. (가)~(마) 중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2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치와 죄의 감정에 대한 탐색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과 깊이 관련된다. 나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해 탐색할수록 기이한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감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에서 수치와 죄의 감정이 그 어떤 다른 감정들보다 더 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타자’의 존재를 말해 주고 있음을 주장하려고 한다.

‘내 안의 타자’는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상상의 공간 속에서 모두 체험된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 공간을 타자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가) 우리의 내면세계의 한복판에서부터 ‘타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

‘내 안의 타자’를 지각하고 체험한다는 것은 수치와 죄의 감정이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감정’임을 가리킨다. 여기서 ‘사회적’이란 말은 수치와 죄의 감정 자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회성이 구성적인 계기임을 의미한다. 이 감정들은 ‘내 안의 타자’가 실재하며 언어 이전의 상태로 체험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사회적 감정들 역시 근본적인 의미에서 자아와 타자,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

수치와 죄의 감정은 ‘자기감정’, 즉 ‘자기의식을 수반하는 감정’이다. 자기의식의 생성 과정은 사회적 타자, 즉 타자와 함께하는 공공 존재인 한에서 설명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타자와 함께하는 생활세계의 공공성과 역사성이 곧 자아정체성의 형성에서 구성적인 의미를 지닌다.

수치의 감정은 자아에 의한 자기평가와 자신에 대한 타자의 평가 사이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에 의해 발현된다. 이는 특히 사회적 수치의 감정에 대해 타당하다. 나르시시즘은 자신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려지거나 극단적으로 왜곡된 자기평가에 경도된 경우이다. 평가의 불일치는 감정과 정서가 상호 충돌하는 관점들 간의 대립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평가적 관점들 간의 불일치는 단순한 당혹감에서부터 우울증과 같은 병리적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된다. (라)

특히 죄의 경우에 감정들의 문법이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상징체계에 의해서 지탱되고 변형된다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 슬픔과 분노, 기쁨과 공포 등의 감정과 달리 죄와 수치의 감정은 문화권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적인 거리에 따라서 상이한 방식으로 체험되며, 이는 이 두 감정이 통시적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준다. (마)

< 보 기 >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한 채 진행되는 외면적인 만남으로 설명될 수 없다.

- ① (가)
- ② (나)
- ③ (다)
- ④ (라)
- ⑤ (마)

(가) 몇 년 전 프랑스의 한 도지사는 ‘나무가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기술적 보고서에 근거하여 가로수들을 모두 베어 버리기로 결정했다. 그 표현은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가로수에 의해 야기된 교통사고 건수의 충격적인 통계자료에 근거해 있었던 것이다. (나)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할 수도 있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나무들을 보호함으로써, 또는 나무를 옮겨 심어 길을 넓힘으로써 나무를 죽이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문장의 형식 자체, 그 문제를 읊아내고 있는 통사구조는 여전히 문제에서 제외된 채로 남아 있다. 그 문장에서는 (다) 나무가 동작주 보어(…에 의하여)나 상황 보어(…에 부딪쳐서)가 아니라 주어로 제시되어 있어서 치명적인 사고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구문은 결코 순수하지가 않다. 그것은 가령, ‘혹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과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자초한 것은 아닐까’와 같은 (라)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림으로써 생각 자체를 제한해 버린다. 나 자신 역시 그 표현에 사로잡혔던 나머지 앞에서 ‘가로수에 의해 야기된 교통사고’라고 썼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사실상 그 도청 측 표현은 모종의 신성한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어떤 신성한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사람의 생명은 나무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마)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란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 질(質)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와 자동차 엔진과 배기통의 소음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사람들을 감금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바) 나무를 죽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사) 그 표현이 감추고 있는 신성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자동차이다. 혹은 더 적절하게 말하면 산업자본가들과 기술 관료들이 결탁된 권력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껏해야 생산과 소비에 이바지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아) ‘나무가 사람을 죽인다’는 표현은 기술관료적 담화의 유형 전체에 속하는 것이며, ‘경제성장’, ‘현대화’, ‘고용 창출’ 등과 같은 표현의 그물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 ① (나)는 (가)에 대한 반론 제기 가능성을 시사한다.
- ② (라)는 (다)를 부연하며 문제의 기술 보고서가 지닌 기술 형식의 특징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③ (마)는 (바)의 근거이다.
- ④ (사)는 인명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동차를 중심에 두었기에 인명을 보존하는 나무의 생명을 경시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 ⑤ (아)는 (가)의 내용을 반복하며, 기술관료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다른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30.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치명적인 역병의 발발은 다른 어느 집단들보다 의사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로 인해 흑사병의 결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영역도 의사집단과 의료분야이다. 의사들은 약중상, 식료품상과 더불어 1293년 시 조례에 규정된 7개의 ‘대길드들(Arti maggiori)’ 가운데 하나를 구성했다. 1338년에 피렌체에는 이 길드에 속한 내과의와 외과의가 60여명, 약중상이 100여명 있었다. 피렌체에서는 의사들의 길드 가입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정식 의료종사자 규모로 간주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외에도 정식 대학의료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의료기술에 종사하던 임상 의도 있었다. 임상 의들은 뼈, 눈, 방혈 등 특정 영역에 전문성을 지녔으며 고객도 폭이 넓었다. 특히 가난한 하층민들은 이들에게 주로 의존했다.

흑사병 발병 후 의료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적지 않은 의사들이 희생되면서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시 정부가 혼란스런 상황이 채 수습되지도 않은 시기에 곧바로 의학대학의 설립을 결정하고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의사들이 시내로 이주해오도록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친 것은 위기의식의 반영이었다. 이례적으로 이 도시에서는 여성 의사들의 존재가 확인된다. 길드 명단에 여성의 이름이 올라오는 시기는 1353년부터 1408년까지 약 반세기 정도에 국한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흑사병 직후 의사공급의 부족이 한시적으로 여성 의사의 출현을 초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상 의들이 주변 지역에서 이 도시로 이주해 조합원 자격을 획득한 후 활동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길드에 가입한 의사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4세기 후반에는 그 수가 흑사병 이전 시기보다 오히려 많아졌다. 다시 의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1400년경이다.

흑사병의 발병 후 개정된 1349년 정관은 조합원의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문상해야 할 의무와 의사자격시험의 강화를 규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렌체 의사들이 처한 상황과 길드의 대응을 시사한다. 1353년과 1391년의 정관에도 모든 의사들은 반드시 길드에 가입해야 하며 길드 가입 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한편 1392년에는 이 길드 내에 의사들로만 이루어진 의사회를 설립하여 자체 회원과 가입 규정을 갖추었고, 보다 엄격하게 의사들의 자질도 규정했다. 특히 이 의사회는 대학교육을 받은 의사들과 피렌체 출신 의사들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지만 흑사병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의사들 중 이주민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피렌체 내의 부유한 가문 출신자들이 점점 의사직을 멀리한 반면, 그 자리를 외부 의사들이 대신했기 때문이다. 14세기 후반 시 정부에서 소수의 지배적 가문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던 상황과도 맞물려 이 조합의 구성원들은 차츰 도시의 관직에서도 현저히 소외되었고, 의사들에게 돌아간 일부 관직은 몇몇에게만 한정되었다. 14세기 중반만 해도 의사들 가운데 피렌체 출신자들이 다수였던 반면, 한 세기 후에는 타 지역 출신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직종의 사람들은 흑사병 직후 이주해오는 수가 증가했다가 15세기 초에 감소한 반면, 의사들은 흑사병 이전에도 이미 적지 않은 수가 이주해 오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더욱 증가했다. 또한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주로 인근 지역에서 이주해오는 반면 의사들은 멀리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결과 피렌체 출신 의사 비중은 1359년에 전체의 60%였던 것이 1427년에는 30% 이하로 떨어졌고 1470년이 되면 25% 이하로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 < 보 기 >
- ㄱ. 15세기 중반 이후 피렌체의 의사 길드 명단에는 여성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을 것이다.
 - ㄴ. 피렌체의 의사 수는 흑사병이 발병한 후인 1358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을 것이다.
 - ㄷ. 피렌체의 의사회는 임상의를 포함한 의료종사자의 이익을 대변하였을 것이다.
 - ㄹ. 15세기 초 타 직종 길드의 이주민 비율보다 의사길드의 이주민 비율이 높았을 것이다.

- ① ㄴ,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31.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회사에서 경영난 해소를 위해 5명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 태스크포스 팀원인 A, B, C, D, E 5명이 이에 대해서 각각 다음과 같이 말했다.

- A: 태스크포스 팀 5명 중 어떤 사람은 기획부 소속이다.
- B: 태스크포스 팀 5명 중 어떤 사람은 기획부 소속이 아니다.
- C: 태스크포스 팀 5명 중 10년 이상의 중견간부가 아닌 사람은 없다.
- D: 태스크포스 팀 5명 중 기획부 소속이면서 10년 이상의 중견간부인 사람은 없다.
- E: 태스크포스 팀 5명 중 기획부 소속이 아닌 사람은 10년 이상의 중견간부도 아니다.

- ① A, C, E의 말이 동시에 참이라면, D는 기획부 소속이다.
- ② B, C, D의 말이 동시에 참이라면, E는 기획부 소속이 아니다.
- ③ B, D, E의 말이 동시에 참이라면, 5명 모두 기획부 소속이 아니다.
- ④ A, C, D의 말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 ⑤ C, D, E의 말은 동시에 참일 수 없다.

32. 다음은 甲초등학교의 수학수업에 대한 글이다. 만일 8명의 학생 중에 A도 출신이 C도 출신보다 더 많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甲초등학교에서, 덧셈과 뺄셈을 못 했던 8명의 초등학교생들이 이에 대한 첫 수업을 들었다. 이 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A도, B도, C도 중 한 곳이다.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첫 수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8명 중에 A도, B도, C도 출신이 적어도 1명씩 있다.
- 수업을 들은 학생이 여학생이라면, 모두 B도 출신이다.
- 적어도 2명은 덧셈은 할 줄 아는데 뺄셈은 할 줄 모른다.
- 적어도 2명은 뺄셈은 할 줄 아는데 덧셈은 할 줄 모른다.
- 적어도 1명은 덧셈과 뺄셈을 모두 다 할 줄 안다.
- 8명 중에서 C도 출신만 뺄셈을 할 줄 안다.

<보 기>

- ㄱ. 수업 후 덧셈을 할 줄 알게 된 여학생이 있다.
- ㄴ. A도 출신 중 수업 후 덧셈을 할 줄 알게 된 학생은 2명이다.
- ㄷ. 수업 후 덧셈을 할 줄 알게 된 남학생의 수는 최소 2명이다.
- ㄹ. 수업 후 덧셈과 뺄셈을 모두 할 줄 모르는 남학생은 최소 1명 최대 3명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3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해 출자·출연하여 기관을 설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설립 근거, 법인 및 수행사업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음의 유형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설립 근거로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공사,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출연기관, 출자기관)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법인의 성격으로 살펴보면 공사와 공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 출연기관은 재단법인과 경우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설립, 출자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고 있다.

또한 수행사업의 성격으로 살펴보면 크게 공익성과 수익성의 지향에 따라 구분된다. 공익성의 경우 네 개 유형 모두 해당되며, 수익성의 경우 공사와 출자기관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공사의 경우 기관은 수익형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타 법인의 출자가 가능하다. 또한, 출자기관은 설립 시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됨에 따라 민·관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출자하여 수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진다. 즉 공공기관의 설립유형을 검토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이루어지고 공익성을 고려할 경우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의 설립 검토가 가능하며, 설립 이후 기관에서 수행할 주요사업에 수익성을 지향할 경우 공사와 출자기관 형태의 설립 운영이 요구된다.

한편 법률에 따라 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자·출연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출자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액을 출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대상 사업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른 임원, 성과계약, 채용,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출자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인사나 예산에 관여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다. 또한 동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에 100분의 25 이상을 차지할 경우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출자지분이 100분의 25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등에는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 기>

- ㄱ. 수익형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의 자본 유치가 가능한 에너지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A도는 해당 기관을 출자기관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 ㄴ. B기관이 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다면, 설립 근거로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했을 것이다.
- ㄷ. C시가 지분의 100분의 7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립한 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할 수 있다.
- ㄹ. D시가 출자기관의 자본금 612억원 중 170억원을 출자한다면, D시는 경영실적평가는 실시해야 하나 해당 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는 없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ㄷ, ㄹ
- ⑤ ㄴ, ㄷ, ㄹ

3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D 프린팅’이라는 용어는 소재를 층층이 이어 쌓아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소재를 깎거나 망치질을 하면서 모양을 다듬는 기계 가공이나 소재를 녹인 다음에 틀에 끼워 외형을 다듬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및 금속 주조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 과정과는 다르다. 하지만 3D 프린팅이라는 용어는 이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완전하게 담지는 못한다. 이 용어들은 장기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바이오 프린팅이나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모양을 갖춰가는 4D 프린팅 등의 최첨단 기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3D 프린팅 기술은 이미 25년 전에 등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더 소형화되고 저렴해지고 성능이 향상되어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매우 복잡한 수준의 재료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표면 처리는 정교해지고 정밀한 가공도 가능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3D 프린팅을 작은 플라스틱 물체와 연관 짓지만 이제 금속, 세라믹, 콘크리트 같은 소재를 출력할 수 있고 또한 그래핀(얇고 강하고 유연함), 초경합금(드릴과 절단기에도 견딜 만큼 경도가 강함) 그리고 생태학적 바이오 소재(플라스틱 대체재, 파스타 같은 식재료)와 같은 첨단소재도 출력할 수 있다.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3D 프린팅은 이미 존재하며 앞으로도 보편화될 것이다.

3D 프린팅은 소량 생산을 더욱 경제적으로 만들며 생산자와 소비자 가까이에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납품 시간과 배송 비용도 줄어든다. 이는 증기력으로 운송 비용을 줄인 1차 산업혁명과 함께 태동된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되돌리는 것이라 할 만하다. 생산과 소비의 분리는 컨테이너화와 기술 격차의 추세 속에서 촉진되어 오늘날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으로의 오프쇼어링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3D 프린팅은 제조, 운송, 물류, 교통, 인프라, 건설, 유통, 항공우주 기업들의 전체적인 생산 시스템을 파괴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정부, 경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3D 프린팅은 생산과 소비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바꿀 것이다. 3D 프린팅은 북반구 선진국들이 개척한 신기술로, 대부분의 3D 프린팅 시설 역시 그 지역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3D 프린팅 시스템의 40%는 북미에서, 30%는 유럽, 26%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설치되었고 4%만이 기타 지역에서 설치되었다. 많은 경우 3D 프린팅의 영향력은 생산 단계에서 현재의 가치 사슬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결과물들이 미숙련, 노동 집약적 및 저부가가치 노동을 완전하게 대체함에 따라 영향력은 보다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3D 프린팅 기술이 선진국으로의 대규모 리쇼어링으로 이어진다면, 개발도상국이 채택한 노동 집약적 저비용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 전략은 효과를 잃을 것이며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3D 프린팅은 아직 주류가 아니다. 3D 프린팅이 글로벌 제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4%에 불과하며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중에서 3D 프린팅으로 생산된 것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3D 프린팅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트너(Gartner)에 의하면 2016년 글로벌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50만 대 수준이었었는데, 이는 2015년보다 두 배가 증가한 수준이며 2020년에는 670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홀러스(Wohlers)는 3D 프린팅 산업이 매년 25%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에 의하면 2016년 미국 제조업체의 52%가 향후 3~5년 사이 대량생산에 3D 프린팅을 활용할 것이고, 22%는 같은 기간 사이 공급망에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3D 프린터 시장의 성장 속도는 수평적인 성장곡선이 수직적인 성장곡선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전형적인 하키스틱 모양의 패턴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보 기>

- ㄱ. 3D 프린팅은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촉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선진국으로 리쇼어링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ㄴ. 가트너에 의하면 2020년 글로벌 3D 프린팅 시장 규모는 2015년에 비해 14배 이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ㄷ.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생산된 생산품 시장의 성장 속도는 전형적인 하키스틱 모양의 패턴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 ㄹ. 3D 프린팅이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산업화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3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자에 대한 의무, 그리고 완전한 혹은 좁은 의무와 불완전한 혹은 넓은 의무로 나누는 통상적인 분류 방식에 따라 몇몇 의무들을 열거해 보자. 첫 번째 사례는 해악들이 자신에게 잇따라 일어나, 절망상태에 이르러 생에 염증을 느낀 사람의 경우다. 그는 자신이 자살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하고 자문할 수 있는 한에서 아직 이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의 행위준칙은, ‘나는, 생(生)의 연장이 편안함보다는 불편과 해악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면, 자기애에 근거하여 차라리 생을 단축하는 것을 나의 원리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때 한 가지 더 질문해야 할 것은, 과연 이런 자기애에 근거한 준칙이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저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은 ‘생’이 함축하는 ‘자연’ 개념과의 내적 모순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한 사람의 경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되갚을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이때 그의 준칙은 ‘내가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면, 내가 돈을 되갚을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내가 잘 알고 있어도, 돈을 갚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릴 것이다.’라고 해보자. 이 준칙 역시 자기애에 근거한 것이다. 이제 그가 던져야 할 물음은 ‘만약 나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그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준칙은 법칙으로서 개념화의 모순에 빠지게 됨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그의 준칙이 법칙이 되어버리면 사람들 사이의 약속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례는 약간만 노력을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재능을 가진 사람의 경우다. 그런데 그의 준칙은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재능 계발보다는 향락과 게으른 편안함에 삶을 맡겨버리자.’라고 해보자. 그는 그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는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는 것을 의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은 가능한 목적들을 위해 쓰이도록 주어져 있으므로, 이성적 존재로서 그는 자신 안의 모든 능력이 계발될 것을 의욕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사례는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의 경우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은 아주 잘 나가고 있지만 남들은 큰 곤경에 고생하고 있음을 보면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또는 자신의 능력껏 행복한 것이다. 나는 남들에게 아무것도 빼앗지도, 남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지 나는 곤경에 빠진 남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없을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사람의 이 생각이 보편적 법칙이 된다면 인류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준칙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하기를 의욕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 것이다. 이러한 것을 결의하는 의지는 자기 자신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언젠가 생길 수도 있을 터인데, 그 자신의 의욕과 의지로부터 생겨난 저 법칙은 타인의 도움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미리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리하자. 어떤 행위들은 그 준칙이 모순 없이는 생각조차 되지 않는다. 또 어떤 행위들은 그 준칙의 내적 불가능성이 발견되지 않는지만 그 준칙의 법칙화는 의욕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의욕하게 되면 그 의지는 자신과 모순된다. 전자의 행위들은 좁은 의무에 반하고, 후자의 행위들은 넓은 의무에 반한다.

- ①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는 불완전한 의무와 관련된 사례이고, ‘세 번째 사례’와 ‘네 번째 사례’는 완전한 의무와 관련된 사례이다.
- ② 한 행위가 완전한 의무 혹은 불완전한 의무 둘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면, 그 행위는 자신에 대한 의무에 속할 수도 없고, 타인에 대한 의무에 속할 수도 없다.
- ③ 완전한 의무를 명령문 형태로 표현하면 긍정 명령문이 되고, 불완전한 의무를 명령문 형태로 표현하면 부정 명령문이 된다.
- ④ 어떤 준칙이 명령하는 행위가 의무와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준칙이 자기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준칙에 대한 의지의 모순은 준칙의 개념화의 모순을 함축하지 않는다.

36.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때, 반드시 참인 것은?

甲회사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명씩 저명 인사를 초빙하여 강연을 진행하고자 한다. 5명의 초청 연사는 강박사, 남 박사, 민 박사, 임 박사, 최 박사이다. 그런데 강연 주제의 성격상, 강 박사는 민 박사보다 먼저 강연을 해야 하고, 최 박사는 임 박사보다 먼저 강연을 해야 한다. 최 박사와 남 박사는 순서는 상관없지만 두 사람이 이어서 강연을 하기로 했다. 강 박사는 일정 때문에 월요일에는 강연을 할 수 없다.

- ① 강 박사가 월요일에 강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가능한 강연 일정의 수는 14가지이다.
- ② 월요일에 강연을 할 사람은 최 박사나 남 박사 중 한 사람이다.
- ③ 강 박사와 남 박사가 이어서 강연을 한다면, 금요일 강연자는 민 박사이다.
- ④ 민 박사가 금요일에 강연을 한다면, 수요일에 강연하는 사람은 임 박사이다.
- ⑤ 강 박사가 수요일에 강연을 한다면, 금요일에 강연하는 사람은 민 박사이다.

37.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반드시 옳은 것은?

국회재난대책본부는 최근 유행 중인 C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월 ○○일 국회 식당을 이용하였던 직원들 중 6명(가가, 나나, 다다, 라라, 마마, 바바)의 직원들의 이동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6명의 직원 중 2회 이상 식당에 출입한 직원은 없고, 직원들은 동시간대에 식사를 할 경우 반드시 마주친다. 단, 식당 출입 과정에서는 마주치지 않고, 이동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가 주무관: 저는 그날 오후 12시 7분부터 식당에 있었는데, 오후 12시 15분에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것만 기억이 나네요.

나나 사무관: 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20분까지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다다 사무관: 저는 오후 12시 5분부터 20분까지만 식당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라라 서기관님은 제가 모르는 직원분들과 이미 식사를 마치고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라라 서기관: 네, 다다 사무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오후 12시 30분부터 회의가 있어서 오후 12시 10분부터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오후 12시 3분까지만 해도 식당에 마마 서기관님은 없으셨어요.

마마 서기관: 가가 주무관님은 분명 저보다 식당에 늦게 오셨는데 저보다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업무가 많으셨나봐요. 참, 저는 오후 12시 15분에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바바 주무관: 저는 오후 12시 10분부터 식당에 있었고, 제가 한참 밥을 먹고 있을 때 나나 사무관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오후 12시 25분까지만 식당에 있었습니다.

- ① 6명의 직원 중 4명이 함께 식당에 있을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
- ② 나나 사무관의 식사 시간이 4분 이하라면, 바바 주무관보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왔다.
- ③ 라라 서기관은 6명의 직원 중 아무와도 식당에서 마주치지 않은 유일한 직원이다.
- ④ 라라 서기관은 7분 이상 식사하였다.
- ⑤ 식당에서 가가 주무관이 다다 사무관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다다 사무관이 바바 주무관에게 그 서류를 식당에서 전달했을 가능성은 없다.

38. 다음 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개념이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이념과 달리 유동적이고 다의적인 언어적 구성물이라면 단어와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일반적으로 개념은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며, 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개념은 어떤 대상에 대해 ‘한 단어가 갖는 뜻’이다. 그러나 개념사에서 말하는 개념은 엄밀히 말해 단어와 다르며 언어학에서 말하는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단어의 뜻’도 아니다. 개념사에서 말하는 개념은 지칭하는 단어와 지칭되는 대상 간의 유동적이고 불명료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개념사는 단어와 대상 그리고 의미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이미 상정한 채, 한 단어의 생성과 그것의 사용과 의미의 변화를 추적하는 단어의 역사와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념은 일반적으로 단어의 형태를 취하지만 모든 단어가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단어는 어떻게 개념이 되는가? 실용적 차원에서 언급하자면, 한 단어가 다의적일수록, 모호한 뜻을 많이 내포할수록 그 단어는 개념에 가까워진다. 독일의 역사학자 라인하르트 코젤레크(Reinhard Koselleck)는 이와 관련하여 “단어의 의미들은 정의에 의해 정확하게 결정된다. 반면에 개념은 개념이 되기 위하여 다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명확히 정의될 수 있는 순수한 기술적 용어나 전문 용어들은 개념이 아니다. 반면 각 시대와 구체적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정쟁과 논쟁 속에서 동원되는 용어들, 즉 개념들은 사회 각 집단 및 개인의 경험과 기대와 이해관계에 따라 항상 다의적이며 더 나아가 의미 간의 충돌을 일으킨다. 개념들은 단지 해석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이 갖는 의미는 그것들이 관계하는 정치적·사회적 맥락과 논쟁의 맥락 그리고 담론의 맥락들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의 단어적 의미와 분리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단어가 개념이 되려면 역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단어 속으로 이것이 지칭하는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의미의 맥락들과 경험의 맥락들이 한꺼번에 유입되어 있어야 비로소 단어는 개념이 된다.

<보 기>

단어는 반면, 개념은 .

- | | ㉠ | ㉡ |
|---|----------------|----------------|
| ① | 유동적인 | 고정적이다 |
| ② | 다의적인 | 비다의적이다 |
| ③ | 정의될 수 있는 | 해석의 대상이다 |
| ④ | 역사적인 | 비역사적이다 |
| ⑤ | 자의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 자의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 |

39. 다음 내용을 따를 때, <보기>에서 참인 진술의 개수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는 ‘기사’와 언제나 거짓말만 하는 ‘건달’이 살고 있는 섬이 있다. 그 섬에 사는 주민 A, B, C는 기사이거나 건달인데 외관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어느 날 이 섬을 방문한 나그네가 A, B, C 세 사람의 주민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A에게 물었다. “당신들 세 사람 중에서 기사는 몇 명입니까?”

A가 무엇이라고 답을 했지만 발음이 분명치 않아서 나그네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그네는 B에게 다시 물었다. “A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B가 말했다. “A는 우리들 중 기사는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C가 끼어들어 주의를 주었다. “B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의 말을 믿지 마세요.”

<보 기>

- A는 기사인지 건달인지 알 수 없다.
- B는 건달이다.
- C는 기사이다.
- 세 사람 중 2명은 기사이다.
- 세 사람 중 2명은 건달이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40.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혜강 최한기는 조선의 말엽, 조선 문화와 전통의 허실을 가늠하고, 실용에 입각하여, 당대에 섭렵 가능한 동서의 자원을 취사하여 새로운 학문의 전통을 세워본 사람이다. 그동안 이 인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실학의 대표 자리는 적어도 대중적으로는 다산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혜강이 전통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버린 탓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의 비판과 취사에 있어 그는 과격하고 근본적이다. 그 정도는 다산보다 훨씬 심하다. 다산은 주자학의 질서를 넘어 원래 공맹이 창도했던 유학으로의 회귀를 꿈꾸었지만, 혜강은 공맹의 유학조차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그가 존중하는 것은 공맹 유학의 ‘근본 정신’이지, 그 내용이나 절목은 아니었다. 그는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학문’을 구상하고 구축했다.

그는 ‘마음’의 학문이 아니라 ‘사물’의 학문을 하고 싶었다. 그는 마음을 사물로서, 도구로서 이해하고자 했다. 요컨대, 마음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도 않고, 무슨 현묘한 깊이를 갖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사물을 이해하고 욕망을 구현하는 생명의 자연스런 활동일 뿐이다. “마음과 사물은 둘이 아니다.” 혜강은 그래서 전래의 심학을 한심하게 생각한다. 노장과 불교는 물론, 유교의 주자학적 심학, 그리고 서양의 경우 기독교를 싸잡아 허무학, 즉 사실이 아닌 헛된 그림자의 학문이라고 밀어냈다. 그런 것은 요컨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도 말고, 비현실적 일탈

에 골몰하지도 말라고 했다. 책이 경험과 유리되고, 과거의 전통이 현재의 사태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찮거나 해롭다고 생각했다.

혜강은 인간에게 선함은 없고 오직 경험만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대전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 상태의 가능성이었다. 마음이라 불리는 신기는 주어진 사태를 이해하고 외계를 인식하며 그렇게 축적된 경험들을 통해 행동을 결정한다. 이 과정을 추측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은 근본적으로 소통적이고, 도구적인 활동이다.

혜강은 조선의 학문이 지나치게 ‘내향적’인 것을 늘 불만스러워했다. 전통의 학문을 돌이켜보면 심학이 8할이고 몰학은 2할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별로 건질 것이 없다고 했다. 조선의 학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학문이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비평했다. 『사고전서』 가운데 쓸 만한 것은 이래저래 털고 나니 5퍼센트가 채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사물에 관한 학문’의 상당 부분을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서 얻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한 테크닉’은 자신의 관찰과 체험을 유추하고 고금의 사적을 참작하여 새로 창안했다. 그의 학문은 이 둘이 종합되어 있다. 그는 새 학문의 구성을 위한 취사에 있어 동서를 가리지 않았다. 인정된 권위도 고려하지 않았다. 문벌이나 당파나, 평판도 그냥 밟고 지나갔다. 그의 저술 가운데 이름이 거론되거나 인용되는 사람은 너무하다 싶게 없다.

혜강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경학을 돌아보지 않았다. “경학의 최종적 준거는 ‘구체적 현실’이다. 현실이 곧 경전이다. 그러므로 옛적의 언어에 굳이 의존할 일이 없다. 진정한 경전은 성경이 아니라 천경이다.” 혜강에게서 ‘천’은 도덕적 신적 초월의 종교적 의미를 벗고, 액면 그대로 과학의 대상으로서 ‘자연과 현실’이 되었다.

<보 기>

- ㄱ. 혜강에게 다산은 ‘사물에 관한 학문’ 연구의 모범을 보인 학자였다.
- ㄴ. 혜강은 과격한 수준으로 전통을 비판한 실학자로서 공맹 유학의 내용을 존중하지 않았다.
- ㄷ. 혜강의 학문은 ‘사물에 관한 학문’과 ‘사람에 관한 테크닉’이 결합된 형태다.
- ㄹ. 혜강은 노장과 기독교와 같은 동서고금의 사적에 근거하여 새 학문을 구성하였다.
- ㅁ. 혜강은 오직 구체적 현실만을 바탕으로 경학을 새롭게 발전시켰다.

- ① ㄱ, ㅁ
- ② ㄴ, ㄷ
- ③ ㄴ, ㅁ
- ④ ㄱ, ㄹ, ㅁ
- ⑤ ㄱ, ㄴ, ㄹ, ㅁ

2021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 정답표(가)

| 가형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 | 헌 법 |
|-----|------|------|------|-----|
| 문1 | 5 | 3 | 3 | 1 |
| 문2 | 3 | 3 | 5 | 3 |
| 문3 | 3 | 1 | 3 | 4 |
| 문4 | 3 | 2 | 1 | 2 |
| 문5 | 2 | 5 | 4 | 5 |
| 문6 | 3 | 2 | 3 | 2 |
| 문7 | 1 | 5 | 4 | 5 |
| 문8 | 5 | 5 | 2 | 1 |
| 문9 | 4 | 1 | 4 | 3 |
| 문10 | 2 | 4 | 1 | 2 |
| 문11 | 3 | 5 | 2 | 5 |
| 문12 | 4 | 5 | 2 | 3 |
| 문13 | 1 | 3 | 2 | 5 |
| 문14 | 2 | 2 | 3 | 1 |
| 문15 | 3 | 2 | 4 | 3 |
| 문16 | 2 | 1 | 5 | 3 |
| 문17 | 2 | 5 | 1 | 3 |
| 문18 | 4 | 1 | 4 | 4 |
| 문19 | 5 | 2 | 1 | 1 |
| 문20 | 1 | 4 | 2 | 5 |
| 문21 | 4 | 2 | 3 | 2 |
| 문22 | 4 | 4 | 2 | 4 |
| 문23 | 4 | 5 | 3 | 2 |
| 문24 | 2 | 4 | 2 | 4 |
| 문25 | 1 | 3 | 5 | 1 |
| 문26 | 5 | 4 | 1 | |
| 문27 | 5 | 1 | 4 | |
| 문28 | 1 | 3 | 1 | |
| 문29 | 5 | 4 | 5 | |
| 문30 | 4 | 5 | 4 | |
| 문31 | 3 | 4 | 5 | |
| 문32 | 2 | 3 | 5 | |
| 문33 | 1 | 1 | 4 | |
| 문34 | 5 | 5 | 1 | |
| 문35 | 5 | 5 | 5 | |
| 문36 | 2 | 2 | 2 | |
| 문37 | 1 | 4 | 3 | |
| 문38 | 3 | 3 | 5 | |
| 문39 | 4 | 1 | 3 | |
| 문40 | 4 | 4 | 2 | |

1.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영국의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동양적 효를 서구적으로 이해한 글이 게재된 적이 있다. 그 글의 요지는 서구적 시각답게 동양의 효를 유산상속이나 노후를 위한 보험과 같은 경제적 합리성이나 타산적 합리성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타산적 합리성은 일부 효행의 동기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일부는 예외적이고, 효행의 본질이나 동양에서 효가 그리 오랫동안 중시되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으며, 효행의 많은 사례들은 타산적 합리성으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동양에서 효행봉양을 받는 상당수 부모들은 효행의 대가로 자식에게 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큼 유족하지 않다. 과거의 관례로 보더라도 유산상속은 효심의 깊이에 따라 이뤄지기보다 장자상속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이코노미스트』의 글은 효의 실체를 규명해 주기보다, 서구적 합리성, 타산적 합리성의 개념, 게임의 규칙, 이타심의 이기성 등이 규범의 정당화에 있어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준다. 『논어』에서 효에 대한 동양적 견해를 엿볼 수 있다: 자유(子遊)가 효를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근자엔 효를 공양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나, 개와 말도 키움을 받을 수 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코노미스트』의 주장과 『논어』의 대화를 근거로 세 가지 태도 또는 규범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경(敬)적인 효, 둘째, 견마지양(犬馬之養), 셋째, 타산적 효이다. 셋째는 타산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부모를 모시는 것으로, 자신의 노후를 생각해서 또는 상속될 유산에 대한 기대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동물의 경우처럼 거의 본능적으로, 단지 상대방이 부모요 어미라는 지각에서 맹목적으로 부모를 보호하고 모시는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맹목적 배려는 어미의 새끼에 대한 태도에서 흔히 볼 수 있음에 비해, 새끼가 어미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그러나 견마와 같은 가축의 경우 이를 관찰할 수 있기도 하다. 견마지양은 타산적 효와 달리 타산적 이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자연상태에 가깝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규범의 성격이 요구하는 절대성의 요인은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견마가 자기 어미를 보호하고 부양하는데 그 행위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조건부적 계산이 아니라, 어미요 새끼라는 인지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셋째보다는 정언명령에 가깝다. 행위자 자신의 보존 같은 이해타산적 계산은 짐승이니 할 수도 없겠거니와, 그런 이유에서 짐승들은 어미에 대한 봉양이라는 절대적·보편적 원리에 매몰되어 있다.

우리가 부모를 봉양하되 공경의 마음 없이 물질적·경제적으로만 봉양하면 그것은 소나 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게 공자의 지적이다. 그것이 어떤 차원의 개념이건, 공자가 경(敬)개념을 통해 인간규범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으며 인간규범과 견마를 움직이는 행태적 법칙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규범은 견마를 움직이는 맹목적·필연적·생리적 법칙과 같이 외면적이어서 안 된다. 견마의 경우는 어미에의 인지가 조건반사적으로 새끼에게 어떤 유형의 행태를 유발하게 한다. 새끼가 봉양의 행태를 보인 원인은 단지 상대방을 어미로 인지했기 때문일 뿐, 그 이상의 원인이나 요인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런 인지가 행태는 이차적이라는 것이 공자의 논변이다. 우선 타방에 대한 인지, 즉 상대가 부모라는 인식이 이뤄져야 한다. 그다음 그 인식은 자식에게 어떤 윤리적·종교적·형이상학적 태도를 내면적으로 갖추게 했을 것이다. 공자의 주장은 부모나 어미라는 인지보다 경이라는 형이상학적 태도가 그 자식으로 하여금 봉양의 행위를 수행하게 해야 그 봉양이 진정한 의미의 효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 기>

- ㄱ. 효라는 인륜적 규범에서 핵심적 요인으로 공자가 논한 것은 경이다. 그러므로 효의 행위를 수행케 하는 것은 상대방을 부모로 인식해서라기보다 그 인식이 유발한 경의 태도이다.
- ㄴ. 개와 말의 봉양은 생리적이고 필연적인 행태이지만, 인간의 효는 윤리적이고 형이상학적 태도의 표현이다. 전자는 내면성이나 형이상학적 성격이 없음에 반해, 후자는 그런 것을 원인으로 하는 점에서 그 행위의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다.
- ㄷ. 견마의 행태에도 어떤 종류의 절대성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절대성은 행태의 필연성, 어미의 인지라는 일정한 인과적 원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봉양이라는 행태가 결과한다는 인과관계의 결정성과 다르지 않다.
- ㄹ. 유산상속을 바라고 행한 효는 부모를 자신의 노후를 위한 보험, 즉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점에서 타산적 합리성의 관점에 의한 것이며, 수단과 목적 간 인과관계를 헤아리는 인간의 능력이 토대가 된 선택인 점에서 견마지양의 경우보다 더 나은 것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이라는 생물학적 존재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사회 속에서 ‘언어’라는 의미 있는 상징을 통해 정신을 지닌 생각하는 존재로 변화한다. 여기에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음성 제스처를 이용한 언어의 발달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인간 바깥의 사회적 세계에 대한 의미가 개인 내부에 형성되도록 만든다. 더 나아가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아에 대한 관념까지 생긴다. 의미, 언어, 사고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대상에 부여한 의미에 기반을 두고 타인이나 대상에게 행동한다. 언어라는 상징을 사용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발생한다. 상징적 이름 붙이기가 인간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며, 이것이 지식을 형성한다. 상징의 해석은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된다. 생각은 언어에 기반을 둔 정신적 대화, 즉 내적 대화로서, 동물에게는 이러한 내적인 반추가 없다. 사람은 상징을 통해 상대에게 말할 때 자기 자신 안에서 똑같은 것을 불러일으킨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 안에서 상상하는 내적 대화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함으로써 생기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미드(Mead)는 ‘일반화된 타인’이라고 하며, 이것은 콜리(Cooley)의 ‘거울 이미지 자아’와 일맥상통하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의 핵심 개념이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본 자아를 ‘me’라고 할 때, 이것은 시간에 걸쳐 발달되는 지속적인 자아개념이다. 이에 대비되는 자발적·적극적인 힘은 ‘I’에 해당한다.

사회적 과정을 개인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정신이다. 사회적 행위의 조직이 유기체에 들어와서 개인의 정신을 형성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자아는 제스처의 대화가 유기체 안에 내재화된 것이다. 제스처의 대화를 개인의 행위에 끌어들이므로써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효율성을 부여받게 된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타인과 연결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 ‘I’와 ‘me’ 사이의 대화가 자아를 형성하여 개인의 행위에 편입되는 것이다. 자아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기반을 둔 ‘일반화된 타인’으로서, 개인이 사회화되어온 공동체를 반영한다. 즉 자아는 개인 속에 있는 조직화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제스처의 대화의 본질은 상대의 자극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통해 상대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이며, 제스처의 대화에서 개인의 반응은 사회적 과정 자체를 끊임없이 수정해간다. 개인은 전체 사회를 재조직화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태도에 따라 사회를 계속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른 사람의 태도를 비판하고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 속에서 공동체의 반응을 불러낼 수 있는 한에서만 그렇다. 즉, 공동체의 태도를 취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가능하다.

미드의 관점은 객관적 상대주의에 해당한다.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공동체나 사회가 B라는 사람의 것과 동일하지 않으면, A와 B는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주관적인 정신과 자아가 생성되지만, 이것은 사람마다 또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문화마다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 ① 인간은 언어와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는 생물학적 존재에 불과하다.
- ②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내적인 반추가 있다.
- ③ 미드의 ‘일반화된 타인’은 객관적 상대주의에 속하는 관점이다.
- ④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주관적인 정신과 자아가 생겨난다.
- ⑤ 공동체의 태도를 취하고 그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의 충분조건이다.

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주로 일본에서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파업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공제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임금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반 급여나 수당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임금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가운데 임금에 해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임금으로 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 임금의 본질에 관한 이론은 임금법제의 해석과 적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임금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다음과 같다.

A학설은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교환계약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가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근로계약상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 즉,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제공의 이행이 선행된 후 지급되는 후불적 성격을 갖는다.

B학설은 임금을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긴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었으면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어서 실제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편입되어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서 노동력을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게 되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노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한 임금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C학설은 임금이 현실적인 근로제공에 따른 교환적 임금과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생활보장적 임금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실제로 행해진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급되는 부분과 이를 전제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이나 직무수당 등은 교환적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종업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나 교육수당은 생활보장적 임금에 해당한다.

- ① A학설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수당을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 ② B학설은 재택근무와 같이 출퇴근이 불분명한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③ C학설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킨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출근한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B학설에 따르면 사용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⑤ C학설에 따르면 두 근로자가 같은 양과 질의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임금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4.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위챗(WeChat)’은 메신저 앱을 넘어 중국인들의 ‘생활 플랫폼’이 됐다. 금융·결제·쇼핑·예약·공과금 결제 등 거의 모든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해결하는 ‘슈퍼 앱’으로 불린다. 이는 중국 내 알리페이 등 ICT 기업으로 확산되었고, 다른 나라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관점에서 슈퍼 앱이 파괴적인 이유는, 실생활의 행동 흐름을 데이터로 연결해 수평적 흐름을 만들어 내는 ‘데이터 쓰레드(Data Thread)’를 통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소비자의 욕구를 읽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인터넷 이용자는 약 8억 3,000만명(전체 인구대비 약 60%)으로, 미국의 3배에 가깝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구매 행동의 정밀한 지도를 보유하게 됐다. 중국 기업은 데이터 쓰레드를 완성함으로써 데이터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자신만의 인공지능 색채를 내기 시작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이 미국 중심의 일극체계를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계로 전환시켰고, 민족주의를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그간 산업의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미국이었지만, 중국은 정부 주도로 풍부한 ‘데이터 가치사슬’을 창출하며 자신만의 인공지능 색채를 가진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봤다. 인공지능 전략이 기술 경쟁을 넘어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인공지능 민족주의’가 등장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자국의 데이터, 서비스 등을 보호하고 타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새로운 국민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인공지능 선도 기업과 서비스들은 무역 거래제한 조치, 조세 제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국경을 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정치 질서와 맞물리며 국가 간 과학기술 격차는 물론 강력한 무기화 가능성을 지적한다.

<보 기>

- ㄱ.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동력인 인공지능은 미국 중심의 일극체계로부터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계로 전환시켰다는 분석이 있다.
- ㄴ. 인공지능 기술은 정치 질서와 맞물려 국가 간 과학기술 격차는 물론 강력한 무기화의 가능성이 있다.
- ㄷ. 인공지능은 민족주의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지구촌의 하나의식, 즉 통합적 사고확립에 기여한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귀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던 공자(孔子)는 예(禮)를 중시하였고, 상례(喪禮)와 제례(祭禮)가 인간의 죽음과 관련한 예제(禮制)였던 만큼 귀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귀신에 대해 일부러 알려하지는 않되 예제를 준행하는 차원에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외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중용(中庸)』에서는 제사를 흠향(歆饗)하는 존재로서 귀신을 설정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제례가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 기능을 함께 지녀야 하며, 제의를 통해 인간 스스로 경건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한대(漢代)에 이르러 귀신에 대한 이해는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인 기(氣)의 취산(聚散)과 관련한 사생관(死生觀)이 결부되면서 그 실재성이 강화되었고, 귀신의 개념에 유산(游散)하는 혼백(魂魄)의 뜻이 부가되어 유교적 제의(祭儀)의 의미는 더욱 부각되었다.

성리학이 본격화하는 북송(北宋)에 이르러 귀신 개념은 자연 철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장재(張載)는 귀신이란 기의 취산(聚散), 음양의 모이고 흩어지는 내재적 변화 능력이라 규정하고, 귀신을 우주 자연의 보편적인 운행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동시대 학자인 정이(程頤)는 기뿐만 아니라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인 이(理)로 우주 자연을 설명하면서 귀신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변화 능력이자 자연 전체의 변화 운행으로 파악하였다.

북송 성리학자들의 귀신 개념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주희(朱熹)는 ‘신(神)은 펼치는 것이고 귀(鬼)는 움츠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바람·비·천둥 등이 막 발생할 때는 신이고, 바람이 그치고 비가 지나가며 천둥이 멈추는 것은 귀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자연계의 모든 현상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것을 다 귀신으로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제사의 의의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물이나 자연 현상과 같이 그 기가 흩어지지만, 단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완전한 소멸에 이를 때까지는 제사를 통해 느껴서 다가오는 이치가 있다고 설명하여 기의 취산이라는 자연 현상으로 귀신을 설명하면서도 그것이 조상의 넋을 숭모하는 제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희는 정이와 마찬가지로 귀신이 외부에 실체적 사물로서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사에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면 제사 주관자의 마음 속에서 그것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여 귀신의 존재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 ① 성리학이 본격화되는 시대에서 귀신을 자연의 변화 능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 ② 장재는 귀신을 우주자연의 보편적 원리가 내포된 실체적 사물로 이해하였다.
- ③ 한대에는 귀신을 음양의 조화에 따라 혼백이 소멸한 결과로 이해하였다.
- ④ 주희는 귀신을 우주자연의 보편적인 운행 현상 측면에 한정하여 규정하였다.
- ⑤ 한대의 학자 정이는 기와 이로 우주 자연을 설명하며, 귀신을 개별적 현상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변화 능력으로 파악하였다.

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고대 그리스 사상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제로 압축될 수 있다. 여기서 정치란 경제 또는 사회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란 집안의 일이다. 이코노믹스라는 단어 자체가 오이코스, 즉 가계라는 그리스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에 집안의 일이란 필요와 생존의 차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가장 기초적이지만 저속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집안의 일이란 여자나 노예들이 전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이 경제를 저속한 차원의 일로 간주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필요에 얽매어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생존과 필요, 욕구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 특유의 인간다운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필요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행하는 행위들이었고, 이것이 바로 정치였다. 따라서 정치란 집안의 문제, 즉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장인 폴리스에서 행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정치적 동물로서 정치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초월한 상태에서 비로소 가능하였다. 정치란 사적 영역을 초월하여 공공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였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삶이란 어떤 것이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의 첫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관찰하건대 모든 도시나 국가들은 결사체들인 동시에 모두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형성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에 근거하여, 모든 결사체들은 어떤 선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높고, 다른 모든 결사체를 포괄하는 결사체가 이런 목적을 가장 철저하게 지향할 것이며, 따라서 최고선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높고 가장 포괄적인 결사체가 바로 흔히 말하는 폴리스 또는 정치적 결사체이다.”

폴리스, 즉 정치적 결사체는 다양한 선을 추구하는 결사체 또는 개인들의 집합으로서 역시 그 자체의 선을 추구하는데, 이 선은 다른 모든 결사체나 개인들이 추구하는 선을 포괄하는 동시에 가장 값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결사체와 개인의 선이 근대 사회계약론의 맥락에서 말하는 자기(self-interest)와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란 점이다. 그것은 모든 선-지향적인 행위란 간주관적인 것, 그 사회가 값어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 것, 즉 타인들과의 협동을 통하여만 가능한 것인 반면, 근대적 의미의 이해란 절대적 개인의 본능과 욕구 또는 순수이성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폴리스에 참여하는 시민은 자신의 선을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는 동시에 폴리스가 지향하는 지고(至高)의 선을 실현하는 데도 동참하는 존재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로의 다양한 선을 모두 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선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서로 조절하고 배분하는 행위를 토론과 논쟁 등을 통해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의 핵심이다. 따라서 정치란 공동선을 언설을 통해 토론하면서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바로 공공영역에서 행해지는 정치는 필요의 차원인 경제, 자기 이해에 관한 가계차원, 사적 영역의 것과 철저하게 구분된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형성된 가계는 자유롭지 못한 곳이다. 그리고 필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예가 행하는 노동 역시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계의 권력체계 역시 철저한 가부장적인 체계로서 집안의 남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다. 필요와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와 폭력이 허용될 수밖에 없었다.

<보 기>

- ㄱ.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은 사적 영역이 필요와 생존의 차원이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간주하였다.
- ㄴ. 고대 그리스 사상에 따르면, 경제란 필요와 생존의 영역이고 집안의 영역이며, 전제적 권력과 폭력이 적용되는 영역이었다.
- ㄷ. 고대 그리스 사상은 그 인식론이나 존재론, 체제론에 걸쳐서 철저하게 개인의 사적 영역의 보호와 개인의 권리의 옹호를 지고의 이상으로 삼으면서 태동하였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7. 다음 <조건>에 따를 때, 각 위원회의 법안 검토 순서의 가능한 조합으로 옳은 것은?

<조 건>

A 위원회와 B 위원회는 가~바 총 6개의 법안을 각각 6주 동안 검토할 것이다. 가, 나, 다 3개 법안은 민생 법안이고, 라, 마, 바 3개 법안은 사법부 법안이다. A 위원회와 B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대로 법안을 검토한다.

- B 위원회는 A 위원회가 먼저 검토하지 않은 민생 법안은 검토할 수 없다.
- A 위원회는 B 위원회가 먼저 검토하지 않은 사법부 법안은 검토할 수 없다.
- B 위원회는 민생 법안 2개를 연속으로 검토할 수 없다.
- A 위원회는 4주 차에 라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
- 각 위원회는 6주에 걸쳐 매주 하나의 법안을 검토한다.
- 어떤 법안도 같은 주에 A, B 위원회에서 동시에 검토하지 않는다.

| | | 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6주 |
|---|--------|----|----|----|----|----|----|
| ① | A 위원회: | 가 | 나 | 라 | 바 | 다 | 마 |
| | B 위원회: | 라 | 가 | 바 | 나 | 마 | 다 |
| ② | A 위원회: | 나 | 바 | 가 | 라 | 다 | 마 |
| | B 위원회: | 바 | 가 | 라 | 나 | 마 | 다 |
| ③ | A 위원회: | 나 | 다 | 가 | 라 | 마 | 바 |
| | B 위원회: | 라 | 나 | 다 | 마 | 바 | 가 |
| ④ | A 위원회: | 가 | 마 | 나 | 라 | 다 | 바 |
| | B 위원회: | 마 | 가 | 라 | 나 | 바 | 다 |
| ⑤ | A 위원회: | 다 | 마 | 가 | 라 | 나 | 바 |
| | B 위원회: | 라 | 다 | 바 | 가 | 마 | 나 |

8. 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 그러나 양육과 문화 차이만으로 남녀의 기억 능력 차이를 다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1894년 영국 심리학자 해블록 엘리스와 1991년 미국 시카고의대 세리 베런바움 박사의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성인 남녀뿐 아니라 성장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은 남녀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기억력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대체로 여성의 기억력이 남성보다 높다는 발견을 보고해왔다.
- ㉡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뇌의 신경세포 성장과 활성 조절 등에 뚜렷하게 관여한다는 것은 실험동물 연구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신경세포가 에스트로겐을 만나면 ‘시냅스’(신경세포 연결 부위)의 밀도가 증가하고 시냅스를 통한 신경세포 간 신호전달도 늘어난다. 실제로 암컷 쥐의 기억력이 생리주기에 따라 크게 변화하며 암컷 쥐의 난소를 제거하면 수컷과 암컷의 기억 능력이 비슷해지기도 한다.
- ㉢ 이런 남녀의 기억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성호르몬’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스펀 물러 박사가 2008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을 타고나 남성호르몬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높은 일부 여성 환자들은 정상 여성보다 공간 기억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질 골드스타인 박사 연구팀은 같은 나이대의 남성보다 인지와 기억 능력이 더 좋았던 중년 여성이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 그렇다고 모든 종류의 기억력이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여성은 ‘언어 기억 능력’이 남성에 비해 뛰어나다고 한다. 언어 처리 능력이 언어 및 의미부여와 관련한 기억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과 사물 등을 여성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74년 미국 심리학자 엘리너 매코비와 캐럴 재클린은 기억 관련 연구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남성은 공간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공간 기억 능력’이 여성보다 뛰어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 ㉤ 학습과 기억에 정말 남녀 차이가 있는 걸까? 답하기가 쉽지 않은 물음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관심이 높은 시대에 선 부른 대답은 양성 모두에게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인간 대상 연구의 특성으로 볼 때 실험 조건이나 피험자의 개인 특성, 데이터 분석방법 등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0세기 들어 페미니즘이 발전하고 여권신장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남녀의 기억력 차이는 주로 사회문화적 양육 환경과 문화 차이로 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즉,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뇌와 인지기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성 역할에 맞는 양육과 학습 과정을 겪으면서 선택적인 인지기능 발달을 통해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결정된다고 본다.
- ㉥ 이 사실은 과학실험 방법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일부 신경생물학자들은 안정적이고 재현성 높은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호르몬의 주기적 변화가 적은 수컷 쥐만을 골라 학습과 기억 실험에 사용해왔다. 그런데 성호르몬이 인지기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동물의 한쪽 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도 커졌다. 이제는 기억 연구에서도 ‘실험동물의 양성평등’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⑤ ㉤ - ㉥ - ㉣ - ㉡ - ㉢ - ㉠

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대하여 목적 또는 성격이 바뀌는 사유로 그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원안에 대신하여 입안·제출하는 법률안을 대안이라고 한다.

대안은 「국회법」 제51조에 따른 위원회 대안과 「국회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의원발의대안으로 나눌 수 있다. 입법 실무상 의원발의대안(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은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의원 10인 이상의 찬성)하는 것보다 요건이 엄격하여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위원회에서 동일한 법률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복수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할 때 이들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제출하는 위원회 대안이 하나의 관례로서 확립되어 있으므로 보통 대안이라 하면 위원회 대안을 의미한다.

위원회 대안은 넓게 보면 위원회가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원회안의 한 부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원회 대안은 위원회안과는 달리 원안을 전제로 하는 사실상 수정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안과 독립하여 설명하는 것이 통례이다.

위원회 대안은 위원회안과 함께 위원회의 제안의 한 유형이지만, 위원회 대안에는 원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안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원회안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대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대안의 제안 설명 외에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도 함께 한다. 위원회 대안의 발의요건은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는 경우와 같다. 즉, 위원 2인 이상이 동의를 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여 이를 발의한다. 대안은 원안을 폐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것이므로 대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위원회 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결과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원의 동의로 제안된 대안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하게 한 다음 위원회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하는 경우 및 「국회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한 뒤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원발의대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여 원안을 폐기하고 의원발의대안의 내용을 택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 ① 대안은 위원회 대안과 의원발의대안, 그리고 위원회안으로 나뉜다.
- ② 위원회 수정안은 위원 2인 이상이 동의를 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제안을 하여 발의한다.
- ③ 위원회 대안은 수정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
- ④ 위원회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도 함께 해야 한다.
- ⑤ 「국회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대안은 위원회에 제출한 뒤 소위원회의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친다.

10.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레바는 태생의 통계학자이자 주식거래인, 나아가 다방면에 두루 학식을 갖춘 지식인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현재 뉴욕대에서 리스크 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7년 베스트셀러 『블랙 스완』에서 탈레브는 사람들이 대체로 리스크를 잘못된 방식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체계 속에서는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언젠가는 필연코 발생할 것이 거의 분명한데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만 리스크를 계산하려고 집한다. 지내다 보면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삶인데도 말이다.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빚낸 것이 이른바 ‘블랙 스완의 출현’으로,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고니는 전부 하얏다고 믿는 사람의 눈앞에 검은 고니가 나타난 것을 이른다.

탈레브는 더 나중의 책인 『안티프래질』에서 각종 체제와 사람들이 이런 블랙 스완을 피치 못하게 만나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나아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그러듯 어떤 식의 반응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다져나가는지 설명한다. 이 책에서 탈레브는 우리에게 다음의 셋을 잘 구별하라고 이른다. 먼저 우리 주변에는 도자기 찻잔처럼 유약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 손대면 쉽게 깨지는 것은 물론, 알아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조심스레 다루고 아이들에게서도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게 상책이다. 다른 한편 이른바 회복탄력성을 갖춘 물건들은 웬만한 충격 정도는 잘 견뎌낸다. 부모들이 아기들에게 보통 플라스틱 컵을 쥐어주는 것도 플라스틱은 바닥에 연거푸 떨어뜨려도 아무렇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컵의 기능이 더 향상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회복탄력성을 뛰어넘어, 우리 주변에는 깨지지 않는 단단함을 지닌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탈레브는 이야기한다. 우리의 경제나 정치·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중요한 체제 중에는 우리의 면역 체계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들이 많다. 이들 체제 역시 배우고,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저런 스트레스 요인과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단단함을 지닌 체제들은 어떤 식으로든 도전이 가해져 거기에 열심히 반응하도록 압박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오히려 경직되고, 힘이 빠지고, 효율성마저 잃는다. 탈레브는 이런 단단함을 지닌 것들의 예로 인체의 근육과 뼈, 그리고 아이들을 든다.

“한 달 동안 가만히 침대에 드러누워 있기로 해도 그새 근육이 무기력해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복잡한 시스템은 스트레스 요인을 싹 제거해버리면 외려 허약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오늘날의 딱 짜인 세계는 포괄적인 정책들과 갖가지의 기발한 편의시설로 오히려 우리를 해치고 있으니……. 그것들이 하는 일이란 결국, 시스템이 가진 본연의 단단함을 모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삶의 비극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신경증적으로 과잉보호하듯, 원래는 우리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폐해를 입힐 때가 많다.”

탈레브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모두 눈여겨보라는 듯, 책 서두에 시적인 이미지를 하나 실어놓았다. 그 이미지에는 흑 불어오는 바람은 촛불을 꺼뜨리기도 하지만, 불꽃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힘이기도 하다는 말이 달려 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촛불처럼 되지 말아야 하고, 아울러 우리 아이들도 촛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탈레브의 조언이다. 즉, 탈레브의 조언에 따르면

- ① 여러분은 촛불이며, 따라서 바람을 피하며 타오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② 여러분은 촛불에서 불로 성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바람이 잦아들기를 바라고 있다.
- ③ 여러분은 금세 사그라드는 불꽃이 아니라 밝게 빛나는 촛불이어야 한다.
- ④ 여러분은 블랙 스완이 되기를 꿈꾸며, 날아오르기 위해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
- ⑤ 여러분은 불어오는 바람에 더욱 세차게 일어나는 불꽃이 되어야 한다.

11. 다음 <조건>에 따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 건>

甲 마을에는 사람 A, B, C가 존재한다. 이들의 이름은 ‘참말쟁이’, ‘거짓말쟁이’, ‘랜덤쟁이’이고, 무엇이 누구 이름인지는 A, B, C만 알고 있다. ‘참말쟁이’는 참말만을 하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만을 한다. ‘랜덤쟁이’는 완전히 무작위로 참말이나 거짓말을 한다. 어느 날 乙 마을에 사는 X가 A, B, C에게 질문을 한다. A, B, C는 X의 언어를 알아듣지만 대답은 ‘예’ 혹은 ‘아니오’의 뜻을 지닌 甲 마을의 언어 ‘Yei’, ‘Nei’로 하는데, X는 ‘Yei’와 ‘Nei’ 중 하나는 ‘예’이고 다른 하나는 ‘아니오’라는 것을 알지만 X는 어떤 단어가 ‘예’이고 어떤 단어가 ‘아니오’인지는 모른다.

<보 기>

- ㄱ. X가 “너는 참말쟁이니?”라고 A, B에게 질문했을 때, 두 사람 모두 ‘Nei’라고 대답했다면 ‘Nei’의 뜻은 ‘예’이다.
- ㄴ. X가 A에게 “‘Yei’의 뜻은 ‘예’인가?”라는 질문에 B가 항상 ‘Yei’라고 대답할까?”라고 질문했을 때, A가 ‘Yei’라고 대답했다면 A가 ‘참말쟁이’가 아니거나 ‘Yei’의 뜻은 ‘아니오’이다.
- ㄷ. X가 “너는 참말쟁이니?”라고 A, B에게 질문했을 때, 각각 ‘Yei’, ‘Nei’라고 대답했다면 X는 C에게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을 더함으로써 C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폐증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아픔을 주는 질환이다. 영화 등에서 종종 접할 수 있기에 생소하진 않지만, 이 질환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너무나 먼 길이 남아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람에 따라 증상의 범위나 정도가 다른 질환으로, 유전적 요인 혹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학계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적 혹은 환경적 요인을 모방해 사회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동물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환경적 요인 중 하나는 임신 중인 어머니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 수준이 아닌 심한 염증성 질환을 앓는 것인데, 이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한 생쥐에게 염증 상황을 모사하도록 박테리아 유래의 ‘지질다당류(lipopolysaccharide, LPS)’를 주입하면 그 자손 생쥐가 사회 행동에 문제를 보인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글로리아 최 교수 연구진과 하버드 의대의 허준열 교수 연구진은 이를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런데 최근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소개되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어린이 중 일부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열이 날 정도가 되면 잠시나마 행동 장애가 호전된다는 사례가 보고됐는데, 두 교수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이 현상의 원리를 연구했다.

박테리아 유래 지질다당류는 감염성 질환처럼 열과 염증을 초래하기에, 자폐 모델 동물에게 지질다당류를 주입하고 사회 행동 이상이 개선되는지 조사했다. 신기하게도 어미 생쥐가 심한 염증을 앓아 사회 행동 장애가 발생한 새끼 생쥐에서는 지질다당류 주입이 사회 행동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어미에게는 독이 된 물질이 새끼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 것이다. 염증 상황에서는 발열과 면역물질의 증가가 주요 현상이기에 각각의 중요성을 실험적으로 따져본 결과, 체온을 조절하는 뇌 지역의 활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염증 상황인 것처럼 체온만을 높였을 때는 사회 행동의 개선이 보이지 않았다.

반면 면역물질 중 어미 생쥐의 염증에 의한 자폐 모델 생쥐에게 특히 증가해 있는 ‘인터루킨17a’라는 물질을 특정 부위에 주입하면 어미의 염증에 의한 자폐 모델 생쥐뿐만 아니라 유전적 원인에 의한 자폐 모델 생쥐에게도 사회 행동 개선 효과가 있었다. 지질다당류에서 비롯되는 물질인 인터루킨17a는 아무 곳도 아니라 체감각피질의 특정 세부 영역(S1DZ)에 주입해야 한다. 이 영역은 여러 자폐 모델 생쥐에서 정상 생쥐보다 과활성화돼 있고 이 영역의 신경 활성을 정상적으로 조절하면 사회 행동을 정상화할 수 있는데, 인터루킨17a를 자폐 모델 생쥐의 S1DZ에 주사하니 과활성화가 사라지면서 사회 행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보 기>

- ㄱ. 박테리아 유래 물질 중에는 열과 염증을 초래하는 물질이 있다.
- ㄴ. 글로리아 최 교수 연구진과 허준열 교수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체온의 조절을 통하여 어린이 자폐증 환자의 행동 장애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 ㄷ. 임신한 정상 생쥐의 체감각피질에 지질다당류를 주입하면 해당 생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13.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고전 음악의 특성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균형과 조화, 명확성, 접근용이성이 고전 음악의 주요 특징들이다. 이는 귀에 편안하게 들리는 음악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의 특징이 감동적이거나 심오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전 음악의 대명사 모차르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지막 작품들이 잘 훈련된 감상자와 아마추어 감상자 모두에게 호소력 있는 음악이라고 편지에 쓴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섬세한 부분까지도 알아채며 감상하고, 아마추어는 왜 그런지는 모른 채 즐길 수 있다.

고전주의 음악은 바로크 음악의 복잡함에 대한 반작용이다. 고전 음악은 대체로 선율과 반주로 이루어지는데, 반주는 가볍고 단순하다. 선율은 유쾌하고 일상 생활에서 허밍이나 휘파람으로 따라 부르기 적합한 듣기 좋은 선율로 이루어진다.

고전 음악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들리는 데에는 몇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첫째로, 이는 선율 악구의 길이와 관련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긴 선율이 일반적이었던 바로크 음악과 달리, 고전 음악은 보통 둘에서 네 마디 악구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명확하고 균형 잡혀 있다. 두 번째 기술적 측면은 화성이다. 고전 음악의 화성은 대체로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분명하다. 고전주의 작곡가들은 기본 화성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성을 선호하며 낯설거나 불협화적인 화음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고전 음악의 효과는 상당 부분 반주에 기인한다. 바로크 시대에 막강했던 지속저음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베이스 선의 각 음이 대부분 순차적으로 움직이며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리듬을 갖는 단순한 워킹 베이스나 리듬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짧고 빠른 음형들이 대신하였다.

<보 기>

- ㄱ. 폭넓은 감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ㄴ. 종교적 색채를 띤 음악들이 많다.
- ㄷ. 패턴과 규칙, 균형 등을 활용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1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의 뇌는 쇼핑을 좋아한다. 훌륭한 쇼핑 경험은 우리에게 도파민이라는 화학 물질 분비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우리의 감각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주로 쾌락, 동기부여, 주의력 또는 행동하려는 의지를 관장한다. 간단히 말해 즐거움을 경험할 때 얻는 화학 보상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텐포드 대학교 교수인 사폴스키 박사는 원숭이의 뇌를 가지고 도파민을 연구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의 인과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의 연구 결과는 유통종사자들에게 도파민이 소비자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준다. 그의 한 연구를 보자. 원숭이들은 어떤 짧은 작업을 끝내도록 훈련 받았다. 작업을 끝내면 음식을 얻을 수 있다. 실험이 반복될 때마다 빛이 들어오고, 원숭이들은 작업을 시작한다. 작업을 끝내면 언제나 보상을 받는다.

사폴스키 박사는 원숭이가 보상을 받을 때 도파민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원숭이의 도파민 수치는 빛을 보는 순간 높아졌다. 빛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도파민 분비를 유발한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다. 사폴스키 박사는 원숭이가 과제를 수행한 후 언제나 보상을 받으면 도파민 수치가 평균치에 머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자 도파민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보상을 받을 확률이 절반일 때 오히려 도파민 수치가 가장 높았다. 즉 얻고 싶은 것을 무조건 얻을 수 있다고 보장받으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때보다 도파민이 덜 분비된다.

이 연구는 많은 것을 설명한다. 먼저 사람들이 도박, 종교, 약물 중독에 쉽게 빠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쇼핑에 임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기대하는 순간 소비자의 도파민 수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 더욱 상승할 것이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왜 살살이 뒤지며 쇼핑해야 하는 할인점이나 아울렛을 좋아하는지 말해준다. 살살이 뒤지는 과정은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와 색상, 스타일의 제품을 찾는 보물찾기와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

우리는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온라인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의 도파민 분비량을 낮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마존에서의 쇼핑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실성을 주기에 우리 뇌의 논리적인 부분을 충족시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도파민 분비량을 줄여 쇼핑의 전반적인 만족감을 낮춘다. 이는 반대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코스트코 같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독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도파민 수치를 높이려는 전략을 선보인 적이 있다. 코스트코는 매우 제한적인 물량만 풀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원래 사려고 한 것보다 더 많이 구매했다.

위대한 유통업체들은 인간 두뇌가 가진 특징을 바탕으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연히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고 원하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의 경계 사이를 걷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미묘한 경계를 실제 매장에서 경험한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이 잘 반영된 매장이라면 사람들에게 발견의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훌륭한 쇼핑 경험은 예측 가능성과 우연성의 승고한 결합이다.

- ①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확신이 없을 때에 비해 도파민 수치가 더 낮을 것이다.
- ② 온라인 쇼핑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불리하다.
- ③ 사폴스키 박사의 연구에서 원숭이의 도파민 수치는 보상을 받을 때가 아니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볼 때 더 높았다.
- ④ 도파민에 관한 연구 결과는 유통업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⑤ 사람들이 도박, 종교에 쉽게 빠지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쇼핑하는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15. 다음 <조건>에 따를 때, 갑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 조 건 >

갑 위원회는 제21대국회를 맞아 「○○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현재 갑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재적위원은 A, B, C, D, E, F로 총 6명이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 B 또는 위원 C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석하여야 개최할 수 있다.

각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

- 위원 A가 출석하면 위원 B가 출석하지 않는다.
- 위원 B가 출석하면 위원 F가 출석한다.
- 위원 B 또는 위원 C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석하면 위원 E가 출석하지 않는다.
- 위원 D가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 A 또는 위원 C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출석한다.
- 위원 E가 출석하면 위원 A가 출석한다.
- 위원 F가 출석하면 위원 D가 출석한다.

- ① 0가지
- ② 1가지
- ③ 2가지
- ④ 3가지
- ⑤ 4가지

1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경매는 라틴어 ‘augēo’에서 비롯된 말로, 조금 많이 의역하자면 ‘지른다’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17세기 이전에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통상적으로 가격이나 협상을 통해 거래됐고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 수단은 아니었지만, 경매의 역사는 꽤 길다. 보드게임¹⁾에서는 1930년대 개발된 ‘모노폴리’에 경매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런 만큼 보드게임 속 경매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었다.

보드게임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매는 ‘오픈 경매’다. 이는 도매시장의 경매처럼 누구나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부르고,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낙찰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오픈 경매에서는 가격이 점차 올라가는 레이스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승자의 저주’라고 한다.

오픈 경매가 순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경매 방식이라면, 경매에 참여하는 차례가 고정적으로 돌아오는 ‘라운드 경매’도 있다. 라운드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작 플레이어의 왼쪽 사람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가격을 부르거나 패스를 할 수 있는데, 최종 낙찰자가 생길 때까지 한 방향으로 경매 참여의 권리가 돌아간다. 패스를 했을 때 더 이상 입찰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패스를 하더라도 플레이어가 원한다면 다시 입찰할 수 있는 게임도 있다.

라운드 경매가 경매 참가자들이 원하는 만큼 순서대로 참여할 수 있다면, ‘원스 어라운드 경매’는 모든 경매 참가자들에게 단 한 번의 경매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작 플레이어의 왼쪽 사람부터 원하는 가격을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시작 플레이어가 원하는 가격을 공개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플레이어가 물품을 낙찰 받는다. 정확하게 한 바퀴만 돌기 때문에 ‘일주 경매’라고도 한다.

‘블라인드 경매’도 있는데, ‘실드 경매’ 혹은 ‘히든 경매’라고도 불린다. 블라인드 경매는 주먹에 원하는 만큼의 가격을 쥐고, 동시에 주먹을 펼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플레이어가 해당 물품을 낙찰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블라인드 경매를 할 때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낙찰에 성공하는 것이 좋다. 또한, 블라인드 경매에서는 경매에 건 돈이 낙찰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버려지기도 하므로, 확실하게 이길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꽃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네덜란드식 경매’는 상품을 제시하고, 비싼 가격에서 시작해 점차 가격을 떨어뜨리는 경매 방식이다. 최고 호가로부터 점차 가격을 낮추어 가다가, 최초로 구매 희망자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낙찰을 하는 것이다.

1) 보드게임: 판 위에서 말이나 카드를 놓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게임

<보 기>

- ㄱ. 라운드 경매 방식에서는 가격이 점차 올라가는 레이스가 벌어지지 않는다.
- ㄴ. 일주 경매 방식에서 해당 물품을 반드시 사고 싶을 경우 시작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 ㄷ. 17세기 이전의 상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블라인드 경매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 ㄹ. 최초로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경매 방식은 네덜란드 꽃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7. 다음 <조건>에 따를 때, 팀장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조 건>

A 팀과 B 팀은 갑, 을, 병, 정, 무로만 구성되어 있다. 갑, 을, 병, 정, 무는 A 팀과 B 팀 중 하나의 팀에만 소속되어 있다. A 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B 팀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대화에서 팀장의 말은 모두 거짓이고, 팀원의 말은 모두 참이다.

- 갑: 무는 B 팀이야.
- 을: 무는 팀장이야.
- 병: 갑과 정은 모두 B 팀이야.
- 정: 갑과 무는 모두 팀원이야.
- 무: 우리 중에 참을 말하고 있는 사람은 3명뿐이야.

- ① 갑, 을
- ② 갑, 정
- ③ 을, 병
- ④ 을, 정
- ⑤ 정, 무

18.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사고가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에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 미루는 습성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학의 슈퍼볼’이라고 불리는 과학 영재 선발대회 수상자들을 살펴보자. 심리학자 레나 수보트닉이 이끄는 연구팀은 대회 수상자들이 상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나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인터뷰해 사회생활에서, 건강 관련 행동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일을 할 때와 창의적인 일을 할 때 시간을 끄는지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68퍼센트의 수상자들이 위의 네 가지 영역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 일을 미룬다고 대답했다. 특히 미루기는 창의적인 업무를 할 때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영재들은 “미루기를 과학적인 문제에 있어 해결책을 너무 서둘러 선택하지 않고, 생각이 무르익도록 해주는 방편으로 삼았다.”라고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끄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상 뭔가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찬찬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과학적인 작업을 할 때는 아이디어가 숙성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 끌기는 설익은 해결책을 내리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말했다. 수보트닉의 연구팀은 생각과 행동이 신중한 이들과의 인터뷰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기발한 결론을 내렸다. “공교롭게도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과 가장 적은 사람들이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가장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 역사상 마틴 루서 킹의 연설만큼 유명한 연설은 아마 딱 하나 있을 것이다.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다. 272 단어에 불과한 이 연설에서 링컨은 남북전쟁을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행위로 재규정했다. 링컨은 연설을 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후 2주 정도의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게티즈버그로 출발하기 전날까지도 링컨 대통령은 연설문의 절반 정도밖에 작성하지 못했다. 그의 비서 존 니콜라이는 “그런 문제를 다룰 때는 늘 그러했듯이 생각을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연설문 문장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만족스러운 문장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링컨은 결국 마무리 단락을 연설하기 전날 밤에야 썼고, 연설 당일 아침에서야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그가 시간을 끈 이유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제를 생각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를 하기 전 초여름, 킹은 연설문에 어떤 내용과 어투가 적당할지에 대해 최측근 세 명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리고 나서 킹은 자신의 변호사이자 연설문 작성자인 클래런스 존스와 연설문을 두고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그다음에 킹은 존스와 또 다른 민권운동가에게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킹은 연설의 주제나 방향을 결정하려는 유혹을 참았다. 그는 대행진 당일로부터 나흘 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연설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대행진 전날 밤, 킹은 보좌진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연설문 작성을 다시 시작했다. 존스는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킹은 “민권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중요한 기념비적인 행사이므로 민권운동의 핵심 인사들로부터 최고의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들을 다시 검토하고 최상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킹이 연설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확정하는 작업을 미룸으로써 존스는 자이가르닉 효과를 보게 되었다. 1927년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사람들이 완성된 작업보다 미완성 작업에 대해 더 잘 기억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작업이 일단 마무리되면, 더 이상 그 작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을 중단한 채로 내버려둘 경우, 그 일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돈다. 존스는 연설 초안을 그날 저녁 토론의 주제와 계속 비교하면서, “나의 깊은 잠재의식에서 뭔가가 떠올랐다.”라고 말했다.

- ① 킹은 연설문 작성자인 존 니콜라이와 연설문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 ② 자이가르닉 효과는 사람들이 완성된 작업을 미완성 작업보다 잘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③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중 하나인 마틴 루서 킹의 연설은 272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 ④ 수보트닉의 연구팀은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과 가장 적은 사람들이 창의적인 일을 할 때 가장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⑤ 에이브러햄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설 당일 아침에서야 연설문을 완성했다.

19.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직장인이라면 하루에도 여러 번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사용한다.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자동차의 문을 열기 위해 RFID를 사용한 후, 주차장 차단기를 올리 기 위해 RFID를 사용한다. 혹시 도로에서 통행료를 내야 하는 곳을 지나야 한다면 이때도 RFID를 사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 인도 마찬가지다. 교통카드도 RFID로 작동한다.

RFID는 다른 무선 기술들과 같이 태그가 리더기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짧은 시간 동안 연결을 하고, 그 범위를 벗 어나면 연결이 끊어진다. 일반적으로 연결이 유지되는 기간은 1초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리더기와 태그 사이에 정보의 전송이 완료 된다. 리더기의 범위 안에 여러 개의 태그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리더기의 반응이 달라진다. 사용자에게 하나의 태그를 선택하 도록 알림을 줄 수도 있고, 모든 태그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한꺼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RFID는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다. 첫째는 30~500킬로헤르츠의 장파장 대역인 낮은 주파수를 사용 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인식 범위는 50센티미터 이내이고, RFID 기술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술이다. 125킬로헤르츠는 출입통제, 방문증, 재고자산 추적, 자동차 키 등에 사용되고 134.2킬로헤르츠는 동물 식 별 등에 사용되며, 귀에 부착하는 형태로 돼지, 소, 양 등에 널리 쓰 이고 있다. 둘째는 13.56메가헤르츠의 단파장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 는 경우로서 인식 범위가 수 센티미터 이하로 좁다. 이는 교통카드, IC 카드/스마트카드 등에 주로 사용되고,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에 부착되어 사용되거나 스키장에서 리프트권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400메가헤르츠 이상의 극초단파장 대역인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인식 범위는 수십 미터에 이르고 국방용, 컨테이너 관리, 원격시동 장치 등에 사용된다. 주차장 출입통제용으로 사용되 는 일명 주차카드는 860~960메가헤르츠가 사용된다. 그 밖에 2.4기 가헤르츠 대역을 사용하는 제품도 있다.

스마트폰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RFID 무선 통신 표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물리 계층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만든 기존의 표준을 사용하고, 애플리케이션 계층만 NFC 포럼에서 새로 작성한 표준을 사용한다. NFC는 13.56메가헤르츠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통신 거리는 10 센티미터 이내로 제한돼 있다. RFID와 달리 NFC는 상황에 따라 태 그와 리더 역할을 변경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데이터는 양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NFC의 짧은 통신 거리 때문에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통신 대상 기기에 스마트폰을 직접 터치해야 한다. 하지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성이 높고 이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의도를 인 식해서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들과 연결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 전시물 옆의 태그에 사용자가 스마트폰 을 갖다 대는 경우에만 동작하게 할 수 있다. 교통카드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한 사람씩 차례로 태그가 이뤄지게 해 준다.

오늘날 스마트폰에는 NFC 기능이 내장되고 있으며 이는 교통카 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쿠폰, 신분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다. 또한 NFC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간편하게 여 닫을 수 있으며, 와이파이 설정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다.

※ 1기가헤르츠 = 1,000메가헤르츠 = 1,000,000킬로헤르츠

- ① RFID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인식 범위가 넓다.
- ② 스마트폰에 적용된 NFC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통신 거리 가 10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돼 있다.
- ③ NFC는 RFID 무선 통신 표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스키장 리프트권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동물 식별 등에 사용되는 주파수보다 높다.
- ⑤ RFID를 적용한 리더기는 범위 안에 여러 개의 태그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하나의 태그를 선택하도록 알림을 줄 수도 있고, 모 든 태그로부터 수신되는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20.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지금보다 평균기온이 더 낮았던 과거에는 어떤 옷차림으로 춥고 기나긴 겨울을 지냈을까? 역사 속 대표적인 방한복은 갓옷이다. 갓옷은 갓, 구(裘), 구의(裘衣)라고도 하며 ‘갓’은 가죽을 뜻한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에서 “짐승의 껍질을 취해 만든 옷을 총칭하여 구(裘)라고 한다”고 하였다. 고대국가 가운데 부여는 여우, 삿, 담비로 만든 갓옷을 입고 금은으로 장식한 모자를 쓴다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에는 모전(毛典), 피전(皮典) 등 동물의 털을 가공하는 전문 기관이 있었다. 이와 같이 오래 전부터 바다표범, 담비, 호랑이, 여우, 말, 소, 개 등 여러 동물의 가죽과 털이 옷을 짓는 데 쓰이며 방한에 이용되었다. 갓옷은 무릎 밑까지 내려가는 길이의 포, 저고리, 배자 등의 형태로 지었으며, 위에 덧입는 옷이었으므로 화장, 길이, 품을 모두 넉넉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방한복으로는 솜옷을 꼽을 수 있다. 목화에서 뻨 목화솜은 가난한 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나게 해 주는 고마운 방한용품이었다. 두루마기, 저고리 등의 겹옷과 속바지와 같은 속옷, 그리고 버선 등 모든 종류의 옷에 목화솜을 두고 지었으며 이불에도 솜을 두둑이 넣어 기나긴 겨울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목화솜 외에도 누에고치로 만든 풀솜이 있는데, 누에고치를 따뜻한 물에 넣고 번데기를 빼낸 다음 잡아 늘려 건조시키고 켜서 만들었다. 풀솜은 눈처럼 희다고 하여 설면자(雪綿子)라고도 불렸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사용하였다. 그러나 누에고치에서 얻는 것이므로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목화솜만큼 좋은 것은 없었다.

옷 이외에 모자에 털을 댄 방한모도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쓰던 남바위는 일명 ‘풍뎡이’라고도 불렸는데, 정수리 부분은 뚫려 있으나 귀와 뒷목까지 덮을 수 있도록 길게 내려온 형태의 모자이다. 여자들은 술과 매듭을 달고 수를 놓거나 금박을 올려 화려하게 장식한 남바위를 썼다. 남바위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양 볼을 가리기 위한 볼끼가 달려있는 풍차도 있다. 풍차 역시 위가 뚫려 있어 남자들은 탕건 위에 쓸 수도 있었다.

남성들이 쓰던 방한모로는 어깨와 등까지 덮을 수 있는 휘향이 있다. 주로 검은색 비단으로 겹을 만들고 안에는 털을 댄데 어깨까지 내려오므로 노인들이 즐겨 사용하였다고 한다. 여성만이 쓰던 방한모에는 아얌이 있다. 위가 뚫린 원통형의 쓰개 부분에 뒷뎡기가 길게 드리워진 형태로 뒷뎡기에 산호, 밀화, 옥 등의 갖가지 보석으로 치장하기도 한다. 방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장식적인 효과가 더 큰 쓰개이다. 조바위 역시 여성만이 쓰던 것으로 위는 뚫려있고 귀와 뺨을 가리도록 둥글게 내려와 있으며 겉에는 각종 길상무늬를 금박을 올리거나 수를 놓아 사용했다. 한편 도시는 손등부터 팔꿈치까지 따뜻하게 해 주는 방한용품으로 겹으로 만들기도 하고 안에 털을 대기도 하였으며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계층에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옷과 모자에는 털이나 솜을 두어 보온효과를 냈지만, 특이하게도 전통 복식문화에서 방한용 신발은 거의 없다. 동구니라는 신은 짚으로 되어 있으며 발목까지 올라오는 모양으로, 신발 위에 덧신는 것이었기 때문에 큼직하게 만들어졌다. 이 신은 방한의 목적보다는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더 큰 신발이다. 옛사람들은 신발보다는 버선에 솜을 두둑이 넣어 발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더 선호했던 것 같다.

<보 기>

- ㄱ. 방한모인 풍차, 남바위, 아얌, 조바위는 모두 위가 뚫려 있다.
- ㄴ. 상류층은 설면자로 만든 방한용품만을 사용하였다.
- ㄷ. 동구니는 눈길에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 ㄹ. 구의는 길이, 품을 넉넉하게 하였다.
- ㅁ. 조바위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겨 쓰던 방한모로, 여자들은 이에 수를 놓거나 금박을 올려 사용하기도 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21.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미국 미네소타대학 병원의 알렉산더 코러츠 교수는 병이 상당히 위중한 61살의 여성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다. 이 환자는 8개월간 극심한 장염으로 15분에 한 번씩 설사를 하는 바람에 체중도 27kg이나 빠진 상태였다. 대장내시경을 통해 본 환자의 대장은 염증으로 엉망이었다. 코러츠 교수는 환자의 질병을 위막성 대장염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떤 연유로 이 환자의 장이 이렇게 망가진 것일까?

대변의 미생물을 검사한 결과 염증의 원인은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이테스 디피실(Clostridioides Difficile, 이하 ‘시디프’라 함)이라는 이름의 세균으로 밝혀졌다. 시디프는 사람 대장에 사는 대표적인 병원성 미생물로, 독소를 만들어 장을 심하게 망가뜨릴 수 있다. 앞에서 말한 환자는 8개월 전에 폐렴을 치료받은 직후부터 갑자기 설사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시디프는 다른 장내 미생물에 비해 강한 생명력을 가진다. 대부분의 장내 세균은 산소가 전혀 없는 대장 안 환경에 잘 적응하는 반면,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면 산소가 독이 되어 죽기 쉽다. 하지만 다른 세균과 달리 시디프는 일종의 동면 상태인 ‘포자’로 변신할 수 있다. 포자가 되면 세포를 싸는 두꺼운 껍질이 만들어지고 혹독한 환경에서 길게는 수만 년까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시디프는 건강한 장내 생태계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 문제는 생태계가 크게 교란되었을 때 나타난다.

미네소타대학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시디프가 대장 안에서 창궐하기 시작한 시점은 8개월 전 이 환자가 폐렴 치료를 위해 두 종류의 항생제를 먹은 시기와 일치한다. 항생제는 단지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만 죽이지 않는다. 폐렴은 치료가 됐지만 많은 장내 세균이 함께 죽었고, 그로 인해 생태계는 크게 망가졌다. 이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바로 장내에 포자의 형태로 숨어 있던 시디프 같은 병원균이다.

시디프를 잡기 위해서는 또다시 다른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시디프가 늘어나면서 이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다. 코러츠 교수 연구팀은 치료방법이 고갈돼 사망할지도 모르는 이 환자를 위해 장내 생태계를 통제로 바꿀 방법을 떠올렸다. 망가진 생태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정상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백 종의 세균으로 만든 혼합체를 대장에 넣어주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건강한 장내 생태계를 가진 환자 남편의 장내 세균을 이식하기로 하고, 결장 내시경을 통해 환자의 대장에 남편의 장내 생태계를 구성하는 세균 혼합체를 골고루 분사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수개월 동안 15분마다 설사를 하던 환자가 불과 이틀 만에 정상적으로 대변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세균의 유전자를 해독한 연구팀은 이식 뒤에 환자 대장의 미생물 생태계가 남편의 것과 매우 유사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지금 시디프 장염을 치료하기 위한 대변 이식은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식할 대변을 전문적으로 선별하여 제공하는 ‘대변은행’이 만들어지고 있다. 가장 큰 대변은행은 미국 보스턴에 있는 ‘오픈바이옴’이다. 이 비영리 기관은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병원에 이식용 대변 미생물을 제공한다. 어떤 것이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많은 질병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관이 되어 있기에 대변 공여를 위해서는 공여자에게 당뇨나 비만 같은 질환의 병력이 없고, 대변이나 피속에 병원성 미생물이 없어야 한다. 오픈바이옴의 경우 약 5% 미만의 공여자만 이런 어려운 조건을 통과한다고 한다. 똥을 기부하는 것도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보 기>

- ㄱ. 시디프는 포자 상태로 대장 바깥에서도 수만 년간 생존할 수 있다.
- ㄴ. 장내에 시디프가 없는 환자이더라도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시디프 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 ㄷ. 건강한 사람의 장내 세균 이식을 통해 염증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다.
- ㄹ. 대변에서 시디프가 검출되는 사람은 오픈바이옴에 대변을 공여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22.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고의나 악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 사적인 응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논리하에 극단적이고 일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행위 및 행위자의 주관적 상태에 대한 비난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 정도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있다.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원고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얻게 하는 동시에 아울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또는 고통에 대하여 위로하고 도와주거나 또는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징벌을 가하고 일반적 예방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정의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법과 민사법 사이에 존재하는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실손해액에 대한 배상이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웠으며 손해배상액 역시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많은 문제가 되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많은 손해배상금을 배상받는 것이 가능하게 하여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도 있고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행태, 즉 악의성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을수록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하여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소송을 통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지만,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와는 달리 전보적 손해배상을 시행 중인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도입된 예가 없다.

- ① 한국에서도 환경 또는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크게 책정하고 있다.
-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응징과 억제를 위해 민사재판의 배심원에 의해 부과되는 사적 벌금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한다.
- ④ 한국에서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적보다는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하는 장점을 갖는다.

2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와인의 종류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색상이다. 와인은 색상에 따라 화이트, 레드, 로제 와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와인의 색에 영향을 주는 것은 포도껍질이 함유하고 있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이다. 즉 포도즙을 포도껍질과 오래 둘수록 안토시아닌이 더 많이 추출되어 와인이 보랏빛을 띠게 된다. 와인의 종류를 나누는 다음에는 알코올, 당도, 탄산가스, 기능 등 세부적인 맛에 따라 와인의 스타일을 분류한다.

포도껍질은 안토시아닌 색소와 함께 짙은 맛을 지닌 ‘타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레드 와인의 경우 포도즙이 포도껍질과 함께 발효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안토시아닌과 타닌을 보유하게 되며 이것이 와인에 붉은 자줏빛 색깔과 짙은 맛을 부여한다. 특히 타닌은 와인의 구조나 골격을 형성하며 천연방부제 구실을 하기 때문에, 타닌이 들어 있는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적포도 품종이 똑같은 양의 타닌을 함유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카베르네 소비뇽은 타닌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지만, 피노 누아는 보통 정도로만 들어 있다.

레드 와인은 보통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뉜다. 하나는 과일 맛이 많은 레드 와인으로, 부담 없이 마시기에 좋지만 통이나 발효조에 몇 개월 동안 저장했다가 병입하는 와인은 아니다. 다른 하나는 잠재적인 복잡성과 구조에 따라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는 레드 와인으로, 오크통 내에서 복잡한 화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와인의 향, 풍미, 질감이 서서히 미묘하게 변한다. 고급 레드 와인은 대체로 이러한 숙성 과정을 거친다.

레드 와인을 만들 때는 발효과정에 색소가 잔뜩 포함된 껍질을 그대로 즙 속에 남겨두었다가 발효가 끝난 후 제거하지만, 화이트 와인은 발효를 시작하기 전에 즙과 껍질을 분리한다. 레드 와인과 달리 화이트 와인은 통상적으로 유산발효(사과산이 젖산으로 변하는 과정)를 거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화이트 와인에서는 신선한 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비뇽 블랑, 리슬링, 피노 그리지오 같은 포도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는 대개 유산발효를 거치지 않는다.

로제 와인을 만들 때는 단순히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껍질과 함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둥으로써 약간의 색깔이 배어 나오게 한다. 좋은 로제 와인은 밝은 빛깔을 띠고, 색의 농도는 연한 톤에서 중간 톤의 장미꽃잎 색깔을 띤다. 로제 와인은 숙성 초기에 마시며 보통 어릴수록 맛이 더 좋다. 또한 2~3년 이상 저장하는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샴페인은 세계적으로 만들기 복잡한 와인 종류에 속한다. 샴페인은 수십 가지의 베이스 와인을 혼합해서 양조하며, 병 안에서 일어나는 2차 발효가 탄산가스를 생성하여 열었을 때 거품을 일으킨다. 샴페인 한 병을 열었을 때 약 5,600만 개의 기포가 생성되는데, 기포의 크기가 작을수록 와인의 품질이 우수하다. 기포가 있다고 해서 모두 샴페인으로 불리는 것은 아니며, 프랑스 샹파뉴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만 샴페인이라 부른다.

- ①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짙은 맛이 많이 난다.
- ② 포도껍질을 포도즙과 함께 두는 시간에 따라 와인의 종류가 달라진다.
- ③ 와인의 종류에 대한 명칭은 생산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 ④ 와인은 오래 숙성시킬수록 맛이 더 좋아진다.
- ⑤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레드 와인은 피노 누아로 만든 레드 와인보다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2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물을 재산권의 객체로만 간주하는 견해는 이성을 지닌 인간이 자연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지닌다고 본 고대 스토아학파의 사고를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구약성서에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근대 이후 동물의 지위에 대한 철학적 담론은 ㉠동물복지와 ㉡동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물복지’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특히 동물에게 ‘복지’라는 용어는 단순하거나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대상이 반려동물인지, 가축인지 아니면 야생동물인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 따라 다른 양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복지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기는 하되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한편으로 동물복지란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전자의 개념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이용을 보다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으며, 후자의 개념은 동물에 대한 복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제공할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동물의 관점에 충실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게 사회화 된 동물(반려동물 등)과 식용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길들여진 동물(가축 또는 농장동물), 동물실험이나 전시 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동물(전시동물, 실험동물 등)에 대해서 각기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동물권’은 ‘권리’ 개념을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에게 확장시키는 것임에 더불어 인간중심적인 현행 법체계에서의 관념의 변화까지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동물복지는 그 자체로 인간에 의한 배려를 전제로 하면서 그 이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동물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식용이나 훈련, 심지어 반려동물로의 사육까지도 동물의 입장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기존의 체계를 부정하는 폭넓은 문제인식을 낳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동물에게 ‘물건’으로서의 권리객체성만 인정하며, 동물의 권리능력 또는 당사자능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동물의 권리주체성을 수용하기 용이하지 않다.

그럼에도 동물복지론의 한계, 즉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특정 동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인간의 이용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을 지닌 동물 그 자체를 물건과 구별하는 동물권론의 관점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서구사회의 동물의 지위에 관한 동물복지론과 동물권론을 비유하자면 동물복지론은

(A) 이고, 동물권론은 (B) 이라 할 수 있다.

- ① ㉠의 입장에서 고통 없이 사육되고 도축되는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의 입장에서는 식용, 생존 등 필요성에 따른 것이 아닌 관리상 편의를 이유로 공장식 농장에서 가축들을 사육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 ③ ㉠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특정 동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 ④ ㉡은 동물의 권리주체성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수용하기 어렵다.
- ⑤ (A)가 ‘동물을 위해 더 크고 깨끗한 축사를 원하는 것’이라면, (B)는 ‘축사를 비우고 동물을 자유롭게 본래의 욕구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독일에서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을 일으킨 대표적인 예는 2015년 9월 독일 연방총리와 난민이 함께 찍은 사진이 가짜뉴스에 등장한 사건이다. 해당 사진은 극우성향을 띠는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에 의하여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망에 유포되었는데 해당 난민은 베를린, 뉘른, 뷔르츠부르크 및 안스바흐에서 테러공격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중대한 거짓 주장으로 독일 형법 제187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심각하게 의심되지 않았다. 당시 뷔르츠부르크 주법원은 해당 사진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삭제되고 재업로드가 차단되도록 시도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가짜뉴스 그리고 가짜뉴스를 통해 퍼져 나가는 혐오범죄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율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네트워크운용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운용법 제정 논의 당시 연방정부는 소셜네트워크에 의한 불법콘텐츠 검토 및 삭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존의 법률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인터넷상에서 혐오범죄와 기타 불법콘텐츠에 대하여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소셜네트워크를 위한 과태료부과 이행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였다. 가짜뉴스의 영역에 있어, 잘못된 정보공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형성을 저해하는 현상과 관련된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독일에서도 소셜네트워크에서 불법성을 띠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네트워크운용법은 국민선동, 모욕, 비방 또는 공적 평온의 교란 등을 일으키는 불법콘텐츠를 지체없이 제거하기 위하여 소셜네트워크에서 범용을 개선할 필요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짜뉴스는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의 의미 또한 상당수 담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운용법은 가짜뉴스, 혐오발언 등을 총칭하는 의미로 ‘불법콘텐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네트워크운용법은 혐오범죄와 다른 불법콘텐츠의 개선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의 법적 보고의무, 효과적인 불만사항관리, 국내의 송달수령권한자의 임명 등을 통하여 소셜네트워크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네트워크운용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상에서 인격권이 침해된 피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를 통하여 가해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 가능하다.

- ① 잘못된 정보공개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을 방해할 수 있으나 민주적 의사형성과는 무관하다.
- ② 네트워크운용법에서 부여한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과실로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③ 독일에서도 소셜네트워크에서 불법성을 띠는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요구가 높다.
- ④ 네트워크운용법상의 불법콘텐츠에 혐오발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인터넷상에서 인격권이 침해된 피해자는 자유롭게 서비스제공자를 통하여 가해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의 작품 경향은 크게 1970년대 이전 작품과 이후 작품으로 구분된다. 1970년대 이전의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은 스스로를 자신들이 떠난 모국의 문화와 그들의 새 나라인 미국의 문화를 연결시키는 문화적 매개자로 여겼다. 이들은 백인에게 모국의 문화적 특성을 소개하고 미래의 조국이 될지도 모르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낙관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에 저항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체로 그들은 1900년부터 1970년 사이의 미국의 지배적인 이념인 백인 우월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며 미국 문화에 전적으로 흡수되기를 갈망하는 인물을 그렸다.

1970년대 이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 작가들은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난 ‘제3세계 의식운동’에 힘입어 1970년대 이후부터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권’을 주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민 2세대나 3세대로서 활발한 문학 및 비평 활동을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선조가 미국에서 누려야 할 역사적·사회적 위치의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나)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주장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서양의 열등한 타자로 그려 서양의 우월함을 고착시키려고 하는 서구중심주의의 이념체계이다. 사이드의 주장대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 남성들이 동양 여성을 식민화했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그 정점에는 ‘나비부인’이라는 관객에게 친숙한 단어가 존재한다. ‘나비부인’은 백인 남성에게 헌신하고 순종적인 동양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굳어졌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은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는 서구 제국의 영토 확장만큼이나 그림, 음악, 글 등의 문화 텍스트를 통해 서구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활발하게 구축되던 때이다. 이러한 문화 텍스트는 비슷한 문화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서양 남성과 동양 여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다.

나비는 서양 남성이 소유하기를 열망하는 섬세하고 약한 물체를 상징한다. ‘나비’라는 말에는 연약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다루는 대로 수동적으로 존재하며, 자신의 운명은 나비를 잡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나비부인』의 남자 주인공 핑커톤의 말에서는 백인 남성의 의식 속에 동양 여성은 인격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오로지 백인 남성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동적이고 헌신적인 존재에 불과함을 추론할 수 있다.

(다) 헨리 황(Henry Hwang)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독특한 인종적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작가이다. 그는 인종 문제를 동양과 서양의 관계 속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제기하였다. 나비 내러티브의 배경을 바탕으로 헨리 황은 『엠. 버터플라이』에서 서양이 동양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표상화한 고정관념인 오리엔탈리즘을 르네 갈리마르와 송 릴링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서양이 동양에 대해 행사하는 제국주의적 권력을 비판하고 파헤치기 위한 방법으로 탈식민주의적 접근과 그것의 전략이 되는 되받아쓰기로 다음과 같이 접근한다.

극 중에서 송 릴링은 관객에게 잠시 동안의 휴식시간을 제안하며 조명이 밝게 비치는 가운데 자신의 분장을 지운다. 송은 자신이 연기한 나비가 사실은 남성인 자신이 연기한 완벽한 허구임을 보여주며 원래의 자신인 남성이 됨으로써 동양은 여성이며 여성은 약자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정형화된 동양 여성의 이미지를 전복시키고자 한다. 갈리마르는 연기 중인 송의 겉모습만 보고 여자라고 생각했으며, 이에 매료되어 국가기밀을 송에게 유출한 죄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다. 이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데 따르는 폐해로써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를 파악한 갈리마르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보 기>

- ㄱ. (가)에 따르면, (다)의 헨리 황의 작품은 1970년대 이전 작품에 속한다.
- ㄴ. (나)에 따르면, 오페라 『나비부인』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은 동양인일 것이다.
- ㄷ. (다)에 따르면, 『엠. 버터플라이』의 송 릴링은 동양의 여성적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보여주는 헌신적이고 연약한 인물이다.
- ㄹ. (다)에 따르면, 헨리 황은 ‘되받아쓰기 전략’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동양-서양, 여성-남성의 위계질서를 비틀거나 꼬아서 고정관념을 비판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7. 법안 X에 대하여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총 8명은 찬성이나 반대 중 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찬반 의견이 다음 <조건>과 같다고 할 때, 찬성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의 최소 인원 수는?

<조 건>

- 병이 찬성하는 경우, 신이 반대한다면 을도 찬성한다.
- 을이 찬성하거나 병이 반대하는 경우, 무와 경도 찬성한다.
- 기와 경이 찬성하는 경우, 병이 반대하거나 무가 찬성한다.
- 신이 찬성하거나 갑이 반대하는 경우, 정은 반대한다.
- 무는 반대한다.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 ④ 4명
- ⑤ 5명

28.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대륙의 원기는 동쪽 바다로 달려 백두산에 극했고, 북으로는 요야(遼野)를 열고, 남으로는 한반도를 이루었다. 한국은 당요(唐堯)시대에 나라를 세워 인문이 일찍이 열렸고, 그 백성은 윤리가 돈독하여 천하가 군자의 나라로 지칭했으며, 역사는 면면히 4천 3백여 년이 계속되었다. 아! 옛날의 문화가 극동 삼도(三島)에 과급하여 저들 일본인의 음식, 의복, 궁실이 우리로부터 나왔고, 종교와 학술도 우리로부터 나온 까닭으로 저들은 일찍이 우리를 스승으로 삼아왔는데, 이제는 이를 노예로 삼는가. (중략) 이역 땅에 망명하자 다른 사람을 대하기가 더욱 부끄러우니 가동(街童)과 시졸(市卒)이 모두 나를 망국노(亡國奴)라고 욕하는 것만 같다. 세상이 비록 넓다고는 하나 이러한 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중략) 대저 세상의 강퍽한 자는 날로 약소국을 침탄(侵呑)하고 약한 종족을 도태하는 것을 능사로 삼아 그 참독(慘毒)을 받는 자가 많기는 하나 우리 한민족(韓民族)과 같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중략)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가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이 독존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이 통사(痛史)를 저작하는 소이다. 정신이 보존되어 멸하지 아니하면 형체는 부활할 시기가 있을 것이다. (중략) 오늘날 우리 민족 모두가 우리 조상의 피로써 골육을 삼고 우리 조상의 혼으로 영각(靈覺)을 삼고 있으니 우리 조상은 신성한 교화가 있고 신성한 정법이 있고, 신성한 문사와 무공이 있으니 우리 민족이 그 다른 것에서 구함이 옳다고 하겠는가. 무릇 우리 형제는 서로 생각하고 늘 잊지 말며 형체와 정신을 전멸시키지 말 것을 구구히 바란다.

< 보 기 >

- ㄱ. 일본의 문물은 중국의 문물이 전해진 것으로서 한국에서 전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ㄴ. 저자는 나라의 망국을 경험하면서 침통해 하고 있다.
- ㄷ. 약소국이 도태되는 경험을 한 경우는 사실상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2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제(堤)·보(洑)·언(堰)의 각각의 수리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수리시설의 관리와 보수에 투하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제언(堤堰)과 같은 수리시설을 적절하게 축조하는 것은 지리(地利)의 여건을 온전히 이용하는 것이고 농정(農政)에서 시급히 해야 할 일이기도 했다.

1798년 1월 제언당상(堤堰堂上)이었던 이서구는 제방을 수축하는 중요한 일을 수령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모경¹⁾이 성행하고, 호남 우도의 김제, 만경과 같이 이전부터 수리 혜택을 받아오던 지역도 도처의 저수지가 메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아무리 많은 제언이 축조되어 있어도 제대로 관리·보수가 결여되지 않으면 제언과 같은 수리시설의 효용성이 상실되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제언은 특히 주기적으로 준설과 같은 관리·보수 작업을 해주어야 제대로 저수를 기대할 수 있었다. 제언 내부의 준설뿐만 아니라 물을 담아두는 둑을 보수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했다. 공검지²⁾와 같은 대제조차도 주기적인 준설작업이 수행되지 않아서 물이 말라 버리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18세기 말 상주 지역 촌로의 언급에 따르면 공검지는 예로부터 말라본 적이 없는 대단한 제언이었지만, 지금은 몇 개월간 계속되는 가뭄이 아닌 단기간의 가뭄에도 물이 오그라들었던 것이다.

복태진은 수리시설 중에서도 해언³⁾은 완성도 어렵고 무너지기 쉽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대신 보나 제를 수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용에도 편리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는 등 이익이 적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호남의 3대제 보수를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신(臣)이 일찍이 옛날 유형원이 지은 『반계수록』을 읽어보니 부안의 늘제(訥堤), 임피의 벽골제, 만경의 황등제를 호남의 3대제라고 합니다. 충청·전라를 호서·호남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 3대제에서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일국(一國)의 힘을 기울여 완성하였으나 중간에 훼손되어 지금은 황폐한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불과 주변 몇 군의 힘과 몇 개월의 역(役)만 사용하여 예전과 같이 고쳐 완성하면 노령 이북은 영구히 흉년의 해가 없을 것이고 호남 연해의 군은 소주·항주처럼 비옥한 땅이 될 것입니다.”

1) 모경(冒耕): 땅임자의 허락 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일.
 2) 공검지(恭儉池): 경남 상주의 저수지. 제천 의림지(義林池), 김제 벽골제(碧骨堤)와 더불어 조선 3대 저수지로 불림.
 3) 해언(海堰): 조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바닷가에 쌓은 둑.

- ① 복태진은 3대제의 보수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이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였다.
- ② 유형원은 호남의 3대제에 대하여 시급한 보수를 주장하였다.
- ③ 복태진은 수리시설의 관리·보수보다 수리시설의 축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④ 상주의 촌로는 자연의 상황 변화가 공검지 상황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였다.
- ⑤ 부안의 늘제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보수에 각별한 관심이 투하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3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의 이론 작업, 즉 ‘비오스 테오레티코스’를 삶의 최고 형식이라고 설명할 때 그는 수집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애정을 기울여 수집하고 수집한 것을 정리하고 이쪽저쪽 둘러보며 언제나 새로운 수집품을 고대하는 그런 수집가 말이다.

사실 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철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수집가였다. 귀족 가문 출신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모르고 살았던 플라톤은 구하기 힘든 철학책을 사는데 엄청난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이를테면 그는 피타고라스의 테제들이 기록된 세권의 두루마리 책을 사면서 100미네(그 당시 건축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총 금액이 약 4미네 정도였다.)를 지불했다고 전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도서관 하나를 통째로 가지고 있었는데 죽은 뒤에는 그의 학생인 테오프라스트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책 수집은 철학적 수집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모으는 ‘생각수집가’이다. 읽는 행위, 즉 독서야말로 철학의 바탕을 이루는데 그 자체가 일종의 수집행위다. 독서와 수집은 원래 같은 뜻으로 모아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려 모아 정리하는 일을 의미했다. 오늘날에도 익은 포도를 골라 따내는 포도 수확에 대해 같은 말을 쓴다. 책을 읽는 것도 따지고 보면 책이라는 포도밭의 행간을 돌아다니고 쪽을 넘나들며 정신의 열매를 따 모으는 일종의 포도 수확이다.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더 잘 소화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연필로 밑줄을 긋고 책 가장자리에 메모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형광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따로 적어두는 사람들도 있다. 이 방법은 책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소피스트였던 엘리스의 히피아스는 『알 가치가 있는 것들의 독본』이란 걸 작성했는데, 그 안에는 그리스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작품이 발췌되어 있다.

자연과학자이기도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 시대만 해도 참고할 만한 책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부와 양치기, 사냥꾼과 여행자들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고 아울러 스스로 관찰한 것들도 적었다. 물론 철학 학설들의 수집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글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 수조차 없었을 학설들도 많다. 그런 글들은 대개 특정 문제에 대한 다른 철학자들의 주장을 훑어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이전에도 이미 온갖 개념 정의와 논거들을 모아 놓은 수집 기록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스스로 생각하기를 위한 교과서가 되어 주었다.

수집 활동을 하지 않는 철학자는 발전할 수 없다. 철학적 테제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이미 깨우침의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주장이나 생각은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없다. 여러 대안들을 통해 상대화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어떤 생각의 독특함이란 것도 비교에 의해 보다 잘 드러난다. 또한 개념 정의와 논거들을 수집해 놓으면 논쟁에서 역습하기도 쉬워진다. 일정한 목록을 만들어 이용하면 필요할 때 쉽게 새로운 결가지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수집 활동을 하다보면 머지않아 자기 고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다. 생각이 발전적으로 전개되려면 이 사람의 머리에서 저 사람의 머리로 옮겨가며 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의 뿌리를 찾아내 확인하는 일은 무척 힘들 때가 많다. 생각의 원저자라고 믿었던 사람 역시 누군가의 생각을 주워 모은 것에 불과한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글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해선 안 된다. 그러나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것만 쓰겠다고 고집해도 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 ① 철학사에서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은 모두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관찰한 것들만 기록했다.
- ③ 피타고라스는 그리스 시인들과 철학자들의 작품을 수집하고 기록했다.
- ④ 독서는 모아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려 모아 정리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 ⑤ 자기 고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만 수집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31. 다음 <조건>에 따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 건>

A, B, C, D, E 총 5명은 발표 순서를 정하려고 한다. 단, 다음의 A, B, C, D, E의 선호를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 A: 난 첫 번째만 아니면 돼.
- B: 난 A보다는 먼저 발표하고 싶어. 근데 홀수 번째 순서는 싫어.
- C: 나는 D랑은 순서가 붙어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 D: 나는 마지막 순서는 싫어.
- E: 나는 C보다는 나중에 발표하고 싶어.

<보 기>

- ㄱ. E가 마지막으로 발표한다면, B는 두 번째로 발표하여야 한다.
- ㄴ. B가 네 번째로 발표한다면, D는 첫 번째로 발표할 수 없다.
- ㄷ. <조건>을 충족하는 발표 순서는 모두 7가지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맹자(孟子)가 살았던 전국시대(戰國時代)는 혼란기였다. 이전의 혼란이 주로 자연 재해에 따른 것이었다면, 전국시대의 혼란은 사이버 사상이 횡행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한 맹자는 그 주범으로 양주(楊朱)와 더불어 묵자(墨子)를 지목하였다. 그리고 공자를 비롯한 유가(儒家)의 사상을 계승하고 묵자를 비롯한 사이버 사상을 물리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다.

유가 비판을 자기 사상의 출발점으로 삼은 묵자의 사상은 묵자 생전에 묵가 집단뿐 아니라 대중에게서도 큰 호응을 얻었으며, 묵자 사후에도 그 위세를 유지하였다. 친족에 대한 혈연적 사상에 근거하여 도덕적 정감을 친척, 이웃, 사회, 국가, 세계로 확산함으로써 천하의 안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유가의 주장은 지극히 낙관적이라는 것이 묵가의 생각이었다. 묵자에게 비친 유가의 주장은 너무도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묵자는 당시 성행하던 후장(厚葬) 풍습이 정치에 파고들면 나라는 가난해지고 인구는 줄어들며 질서가 무너진다고 진단하는 등 유가와 다르게 혼란의 원인을 진단하고, 천하에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랑은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겸애(兼愛), 비공(非攻) 등을 주장하였다.

맹자는 먼저 묵가의 박장(薄葬), 간략한 장례에 대한 비판을 통해 묵가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맹자는 먼저, 박장을 주장하는 묵자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후장을 치른 것이 중국적으로는 근본을 두 개로 보는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삶을 지배하는 원칙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서 하나이어야 하는데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두 원칙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맹자의 지적이다. 즉, 부모를 위하는 차등적 사랑인 인간 내부의 자연적 본성 외에 평등하고 무차별적 사랑인 외적 가치기준을 제시하여 차등적 사랑과 무차별적 사랑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맹자는 묵자 주장의 핵심을 겸애로 규정하고, 겸애의 본질을 무부(無父), 즉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당시 천하가 겸애를 주장하는 묵자의 말로 가득 차있다고 지적한 맹자는 겸애의 주장을 그대로 두면 결국 부모와 가족을 부정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금수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묵자의 겸애는 공자의 도(道), 즉 인의(仁義)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이며, 인의가 가로막히면 결국 인간 세상은 짐승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맹자의 지적이었다.

다른 한편, 맹자는 한 털을 뽑아서 천하가 이롭더라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양주를 비판한 반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천하에 도움이 된다면 겸애를 실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묵자를 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맹자가 보기에 묵자의 겸애가 갖는 결정적인 문제점은 양 극단의 한 쪽을 잡는 것과 같아서 결국 도를 헤쳐 중용(中庸)에 어긋난 것이었다. 겸애에만 집착하여 겸애를 적용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감안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결국 다양한 현실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병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① 유가에 따르면 인간 행위의 실천 근거는 흐르는 물처럼 외적인 여건에 근거해야 한다.
- ② 묵자에 따르면 혈연을 우선시하는 도덕적 정감은 천하에 이익을 불러오는 원천이다.
- ③ 양주에 따르면 안정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상도 포용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 ④ 맹자는 사회의 무질서가 성대한 의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간소한 의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⑤ 맹자는 묵자 주장의 핵심이 인의의 실현을 막는 것으로 보면서도 묵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33.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최근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고 그의 잔인한 범죄행각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경악한 일이 있었다. 당시의 한 일간신문은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용의자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경찰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와 다음 등 9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건 관련 뉴스 등 게시물을 검색한 네티즌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 경찰이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의 인적 사항과 아이디, 최근 3개월간의 로그인 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포털사이트에 요청하였으며, 경찰관계자는 “안양 초등학교 유괴, 살해사건의 범인 ○○○은 범행 후 매일 ‘머리카락은 썩는다’, ‘호메일 IC’ 등 사건 관련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색기록은 자백을 받아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면서,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의 용의자도 검색을 통해 경찰수사 내용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고한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범인은 반드시 체포하여 형사처벌 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용의자가 인터넷을 검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평소에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은 네티즌이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군포 여대생 실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는 ‘군포’라는 지명이 생소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고 할 경우에 그 네티즌 역시 잠정적인 범죄의 용의자로서 수사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수집·이용·보관·가공·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개인정보가 거래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그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리킨다. 그래서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특정 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어 관련 정보도 자신에 관한 정보, 즉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거래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 권리이다.
- ③ 단체에 속한 정보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해당 개인이 추정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이다.
- ④ 인터넷 검색어 관련 정보도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된다.
- ⑤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만을 구별하여 가리킨다.

34. 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우리들은 결핍하면 서양 것은 덮어놓고 과학적이려니 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학적인 것은 더 우수하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우리 역사를 돌아해보자면 과학이란 지난 수십 년 사이 서양에서 배워 들여온 셈이지, 우리들이 스스로 물리나 화학을 제대로 발달시켰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과학’이라거나 ‘과학적’, 또는 심지어 ‘논리적’이란 말만 들어도 지레 기가 죽어서 그것은 서양 사람들의 전매특허거나 생각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는 사사건건 우리들의 전통적인 어느 문화가 서양의 그것과 다를 때는 무조건 우리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매도해 버리는 것이다.

(나) 이처럼 태양운동을 날짜와 맞게 만든 점에서는 아무 탓할 것이 없다. 그러나 양력은 다른 면에서는 모순투성이다. 우선 영어로 못마땅한 이름은 아마 7월(July)과 8월(August)일 것 같다. 원래 이 이름은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Julius)와 아우구스투스(Augustus)를 기념하여 붙인 이름인데, 이 달에 그들의 생일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왕 기념하는 바에 더 길게 하기 위해서 30일이던 한 달을 하루 더 연말에서 가져다가 31일로 만들어 놓았다. 7, 8월이 연속 31일이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의 태도야말로 비과학적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근대 서양에서 크게 일어나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들의 문화유산 가운데에도 서양 것보다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의 대표적인 것 하나를 고르라면 바로 음력을 들 수 있다. 우리들은 음력이란 비과학적 내지는 미신적이고 양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란 단정하고 살고 있다.

(라) 양력의 날짜가 계절과 잘 맞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양력은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역법이기 때문이다. 양력은 달의 운동은 완전히 무시한 채 해의 운동만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역법이다. 태양은 여름에는 머리 위에 높이 떴다가 겨울에는 저 아래로 떨어진다. 정오에 태양의 그림자를 재 보면 그림자가 가장 길 때가 동지이고, 가장 짧을 때가 하지가 된다. 그리고 하지에서 다음 해의 하지까지 혹은 동지에서 다음 해의 동지까지가 1년이 된다. 태양운동으로 따지는 1년이란 대강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된다.

(마) 얼핏 보기에 양력이란 아주 잘 맞는 달력이어서 대단히 합리적이거나 생각하기가 쉽다. ‘잘 맞는다’는 점에서는 이 평가에 조금도 잘못이 없다. 해마다 같은 날에는 그만큼 덥거나 추워서 누가 보기에 계절에 딱딱 맞는 역법이 양력이란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하면 음력의 날짜는 꼭 계절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대강 한 달쯤은 왔다 갔다 하는 꼴로 보이는 것이 음력이기 때문이다. 음력의 날짜 가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양력을 더 과학적이라고 짐작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바) 음력에서는 한 달의 날짜 수가 29일과 30일로 불규칙적으로 바뀌지만, 그 까닭은 순전히 자연 현상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느 사람의 생일이라 하여 그 달이 길어진 일이 없다. 음력에서는 달마다 15일을 보름이라 하여 달이 가장 둥글게 뜨는 날로 맞춰 놓았다. 그렇게 되면 초하루는 저절로 결정되고 그 전 달의 크기가 29일이 될지 30일이 될지도 그에 따라 저절로 결정될 뿐이다. 사람들의 뜻대로 29일이나 30일이 되는 일이란 없다. 황제의 생일이라고 30일짜리를 31일로 늘려 놓은 서양의 양력과 자연의 리듬에 따라 저절로 한 달의 길이가 결정되는 우리의 음력과 어느 쪽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지는 따져 볼 것도 없는 일이다.

- ① (가) - (다) - (라) - (마) - (바) - (나)
- ② (가) - (다) - (마) - (라) - (나) - (바)
- ③ (가) - (다) - (마) - (바) - (라) - (나)
- ④ (가) - (마) - (다) - (나) - (라) - (바)
- ⑤ (가) - (마) - (바) - (라) - (나) - (다)

35. 甲은 수업 준비물인 가위, 칼, 색연필, 크레파스, 볼펜 5종류 중 일부를 가지고 있다. 甲이 가지고 있는 수업 준비물에 대한 아래 <조건>이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반드시 참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조 건>

- 甲은 가위 또는 칼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둘 모두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 甲은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둘 모두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 甲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甲은 볼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甲이 색연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甲은 가위도 칼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보 기>

- ㄱ. 甲이 2종류의 준비물만을 가지고 있다면, 甲은 반드시 칼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ㄴ. 甲이 볼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甲은 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 ㄷ. 甲이 3종류의 준비물만을 가지고 있다면, 甲은 반드시 볼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3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세기 말에 소비자는 주로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다시 말해서 소비 범주는 이전의 생산과 합리화의 담론과는 달리 여성성을 근대의 중심에 놓았다. 그리하여 소비는 흔히 여성의 위치를 전근대적 영역에 놓기 위해 자주 환기되었던 사적/공적 구분을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백화점은 주로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종류의 공적인 도시 공간을 제공했고, 나아가 근대 산업과 상업은 가사를 상품화함으로써 사적인 가정의 신성함을 더욱더 중요하게 잠식해갔다. 중산층 여성은 상품의 생산보다는 구입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변화의 동력 바깥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근대적이라고 느껴지는 경험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급변하는 패션과 생활 양식에 개인적인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소비문화의 등장은 여성의 사사로운 요구, 욕망, 자아 인식 등이 공적인 상품의 묘사와 그것이 약속하는 만족에 의해 매개되는, 여성의 새로운 주관성의 형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성의 여성화는 대개 근대성의 악마화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급진적이든 보수적이든 그 성향을 막론하고 19세기 중반의 많은 지식인의 글에서 근대라는 관념은 여성성에 대한 비판주의적 비전과 결합하게 되었으며, 이때 여성은 새롭게 등장한 소비문화의 휘황찬란한 환영에 유혹받는, 예측할 수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졌다. 이제 근대성은 더이상 보다 합리적인 사회를 향한 진보적인 발전과 동일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근대성은 비합리주의의 성장, 즉 미성숙한 욕망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억압된 자연의 회귀를 예증하는 것이 되었다. 로잘린드 윌리엄스(Rosalind Williams)가 지적하듯이, 대부분 소비 개념이 경멸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소비가 유기적 필요에 굴복하는 여성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여성은 자제력을 잃고 더 많은 소유물의 축적을 위해 돈을 낭비하려는 충동에 이끌리는 구매 기계로 그려졌다. 탐욕스러운 여성 구매자라는 친숙하고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상투어구는, 여성성의 지배적인 이미지에 경제적 무절제와 성적 무절제가 밀접하게 결합되었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비합리주의는 동시에 근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윤 동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계산과 합리화의 논리에 의해 조작되는 관리된 욕망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감정적이고 수동적이며 설득당하기 쉬운 성격 때문에 쾌락의 상업화에 기초한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소비 이데올로기의 이상적인 주체가 된다.

이러한 사고 경향은 근대성과 대중문화에 대한 20세기의 태도에서도 영향력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세기에도 여전히 여성은 전형적인 소비자로 남아 있지만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갈수록 확산되는 상품화의 거세 효과에 의해 이번에는 남성이 여성화되고 있다는 불안이 공공연하게 대두하고 있다. 유혹은 마케팅 기법에 의한 개인의 조작을 기술하기 위해 남성 지식인의 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흔히 근대 소비자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수동적이고 쉽게 유혹에 빠지며 쾌락을 추구하는 양태를 생생하게 환기시켜준다. 이제 주체는 자기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기는커녕 중심을 잃고 광고와 이미지 산업이 현혹하는 힘의 먹이가 된다.

- ① 백화점은 중산계급 여성에게 탐닉과 사치, 환상을 약속하는 성별화된 사적 공간으로, 가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 ② 여성 소비자는 충동적인 소비자로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라는 유아적 비합리성을 상징하고 있다.
- ③ 여성은 소비문화가 촉진한 욕망의 개인화 덕분에 전근대적 영역의 제약을 벗어나 새로운 주관성의 형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 ④ 소비문화 내에서 근대성은 분별력 있는 진정한 주체가 아닌 충동적이고 욕망에 따르는 비합리적인 주체로 나타난다.
- ⑤ 20세기 대중문화에서 소비자는 남성, 여성에 관계없이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여성화된 소비자로 그려지고 있다.

37. 다음 <조건>의 대화 내용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 건>

- 甲: 우리 기관에서 올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신청된 과제는 A, B, C, D, E 다섯 개야. 이 중에 어떤 과제를 선정하면 좋을까?
- 乙: 모두 다 추진하는 것은 예산상 어려워. 그리고 만약 C를 선정한다면 내용이 유사한 D는 추진하지 않는 것이 옳아.
- 丙: B와 E 중에 하나는 꼭 진행해야 해. 올해 우리 기관의 기획 보고서 주제와 연관이 있거든.
- 丁: 그러면 E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자. E는 올해 제21대국회 개원 대비로도 의미가 있는 주제라서 필요성이 높아. 그런데 E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A, C, D 중 적어도 하나는 함께 선정해야 해. 서로 관련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면 분석 수준이 훨씬 높아질 거야.
- 甲: 아, 깜박했는데 D를 추진할 경우에만 B를 추진할 수 있어.

<보 기>

- ㄱ. C가 추진되는 경우 B는 추진되지 않는다.
- ㄴ. A와 D 중 적어도 하나는 추진해야 한다.
- ㄷ. 3개의 과제만을 추진하는 방법은 모두 3가지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38.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고대 그리스 정치철학자인 플라톤(Plato)은 초기 저작인 『국가론』에서는 법의 중요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법에 의한 통치보다는 지혜로운 철인왕이 통치하는 것이 이상국가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상국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 다음에는 법의 지배가 더 낫다고 판단했다. 후기 저작인 『법률론』에서 플라톤은 현실적 조건에서는 법에 의존하는 것이 차선의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고 보았다. 차선국가의 정치윤리적 원칙은 이성 대신 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헌정주의적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발전시켜 법에 의해 제한받는 ‘제한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법은 단순한 강제가 아니라 경험이 축적되어 성장한 지식의 표현이다. 즉 법은 이성이나 지혜와 다른 종류의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혜가 삶 속에서 축적되어 집약된 이성의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서 법에 의한 지배는 이성에 의한 지배와 다르지 않다. 또한 이성의 지배로서의 법에 의한 지배는 인간의 사악한 욕망이 정치공동체를 지배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정치지도자가 위임받은 권력을 지정된 법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만 그 권력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또한 일인 혹은 특정집단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법은 개인적, 계급적, 혹은 당파적 이익을 위한 지배 대신 공공의 일반적인 이해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 이익에 봉사한다는 것은 정치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행과 관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러한 전통에 대한 존중은 다른 한편으로 피지배자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에 의해 지배하는 정부는 피지배자의 동의, 전통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일반이익에 대한 봉사로써 좋은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대에 법에 의한 지배를 가장 강조한 사람은 로마의 법학자 키케로(Cicero)이다. 키케로는 당시 로마 공화정을 가장 우수한 정치체제로 간주하면서, 공화정의 요소로서 법의 지배를 특히 강조하였다. 정치공동체란 단순히 사람이 함께 모인 집단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 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구성된 집단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법 개념에 있어서 공동체의 관습적 기초를 제외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법은 도덕과 관습에 기초한다. 법은 관습적 도덕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처럼 도덕과 관습에 기초한 법이 지배하는 경우에만 인간은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를 형성하고 정치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키케로는 법을 자연법과도 연관시킨다. 그에 의하면, ‘진정한 법은 자연과 일치하는 올바른 이성’이며, ‘진정한 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성과 지혜의 표현인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연법과 같은 것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며 또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을 구속함에 있어서 불변적이다. 이것을 거역하는 입법은 결코 법률이라 부를 수 없다. 그리하여 법은 단순히 인간이 제정하는 시민법일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연법적 속성을 지녀야 한다. 키케로의 공헌은 법에 의한 지배를 단순히 시민들의 가치만 반영한 법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자연법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 데 있다. 이런 자연법에 의한 지배이어야만 정의로운 지배가 되는 것이다.

- ① 제한정부에 의한 지배는 정치공동체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철인왕의 통치와 유사하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법은 경험이 축적되어 성장한 지식의 표현이자 단순강제이다.
- ③ 키케로에 따르면 진정한 법은 공동체적 관습의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법 개념에 있어 공동체의 관습적 기초를 제외시켰으나, 키케로는 제외시키지 않는다.
- ⑤ 키케로에 따르면 도덕과 관습에 기초한 법의 지배는 인간이 국가를 형성하고 정치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39. 다음 글의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입법권은 국가 작용 가운데 법을 만드는 권한이다.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는 말은, 다른 한편 행정권은 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법을 만드는 권한, 법을 집행하는 권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하는 권한을 나누어 각각 독립된 다른 기관에 맡겼다.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다.

전제왕권국가에서는 한때 권력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력자의 명령이 법이었으며, 따라서 권력자의 판단대로 집행하면 되었고, 재판까지 권력자가 직접 하거나 간섭했다. 그러다가 재판권이 먼저 분화되었고, 나중에 입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했다. 서양의 국왕은 재정 지출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의 명분을 갖추기 위해 의회를 만들었으나 의회의 기능은 왕권을 견제하는 가운데 점점 강화되었고, 마침내 분화되기에 이르렀다. (가)

어떤 권력이든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는 격언 때문만은 아니다. 부패하기 전이라도 집중된 권력은 강력한 반면 약점이 많다. 국정에 관련된 권한은 단계적이고 다층적이며 복잡하다. 만약 모든 권한이 한 사람이 장악한 하나의 권력에 집중된다면, 어느 한 단계에서 발생한 잘못은 다른 단계에서 고쳐지기는커녕 무시돼버릴 수 있다. 이는 비효율적이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나)
삼권이라 하여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각 권한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부마다 필요한 규칙은 스스로 만들고,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은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중국 재판에 이르기 전의 징계절차는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아무리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3분의 1씩 삼권을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과 긴급명령권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국정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의 주요한 권한 행사 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도 있다.

(다)
삼권분립을 고전적 의미에서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현대국가에서 무의미하다.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적절히 그 경계를 그으면 된다. (라)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ㄱ | ㄷ | ㄴ | ㄹ |
| ③ | ㄴ | ㄷ | ㄱ | ㄹ |
| ④ | ㄴ | ㄷ | ㄹ | ㄱ |
| ⑤ | ㄷ | ㄴ | ㄹ | ㄱ |

<보 기>

- ㄱ. 또는 대부분의 정치적 분쟁을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해결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법권 우월주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 ㄴ. 이런 정치적 경험과 유산은 몽테스키외 등 사상가의 영향과 결합하여 공화국 헌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채택되었다.
- ㄷ.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독립시킴으로써,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정당하다는 것이다.
- ㄹ. 다만, 세 부의 경계가 국민의 의사를 기반으로 하여 국정 운영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40.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항성과 행성의 질량을 아는 것은 우주 과학의 시작이다. 인간도 자신의 몸무게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몸무게의 변화에 따라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항성과 행성도 그 질량을 알아냄으로써 다양한 역사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가)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국제 연구팀이 이른바 ‘중력 렌즈’를 이용해 우리 은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항성의 질량을 측정하는데 성공했다. 중력 렌즈 효과는 1936년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저명한 학술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앞에 있는 A라는 별과 뒤 쪽에 있는 B라는 별은 상황에 따라 그 빛이 달라 보인다. A와 B의 별이 나란하지 않을 때는 뒤쪽에 있는 B는 어두워 보인다. 반면 A와 B가 나란히 일직선을 이루면 뒤쪽에 있는 B가 더 밝아 보인다. 이는 B의 빛이 A를 지나면서 중력에 의해 휘어지기 때문이다. 즉, 렌즈 현상과 같이 퍼져나가던 빛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더 밝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른다.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한 곳으로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현상을 통해 먼 은하의 모양과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구에서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질량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별의 질량을 가늠하는 것은 힘들다. 유일하게 별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쌍성계이다. (나) 쌍성계는 서로 공전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 빛을 가리는 식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질량을 파악할 수 있다. 식 현상은 외계 행성을 찾는 한 방법론이기도 하다. 천문학자들은 그동안 중력으로 빛이 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은하 중심부에서 관측해 왔다. 아주 먼 은하에서 뒤틀리는 은하까지 관찰했다. 때때로 이 같은 현상은 원으로 휘어지는 현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를 ‘아인슈타인 고리’라고 부른다. 중력 렌즈를 이용해 별의 질량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다. 뒤쪽 별과 앞쪽 별의 밝기 총합을 우선 계산한다. 이어 두 별이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와 이를 벗어났을 때 등의 광도 변화를 측정한다. 여기에 관측자와 앞에 있는 별과의 거리를 계산한다.

이 같은 기본 데이터가 확정되면 일정 공식에 따라 항성의 질량을 알 수 있다. 중력 렌즈를 이용하면 외계 행성을 찾아낼 수 있고 암흑 물질, 블랙홀, 갈색 왜성 등도 탐험할 수 있다. 국제 연구팀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Stein 2051 B’를 찾아냈다. 이 별은 지구로부터 18광년 떨어져 있는 백색 왜성이다. (다) 2014년 3월 ‘Stein 2051 B’는 다른 별 앞을 지나갔다. 이때 천문학자들은 뒤에 있는 항성의 위치 변화에 주목했다. 연구팀은 당시 발생한 중력 렌즈를 통해 ‘Stein 2051 B’의 질량이 태양의 3분의 2에 이른다는 계산에 이르렀다. 영국의 천문학자 B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구한 것 중에 정말 멋진 결과’라고 말했다. B 박사는 ‘은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이 같은 현상이 파악됐다는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라며 ‘중력 렌즈를 통해 항성의 질량, 행성의 진화 등 우주 과학의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연구팀은 내년을 기대하고 있다. 유럽 우주 기구(ESA)의 가이아 탐사선이 우리 은하의 별에 대한 지도를 그리고 있다. 내년에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담은 별 지도에 대한 2차 카탈로그가 나온다. 이를 통해 우리 은하 주변에 대한 중력 렌즈 현상이 더 많이 관측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 기>

- ㄱ. (가), (나), (다) 모두 질량을 측정하는 데에 두 개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 ㄴ. 별의 밝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 별과 다른 별과의 위치에 의존하지만 관측자의 위치와는 무관하다.
- ㄷ. 별에 영향을 주는 중력이 그 별의 질량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끌어낼 수 있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2020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 정답표(가)

| 가형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 | 헌 법 |
|-----|------|------|------|-----|
| 문1 | 1 | 3 | 3 | 5 |
| 문2 | 5 | 4 | 4 | 5 |
| 문3 | 4 | 4 | 4 | 4 |
| 문4 | 3 | 4 | 3 | 3 |
| 문5 | 1 | 3 | 5 | 4 |
| 문6 | 3 | 3 | 5 | 5 |
| 문7 | 4 | 5 | 2 | 2 |
| 문8 | 3 | 2 | 1 | 1 |
| 문9 | 2 | 4 | 1 | 4 |
| 문10 | 5 | 1 | 4 | 3 |
| 문11 | 5 | 2 | 2 | 2 |
| 문12 | 1 | 1 | 3 | 1 |
| 문13 | 4 | 1 | 2 | 3 |
| 문14 | 2 | 3 | 3 | 3 |
| 문15 | 3 | 1 | 5 | 5 |
| 문16 | 4 | 5 | 5 | 2 |
| 문17 | 3 | 3 | 4 | 2 |
| 문18 | 4 | 1 | 3 | 1 |
| 문19 | 1 | 2 | 3 | 2 |
| 문20 | 2 | 4 | 2 | 2 |
| 문21 | 3 | 2 | 1 | 1 |
| 문22 | 1 | 1 | 4 | 4 |
| 문23 | 4 | 5 | 2 | 5 |
| 문24 | 2 | 4 | 3 | 4 |
| 문25 | 3 | 5 | 5 | 3 |
| 문26 | 4 | 3 | 1 | |
| 문27 | 2 | 1 | 1 | |
| 문28 | 2 | 3 | 2 | |
| 문29 | 5 | 4 | 2 | |
| 문30 | 4 | 1 | 3 | |
| 문31 | 3 | 5 | 5 | |
| 문32 | 5 | 4 | 1 | |
| 문33 | 5 | 2 | 4 | |
| 문34 | 2 | 4 | 4 | |
| 문35 | 5 | 3 | 2 | |
| 문36 | 1 | 3 | 5 | |
| 문37 | 2 | 1 | 4 | |
| 문38 | 5 | 5 | 4 | |
| 문39 | 3 | 2 | 3 | |
| 문40 | 1 | 5 | 5 | |

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습지의 어두운 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습지에 기대어 살아 왔다.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에 습지이었던 곳에 많이 살고 있다. 예를 들면, 고층빌딩이 즐비한 서울 강남은 과거 홍수 때 한강물이 넘쳐흘러 들어가는 진창의 하천 홍수터를 매립 혹은 배수하여 조성한 곳이다. 인공적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습지인 논에서 매일 먹는 쌀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나 석탄도 석탄기에 습한 환경에서 생성되어 매몰된 것이다.

점차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습지를 더 이상 부정적인 생태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키거나 되살려야 할 가치가 높은 곳으로 여기게 되었다. 실제로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 가운데 하나이다. 이곳은 상류로부터 물과 하수를 비롯한 여러 물질을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며 홍수와 가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오염된 물을 맑게 하고 수변부의 깎임을 막아 주며 지하수를 채워주는 기능을 한다. 더구나 습지가 탄소를 저장하여 기후변화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토지이용에 의하여 습지 면적이 축소되고 인간 활동에 의하여 습지에 여러 교란이 가해지면서 다양한 습지 생물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하천범람원습지에서 생육하는 단양쭉부쟁이는 사람이 하천을 뜯어고쳐서 멸종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식물이다. 큰물이 빈번하고 자갈이 많은 남한강 강변에 생육하는 단양쭉부쟁이는 홍수 교란에는 잘 견디지만 다른 식물과의 경쟁에는 매우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충주댐 건설로 댐 상류에서는 강변자갈밭이 침수되어 이 식물의 생육지 자체가 소실되었고, 댐 하류에서는 댐에 의한 홍수량 조절로 홍수 교란이 감소되자 자갈밭에 다른 식물이 침입하여 경쟁에 약한 단양쭉부쟁이의 생존이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의 멸종위기식물인 매화마름은 일부 논에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매화마름은 인공습지인 논에서 전통적인 경작법에 적응하여 진화하였다. 즉 이 식물은 벼 수확이 끝난 가을부터 모내기 전까지 물을 댄 논에서 수명을 다한다. 그러나 현대농법이 도입되면서 추수 후 겨울에 논에서 물을 빼어 매화마름이 생육할 수 있는 침수환경이 없어지고, 비닐 온상에서 모내기용 묘를 공급하여 모내기를 앞당기게 되면서 매화마름의 생육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어 이들의 생존이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논을 방치하여 자연습지가 되면 애기부들 등의 다른 식물이 침입하여 경쟁력이 약한 매화마름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남한강 범람원 습지의 단양쭉부쟁이와 논 습지의 매화마름은 인간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다른 식물에 의한 간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습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잔존하고 있다. 특히 내륙 습지는 과도한 토지이용에 의하여 남아 있는 곳이 매우 적다. 그러나 서해안의 간석지 연안습지인 갯벌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습지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 특성상 산지에 위치한 고층습원은 많지 않으나 하천변에 발달한 저층습원은 흔하다. 이중 낙동강의 배후습지인 우포는 장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경작지인 논을 인공적인 습지로 간주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습지는 논이다. 실제로 논생태계는 친자연적인 영농법에 의하여 다양한 생물이 사는 생육지로서 유지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지, 경작지 등의 조성을 위하여 자연습지를 훼손하여 왔지만, 그나마 논이라는 넓은 면적의 인공적인 습지

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습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생물다양성이 높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습지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학제간 연구로 습지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며 습지복원기술을 개발하는 데 관심이 필요하다.

- <보 기>
- ㄱ. 습지는 지하수를 사용하여 오염된 물을 맑아지게 한다.
 - ㄴ. 단양쭉부쟁이와 매화마름은 인간과 다른 식물에 의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 ㄷ. 우리나라의 특성상 하천변에 위치한 저층습원은 많지 않으나, 산지에 발달한 고층습원은 흔하다.
 - ㄹ. 현대농법의 도입과 비닐 온상에서의 모내기용 묘 공급은 매화마름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2.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사랑에는 흔히 세 단계가 있다고 한다. 각 단계마다 감정적 변모가 다르고, 그에 따른 과학적 설명도 다르다. 인간에게는 이 끌림, 빠져들, 애착의 단계마다 다른 사랑의 분자가 관여한다.

사랑의 첫 단계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라 부르는 남성호르몬과 에스트로젠이라는 여성호르몬이 관여한다. 이 두 호르몬이야말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끌리게 만드는 화합물이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이 성장하면서 남자답게 보이게 만들며 에스트로젠은 여성이 아름다운 육체와 미를 지니게 만든다. 흔히 여성호르몬을 에스트로젠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에스트로젠은 에스트론, 에스트라디올, 에스트리올 등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에스트라디올과 테스토스테론의 화학구조를 비교해 보면 그 유사성에 놀랄 것이다.

사랑의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에게 빠져드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흔히 사랑에 빠졌다고 한다. 상대방 생각 외에 다른 일에는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하면 식욕도 잃는다. 이런 상태는 우리 뇌에서 몇 가지 화합물의 생성이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들 화합물 군을 모노아민계라 칭하며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이 이에 속한다.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은 흥분시키는 기능을 지니며 도파민은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이들을 사랑의 화합물이라 부르며, 이들은 우리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로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사랑의 세 번째 단계는 애착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상대에 대한 매력을 넘어서 함께하는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이 사랑의 단계에서 두 가지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그것이다. 이들 호르몬은 아미노산 9개가 결합하고 있는 나노펩티드다. 아미노산은 다른 아미노산과 물 한 분자를 배출하는 탈수반응을 통해 결합하게 되는데, 이 결합을 펩티드 결합이라 한다. 옥시토신은 ‘포옹화합물’이라는 별명을 지니며 연인들 사이의 애착심을 증가시킨다. 또 여성에게는 출산 시 자궁의 수축과 모유 수유를 도와주며 모성애를 발현하도록 한다. 성적 쾌감을 느낄 때 남녀 관계없이 혈장에 옥시토신의 양이 증가한다. 옥시토신은 시상하부 뉴런에서 합성되어 후배부 뇌하수체의 축색돌기로 이동된 후 혈액으로 배출된다.

두 번째 애착유발화합물로 바소프레신이 있다. 바소프레신은 ‘일부일처제화합물’이라는 별명을 지닌다. 들쥐는 철저하게 일부일처를 유지하는 동물이라 바소프레신이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들쥐를 상대로 연구된다. 수컷 들쥐는 짝짓기 후에는 자기 짝 보호를 위해 다른 수컷들에게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며, 자기 짝에 대한 지속적 애착을 유지한다. 이 때 짝짓기 후에 바소프레신이 뇌에서 평소보다 많이 발견되는 점을 보아, 이는 옥시토신과 함께 바소프레신이 짝 결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이 밖에 바소프레신은 인체 내에서 항이뇨 호르몬 기능을 지니며, 동맥혈압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 < 보 기 > —
- ㄱ. 들쥐에게서는 펩티드 결합이 존재하는 호르몬이 배출된다.
 - ㄴ. ‘포옹화합물’은 모성애 발현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뇌하수체에서 합성된다.
 - ㄷ. 사랑에 빠져 애착의 단계에 들어서면 동맥혈압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도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그리스에서 데우칼리온 설화부터 BC 400년까지의 전체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려는 첫 시도는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가인 레스보스의 헬라니코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화적 시간을 세대별로 구분했다. 제우스 신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트로이 왕의 계보가 여기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비록 신화 속의 시대는 상당 부분 헬라니코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역사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트로이의 몰락 이후 어둠의 시대를 상당 부분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헬라니코스가 등장한 시기는 세대별로 연대를 매기던 방식에서 정치나 종교적으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관직 기간 등을 명시한 시조명의 방식으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아티카의 역사를 기록한 저서 『아티카』에서 그는 케크롭스 1세부터 시작하여 아테네의 모든 왕의 이름과 재위 기간, 아르콘(고대 그리스의 특정한 고위 공직을 지칭하는 용어)의 이름과 관직, 통치기간 등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들에 따라서 BC 682년 이후 국법의 연대를 정리했다. 물론 초기의 역사는 항상 그렇듯이 매우 불투명하다. 아르콘을 통해 연대를 매기는 방식은 당시 전혀 대중적이지 않았다. 아테네의 무덤 한 곳에서만 이런 방식이 발견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편지의 날짜를 아르콘의 재임기를 기준으로 삼아 적은 것으로 추정되며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헬라니코스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솔론의 개혁적 법률에서 떨어진 군주 페이시스트라토스의 폭정과 그로 인한 아테네의 변화된 법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르콘을 기준으로 날짜를 적었다. 헤로도토스는 페이시스트라토스 시대를 ‘그 시대’라고 암시적으로 표현했다.

헬라니코스는 아테네의 아르콘뿐 아니라 아르곤의 헤라 신전 여사제의 재임 기간을 연대를 기록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했다. 2세기 그리스의 여행자이자 지리학자인 파우사니아스는 하이시아이의 전투 연대를 기록하면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르콘의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시기는 아테네의 27회 올림픽 경기 우승자인 에우리보토스가 아르콘으로 임명된 지 4년째였다. 하지만 시조명식의 연대 기술 방식이 가진 기본적인 문제는 군주의 재위 연도와 마찬가지로 현재와의 거리가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플라톤은 소피스트 히피아스에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를 언급하면서 아르콘의 명단은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외우기가 몹시 힘들다고 불평했다.

- ① 헤로도토스와 투키디데스는 헬라니코스 이전에도 그리스 전체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려고 시도하였다.
- ② 헬라니코스는 고대 그리스의 특정한 고위 공직을 지칭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하여 페이시스트라토스의 폭정을 기록하였다.
- ③ 파우사니아스는 하이시아이의 전투 연대를 여사제를 기준으로 기록하였다.
- ④ 헬라니코스의 연대기 기록 방식은 후대에 정확한 시간 정보를 주지는 못하였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시조명 방식의 연대 기록을 반대하였다.

4. 다음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일부이다. 다음 합의문들을 시간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합의문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 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 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합의문

남·북 정상은 분단이래 최초로 열린 정상 간 상봉과 회담이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다) 합의문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나) - (가)

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음양 이론은 아무런 오점이 없는 진리인 것처럼 곧잘 체감된다. 음양론을 설파하는 많은 이들은 그것을 ‘우주적 진리’로 믿고 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음양의 프레임으로 해체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세상은 밝음과 어둠, 움직임과 고요함, 더위와 추위로 구성된다. 밝고 움직이고 더운 것은 양, 어둡고 고요하며 추운 것은 음이다. 이 단순한 이분법의 위력은 강력하다. 세상의 어떤 것도 새나갈 수 없는 체계로 보이게 한다.

음양론은 그 완벽해 보이는 체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변이하는 과정을 터놓았다. 쌍을 이루며 세상을 이루는 음과 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쉬지 않고 변화한다. 그런 변화의 끝에서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된다. 이러한 변화의 교차 속에서 세상이 구성된다. 만물은 이 과정에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음양 이론의 핵심이며 전부이다. 이를 다시 압축해 보면 음과 양은 밤과 낮, 즉 달과 해라고 하는 천문 현상으로 수렴된다.

달과 해가 없었다면 음양 이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달과 해는 과연 ‘우주적 진리’가 될 수 있을까? 지구에서 바라보는 해는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에 생겨났다. 빅뱅이라는 최초의 우주 현상이 생긴 지 이미 88억 년이 지난 후이다. 지구는 여기서도 약 4억 년이 지난 후 생성되었고 달은 지구가 만들어진 후에 생겨났다. 지구 탄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행성 하나가 지구에 충돌하고 그 파편들이 뭉치면서 달이 생겼다는 것이 지배적 이론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이 되어야 해와 지구 그리고 달이라는 태양계의 시스템이 우주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탄생이 음양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가 지구에 등장한 것은 불과 20만 년 전이다. 이미 45억 년 전에 생성된 해와 달의 존재는 영원 그 자체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음양 이론은 ‘우주적 진리’가 아니다. 백 번 양보해도 그저 ‘지구적 진리’에 불과하며 이 역시 호모 사피엔스의 ‘관찰적 진리’일 뿐이다.

음양론은 『주역』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이론적 인정을 받는다. 『주역』은 유교 3경의 하나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권위 있는 책이다. 『주역』의 이론인 ‘주역’은 64개의 괘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괘는 아래부터 위로 음이나 양의 괘를 6개 쌓아올린 것이다. 이 64개의 괘는 인간의 삶의 패턴을 64개로 기호화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특정한 방법으로 64개의 하나를 택하면 그 괘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된다. 그렇지만 각 괘의 이름과 설명—즉 예언이 되는 서술—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음양 이론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주역은 무의미한 음양 막대기 6개씩의 조합과 유학자들의 사유(공자가 『주역』에 붙인 해설인 십익(十翼)을 말한다)를 자의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주역은 이 해설을 통해 비로소 유가의 전통적 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십익에는 유가의 처세와 수신에 대한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십익 역시 64괘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므로 주역의 이론 체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역의 이러한 음양 이론은 다시 오행(五行)이라는 변화와 맞물려 인간의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규정하는 종합적인 예언의 이론으로 발전한다. 여기서 오행은 세상을 5개의 요소로 파악한 것을 말한다. 이는 그리스의 4원소설과 유사하다. 중국의 오행은 나무, 불, 흙, 쇠, 물이 우주의 재료라고 말한다. 이러한 오행을 추상적으로 전개하다 보면 삼라만상을 모두 5개의 분류로 파악하게 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에 환절기를 더하여 5개의 계절로 파악하거나 동서남북의 사방에 중앙을 더하여 5개의 방위로 파악한다. 거기에 자음을 발음하는 위치 또한 입술, 앞니, 혀, 어금니, 목구멍의 5음으로 설명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오행의 설명은 음양 이론과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오행의 순환으로 음이 양이 되고 다시 양이 음이 되는 이치를 설명함으로써 두 개의 이론은 성공적으로 결합하여 동양인의 우주관과 생사관에 대한 모든 인식을 규정하게 되었다.

- ① 음양 이론은 오행 이론을 기반으로 출발하여 해와 달의 운동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 ② 『주역』이 유교의 기본 경전이 된 것은 음양 이론이 ‘우주적 진리’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 ③ 음양 이론에 오행을 더하여 종합적인 예언의 이론을 더욱 과학적으로 조직할 수 있었다.
- ④ 오행 이론은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실세계의 주요 요소들을 5가지 분류 체계에 꿰어 맞춘 것이다.
- ⑤ 주역은 64괘와 십익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인과적으로 도출하였다.

8. 다음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 1964년 허문회 서울대 교수가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에서 새로운 벼 품종 개발에 나섰다. 허 교수는 자포니카와 인디카의 혼합종에 관심을 가졌다. 안남미라고 불리는 인디카 종은 자포니카종보다 생산성은 높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단순히 자포니카와 인디카 종을 교배시켜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대부분 생식을 할 수 없는, 불임 벼가 만들어졌다. 허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포니카와 인디카를 교배시킨 뒤 불임이 아닌 종자를 다시 인디카와 교배시키는 3원 교배로 ‘통일벼’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통일벼는 기존의 자포니카 품종보다 30%나 생산성이 높았다.
- ㉡ 숯가락이 고려 후기에서야 널리 쓰였다면 그 전에는 숯가락 없이 뜨거운 밥을 어떻게 먹었을까? 믿기 어렵겠지만 조선 시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백성들이 쌀밥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숯가락이 필요 없었다. 조선 시대 이전에는 쌀밥은 귀족과 왕의 전유물이었다. 평민에게 쌀은 아주 귀한 작물이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평민들은 조나 보리를 먹었고 귀족은 쌀을 먹었다. 밥을 지을 도구도 모자랐다. 밥을 지으려면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쇠솥이 필요한데 일반 백성들에게 쇠솥 역시 귀한 물건이었다. 쇠솥이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청동 솥이나 시루를 이용해 쌀과 잡곡을 찌서 조금씩 떼어 먹거나 죽을 끓여 먹었다.
- ㉢ 일반 백성들도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조선 영조 때 시작된 모내기 덕분이다. 모내기가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 후기다. 『고려사』에 공민왕 때 백성들이 모내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영조 시대와는 400년이나 차이가 난다. 모내기는 왜 이렇게 늦게 전파됐을까? 모내기가 늦게 시작된 이유는 ‘물’ 때문이다. 모내기에는 논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이 필요하다. 실제로 모내기를 하려다 가뭄이 들어 물이 부족해지면 메밀 같은 대체 작물을 심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어명으로 모내기를 금지했다. 관개 시설이 잘 정비돼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영조 시대에 이르러서야 모내기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 ㉣ 통일벼는 1970년부터 농가에 보급됐다. 박정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1976년에 드디어 쌀 자급에 성공했다. 그 해 수확량은 3,621만 석이었다. 1978년에는 전체 벼 재배 면적의 76.2%에서 통일벼를 재배했고 평균 생산량도 500kg 가까이 뛰어올랐다. 드디어 하얀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됐다.
- ㉤ 모내기가 정착되면서 조선 사회가 크게 흔들렸다. 여유 자금과 노동력이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일 년 내내 농사를 짓기 위해 거름을 만드는 기술도 발전했다. 두레와 같은 공동체 활동이 생긴 것도 이 시기다. 모를 심으려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협동을 해야 했고, 저수지나 보 같은 관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필요했다. 이처럼 모내기가 조선의 르네상스를 불러왔지만 백성 대부분은 여전히 배를 곯았다. 당시 조선의 1,000㎡ 당 쌀 생산량은 현재의 10%에 불과했다. 봄철이면 항상 보릿고개에 시달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불리 쌀밥을 먹게 된 것은 250년 뒤인 1976년이다.
- ㉥ 우리가 밥을 떠먹을 때 사용하는 숯가락을 살펴보면 쌀밥의 역사를 볼 수 있다. 6세기에 만들어진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청동 숯가락은 손잡이 부분이 불록해 실제로 쓰기는 어려운 형태였다. 4세기에 만들어진 부산 기장의 젓가락은 길이가 무려 30cm가 넘는다. 이런 비정상적인 숯가락과 젓가락은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위세용이었거나 귀족층의 전유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령왕릉을 제외한 다른 삼국시대 유적에서는 숯가락이 발굴되지 않았다.

고려 초기의 유적에서도 숯가락이 거의 발굴되지 않았다. 고려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숯가락은 최상위 귀족층의 전유물이었다. 숯가락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고려 후기 원나라 침략 이후 고깃국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다. 따뜻한 국물과 건더기를 먹는 습관이 생기면서 숯가락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9. 다음 글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충해야 하는 전제는?

국회사무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공무원을 차출하여 검무명령을 내리려고 한다. 다만,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무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검무명령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김 사무관이 검무를 하지 않는다면 임 사무관이 검무를 한다. 김 사무관이 검무를 한다면 반드시 유 사무관도 검무를 한다. 사무관 시보인 임 사무관이 검무를 한다면 선임 사무관인 최 사무관 또는 김 과장도 검무를 한다. 장 사무관이 검무를 하지 않는 경우, 최 사무관이 검무를 한다면 같은 팀인 하 서기관은 검무대상에서 배제된다. 유 사무관이 검무를 하는 경우에만 장 사무관도 검무를 한다. 유 사무관은 이미 지난달부터 헌법재판소에 파견 중이다.

<결론>

김 과장과 임 사무관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검무를 한다.

- ① 임 사무관이 검무를 한다.
- ② 장 사무관은 파견 중이다.
- ③ 하 서기관이 검무를 한다.
- ④ 김 사무관이 검무를 하지 않는다.
- ⑤ 임 사무관이 검무를 한다면 장 사무관도 검무를 한다.

1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풀러렌,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흑연의 결정구조를 지닌 탄소 나노소재들은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걸쳐 약 10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연이어 발견되면서 수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 중에 풀러렌과 그래핀은 발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그 발견자들에게 노벨상이 안겨지기도 하였다. 많은 나노소재들 중에서 이들이 그토록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구조가 간단하거나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원소 중 하나인 탄소로 이루어져서만은 아니다. 이들은 흑연결정의 기본구조인 탄소들의 육각형 공유결합 형태를 가지면서 뛰어난 전기전도성, 화학적 안정성, 열전도성, 그리고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물질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발견된 그래핀(2004년도 발견)은 현재 물리, 화학, 생물, 화공, 소재, 전자, 기계 분야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물질에 속하며 세계 각국은 그 잠재성으로 인해 상업화를 위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위에 언급된 세 가지 탄소나노소재 중 그래핀이 현재 유별난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가장 최근에 발견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흑연으로부터 쉽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이 용이하며 또한 향후 상업화 시에 값싸고 풍부하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래핀은 탄소 분자들이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흑연의 한 층이 곧 분자에 해당되지만, 그 물성은 흑연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흑연이 사용되던 응용처와는 상당히 다른 분야에 그래핀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들이 벌집모양인 육각형의 공유결합을 통해 평면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2차원 나노소재의 하나이다. 탄소 간의 강한 전자공유로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물질은 일반적으로 뛰어난 강도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가장 단단하고 강한 물질로 알려진 다이아몬드의 파괴강도가 60GPa인 데 반해 그래핀의 파괴강도는 130GPa로 현재 널리 쓰이는 강철의 약 100~200배 정도에 이른다. 또한, 일반적으로 열 전도는 원자의 진동에너지가 빠르게 전달될수록 원활히 일어나는데, 그래핀은 탄소끼리의 강한 결합으로 인해 더 빠르게 진동에너지를 전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핀은 그 자체적으로도 구조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고분자 수지나 플라스틱 복합재료의 첨가제로 사용됨으로써 순수물질의 기계적 성능을 월등히 증가시킬 수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박리된 그래핀을 폴리프로필렌에 약 2%(중량비) 첨가했을 때 순수 폴리프로필렌에 비해 탄성계수는 약 100%가 증가하였으며 강도는 약 60% 정도가 향상된 것이 보고되었다. 이때 그래핀 자체보다는 그래핀을 산화시켜 만든 산화그래핀을 첨가제로 사용할 때 좀 더 나은 기계적 특성을 보인다. 이는 순수한 그래핀은 표면에 기능기(공통된 화학적 특성을 지닌 한 무리의 유기 화합물)가 없으므로 고분자 수지와 강한 화학적 또는 물리적 결합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① 산화그래핀의 표면에는 기능기가 존재할 것이다.
- ② 그래핀의 인기는 그래핀 추출 원료의 특성에 기인한다.
- ③ 풀러렌은 그래핀보다 일찍 발견되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더 많다.
- ④ 탄소들의 결합이 강해지면 열전도성이 향상될 것이다.
- ⑤ 탄소로 구성된 물질 간에도 물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과학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가차 없는 시험—과학자들이 그것에 부과할 수 있었던—을 견뎌냈다는 의미에서만 타당하다고 주장될 수 있는 추측이나 예상의 체계’이다. 나아가 바로 그러한 이론들은 매우 정밀한 예측을 하며, 따라서 하나의 결정적인 실험이나 시험으로 실제 현상에의 적용에 실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험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이론들의 능력, 즉 이론들의 ‘확인(corroboration)’은 그 예측의 발생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태양 근처에서는 광선이 휘 것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그러하듯이 그런 이론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진술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 같은, 가장 좋은 이론들은 여러 가지 시험의 범위에 걸쳐 있는 매우 정밀한 예측을 제공하며, 따라서 고도의 경험적 내용—만약 이론들이 참이면 틀림없이 발생할 것과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을 내포한다. 반면에 원칙적으로 반증이 불가능한 이론들은 사실상 이러한 경험적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한 이론들은 어떤 일이 반드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과학은 무엇보다도 그것의 추측들을—그것의 최상의 추측들까지도—과파하거나 기각하고자 추구하면서 가차 없이 영원히 경쟁하는 비판적 추적이다. 과학은 결정적인 시행착오에 의해서 나아가며, 시험을 견디지 못한 이론들은 버리고 현재 고안될 수 있는 최상의 시험을, 적어도 당시에는, 통과한 이론들에 대한 시험을 강화하고자 하면서 나아간다. 우리는 이런 일반화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참이라는 확실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오로지 이론들에 대한 기각을 통해서만 진보한다. 우리가 완전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반화의 일부가 거짓으로 입증되었다는 것뿐이다. 우리 지식의 전체 영역에서 비판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서 발견되는 권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한, 우리는 진리성은 인간의 권위를 넘어선다는 생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론적 인식론’은 모든 형태의 삶이 채택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으며, 사실상 단지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양식의 확대일 뿐이다.

- ① 과학의 역사는 계속적이며, 준엄한 비판을 통하여 이론들이 제거되는 지속적인 연속성을 보여준다.
- ② 과학의 영역에서는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
- ③ 과학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비판의 논리를 통합하는 인식론에 의하여 진보한다.
- ④ 신뢰받는 많은 과학이론들이 반증을 통해 실질적으로 과학의 범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 ⑤ 과학은 과감한 추측과 반박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학은 진보할 수 있다.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생두의 향미 성분은 300가지가 넘는다. 그런데 로스팅을 거치면 화학작용으로 새로운 성분이 형성되고, 그 결과 원두는 900여 가지의 향미 성분을 지니게 된다. 각각의 성분은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니며, 각 성분의 상호작용은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새로운 향미를 만들어낸다.

커피의 맛을 얘기할 때 단맛은 사실 쉽지 않은 개념이다. 영국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중 절반 가량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35% 가량이 커피에 설탕을 넣는다고 답했지만 커피의 단맛은 설탕의 단맛이 아니다. 커피의 단맛이란 설탕을 넣지 않은 커피에서 느껴지는 캐러멜이나 초콜릿, 누가사탕의 달콤한 풍미다. 원두에는 당분이 0.2% 가량 함유되어 있다. 원두 상태에서도 높은 편이 아닌데 음료로 추출한 커피 안의 당 함유량은 더 낮아진다. 원두 안의 당분은 긴 사슬 다당류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설탕의 단맛과는 다르다. 커피는 직접적인 단맛을 내는 음료는 아니지만, 로스팅 과정에서 생성되는 익숙한 ‘달콤한 향기’와 원두 내부에 있던 복잡한 당분과 캐러멜 성분이 만나 혀에 달콤한 느낌을 준다.

커피가 맛없으면 대부분 쓴맛을 탓한다. 커피가 싫다는 사람에게 이유를 물으면 많이들 “씨서”라고 답할 것이다. 커피의 쓴맛을 내는 성분은 주로 트리코벨린과 퀴닉산이라는 화합물이다. 퀴닉산은 토닉워터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기도 하다. 맛과 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카페인도 사실 쓴맛을 낸다. 쓴맛 하나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불쾌한 맛일 수도 있지만, 균형만 잘 맞추면 쓴맛은 단맛을 강조하고 신맛을 잡아줄 수 있다. 쓴맛의 안정감은 커피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맛을 정리하는 역할인 셈이다. 커피를 과추출하면 쓴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너무 느리게 추출한 에스프레소나 너무 오래 우려낸 프렌치프레스 커피는 쓸 수밖에 없다. 반대로 추출 시간을 줄이면 쓴맛도 함께 줄어든다. 원두의 분쇄 크기, 추출 온도, 물도 쓴맛에 영향을 주며, 가용성 성분이 많은 다크로스팅 원두일수록 더 쓴맛을 낸다. 원두에서는 단맛과 신맛, 그 다음으로 쓴맛이 추출되는데, 일단 쓴맛이 우려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른 맛을 덮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맛이라는 말에 괜히 겁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신맛은 훌륭한 커피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좋은 신맛은 커피에 신선하고 부드러운 과일 향을 선사하며, 커피의 맛을 상쾌하게 만든다. 산미는 높은 고도에서 생산해 워시드 방식으로 정제한 커피에서 주로 높게 나타난다. 케냐와 콜롬비아는 부드럽고 산뜻한 산미를 내는 커피로 유명하다. 원두에는 다양한 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 함유량이 가장 높은 산은 다음의 4가지, 즉 구연산, 사과산, 젖산, 초산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직접 혀로 느끼는 산미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우리가 혀로 느끼는 커피의 신맛은 다른 맛들, 즉 짠맛과 쓴맛, 단맛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국제커피기구 기술연구팀이 1991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원두에는 30가지 이상의 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각 성분의 추출 정도는 원두의 분쇄 정도, 추출 시간, 추출 온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원두를 곱게 분쇄할수록 추출물 내의 산 농도가 높아지고, 추출 시간과 온도를 점점 높여가며 측정해 봤더니 추출 온도는 100℃일 때, 추출 시간은 14분일 때 산의 농도가 가장 높았다. 이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 무작정 높은 온도에서 오래 추출할수록 신맛 성분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성분은 오히려 파괴되거나 변형된다.

<보 기>

- ㄱ. 젖산 함유량이 높은 원두로 만든 커피에서는 부드러운 과일 향이 난다.
- ㄴ. 퀴닉산은 토닉워터와 커피의 쓴맛을 내는 성분이다.
- ㄷ. 원두에서는 쓴맛이 가장 먼저 추출되는데, 추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쓴맛이 강해진다.
- ㄹ. 곱게 분쇄한 원두일수록, 높은 온도에서 오래 추출할수록 산 농도가 높아진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ㄷ, ㄹ

1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다음 글에 나타난 해결 방안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 진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언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다. 인류가 최초로 언어를 사용한 것은 10만 년~5만 년 전으로, 단지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정확하고 새로운 개념들의 조합을 확실히 떠오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언어가 인간이 적응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 중 지배적인 이론은 언어가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어의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언어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

언어의 기능에 대한 경쟁 가설은 세 가지가 나왔는데, 모두 사회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 사회적 집단 가설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언어는 큰 인간 집단 사이에서 유대를 촉진하기 위해 진화했다. 인류학자이자 진화심리학자의 로빈 던바는 언어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 네트워크와 계속 연결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누가 좋은 친구나 동맹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누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한다는 평판이 있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 그 네트워크와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던바는 언어가 일종의 '사회적 털고르기'라고 주장한다. 집단이 100개체 이상으로 커질수록 자신의 동맹에게 물리적 털고르기와 같은 사교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할 시간을 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언어의 기원과 기능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가설은 ㉡ 사회계약 가설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짝짓기 문제는 큰 짐승 사냥이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다. 남자들은 사냥에 나설 때 한 달 이상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야 했는데, 그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성적 착취에 취약해질 위험이 커졌다. 이 개념에 따르면, 언어는 명시적인 결혼 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진화했다.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의 짝짓기 약속을 서로와 집단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서약하여 자신의 배우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세 번째 가설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 ㉢ 세에라자드 가설이라 부른다. 세에라자드는 죽음을 모면하려고 밤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왕을 즐겁게 한다. 이 가설은 사람의 큰 뇌와 언어 구사 능력이 본질적으로 공작의 쫓겨간—잠재적 배우자에게 우수한 적합도를 가졌다는 신호로 보여주기 위해 성 선택되어 진화된 기관—과 같다고 주장한다.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유머와 위트, 기이한 이야기, 단어의 마술 등으로 잠재적 배우자를 황홀하게 함으로써 언변이 서툰 경쟁자보다 짝짓기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핑커와 블룸은 “부족의 우두머리가 뛰어난 웅변가이면서 많은 아내를 거느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언어적 재능이 어떻게 다윈식 진화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상상력에 훌륭한 자극을 제공한다.”라고 지적했다.

- ① 언어를 천문현상을 기록하는 데에만 사용한 고대 부족의 사례는 ㉠ 가설을 약화한다.
- ② 인류의 큰 짐승 사냥이 약 2만 년 전에 최초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 가설을 약화한다.
- ③ 약 200여 명이 무리를 이루어 살았던 남아메리카의 고대 부족은 일부일처제를 유지했는데, 이들은 남편과 부인이 번갈아 두 달 단위로 먼 지역으로 나가 사냥해 왔으면서도 고유한 언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사례는 ㉠ 가설과 ㉡ 가설을 동시에 약화한다.
- ④ 성 선택적 진화는 대개 아주 큰 남녀 차이를 나타내지만, 여성과 남성의 언어 능력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사실은 ㉢ 가설을 약화한다.
- ⑤ 고유한 언어를 가진 아시아 지역의 한 고대 부족 남녀가 모든 사냥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례는 ㉡ 가설과 ㉢ 가설을 동시에 강화한다.

인근 어장에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는 두 명의 어부가 있다. 한 어부가 어장에서 작업 시간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면 그 어부의 어획량은 50만㎞ 증가한다. 반면에 5시간을 지키는 상대방 어부의 어획량은 100만㎞ 감소한다. 두 어부 모두가 10시간 작업을 하면 두 어부 모두가 5시간 일할 때에 비해 어장이 더 많이 고갈되므로 5시간 일할 때보다 어획량은 더 감소하게 된다. 두 어부 모두 10시간을 선택하면 서로 피해를 주고받아 두 사람 모두가 5시간을 선택할 때보다 어획량이 감소한다. 이처럼 한 사람의 경제 활동이 다른 사람의 이득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도 그에 따라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거나 받지 않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외부성 문제가 발생한다. 한 사람의 작업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도 행위자가 그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그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외부성 문제가 대두된다.

이 문제의 한 가지 해결 방안은 5시간만 일하기로 한 규범을 어길 때 그러한 위반이 가져올 손해의 크기를 산정하여 강제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자발적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앙 집중 권위체가 누가 언제 얼마만큼 공유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강제 부과하는 것이다. 이 해결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라는 외적 권위체가 공유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얼마만큼의 작업시간이 적절한지를 계산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때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뿐만 아니라, 누가 위반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외적 권위체가 감시와 적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충분한 정보량을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제반 집행 비용 등을 고려하면 중앙 집중 권위체의 해결 방식이 언제나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다른 해결 방안에 따르면, 외부성 문제는 소유권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에 있다. 자연이 파괴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이유는 자원과 자연이 공유재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목초지가 목동들에게 적절히 분할되어 구역별로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이제 각자는 자신의 구역에서만 소의 풀을 먹이게 되므로 소 한 마리가 추가될 때마다 발생하게 되는 비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물이나 수산 자원과 같은 공유자원은 분리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기 어렵다. 어장을 구역별로 나눈다고 어장의 물고기가 그와 함께 나누어지지 않는다. 목초지에 구획을 설정한다고 해서 목초지들을 관리할 때 구역별로 영향력이 완전히 차단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구획과 동시에 이전에 없던 외부성 문제가 추가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제초나 해충 제거 작업 등 목초지 관리는 구획에 관계없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구획을 나누어 소유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효과성은 더욱 의문시된다.

- ① 어장의 구획을 나눌 때 구역별로 물고기 등 수산 자원을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 ② 어로 시간의 차이가 어부들 상호 간에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할 방법이 나왔다.
- ③ 어로 활동을 24시간 동안 계속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 ④ 10시간을 노동한 어부들은 5시간을 노동한 어부들을 위하여 스스로 작업 시간을 줄였다.
- ⑤ 어장에 대한 사적 소유의 구획을 나눌 때 수산 자원의 변동성은 외부성 문제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우리가 매일 보는 강수 예상도는 전세계의 많은 과학인들이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매우 비싸다. 또한 막대한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 생산된 강수 예상도라 하더라도, 이 자료의 예측 오차 특성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고 그 가치를 충분히 향유하기 어렵다. 강수 예상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컴퓨터의 역할과 한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를 구동해야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기상 예측 프로그램도 슈퍼컴퓨터에서 구동되는 일종의 응용 소프트웨어다. 컴퓨터에서 다루는 대기 상태는 기온, 바람, 기압, 습도, 수직(강수 입자)의 5가지 변수의 상호작용으로 변화한다. 변화의 원리를 수치적으로 해석하여 자연을 이상화한 것이라서 ‘수치 모델(numerical model)’ 또는 약식으로 ‘모델’이라고 부른다. 수치 모델의 예측 성능을 좌우하는 요인은 크게 해상도, 초기 조건, 계산 알고리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진의 화질이 해상도에 좌우되듯이, 모델도 해상도에 따라 분해하는 운동의 크기가 달라진다. 모델의 수평 해상도는 2차원 평면에서 단위 격자점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테면 수평 해상도가 20km라면 모델의 강수량이 20km마다 하나씩 높은 격자점 위에서 계산된다는 뜻이다. 이 격자점 위로 전선을 동반한 강수대가 이동한다면, 전선의 위치 오차는 최소 20km 이상이 된다. 전선이 시속 40km 속도로 이동한다면, 전선이 어느 지역에 도달하는 시점 오차도 최소 30분 이상이 된다. 한편 하나의 파동을 수치적으로 온전하게 표현하려면 여러 개의 격자점이 필요하므로, 전선의 위치나 시점 오차는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 수평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더 작은 운동까지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모델이 감당해야 할 변수의 자유도가 증가하고 변수 간 상호작용 경우의 수도 증가한다.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고 예측 오차도 커진다. 모델에서는 예측 기간을 단위 시구간으로 쪼개어 계산한다. 수평 해상도가 높아지면, 운동계가 단위 격자 간격을 통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 해상도도 상응하게 높아져야 한다. 수평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계산해야 할 시구간의 횟수도 늘어나게 된다. 변수 간 비선형적 상호작용도 그만큼 빈번하게 일어나 결과적으로 모델의 예측 오차를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둘째, 모델은 초기 시점에서 단위 상자마다 중심 격자점에서 바람 벡터, 기온, 기압, 수증기량을 확정하여 초기 조건을 구성하고 예측 계산을 시작하게 된다. 격자점의 변수값은 관측을 통해 확보해야만 한다. 지상의 관측망은 평균적으로 115k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선박이나 부이로 구성된 해상의 관측망은 이보다 못해 관측점 간 평균 거리는 250km로 증가한다. 고층 대기는 풍선을 띄우거나 항공기로 관측해야 한다. 고층 관측 지점 간 평균 거리는 623km 정도로서, 고층 관측은 지상 관측보다 훨씬 열악한 여건이다. 기상위성이나 기상레이더와 같은 원격 탐측 수단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관측망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관측망의 한계로 인해 초기 조건에는 추정 오차가 따른다. 이 오차는 모델이 미래의 변수값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증폭된다. 문제는 날씨 변화가 심한 곳에서 예측 오차도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에 있다. 발달하는 저기압이나 태풍의 주변 기압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향후 태풍의 경로나 강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셋째, 대기 상태의 변화 과정은 대규모 운동과 중·소규모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규모 운동보다는 중·소규모 운동이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대규모 운동은 보존 원리에 입각한 유체 역학의 방정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소규모 운동에 대해서는 통일된 이론이 따로 있지 않고, 분야별로 별도의

근사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규모 운동에 따른 변수의 변화는 직접 계산하는 반면, 중·소규모 운동에 따른 변수의 변화는 이차적인 매개 변수를 도입하여 간접적으로 계산한다. 매개 변수의 값은 보통 사전 학습을 통해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기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이 떨어진다. 기상센터의 슈퍼컴퓨터가 계산한 기류 예측 자료에서도 중·소규모 운동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 보 기 >
- ㄱ. 수평 해상도의 증가는 모델의 예측 오차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 ㄴ. 초기 조건의 추정 오차는 관측망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데, 지상의 관측 여건이 해상과 고층에 비해 열악하다.
 - ㄷ. 대규모 운동과 중·소규모 운동은 모두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예측성 역시 유사하다.
 - ㄹ. 수평 해상도가 높아지면 시간 해상도도 상응하여 높아져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2. 다음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양성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태어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생아는 어떻게 여성과 남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A에게서 찾을 수 있다. A는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를 성역할 사회화의 중요한 기제로 보았다. 아이는 이성부모에 대한 애착과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 동성부모의 행위양식이나 특징들을 자신의 성격의 일부로 내면화한다.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머니와의 분리와 방어적 동일시를 통해 사회의 규범과 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아버지의 감정, 행동양식 등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반면 여아는 어머니와의 동일시 과정에서 분리의 경험을 겪지 않으며 해부학적 특징상 남근 선망으로 인해 수동적·의존적 특성을 갖게 된다.

A의 이론은 B에 의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여아의 남근 선망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며, 신체 일부의 문제를 신체 전부로 과도하게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B는 영아의 심리적 동일시가 갖는 효과에 대한 정반대의 이론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남아가 겪는 어머니와의 분리의 경험은 이후 성장 과정에서 박탈감과 정서 불안, 자기중심적 정체감, 일 중심적 성향을 갖는 원인이 된다. 반면 여아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은 애착과 이중적 동일시(아이로서의 동일시와 여성으로서의 동일시)는 성인이 된 여성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관계 지향적 성향을 발달시키는 자원이 된다.

다음으로, C는 ‘모방’과 ‘학습’을 중요시한다. 성별로 유형화된 행동은 아이가 상징적 모델이나 실제 모델들을 관찰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획득되며, 이것은 보상이나 처벌의 기제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다. 아이는 동성부모를 관찰하면서 모방학습을 수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부모들이 보이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기대, 성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과 처벌은 자녀의 성역할 의식에 큰 영향을 준다. 학교교육 역시 중요한데, 교과서의 내용이나 교사의 태도와 행동, 교실에서의 보상과 처벌은 아이에 의해 모방되고 수용되어 성역할 의식을 형성한다. 특히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이고 암묵적인 교과과정은 아이의 성역할 사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르치더라도 학교생활에서 학급대표를 남학생이 맡고 여학생은 환경 미화나 도서 정리와 같은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하는 등 성역할 구별이 이루어진다면 아이들은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매년 제주도에서 감귤을 진상하였으며, 그때가 되면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곤 하였다. 이것이 황감제(黃柑製)이다. 성균관 유생들에게 감귤을 나누어주면서 글을 지어올리게 했던 일이 종종 31년에 처음 등장한다. 왕이 감귤을 내려주고 시를 지어 올리게 했던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다만 이때는 승정원 관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종종 11년에는 승정원과 홍문관에 술과 꿀을 내리고 칠언율시를 바치게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관리에게 모욕(毛褥)을 하사하였다.

훗날 선조 대에 와서는 감귤을 하사한 뒤 치른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유생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직부전시는 초시·회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왕의 입회하에 치르는 최종시험인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특전이였다. 숙종 대에 와서는 황감의 하사와 그에 따른 과거시험이 거의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으며, 영조 대에는 등수별 포상 내용도 일정하게 정해졌다. 수석을 차지하면 직부전시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다음 등수는 초시 없이 회시에 바로 응시하는 직부회시의 특전이 주어지거나 지필묵이 하사되었다. 다음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더 부여하는 급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일종의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다. 선조 38년에 시행된 황감제에서 수석을 차지한 진사 이경직은 직부전시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고, 임숙영 등 11인은 지필묵을 포상받았다.

감귤은 천신(薦新)용 또는 물선(物膳)용으로 진상되었다. 조정에서는 제주에서 감귤을 받아 천신하는 예절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공물로 바치는 감귤의 수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천신은 새로 난 과일 등을 신위(神位)에 올리는 일이었다. 왕실에서 소비되는 물선의 용도로 감귤이 진상되기도 했지만, 진상되는 감귤은 천신으로서의 쓰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었다. 제주에서는 늦가을인 9월령 천신용으로 먼저 유자를 보내고, 초겨울인 10월부터 2월까지의 천신을 위하여 품종별로 수확이 이루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감귤을 진상하였다. 10월령 천신용으로 당금귤이 진상되고, 당금귤·금귤·감자 등이 물선의 용도로 보내졌다. 11월령 천신을 전후해서는 유감·동정귤·당유자·감자 등이 천신과 물선의 주요 품목이었다. 그리고 2월령의 천신 및 물선용으로는 청귤이 보내졌다.

- < 보 기 >
- ㄱ. 황감제는 매년 봄에 시행되었을 것이다.
 - ㄴ. 종종 31년에 시행된 황감제에서 수석을 차지한 사람은 직부전시의 특전을 하사받았을 것이다.
 - ㄷ. 영조가 성균관 유생들에게 나누어준 감귤은 물선용으로 진상된 감귤이었을 것이다.

- ① A는 여성이 의존적 성격을 지닌다고 파악하며, 그 원인에 신체적 차이가 있다고 본다.
- ② B는 영아와 어머니의 관계가 성장 과정에서 남성적·여성적 성향을 각각 발달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 ③ A의 견해는 여아의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가 여아의 성향을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B의 견해와 유사한 견해이다.
- ④ C는 부모의 의식과 행동에 따라 아이의 성향과 성역할에 대한 관념이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A와 견해를 달리한다.
- ⑤ B와 C는 영아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 고정된 남성적 성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에서 A와 견해를 달리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2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젊음, 건강,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해 강박 관념을 지니고 있다.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화장, 패션, 성형, 다이어트, 체형조정, 그리고 피부관리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외모를 가꾼다. 여성의 '외모가꾸기' 행위는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스스로 가꾸고 유지해 나가는 능동적인 의미로 변화된다. 그러나 여성의 외모가꾸기가 능동적인 행위라고 해서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후기시대로 접어들면서 '외모가꾸기'의 의미가 개인의 차별화된 육체표현의 욕망과 관련이 깊을수록 다른 외적인 요인들, 즉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관리의 매커니즘이 더 많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4년도와 2011년도에 시행한 전국조사에서 '외모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0%에서 85.6%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들이 외모차별의 심각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 유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외모차별을 든 비율이 두 기간 동안 5.0%에서 11.7%로 증가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적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나 우울, 강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외모의 문제로 자신감이 저하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남들 앞에서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며, 특히 자기를 평가 절하하게 된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4, 50대에 재취업한 주부들이 열심히 살을 빼고 성형 수술까지 하여 외모를 새롭게 가꾼 후 일에 대한 자신감이 늘었다는 보고를 보면 외모에 대한 자기 인식과 전반적인 자신감, 그리고 일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맥켈리는 이러한 증상을 '객체화 신체의식'이라 명명하고 세 가지 요소로 세분화하였다. 첫째, 신체 감시성, 둘째, 문화적 신체 기준의 내면화와 이에 따른 수치심, 셋째, 외모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 그것이다.

그 중 신체 감시성은 타인의 시선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사회문화적 기준의 시선으로 스스로 감시하는 것이다. 신체에 대한 수치심은 이상화된 신체 이미지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즉 사회문화적 조작에 의한 이상적 신체 기준을 오히려 자신 스스로 형성한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자기 몸에 대한 수치심과 자기 거부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체 통제신념은 외모에 대한 문화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때 여성이 자기 외모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맥켈리는 신체 통제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신체 수치심은 낮고 신체 존중감은 높으며 외모를 꾸미거나 변형하려는 시도가 더 많아진다고 보고한다.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객체화 신체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몸을 스스로 감시하고 규율하며 훈육하는 데 길들여져 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사회 담론이 형성한, 혹은 권력과 규율이 주입하는 이상적 신체 이미지에 따라 스스로를 감시하고 수치감을 느끼며, 급기야 그 이미지대로 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몸을 만들어갈 때 혹은 만들어간다고 믿을 때, 우리는 신체 존중감과 자기 존중감을 얻고 주관적 안녕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세태는 여러 가지 차별의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되어 사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불안, 강박, 편견 등 다양한 정신적 병리 현상들 속에서 나타난 과도한 뷰티산업의 성장과 비정상적 외모가꾸기 열풍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

는 것이다. 이러한 병리 현상은 신경증으로도 해석된다.

카렌 호나이의 신경증적 분석에 의하면 외모와 관련된 신경증은 '애정과 인정에 대한 신경증적 욕구'이다.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말한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관심의 중심에 놓고 그들의 바람과 의견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적대감이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적대적 감정을 강박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모의 문제는 사회적 시선에 의해 내면화된 자신에 대한 자기혐오를 필연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자기혐오는 자기비하로 드러난다. 즉 현재 전반적인 외모지상주의 문제는 외모에 대한 자기비하 혹은 자기혐오로부터 오는 병리현상이라 진단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자기비하의 원인은 한 가지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외모의 문제가 자기혐오를 일으키는 데는 다양한 자기서사의 상처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① 맥켈리에 따를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설정된 이상적인 신체 기준에 맞추어 갈수록 자기 존중감을 획득할 수 있다.
- ② 맥켈리에 따르면 이상적인 신체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외모 불안감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 대인 관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③ 현대사회의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능동적 행위이다.
- ④ 카렌 호나이와 맥켈리에 따르면 신체 감시성이 강할수록 타인에게 호감을 받을 확률이 높다.
- ⑤ 카렌 호나이와 맥켈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정한 기준에 외모가 미치지 못할 경우 자기혐오 등 불안감에 빠질 위험이 높다.

26. 다음 글을 읽고 잘못 추론한 사람을 고르면?

『황제내경(黃帝內經)』¹⁾ 소문 상고천진론에 따르면 ‘음양에 화(和)하고 사시(四時)에 조(調)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고 사기조신대론에서는 ‘사시음양(四時陰陽)은 만물의 근본이며, 생장의 관건’이라 하였다. 평소 따뜻한 물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라면 속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차갑다는 것은 음에 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에 좋다는 생식(生食)도 속이 냉한 사람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본에 어긋난 생활을 하면 생명의 기초가 깨뜨려지고 진기(眞氣)가 모산(耗散)²⁾ 되어 재해가 생기므로 평형된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양의 법칙에 순응해야 하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음식에는 식물성인 음기(陰氣)와 동물성인 양기(陽氣)가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동식물에 따라 분류하면 동물성 식품은 양이고, 식물성 식품은 대체로 음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라는 곳, 성장 시기 등에 따라 음양으로 구분된다.

식물성 식품 중 뿌리는 양이고 잎은 음에 속한다. 잎이 음이기 때문에 양인 태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땅은 음이기 때문에 양인 뿌리를 받아들여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뿌리채소는 양이고 잎채소는 음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인삼과 산삼은 양성으로 열성인 음식이고 잎을 먹는 녹차는 음성이며 냉성 음식인 것이다.

쌀은 양이고 보리는 음으로 구별하고 있다. 쌀은 초여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데 뜨거운 여름을 거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많아 성질 자체가 따뜻하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먹도록 되어 있다.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여 추운 겨울을 지나 초여름에 수확한다. 겨울에 성장하기에 찬 성질을 가진다. 때문에 초여름에 수확하여 양의 계절인 더운 여름에 먹도록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다.

한편 오행론(五行論)은 동양의 자연을 인식하는 우주관과 이를 해석하는 방법론이다. 음양론과 더불어 우주 내의 모든 물질과 현상의 존재와 질서의 주체이며 원리이다. 오행이란 구체적으로 자연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다섯 가지의 성질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상호간에 서로 발생시키고 조장할 뿐 아니라 서로 제약하여 우주의 질서를 유지한다.

한국음식은 음양오행설의 우주를 상징하는 오방색(五方色)으로 되어 있다. 오방색은 오행의 기운과 연결된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 가지 기본색을 이룬다. 청색은 오행 중 목의 기운에 속하고 동쪽 방향, 적색은 화의 기운에 속하며 남쪽 방향, 황색은 토의 기운에 해당하며 중앙, 백색은 금에 속하고 서쪽 방향, 흑색은 수의 기운에 해당하며 북쪽 방향으로 오방의 주된 골격을 이룬다.

한의학에 따르면 음식은 그 색깔에 따라서 인체의 오장(五臟)에 작용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청색은 간, 적색은 심장, 백색은 폐, 황색은 위, 검은색은 신장에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색을 띠는 음식은 해당 오장의 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우리 음식문화는 오행론의 오방색으로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함을 추구할 뿐 아니라 음양오행사상에 따라 계절에 적합한 음식물 섭취를 중시하였다.

1) 『황제내경(黃帝內經)』: 중국 의학교서로 내경이라고도 하며 의학오경(醫學五經)의 하나이다. 전반 9권은 소문(素門), 후반 9권은 영추(靈樞)로 구분한다.
2) 모산(耗散): 진액(津液)이나 정기(正氣)가 소모되고 흩어지는 것.

- ① 가영: 오이가 음양오행론에 비추어볼 때 청색 식품이라면 오이는 간의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추론할 수 있어.
- ② 나영: 동물성 식품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양기를 식생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 ③ 다영: 삼계탕의 주재료가 닭, 인삼, 쌀이라고 할 때 삼계탕은 양기를 보충하는 음식이겠다.
- ④ 라영: 『황제내경』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 유형에 따라 음양의 법칙에 알맞은 음식을 선택하여 먹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 ⑤ 마영: 신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오방색 중 검은색을 띠는 음식을 추천해줄 수 있겠다.

27. 국회사무처 갑 사무관이 서기관으로의 승진을 위해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제공하는 A~G의 총 7개 교육과정 중 3개 이상의 과정을 다음 <조건>에 따라 수강하고자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 조 건 >

- A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B 과정은 수강해야 하고 E 과정은 수강해서는 안 된다.
- E 과정은 수강해야 한다.
- C 과정과 G 과정을 수강하면, A 또는 B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 B 과정을 수강하면, A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 C 또는 G 과정을 수강해야 한다.

- ① C 과정과 G 과정을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
- ② A 과정은 수강하지 않는다.
- ③ B 과정의 수강 여부는 C 과정의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된다.
- ④ D 과정 또는 F 과정을 반드시 수강한다.
- ⑤ 수강 가능한 최대 과정 수는 4개이다.

28. 다음 글을 읽고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9. 다음 <서준이의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기준이의 추론>
이 타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술을 한 사람은?

- (가) 비동시화 효과(de-synchronization effect)란 서로 다른 속도로 인해 진보를 제한하는 효과를 말한다.
- (나) 이코노랜드(econo-land)란 경제학자, 비즈니스 전문가, 정치가들이 금융과 경제 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놓는 유사 지식광장을 말한다.
- (다)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란 부유층의 소비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연결돼 나타나는 전체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말한다.
- (라) 물물교환(barter)이란 재화나 용역을 화폐 따위의 교환수단 없이 직접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서준이의 진술>

우리 반에서 서울의대 합격자가 두 명 이상 나왔다면 예서가 합격했거나 혜나가 합격했을 거야. 예서가 합격했다면, 예서 부모님은 파티를 열었을 것이고 김주영 선생님이 예서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거야. 우주가 예서나 혜나의 합격 소식을 모르거나 예빈이가 혜나의 합격 소식을 모른다면 혜나는 불합격한 거야. 예서 부모님이 파티를 열 경우에만 우주는 예서나 혜나의 합격 소식을 알게 될 거야.

<기준이의 추론>

우리 반에서는 서울의대 합격자가 두 명 이상 나오지 못했구나.

<보 기>

- ㄱ. 미국 기업이 인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 일을 맡기는 아웃소싱을 반대하는 CNN의 캠페인은 백악관을 향한 민주당의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이 국내 경제 현안에 관해 열을 올려 연설하고 있는 동안 곤두박질치는 주식시장 상황을 방송으로 내보낸 두 곳의 케이블 TV 뉴스 채널에 대해 백악관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 ㄴ. 2002년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자 도요타와 포드는 차량 판매 대금으로 곡물을 받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가 천연가스 대금을 갚지 못해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자 러시아는 대금의 일부로 Tu-160 블랙잭 폭격기 8대를 받기도 했다.
- ㄷ.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컴퓨터산업은 별다른 규제 없이 활기차고 거칠게 성장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컴퓨터 제조업자들은 엄격하고 과도하게 규제된 통신산업의 아주 느린 변화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두 산업의 기본적인 기술은 융합한 반면 그들의 변화율은 어긋났다. 분석가들은 두 산업이 어긋나지 않았다면 칩과 컴퓨터 그리고 그 관련 분야는 훨씬 빠르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 ㄹ. 우선 처음에는 미국이, 그 뒤를 이어 일본, 대만과 한국이 자신들의 저부가가치 업종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농업국가들로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경제적 부의 혜택이 빈곤 국가까지 돌아가는 효과가 발생했다.

- ① 차세리: 예서 부모님은 파티를 열지 않았어.
- ② 노승혜: 예빈이는 혜나의 합격 소식을 몰라.
- ③ 강준상: 우주는 혜나의 합격 소식을 알아.
- ④ 한서진: 김주영 선생님이 예서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거야.
- ⑤ 황치영: 우주는 예서의 합격 소식을 알아.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ㄴ | ㄹ | ㄱ | ㄷ |
| ② | ㄷ | ㄱ | ㄹ | ㄴ |
| ③ | ㄷ | ㄴ | ㄹ | ㄱ |
| ④ | ㄹ | ㄱ | ㄷ | ㄴ |
| ⑤ | ㄹ | ㄷ | ㄱ | ㄴ |

3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3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근대주의 철학에서 사회적 존재자 개념은 이상적 사회 구성원을 구성하는 두 가지 차원인 개인성과 연결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는 가장 근원적인 커뮤니케이터의 유형 구분 방식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다.

(1) 똑똑이

개인성과 연결성이 모두 높은 이상적인 커뮤니케이터 내지 시민적 정체성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개인적 안목과 이성으로 그 굴레를 벗어 거듭 태어난 근대적 의미의 시민이다. 주체적인 의식활동을 전개하고 폭넓은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수행한다. 남의 얘기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분명한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가 모두 활발하며 공론장과 속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가능성을 지닌다. 매체 단위로는 가장 이상적인 의미의 정론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묵묵이

개인성에 앞서 공동체적 소속감, 가치, 의무, 필요성 등을 우선시하는 의식을 보유한 자로 전근대적 공동체의 성원이 이에 해당된다. 공동체주의가 과도하게 강조되어 있는 상태로서, 근대화의 진전 속에서 시민적 주체로 발전하거나 파당적 주체로 전환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닌 공동체 내에서 주로 소통하며, 사적인 욕망 내지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거나 침묵을 지키고 주로 공동체 차원에서 사고하고 발언한다. 개개 커뮤니케이터의 차원에서 사적 사안들에 대해 침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말하기보다는 듣는 자에 해당하며, 매체 단위로는 공동체 소식지나 민중지가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떠버리

개인주의적 주체성은 갖추되 공동체적 연결성, 즉 공동체적 소속감, 가치, 의무, 필요성 등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자이다. 과도하게 자유주의가 강조되어 있는 상태로 공동체 이익과 구별되는 개인적, 분파적 또는 파당적 이익을 강하게 내재화하고 이를 대변하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타인 또는 공동체 차원의 주장이나 상황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듣기보다는 주로 말하는 자이다. 매체 단위로는 편향성이 심한 정파지를 예로 들 수 있다.

(4) 어리버리

독립적인 개인성, 공동체적 소속감, 가치나 의무, 필요에 대한 의식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이다. 남의 주장이나 상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도 못한다는 차원에서 읽지도 듣지도 쓰지도 말하지도 않는 자, 즉 소통의 관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에 진배없다. ‘귀’와 ‘입’이 동시에 막혀 있는 커뮤니케이션 폐쇄 또는 소외 상황 속에 놓인 집단 내지 익명적, 파편적 존재로서의 대중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인공강우는 구름을 이루는 작은 수증기 입자들이 서로 잘 뭉쳐 물방울로 떨어지도록 구름씨(응결핵)를 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자연적으로는 작은 얼음 결정이 구름씨 역할을 하는데 인공강우의 경우 항공기로 구름에 요오드화은(AgI)이나 드라이아이스(CO₂) 입자를 살포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문제는 인공강우를 내리려면 비를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수분을 가진 구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는 한반도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가 대기가 정체될 때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발생하는데, 이런 고기압 상태에서는 구름이 없고 날씨가 맑다. 이와 같이 구름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구름씨를 뿌려줘도 비를 내릴 수 없다.

구름이 있다 해도 인공강우로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은 시간당 0.1~1mm에 불과하다. 미세먼지를 쓸어내리기에 부족한 양이다. 기존에도 국립기상과학원은 가뭄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해왔는데 9차례의 시도 중 4차례 비를 만드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비의 양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공강우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뿐이다. A 교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비가 온 뒤 잠깐 깨끗해질 순 있어도 곧 미세먼지는 다시 생성될 것”이라며 “인공강우 실험은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인공강우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자연적으로는 구름이 이동하면서 비를 내리는데 특정 지역에서 구름의 수분을 인위적으로 다 써버리면 다른 지역에 비가 덜 내리게 된다. 또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대량으로 요오드화은을 살포할 경우 떨어진 비가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국립기상과학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인공강우의 주목적은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이 있을 때 강우량을 늘리는 데 있다.”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주류 과학계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가뭄 해소를 위해 인공강우 연구를 해왔지만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결론을 내렸다.”라며 “마치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 ① 묵묵이는 낮은 개인성과 높은 연결성을 지닌 존재로, 어리버리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높을 것이다.
- ② 사람뿐만 아니라 매체도 커뮤니케이터의 유형 구분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③ 똑똑이는 근대적 의미에서 이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똑똑이가 다수인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 ④ 어떤 커뮤니케이터가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떠버리 간의 소통 상황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은 여는데 들어주는 ‘귀’는 막혀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 ① 최초의 인공강우 실험은 항공기로 구름에 요오드화은(AgI)이나 드라이아이스(CO₂) 입자를 살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②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 ③ 국립기상과학원의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하였을 때 내린 비의 양은 0.1~1mm 정도였을 것이다.
- ④ 인공강우를 위하여 드라이아이스를 대량으로 살포할 경우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
- ⑤ 주류 과학계에서는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장기간 인공강우 연구를 해왔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38.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국가의 주요 서적을 보관하는 사고(史庫)를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 설치한 것은 고려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내외로 구분하여 서울에 있는 것을 내사고(內史庫), 지방에 있는 것을 외사고(外史庫)라 불렀다. 서울의 내사고는 서적을 열람하기가 편하므로 오늘날의 도서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외사고는 서적의 열람보다는 보존이 목적이므로 오늘날의 문서고에 해당한다.

외사고에 보관되었던 서적은 실록만이 아니었다. 외사고의 건물은 사각(실록각)과 선원각(선원보각)이라는 두 건물로 구성되며, 사각에는 실록을 보관하고 선원각에는 선원록(璿源錄)을 보관하였다. 선원록은 국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그 직계가족을 정리한 왕실의 족보이다. 선원록은 한 가지 책이 아니라 선원록류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책을 총칭한다. 왕실의 일차적 구성을 보여주는 『선원록』이나 『선원계보기략』, 『선원속보』가 있는가 하면, 왕실의 내척과 외척을 보여주는 『종친가현록』이나 『왕비세보』, 『팔고조도』 같은 책이 있었다. 여기서 가현록(加現錄)이란 기왕의 족보에서 누락된 친족이 있으면 이를 추가하여 새로 정리한 책을 말한다. 선원록은 왕실의 가족에게 시호, 묘호, 존호를 올리거나 원자의 탄생, 왕비나 세자빈의 책봉, 세자의 관례, 입학례, 가례 등이 있을 때마다 수정본이 만들어졌다. 또한 국왕의 글인 어제나 국왕의 글씨인 어필도 선원각에 보관되었다.

조선 전기에 외사고의 수호는 지방의 관아에서 담당했다. 사고가 읍성 안에 있었으므로 관아에서 담당하는 것이 편리했으며 수호하는 군사도 숫자도 많지 않았다. 충주사고를 지키던 수호관은 5명이고 호장, 기록관, 고지기가 1명씩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외사고는 험준한 산중에 건립되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다. 조선 정부는 사고마다 수호사찰을 지정하고 사찰에 소속된 승군에게 수호를 담당하게 하였다. 1606년에 마련된 수호 규정을 보면 외사고의 인근에 거주하는 백성 네 집을 지정하여 모든 부역을 면제하고 2명씩 교대로 지키게 했다. 또한 사고마다 승군 40명을 배치하여 20명씩 교대로 근무하게 했다. 사각을 지키는 참봉에게는 국가에서 급료를 주고, 승군에게는 위전이라는 토지를 주었다.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포쇄를 했다. 포쇄란 책의 습기를 제거하고 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을 상자에서 꺼내어 차일을 친 그늘에서 말리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 사고의 서적은 명주 보자기에 싸서 상자 안에 넣어두었고, 천궁 가루나 창포 가루를 담은 자루를 함께 두어 서적의 손상을 막았다. 포쇄를 하게 되면 사고의 문을 열고 상자에서 서적을 꺼내게 된다. 그런데 사고의 문을 열려면 반드시 중앙에서 파견된 사관(史官)이 동참해야 했다. 포쇄는 2년 내지 4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거행했다. 만약 사고 건물에 누수가 있거나 태풍, 장마가 있었다면 포쇄의 연한이 아니라도 포쇄할 수 있었다. 반대로 흉년이 들거나 사고의 방문이 잦아 민간의 부담이 클 때에는 포쇄를 물리는 경우도 있었다. 외사고의 서적 관리는 철저하여 대한제국 말까지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보 기>

ㄱ. 포쇄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사람이 참여하여야 했으며, 천궁 가루나 창포 가루가 이용되었다.

ㄴ. 조선 후기 백성 중에는 모든 부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었다.

ㄷ. 가현록과 실록은 다른 건물에 보관하였고, 선원록과 어필은 같은 건물에 보관하였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ㄴ, ㄷ

2019년도 입법고시 제1차시험 정답표(가)

| 가형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 | 헌 법 |
|-----|------|------|-------|-----|
| 문1 | 5 | 3 | 1 | 4 |
| 문2 | 2 | 3 | 3 | 2 |
| 문3 | 4 | 4 | 5 | 4 |
| 문4 | 3 | 4 | 3 | 5 |
| 문5 | 1 | 5 | 1 | 2 |
| 문6 | 1 | 4 | 3 | 2 |
| 문7 | 4 | 2 | 2 | 5 |
| 문8 | 5 | 3 | 3 | 1 |
| 문9 | 3 | 3 | 1 | 2 |
| 문10 | 5 | 4 | 2 | 1 |
| 문11 | 3 | 5 | 4 | 3 |
| 문12 | 5 | 1 | 4 | 1 |
| 문13 | 2 | 1 | 4 | 5 |
| 문14 | 4 | 4 | 2 | 5 |
| 문15 | 2 | 5 | 4 | 3 |
| 문16 | 3 | 2 | 5 | 2 |
| 문17 | 2 | 2 | 1 | 1 |
| 문18 | 5 | 5 | 1 | 5 |
| 문19 | 5 | 5 | 4 | 4 |
| 문20 | 4 | 3 | 2 | 2 |
| 문21 | 3 | 3 | 2 | 3 |
| 문22 | 5 | 5 | 2 | 1 |
| 문23 | 3 | 5 | 1 | 3 |
| 문24 | 4 | 4 | 1 | 5 |
| 문25 | 1 | 3 | 4 | 4 |
| 문26 | 2 | 2 | 3 | |
| 문27 | 1 | 4 | 5 | |
| 문28 | 2 | 1 | 2 | |
| 문29 | 1 | 2 | 2 | |
| 문30 | 1 | 2 | 2 | |
| 문31 | 5 | 5 | 5 | |
| 문32 | 1 | 2 | 3 | |
| 문33 | 3 | 4 | 3 | |
| 문34 | 3 | 1 | 2 | |
| 문35 | 4 | 1 | 4 | |
| 문36 | 2 | 1 | 5 | |
| 문37 | 3 | 4 | 정답 없음 | |
| 문38 | 5 | 3 | 4 | |
| 문39 | 5 | 2 | 3 | |
| 문40 | 4 | 5 | 1 | |

언어논리영역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같은 미디어를 이용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인터페이스(interface)다. 인터페이스란 미디어 속 가상적 세계와 현실의 물리적 세계를 이어 주는 관문 같은 것이다. 컴퓨터의 경우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화면 등이 물리적인 인터페이스에 해당한다. 인터페이스에는 물리적 요소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있다. 문자편집기의 메뉴 화면, 웹사이트의 메뉴 등 우리가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명령을 내리는 지점들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 해당한다. 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적 인터페이스를 잘 구축해야 사용자들이 별 어려움 없이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며 UI(User Interface)란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HCI(Human-Computer Interface)란 인간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간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의 특징을 파악해 기계가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연구해 나가는 학문이다. 최근에는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BMI(Brain-Machine Interface)란 학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인간의 뇌를 이용해 컴퓨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두는 학문이다. BMI 외에 BCI(Brain-Computer Interface), MMI(Mind-Machine Interface)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BMI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동물들의 세포는 크게 감각세포와 운동세포 그리고 이들을 이어 주는 뉴런 같은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세포가 자극 정보를 신경세포에 전달하면 신경세포는 적절한 운동세포에 신호를 보내어 운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뇌란 이들 신경세포의 모음을 의미한다. 뇌가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뇌는 정상이지만 신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각세포 혹은 운동세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눈이 잘못되면 앞을 볼 수 없다. 신경세포에 입력되는 시각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탐지용 센서(sensor)를 몸에 부착하고 이 센서의 신호를 뇌에 연결한다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반대로 감각은 정상인데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신경세포와 운동세포의 연결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팔이나 다리를 사고로 잃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모터가 달린 의수나 의족을 부착하고 이를 운동 명령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연결시키면 생각만으로도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뇌의 신호를 정확히 읽어 내는 것이다.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은 전기를 이용해 신호를 주고받는다. 뉴런들이 발생시키는 전기신호를 뇌파(brain wave)라고 하는데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뇌파는 고유한 주파수를 지닌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뇌파의 특성을 파악하면 뇌가 수행하려는 명령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BMI란 결국 이러한 뇌파를 측정해 그 신호의 의미를 파

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이 때 뇌파를 읽기 위해 센서를 수술 등을 통해 뇌에 부착하는 방식을 침습형(invasive)이라고 하며 직접적인 부착 없이 헬멧 같은 형태로 된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을 비침습형(non-invasive)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는 침습형이 만들기 쉽고 측정된 뇌파 정보 역시 더욱 정확하지만 사용하기 편리한 것은 비침습형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침습형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BMI 기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관문들이 많다. 첫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학적 부작용에 대한 것이다. 이제 막 연구되기 시작한 BMI 기술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부작용을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부작용에 대한 점검은 BMI 제품의 상용화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비침습형 BMI 기술이 발달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군가 나의 생각을 읽는 것이 가능해진다. TV를 시청하는 내 생각을 읽고 그에 맞는 광고를 시청하게 되는 것이 과연 유쾌한 상황일 수 있을까? 첫째가 기술적인 문제라면 둘째는 심리적인 것이며 더욱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다.

- ① 감각세포 혹은 운동세포가 잘못되었을 경우 뇌는 정상이지만 신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못할 수 있다.
- ② 만들기 쉬운 뇌파 측정 방식은 센서를 수술 등을 통해 뇌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 ③ 컴퓨터의 마우스는 물리적 인터페이스에 해당한다.
- ④ BMI 기술 현실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심리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 ⑤ 센서의 직접적 부착 없이 헬멧 같은 형태로 된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하는 유형은 뇌파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애플레이어가 모바일 게임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에 답답함을 느낀 이용자들이 애플레이어를 통해 PC에서 모바일게임을 즐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애플레이어 시장이 아직 형성 초기 단계지만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애플레이어란 윈도우(Windows), 맥(Mac) 등의 운영체제에서 안드로이드(Android) 버전 모바일게임을 작동시켜 주는 시뮬레이터를 의미한다. 현재 국내 게임시장은 모바일게임으로 재편된 지 오래다. 모바일게임은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빠르게 주류 게임에 등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장점을 포기하고, 모바일게임을 애플레이어를 통해 PC에서 즐기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들이 애플레이어를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PC모니터를 이용해 대형 화면에서 모바일게임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대부분 화면 크기가 5~6인치에 불과하다. 그동안 작은 화면에 답답함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또한 애플레이어를 사용하면, 키보드와 마우스로 모바일게임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터치 방식의 조작보다는 훨씬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해진다. 특히 일부 모바일 1인칭슈팅게임(FPS)의 경우, 마우스를 활용하는 것이 터치방식보다 게임 진행에 훨씬 수월하다.

애플레이어의 또 다른 장점은 PC의 멀티태스킹 기능을 활용해, 모바일게임을 구동하면서 동시에 다른 작업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모바일게임들이 자동사냥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PC의 멀티태스킹 기능과 좋은 궁합을 보이고 있다.

애플레이어 사용은 스마트폰 발열 및 배터리 소모 문제도 해결해 준다. 최근 고사양의 모바일게임이 출시되면서, 이에 따른 배터리 소모와 발열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모바일게임을 장기간 구동할 경우, 열이 발생하기 쉽고 배터리도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플레이어를 사용할 경우,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애플레이어는 안드로이드 버전 모바일게임을 구동할 수 없는 iOS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상당수 모바일게임은 국내 점유율이 높은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선행 혹은 단독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iOS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준 것 역시 애플레이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게임의 고사양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레이어 시장 역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향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① 애플레이어를 통해 안드로이드 버전 모바일 게임을 PC 모니터에서 실행할 수 있다.
- ②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애플레이어 시장은 향후 빠른 성장이 예측된다.
- ③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모바일게임 구동 시 발열 및 배터리 소모가 단점이다.
- ④ PC의 멀티태스킹 기능을 활용할 경우 모바일게임 구동과 동시에 문서 작성이 가능하다.
- ⑤ 모바일게임의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은 애플레이어를 통해 극대화된다.

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영업점 없이 금융업무(예금, 자금이체, 대출 등)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은행이다. 기존은행과는 달리 지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나 인건비, 운영비 등이 들지 않고 24시간, 365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해외에서는 이미 1995년 미국의 Security First Network Bank(SFNB)를 시작으로 일본, 영국, 독일 등으로 확대되었다. 국내에서는 2002년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이어져오다 2015년 금융위원회의 추진으로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A뱅크가 출범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B뱅크가 뒤이어 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A뱅크는 저점비용 대신에 여신금리 인하와 수신금리 인상을 강점으로 내세워 시중은행 평균보다 예금금리는 높게, 대출금리는 낮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B뱅크는 해외송금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10의 수준으로 인하하고 거래 수수료를 기존 타행 수수료보다 낮게 책정하였다. A뱅크는 통신과 지급결제 및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정보를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휴대폰 및 이메일을 통한 간편 송금 서비스, 디지털 이자예금과 콘텐츠 결합 예금 상품, 편의점 현금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뱅크는 기존 자신들이 가진 플랫폼의 고객 접근성과 편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 상품을 출시하였다. 기존 플랫폼의 아이디를 통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 예금 이자를 포인트로 적립 가능하게 한 것이 그 예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서비스인 가격경쟁력, 비대면 채널, 핀테크 부문의 경우 기존 은행권에서도 신속한 대응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제1금융권에서는 기존 고객 이탈을 방지를 위해 수신금리를 상향하여 연 2%대 특판 예·적금 등을 개시하였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용가입 상품에 대한 다양한 부가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모바일로 가능한 전·월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구입대출, 환전 서비스 등을 출시하였다.

핀테크 부문에서도 인공지능에 기반한 고객센터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과 상담시간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챗봇’을 도입하였고, 민원 분석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개선하고 마케팅에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근에는 핀테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들과 MOU를 체결하여 ‘디지털 금융공학과정’ 신설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영향력은 제2금융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시장 선점을 위해 금리 경쟁 등을 본격화 하였으며, 증권사는 비대면 거래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P2P대출 업계에서도 고객이탈 방지를 위해 ‘최저금리보상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제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가 은행권에서 지속성과 확산성을 가지려면 결국 금융 소비자의 까다로운 선택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체의 안정적인 경영 구조와 시스템 체제를 견고화해야하며 정부차원의 금융 소비자 보호가 그 바탕이 될 필요가 있다.

-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17년에 최초로 출범했다.
- ② A뱅크는 해외송금 수수료와 거래 수수료 인하를, B뱅크는 여신금리 인하와 수신금리 인상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 ③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인해 기존의 금융권에서도 대응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④ 제1금융권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용가입 상품에 대한 부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금융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E-R(Entity-Relationship)모델은 실세계의 조직의 의미와 상호작용을 개념적 스키마로 나타내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그러므로 많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도구들이 E-R모델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E-R모델은 3가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개체 집합, 관계 집합, 속성이다.

개체는 실세계에서 다른 모든 객체와 구별되는 유·무형의 사물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각 개인은 하나의 개체이다. 개체는 속성들의 집합을 가지며 속성들 중 일부 집합은 개체를 고유하게 구별하기도 한다. 개체는 사람이나 책처럼 구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수업, 수업분반, 혹은 비행기 예약처럼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개체는 속성들의 집합에 의해 표현된다. 속성들은 개체 집합의 각 구성원들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이다. 어떤 개체 집합에 대해서 속성들을 부여한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는 개체 집합 내의 각 개체와 관련해 비슷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교수 개체 집합의 가능한 속성은 이름, 학과, 그리고 연봉이다. 그러나 각 개체는 각 속성에 그 자신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수 개체는 이름 속성의 값으로 '홍길동'을 가질 수 있고, 학과 속성의 값으로는 '경제학'을 가질 수 있다.

개체 집합은 같은 속성을 공유하는 같은 유형의 개체들의 집합이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교수인 모든 사람들의 집합은 개체 집합 '교수'로 정의할 수 있다. 비슷하게 개체 집합 '학생'은 대학에 속한 모든 학생들의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어떤 '사람' 개체는 '교수' 개체이거나, '학생' 개체이거나, 양쪽 모두, 혹은 양쪽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개체 집합은 서로 중첩될 수 없다.
- ②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물건 뿐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도 E-R모델에서는 개체로 표현될 수 있다.
- ③ '교수' 라는 개체 집합은 이름이나 학과, 연봉과 같은 다양한 속성들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 ④ 개체 집합의 속성에는 각각의 개체별로 값이 대응될 수 있다.
- ⑤ '사람'이라는 개체 집합의 속성들 중에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체들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속성이 존재할 수 있다.

5. 다음 글의 (A), (B), (C)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혈연 내지 선조(先祖), 언어·종교·생활습관·문화 등과 관련하여 “우리는 ○○을(를) 공유하는 무리다.”라는 의식이 퍼져 있는 집단을 가리킨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로 공유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당사자가 그렇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피의 연결’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종종 불확실하지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감각이 널리 퍼져 있다면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주관성만을 강조할 경우 근거도 없이 아무 인간집단이나 (A)로 간주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나올지도 모른다. 어떤 별난 개인이 관계가 먼 사람과 ‘관계가 있다’, ‘동포다’라고 제멋대로 믿는다고 해서 (A)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A)라고 부를 수 있는 집단이 된다.

(A)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국가 내지 그에 준하는 정치적 단위를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될 때, 그 집단을 (B)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A)와 (B)는 다른 개념이지만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갖는다. 양자가 크건 작건 서로 겹치는 듯한 사례를 염두에 둘 경우에는 두 말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C)는 어느 국가의 정통한 구성원의 총체라고 정의된다. 근대사회에서 국민주권론과 민주주의 관념의 확산을 전제로 하면 국민이란 그 나라 정치의 기초적인 담당자라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국민주권적 발상이 확산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C)라는 관념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C)를 생각할 때, 한 나라 안에는 다양한 출신 및 문화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C)가 반드시 (A)로서의 동질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문화 전통의 공유와 근대국가의 제도적 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 개념을 따로 떼어놓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겹치는 경우도 많다. 어떤 (A)가 자신들의 국가를 갖고자 하는 운동을 고취하여 국가를 획득할 때, 그 국가 이전의 (C)는 주로 그 (B)로 구성되는 것이 그 예이다.

- ① 한 개인의 신념만으로 (A)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② (B)와 (C) 사이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 ③ (C)는 국민주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④ (B)는 견해에 따라 (A)와 (C)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 ⑤ (A)와 (B)는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6. 다음 <조건>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항상 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조 건>

-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린다.
-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 본회의가 열리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다.
-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국회 인사규칙 개정안을 상정한다.
- 인사청문회는 운영위원회에서만 열린다.
-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리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 ① 인사청문회가 열리거나 본회의가 열린다.
- ②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동시에 열리면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 ③ 본회의가 열리면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모두 열리지 않는다.
- ④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국회 인사규칙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
- ⑤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7. 다음은 갑이 을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편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의 편지에서 과거에 그릇되게 학문한 것을 깊이 탄식하였는데, 그대의 현재 나이가 겨우 약관일 뿐인데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듯 이와 같이 뛰어나니 학문을 그르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 것은, 학문에 잘못이 있으면 아직 학문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여긴 것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자 하고 도(道)를 향하는 것이 재빨라서 그 정확한 방향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멀고 그 말씀은 사라져서 이단이 진리를 혼란스럽게 하니, 옛날의 총명하고 재주 있고 걸출한 선비들 중에 시종 이단에 미혹되고 빠진 자는 참으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이 빠진 것에 비록 깊고 얕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이 하늘을 속이고 성인을 속이며 인의(仁義)를 꼭 막아 해치는 죄는 동일합니다. 오직 정백자(程伯子), 장횡거(張橫渠), 주회암(朱晦菴) 등 여러 선생들은 처음에 이단에 약간의 출입이 없지 않았지만, 재빨리 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 천하의 큰 지혜와 큰 용기가 아니라면 그 누가 홍수와 같은 흐름을 벗어나 진리의 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남들이 하는 말을 듣기로, 그대가 불교의 책을 읽고 자못 그 폐해에 빠졌다고 하여 마음에 애석하게 여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날 와서 만났을 때 그 사실을 속이지 않고 그 잘못을 말할 수 있었으며 지금 그대가 보낸 두 편지의 요지가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보니, 그대는 함께 도(道)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맛보는 것은 달지가 않고 익숙한 것은 잇기가 어려우며, 오곡의 열매는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제(稊)와 피(稗)같은 쪽정이가 빨리 익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을 면하고자 한다면 또한 다른 것에서 방법을 구할 필요가 없고, 오직 ‘궁리(窮理)’와

‘거경(居敬)’의 공부에 충분히 힘써야 합니다. 그대가 지금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도 오히려 깨달은 바가 없다고 근심하는 것은, 글의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심신(心身)과性情(性情)의 차원에서는 아직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는 비록 서로 머리와 꼬리가 되나 실제로는 두 가지의 공부이니, 나누는 것을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다만 반드시 두 가지 공부를 상호 의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진리를 관찰하되 자신의 견해를 먼저 고수하여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를 쌓아나가면 점차 익숙해지니, 수개월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기를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한 번에 초월하고 한 순간에 깨달아 즉시 부처가 된 자가 황홀하고 어두운 가운데 그림자의 모습만을 슬쩍 보고서 곧 이미 일대사 인연을 끝냈다고 말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궁리하여 실천에서 검증해보아야 비로소 진정한 앎이 되고, 경(敬)을 주로 실천함으로써 마음이 두세 가지로 나누어짐이 없어야 비로소 실제로 깨달음[實得]이 있게 됩니다. 지금 비록 진리를 보지만 앎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비록 경을 지키더라도 잠깐 동안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일상생활에서 대응하는 사이에 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연속하여 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처음 공부할 시기에는, 이치를 보되 참되지 않은 것과 경을 지키되 자주 경을 놓치는 것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걱정거리입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뛰어난 재주와 훌륭한 학식을 갖춘 자가 한두 명이 아니지만, 출세하지 못하면 과거시험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미 출세하면 이해관계에 빠져서, 비록 뜻이 있더라도 용감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가 넘칩니다. 그대의 마음가짐은 이들과는 다르니, 일찍이 잘못을 끊어버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대의 뛰어난 자질로 인해 강론과 이해를 쉽게 하기 때문에, 그대가 표현한 말과 글에는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노력과 입으로 말하고자 하여도 표현하지 못하는 애태움이 없습니다. 행하는 것을 더욱 확장하여 행함에 드러난 것에도 간절하고 독실한 모습이 부족한 듯합니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대가 마침내 세상의 습속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게 될까 진실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잘못이 있고 없음을 헤아려보지 않고 쉽게 그대에게 말합니다.

- ① 갑은 이단에 약간 출입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을 뉘우치고 솔직히 인정할 수 있으면 함께 도(道)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② 갑에 따르면 경(敬)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여 마음이 두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면 실제로 깨달음[實得]을 얻을 수 없다.
- ③ 을은 과거에 갑을 만났을 때 한 때 자신이 불교의 폐해에 빠져있던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였다.
- ④ 갑에 따르면 궁리와 거경은 서로 다른 의미이나, 실제로는 한 가지의 공부이니 상호 의존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 ⑤ 갑은 을의 뛰어난 자질로 인하여 을이 세상의 습속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8.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로마와 신라 두 나라에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인 미용문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미용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발전의 이유 중 하나는 ‘여권 신장’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로마사회에서는 결혼과 함께 여인의 재산이 남편 가문에 귀속되어 경제적 독립성이 없었는데 서서히 기혼 여성이 자신의 재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심지어 신라여성은 집안을 대표하거나 가계를 계승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상황 변화로 여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증대하게 되었고, 여성의 활동영역이 넓어져 미용문화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음도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로마와 신라의 미용발전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큰 이유는,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靈肉一致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사회의 지도자로서 미인과 미소년을 뽑는 원화(源花)와 화랑(花郎)제도가 시행되었고, 고대 로마시대에도 육체미를 중요시하였으며 훈련을 통해 날씬한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노력한 역사적 기록들이 다양하게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다) 이처럼 고대 로마인과 신라인 모두 외모에 관심이 많고 외모는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었지만, 로마 미용문화가 신라 미용문화에 비해 더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로마에서 여성들의 과도한 화장을 비판한 문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점과 정복한 나라의 많은 사람을 노예로 부려서 외모 관리에 많은 투자를 했다는 기록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신라는 로마처럼 개인의 행복과 쾌락을 위한 행위로만 미용이 발전한 것이 아니고, 불교를 통해 전해 내려온 미용의 주술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미용문화의 발달이 나라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나치진 않았다.

(라) 두 나라 미용문화의 또 다른 공통점은 미인의 조건으로 흰 피부를 선호하여 백납을 이용한 분을 발라 연약하고 파리한 모습을 연출하였다는 것이다. 백납은 화장 기술의 향상에 많은 부분 이바지하였지만, 피부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납을 과다 사용함으로써 피부병과 트러블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다. 가체도 두 나라 모두 흔히 사용하였는데, 이는 긴 머리와 화려한 머리 장식을 즐기는 데서 알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는 상당한 수요로 인해 정복지로부터의 가체 수입에 관한 문헌이 주를 이루고, 신라에는 가체 제작의 우수성으로 수출이 성행했음을 증명하는 문헌이 많이 발견된 바 있다.

(마) 이와 같은 남다른 미의식으로 두 나라 모두 일찍이 화장품이 제조되었고, 크게 미용문화가 발전하였다. 남성들도 여성 못지않게 외모관리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고,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 그 예로 신라에서는 남성 화랑들도 목걸이, 귀걸이 같은 장신구로 치장하고 화장까지 하였다. 로마 남성들 또한 매니큐어, 화장품, 향료를 사용하고 잔털을 제거하는 등 외모 가꾸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바) 예를 들어 신라의 향료는 모든 중생의 구제를 표방하는 불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애용되었다. 불교는 나이·성별·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신자로 포용하였기 때문에 신라인들 대부분이 향료를 상용하게 되었다. 단지 고급인가 저급인가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었다. 불교에서는 목욕 또한 마음의 죄악을 씻는 신성한 의식 수단으로 인식하였기에 불교사원마다 목욕시설이 비치되어 있어 신분 차이 없이 모든 신라인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의 미용문화와는 상이하게 신라의 미용문화를 비판적으로 기록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

- ① (가)-(나)-(다)-(라)-(마)-(바)
- ② (가)-(나)-(마)-(라)-(다)-(바)
- ③ (가)-(마)-(나)-(바)-(다)-(라)
- ④ (가)-(바)-(마)-(나)-(다)-(라)
- ⑤ (나)-(바)-(마)-(가)-(다)-(라)

9. 다음 <조건>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조 건> —

- 눈이 오면 교실이 조용하다.
- 교실이 조용하거나 복도가 깨끗하다.
- 복도가 깨끗한데 눈이 오지 않으면, 운동장이 넓고 눈이 오지 않는다.
- 교실이 조용하지 않다.

- ① 교실이 조용하지 않으면 복도가 깨끗하다.
- ② 운동장이 넓지만 눈이 오지 않는다.
- ③ 복도가 깨끗하지 않다.
- ④ 눈이 오지 않는다.
- ⑤ 눈이 오지 않으면, 교실이 조용하지 않고 운동장이 넓다.

10. 다음 글을 읽고 ㉠에 제시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비평 논쟁은 반제국주의적 성찰의 증대,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이론화, 대중의 점진적인 의식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현대인은 고대인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작품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17세기의 신구 논쟁이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의 성장의 문화적 표현이었듯이, 20세기의 신비평 논쟁은 유럽 중심주의적인 제국주의의 한계에 대한 점진적인 성찰의 다른 구조적 표현이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유럽 제국주의의 문화적 가치이며 동시에 의식적으로 국민의 눈을 밖으로 돌리려는 정책이라는 것이 성찰의 대상이 되었을 때, 유럽 지식인들의 표현을 빌리면, 역사의 유죄성이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2차 대전 이후에 보편성과 역사의 유죄성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명제와 결부된 것은 그것 때문이다. 보편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 사이에는 엄격한 인식론적 단절이 있다는 과학철학자의 주장이나 휴머니즘을 다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지식인들의 괴로운 위치는 유럽 중심주의적 제국주의의 논리적 귀결이다.

신비평 논쟁은 실증주의와 구조주의 논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두 개의 세계관이 첨예하게 부딪친 논쟁이다. 구조주의적 세계관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각기 여러 형태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고립된 지식은 있을 수 없다는 상대주의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상대주의를 가능케 한 것이 비유클리드 기하학, 비뉴턴 역학 등이며 그 상징적인 존재가 아인슈타인이다. 폭넓게 상대주의라고 지칭되는 과학적 세계관은 ‘모든 개념은 그 개념을 낳게 한 특수한 변모의 그룹 속에서만 유효하며, 그 개념을 고립시켜 제시하는 것은 사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개념은 개념화된 대상과 개념화하는 주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 유효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것은 ‘물리학에서 관측자의 위치,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한 유효한 측정치를 얻어낼 수 없다’는 주장과 구조적으로 같다. 바슐라르가 새로운 과학 정신의 시대를 연 해라고 부르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제시된 1905년 이후로 상대성 이론은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 아래 형성된 새로운 경향을 바슐라르는 몇 개의 명제로 요약·제시하고 있다.

㉠

이 새로운 상대주의적 인식론은 절대적·객관적·과학적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실증주의적·역사주의적 인식론의 근거를 뒤흔들게 된다. 그 흔들림이 새 인식론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낳게 한 원인이기도 하다.

- ① 보편적 지식이 반드시 과학적 지식은 아니다.
- ② 대상의 객관성은 고립적으로 제시될 때 파악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 ③ 개념의 유효성은 대상과 주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선명해진다.
- ④ 모든 개념은 그 개념을 낳게 한 특수한 변모의 그룹 속에서만 유효하다.
- ⑤ 고립된 절대적·객관적·과학적 지식은 존재할 수 없다.

11. 다음의 <조건> 중 ㄱ~ㄷ이 모두 참이고 ㄹ이 거짓이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항상 거짓인 것은?

<조 건>

- ㄱ. 공연장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악단의 연주가 훌륭하고 주차장이 만원이 아니다.
- ㄴ. 피아니스트가 어리면 공연장의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 ㄷ. 암표상이 많으면, 악단의 연주가 훌륭한 경우 주차장이 만원이다.
- ㄹ. 주차장이 만원이다.

- ① 공연장의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 ② 악단의 연주가 훌륭하고 피아니스트는 어리다.
- ③ 암표상이 많지 않다.
- ④ 암표상이 많고 악단의 연주가 훌륭하다.
- ⑤ 공연장의 소리가 울리거나 주차장이 만원이 아니다.

12. 다음 <조건>에 따를 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가능한 최소 국가의 수와 최대 국가의 수는?

<조 건>

- 국회사무처는 2018년 제헌 7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A, B, C, D, E, F 6개 국가에 국제학술대회 초대장을 보내려고 한다.
- D국가가 참석하는 경우에만 A국가가 참석한다.
 - B국가가 참석한다면 D국가는 참석하지 않고, F국가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D국가는 참석한다.
 - C국가가 참석한다면 E국가는 참석하지 않고, F국가가 참석하는 경우에만 E국가가 참석한다.
 - A국가는 반드시 참석한다.

- ① 최소 1국, 최대 5국
- ② 최소 2국, 최대 3국
- ③ 최소 2국, 최대 4국
- ④ 최소 3국, 최대 4국
- ⑤ 최소 3국, 최대 5국

1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조선시대에는 국왕의 죽음을 ‘홍서(薨逝)’ 또는 ‘승하(昇遐)’라고 표현했다. 『예기』에 의하면 천자의 죽음은 ‘붕(崩)’이라 하고, 제후의 죽음을 ‘홍(薨)’, 대부의 죽음을 ‘졸(卒)’, 사의 죽음을 ‘불록(不祿)’, 서인의 죽음을 ‘사(死)’라고 했다. 천자와 제후의 죽음을 각각 가리키는 붕과 홍은 위에서 떨어져 붕괴되는 것이나 그로 인한 소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천자나 제후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충격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왕조 국가에서 국왕의 죽음은 나라의 위기이고 온 신민(臣民)의 슬픔이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국상(國喪)의 시작이 왕성의 경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국왕의 죽음이 현실화되면 궁성을 호위하라는 명령이 발동된다. 궁성의 문과 성곽 주변에 군인들이 도열하고 호위를 시작한다. 숙종이 승하했을 때를 보면 경희궁의 정문인 홍화문에 잡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영문(營門)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남쪽의 개양문, 북쪽의 무덕문에 이르기까지 보군이 궁궐을 호위하면서 줄을 서도록 했다. 그리고 마병은 육조 앞 도로에 결진하며, 금위영은 개양문 인근 지역을 호위하고, 금군은 혜정교 앞 도로에 결진했다. 어영청은 무덕문 인근 지역을 호위했다. 갑작스런 궁궐의 방위는 승하 후 5일째 되어 거행하는 성복(成服) 이후에 과했다.

국상을 당하면 나라 전체가 슬픔에 휩싸인다. 국왕의 부고를 들으면 종친과 문무백관은 천담복(淺淡服)과 오사모(烏紗帽), 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고 입궐하여 궐내에서 거애(擧哀)했다. 궁궐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이나 서민들은 백의(白衣)와 흑립(黑笠)을 착용하고 궁궐 문밖에서 거애했다. 각 도의 모든 사신과 외관은 국왕의 부고를 들으면 곧바로 정청에 향탁(香卓)을 설치한 뒤 천담복을 입고 오사모를 쓰고 흑각대를 착용하고서 뜰에 나가 사신은 동쪽에, 외관은 서쪽에 자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꿇어앉아 부복하고 곡했다.

제사는 신을 모셔 그 공덕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즐겁게 한 후 그의 축복을 받는 경사스런 날이므로 죽음의 부정(不淨)한 것을 간직한 채 신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국왕이 승하하면 나라에서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에 속하는 모든 제사를 중지했고 빈전이 설치된 이후에는 사직에 대한 제사만을 거행했다. 이것은 사직의 토지신과 곡식신이 국왕보다 격이 높기 때문이다. 즉, 낮은 자의 상례 때문에 존귀한 자의 제사를 폐지할 수 없다고 여겼다. 사직 외의 제사들은 졸곡을 지낸 후에 다시 거행했다.

국상 중에는 가례(嘉禮)도 금지되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혼례의 금지이다. 선비나 서리, 군인이나 백성들은 졸곡이 지난 후에야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반면 3품 이하의 관리들은 만 1년 때 거행하는 기제인 소상(小祥) 이후 3일 동안만 차길(借吉)할 수 있었다. 길(吉)함을 빌려 쓴다는 뜻의 차길은, 경사스런 잔치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지만 부득이하여 잠시 금령을 해제하고 길한 의식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상 때 지팡이를 짚는 당상관과 2품 이상은 차길이 허용되지 않고 담채 뒤에야 혼례를 거행할 수 있었다.

<보 기>

- ㄱ. 조선시대엔 국왕이 승하하면 군인들을 동원하여 국상 기간 내내 궁성을 방위하였다.
- ㄴ. 숙종이 승하했을 때 금위영은 궁궐의 북쪽지역을 호위했고, 어영청은 궁궐의 남쪽지역을 호위했다.
- ㄷ. 국왕의 부고를 들은 문무백관, 각 도의 사신, 외관은 천담복, 오사모, 흑각대를 착용하고 거애하거나 곡했다.
- ㄹ. 조선시대에는 죽은 자의 신분에 따라 그 죽음의 명칭이 달리 불렸고, 신분이 높은 신민일수록 국상 중 지켜야 할 금령의 정도가 약했다.
- ㅁ. 국왕이 승하하였더라도 사직에 대한 제사는 백성들의 혼례보다 앞서 허용되었다.

- ① ㄷ, ㅁ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14. 다음 <조건>을 바탕으로 반드시 범인이 아닌 사람을 고르면?

<조 건>

- A, B, C, D, E 5명 중 2명의 범인이 있다.
- 범인은 목격자가 될 수 없으며, 범인이 아닌 3명 중 1명의 목격자가 있다.
- 5명 중 3명의 진술은 진실이고 2명의 진술은 거짓이다.

- A : E가 범인임을 목격했다.
- B : C가 범인임을 목격했다.
- C : 나는 범인이다.
- D : A의 진술은 진실이다.
- E : 나는 범인이 아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근대 국가가 확립된 이후, 대의제 기구가 발달하며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시장 논리와 A이론이 발달하게 된다. 정치의 역할이나 시민의 덕성보다는 시장 제도와 그 속에서 행동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된 것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A이론이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적 부분에 대한 옹호가 강조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정치에 무관심해졌고, 이것은 정치의 힘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가 시민들의 민생과 관련되는 일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인 바, 이러한 무관심은 민주주의를 약화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치의 중심에 서서 자유, 평등의 가치를 보존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에 B이론이 가지는 의의는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B이론은 권리보다 의무를 강조하며, 권리도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정치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B이론은 사적인 삶보다는 공적인 삶을, 사익 혹은 개별 이익보다는 공공선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적인 영역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인 영역은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 참여할 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B이론은 제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행동하는 행위자와 그들의 윤리를 강조한다. B이론은 시장 제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적 행위자들의 이기적 행위가 공공의 이익으로 전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은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할 국가 기구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와 개입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억압받거나 전적으로 규제에 의존할 정도로까지 국가 기구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의존은 자율을 침식하고, 의존적인 시민은 시민적 덕성을 함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B이론의 핵심에는 정치의 부활이 있다. A이론은 개인이나 사적인 영역을 강조하면서 정치를 무대에서 몰아낸다. 반면 B이론은 정치는 시민들과 동떨어진 직업 정치인들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이 고립되어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은 채 사적 영역에 머물러 시민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타인과 고립되어 소통을 배척하는 데서 다른 시민들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경향도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B이론은 다양한 타인들과의 공존을 인정하고 그 세계 속에서 소통하며 공동의 일을 숙고하고 결정해나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고 참다운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본다.

<보 기>

- ㉠. B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개인의 권리가 선형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 A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시장논리의 폐해를 규제하기 위해서 시민을 억압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국가기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 ㉢. A이론은 근대 국가가 확립된 이후 발달한 이론이다.
- ㉣. B이론은 나쁜 의도를 가진 행위자들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입보다는 제도 설계를 중시한다.
- ㉤. A이론은 사적부분에 대한 옹호가 정치의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의 무관심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16.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상 언어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소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양 논쟁자(혹은 모든 논쟁자)의 입장들을 가능한 한 완전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정식화할 필요가 있다. 일단 각 논쟁자의 입장이 정확하게 진술되고 나면, 논쟁자들 간의 의견불일치가 진정한 불일치인지 혹은 의견상의 불일치에 불과할 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진정한 의견불일치(a real disagreement)’는 논쟁자들의 입장에 관한 진술들이 논리적으로 비정합적인 불일치, 즉 두 진술이 둘 다 참이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불일치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A: 달은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

B: 달은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만약 이 두 문장에서 ‘달’, ‘푸른 치즈’, ‘구성되어 있다’와 같은 단어들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두 진술 중의 어느 한 진술이 참이라면, 다른 진술은 반드시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가 A와 B 사이의 진정한 의견불일치의 한 사례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논쟁자들의 진술이 논리적으로 비정합적인 것이 아니라면, 즉 논쟁자들의 진술이 둘 다 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의견상의 의견불일치(apparent disagreement)’ 혹은 ‘유사불일치(pseudo-disagreement)’의 사례를 가지게 된다. 가령 ‘달’이라는 말로 A는 지구의 위성인 달을 의미하고 B는 목성의 위성인 여러 달 중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면, A와 B는 동일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며, 따라서 그들의 의견은 진정으로 불일치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제 위의 두 진술과 유사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다음의 두 진술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A: 나는 달이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B: 나는 달이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나는 ~을 믿는다.’와 같은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이 진술들은 논리적으로 비정합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문장들이 화자의 주관적 신념상태에 관한 진술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A의 진술과 B의 진술은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A는 실제로 어떤 것을 믿고 B는 정반대의 것을 믿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는 행복하다고 느끼고 B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심리적 상태와는 다른 무엇을 심중에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내가 알기로는’이나 ‘내가 믿기로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A는 ‘달은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장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표현되는 진술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 A와 B는 (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 기>

- ㄱ. 어떤 두 진술이 유사불일치라면 두 진술 모두 참일 수 있다.
- ㄴ. 다음 C~E의 진술에서 같은 단어들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D와 E의 다음 진술은 진정한 의견불일치이다.
 - C: 나는 달이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 D: C는 진정으로 달이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다.
 - E: C는 진정으로 달이 푸른 치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 ㄷ. 진정한 의견불일치인 두 개의 진술 가운데 한 진술이 거짓이라면 다른 진술은 참이다.
- ㄹ. (가)안에 ‘진정한 의견불일치’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ㄱ, ㄴ, ㄹ

1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학교는 교화의 본원이고 선을 으뜸으로 삼는 곳이며, 선비는 예의의 종주이고 나라의 원기가 깃든 자이다. 국가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그 뜻이 매우 높으니 선비가 학교에 들어가 자신을 수양하면서 어찌 구차스럽게 천하고 더러운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더욱 마땅히 예의를 중시하여 스승은 엄하고 제자는 공경하는 각자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엄하다는 것은 사납게 구는 것이 아니고 공경하는 것은 굴욕을 받는 것이 아니며, 모두 예를 위주로 하는 것이다. 예를 행하는 것은 또 의관 복식과 식사 예절과 읍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일 따름이다. 옛사람은 예를 하루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그 말에 이르기를 “한 번 잃으면 오랑캐가 되고, 두 번 잃으면 금수가 된다.” 하였으니, 어찌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가만히 오늘날의 학교를 보건대, 선생이든 생도든 간에 혹 서로 그 도리를 잃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단 학규를 익히지 않을 뿐 아니라 학령까지 크게 무너져서, 스승은 엄하지 못하고 생도는 공경하지 못하여 서로 폐해를 입히고 있다. 국학(國學)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사학(私學)은 더욱 심하다. 얼핏 들으니 사학의 유생이 선생을 길가는 사람 보듯 하고 학교를 여관방 보듯 하며, 평상시에 예복을 갖춘 자가 열에 두세 사람도 없고 흰 옷과 검은 갓 차림으로 줄줄이 왕래하며, 선생이 들어오면 수업을 받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고사하고 읍하는 예를 행하는 것까지 꺼리며 부끄럽게 여긴다 한다.

내가 지난해에 시골에서 들으니, 성상께서 학교를 시찰하는 성대한 행사를 거행하시어 어가로 직접 오셨는데 학생들이 혹 절하고 꿇어앉는 예절도 모르고, 환궁하실 때에는 공경스럽게 전송하지도 않고 흠뻑했다고 하였다. 혼자서 괴이하게 여기며 탄식하기를 “어찌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였는데, 오늘날의 상황으로 본다면 괴이할 것도 없다. 평소에 선생을 공경할 줄 모르는 마음이 곧 다른 날에 임금을 공경할 줄 모르는 마음이 되는 것이니,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선생을 능멸하는 마음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재생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실로 선생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이다. 지금 사학의 관원은 처신하는 것이 매우 형편없어 부지런히 출근하지 않아 학사가 항상 비어 사당과 다름이 없고, 간혹 출근하더라도 그냥저냥 시간만 때우며 읍례도 행하지 않고 유생들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일이 많다 보니 나이 어린 신입생이 의리를 깊이 알지 못하여 선생과 학생의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경시하는 마음을 품어 안일하고 그릇된 습관이 들어 점점 오만하고 사납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이것이 어찌 학생만의 허물이겠는가. 내가 병들고 형편없는 사람으로서 스승의 자리에 잘못 앉았으되 물러날 길이 없다. 하루라도 이 자리에 있으면 마땅히 하루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듣고 본 일이 있기에 근심과 한탄을 이기지 못하여 마음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다.

<보 기>

- ㄱ. 화자에 따르면 생도가 임금께 예를 다하지 못한 이유는 평소 선생을 공경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 ㄴ. 화자에 따르면 생도의 예를 잃음보다 선생의 예를 잃음이 더 큰 문제이다.
- ㄷ. 화자는 현재 사학에서 스승의 지위에 있다.
- ㄹ. 화자에 따르면 국학보다 사학에서 예의 도리를 잃음의 폐해가 더 심하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18.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근대 도시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산업화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행정 체계이다. 일찍이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화의 중요한 결과로서 관료제의 발전을 이야기한 바 있지만, 그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대해지고 복잡해져 간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능들로 분화되면서 점점 추상화되어간다. 그 결과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운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진다.

그런데 행정과 시민의 거리가 멀어지는 까닭은 행정 체계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개인과 행정 사이를 매개하는 중간 집단, 즉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면서 만들어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행동하며, 필요할 때 행정과 교섭하기도 하는 사회적 기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동체의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들에게 행정기구는 낯설고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의 삶 자체가 파편화되는 것도 거대한 시스템으로부터 개개인이 소외되는 맥락으로 짚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삶은 점점 개별화되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개별화란 지역 공동체가 점점 희석되어 주민들 사이의 관계가 얽어지고, 또한 가족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약화, 단절되는 것을 말한다. 자아의 고유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개인적인 것의 가치가 부각되는 것이다. 그럴수록 지역이라는 공간은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 영역으로서 의식되거나 체험하기가 어렵게 된다. 주민들의 삶이 개별화될수록 그전까지 지역 커뮤니티나 가족에 의해 충족되어오던 생활 관련 기능들이 점점 공공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예전 같으면 주민들 사이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행정의 업무로 떠넘겨진다.

한편, 행정이 관리해야 할 업무의 총량이 늘어날수록 관료제는 더욱 공고해진다. 그래서 분업이 더욱 가속화되고 새로운 직무와 기능들이 양산된다. 그러한 분화를 거듭하면서 복잡해진 시스템은 저마다 자체적인 논리와 관성, 공식적으로 규정된 역할과 매뉴얼에 의해 작동하고 각 부서 사이의 칸막이는 점점 높아진다. 공무원들끼리도 칸막이를 넘어서 다른 부서와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마당에 일반 시민들이 행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의 기구인 의회의 의원조차 그것을 소상히 파악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정 시스템은 점점 자폐적 영역으로 변하면서 주민과의 거리를 자꾸 벌려놓는다. 정책 결정의 장이 생활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다.

- ① 행정과 시민의 거리가 멀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료제 자체의 복잡성과 추상성에 있다.
- ② 현대 사회로 오면서 지역 공동체가 점점 희석되는 반면, 가족 구성원들 간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 ③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이 행정의 문제로 전환되면서 행정과 시민과의 거리는 전통 사회보다 현대 사회에서 더 가까워졌다.
- ④ 현대 사회에서 주민들의 삶이 개별화되면서 관료제의 분업이 가속화되었다.
- ⑤ 정책 결정에 있어 의회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행정이 관리해야 할 업무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19.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 다른 문학 장르와는 달리 소설이란 그 특유의 문법도 규범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소설이 무엇인지 만족할만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마르틴 로베르는 바로 그러한 점에 착안해서 지금까지 시도된 모든 정의가 왜 불완전한가를 검토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사실’과 ‘꾸며낸 것’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데서 찾고 있다. 마르틴 로베르는 환상소설의 경우 작가 자신이 사실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꾸며낸 것’이지만 훨씬 정직한 편이라는 것이고, 사실주의적 소설의 경우 그것이 ‘사실’에 가깝기는 하지만 꾸며낸 것이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오히려 부정직하고 독자를 더욱 속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소설이 ‘거짓말’인 것은 두 경우 모두 사실인데, 갑자기 문학 장르가 된 소설이 기존의 다른 장르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요소를 무엇이나 자기 것으로 삼고 그리하여 가장 강력한 문학 장르로 등장하게 된 것은 소설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적 성격과 비락부자의 성격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결국은 서민 출신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귀족과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뒤늦게 문학 장르로 군림하게 된 소설은 끊임없이 잡다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생애를 고쳐 쓰는 심리적 혹은 정신분석학적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마르틴 로베르는 프로이트의 『신경증 환자의 가족소설』에서 말하는 ‘가족소설’을 바로 이 거짓말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어린아이에게는 의식적이고 정상적인 어른에게는 무의식적이며 신경증 환자에게는 집요하게 나타나는 가족소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업둥이’이고 다른 하나가 ‘사생아’이다. 업둥이는 자기의 부모가 절대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평민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진짜 부모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자신의 진짜 부모는 왕족으로서 언젠가는 자기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꾸민다. 사생아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성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지만 아버지는 현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아버지를 부인하는 단계다.

따라서 소설을 쓰는 방법에는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한 마르틴 로베르는, 사생아의 방법이 사실주의적인 방법으로서 세계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도 세계를 도와주는 것이고, 나르시시적인 업둥이의 방법이 지식도 없고 행동 능력도 없어서 세계와의 싸움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생아의 방법에 속하는 작가로 빅토르 위고,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프루스트, 포크너, 디킨스 등의 사실주의적 작가들을 들고 있다. 업둥이의 방법에 속하는 작가로 세르반테스, 노발리스, 카프카, 멜빌 등의 낭만주의 및 상징주의 작가들을 들고 있다.

- ① ‘사생아’와 ‘업둥이’는 자신의 양친이 진짜 부모라는 것을 부인한다.
- ② 환상소설과 사실주의 소설 모두 독자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 ③ ‘가족소설’의 두 가지 유형은 ‘업둥이와 사생아의 이야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④ 소설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기존 장르의 문학적 요소들을 자기 것으로 삼기도 한다.
- ⑤ 톨스토이와 디킨스는 세계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도 세계를 도와주는 작가들에 속한다.

20. 다음 글의 밑줄 친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84년 여름, 영국 선원 네 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탄 채 육지에서 1,600킬로미터 떨어진 남대서양을 표류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미노넷 호는 폭풍에 떠내려갔고, 구명보트에는 달걀 순무 통조림 캔 두 개 뿐, 마실 물도 없었다. 토머스 더들리가 선장이었고, 에드윈 스티븐스는 일등 항해사, 에드먼드 브룩스는 일반 선원이었다. 신문은 이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네 번째 승무원은 잠무를 보던 열일곱 살 남자아이 리처드 파커였다. 고아인 파커는 긴 항해를 떠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파커는 친구들의 충고도 무시한 채 “젊은이의 야심을 품고 희망에 가득 차” 항해에 참가했고, 이번 여행으로 남자다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던 네 선원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지나가던 배가 구조해 주기를 기다렸다. 처음 사흘 동안은 순무를 정해 놓은 양만큼 조금씩 먹었다. 나흘째 되던 날은 바다거북을 한 마리 잡았다. 이들은 바다거북과 남은 순무로 연명하며 며칠을 더 버텼다. 그리고 이후 여드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때까지 파커는 구명보트 구석에 누워 있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병이 난 탓이다.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19일째 되던 날, 선장 더들리는 제비뽑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브룩스가 거부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다음 날도 배는 보이지 않았다. 더들리는 브룩스에게 고개를 돌리라고 말하고는 스티븐스에게 파커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몸짓으로 전했다. 더들리는 기도를 올리고, 파커에게 때가 왔다고 말한 뒤 주머니칼로 파커의 경정맥 급소를 찔렀다. 양심상 그 섬뜩한 하사품을 거절하던 브룩스도 나중에는 자기 몫을 받았다. 나흘간 세 남자는 남자아이의 살과 피로 연명했다.

그리고 구조의 손길이 나타났다. 더들리는 일기에 그 일을 놀라우리만치 완곡하게 기록했다. “24일째 되던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배가 나타났다고. 생존자 세 명이 모두 구조되었다.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다. 브룩스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고, 더들리와 스티븐스는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들은 파커를 죽여 그를 먹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① 도덕성은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달린 것이 아니다.
- ② 살아난 사람의 숫자나 생존자와 가족의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살인을 허용한다면 사회 전체로 보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④ 남자아이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보다 정말로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 ⑤ 상대의 나약함을 빌미로 본인의 동의도 없이 목숨을 빼앗는 것은 잘못이다.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대중매체의 네 가지 기능으로 흔히 환경감시기능, 상관조정기능, 문화유산의 전승기능, 오락기능을 들고 있다. 환경감시기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는 뉴스의 보도가 초래하는 결과를 뜻한다. 뉴스보도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만드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예컨대 태풍, 지진, 전쟁과 같은 눈앞에 닥친 위협을 경고해 줌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물가, 증권시세, 기상변화에 따른 항공기나 선박의 운항시간 변경 등을 알려줌으로써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반면 뉴스보도가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눈앞에 임박한 위협에 대한 경고가 누군가에 의해 걸러지거나 해설되지 않은 채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면 사회나 개인 또는 특정 하위집단에서 심리적 긴장이나 공포를 유발할 수도 있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는 뉴스는 개인들로 하여금 근심걱정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국제 뉴스는 특정 사회나 국가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혁명에 대한 뉴스들이 국내 상황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룰 때 사회변혁의 압력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중매체의 상관조정기능은 중요한 뉴스에 대한 해설과 논평의 기능과 연관된다. 중요한 공공의 관심사나 사건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그것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 그런 일이 일어난 배경 등을 알려 줌으로써 환경감시기능이 초래할 역기능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컨대 2003년에 아시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사스’에 대한 공포는 그것의 발병원인, 바이러스의 정체, 예방법 등을 알려줌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었던 것과 같다. 또한 상관조정기능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행동의 처방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사회나 개인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든다.

반면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해설이나 논평이 현상유지적인 관점을 강조하게 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체제 순응적이 되게 함으로써 사회개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관점 등을 확산시키려는 해설이나 논평이 개인이나 사회를 오도할 가능성도 크다. 또한 사람들이 과도하게 해설이나 논평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공공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비판능력을 상실하고 대중매체의 의견을 자기 의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문화유산의 전승기능은 그 사회의 규범체계와 연관된 기능이다. 다시 말해 한 사회의 규범체계를 이루는 가치와 규범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이 기능은 바로 사회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화란 한 집단이나 사회의 공통된 가치나 규범이 그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이다. 이 같은 사회화는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그 사회의 삶의 방식에 적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의 관점에서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것을 뜻한다. 사회화는 생물학적 유기체인 인간을 정체성을 지닌 자아로 전환시킨다.

이 같은 사회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집단, 동년배집단(peer group), 학교 등에서 이루어졌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도 중요한 사회화의 담당자로 등장했다. 대중매체가 사회화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대해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대체로 젊은이의 사회화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대중매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 사회가 공통으로 준수하는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

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전승기능은 개인을 기존의 가치나 규범에 순응토록 함으로써 하위문화의 다양성이나 창의성 함양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수행한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오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의 긴장과 피곤을 풀고 기분전환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 오락을 통한 휴식은 또한 일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대중매체는 현대사회의 지배적 문화형태인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문화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오락은 사람들을 수동적인 인간, 현실도피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역기능도 수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대중매체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활동의 순기능이 다른 활동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 ② 대중매체의 기능은 뉴스와 오락 등의 다양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③ 대중매체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가치나 규범을 형성해 가는 데 영향을 준다.
- ④ 대중매체는 사회구성원을 수동적이거나 현실도피적인 존재로 만들기도 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기도 한다.
- ⑤ 대중매체의 환경감시기능과 상관조정기능은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해설과 논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2.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자 '0'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씩을 고르는 '숫자 고르기 게임'이 있다. 게임 주최자가 숫자들을 모아 평균을 내고 거기에 0.6을 곱한다. 이 결과치에 가장 근접한 숫자를 고른 참가자가 상으로 고급자동차를 받는다고 하자.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떤 숫자를 고르겠는가? 선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규범적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실증적 선택이다.

사람들이 모두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규범적 선택은 최종적으로 '0'이 된다. 사람들이 숫자를 무작위로 고를 것을 가정하면 기대되는 평균은 50이다($50 \times 0.6 = 30$). 즉, 이기려면 30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평균은 30이 될 테고 따라서 18을 선택해야 한다($30 \times 0.6 = 18$). 이번에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면 평균이 18이 될 테고 따라서 10.8을 선택해야 한다($18 \times 0.6 = 10.8$). 이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면 결과치는 결국 '0'이 되고 만다. 모두가 '0'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면 나로서도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 '0'을 고르는 것은 규범적 권고이다. 다른 참가자들도 모두 현명하고 합리적이라고 믿는다면 '0'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현명하고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증적 접근법은 평범한 사람들이 고르는 숫자의 분포는 추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때는 심리와 직관이 수학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게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 명문대학의 교수가 95를 고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한 번은 물리학 교수 한 분이 내게 자기가 100을 고른 이유를 말해주었다. 100으로 평균을 높여서 낮은 숫자를 고르는 똑똑한 동료들을 골탕 먹이고 싶어서라고 했다. 똑똑한 사람들도 인생이 소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 게임을 지금껏 400번 넘게 시행했다. 그 중 '0'이 이긴 적은 수학영재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했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 분명한 점은 실험 참가자들이 숫자를 고를 때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① '숫자 고르기 게임'에서, 선택의 최종 결과는 규범적 선택이 예측하는 결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 ② 실험에 참가한 여러 그룹들 중 어느 한 그룹이 전체적으로 0에 가까운 숫자들을 선택한다면, 그 그룹의 참가자들은 다른 그룹들에 비해 보다 규범적 선택을 많이 했다는 뜻이다.
- ③ 규범적 선택에서는 심리와 직관이 수학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④ 대체로 참가자들이 0에 가까운 숫자들을 선택한다면, 다른 참가자들도 자신처럼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 ⑤ 대체로 100에 가까운 숫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 집단은 게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많거나, 다른 심리적 이유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3. 다음 글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신(臣)이 듣건대, 관리들이 유세객(遊說客)들을 쫓아내고자 의논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는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효공(孝公)은 상양(商鞅)의 법을 써서 풍속을 바꾸어 백성들이 변성하고 나라가 부강해졌으며, 백성들은 쓰여지기를 좋아하고 제후들은 친근히 여겨 복종했으며, 초(楚)·위(魏)의 군사(軍師)를 사로잡고 땅을 차지한 것이 천 리가 되어 지금까지 잘 다스려지며 또 강성합니다. 혜왕(惠王)은 장의(張儀)의 계책을 써서 삼천(三川)의 땅을 빼앗고 서쪽으로는 파촉(巴蜀)을 병합했으며, 북쪽으로는 상군(上郡)을 접수하였고 남쪽으로는 한중(漢中)을 취했으며, 여러 오랑캐를 아울렀고 언영(鄢郢)을 제압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성고(成皐)의 험한 지형을 차지하여 기름진 땅을 베어가졌으며 마침내 6국의 합종책을 무산시켜 그들로 하여금 서쪽으로 향하여 진나라를 섬기도록 하였으니 공(功)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왕(昭王)은 범저(范雎)를 얻어 양후(穰侯)를 파면시키고 화양(華陽)을 쫓아내어 왕실(王室)을 강하게 하였고 개인 문벌을 막았으며 제후(諸侯)들을 잠식하여 진나라로 하여금 제왕(帝王)의 기업(基業)을 이루게 했으니, 이 세 임금은 모두 유세객들의 공(功)을 이용하였습니다. 만약 세 임금이 유세객을 물리쳐 받아들이지 않고 선비들을 멀리하여 등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는 나라로 하여금 부유하고 이로운 실익이 없도록 하고, 진으로 하여금 강하고 크다는 명성이 없도록 했을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곤륜산의 옥을 가져오게 하였고, 수후(隨侯)와 변화(卞和)의 보배를 가지고 계시며, 야광주(夜光珠)를 드리우고 태아검(太阿劍)을 차셨으며, 섬리마(織離馬)를 타시고 봉황무늬의 기(旗)를 꽂고 계시며, 신령스런 악어가죽으로 만든 복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보물들은 진나라에서는 하나도 나지 않는 것들이거늘 폐하께서 그것들을 좋아하시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지금에 사람을 쓰는 것은 그렇지 않아 좋고 나쁨을 묻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채, 진나라 출신이 아니면 보내고 유세객이면 쫓아내니, 그렇다면 이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색과 음악, 구슬과 옥에 있고, 가벼이 여기는 것은 사람에 있는 것이니, 이것은 천하를 차지하고 제후를 통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신은 듣건대, 땅이 넓으면 곡식이 많고 나라가 크면 사람이 많으며, 무기가 강하면 병사가 용감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태산(泰山)은 작은 흙덩이를 사양하지 않아 그런 거대함을 이룰 수 있었고,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아 그런 깊이를 이룰 수 있었으며, 왕천하(王天下)하는 이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아 그의 덕을 밝게 할 수 있었으니, 이 때문에 땅은 사방(四方)을 가릴 것이 없고 백성은 다른 나라를 가릴 것이 없이 사시사철 충만되고 아름다우며, 귀신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니, 이것이 오제(五帝)와 삼대(三代)의 왕들이 적이 없었던 이유입니다.

- ① 태산은 작은 흙덩이를 사양하지 않으며,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천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이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아야 한다.
- ② 외부에서 온 백성들과 유세객들을 쫓아내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③ 천하를 차지하고 제후를 제대로 통솔하기 위해서는, 좋고 나쁨을 묻지 않고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④ 역사적으로 효공, 혜왕, 소왕은 유세객들의 공을 적극 이용해서 국가의 번영과 강함을 이룬 사례에 해당된다.
- ⑤ 진나라에서 나지 않는 진기한 물건들은 잘 쓰면서 진나라 출신이 아니면 등용하지 않는 것은, 말하자면 물건은 중시하면서 사람은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2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발전기를 구동시키고, 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기로 추진모터를 작동시키며, 작동된 모터가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함이 추진된다. 다만, 물 속에서 장시간 잠항항해하기 위해서는 축전지에 충전을 해야 한다. 물 속에서 충전된 전기를 소모하면 물 위로 올라와 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하는데, 잠수함은 이때가 적에게 노출되는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선체는 수면 아래 두고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기통만 물 위로 내놓고 엔진을 가동하여 발전기를 통해서 나온 전기로 축전지를 충전하는 스노클이다.

이 추진 체계는 오랜 사용기간을 거쳐 많은 발전을 통해 가장 신뢰성이 있고 조용한 추진 체계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발전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함 외부로부터 공기를 공급받아야 하므로 수면 근처까지 부상하여 스노클 마스트를 노출시키고 매일 수 시간의 충전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잠수함의 소음이 크게 발생하고 직경이 큰 마스트가 노출됨으로써 피탐 가능성이 증가한다. 함 속력의 증가에 따라 방전되는 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잠수함은 적 수상함의 어뢰공격에 대한 회피 등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최고속력으로 기동하지 않고, 통상 4~6노트 이내의 경제속력으로 기동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전지의 방전량을 최소화하고 스노클 횡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수중 지속시간이 향상된 디젤 잠수함, 통상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탑재 잠수함으로 불리는 잠수함은 전통적인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대부분은 축전지를 완전히 충전한 후 물 속에서 경제속력으로 잠항항해할 때 부상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약 2~3일이지만, 이 AIP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잠항지속시간을 2~3주 정도 연장시킬 수 있다. AIP 시스템은 축전지 충전을 위해 스노클을 실시해야 하는 디젤-전기 추진 체계와 달리 함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 및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원자력 추진이란 원자로 내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를 이용해 추진하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사용되는 핵연료는 자연 상태의 우라늄 U-235를 20~90% 농축해서 사용한다. 원자로에서 고농축 우라늄 U-235를 핵분열시켜 고온에 의해 증기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고온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키며 감속기어를 거쳐 추진 전동기를 회전시키고 최종적으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함이 추진되는 것이다. 원자력 추진체계는 터빈 직접추진방식과 전동기로 추진기를 회전시키는 터보전동기 추진방식이 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터빈 직접추진방식은 출력을 그대로 추진기에 전달하기 때문에 감속기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작동되므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거의 무제한의 잠항지속능력을 제공하며 수중에서 35노트 이상의 고속을 낼 수 있어 17세기 프랑스인 드송(De Son)이 꿈꾸었던 무적함에 접근하고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터빈과 감속기어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피탐 가능성이 큰 단점이 있는데, 최근 소음감소기술의 발달로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보다 더 조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연구되고 있다.

- 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수면 근처에서 수시로 충전을 해야 하므로 디젤 잠수함에 비해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 ② AIP 탑재 잠수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추진 과정에서 산소 사용이 불필요하지만,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은 스노클을 통해 유입된 산소를 사용하여 추진한다.
- ③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에 비해 잠항시간이 길지만 최고속력이 느리다.
- ④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AIP 탑재 잠수함보다 잠항 지속능력이 뛰어나지만, 추진 시 발생하는 소음은 통상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보다 크다는 단점이 있다.
- ⑤ 터빈 직접추진 방식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보다 조용하다.

25. A~D 네 명의 사람이 네 곳의 회사에 지원하였다. 다음 <조건>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A~D의 <진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 건> —

- 모든 사람은 한 곳 이상의 회사에 지원하였다.
- A~D의 지원횟수의 총합은 10번이다.
- A~D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진 술> —

- A~D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A: 나는 세 군데 이상의 회사에 지원했어.
- B: 나는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 지원했어.
- C: 나는 모두 다 지원했어.
- D: 나는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 지원했어.

- ① A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B와 D는 반드시 중복되는 회사가 있다.
- ② B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A와 D는 반드시 중복되는 회사가 있다.
- ③ C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A와 B는 반드시 중복되는 회사가 있다.
- ④ C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A와 D는 반드시 중복되는 회사가 있다.
- ⑤ D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A와 B는 반드시 중복되는 회사가 있다.

26. 다음 글에서 제시한 공동체 구성원의 특징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구전이야기의 연행(演行)은 공동체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연행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서로 같거나 각기 다른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며 연행의 모든 조건과 환경은 공동체의 맥락 위에 있다. 집단 연행이 아닌, 일대일의 개별 연행에서도 이와 같은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나 이야기를 듣는 이는 모두 가족이나 가문, 혹은 지역적 기반을 집단 동일성의 주된 내용으로 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연행에 참여한다.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공동체에 부합하는, 혹은 공동체적 몸과 마음을 소유한 일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고유의 기제를 가지고 있다. 공동체적 동질화와 통합의 전력을 실행하며 공동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이 그물망처럼 촘촘히 공동체적 삶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직접적인 규제와 훈육의 기제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자발적 종속'의 구조다. 구성원들 스스로가 사회적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의하는 형식을 취할 때 비로소 이와 같은 기제들이 빛을 발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들이 공동체의 시스템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현한다거나 공동체의 규범과 가치를 묵묵히 수행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와 규범, 질서의 핵심 뼈대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일종의 '자연'으로 존재하며, 이는 '정당화'될 필요조차 없는 대상이다. 의식적 참여와 동의를 넘어서는, 무의식적 공모와 동화의 기제들이 일상 구석구석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거듭난 한 사람은 자연화된 공동체와 규범의 가치, 질서의 존재 이유나 정당성을 따져 묻지 않는다. 물을 이유와 자격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존재 이유와 정당성에 의심을 품는 순간 그는 공동체의 경계 바깥으로 배제되거나 축출될 의기에 처한다. 그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상태이며 이와 같은 일종의 계약이 그로 하여금 공동체의 경계 안에 머물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부여한다. 그는 일상의 다양한 순간과 계기들을 통해 공동체의 승인을 받은 존재, 곧 공동체적인 몸과 마음을 가진 '주체'로 형성된다.

<보 기>

- ㄱ. 모두 같은 연령대와 지역을 기반으로 참여한다.
- ㄴ.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기로 무의식적으로 약속한다.
- ㄷ.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번영을 더 우선순위에 둔다.
- ㄹ.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종속시키는 구조가 공동체 유지의 핵심이다.
- ㅁ. 공동체 내의 가치와 규범, 질서의 기초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발전시킨다.

- ① ㄴ, ㄹ
- ② ㄷ, ㄹ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ㄹ, ㅁ

2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텔레비전 비평의 일차적인 존재 근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작품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비평이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흔히 비평이라는 말을 들으면 문학 비평이나 미술 비평처럼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하는 고도의 형식적인 작품 분석을 떠올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처럼 전문적인 비평 행위가 아니더라도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일상적으로 비평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비평 행위는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하나는 직접적인 방식인 말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텔레비전을 보며 가족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해 논평을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를 내린다. 논리의 짜임새나 이야기의 형식이 다소 어설피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그런 활동은 비평가들의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초보적인 방식이기도 하나 그들은 자신들이 본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평 활동이 꼭 그런 직접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시청 도중에 딴 짓을 한다든지,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반대로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며 프로그램에 몰입할 때도 있다. 거의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실상 이런 행위들 모두 비평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개인적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 비평 행위를 넘어 좀 더 형식화된 비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프로그램을 보고 제작진에게 의견을 적어 보낸다든지 방송사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이 폭주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 집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텔레비전에 방영되었을 때 의견 게재 건수는 더욱 늘어난다. 그러나 인터넷이 시청자들의 의견 표명을 쉽게 만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적극적인 시청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보다 수동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은 보통의 시청자들도 즐겨 하는 비평 행위이다. 말을 통한 의견 나누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텔레비전의 현재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모방한 흉악 범죄가 발생하여 텔레비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던 때라든지,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 독재 정권의 도구 역할을 하던 방송에 대한 비판이 시청료 거부 운동이라는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했던 사례 등이 그에 해당한다.

- ① 친구와 어제저녁에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비평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오늘날 다수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 ③ 시청자가 프로그램 채널을 돌리는 행위는 그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개인적 평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 ④ 프로그램을 보고 제작진에게 의견을 적어 보내는 것은 일상적인 비평 행위에 해당한다.
- ⑤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며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것은 일상적인 비평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28.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가)~(마)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사상’이란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 결과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철학에서 나오는 절망이 되었건, 독재적 지도자의 철학에서 유발되는 고통과 탄압이 되었든, 사상은 실제적인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가) 비록 명확히 표현할 수 없고 때로 일관성이 없을지라도, 모두 세계관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세계관은 우리가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세계관은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우리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옳은 것과 틀린 것에는 차이가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인간이란 그저 고등하게 진화된 짐승일 뿐인가?

(나) 우리의 사상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믿음의 체계를 유발하는데, 이 체계는 우리의 결정과 행동의 기반이 된다. 세계관은 단순히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여기는지 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떤 곳인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세계관은 삶의 모든 면모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

보편적인 사람에게 삶의 철학에 관해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멍하니 바라만 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관해 묻는다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 앎을지라도 어떤 종류의 대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믿는지를 물으며 대화를 전개해 간다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처럼 자신의 믿음에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듯 믿는 바를 얻는다. 바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얻는 것이다. (라) 이것이 친구, 가족, 영화, 텔레비전, 책, 잡지의 위력이다.

우리 중 대부분은 믿는 바를 왜 믿는지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 심지어 믿는 바를 점검해 보고 싶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마)

<보 기>

- ㄱ.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타인의 신념을 받아들인다.
- ㄴ. 이념이 행동을 결정 짓기 때문에 사상에는 그것이 유발하는 결과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 ㄷ. 우리는 모두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 ㄹ. 때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조차 모른다.
- ㅁ. 우리는 모두 세계관 안에서 행동하고 결정한다.

| | (가) | (나) | (다) | (라) | (마) |
|---|-----|-----|-----|-----|-----|
| ① | ㄱ | ㄴ | ㄷ | ㄹ | ㅁ |
| ② | ㄴ | ㄴ | ㄷ | ㄹ | ㅁ |
| ③ | ㄱ | ㄷ | ㄹ | ㄱ | ㄴ |
| ④ | ㄱ | ㄷ | ㄴ | ㄱ | ㄴ |
| ⑤ | ㄱ | ㄴ | ㄷ | ㄹ | ㄴ |

29. 다음 <보기> 중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어떠한 정치가도 몽상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가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어떤 몽상가도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 ㄴ. 피카소의 모든 그림은 초현실 작품이고 어떤 초현실 작품은 희귀 예술품이 아니므로 피카소의 어떤 그림은 희귀 예술품이 아니다.
- ㄷ. 오직 공무원들만이 세종시 시민이다. 따라서 어떤 지하철 승객들도 세종시 시민이 아니다. 어떤 지하철 승객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 ㄹ. 모든 소설가가 이상주의자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시인들은 이상주의자이고 어떤 소설가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보수주의자는 시인이다.
- ㅁ. 국회의원들은 술을 좋아하거나 현장을 열심히 찾는다. 그런데 국회의원인 박 의원은 현장 활동을 열심히 하니 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 ㅂ. 어느 사업가도 한량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한량은 방랑자이다. 왜냐하면 어느 방랑자도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① ㄴ, ㅂ
- ② ㄱ, ㄷ, ㅁ
- ③ ㄴ, ㄹ, ㅂ
- ④ ㄷ, ㄹ, ㅁ
- ⑤ ㄴ, ㄹ, ㅁ, ㅂ

30. 다음 글의 밑줄 친 ㉠~㉤ 중 **내가 권장하는 생활태도**와 관점이 비슷한 것을 고르면?

내가 권장하는 생활태도와 전통적인 모럴리스트들이 권장하는 생활태도 사이에는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모럴리스트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하는 말이 옳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한계점을 넘을 정도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행복이 그 자신의 성공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자명한 사실이다. 어떤 남자가 어떤 숙녀에게 그 여자의 행복을 열망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간청하고, 동시에 ㉠ 그 여자로 말미암아 자기 부정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여자가 진적으로 기뻐할 것인지 나는 의심스럽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야 하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 ㉡ 자신의 행복과 맞바꾸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자기 부정의 이론에 함축되어 있는 자아와 나머지 세계와의 모든 대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밖에 있는 ㉢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갖게 되면 곧 사라져버린다. 이러한 관심을 통해 인간은 그 자신이 생명의 흐름의 한 부분이며, 충돌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실체와 전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당구공처럼 엄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모든 불행은 ㉣ 어떤 종류의 분열 또는 통일의 결여에서 생기는 것이다.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자아 내부에 분열이 생기며, 자아와 사회가 객관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둘 사이의 통일이 사라지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이와 같은 통일을 이루는 데 실패해서 고통 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며, 또한 그의 인격이 인격 자체에 대항하여 분열되어 있지도 않고 ㉤ 세상에 대항하여 다투고 있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우주의 시민이라고 느끼며 자유롭게 우주가 주는 장관, ㉥ 우주가 주는 환희를 즐기고, 또한 자기를 뒤이어 오는 사람들과 자신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느낀다. 따라서 죽음을 생각할 때에도 크게 괴로워하지 않는다. 이처럼 생명의 흐름과 본능적으로 깊이 결합될 때, 우리는 가장 큰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1. 다음 <조건>에 따를 때, 논리적으로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조 건> —

당신은 실연해 본 적이 있는가?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 증오, 행복, 후회의 네 가지 감정 중 하나 이상의 감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자. 이하의 사실은 모두 참이다.

-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증오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다.
-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 또는 증오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후회가 있다.
-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없거나 후회가 없다.
-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과 후회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증오 둘 중 하나의 감정만이 있는 것이다.

- ①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과 후회가 있다.
- ②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다.
- ③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가 있다면 후회가 있다.
- ④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증오가 있을지 알 수 없다.
- ⑤ 실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후회가 있다면 증오가 있다.

32. 다음 글에서 (가)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하가 제시한 근거로 옳은 것은?

영의정·상당 부원군 등은 부녀(婦女)의 재혼 금지에 대해 의논하기를,

“양가(良家)의 여자가 나이 젊어서 남편을 잃고, 죽기를 맹서하여 수절하면 착하거나, 불가능하면 혹은 기한(飢寒)에 꺾박하여 부득이 뜻을 빼앗기는 자가 간혹 있을 것이니, 만약 법을 세워 죄를 다스려 누가 자손에게 미치게 되면, 도리어 풍교(風教)를 점루(玷累)하고 잃는 것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호조판서·공조판서 등은 의논하기를,

“일부종사(一夫從事)하여 마치는 것은 부인의 대절(大節)이니, 그 재가하는 자는 비록 머리를 자르며 부모의 명을 따르지 않은 절의에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고 아들이 없이 과부로 사는 자를 부모나 혹은 존장(尊長)이 그 외롭고 고단함을 불쌍히 여겨서 절개를 빼앗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인정으로 금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대전(大典)』의 법에,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의 자손에게는 청요(淸要)의 직(職)을 불허하였으되, 재가(再嫁)를 금하는 조항이 없으니, 신 등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대전』의 법이 정리(情理)에 합당하다 여겨지나, 만약 그 부모나 존장의 명이 없는데도 재가한 자는 이러한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하고,

지중추부사·공조참판 등은 의논하기를,

“사족의 자녀가 일찍 과부가 되고, 불행히도 부모가 또 서거하여, 생계가 막연하고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어, 궁박함이 극진하여 혹 실행(失行)하기에 이르러, 부득이 부모의 명으로 인해서 뜻을 빼앗긴 자는 사세인 까닭으로 『대전』에서도 단지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녀를 두었고, 집안이 심히 가난하지 않은데도 스스로 재가를 허락한 자도 또한 있으니 이것은 정욕을 이기지 못한 자입니다. 금후로는 삼부를 고쳐 시집간 예로 논함이 어떻겠습니까?”하고,

예조참판·한성부 우윤 등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재가한 자는 봉작하지 말고, 삼부(三夫)를 고쳐 시집간 자는 그 실행(失行)함과 한가지로 자손은 현관(顯官)의 제수를 허락하지 않고, 또한 부거(赴學)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대개 정범(情犯)의 경중을 살피어서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는 풍속을 경계하고 장려하기에 족합니다. 부녀가 일부만 종사하여서 마치는 것은 상례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일찍 과부가 되어 살아서는 돌아갈 곳이 없고, 죽어서는 의탁할 곳이 없어, 재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람마다 절의와 절행으로써 책함은 떳떳한 것이나, 또 따라서 일일이 논죄한다면 또한 어려울 것이니,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좌참찬·예조판서 등은 의논하기를,

“예전에 정자가 말하기를, ‘재가하는 것은 단지 후세에 추위에 주려 죽을까 두려워하여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절(失節)하는 일은 지극히 크고, 죽는 일은 지극히 적다.’라고 하였고, 장황거는 말하기를, ‘사람이 실절한 자를 취하여 자기의 짝을 삼으면, 이것도 또한 실절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한번 더 불어 초례를 치렀으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이 부인의 도입니다. 만약 두 지아비를 고쳐 산다면, 이것을 금수와 더불어 어찌 가리겠습니까?

세속이 절의(節義)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비록 자재가 풍부하여 주리고 추위를 근심하지 않는 자라도 또한 모두 재가하되, 국가에서 또한 금령이 없으며, 실절한 자의 자손으로 하여금 또한 청현(淸顯)의 직(職)에 열위(列位)하게 하는 습관이 풍속을 이루었는데, 평범하게 보아 넘겨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니, 비록 혼인을 주관하는 자가 없더라도 스스로 중매하여 지아비를 구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금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이든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금후로는 재가한 자를 한결같이 모두 금단하고, 만일 금령을 무릅쓰고 재가한 자가 있으면 아울러 실행(失行)한 것으로 치죄하며, 그 자손도 또한 입사함을 허락하지 말아서 절의를 가다듬게 함이 편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다음 날 예조에 전지하기를,

(가) “이제부터는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라고 하였다.

- ① 절의의 중요성
- ② 『대전』의 권위성
- ③ 과부와 어린 자녀의 생활고
- ④ 부모가 재가를 강요하는 재가녀의 현실
- ⑤ 부모의 죄가 자손에게 미치는 법의 형평성

33.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974년 미국의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물어보았다. 유엔(United Nations)에 가입한 나라들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 이때는 아프리카 국가들 상당수가 유엔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였다. 카너먼은 실험 참가자들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돌림판을 돌리게 했다. 이 돌림판에는 0에서 100까지의 수가 쓰여 있었는데, 실제로는 10과 65 두 수 중 하나에서 멈추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숫자판을 돌려서 65가 나온 사람들은 평균 45퍼센트라고 대답했고, 10이 나온 사람들은 평균 25퍼센트라고 대답했다. 큰 수가 나온 사람들은 높은 비율로 대답하고, 작은 수가 나온 사람들은 낮은 비율로 대답한 것이다.

10과 65란 수는 유엔 가입 국가 중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실험 참가자들은 이 수에 영향을 받았다. 이처럼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은 임의의 수가 기준점이 되어 이후 어떤 수를 생각해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땃 내리기 효과’라고 한다. 배가 어느 지점에 땃을 내리면, 그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주변에 머물러 있게 되는 데서 따온 말이다.

땃 내리기 효과는 아무도 정답을 모를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한강의 길이는 100킬로미터보다 짧을까, 길까?”라고 물을 때와 “한강의 길이는 1,000킬로미터보다 짧을까, 길까?”라고 물을 때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아마도 10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물었을 때보다 1,00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물었을 때 대답한 강 길이가 더 길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미시시피 강의 길이를 물었더니 8,00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물었을 때는 평균 5,500킬로미터로 답했고, 800킬로미터를 기준으로 물었을 때는 평균 2,000킬로미터로 답했다고 한다. 땃 내리기 효과가 가져온 오류이다. 이처럼 땃을 엉뚱한 데에 내리면 엉뚱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상인들은 이러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곤 한다.

친구들과 유명한 왕돈가스를 먹으러 남산에 간 예를 들어보자. 한 가게에 갔더니 무려 8,000원이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린다. 그런데 그 가게는 원래 10,000원짜리 돈가스를 8,000원으로 인하해 판매 중이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가게에서 돈가스를 먹겠는가? 대부분의 소비자라면 같은 값이어도 원래 가격보다 싸게 판다는 가게에서 맛있게 먹을 것이다. 이것이 땃 내리기 효과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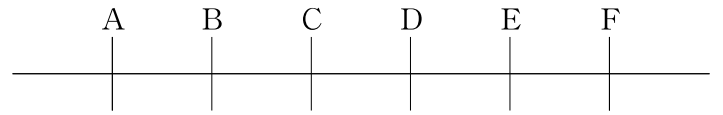
<보 기>

- ㄱ. 1974년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퍼센트이다.
- ㄴ. 땃 내리기 효과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 ㄷ. 땃 내리기 효과를 이용하려는 상인들은 정가를 높게 책정하고 할인하여 판매할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ㄴ, ㄷ

34. 다음 <조건>과 <보기>에 따를 때, A~F의 장소로 옳은 것은?

<조 건>



- 카페, 경찰서, 학교, 편의점, 학원, 철수의 집 외에 다른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인접한 두 장소 사이의 거리는 모두 10m이다.
- 카페, 경찰서, 학교, 편의점, 학원 중 철수의 집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은 학교이다.
- <보기>의 진술 중 3개는 참이고, 1개는 거짓이다.

<보 기>

- ㄱ. 편의점과 학원은 서로 20m 떨어져 있다.
- ㄴ. 카페와 철수의 집 사이의 거리, 편의점과 철수의 집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같다.
- ㄷ. 학교와 학원 사이의 거리, 학교와 경찰서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같다.
- ㄹ. C는 편의점이다.

- ① A: 학원
- ② B: 경찰서
- ③ D: 철수의 집
- ④ E: 학원
- ⑤ F: 경찰서

37. 다음 글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SNS를 통한 마케팅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소비자들과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SNS를 이용한 마케팅 성공사례는 광고 홍보분야, 고객관리 분야, 판매관리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광고홍보분야의 SNS 사례는 고객주도형과 기업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고객주도형 사례는 고객이 주체가 되어 광고 및 홍보가 진행된 사례로, 이 때의 고객은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애정을 표현하고 다른 고객들에게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를 나눠주어 구매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가 된다. 기업주도형 사례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SNS를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기업이 새로운 경쟁우위와 기회 창출의 효과를 만들어 내는 사례이다. 대체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고객주도형보다는 기업 주도형 마케팅을 활용하며 쌍방향적 연결구조인 페이스북보다 트위터를 사용하여 일방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SNS 마케팅을 통해 고객과 높은 친밀성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 제조기술의 발달로 상품의 물리적 속성을 통한 경쟁제품과의 차별화가 점차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이 호의적인 기업 이미지 구축을 통한 고객관리 활동에 주력하기도 한다. SNS를 통해 고객관리를 시작한 기업은 회사의 가치 상승, 고객만족도 지표 성장 등을 이뤄냈으며 광고홍보 분야에서 SNS를 활용하는 기업 대비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잘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오늘날 기업은 시장 변화와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판매관리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과거의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통신 발달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갖게 되었으며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효율적인 SNS 마케팅 사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전통적인 마케팅 채널에서 비용이나 고객 유지 경쟁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 기업들이 판매채널 확보, 고객과의 관계 지속, 판매량 증대,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SNS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

<보 기>

(가) A회사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브랜드 프로필' 캠페인을 펼쳤다. 이는 '브랜드 프로필' 서비스를 활용하여 브랜드 마케팅에 SNS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A회사 측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트위터를 활용하여 SNS 고객에 대한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빠르고 즉각적인 소통을 통해 친근한 기업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였다.

(나) B그룹은 딱딱한 느낌의 제조업이라는 산업군이라는 연상과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업에 비해 보수적인 이미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SNS를 통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은 2010년 총 2차례에 걸쳐 펼쳐졌고 각 캠페인마다 3명의 주인공이 기프트카를 선물받기 위해 광고에 등장하였다. 총 6그룹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자동차가 필요한 자신의 사연을 광고에 담아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960번의 응시 끝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할머니의 도전 스토리는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파급력이 큰 소재였다. 약 3만 명의 소비자가 기프트카 웹사이트에 응원 댓글을 남기고 약 56만 명의 소비자가 사이트를 방문하여 블로그, 트위터 같은 다양한 SNS를 통해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동참을 권유하는 글을 작성하였다.

(다) C기업은 개업 당시 브랜드 밸류가 전무한 중소식품 유통업체로 '지역'이 아닌 '컨셉트'를 강조하기 위하여 SNS 마케팅을 활용하였다. C기업의 컨셉트는 '지속가능한 자연주의'로 블로그에서 쇼핑몰, 블로그, 카툰, 레시피 등을 제공하고 트위터로 아침에 이벤트를 열어 가장 빨리 응모하는 사람에게 신선한 돼지고기를 배달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라) 50여개국 1만 5,000여개의 매장을 가진 D기업은 신생 업체의 경쟁과 비싼 커피가격, 경기 침체 등으로 2007년 한 해만 주식이 40%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D기업은 2008년 10월 SNS를 시작으로 11개의 SNS 채널을 열었으며 2017년 6월 기준 3,700만명에 육박할 정도의 효과적인 소비자 확보를 진행했다. 트위터의 경우 공지용, 페이스북은 공감용으로 분류하여 D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은 트위터로, 고객의 불만, 경험교환 등은 페이스북으로 응대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세분화된 톨을 이용해 접근하였다. 그 결과 폭락하던 주식은 2008년을 기점으로 급상승하여 2011년 60달러를 달성하였다.

(마) E 화장품은 주 고객 연령층이 SNS 이용 빈도가 높은 25~45세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상거래 사이트 'E 모바일'을 개설하고, 페이스북을 통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손님과 항상 대화한다는 전략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페이스북이 이메일보다 쉽게 대화할 수 있고 대화체로 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① (가)는 광고홍보에서의 고객주도형 사례로 볼 수 있다.
- ② (나)는 광고홍보에서의 고객주도형 사례로 볼 수 있다.
- ③ (다)는 광고홍보에서의 기업주도형 사례로 볼 수 있다.
- ④ (라)는 고객관리 분야에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⑤ (마)는 판매관리 분야에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38.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공간은 개인들의 ‘공적 삶’, 즉 타자와의 마주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물론 공적 삶이 구체적 공간을 타자들과 동시에 ‘접유함’으로써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방에서 신문과 TV를 보고 SNS에 접속하는 것 역시 공적 삶이다. 그런데 공공공간은 구체적 공간에서 타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마주치는 곳이다. 타자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듣는 공간이고, 타자들이 나를 직접 보고 듣는 공간이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타자를 보지 않고 듣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은 보고 듣지 않지만 자신은 보이고 들릴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공간은 공적 삶과 사적 삶이 선택적으로 공존하고 중첩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버마스는 개인들 간의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을 ‘공공영역’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하버마스가 원래 사용하는 개념인 ‘사적 개인들로서의 공중이 논의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마당’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공공영역’보다 ‘공론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공론장의 영역을 직접적인 의사소통 행위의 장뿐 아니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실천의 장으로 넓힌다면 오히려 ‘공공영역’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공공공간 역시 공론장이었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 공공공간은 통치권력 과시수단임과 동시에 제한적 자유시민들에게 허용된 신앙-오락공간이자 공론장이었다. 근대사회에서도 공공공간은 여전히 권력 과시수단인 동시에 부르주아 시민의 공론장이기도 했다. 이미 신문·잡지 등 여론 형성 매체가 등장했지만 광장과 카페 등 공공공간 역시 중요한 역할을 직접 담당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공론장은 이미 정보미디어가 차지한 지 오래다. 모든 개인이 손에 쥘 정보기와 일체화된 상태다. 이제 공공공간은 공론장이라기보다는 공론장 작동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촉매로서의 ‘공공영역’이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공영역으로서의 공공공간은 단순히 사적으로 소유되지 않는 공적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들의 생활이 마주치는,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개인들이 소통과 교감을 기대하는 그런 공간이 공공영역으로서의 공공공간이다. 익명적인 개인들이 중첩적으로 마주치는 공간이다. 월드컵 응원에 열을 올리다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던 그 광장, 길거리 이벤트를 둘러서서 구경하다가 서로 쳐다보며 미소 짓는 길거리 공간, 그런 공간들 말이다.

공공건축물 역시 중요한 공공공간이고 공공영역이다. 그러나 공공영역으로서 공공건축물의 기능은 광장과는 다르다. 광장이나 길이 ‘익명의 개인들의 중첩적 마주침을 통해 공공적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이라면 공공건축물은 ‘공간적 경험을 통해 공공적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이다.

공공적 감수성이란 ‘공적 존재로서 자신을 자각하도록 하는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향’이다. 인간은 다른 개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즉, 공적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쉽사리 자각하지 못한다. 자신을 홀로 세상과 마주하는 고독한 존재라고 여긴다. 이런 ‘고독한 존재감’을 넘어서 자신이 공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능력이 바로 ‘공공적 감수성’이다.

공공적 감수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로서의 인간이라는 개념이 매우 유효하다. ‘세계-내-존재’ 개념의 핵심은 ‘이미 세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방 안의 책상과 강아지와 창밖의 나무가 세계의 일부로 존재하듯이 인간인 ‘나’도 이미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세계의 일부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세계와의 관계는 인간이 존재하는 조건인 셈이다. 존재 조건으로서의 세계와의

관계는 ‘타인들과의 관계’도 포함한다. ‘세계-내-존재’란 곧 남들과 함께 살아가는 상황 속 존재라는 이야기다.

‘세계-내-존재’로서의 인간은 세계의 일부로 존재하면서 세계를 의식하고 규정한다. 당연히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규정한다. 이때 자신의 존재 조건인 ‘타인들과의 관계 속 나’를 의식하고 규정할 수도 있고 ‘독자적 존재로서의 나’로 규정할 수도 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나’를 의식하는 능력, ‘공공에 속한 나’를 의식하는 능력, 이것이 ‘공공적 감수성’이다.

공공공간을 ‘공론장 촉매로서의 공공영역’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공공적 감수성을 자극하고 키우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장이나 길은 ‘익명의 개인들의 중첩적 마주침을 통해 공공적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이다. 그것이 월드컵 응원이든 촛불시위가든 또는 길거리 공연 구경이든 광장과 길에서는 타인들과의 마주침과 갖가지 ‘사건’들이 증폭된다. ‘타인들과의 관계 속 나’를 의식하도록 자극한다. 이에 비해 공공건축물은 ‘공간적 경험을 통해 공공적 감수성을 키우는 공간’이다. ‘타인들과의 마주침’보다는 ‘건축공간을 경험하는 감각’을 통해 ‘공공에 속한 나’를 의식하도록 자극한다는 것이다.

- ① 타자와의 소통과 교감이 있는 공공공간에서는 공적 삶이 존재할 수 있다.
- ② 근대 이전 사회에서 공공공간은 구체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며 공론장의 성격이 있었다.
- ③ ‘세계-내-존재’ 개념은 세계의 일부로 존재하는 ‘나’라는 점에서 자신이 공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공공적 감수성’과 연결된다.
- ④ 익명적인 개인들이 중첩적으로 마주치는 길거리 공간은 건축공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 공공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공건축물과 구별된다.
- ⑤ 현대사회에서의 공론장 안에서는 사적 삶이 존재하기 어렵다.

39.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평등에 대한 요구는 한 가지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여러가지를 요구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서로 다른 것들의 상대적 가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평등이 안고 있는 이런 복잡성을 명료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평등의 종류를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법적 평등, 정치적 평등,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 그리고 도덕적 평등이다. 이 다섯 가지 분류법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모두 근대 정치에서 표출된 바 있는 평등에 대한 요구들에 해당한다. 사회적 평등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위의 평등(status equality)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의 부재(absence of domination)로서의 평등이다.

먼저, ‘지위의 평등’에서 지위란 한 개인이 공적 제도와 다른 개인들에 의해서 취급받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회 내 개인의 기본적 위상이다. 지위의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의 가족, 사회계급 또는 젠더(gender)나 민족성에 의해서 타인에 비해 삶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한다는 인식이 편만하다. 그런 사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고, 그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지위의 위계질서에서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느낀다. 또한 그 사회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들보다 높거나 낮은 사람들이 섞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지위의 평등에 기반을 둔 사회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속물적 우월의식이나 떠받드는 의식과 같은 태도가 깨끗하게 청산된 사회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지위의 차이라는 차단 효과 없이 개인적인 능력, 욕구, 성취 등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서로를 단순히 개인으로 접촉하는 사회”이다.

다음으로, 일상적 사회관계에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배의 부재로서의 평등’ 개념도 사회적 평등을 지탱하는 주요 축이다. 여기서 지배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는 상황을 말한다. 아내에 대한 상당한 권력을 남편에게 부여했던 전통사회의 혼인법처럼, 이러한 권력, 곧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은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 평등 지수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지배의 부재로서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지배로부터 높은 수준의 안전을 누리는 사회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그것은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효과적 자유를 갖춘 사회이다.

- ① 주말에도 직장 상사가 수시로 전화하여 사적 모임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행위는 지배의 부재로서의 평등 개념에는 부합하나 지위의 높고 낮음을 이용한 행위이므로 지위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평등 개념에 반한다.
- ② 최근 한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부실한 식단을 제공한 행위는 지위의 평등이라는 사회적 평등 개념에 반한다.
- ③ 사회적 평등 개념은 그 관점에 따라 두 가지 혹은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 ④ 최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고객의 ‘갑질’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고객의 ‘갑질’은 고객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일종의 명령행위이므로, 사회적 평등의 두 가지 유형 중 오직 지배의 부재로서의 평등 개념에만 반한다.
- ⑤ 한국 사회의 높은 범죄율은 사회적 평등이 점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40. 다음 글의 (A)~(C)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징금 조항의 법적 고찰은 과징금 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 논의의 출발점이다. 과징금의 부과목적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행정제재로의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부당이득의 환수’는 행정법규의 위반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 당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다는 내용으로, 과징금을 그 이익액에 따라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상의 금전적 제재금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과징금의 목적이 ‘행정상의 제재’라는 주장은 많은 문헌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행정상의 제재’의 구체적 의미는 저자들마다 다소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첫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재의 의미는 (A) (으)로서의 제재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과징금의 목적이 부당이득환수에만 있지 않고 행정제재로서의 목적과 ‘함께’ 또는 ‘추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례로 대법원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을 종합할 때 부당공동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적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바”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행정제재의 일반적 의미를 (B) (으)로 보는 문헌에서는 과징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에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한 응징수단으로서 벌과금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행정제재는 “위반행위의 반사회성·반도덕성·죄악성에 대한 도의적 비난에 의거한 규범적 응보 내지 교정교육으로서 과해지는 형벌과는 명확히 그 취지, 목적 및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B) (으)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과징금의 목적이 (C) (이)라는 주장이 있다. 당해 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위반행위로부터 사회에 미친 모든 피해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학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도록 그 위반행위가 사회에 끼친 비용과 동일한 수준을 위반자에게 부담시키도록 과징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서술하였다. 다른 학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단순히전과 사중손실을 합한 값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재비용까지 포함하여 규제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반행위에 의한 경제적 효용의 순수실 외에도 불필요하게 들어간 사법비용까지 사회적 피해로 본 것이다.

| | (A) | (B) | (C) |
|---|---------------|---------------|---------------|
| ① | 피해의 내부화 | 징벌 |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 ② | 피해의 내부화 |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징벌 |
| ③ |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피해의 내부화 | 징벌 |
| ④ |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징벌 | 피해의 내부화 |
| ⑤ | 징벌 |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피해의 내부화 |

2018년 제34회 입법고시 정답표(가형)

| | 헌법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
| 문제1 | 2 | 5 | 2 | 1 |
| 문제2 | 3 | 5 | 5 | 5 |
| 문제3 | 1 | 2 | 3 | 5 |
| 문제4 | 3 | 1 | 5 | 3 |
| 문제5 | 5 | 5 | 1 | 2 |
| 문제6 | 2 | 4 | 2 | 4 |
| 문제7 | 3 | 4 | 5 | 4 |
| 문제8 | 1 | 2 | 4 | 1 |
| 문제9 | 4 | 3 | 2 | 5 |
| 문제10 | 3 | 2 | 5 | 4 |
| 문제11 | 1 | 4 | 1 | 3 |
| 문제12 | 4 | 3 | 1 | 2 |
| 문제13 | 1 | 1 | 4 | 2 |
| 문제14 | 5 | 2 | 4 | 4 |
| 문제15 | 5 | 2 | 4 | 3 |
| 문제16 | 5 | 5 | 1 | 1 |
| 문제17 | 2 | 3 | 2 | 전원 정답 |
| 문제18 | 3 | 4 | 5 | 1 |
| 문제19 | 1 | 1 | 3 | 5 |
| 문제20 | 2 | 2 | 4 | 2 |
| 문제21 | 5 | 5 | 4 | 1 |
| 문제22 | 4 | 3 | 3 | 1 |
| 문제23 | 3 | 3 | 4 | 3 |
| 문제24 | 4 | 4 | 3 | 2 |
| 문제25 | 1 | 1 | 1 | 5 |
| 문제26 | | 1 | 5 | 2 |
| 문제27 | | 3 | 3 | 3 |
| 문제28 | | 3 | 4 | 2 |
| 문제29 | | 5 | 5 | 5 |
| 문제30 | | 5 | 1 | 2 |
| 문제31 | | 5 | 2 | 1 |
| 문제32 | | 1 | 3 | 4 |
| 문제33 | | 5 | 2 | 5 |
| 문제34 | | 4 | 5 | 3 |
| 문제35 | | 1 | 3 | 4 |
| 문제36 | | 2 | 2 | 5 |
| 문제37 | | 1 | 3 | 1 |
| 문제38 | | 5 | 1 | 3 |
| 문제39 | | 2 | 5 | 4 |
| 문제40 | | 4 | 4 | 2 |

언어논리영역

1.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량형의 기본은 도(度), 즉 척(尺)이다. 척이 가장 먼저 출현하고, 척을 이용하여 양기(量器) 등을 제작하기 때문이다. 먼저, 신라와 통일신라시대의 길이의 단위인 척과 다른 단위인 보(步), 장(丈) 등의 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척과 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국은 고대부터 1장=10척을 사용했다. 신라시대에서는 『삼국유사』에서 황룡사 9층탑의 전체 높이를 ‘225척’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삼국사기』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2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척과 보의 관계는 6척=1보로 유추된다. 중국은 어느 시기부터 ‘1보=6척’제가 시행되다가 당대에 대척제가 시행된 이후, ‘1보=5척’제가 시행되었다. 중국에서는 일찍이 주나라에서 주척(周尺)(20cm)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한에서 한척(漢尺)(22~23cm)을 사용하였다. 당에서는 당소척(唐小尺)(24.5784cm)과 당소척의 1척 2촌인 당대척(唐大尺)(29.4cm)이 존재하였으며, 당소척은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되었고 민간에서는 주로 당대척을 사용하였다.

신라와 통일신라시대는 어떤 길이를 가진 척을 사용하였을까? 「단석산 신선사 조상명기」에 의하면 7세기경 경주 단석산 정상 부근의 석굴사원에 높이 3장(=30척)의 미륵석상 1구와 보살상 2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최근 정확한 불상의 높이를 컴퓨터 3D로 측정하니 미륵석상의 높이는 6.62m였다. 그러므로 7세기 미륵석상의 조상(彫像) 때 사용된 1척은 약 22.07cm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라 7세기 단석산 신선사 미륵석상의 조상 때 사용된 척은 한척임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당과의 외교관계를 통해 당대척을 도입하여 점차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8세기 초 유물인 「황복사 금동사리함기」에 의하면 ‘성덕왕 원년(702)에 효소왕이 승하하자 성덕왕이 석탑 2층에 불사리와 6촌의 순금제 미타상 1구를 안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출토 유물로는 14cm의 금동여래입상과 12.2cm의 금동여래좌상이 각각 1구씩 출토되었다. 어느 유물이 사리함기의 기록과 정확하게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양 유물을 6촌의 기록과 비교하면 1척은 약 23.3cm와 20.3cm이다. 이로써 700년을 전후한 시기 불상 조상에 사용된 척은 한척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성덕왕 21년(722) 일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관문성 축성기록에도 척의 용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축성기록을 분석해보면 작업거리는 ‘1보=6척’에 의해 계산되었고, 작업거리의 측정에는 당대척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고려는 통일신라시대의 당대척을 계승하였다. 고려시대 척의 길이는 어떠한 문헌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려 초기 많은 제도들이 통일신라의 제도를 수용한 것임을 고려할 때, 척도 고려 초기 새로운 척을 제정하여 사용하였기보다는 전시대에 사용하던 것을 계승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려 초기 금석문 기록을 통해 고려의 기준척을 이해할 수 있다. 「용두사당간기」에 따르면 광종 13년(962) 용두사의 당간을 만들었는데, 30단의 철통으로 60척의 기둥을 세웠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용두사의 당간은 30단의 철통을 세웠지만 현재 20단이 남아있고, 전체 높이가 12.7m이고, 1단(2척)의 높

이는 63cm이다’라고 한다. 다만, 고려의 척은 후기를 거치면서 점차 분화되었고, 길이도 길어졌다.

고려시대의 도량형의 관리는 『고려사』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외관(지방)은 동·서경, 도호부, 8목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케 하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의 도량형은 어디서 관리하였을까? 고려시대 시장의 물가 관리는 경시서가 담당하였다. 경시서가 처음 설치될 때 도량형을 관리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명종 11년 경시서에서 재추·대간·중방 관원들이 모여서 말과 섬의 양기(量器)인 두곡(斗斛)을 검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이를 유추할 수 있다.

- ① ㉠이 뜻하는 바는 신라와 통일신라시대의 길이의 단위 중 척과 장의 관계는 고대 중국과 유사하였다는 것이다.
- ② 통일신라는 8세기 초에 약 29.5cm 전후의 당대척도 사용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 ③ 통일신라시대에는 당대척을 전면적으로 사용하였다.
- ④ 광종 13년 용두사의 당간 조성에 사용된 기준척은 31.5cm로서, 통일신라시대에 사용된 당대척보다 길어졌음을 알 수 있다.
- ⑤ 고려시대 도량형은 중앙은 경시서, 지방은 동·서경, 도호부, 8목 등의 관원이 관리하였다.

4.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대립적인 것이 양극적이라는 개념, 즉 광명과 암흑, 득과 실, 선과 악 등이 동일한 현상의 다른 면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동양인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일체의 대립적인 것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투쟁은 결코 어느 한 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날 수 없고, 항상 양자 간의 상호 작용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양에서 덕이 있는 사람이란 선을 위해 분투하고 악을 소멸시키는 불가능한 과업을 떠맡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선과 악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역동적 균형의 개념은 동양의 신비주의에 있어서는 대립적인 것들의 통일이 경험되는 방법상의 요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정적인 통일성이 아니라 언제나 두 극단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다. 이 점은 중국의 현인들이 원형적 양극을 상징하는 음과 양으로써 철저하게 강조해 왔던 것이다. 그들은 음과 양의 배후에 놓여 있는 통일체를 ‘도(道)’라고 부르고, 그것을 음양의 상호 작용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았다. “지금 어두움이 되게 하고 또 곧 빛을 나타내 주는 것이 ‘도’이다.[一陰一陽之謂道]”라는 말이 유사하다.

인생에 있어서 주된 양극성의 하나는 인간성의 남성적인 측면과 여성적인 측면이다. 선과 악, 삶과 죽음이라는 양극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들어 있는 남성적, 여성적 양극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성적이든, 여성적이든 어느 한 쪽 면을 두드러지게 취한다. 서양 사회는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면보다 남성적인 면에 치중했다. 각 개인의 개성이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상호 작용이 낳은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는 대신에, 모든 남자는 남성적이고 모든 여자는 여성적이라고만 생각하는 고정된 양식을 수립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 관습이 남자에게 지도적인 역할과 많은 사회적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또 이러한 태도는 인간성의 모든 ‘양(陽)성적’인 면-남성적인 면, 즉 활동성, 이성적 사고, 경쟁, 공격성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직관적, 종교적, 신비적, 비의적(秘儀的) 혹은 심령적이라는 말로써 묘사될 수 있는 ‘음(陰)’, 즉 여성적인 의식 양태는 서양의 남성 지향적 사회에서는 항상 억압을 받아왔다.

반면 동양의 신비주의에서는 이 여성적 양태가 계발되었으며, 또한 인간성의 두 국면 간에 하나의 통일성이 추구되었다. 노자의 말에 의하면 완전히 깨달은 인간이란 “남성적인 것을 알고서도, 완전히 여성적인 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동양의 여러 가지 전통에 있어서는 의식의 남성적인 양태와 여성적인 양태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명상의 주요한 목표이고, 그것은 예술 작품들 속에서 흔히 예증되어 있다.

나는 동양의 신비주의에 있어 한 사람 속에 들어 있는 작용 양태의 이러한 통일은 사고와 언어의 경계가 초월되고 모든 대립성이 역동적 통일체로 나타나는 의식의 보다 높은 경지에서만 체험될 수 있다고 확언하고 있다. 예전에 나는 이미 그와 유사한 경지에 현대 물리학이 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원자(亞原子) 세계의 연구는 실재가 언어와 추리 작용을 부단히 초월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고, 또한 지금까지 대립적이고 융화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개념들의 통일이 이 새로운 실재의 가장 놀라운 모습의 하나로 드러났다. 이렇게 융화할 수 없는 개념들이 일반적으로 동양의 신비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는 아니지만 그러한 개

념들의 비통상적인 실재 수준에서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동양의 신비주의와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현대 물리학자들은 그들 자신의 분야에서의 체험과 관련시킴으로써 극동의 몇몇 주요한 가르침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소수지만 동양 신비주의에 대하여 이처럼 매우 가치 있고 고무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내는 젊은 물리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① 현대 물리학은 물질의 대립적 성격을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동양의 신비주의와 현대 물리학 간에는 유사점이 있다.
- ③ 동양의 신비주의에서는 역동적 균형의 개념이 강조되어 왔다.
- ④ 동양에서 유덕(有德)한 사람은 음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 ⑤ 동양의 신비주의는 일체의 대립적인 자질을 보다 높은 경지에서 상호의존적으로 파악한다.

5. 다음 <보기> 중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A국장이 출장을 가는 경우 B사무관이 함께 출장을 간다. A국장이 출장을 가지 않는 경우 C과장과 D사무관이 대신 출장을 간다. B사무관이 출장을 간다면 D사무관은 출장을 가지 못한다. B사무관이 출장을 가지 못한다면 C과장과 D사무관이 함께 갈 것이다.
- ㄴ.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 날에만 본회의가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부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를 열도록 여야 간에 합의하였다. 2월 마지막 본회의는 2시에 열린다. 이 날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함께 열릴 것이다.
- ㄷ. 서로 다른 색깔의 카드 뒷면에는 1부터 5까지 서로 다른 숫자가 쓰여 있다. 빨간 카드보다는 파란 카드의 뒷면에 쓰인 숫자가 더 크고, 노란 카드에 쓰인 숫자는 초록 카드에 쓰인 숫자보다 더 크다. 파란 카드의 뒷면의 숫자는 초록 카드의 뒷면에 쓰인 숫자보다 1이 적은 숫자이고, 보라 카드의 뒷면의 숫자는 빨간 카드의 뒷면에 쓰인 숫자보다 1이 적다면, 노란 카드의 뒷면에 쓰인 숫자는 5이다.
- ㄹ. K항공을 이용하지 않으면 미국에 갈 수 없다. 마일리지 7만점이 넘어야만 K항공을 이용하여 미국에 갈 수 있다. 은수는 미국에 갔다. 따라서 은수가 보유한 마일리지는 7만점이 넘었을 것이다.
- ㅁ. 분실물접수센터에 배지가 달린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잃어버린 가방은 검정색이거나 백팩이다. 만약 검정색 가방이라면 가죽가방이다. 잃어버린 가방은 가죽가방이거나 별 모양의 배지가 달려있다. 만약 가죽가방이 아니라면 백팩이 아니다. 잃어버린 가방은 가죽가방일 것이다.

- ①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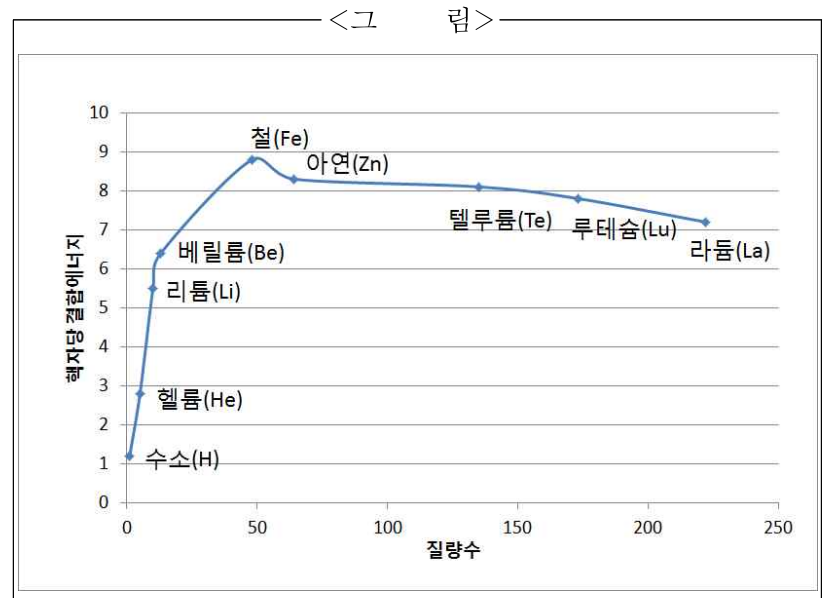
12. 다음 글과 <그림>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핵분열(Nuclear Fission)이란 우라늄과 플루토늄 같은 무거운 원자의 원자핵이 두 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는 현상이다.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전에 비해 질량이 줄어드는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도출된 질량-에너지 등가원리에 따라 줄어드는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한다. 에너지의 발생은 핵자당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때 핵자는 원자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의미하고, 핵자 수가 증가할수록 질량이 증가한다. 결합에너지는 원자핵 속의 핵자들을 독립적인 핵자들로 모두 분리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들이 결합할 때에 방출하는 에너지이기도 한다. 이 결합에너지를 핵자의 수로 나눈 값을 핵자당 결합에너지라고 말하며, 이는 핵자들이 핵 안에서 결합된 정도를 나타낸다.

핵자당 결합에너지는 질량수에 따라 증가하여 철(Fe)에서 가장 크고, 이후에는 질량수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소를 포함해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들은 핵자 수가 커질수록 결합에너지가 증가하므로 결합하여 원자핵이 되면서 결합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반대로 우라늄을 포함한 무거운 원자핵은 질량수가 작아질수록 결합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작은 원자핵들로 분열할 때 결합에너지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를 핵융합(Nuclear Fusion), 후자의 경우를 핵분열(Nuclear Fission)이라고 한다. 핵융합을 이용한 것이 수소폭탄이며 핵분열을 이용한 것이 원자로나 원자폭탄이다.

핵분열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는 생성된 입자들의 운동에너지와 전자기파에너지 등의 형태로 방출된다. 이 에너지를 원자핵 에너지(Nuclear Energy) 또는 원자력이라고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분열은 여러 핵분열 반응 중에서도 우라늄 235(U-235)나 플루토늄 239(Pu-239)의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2개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분열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핵분열은 자연 방사성 붕괴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므로, 인공적인 핵분열에서는 속도가 느린 중성자를 무거운 원자핵에 충돌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충돌한 중성자가 우라늄 원자핵 속으로 들어가면, 우라늄에 속한 전체 양성자와 중성자가 분열하게 되고, 그 결과 보통 2~3개의 중성자가 다시 생겨난다. 튀어나온 중성자는 다시 다른 핵분열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결국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이를 핵연쇄반응(Nuclear Chain React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때 발생한 중성자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에너지가 큰 고속중성자(Fast Neutron)이다. 고속중성자는 핵분열 반응 단면적(Fission Cross-Section)이 작는데, 여기서 반응단면적이란 핵반응이 일어나는 확률을 나타내는 면적의 단위를 갖는 양이다. 다시 말해, 핵분열 반응에서 발생한 고속중성자로는 다시 핵반응을 일으키기 어렵다. 따라서 핵분열 과정을 연쇄적으로 만들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감속재를 이용하여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줄여 열중성자로 바꿔주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감속재로는 물이나 중수(重水) 등이 있다.



- ① 핵자당 결합에너지는 질량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 ② 핵분열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속중성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열중성자로 변한다.
- ③ 핵자당 결합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적으로 결합된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그림>의 텔루륨(Te)이 핵분열 시 중수(重水)를 사용한다면 핵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 ⑤ <그림>의 헬륨(He)은 원자핵들이 결합하는 경우 핵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1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1894년 콜먼이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 보이는, 감각기관의 국부적 기질성 질환과 관련된 환각」이라는 논문에서 강조한 바 있지만, 지금도 ‘환각’이라고 하면 일반인과 의사 모두 정신병이나 뇌의 기질성 질환을 먼저 떠올린다. 1970년대 이전까지 정신이 말짱한 사람에게도 환각이 흔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그러한 환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론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1967년 폴란드의 신경생리학자 예르지 코노르스키가 『뇌의 통합적 활동』에서 ‘환각의 생리적 기초’를 여러 쪽에 걸쳐 논의했다. 코노르스키는 ‘환각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 ‘환각은 왜 항상 일어나지 않는가? 환각을 구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각과 이미지와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역동적 체계, ‘환각을 일으키는 기체가 우리 뇌 속에 장착되어 있지만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만 작동하는’ 체계를 상정했다.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뇌로 이어지는 구심성(afferent) 연결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역방향(retro) 연결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했다. 그런 역방향 연결은 구심성 연결에 비하면 빈약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코노르스키는 바로 그 역방향 연결이 환각 유도에 필수적인 해부학적, 생리적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정적인 요인은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에서 입력되는 감각 자료라고 코노르스키는 주장했다. 이런 자료가 평소에 피질의 중추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활동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자료가 눈에 띄게 부족해지면 역류가 쉽게 일어나 환각과 지각을 생리적, 주관적으로 구별할 수 없게 된다. 평상시에는 침묵이나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입력되는 자료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밀 단위(off units)가 계속적인 활동을 발화하고 생성하기 때문이다.

코노르스키의 이론은 훗날 ‘구심성 차단(de-afferentation)’과 관련된 ‘방출(release)’ 환각이라 불리게 될 현상을 간단하고도 훌륭하게 설명해준다. 그런 설명은 이제는 당연하게 보이고 거의 동어반복으로 여겨지지만 1960년대만 하더라도 이를 독창적이고 대담하게 입증해야 했다.

뇌 영상 연구를 통해 코노르스키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훌륭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2000년에 티머시 그리피스는 음악 환청의 신경적 기초를 상세하게 밝혀낸 선구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양전자단층촬영을 통해 음악 환청이 일어나는 순간 평소 실제 음악을 들을 때 활성화되는 것과 똑같은 신경 네트워크가 폭넓게 가동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① 1970년대 이후 정신이 말짱한 사람도 환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 ②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역방향 연결이 구심성 연결에 비해 빈약하다.
- ③ 감각기관에서 뇌로 이어지는 구심성 연결이 활성화되어야 환각을 경험할 수 있다.
- ④ 코노르스키는 감각 자료가 환각을 유도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 ⑤ 코노르스키에 따르면, 감각 자료는 피질의 중추 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활동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는다.

14. 다음 글과 같은 설명 방식으로 이루어진 글을 <보기>에서 고르면?

오늘날 대중 매체는 크게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로 나눌 수 있다. 인쇄 매체로는 서적, 잡지, 신문이 있고 전자 매체로는 음반,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을 포함한 각종 뉴 미디어가 있다.

— <보 기> —

ㄱ. 중국의 담백은 집보다도 높은 것이다. 아무리 발돋움하여도,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다. 완전히 폐쇄적인 것이며, 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완전한 성벽인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초가집에는 솥재 담이란 것이 없고, 설령 담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가 환히 보이는 아주 낮은 담이다. 그것은 개방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담은 중국의 담보다 낮지만, 일본의 담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돌담은 바로 폐쇄와 개방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ㄴ.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은 재질과 맛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메밀을 주원료로 면을 뽑아서 거칠고, 먹으면 툭툭 끊기고 맵거나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며 얼음이 뚱뚱 동치미 국물에 말아먹는 물냉면 식이다. 후자는 메밀에 감자, 옥수수 전분을 섞어서 긴 면을 쫄깃하게 만들며 맵고 진한 양념과 따끈한 육수를 곁들여 먹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맵고 새콤한 양념에 흥어나 가자미 같은 회를 넣어 먹는 비빔 혹은 회냉면 식이다.

ㄷ. 한국의 전통 음악은 일반적으로 정악(正樂)과 민속악으로 구분된다. 정악은 궁중에서 연주되던 넓은 의미의 아악(雅樂)과 선비들이 즐기던 아정(雅正)한 음악을 가리키며, 민속악은 판소리, 산조, 민요, 농악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서민들 사이에서 즐겨 연주되고 감상되던 음악이다.

ㄹ.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음악을 잘하는 민족이었음은 전통 사회의 생활 습속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가령 눈에 모를 심거나 김을 밭 때, 여러 사람이 손발을 맞추기 위하여 노래를 했다. 또 벼를 베다든지 타작을 할 때에도 노래를 부름으로써 일의 능률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노래를 부르며 상여를 메고 나가고, 노래 장단에 맞춰 무덤을 다져 나갔다. 정월 초하루나 정월 보름 등의 명절이나 절기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민속 행사에 음악이 빠지지 않았다.

ㅁ. “펜은 칼보다 무섭다.”고 한 나폴레옹의 말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격언이거니와, 과연 문장도는 검도보다 훨씬 더 엄격해야 할 뿐더러, 훨씬 더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칼은 왜 있으며, 칼은 왜 써야 하는지와 칼을 쓰되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 검도의 기본 정신을 먼저 알아야만 칼 쓰는 법을 전수할 수 있는 이상으로, 문장이 왜 있으며, 문장을 왜 써야 하는지와, 문장을 쓰되,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 문장도의 기본 정신을 파악한 뒤에야 비로소 문장의 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15.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원인에 대한 도시 연구자들의 논의는 사회문화적 접근과 경제적 접근, 공공 정책적 접근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접근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을 수요 측면에서 분석한 반면, 경제적·공공 정책적 접근은 공급 측면에서 분석한다.

데이비드 레이(David Ley)는 「자유 이념과 후기 산업도시」라는 논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사회문화적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1970년대 이후 낙후한 구도심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중·상류층의 사회문화적 특성, 소비성향에 주목한다. 1960년대 후반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서구의 도시 및 산업구조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된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서비스업이 부상하면서 도시의 주류 구성원이 산업 노동자에서 고소득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로 교체된 것이다.

베이비부머이며 여피(yuppie)로도 불리는 이들 신흥 중산층은 목가적인 전원생활을 선호하며 근검절약을 강조했던 아버지 세대와 달리, 편리함과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도시 생활을 선호하고 여가를 중시하며 각자의 개성을 반영한 감각적이고 심미적인 소비생활을 즐기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교외로 떠난 아버지 세대와는 달리 도심으로 복귀해 그곳의 주거 공간을 자신들의 문화적 취향에 맞게 개조한다. 이에 따라 주변 상권은 이들의 소비성향, 곧 수요에 맞게 개편된다. 이처럼 레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았다. 후기 산업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른 베이비부머 신흥 중산층이 도심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곳으로 회귀하면서 발생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란 설명이다.

반면 닐 스미스(Neil Smith)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람들이 도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동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주목한 것은 특정 집단의 사회적 특성이나 문화적 취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 속성, 결정적으로는 자본의 역할’이다. 스미스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가격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차이에서 유발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영미권 대도시에서 나타난 교외화 현상도 ‘토지와 주택 시장의 구조’, 정확히 말해 현재와 미래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한다. 구도심은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문화적 입지에서 여전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구도심의 낙후함은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한껏 낮춰 놓았고, 유리한 입지는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도심은 언제든 투자가 이뤄지면 건물주와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어 있다.

스미스는 구도심이 오랜 시간에 걸쳐 쇠퇴한 이유가 ‘땅주인들과 주택 소유자들이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 지역이 쇠퇴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렇게 방치해 부동산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충분히 벌려 놓은 다음에 땅주인들과 주택 소유자들은 구도심의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지구 단위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높은 수익을 거두려 한다는 것이다. 스미스의 이런 주장을 ‘지대 격차 이론’이라 한다. 건물주와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공급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 벌이는 일련의 활동들의 상호작용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유발된다는 입장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는 공급자로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목하는 경우도 있다. 핵워스(J. Hackworth)와 닐 스미스는 2001년 발표한 논문 「젠트리피케이션의 변화하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재정 지원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

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미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1~3세대로 나누었는데, 1세대 젠트리피케이션은 1973년 경기 침체 전, 정부 주도하에 쇠퇴한 도시를 재개발하면서 진행되었고, 2세대 젠트리피케이션도 미 연방 정부가 민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정액 교부금(Block Grant)을 지급하거나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을 지정하면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브루킹스 연구소의 모린 케네디(Maureen Kennedy)와 폴 레너드(Paul Leonard)는 지방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이 도시의 조세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며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상류층의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당국자들의 의도적 개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 젠트리피케이션 : 노동자들의 거주지에 중산층이 이주를 해 오면서 지역 전체의 구성과 성격이 변하는 것.

<보 기>

- ㄱ. ‘지대 격차 이론’은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제적 접근 방식과 관련이 있다.
- ㄴ. 데이비드 레이에 따르면 여피(yuppie)라 불리는 신흥 중산층은 목가적인 전원생활을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아버지 세대와 차이가 있다.
- ㄷ. 정책 당국자들의 의도적 개입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현재와 미래의 가격 차이에 주목한다.
- ㄹ. 닐 스미스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을 수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6. 다음 글에서 의열단 내의 변절자는 모두 몇 명인가?

일본 경찰의 지속적인 추적으로 인해 다수의 의열단원이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열단의 단장인 약산 김원봉 선생은 의열단 내 변절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세 명의 간부에게 물었다.

“서른 명 이상입니다.” 첫 번째 간부가 말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서른 명보다는 적습니다.” 두 번째 간부가 말했다.

그러자 세 번째 간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입니다.”

다만, 약산 선생은 세 명의 간부는 모두 변절자가 아니지만, 오직 한 명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① 0명
- ② 1명
- ③ 2명
- ④ 3명
- ⑤ 30명 이상

17.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는 우주가 우주공간을 무작위하게 움직이는 무수한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자들은 햇빛 아래에서 떠다니는 먼지처럼 충돌하고, 서로 들러붙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기도 하며 다시 부분으로 깨지기도 하면서 생성과 파괴의 부단한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이 과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는 없다.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무수한 별들의 아름다움에 경탄하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낄 때, 당신은 신들의 작품을 보고 있거나 잠시 머무는 이 덧없는 세계와는 동떨어진 다른 반짝이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도 그 일부이며 당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원소들로 만들어진 물질계(material world)이다. 여기에는 종합적인 계획도, 신성한 조물주도, 지적인 설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속한 종을 포함한 사물은 유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화해온 것이다. 살아 있는 유기체의 경우에는 자연선택의 법칙을 따르지만, 기본적으로 진화는 무작위적이다. 다시 말해서 일정 기간만이라도 우연히 살아남아 번식하는 데에 성공한 종은 버티고 그렇지 못한 종은 금세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종(種)으로서의 우리 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그 위로 매일 떠오르는 태양도-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 영원불멸한 것은 오직 원자뿐이다.

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지구와 그 거주민이 우주의 중심을 점하고 있다고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인간이 신에게 뇌물을 바치거나 신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고 종교적 광신이 들어설 여지도 없다. 금욕적인 자기부인(自己否認)은 불필요하고, 전지전능한 힘이나 완벽한 구원에 대한 환상은 근거가 없다. 정복욕이나 자기 과시욕도 불합리하다. 그 어떤 것도 자연에 맞서 이길 수 없으며 생성과 파괴, 그리고 재생으로 이어지는 끝없는 순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안전에 대한 거짓 환상을 팔거나 죽음에 대한 비논리적인 공포를 선동하는 자들에게 분노하는 한편, A는 일종의 해방감과 함께 이전에는 너무나 위협적으로 보였던 것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을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A는 인류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도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도 덧없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썼다.

A의 시가 유래한 철학적 전통은 신이나 국가에 대한 숭배와는 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 고대 지중해 세계의 관용적인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이 철학을 불미스러운 사상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이 전통의 신봉자들은 때때로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고, 불경하다거나 심지어 그저 아둔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중세 기독교의 성장과 함께 이들 문헌은 가차 없는 공격을 받고 희화화(戲畵化)되었으며 끝내는 불살라졌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파괴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무시되는 것,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망각되는 것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라져가던 철학사상을 명료하게 표현한 위대한 작품 하나가 끝내 살아남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 시의 부활이 바로 이 책의 주제이다. 약간의 자투리 글모음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간접적인 인용문을 제외하면, 풍성했던 한 철학전통에서 살아남은 모든 것이 이 한 권의 저작에 담겨있다. 이 저작이 우연한 화재와 약탈, 이단이라고 판단된 사상들의 마지막 흔적까지 모조리 말살시키려는 결정 속에 결국 파괴되고 말았다면, 근대화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

원래 이 시의 운명은 이 시에 영감을 준 다른 고대 걸작들과 함께 끝내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어야 했다. 이 시가 사라지지 않고 수백 년간 죽은 듯이 잠복해 있다가 마침내 자신이 담고 있던 체제전복적인 주장을 다시 세계에 퍼뜨리기 시작한 것은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작가는 기적을 믿지 않았다. A는 그 어떤 것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이 ‘일탈(swerve)’-A가 사용한 중요한 용어로서 라틴어로는 ‘클리나멘(clinamen)’-이라고 부른 뜻밖의 방향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게 전개되는 사물의 움직임은 긍정했다. 그의 시의 부활도 바로 그런 의미의 일탈이었다. A의 시와 그 시가 담고 있는 철학은 정해진 직행 궤도-이 경우에 중착지는 망각이었다-에서 예기치 않게 벗어났다.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시가 다시 세상에 돌아왔을 때, 우주가 무한한 진공(眞空, void) 속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충돌로 형성되었다는 작품의 내용은 터무니없게 들렸다. 그러나 처음에는 불경하고 실없는 소리만으로 들렸던 주장이 이제는 근대의 세계 전체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의 기초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근대성(modernity)을 규정하는 주요 요소가 고대성(antiquity) 속에서 발견된다는 지극히 놀라운 인식내용만이 아니다. 비록 오늘날 교육과정에서 대부분 퇴출당한 그리스, 로마의 고전이 근대적 의식을 사실상 규정지었다는 사실은 재차 상기해볼 가치가 있지만 말이다. 아마도 더욱 놀라운 것은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에 설명되어 있는 그 과학적인 세계관-무한한 우주에서 무작위로 움직이는 원자들에 기초한 그 세계관-의 근원일 것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 세계관은 시인의 세상을 향한 경외감으로 고취되어 있다. 그 경외감은 신이나 악마, 또 사후세계에 대한 환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A의 경외감은 우리 인간이 별, 바다, 그 밖의 모든 사물과 같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인식으로부터 솟구쳐 나온 것이었다.

- <보 기> —
- ㄱ. 중세 기독교는 A가 표현한 철학사상을 사악한 위협으로 생각하여 그러한 부류의 작품들을 불살랐다.
 - ㄴ. A는 자연이 물질계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그 물질계 전체를 관류하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한 자연법 사상가이다.
 - ㄷ. 무한한 진공 속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일탈적 충돌로 우주가 형성됐다고 믿는 A의 원자론은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터무니없게 들리는 이야기이다.
 - ㄹ. A는 “이 세상의 질서와 무질서의 반복은 어떤 신성한 계획의 산물이 아니다. 신의 섭리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물질에 내재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나 지적인 설계를 걸음으로 구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집행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제재는 많으나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은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과징금제도는 제재와 부당이득환수의 목적이 있으나 금전적으로는 부당이득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환수하는 구조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기업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과징금은 국고로 편입되어 버리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미국식의 당연위법원칙, 약자에게 관대한 경향이 있는 배심원 제도,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등이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미국에서도 사적 집행으로서의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며 1977년에 절정이었는데, 당연위법원칙이나 배심원 제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1980년대 들어서는 당연위법원칙의 후퇴, 시카고학파의 영향에 따른 경제분석 강화 등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줄어들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정거래절차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의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하여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손해배상명령을 직접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만 논의가 되었을 뿐이다.

(나) 손해배상명령제도는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법원칙의 측면에서나 우리나라 현실의 측면에서나 성급히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행정·사법은 순수법학파가 지적하는 것만큼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역사적 혹은 기능적 차이가 있다. 사법은 ‘구체적인 법률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손해배상판결은 전통적으로 사법의 영역이었다. 반면 행정은 미래지향적으로 공익을 구체적·계속적으로 실현하는 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사법과 행정은 법집행작용으로 비슷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사법은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 주된 임무인 반면 행정은 미래지향적인 공익실현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은 사법의 가장 전형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담당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은 궁극적인 목적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특히 사법작용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로소 개시되며 그 대상도 발생한 분쟁의 해결에 국한된다. 사법작용은 소극적, 수동적, 사후대응적 국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의 분립은 국가기관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으로서 자유 보장적 측면에서 국가권력의 통제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국가기능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사법과 행정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하여 사법작용의 가장 전형적인 손해배상명령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행한다고 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법의 고유영역인 손해배상명령까지 허용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기본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 ① 1960년 이후 미국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줄어들었다.
- ② 손해배상명령제도는 피해구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다.
- ③ 순수법학파는 행정과 사법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 ④ 손해배상명령을 행정기관이 직접 행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 ⑤ 행정작용과 사법작용은 법집행작용이라는 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9~문 20]

(가) 수십억 개의 웹 페이지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페이지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은 것들이다. 많은 페이지들이 유용한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스팸 페이지이다. 다른 페이지들은 개인 블로그, 결혼 공지, 가족사진 앨범 등이다. 엄청난 웹 페이지의 수가 검색엔진이 유용한 페이지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검색엔진에 특정한 단어를 입력했을 때, 웹상에는 해당 단어를 포함한 수백만 개의 페이지가 존재한다. 검색엔진은 어떻게 가장 유명한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웹 페이지 간의 링크를 인기 척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가장 분명한 척도는 각 페이지에 대한 진입링크 개수를 세서 이것을 순위 부여 알고리즘의 자질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들 측정 방법들 중에, 페이지랭크가 가장 자주 언급된다.

페이지랭크는 랜덤 서퍼(random surfer) 아이디어에 기반하고 있다. 엘리스라는 사람이 지금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엘리스는 매우 따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웹 페이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 그녀의 브라우저는 “surprise me”라는 특별한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임의의 웹 페이지로 이동한다. 웹 페이지가 로딩될 때마다, 그녀는 “surprise me”를 누를 것인지, 아니면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누를지를 결정한다. 그녀가 페이지 상의 링크를 누를 때도, 그녀는 특별히 그 링크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엘리스는 매우 따분해서 이러한 웹 브라우징을 영원히 계속한다. 이를 좀 더 정교한 형태로 표현하자면, 엘리스는 다음 알고리즘에 따라 웹을 돌아다닌다.

- 0과 1사이의 임의의 숫자 r를 고른다.
- 만약 $r < K$ 이면 : “surprise me” 버튼을 누른다.
(단, $0 \leq K \leq 1$)
- 만약 $r \geq K$ 이면 : 현재 페이지에 있는 링크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누른다.
-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보통 K값은 충분히 작아서 엘리스가 “surprise me” 버튼보다는 링크를 더 많이 누른다고 가정한다. 비록 웹 페이지들을 랜덤하게 돌아다닐지라도 엘리스는 유명한 페이지를 그렇지 않은 페이지들보다 더 자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스는 주로 링크를 따라가는데 링크는 유명한 페이지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나) 웹은 A, B, C의 3개의 페이지로만 구성되어 있다. 페이지 A가 페이지 B와 C를 가리키고 있고, 페이지 B는 페이지 C를, 페이지 C는 페이지 A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자. 주어진 페이지에 있는 링크는 무작위로 선택된다. 따라서 페이지 A에서 페이지 C로 갈 확률은 진출링크가 두 개이므로 50%이다. “surprise me” 버튼을 무시한다면, 페이지 C의 페이지랭크 PR(C)는 식 $PR(C) = \frac{PR(A)}{2} + \frac{PR(B)}{1}$ 로 계산된다.

여기에는 한 가지 명백한 문제가 있는데, . 따라서 모든 페이지의 페이지랭크 값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PR(A) = PR(B) = PR(C) = 0.33$ 으로 놓고, 이를 근거로

반복 계산을 수행하여 값을 계산한다. 반복의 각 단계마다 이전 반복 때의 페이지랭크 값을 사용하여 새로운 페이지랭크 값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반복에서 $PR(C) = 0.33/2 + 0.33 = 0.5$ 이다.

※ 진입링크 : 특정한 페이지를 가리키는 링크

19. 위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K)는 한 단계에서 엘리스가 현재 페이지에 있는 링크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누를 확률을 나타낸다.
- 특정한 페이지의 페이지랭크 값은 검색엔진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따라 달라진다.
- 많은 페이지로부터 링크를 받는 페이지는 그렇지 못한 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페이지랭크 값을 가질 것이다.
- 웹 페이지 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페이지랭크 값은 변화할 수 있다.
- 막대한 웹 페이지의 수는 검색엔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한다.

20. 위 글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특정한 페이지의 페이지랭크는 그 페이지를 링크하고 있는 페이지들의 페이지랭크 값에 의존적이다.

ㄴ. 빈 칸에 “바로 우리가 각 페이지의 페이지랭크 값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페이지랭크 값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다.

ㄷ. (나)의 첫 번째 반복에서 $PR(A) = 0.33$ 이다.

- | | |
|-----------|--------|
| ① ㄱ | ② ㄱ, ㄴ |
| ③ ㄱ, ㄷ | ④ ㄴ, ㄷ |
| ⑤ ㄱ, ㄴ, ㄷ | |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비염은 미세먼지 속의 여러 유해 물질들이 코 점막을 자극하여 맑은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왜 코 점막의 문제인데, 비염 증상으로 재채기가 나타날까? 비염 환자들의 코 점막을 비내시경을 통해 관찰하게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에는 코 점막 내의 돌기가 관찰된다. 이 돌기들이 외부에서 콧속으로 유입되는 먼지, 꽃가루, 유해물질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재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집먼지, 진드기 등이 매개가 되는 통연성 비염과 계절성 원인이 문제가 되는 계절성 비염으로 나뉜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 질을 떨어뜨리는 이슈가 자주 발생하면서 계절성 비염의 발생 빈도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직도 비염을 단순히 코 점막 질환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비염은 면역력의 문제, 체열 불균형의 문제, 장부의 문제, 독소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코 점막의 비염 증상으로 표출되는 복합질환이다. 비염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만큼 환자마다 나타나는 비염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비염 유형에 따른 비염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비염은 크게 열성 비염, 냉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열성 비염은 뇌 과열과 소화기의 열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다. 코 점막을 건조하게 만드는 열은 주로 뇌 과열과 소화기의 열 상승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염 증상으로는 코 점막의 건조, 출혈 및 부종 외에도 두통, 두중감, 학습장애, 얼굴열감, 급박한 변의 등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냉성 비염은 호흡기의 혈액순환 저하로 코 점막이 창백해지고 저온에 노출됐을 때 맑은 콧물 및 시큰한 자극감을 주 증상으로 하는 비염을 말한다. 또한, 호흡기 점막의 냉각은 소화기능의 저하와 신진대사 저하를 동반하기도 한다. 냉성 비염 증상은 맑은 콧물, 시큰거림 외에도 수족냉증, 체열 저하, 활력 감소, 만성 더부룩함, 변비가 동반되어 나타난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먼지, 꽃가루, 온도 등에 대한 면역 반응성이 과도하여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등을 유발하는 비염 유형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임상적으로 열성과 냉성으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열성 비염의 동반증상으로는 코막힘, 건조함, 충혈, 부종 및 콧물이 있고, 냉성 비염의 동반증상은 맑은 콧물과 시큰한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다.

가을철 환절기인 9~11월, 알레르기성 비염과 코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 코감기는 알레르기성 비염과 증상이 비슷해 많은 이들이 헛갈려 하지만,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여러 자극에 대해 코 점막이 과잉반응을 일으키는 염증성 질환으로 맑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라는 3대 비염 증상과 함께 코 가려움증, 후비루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발열이나 오한 없이 오직 코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원인은 일교차, 꽃가루,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하다. 반면 코감기는 몸 전체가 아픈 바이러스 질환으로 누런 코, 심한 코막힘에 오한, 발열을 동반한 코 증상이 있으며, 코 점막이 새빨갳게 부어 오른 경우는 코감기로 볼 수 있다. 코감기는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은 꼭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 ① 냉성 비염 환자의 코 점막은 건조하며 두통, 학습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 ② 알레르기성 비염은 충분한 휴식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 ③ 코막힘과 더불어 몸 전체가 아플 경우 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할 수 있다.
- ④ 면역 반응성이 과도하여 유발된 비염 환자의 경우에는 코 점막 내 돌기가 관찰된다.
- ⑤ 계절성 비염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집먼지, 진드기 등을 매개로 하는 통연성 비염의 발생 빈도는 감소하고 있다.

2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자연에서 얻고, 자연에 돌려주는 자원 순환이 가능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풍력·지열·해양에너지 등으로 햇빛, 바람, 땅, 바다 등에서 얻는다.

태양전지는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바꾸어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소재에 따라 실리콘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으로 나뉜다. 최근 주목할 수 있는 태양전지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 태양전지는 효율이 20%나 된다. 설치 비용은 낮는데 효율은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슷하다.

해양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방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조력·조류 발전, 바다의 깊은 곳과 낮은 곳에 있는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해수 온도차 발전,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파력 발전이 있다. 조력과 조류 발전은 공통적으로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짐과 낮아짐을 반복하는 조석현상을 이용한다. 그러나 조력 발전은 조석간만의 차이가 생기는 하구에 둑을 설치하고 바닷물을 가두었다가 다시 배출할 때 생기는 힘을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인 반면 조류 발전은 조류의 흐름이 빠른 곳에 발전 터빈을 설치하고,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해수 온도차 발전은 바다의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 방법이다. 바다표면으로부터 100m 깊이까지의 물을 표층수라고 부르며, 100m에서 200m 사이의 바닷물을 중층수, 200m에서 4km 사이를 심층수라고 부른다. 해수 온도차 발전은 표층수의 열을 이용해 암모니아 등 액체를 기체로 만들고, 이 기체의 압력으로 발전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 후 심층수의 차가운 물을 이용해 기체를 다시 액체로 만든다. 표층수의 온도와 심층수의 온도의 차이가 섭씨 17도 이상이 되면 해수 온도차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파력 발전은 파도가 위 아래로 움직이는 동력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바다에 장치를 띄우는 방식과 연안에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 있다.

지열에너지는 땅 속에 저장돼 있는 열을 이용해 만들어진 에너지를 말한다. 지열을 직접 이용하는 방식은 온천이나 아파르트 등의 지역난방이고, 지열을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은 지열 발전, 즉 지열에서 나오는 증기의 압력으로 발전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지열 발전은 예전엔 온천보다 더 뜨거운 물인 고온 열수가 나오는 단층대에서만 가능했다. 1904년 이탈리아 랄데렐로에 지열 발전소가 처음 세워졌지만, 뉴질랜드와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외에는 지열 발전은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는 지하수가 없거나 땅속 온도가 낮아도 필요한 전력이나 열을 만들어 쓸 수 있게 되었다.

- ① 해수 온도차 발전과 지열 발전의 공통점은 기체의 압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는 점이다.
- ② 우리나라에서 조류가 가장 빠른 울돌목의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력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 ③ 바다 표면으로부터 100m까지의 바닷물이 섭씨 21도이고, 바다 표면으로부터 4km보다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이 섭씨 3도라면, 해수 온도차 발전을 할 수 있다.
- ④ 조류 발전과 파력 발전은 공통적으로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두 발전방식 모두 연안에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 ⑤ 실리콘 태양전지의 설치비용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설치비용보다 낮다.

25.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는 세대 격차가 있지만 유사성도 있다. 동기집단으로서 한 세대는 특정 시기에 구성된 가치를 나이가 들어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한 세대와 후속 세대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한 세대와 다른 세대로 변화하는 가교가 있다. 그 시기와 맥락을 ‘교차 시대’라고 부를 수 있다. 세대 연구의 관심사는 세대 차이나 갈등을 해명하는 것과 더불어 세대의 ‘연속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된다.

하나의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 가치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이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는 세대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대 격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성도 존재한다. 베른 벵슨(Vern Bengtson)은 집단주의·개인주의와 인간주의·물질주의라는 두 개의 범주를 통해서 가족 내 가치가 어떻게 공유되고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집단주의·개인주의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인간주의·물질주의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사이에 세대 격차가 존재하지만 공유되는 가치의 흐름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동기집단으로서 세대 의식의 흐름에 대한 것이다. 동기집단이 갖고 있는 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세대의 의식 변화는 세 가지 요소, 즉 동기 효과(cohort effect), 연령 효과(age effect), 특정 시기 효과(period effect)의 영향을 받는다. 동기 효과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성장하면서 유사한 경험과 의식을 갖는 것이다. 연령 효과는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으면서 변하는 것이고 특정 시기 효과는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구성된 가치 변화다. 한 세대의 의식은 변하기도 하고 연속성을 지니기도 하는데, 어느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세 가지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1960년대 초반~후반에 태어난 민중문화세대를 놓고 생각해 보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경험은 민중문화세대의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동기 효과와 특정 시기 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대 의식을 구성한 것이다.

1986년 12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조사한 세대 의식 조사에 따르면, 기성세대(40대 이상)와 청년세대(대학생 집단) 사이 의식 차이는 매우 컸다. 정치 현실 인식에서 기성세대의 16.0%만이 매우 불만이었지만, 청년세대의 55.3%가 매우 불만으로 응답했다. 경제 현실 인식은 기성세대 5.3%, 청년세대 22.0%, 사회 현실 인식은 기성세대 8.5%, 청년세대 27.5%가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조사 결과의 함의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 변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 ① 베른 벵슨(Vern Bengtson)에 따르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는 인간주의·물질주의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 ②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에는 세대 격차뿐만 아니라 유사성도 존재한다.
- ③ 민중문화세대의 세대의식은 동기 효과, 연령 효과, 특정 시기 효과 각각의 독립적 영향에 의해 변화해왔다.
- ④ 민중문화세대의 의식에 민주화운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⑤ 위 글의 세대 의식 조사에 따르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는 정치, 경제, 사회 등 현실 인식에서 큰 의식 차이를 보였다.

28. (가)~(마)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이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영혼은 더 이상 육체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육체는 활기를 띠지 못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육체와 시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 차이는 영혼과 육체의 연결 여부다. 이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다. 이원론자들은 물리주의자들이 이런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부패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시체도 살아있는 육체와 마찬가지로 모든 물리적 요소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살아있는 육체가 생기를 띠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월적인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나) 그러나 물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이런 결론은 너무 성급하다. 인간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물리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육체가 살아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저 육체만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한다. 부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물리적인 요소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고 하더라도, 시체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물리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말은 육체를 이루는 각각의 요소들이 고장을 일으켰다는 뜻이다.

(다) 물리주의자들은 육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설명한다. 여기서도 우리는 물질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각 요소들 모두 조화롭게 움직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육체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시체의 각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활기를 띠지 못한다. 비록 세부적인 지식까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특성을 물리적 차원에서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여기서의 굳이 비물질적인 영혼을 끌어들이 필요 없다.

(라) 내 오디오 기억나는가? 오디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음악을 들을 수 없다. 그래도 CD, 배터리, 드라이브, 버튼, 전선 등 오디오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그래도 작동하지 않는다. 아마 전선 하나가 끊어졌거나 전원 버튼이 망가졌을 것이다. 회로 전체의 연결이 끊어져버린 것이다. 배터리로부터 전선을 거쳐 CD 드라이브로 흘러가는 전기적 흐름이 끊어졌다. 물론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오디오라고 하는 물리적인 존재가 망가졌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미스터리가 없다. 전체 회로가 연결돼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어야 우리는 그 작동 원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 물론 이원론자는 그들의 주장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자 한다. 그들은 또한 육체가 그저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합목적적(合目的的, 목적에 맞도록)’으로 움직인다는, 보다 특별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육체라고 하는 인형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줄을 잡아당기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이원론자들은 설명한다.

- ① (가)-(나)-(다)-(라)-(마)
- ② (가)-(나)-(라)-(다)-(마)
- ③ (가)-(다)-(나)-(마)-(라)
- ④ (가)-(다)-(마)-(라)-(나)
- ⑤ (가)-(마)-(나)-(라)-(다)

29. 가희, 나희, 다희, 라희는 2017년도 상반기에 개설된 5개의 강의 중 일부를 수강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에 따를 때 반드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조 건> —
- 2017년도 상반기에 개설된 강의는 플라잉요가, 필라테스, 풍물놀이, 수화, 방송댄스 등 총 5개이다.
 - 모든 학생은 적어도 2개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며, 4개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없다.
 - 개설된 모든 강의는 적어도 1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한다.
 - 다희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수강하는 강의가 있다.
 - 다희와 라희가 동시에 수강하는 강의는 한 개이며, 다희와 나희가 동시에 수강하는 강의도 한 개이다.
 - 가희는 플라잉요가와 수화는 수강하지 않는다.
 - 나희는 필라테스와 수화는 수강하지 않는다.
 - 라희는 플라잉요가를 수강한다.
 - 네 명 중 라희가 수강하는 강의의 수가 가장 적으며, 라희와 같은 개수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없다.

- <보 기> —
- ㄱ. 풍물놀이는 세 명의 학생이 수강한다.
 - ㄴ. 가장 적은 수의 학생이 수강하는 강의는 수화이다.
 - ㄷ. 방송댄스를 수강하는 학생의 수와 플라잉요가를 수강하는 학생의 수는 같다.
 - ㄹ. 가희와 다희가 동시에 수강하는 강의는 한 개이다.
 - ㅁ. 가희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수강하는 강의가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38. 다음 글의 내용에 따라 각 지문의 유형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가) 컴퓨터는 인간 두뇌의 연장이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설치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은 점점 더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과 결단을 강요받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처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일상생활 속에서도 점점 더 컴퓨터에 의존하게 된다. 이 컴퓨터 혁명의 중요성은 산업 혁명의 계기를 만든 증기기관에 비길 수 있다.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 인간은 물리적인 일을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것처럼 이제는 컴퓨터로 움직이는 인공두뇌를 써서 사고(思考) 활동을 행하게 된 것이다.

(나) 그러나 이러한 하이테크를 인간해방의 메신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있다. 사람이 기계에 의지하게 되면 자연 본래의 순박한 천성이 파괴되고 천지자연의 도(道)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장자의 비유는 접어둔다 하더라도 기계가 모든 것을 다해 주게 되면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되고 말 것이다. 사실 신세대들은 이미 어려운 일을 기피하고 쉽게 살아가려는 수동적 인간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또 접어둔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다) 정보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은 한낱 기계로서 언어를 창출하지 못하며 자유의지에 의한 도덕성을 실천하지 못한다. 인간은 지·정·의의 인격체로서 진·선·미를 통일하여 자기를 완성하려는 형이상학적 주체적 존재이다. 인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라) 정보화 사회에서의 각종 자동제어 시스템들에 의한 일 처리의 신속함과 편리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실 오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사회에서 그러한 오토메이션의 메카니즘과 시스템이 없었다면 현대사회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컴퓨터를 주체로 하는 정보화 사회의 구축은 과학자들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정치적·경제적 지도력이 앞장 서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 현대의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기계론적 합리주의는 일의 시스템과 관료제 조직을 연결하고 사회를 기능적 개인주의와 구조적 전체주의의 구조로 조직하였다. 오늘날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구는 일을 집단적으로 구조화하고 그 구성원들을 기능적으로 나누어 그 기능을 다시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여가 등을 즐길 시간적 여유가 늘어남으로써 과거에 비해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

(바) 인간은 정신적 존재로서 영혼, 신, 도덕적 자유 의지와 같은 형이상학적 이념을 갖고 있지만 컴퓨터는 그러한 이념을 갖고 있지 않다. 칸트는 이러한 이념을 형이상학적 소질이라 했는데 컴퓨터는 그러한 소질이 없다. 한마디로 인간은 인간을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컴퓨터는 주어진 일을 처리할 뿐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

- ①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 측면: (가), (라)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 사회의 부정적 측면: (나), (다), (마)
- ②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 사회의 공(功): (가), (마)
컴퓨터를 통한 정보화 사회의 과(過): (나), (다)
- ③ 컴퓨터 중심 사회의 장점: (마), (바)
컴퓨터 중심 사회의 문제점: (가)
- ④ 컴퓨터 기술 중심 사회의 장점: (마)
컴퓨터 기술의 한계: (다), (바)
- ⑤ 현대 정보화 사회의 장점: (가), (마), (바)
현대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 (나), (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39~문 40]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인간은 마음속의 거침없고 제어할 수 없는 생각들의 희생양일 뿐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끝없는 토론이 벌어진다. 그러나 뇌 과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뇌의 일부만이 이성의 통제를 받는다. 다른 부분들에서는 짐승이 비집고 나온다. 살인범이나 강간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조숙녀나 자선 사업가도 그렇다. 착실하고 경건한 모범 시민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싶겠지만, 분명 그에게도 이성이 통제하는 부분 외에 동물적 충동이 존재한다. 단순화한다면 인간의 행위는 ‘보상 체계’, ‘불안 체계’, ‘이성 체계’라는 뇌의 세 가지 체계에 의해 조종된다.

먼저 보상 체계는 중뇌의 복측피개부위(Ventral Tegmental Area)에서 측좌핵(Nucleus Accumbens)으로 이어지는 뇌 안의 짧고 두툼한 신경 다발이다. 보상 체계가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낀다. 우리가 인생의 멋진 일들에 대해 만족을 느끼는 것은 그 일들이 보상 체계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보상 체계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통해 기능한다. 그런데 내인성 아편 유사물질계(EOS)라는 또 다른 체계가 보상 체계보다 앞서 활성화된다. 내인성 아편 유사물질계 안에서 엔도르핀으로 불리는 내인성 아편 유사물질이 수용체와 결합하면, 그 결과로 보상 체계가 활성화된다. 엔도르핀이라는 이름은 이 물질이 합성물질인 모르핀(Morphine)과 유사해서 붙은 것이다. 진통제인 모르핀은 원래는 체내에서 자연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결합하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행복감을 준다. 그러나 정작 엔도르핀은 단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분비된다. 인간은 엔도르핀 덕분에 멧돼지를 사냥하러 숲으로 가고, 종을 유지하기 위해 침대에서 몸을 움직인다.

그뿐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엔도르핀이 분비된다. 강도가 여러분을 칼로 위협한다고 상상해보자. 여러분의 뇌는 즉각 경보 장치를 작동시킨다. 스스로 방어하도록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프로오피오멜라노코르틴(POMC)이라는 화학물질이 다수의 요소들로 분해된다. 이때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이라는 조각들이 생성되는데, 이는 싸우기 위한 체내 작용을 유발한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에 피가 공급되고 호흡이 가빠진다. 산소를 충분히 취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프로오피오멜라노코르틴이 분해될 때 부차적으로 또 다른 조각들이 나타난다. 바로 엔도르핀 분자다. 이 때문에 사실 싸움 상대가 월등하고 자신은 치명적 상처를 입었는데도 싸움에 도취한 채 자기가 꼭 이길 것이라고 느끼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더 나아가 칼에 찔린 상처에서도 여간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엔도르핀이 고통을 가라앉히기 때문이다. 보상 체계와 그보다 먼저 활성화된 내인성 아편 유사물질계(EOS)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면서 우리 생존을 보장한다.

보상 체계와 내인성 아편 유사물질계라는 통일체에 맞서는 상대는 불안 체계다. 불안 체계는 원초적 불안 체계와 지능적 불안 체계로 나뉜다. 원초적 불안 체계는 오로지 투쟁, 도주와 같은 단순한 행동 방식뿐이다. 그러나 이 체계가 가동하는 판에 박힌 프로그램은 사실 매우 효율적이어서 최악의 위험에서도 잘 작동한다. 불안 체계는 보상 체계와 마찬가지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원초적 불안 체계가 작동하면 신체적 불쾌감을 느끼는데, 가령 심박수 증가, 발한, 떨림 등의 증세가 그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독사, 산불, 강도, 트럭처럼 빨리 움직이는 큰 물체 따위에 대해 본능적으로 경종을 울린다.

원초적 불안 체계보다 지적으로 차원이 높은 불안 체계도 존재한다. 이 불안 체계는 배려, 수치심, 죄책감, 예의 같은 좀

더 지적인 느낌을 관리한다. 나아가 이 체계는 우리가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그것은 감정적 통제를 받는 보상 체계의 맞은편에 있는 적수이다. 이 단계는 음식이 차려질 때까지 식사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해주며, 나체로 거리를 달리지 않도록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이성 체계가 존재한다. 뇌의 이 부분은 높은 차원의 사유 기능을 맡고 있다. 여기에서는 불안 체계와 보상 체계의 다양한 요구를 두고 지적인 토론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논쟁은 우리 의식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 젊은 남녀가 느린 음악에 맞춰 블루스를 춤출 때, 이성 두뇌는 다른 두 적수인 보상 체계, 불안 체계와 토론을 벌인다. “이 여자를 내 쪽으로 세계 잡아당긴다면 어쩌면 사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 여자가 내 뺨을 갈긴다면 끝장나는 거야.” (A)가 이기면 젊은 남자는 여자를 잡아당기기로 결정한다. 여자의 뇌에서도 투쟁이 일어난다. “이 남자는 나와 사귀고 싶어 하는 게 뻔해. 이 사람은 매력적이지만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이처럼 그녀의 이성이 (B)의 손을 들어준다면, 젊은 남자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두게 된다.

39.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ㄱ. 보상 체계는 우리가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 ㄴ. 불안 체계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보상 체계와 차이가 있다.
 - ㄷ. 싸움 상대가 월등히 강하고 자신은 치명적 상처를 입었는데도 싸움에 도취한 채 자기가 꼭 이길 것이라고 느끼는 현상은 프로오피오멜라노코르틴이 분해될 때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엔도르핀 분자 때문이다.
 - ㄹ. 엔도르핀은 단지 즐기기 위해 분비되며, 그 이름은 이 물질이 합성물질인 모르핀(Morphine)과 유사해서 붙은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ㄹ

40. 위 글의 빈 칸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A) | (B) |
|---|-------|-------|
| ① | 보상 체계 | 이성 체계 |
| ② | 보상 체계 | 불안 체계 |
| ③ | 불안 체계 | 보상 체계 |
| ④ | 불안 체계 | 불안 체계 |
| ⑤ | 이성 체계 | 보상 체계 |

2017년 제33회 입법고시 정답표(가형)

| | 헌법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
| 문제1 | 3 | 3 | 5 | 4 |
| 문제2 | 4 | 5 | 2 | 4 |
| 문제3 | 5 | 2 | 2 | 3 |
| 문제4 | 4 | 4 | 4 | 5 |
| 문제5 | 2 | 1 | 4 | 2 |
| 문제6 | 3 | 5 | 5 | 4 |
| 문제7 | 1 | 5 | 2 | 1 |
| 문제8 | 2 | 4 | 1 | 3 |
| 문제9 | 5 | 5 | 4 | 2 |
| 문제10 | 3 | 2 | 4 | 2 |
| 문제11 | 4 | 1 | 3 | 5 |
| 문제12 | 1 | 4 | 4 | 2 |
| 문제13 | 5 | 5 | 5 | 5 |
| 문제14 | 5 | 3 | 4 | 1 |
| 문제15 | 4 | 4 | 1 | 4 |
| 문제16 | 1 | 1 | 3 | 3 |
| 문제17 | 3 | 3 | 4 | 5 |
| 문제18 | 2 | 3 | 2 | 2 |
| 문제19 | 2 | 2 | 5 | 3 |
| 문제20 | 5 | 5 | 5 | 4 |
| 문제21 | 3 | 4 | 3 | 2 |
| 문제22 | 4 | 2 | 1 | 1 |
| 문제23 | 1 | 3 | 1 | 4 |
| 문제24 | 5 | 1 | 5 | 2 |
| 문제25 | 4 | 3 | 4 | 5 |
| 문제26 | | 2 | 1 | 3 |
| 문제27 | | 3 | 3 | 1 |
| 문제28 | | 2 | 1 | 3 |
| 문제29 | | 4 | 3 | 2 |
| 문제30 | | 2 | 2 | 1 |
| 문제31 | | 2 | 4 | 2 |
| 문제32 | | 3 | 2 | 3 |
| 문제33 | | 1 | 3 | 3 |
| 문제34 | | 5 | 2 | 4 |
| 문제35 | | 1 | 4 | 1 |
| 문제36 | | 1 | 5 | 1 |
| 문제37 | | 3 | 5 | 4 |
| 문제38 | | 4 | 1 | 5 |
| 문제39 | | 5 | 3 | 5 |
| 문제40 | | 2 | 2 | 3 |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원측은 세 살 때 출가하고 열다섯 살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법상과 승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불교의 여러 이론에 대해 폭 넓게 익혔지만 특히 유식(唯識)을 중심으로 배웠다. 그는 산스크리트어, 티벳어를 비롯한 6개국의 말에 통달했다고 한다. 그가 유식 철학을 배울 때에 직접 그것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까지 꿰뚫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이 새로운 유식을 전래해 올 때까지 원측은 구유식에 입각해서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장이 새로운 유식을 소개하자 원측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이제까지 연구해 온 구유식의 바탕 위에서 신구 유식을 비판적으로 종합했다. 그는 유식에 한 정지울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불교 이론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중관(中觀) 철학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본령은 역시 유식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유식 철학은 모든 것을 오직 의식의 흐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는 대승불교의 한 학파이다. 이 학파는 단지 마음에 비추어 나타난 표상만이 있고 표상과 대응하는 외계의 존재물은 없다고 본다. 이 학파는 인간의 마음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의 의식에 대한 탐구가 이 학파의 중요한 작업이다. 유식 학파는 한편으로는 유가행파라고도 불리는데, 요가의 수행을 위주로 하는 학파라는 의미이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마음을 올바르게 닦아서 불교의 목적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이 학파의 실천적인 전략이다. 유식 학파는 중관 학파와 더불어 인도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학파 중의 하나이다.

인도에서 유식 철학을 체계화한 사람으로는 미륵, 무착, 세친을 들 수 있으며, 세친 이후 그의 학설을 해석하는 데에서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의 상이한 두 학파로 갈라져 발전하게 된다. 인도의 유식은 중국에서도 지론종과 섭론종, 법상종의 세 학파로 갈라져 전개되었다. 이 중 앞의 두 학파는 비교적 일찍이 전개되었으므로 구유식이라 하고 현장에 의해 새롭게 번역된 유상유식 계통의 경론들에 의하여 그의 제자 규기에 의해서 성립된 법상종을 신유식이라고 부른다.

원측은 불교를 이해하는 데 일관된 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교설을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교설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실천적인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그는 중도적으로 불교의 교설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였다. 따라서 유식 학자이면서도 중관 불교를 인정하였다. 불교는 일의이지만 다의가 있는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있는 것이며, 결국 일의임을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교리를 포용하여 중관파의 용수와 유식파의 미륵사상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까지 주장하였다. 나름대로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 ①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마음을 올바르게 닦아서 불교의 목적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유가행파의 실천적인 전략이다.
- ② 신유식이란 현장에 의해 새롭게 번역된 유상유식 계통의 경론들에 의거한 것으로 중국의 법상종을 이른다.
- ③ 원측은 처음에는 구유식을 연구했으나, 새로운 유식을 받아들여 구유식의 바탕 위에서 신구 유식을 비판적으로 종합했다.
- ④ 유식 철학은 모든 것을 오직 의식의 흐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는 까닭에 인간의 의식에 대한 탐구를 중요시한다.
- ⑤ 유식 철학은 처음 인도에서 미륵, 무착, 세친 등에 의해 체계화되었고, 중국에 건너와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의 상이한 두 학파로 갈라져서 발전하게 되었다.

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입법과정을 평가하는 전통적인 기준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이 있다. 민주성은 입법에 있어서 국민 다수의 의사를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며, 효율성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입법을 많이 산출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참여의 폭이 넓어질수록 민주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입법에 투입되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 등 기회비용을 줄이면서 제출된 법률안을 많이 통과시킬수록 입법과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입법과정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다수편향과 소수편향이라는 기준이 있다. 다수편향(majoritarian bias)이란 다수자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며 경직된 다수결논리에 기대어 그들의 의사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것을 말한다. 가령 다수자가 자신들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강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소수편향(minoritarian bias)이란 소수자가 다수의 의사나 이익을 무시하고 그들의 의사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는 것을 말한다. 가령 소수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결정과정을 방해하는 경우가 소수편향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입법과정이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얼마나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입법과정을 평가하는 세 번째 기준으로 순응비용과 거래비용이라는 기준이 있다. 순응비용이란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이 감수해야 할 비용을 말하며, 거래비용이란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수편향이나 소수편향이 심화될수록 순응비용이 증대하게 된다. 한편 효율성이 높으면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효율성이 낮으면 거래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 ① 의결정족수를 단순과반수에서 만장일치로 바꾸면 효율성이 낮아지고 소수편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 ② 다수편향과 소수편향은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수편향과 소수편향이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 ③ 거래비용과 순응비용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높아지면 순응비용도 높아진다.
- ④ 민주성과 효율성은 반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민주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증대될 수는 없다.
- ⑤ 소수편향이 소수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다수편향에 비해 순응비용을 더 적게 발생시킬 것이다.

10. 다음은 조선 숙종 때 박수하와 박경여 집안 사이에 벌어졌던 산송(山訟: 뭇자리를 둘러싼 다툼)에 관한 자료이다. (가)와 (나)가 모두 어느 한쪽에 편향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두 지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가) 성주 안핵어사(按覈御史) 홍치중(洪致中)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처음에 성주사람 박수하(朴壽河)가 대구사람인 청안현감(淸安縣監) 박경여(朴慶餘)와 더불어 조상의 뭇자리를 두고 다투었는데, 박경여가 승소하여 뭇자리를 쓰게 되었다. 몇 년 뒤 박경여의 집에서 묘도(墓道)를 닦으려 하자 박수하가 금지하고 막으니, 박경여가 소장(訴狀)을 올려 영문(營門)에 호소하였다. 경상도관찰사 이의현(李宜顯)이 해당 고을로 하여금 사핵(查覈)하여 처리하게 하였는데, 박수하가 공사(供辭)에다 박경여와 인척인 이의현이 박경여를 두둔한다고 하였다. 사실 박경여가 이의현의 족숙(族叔) 이세최(李世最)의 자부(姊夫)이기는 하나, 윤휴(尹鑄)·허목(許穆)과 같은 남인에 속한 그를 노론인 이의현이 두둔할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한 것은 이의현을 헐박하여 송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의현이 법에 의거하여 박수하를 형문(刑問)하였는데, 박수하가 한 차례 형문에 죽어버렸다. 그러자 박수하의 일가친척이 역군(役軍)을 동원하여 박경여의 아버지 묘에 가서 관(棺)을 파내어 시체를 베고 불살랐다. 또 박경여의 집안에서 저지할 것을 두려워하여 박수하의 딸 문랑(文娘)으로 하여금 함께 가도록 했다. 박경여는 이때 청안현(淸安縣) 임소(任所)에 있었는데, 그 친족과 노복(奴僕)들도 또한 몽둥이와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가 서로 싸웠다. 그러다가 박경여의 친족 박취휘(朴就徽)가 피살되었는데, 박수하의 친족들이 시체를 감추고 내놓지 않자, 박경여의 집안과 박취휘의 아들이 모두 소장을 올려 치죄(治罪)를 청하였다. 국법에 묘를 파고 사람을 죽인 자는 모두 사죄(死罪)에 해당하므로, 박수하의 친족들은 장차 사형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박수하 측에서는 문랑(文娘)을 자결하게 하고 “박경여의 친족들이 원한을 갚기 위해 죽었다. 그리고 박취휘가 죽었다고 거짓으로 말하는데 그 아들이 박경여의 핏에 받아 아버지가 피살되었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숙종실록」

(나) 관찰사가 박수하를 형문하였는데 인척이어서 박경여의 편을 들었다. 박수하가 관찰사의 사사로움을 밝히자 관찰사는 화가 나서 성산까지 달려와 박수하를 가혹하게 매질하였다. 형문이 끝난 뒤 차꼬를 채워 옥에 가두니 이레 만에 박수하는 죽고 말았다. 박수하의 맏딸이 듣고 기절하였다가 한참 뒤에 소생하여 통곡하며 말하기를 “여자로 태어나 멀리 달려가 원수를 찌르지 못하는 것이 한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며 도끼를 잡고 나가서 집안의 비복 몇몇을 따라 바로 박경여의 묘소로 올라갔다. 그리고 묘를 몸소 파헤치자 열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물불을 모두 사용하고 철목으로 마구 내리치자 박경여의 조상 시신은 금방 불에 타버렸는데, 박경여도 어찌지 못했다. 맏딸은 울면서 관아에 하소연하고 머리로 문을 두들겼으나 관아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이레가 지나서 박경여는 칼과 창을 든 수백 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조상의 묘를 살폈다. 박수하의 맏딸은 몸을 빼쳐 일어나며 칼을 잡고 말을 달려 적 가운데로 뛰어 들어갔다. 박경여의 무리가 떠들썩하게 지껄이면서 여러 몽둥이로 맞서 두들기니 그 맏딸이 죽었다. - 「박효랑전」

- ① 박수하는 이의현이 형문하는 중에 죽었다.
- ② 박수하의 딸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박경여 집안사람들과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
- ③ 박수하의 딸은 박경여 집안사람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
- ④ 박수하 집안에서 박경여의 조상 시신을 훼손하였다.
- ⑤ 박취휘는 박경여와 박수하 집안사람들이 싸우는 와중에 죽었다.

11. 다음 논증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 보충해야 하는 전제는?

종교는 초월적인 신을 믿고, 이를 통해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동물들이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 의식의 결과로 유적을 남긴 경우는 없다. 인간이 동물들과 달리 종교를 갖게 된 이유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자의식을 갖기 때문이다. 자의식이란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의식이다. 그리고 오직 자의식을 가진 존재만이 자기 자신을 객체화 혹은 대상화할 수 있다. 자신을 객체화 혹은 대상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오직 인간만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 즉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한계, 유한성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동물에게는 이러한 인지능력이 없다. 동물은 죽을 때가 되면 직감할 뿐이다. 그래서 닭장 속에서 닭을 매일 한 마리씩 꺼내다 삼계탕을 해먹어도 다른 닭들은 아무 공포도 느끼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객체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신을 믿고, 종교를 갖게 된 것이다.

- ①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는 종교를 가질 수 없다.
- ②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존재는 유한성을 극복하기를 원한다.
- ③ 인간이 유한한 이유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다.
- ④ 동물들은 자신들을 객체화 혹은 대상화할 수 없다.
- ⑤ 동물이 자신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다음은 연명치료에 대한 글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나)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그 진료 내지 치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행사될 수 있어도 이미 환자의 신체에 삽입, 장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환자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 연장하기 위한 생명유지장치의 삽입 또는 장착을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환자의 결정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의료인은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인 가치평가를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명시적인 선택에 후견적으로 간섭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미 생명유지장치가 삽입 또는 장착되어 있는 환자로부터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그 장치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의 현재 상태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여 사망을 초래하거나 사망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므로, 이미 삽입 또는 장착되어 있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장치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라는 환자의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살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자살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생명유지장치가 삽입,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몇 시간 또는 며칠 내와 같이 비교적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였고 생명유지장치에 의한 치료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생명의 유지, 보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① (가)는 연명치료와 관련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만, (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유지장치의 삽입과 장착을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 ③ (가)에 의해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나)에 의해서도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가)와 (나)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환자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⑤ (가)와 (나)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

15. 국제회의의 참석 대상국은 A~F국이다. 각국은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들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글을 토대로 반드시 참인 것은?

- A, B, C국은 서로 경제동맹국이다.
- E, F국은 최근에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 A, D, F국은 동일한 종교를 국교로 하고 있다.
- 경제동맹국 중 적어도 한 국가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다.
- 영토분쟁을 겪은 국가 중 한 국가만이 참석한다.
- A, D, F국은 자신 외에 동일한 종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가 한 국가 이상 참석해야 회의에 참석한다.
- C국이 참석하면 F국이 참석한다.
- B국이 참석하면 E국이 참석한다.
-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A국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최대 세 국가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② E국이 참석하고 B국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D국은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F국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세 국가가 회의에 참석한다.
- ④ E국이 참석하지 않으면 C국이 참석하지 않는다.
- ⑤ C국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A국은 참석한다.

16. 다음 글을 읽고 (가)~(라)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삼십육계는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중국인들의 지혜로서 전쟁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서른여섯 가지의 지략(智略)을 말한다. 다음 (가)~(라)는 삼십육계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 (가) 차시환혼(借屍還魂)이란 ‘남의 육체를 빌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뜻으로, 자신이 한 번 실패한 후에 어떤 다른 힘을 빌리거나 이용하여 재기한다는 의미이다. 군사적인 면에서 이것은 쓸모없거나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되었던 군용물, 지리적 여건, 환경 등을 변모시켜 아군에게 유리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나) 가치부전(假痴不癡)이란 거짓으로 적의 예봉을 피하려고 일부러 미친 척 또는 바보처럼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속내를 은폐하고 상대의 경계심을 늦추게 한 후 기회를 틈타 행동을 취하는 계책이다.
- (다) 격안관화(隔岸觀火)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는 뜻으로 적의 진영에 내분이 일어나면 적이 무너지거나 쓰러질 때까지 기회를 살피며 기다리는 관망의 전술을 의미한다.
- (라) 이대도강(李代桃僵)이란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 대신 벌레들에게 잡아 먹혀 죽듯이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라는 의미이며, 나의 살을 내주고 적의 뼈를 취하는 전략과 비슷하다.

<보 기>

- ㄱ. 마오쩌둥은 1930년대에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가 일본의 침략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을 앞보고 공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장제스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마오쩌둥의 전략은 국민당 내부에서 분열을 유도하여 시안사변을 낳게 하였다. 시안사변으로 인하여 공산당과 국민당 간에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졌고, 장제스는 공산당에 대한 토벌전을 중지하고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마오쩌둥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공산당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공산당군인 홍군의 전력을 증강함으로써 일본의 항복 후 국민당군과 내전을 벌여 승리할 수 있었다.
- ㄴ. 신라군은 김유신의 지휘를 받는 5만의 병력이었으나, 황산벌에서 백제군 5천 결사대와와의 4차례에 걸친 전투에서 연패하여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김유신의 동생이자 김흠춘 장군의 아들인 화랑 반굴이 단신으로 적진으로 뛰어 들어 싸우다 전사하였다. 뒤이어 김품일 장군의 아들인 화랑 관창이 나서 단신으로 백제의 진영으로 나아가 싸우다가 백제군에게 사로잡혔다. 계백 장군은 관창을 살려 신라군 진영으로 돌려보냈으나 관창이 다시 백제군 진영으로 돌진해오자 이번에는 관창의 목을 베어 그가 타고 온 말 안장에 매달아 돌려보냈다. 그러자 신라군은 화랑 반굴과 관창의 장렬한 죽음에 분기탱천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백제군을 공격하였으며, 계백 장군의 5천 결사대는 패하여 전원 전사하고 말았다.
- ㄷ. 중국 초나라 장왕은 그가 왕으로 즉위했던 당시에는 대부 투초의 견제를 받아 왕권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불안하였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성색(性色)에 빠진 것처럼 굴며 궁녀들과

음탕한 짓을 벌이고, 궁문에 ‘나라가 평안하니 과인은 많은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명예를 탐내어 간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는 포고문을 걸도록 하였다. 이렇게 3년 간 왕권을 겨우 유지했던 장왕은 어느 날 마치 맹호가 눈을 뜬 것처럼 탐관오리를 엄벌하고, 그동안 눈여겨 보아두었던 오거등 충신들에게 국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롭게 능력 있는 대신들을 중용하는 한편, 수백 명의 간신을 신속하게 제거해버렸다. 장왕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대신들의 지지 하에 자신을 견제했던 투씨 일족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춘추오패의 반열에 오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ㄹ. 한국전쟁 시 낙동강까지 밀렸던 국군과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진하였으나, 중국군의 개입과 연속된 두 차례의 공세로 다시 철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유엔군이 북한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때 북한지역에 있던 많은 애국청년들이 동해와 서해상의 인근 섬들로 대피하였다. 당시 북한군과 중국군은 해군과 공군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지상전에서 국군과 유엔군과의 치열한 전투로 인해, 동해와 서해상의 섬들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어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와 서해의 섬으로 대피한 애국청년들은 야간에 육지로 상륙하여 공산군 후방의 주요시설을 수시로 공격함으로써 북한군의 후방을 교란하였다. 북한지역 도서에서의 반공청년들의 활동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유엔군사령부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고 미군과 국군의 유격부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조직적인 유격부대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과 중국군은 해안 및 후방지역 방어에 상당한 병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한국전쟁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 ① (가) - ㄹ, (나) - ㄱ
- ② (가) - ㄷ, (다) - ㄱ
- ③ (나) - ㄷ, (다) - ㄹ
- ④ (나) - ㄷ, (라) - ㄴ
- ⑤ (다) - ㄹ, (라) - ㄴ

17.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유럽인들이 이주해오기 전까지 남아프리카는 오랜 세월 부시맨이라 불리는 코이산(Khoisan)족의 삶의 터전이었다.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는 코이산족은 뒤늦게 남하해온 반투(bantu)계 농경·유목 부족들과 함께 이 지역을 지켜온 원주민들이었다. 1652년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인도 항로의 중간 정박기지를 세우기 위해 10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하면서 케이프타운에 처음으로 백인 정착촌이 만들어졌다. 1657년에는 최초의 자발적인 이주자들이 자리를 잡았고, 1688~1689년에는 프랑스의 위그노 200여 가족이 종교 탄압을 피해 이주해 왔다. 백인 이주자들은 농업과 목축에 종사하면서 스스로를 ‘보어(Boer, 네덜란드어로 농부)’ 또는 아프리카너(Afrikaner)라고 불렀다.

1814년 영국은 두 차례 케이프타운을 점령한 끝에 정식으로 자국 식민지로 편입했다. 이때부터 보어인과 영국계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케이프타운의 공용어는 영어로 바뀌었고, 1820년 영국 최초의 이민자가 케이프타운에 진입했다. 영국인들의 통치에 반발한 보어인들은 케이프타운을 떠나 북방의 내륙지방으로 집단 이동하는 ‘그레이트 트렉’을 결행하였고, 그 결과 1839년 ‘나탈 공화국’, 1852년 ‘오렌지 자유국’, 1854년 ‘트란스발 공화국’ 등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두 차례의 보어전쟁에서 승리하여, 1910년 대영제국의 자치 식민지인 ‘남아프리카연방’을 출범시켰다.

남아프리카연방의 헌법은 국민의 79%를 차지하는 흑인을 비롯해 혼혈인, 아시아인 등 비백인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고 인구의 9.6%를 차지하는 백인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남아프리카연방에서 백인 다수파는 영국계가 아니라 보어인 주축의 아프리카너들이었다. 유권자의 60%를 차지하는 이들은 강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늘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1911년 첫 선거에서 승리한 남아프리카당을 비롯, 1948년 이후 1994년까지 장기 집권한 국민당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장악한 것은 늘 보어계 정당이었다. 권력을 독점한 아프리카너들은 백인들의 정치·경제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입법조치를 단행했다.

1913년 남아프리카당 정권은 흑인들의 토지 소유를 전국 토지의 10%로 제한하는 ‘원주민 토지법’을 제정해 본격적인 흑백 차별 정책에 시동을 걸었고, 이는 1970년대 이후까지 이어졌다. 1924년에는 국민당이 집권해 공용어를 보어인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스(Afrikaans)어로 변경했고, 다른 인종간의 연애를 금지시킨 ‘풍기문란법’(1927)을 제정했다. 1948년에 정부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의 실행에 착수했다. 이를 위한 각종 제도적·법적 장치들이 강구되었는데, 전국민을 인종별로 분류하는 ‘인구등록법’(1950), 인종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구분한 ‘시설분리법’(1953)이 대표적인 예였다. 1958년에는 흑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던 ‘통행법’을 더욱 강화해 흑인들은 신분증명서 없이는 백인 지구 출입 및 체류, 도시 거주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1951년부터 유색인종의 일반적 투표권을 박탈하는 인종별 분리 투표제를 추진해 통과시켰다. 1960년대에는 ‘분리에 의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국토를 백인 지구(87%)와 흑인 지구(13%)로 양분해, 흑인들의 거주 지역을 제한하였다.

- ① 아프리카너(Afrikaner)는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영국인 등 백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아프리칸스(Afrikaans)어를 사용했다.
- ② 보어전쟁은 남아프리카의 원주민과 이주해 온 백인 간의 전쟁이었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자치 식민지인 ‘남아프리카연방’을 수립하였다.
- ③ 20세기 초 남아프리카연방의 인구에서 흑인을 제외한 혼혈인, 아시아인 등 비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 ④ 남아프리카당 정권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을 추진하여 흑인과 백인 간의 분리를 강화하였다.
- ⑤ 1960년대에 전체 토지 중 흑인 인구가 소유한 토지는 10% 이하였을 것이다.

2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606년(선조 39년) 1월, 대마도에서 파견한 굴지정이 부산에 도착하여 통역관 박대근과 회담하였다. 굴지정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화친을 요구하며 화친하지 않을 경우 임진왜란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협박하였는데, 화친의 표시로 조선이 먼저 일본 본토에 정식 사절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의 내부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 정식 사절 대신 예조의 실무 관료를 대마도에 파견하기로 하고, 박대근으로 하여금 굴지정과 담판하도록 하였다. 8월 12일 박대근과 굴지정의 담판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굴지정: 전쟁이 끝나고 몇 년 동안 조선은 화친을 결정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대마도에 실무 관료만 파견한다면 일본 본토에서는 분명 ‘조선이 또 화친을 지연하면서 일본을 우롱하는데 이것은 대마도가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이다’라며 대마도 도주에게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후환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화친하고자 하면 화친하고, 안하겠다고 하면 안한다고 한마디로 결단해야 합니다.

박대근: 그대는 덕천가강(德川家康, 도쿠가와 이에야스)이 일본 본토의 국정을 장악했다고 말하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가 없기에 실무 관료 한 사람을 보내 귀국의 사정을 조사한 후 조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양국의 화친에 대하여 매번 덕천가강을 핑계대지만, 일찍이 그는 공식적인 서신 한 장 보내오지 않았으니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국서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굴지정: 일이 눈앞에 닥쳐 날짜를 자꾸 미루면 큰 화가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식 사절 파견을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한지 이미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박대근: 대마도에서는 양국의 화친을 요구하기에만 급급하고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서 도리어 공갈 협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참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정말로 속히 화친을 맺고자 한다면 어찌하여 귀국한 후 덕천가강을 달래 화친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 국서를 보내고 또한 전쟁 중 선릉과 정릉을 도굴한 범인을 잡아서 보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굴지정: 이 두 가지 일은 모두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거듭하여 어려운 일을 말씀 하시니, 이는 제가 감히 행할 수 없는 일인 줄 알고 이것을 핑계로 삼아 화친을 지연하려는 계책일 것입니다.

박대근: 지난번에 만나 말할 때는 형세를 살펴보고 조치하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굴지정: 이 일에 대해 듣고 난 후, 밤낮으로 생각해 보았지만 진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어서, 제 마음대로 본토의 정세를 헤아려 귀국이 파견하겠다는 실무 관료를 거부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귀국이 요청하는 선릉과 정릉의 도굴범을 체포해 보내겠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속히 대마도로 돌아가 도주와 함께 본토의 정세를 탐문한 다음 혹시라도 기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귀국은 정식 사절을 하루도 늦추지 말고 파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덕천가강에게서 국서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 기>

- ㄱ. 굴지정과 박대근은 조선과 일본의 화친이 지연되는 원인이 상대국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 ㄴ. 조선과 일본의 화친은 대마도보다 일본 본토에서 더 원하였다.
- ㄷ. 덕천가강은 조선의 화친 지연을 구실로 조선침략을 추진하였다.
- ㄹ. 굴지정에 따르면 박대근이 요구한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이루어질 가능성은 적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는 아테네와 그 시민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폴리스와 그 정체(政體)는 스파르타와 부자정(父子政)이었다. 초기 스파르타인의 정착촌에 두 명의 세습 왕이 지배하는 부자정이 수립됐다. 그 두 왕은 정책결정에서 무제한의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스파르타의 정체를 군주정으로 볼 수는 없다. 전쟁이 터지면 그 중 한 사람이 지휘를 했고, 평화 시에는 왕의 권력이 제한됐다. 연회에서 왕의 음식은 다른 사람들의 두 배였고, 왕이 죽으면 국민 모두가 상복을 입었다. 원로원(gerousia)을 구성하는 30명 가운데 두 왕을 제외한 나머지 28명은 60세 이상의 세습 엘리트였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했다. 원로원은 재판을 하고 정책을 수립했다.

자유민인 성인 남성으로 구성되는 민회는 원로원이 제출한 정책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민회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원로원이 정책안을 철회할 권리를 갖고 있었기에 민회는 제출된 정책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원로원은 일단 철회한 정책도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게 되면 다시 제출했다. 5명의 행정관(ephoros)은 민회에서 추천으로 선출됐다. 왕은 매월 법에 대한 지지를 서약했는데, 행정관은 왕이 서약을 지키는 한 지지한다고 서약했다. 왕이 전쟁에 나가면 5명의 장관이 따라가서 왕을 감시했다. 행정관은 대법원을 구성했고, 왕에 대한 사법권도 보유했다.

스파르타에서는 엘리트, 시민, 천민이 철저히 구분됐다. 토지는 엘리트와 시민에게만 분배됐지만, 농사는 그들에게는 금지되고 천민에게만 허용됐다. 농사는 시민(엘리트와 평민)을 타락시키며, 시민은 오로지 전쟁에 복무하기 위해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에 의해 상속된 토지나 노예의 매매는 금지됐고, 노예는 각각 어느 한 토지에 예속됐다. 노예는 지주에게 매년 약 20가마니를 바쳤고, 지주에게 아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내 몫으로 3가마니 정도를 더 바쳤다. 이와 같은 스파르타의 계급구분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그대로 반영됐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노예는 시민보다 그 수가 훨씬 많았다. 노예가 자주 반역을 피하자 시민이 비밀경찰을 두고 1년에 1회씩 ‘노예에 대한 전쟁’을 벌여 반항하는 노예 청년을 합법적으로 죽였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특별히 용감하게 싸운 노예는 국가에 의해 해방됐으나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방된 노예는 극히 드물었고, 시민에게는 노예를 해방시킬 권한이 없었다.

그리스의 엘리트와 시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 여자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국가가 그 여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허용했다.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에서 이를 두고 좋은 땅을 찾아 씨를 뿌리는 것, 좋은 씨를 찾아 가축의 새끼를 얻는 것과 같다고 했다. 남녀 공히 동성애가 허용됐고, 사춘기 교육에도 동성애가 포함됐다. 소년의 신임도는 동성애 관계의 상대 소년이 하는 행위에 따라 판정됐다. 소년이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울면 비겁하다는 이유로 그 소년의 동성애 상대가 처벌받기도 했다.

- ① 민회는 원로원이 제출한 정책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기에 정책안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② 스파르타의 원로원은 60세 이상의 세습 엘리트로만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했다.
- ③ 스파르타에서 농사는 오로지 천민에게만 허용되었다.
- ④ 고대 그리스의 시민에게는 노예를 합법적으로 죽이거나 해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 ⑤ 고대 그리스에서는 혼외자 간의 성관계는 허용되었지만, 동성애는 금지되었다.

2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대중문화’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조선일보』 1933년 4월 29일자 사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대중문화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대중문화와는 큰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대중문화는 경제개발의 구호 아래 농촌이 해체되고 도시가 커지면서 교통, 통신, 교육, 대중매체 등이 발달하기 시작한 60년대부터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60년엔 전체 인구의 약 60%가 농촌에 산 반면에 1970년엔 약 50%가 농촌에 살았고 1976년엔 그 비율이 완전히 역전돼 약 60%가 도시에 살게 되었다.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은 90년대에 이르러 80%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도시화율의 증가 추세를 대중문화의 성장 추세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대중문화가 곧 ‘대중매체의 문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중문화 발전이 절대적으로 대중매체에 의존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회, 정치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었다.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경제 발전을 국가의 제1이념으로 삼고 다른 부문의 발전을 상대적으로 억눌렀다. 그런데 이러한 권위주의적 통제는 국민의 정치적 불만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었다. 게다가 사회 분위기가 억압적일수록 긴장을 풀어줄 오락과 유흥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애초 정통성에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군사정권은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 해줄 수단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군사정권이 찾아낸 가장 돈이 덜 드는 해결책이 바로 문화적 대안이라 할 대중매체의 집중 육성이었다. 물론 대중매체를 정치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목적도 거기에 덧붙여졌다.

- ① 대중문화의 성장은 도시화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 ② 5·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대중문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
- ③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발전은 대중매체에 크게 영향 받았다.
- ④ 권위주의적 통제 하에서 오락과 유흥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국민의 불만과 저항이라는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 ⑤ 대중문화의 융성은 경제 발전과 함께 군사 정권이 설정한 이념이고 목표였다.

23.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정신분석은 프로이트가 시작한 정신과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정신분석가가 환자와 대화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을 환자에게 알려주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정신분석에는 크게 두 가지 가정이 있다. 첫째는 한 사람이 현재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행동, 사고, 감정 등을 연결시킬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식'으로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무의식'으로는 설명하기 쉽다는 것이다. 의식은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부분일 뿐이며, 무의식이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과거와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분석가는 환자가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자유롭게 얘기하도록 하여 그의 무의식을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무의식의 내용이 보통은 가볍고 편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 도중에도 환자는 '저항'하며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하지 않으려 한다. 환자는 저항하면서 옛 것 또는 정신질환 속에 안주하려 하기 때문에 치료를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무의식적 소망'을 이룰 수 없을 경우, 그 소망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를 '전이'라고 한다. 정신분석은 이것들을 찾아내고, 무의식이 아닌 의식에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다. 정신분석은 사회가 강요하는 의무나 가치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기를 권하는데, 이로 인해 이 이론이 전개될 당시 보수적인 계층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도 했다.

정신분석을 통해 무의식을 다 알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깨달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으며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다. 다만 분석가는 환자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즉, 환자가 자신을 인정하고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아의 힘을 길러주고자 한다.

- ① 정신분석의 가정에 따르면 한 사람의 현재 행동은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무의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 ② 정신분석은 환자들이 자신의 무의식에서 무의식적 소망을 인정하고 포기해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다.
- ③ 정신분석이 이론 전개 당시 모든 계층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다.
- ④ 자신의 무의식을 다 알게 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환자가 자신의 무의식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경우 정신분석 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한(無限)이라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람들의 믿음은 다섯 가지에 근거해서 추론된다. 첫째, 그 믿음은 시간에 근거한다. 둘째, 크기의 분할에 근거한다. 셋째, 오직 무한이 존재할 때만 생성 및 소멸 현상이 소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생성하는 것을 그로부터 빼내게 될 어떤 무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한계 지워진 것은 항상 어떤 것에 상대해서 어떤 한계에 도달하고 또 상대자 역할을 하는 이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에 상대해서 한계에 도달하기에, 한계 자체는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우주 바깥의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소진하지 않기에 우주 바깥의 것은 무한하다는 것이다. 왜 하필 허공의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 물체가 있는가? 덩어리를 가진 물체가 한 장소에 있다면 그런 물체는 모든 곳에 있는 것이다. 또한, 무한한 허공이 있고 무한한 장소가 있는 한, 무한한 물체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영원한 것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가능성과 실제로 그러한 현실성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① 넷째 근거만 '무한'이라는 말을 '한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나머지 근거들은 모두 그 말을 '무한히 큰 것' 혹은 '무한히 작은 것'으로 해석한다.
- ② 첫째 근거는 "어떤 시점 T_n 에 대해서도 항상 그 이후 시점인 T_{n+1} 이 존재한다."로, 둘째 근거는 "어떤 크기 S 에 대해서도 항상 그보다 작은 크기인 S^{-1} 이 존재한다."로 분석할 수 있다.
- ③ 셋째 근거는 '무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성 및 소멸현상이 소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며, 이때 '무한'은 고갈되지 않는 원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넷째 근거는 "물리적 사물 a, b, c ... 가 있을 때 그리고 a옆에는 b가 붙어있고 b옆에는 c가 붙어있고 c옆에는 ... 일 때, a의 한계는 b에 의해 결정되고, b의 한계는 c에 의해 결정되고, c의 한계는 ... 이라서, 자신의 한계를 결정하는 상대자를 갖지 않는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계를 결정해주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분석된다.
- ⑤ 다섯째 근거는 영원한 것들에 있어서 가능성과 현실성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2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울증과 슬픔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듯 보인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환경의 영향에 따른 자극 요인이 두 조건에 모두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슬픔은 보통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대신 들어선 어떤 추상적인 것, 즉 조국, 자유, 어떤 이상 등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종류의 상실감이 슬픔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럴 경우 우리는 그들에게는 어떤 병리적인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비록 슬픔이 삶에 대한 정상적인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어떤 병리적인 상황도 아니며,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그 상황이 극복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슬픔의 감정에 간섭하고 끼어드는 일은 무익한 행위이며, 심지어 해로운 행위로까지 보는 것이다.

반면에 우울증의 특징은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낙심,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모든 행동의 억제,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자기비하감을 느끼면서 급기야는 자신을 누가 처벌해 주었으면 하는 징벌에 대한 망상적 기대를 갖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우울증의 상황은 우리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특징들이 다 슬픔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예외란 바로 슬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자애심(自愛心)의 추락이다.

- ①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기비하감을 느낀다는 것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이 강했음을 반증한다.
- ② 사랑하는 대상이 상실되었을 때 유발되는 슬픔은 어떤 병리적인 상황이 아니며 치료가 요구되는 상황도 아니다.
- ③ 우울증은 상실에 대한 일반적 반응 이상의 심리적인 고통을 수반한다.
- ④ 일제시대에 조국의 침탈에 대한 반응은 이 글에서 설명하는 슬픔의 감정일 수 있다.
- ⑤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떠난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암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이상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의학에서 사용되는 표적 치료제들은 대부분 이러한 유전자에서 나온 특정 단백질을 공격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폐암이나 대장암에서 발견되는 EGFR이라는 세포 성장에 관련되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 유전자에서 나온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얼비투스’나 ‘이레사’와 같은 약을 사용한다. 유방암에서 많이 발견되는 HER2라는 유전자 이상은 이를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허셉틴’과 같은 약을 사용하게 된다.

이 EGFR과 HER2는 모두 세포성장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유전자로 그 기능이 잘 밝혀져 있고, 현재 암 치료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항암 표적 중 하나이다. 이러한 EGFR 혹은 HER2가 만약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스위치’를 선택적으로 끌 수 있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EGFR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HER2 저해제를 투여하거나, 반대로 HER2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EGFR 저해제를 투여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즉 표적 치료는 환자에게 이상이 있는 유전자가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이 특정 환자의 암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원인인 유전 변이를 선택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를 줄이고 질병 진행을 늦추는 등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암 환자마다 암을 유발한 유전자와 유전 변이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어떤 암 환자는 A라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암이 발병했을 수 있고, 또 다른 암 환자는 B라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 암이 발병했을 수 있다.

즉 같은 장기에 발생한 암이라고 해도 유전적인 원인은 각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유방암 환자가 있다고 하자. 똑같이 유방에 생긴 암이라도, 그 암이 발생한 유전적인 원인과 그에 따른 발병 메커니즘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 ① EGFR과 HER2는 표적 치료제이다.
- ② EGFR이라는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경우 세포가 자라지 못한다.
- ③ 정확히 대장암으로 진단되는 것만으로 EGFR 저해제의 항암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
- ④ 얼비투스와 이레사는 이상이 있는 유전자를 직접 공격하는 항암제이다.
- ⑤ 환자의 유전자에 대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표적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27. 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유재산제도의 기본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노동을 통해 생산한 것과 절제에 의해 축적한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지구의 천연 물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토지의 생산력은 사람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자연의 선물을 개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제도는 부정의의 극치가 된다.

(나) 법학자들 중에는 소시민의 토지보유는 정당하지만 도가 넘는 토지보유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규모로 보유되는 토지는 인격과 자유의 실현에 필수적 기반이 되지만, 도를 지나치면 본인의 인격이나 생존, 자유의 실현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타인의 자유의 실현을 방해한다는 논리를 편다. 필자는 대토지의 소유가 타인의 자유와 인격실현을 억압한다는 논리에 수긍하기 어렵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주거 목적으로 수천 수만 평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토지의 보유자들은 자기 주거용 이외의 토지를 임대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하거나 또는 생산, 유통, 업무 시설로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사익을 위해 당해 토지가 이용되겠지만, 그 토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재화나 용역이 자발적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한 당해 토지는 소비자들의 인격이나 자유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 주택과 대지는 다 같이 소유의 대상으로서 ‘재산’이고 법적으로는 다 같은 ‘부동산’에 속한다. 그러나 이 둘은 성격이나 상호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다르다. ‘주택’은 인간의 노동에 의해 생산되며 정치경제학 상 ‘부(富)’의 범주에 속하지만, ‘대지’는 자연의 일부이며 정치경제학 상 ‘토지’의 범주에 속한다. ‘부’의 본질적 속성은 ‘노동’의 결과라는 점, 인간의 ‘노력’에 의해 생긴다는 점, 그리고 그 존재와 비존재 및 증가와 감소는 인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반면, ‘토지’의 본질적 성격은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는 물론 ‘인간 자체’와도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토지’는 인간이 존재하는 터전이자 환경이고,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는 창고이며, 노동에 필수불가결한 원료이자 힘이다. 이러한 구분이 이해된다면, 자연적 정의는 ‘부’의 사유를 인정하지만 ‘토지’의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될 수 있다.

- ① (가)로부터 토지의 잉여가치는 자연의 선물이기에 개인의 소유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토지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며 타인을 그것의 향유에서 배제하는 일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입장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나)에서는 토지의 과도한 소유가 비소유자의 자유와 인격실현을 억압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 ③ (나)에는 ‘토지를 이용하여 각종 재화와 용역이 창출되며, 소비자는 자발적 거래를 통해 이러한 재화와 용역으로부터 자유와 인격을 실현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④ (다)는 결국 ‘인간노동의 결과가 아닌 토지는 공유재로 간주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토지의 사유에 따른 불로소득은 정당한가?’에 관해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각각 표명하고 있다.

28. 다음 전제들로부터 밑줄 친 결론이 도출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할 전제는?

A당에서는 최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이 알려졌다. 우선 갑, 을, 병 의원 모두가 최고위원들로 선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갑 의원이 선출되지 않는다면, 정 의원이 선출된다. 또한 무 의원이 선출될 경우에만, 정 의원이 선출되는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무 의원이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들 사이에서 정 의원보다 더 나은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무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 의원이 최근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러한 사건에 연루된 의원은 최고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건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을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① 갑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 ② 병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 ③ 정 의원은 비리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 ④ 정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지 않는다.
- ⑤ 무 의원이 갑 의원보다 당원들 사이에서 더 나은 지지를 받는다.

29.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길례는 현왕이 선대왕에게 제사를 드려, 왕권의 안정적 계승과 왕위의 정통성을 과시하려 한 국가의 으뜸되는 전례이다.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조선 왕실은 오래로서 예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예제를 중시한 조선에서는 역대 국왕과 왕비의 위패를 종묘에 모셔 국가적 제사로 봉행하였다. 조선시대에 유교적 예제를 확립하고자 왕조 정부는 국가 전례서를 펴내어 오래와 향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아울러 시기에 따른 역사적인 변용을 수용하고 오래 운영을 더욱 완벽하게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 나갔다. 조선 전기에는 「국조오례의」를, 조선 후기에는 「국조속오례의」와 「국조속오례의보」, 「춘관통고」 및 「대한예전」을 편찬하였다. 「국조오례의」에는 예제의 순서가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흥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오래와 향목의 편차에 있어 중국의 예서는 이와 다르다. 「주례」에는 길례, 흥례, 군례, 빈례, 가례의 순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진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송사」에는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흥례의 순서로 되어 있다.

조선은 1392년 건국하자마자 개성에 있는 고려의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새 왕조의 종묘를 새로 지었다. 그러나 1394년 8월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자 궁궐을 중심으로 좌묘우사(左廟右社)의 원칙에 맞춰 경복궁의 동쪽에 종묘, 서쪽에 토지신(土地神)과 곡신(穀神)에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社稷壇)을 세움으로서, 고려시대에 종묘와 사직이 도성 밖에 있었던 것과 확실히 다른 유교 중심의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였다.

조선 전기 국가 제례는 태종대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었는데, 1412년에 고려의 예에 의해 여러 제사들을 대종소사(大中小祀)로 구분하고 각종 제사의 시행절차를 제정하였다. 이후 세종대에는 집현전을 중심으로 옛 제도를 연구하여 국가 제사를 더욱 체계화시켰고, 이후 보완작업을 거쳐 1475년에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국조오례의」의 길례에는 종묘사직이나 산천 및 국가의 제사의식과 농사에 관한 것, 그리고 관료나 일반 백성의 시향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국가 제사를 위한 전례가 정비되면서 고려시대와 여러 면에서 다른 유교적 예제로 바뀌었다. 중국에 대해 제후국을 자처한 조선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원구제가 폐지되고 사직에 대한 제사가 최고의 지위로 올라가고 조선 왕실의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종묘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또한 산천신과 역대 시조묘에 대한 제사가 추가되어 단군이나 삼국시조 및 고려시조가 역대 시조로서 대종소사 중 중사에 편입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많은 제사시설이 훼손되었는데, 복구된 것은 종묘와 사직 등 중요한 시설에 불과하여 국가의 제사를 지내는 체계가 약간 달라졌다. 반면, 임진왜란을 계기로 새로 생겨난 제사들이 국가의 사전에 편입되기도 하였다. 이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숙종대 흥년과 기근으로 인해 대사에 편입된 사직단의 기곡제였다. 또한, 명나라 군사의 참전으로 명나라 군사들이 군신(軍神)으로 추앙하는 관우에 대해 제사를 지내던 것에서 유래하여 관왕묘(關王廟)가 소사로 편입되었다. 이처럼 2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사회의 변동이 많아지면서 수정과 보완을 위해 1744년 「국조속오례의」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 후기의 길례는 종묘와 사직에 대한 제사가 주가 되었고, 기타 많은 종류의 중사와 소사가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 ① 조선 전기에는 오례의 편찬을 확립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명나라의 영향으로 국가적 제사의 종류에 변동이 생기기도 하였다.
- ②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강조하여 종묘와 사직의 배치를 고려 시대와 다르게 하고 조선 이전의 시조에 대한 제사의식은 수용하지 않았다.
- ③ 조선은 유교적 이념에 바탕을 둔 일련의 전례서 개편과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의 의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행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된 집권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 ④ 조선 왕실에서는 왕실의 조상신에 대한 제사보다 토지신과 곡신에 대한 제사가 더욱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 ⑤ 조선 후기의 대사에는 기곡제가, 소사에는 관왕묘가 포함되었다.

30.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1910년 이후 식민지 조선에 남은 유교는 개인의 생활과 가족관계 및 비정치적 영역의 사회관계를 매개하는 사교·윤리·관습이 그 잔여량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었다. 중국의 경우는 이와 달리 신해혁명의 결과적인 피탈과 정치·사회적 보수 회귀 과정에서 유교의 봉건적 지배이데올로기가 완강히 버티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위안스카이의 제제(帝制) 수립 책략 따위와 긴밀하게 호응하는 존공(尊孔) 운동 및 공교(孔敎) 국교론(國敎論)으로까지 반동적 이념 기능을 담당하였다.
- (나) 그러한 면모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그들이 처하였던 각각의 정치상황에서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광수는 국권 상실과 3·1운동 사이 즉 식민지 시대 초기 국면에 놓여 있었던데 비해 진독수는 신해혁명과 5·4운동 사이에 전개된 ‘암흑과의 투쟁’ 시대에 발 딛고 있었다. 이 시간 동안 두 나라에서 전개된 고통과 모색의 귀결이 1919년의 거국적 대폭발이라는 사실은 외형상 닮았지만, 그 하나는 식민지 해방투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전체 권력 체제를 타도하려는 반복벽(反復辟)·반제제(反帝制) 투쟁이었다.
- (다) 이러한 공통성과 근접성은 그들 사이의 크고 작은 차이와 더불어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적 생활사와 성격의 범주에 속하는 낙차(落差)는 일단 접어둔다 하더라도, 그들 각자가 처한 시대 상황과 정치·사회·문화적 제 조건의 역학 관계에 적지 않은 상위(相違)가 있었으며, 이는 곧 이념의 구조와 성격에 직접적 연관을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 (라) 유교적 관습·가치규범·제도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새로운 문학에의 이념을 긴밀하게 엮어낸 점에서 1910년대의 이광수와 진독수 사이에는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1919년의 3·1운동과 5·4운동으로 민족적 에너지의 대폭발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구문화(舊文化)에 대해 가장 전투적인 논객으로 활약하면서 당대의 새로운 이념 동향을 이끄는 데 기여한 점도 적지 않게 흡사하다. 두 사람 모두 일본에서 유학한 적이 있고 서구 근대문명의 진보성에 거의 전폭적인 긍정의 자세를 지녔었다는 사실도 당대에 흔한 일이지는 하지만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 (마)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당시의 국면에서 두 나라의 유교 이념·제도·윤리가 처했던 지위와 역할의 차이이다. 1910년대의 식민지 조선에서 유교는 더 이상 공적인 권위나 제도적 지배력을 가지는 사상체계가 아니었다. 공맹정주(孔孟程朱)와 의리(義理)·인의(仁義)를 영원한 가치로 숭앙하며 중세 체제의 상층부를 장악했던 세력이 국권 수호를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지불했다면 사정이 달랐겠지만,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살아남음으로써 정치·사회적 제도 원리로서의 유교는 죽었다.

- ① (가) - (라) - (나) - (다) - (마)
- ② (가) - (라) - (다) - (나) - (마)
- ③ (라) - (나) - (다) - (마) - (가)
- ④ (라) - (다) - (나) - (가) - (마)
- ⑤ (라) - (다) - (나) - (마) - (가)

31. 다음 글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불교 조각은 종교적인 예배 대상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기에 각 시대에 따른 도상과 양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불상의 경우, 명문이나 출토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우선 전체적인 형상과 신체 비례가 어떠한지를 본다. 이에 따라 불상이 어느 시대에 속하며, 어떤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인 6세기에는 중국 남북조(南北朝)의 영향을 받아 얼굴과 손이 몸에 비해 큰 편이며 길고 날씬한 신체 모습을 보여준다. 7세기부터는 점차 볼륨과 부피감이 늘어나고, 8세기의 통일신라시대에는 이상화된 신체 비례와 몸 각 부분의 유기적인 연결 등 인체 묘사에 관심을 두면서 양감이 강조된 불상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9세기 이후에는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 점차 재현성이 강한 불상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불상, 장식적이고 단아한 불상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양식의 고려시대 불상들이 등장하게 된다. 또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위축되면서 인체 표현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크기가 아담해지고 상체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머리와 신체 간의 비례가 짧고 고개를 약간 숙여 구부정하게 앉은 자세도 종종 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불상의 얼굴 표현이나 법의를 입는 착의법, 옷 주름의 표현, 손 모양 및 지물 등이 시대적 특징에 부합하는지를 본다. 특히 불상의 얼굴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특징적인 차이가 있어 쉽게 모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작을 가려낼 때 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 명문의 글씨체가 시기적으로 맞는지, 재료에 따라 부식 및 도금 상태가 적절한지, 풍화에 의한 마모인지, 조각 기법이 조약하지는 않은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불상의 진위를 판단한 다음, 시대별 양식에 의거하여 조성시기를 추정하게 된다.

시대별 불상 양식이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불상에 나타나는 공통된 불상 형식과 특징을 말한다. 즉, 앞 시기의 다양한 불상 양식을 수용하여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다른 시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적인 불상 양식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별 불상 양식이 모든 불상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불상은 대체로 경전상의 의례를 따르고 있어 도상적인 규범의 제약을 받기에 그만큼 보수적 경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가령, 근래에 제작된 불상의 경우 도상적으로는 고식(古式)의 불상 양식을 따르더라도 얼굴이나 법의의 착의법, 옷 주름 표현, 명문 등에서 서로 다른 시대적 특징이 나타나거나 조각 기법 및 재질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쉽게 모방작임을 알 수 있다.

금동불이나 철불과 같은 불상의 경우 감정할 때에는 불상의 양식이나 도상적 특징 외에 주조기법이나 재질, 세월에 의한 부식 및 녹 상태, 도금 상태, 표면에 남은 작업시의 마무리 흔적 등을 추가적으로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상의 무게 역시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일단 위작일 경우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부식되어 동(銅)성분이 일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진작의 불상보다는 무게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보 기>

- ㄱ. 나윤: 모든 불상은 앞 시기의 다양한 불상 양식을 수용하여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른 시대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 ㄴ. 효진: 고려시대 불상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불상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어.
- ㄷ. 민호: 불상의 조성시기를 판단하는 단계에 있다면 이미 진위 여부는 가려졌다고 볼 수 있겠어.
- ㄹ. 동훈: 불상의 명문이나 출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겠어.
- ㅁ. 다영: 철불을 감정하는 경우 석불보다 감정 단계가 복잡할 것 같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32.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카페를 점령하고 있는 에스프레소 커피는 곱게 분쇄한 원두를 고압의 뜨거운 물로 순간적으로 추출해서 얻어진다. 이 과정에서 원두 안의 지방과 단백질이 빠져나오면서 물과 뒤섞여 유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는 약간 걸쭉한 아주 짙은 갈색의 액체로 보인다. 액체를 확대해보면 작은 기름방울이 무수히 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진한 풍미를 더해주는 미세한 갈색 거품, 즉 크레마가 덮여있다. 유럽인,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진한 풍미의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하루의 에너지를 얻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운지 에스프레소를 베이스로 한 커피인 아메리카노나 카푸치노, 카페라떼를 즐겨 마신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무실에 커피메이커를 두고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 이런 드립커피의 맛은 아메리카노와 꽤 다르다. 브랜드커피에서는 대개 '오늘의 커피'로 불린다. 핸드드립커피는 커피메이커 대신에 사람이 내리는 것인데 드립커피의 노하우 역시 다양해서 똑같은 원두를 가지고도 누가 내리는가에 따라 풍미에 큰 차이를 보인다. 갈때기 모양의 필터 위에 분쇄한 원두를 넣고 주둥이가 얇은 주전자로 뜨거운 물을 살살 부어 내리는 핸드드립 방식은 커피향이 풍부하면서도 맛이 깔끔하다. 다만 이런 맛은 단점일 수 있는데, 종이 필터에 기름 성분이 걸러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 ① 기름 성분이 없어 에스프레소보다 맛이 깔끔하다는 말이다.
- ② 나에게게는 깔끔한 맛이 누군가에게는 빈약한 맛으로 느껴진다는 말이다.
- ③ 아메리카노와 비교했을 때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말이다.
- ④ 누가 내리는가에 따라 맛과 향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다.
- ⑤ 풍미가 뛰어나 유럽인보다 미국인들이 더 선호한다는 말이다.

3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암호로 옳은 것은?

과거 소련의 무선통신원 막스 클라우젠은 일본이 소련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암호표를 만들었다.

제1단계, 지하철에 해당하는 영어단어 SUBWAY, 이 여섯 개 철자를 나란히 쓰고 알파벳에 있는 나머지 철자를 그 밑에 순서대로 적는다. 그러면 네 줄이 더 생기는데, 마지막에는 ‘마침표(.)’와 ‘빗금(/)’을 더하여 아래 표를 완성한다.

| | | | | | |
|---|---|---|---|---|---|
| S | U | B | W | A | Y |
| C | D | E | F | G | H |
| | | | | | |
| | | | | | |
| | | | | | |

제2단계, 영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철자인 A, S, I, N, T, O, E, R에 숫자를 매긴다. 위에서 만든 표의 왼쪽 칸(세로줄) 맨 위에서 시작해 맨 아랫줄까지 이동하고, 다음은 오른쪽 옆 칸에서 똑같이 밑으로 움직인다. 이 과정에서 ‘ASINTOER’ 중 한 글자라도 출현하면 만나는 순서대로 글자 밑에 0부터 7까지의 수를 써 넣으면 된다.

제3단계, 나머지 철자에도 역시 제2단계와 같은 방향으로 짚어가며 80부터 99까지의 숫자를 기입한다.

이제 알파벳에 있는 모든 철자마다 숫자가 붙어 있다. 클라우젠은 이것으로 전달문 내용을 수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었다. 간단한 통신문을 실례로 들어보자. ‘공격 없음’, 즉 ‘NO/ATTACK’을 위에서 완성된 표를 이용해 암호화하면 이 나온다.

- ① 529937738091
- ② 529956658088
- ③ 729456658088
- ④ 729457738091
- ⑤ 729665808890

36.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페이스북 교류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는 감정을 조종하는 자들과 엮일 때 나타난다. 감정을 조종하는 자들은 다양하고 은밀한 전략이나 기만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호의를 산다. 이러한 감정 조종자 유형에는 파괴자, 나르시시스트, 순교자, 유혹자, 스토커가 있다.

(가) 파괴자는 당신이 친구라고 믿는 사람이고 때로는 당신의 친구처럼 행동하지만 비밀리에 당신을 분개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파괴자는 어떤 사람의 약한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일의 귀재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공격하지만 결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나) 나르시시스트는 완전히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이 꼭 이기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과 나르시시스트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나르시시스트는 최대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칭찬이 없다면 의미도 없다.

(다) 순교자는 1년 365일 페이스북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포스팅은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묘사한다. 죄책감은 순교자들이 애용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다. 이들은 자신에게 동정을 보이고 자신의 무력함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로 주위를 가득 채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취약성을 간파하고 그것을 조종하여 지지를 얻는다.

(라) 유혹자들은 다소 피상적인 경향이 있고 자신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믿는다. 이들은 자기 사진을 페이스북에 많이 올린다. 이들은 애정을 갈구하고 성적인 관심이 강한데,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배우자들에게 강한 경쟁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유혹자들은 페이스북의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기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한다. 예컨대 ‘복잡한 연애’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정말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 관계 상태 표시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힘이 있다.

(마) 스토커는 여기저기 엿따하여 당신과 당신이 맺은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다. 페이스북 스토커들은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형성하는 친밀한 사이에서 상황이 변해가는 것을 구경하며 아주 재미있어한다.

— <보 기> —

ㄱ. (가) 유형은 자신에 대한 평판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의 약점을 이용한다.

ㄴ. (나) 유형은 제발 놓아달라는 완고하거나 분명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도 개의치 않고 당신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낸다.

ㄷ. (다) 유형은 자신의 무력함을 암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한다.

ㄹ. 노출이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라) 유형에 속할 수 있다.

ㅁ. (마) 유형은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페이스북 친구들과 친구맺기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37.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초기 영국의 절대왕정체제는 봉건적 귀족계급을 견제했고 가톨릭을 억제했으며 의회를 존중하였다. 또한 젠트리와 중산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펴지 않았다. 그런데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죽은 후 즉위한 제임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하고 왕권신수설을 주장하면서 억압적인 전제정치를 실시하려 했다. 이 때문에 제임스 1세는 의회와 자주 충돌하게 되었다.

제임스 1세의 뒤를 이은 찰스 1세는 엄격한 국교회 의식을 강행하였다. 이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까지 확대시키려 하였는데 이 때문에 1640년에 장로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찰스 1세는 의회를 소집하여 전쟁 자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왕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였고 찰스 1세는 의회를 해산했다가 전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의회를 소집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자신감이 생긴 의회는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를 강화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자 왕은 이에 격분하여 친위군대를 파견하여 주모자 5명을 체포하려 시도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1642년부터 1646년까지 왕당군과 의회군 사이의 내전에 돌입하였다. 내전은 처음에는 왕당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나 나중에는 전세가 바뀌어 올리버 크롬웰이 지휘한 의회군이 왕당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제1차 영국혁명).

의회는 찰스 1세를 반역 재판에 회부하여 1649년 1월 공 앞 광장에서 처형하였다. 이제 혁명으로 영국에는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혁명으로 수립된 공화정은 이름뿐이었고 실제로는 의회 내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크롬웰의 군사독재가 실시되었다. 정부 행정은 41명으로 구성된 국가위원회가 집행하였고, 의회는 해산되었다. 공화파는 형식적으로는 신앙의 자유와 간접선거에 의한 공화정을 주장하는 등 전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민주주의 실현보다는 엄격한 금융 윤리에 입각한 군사독재로 나아갔다.

(나) 명예혁명은 제1차 영국혁명과는 달리 모든 당파(토리당, 휘그당)가 합심하여 절대왕정을 타파한 사건이었다. 모든 당파가 합심하여 왕에 대한 의회의 우위를 확립하였고, 이런 조건에서 보수파와 진보파가 타협하였다. 명예혁명은 영국에서 입헌정치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의회의 정치적 위상은 확고해졌고 도시 상공시민과 지방 젠트리층의 영향력도 확고하게 되었다.

명예혁명은 왕정을 존속시켰다는 점에서 제1차 혁명에 비해 보수적이었지만 영국의 정치체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이룩했다. 군주의 절대 권한을 제한하고 귀족과 시민들로 구성된 의회의 동의를 제도화시켰다는 점에서 근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을 통해 영국을 자유로운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의회는 관용법(Toleration Act)을 제정하여 비국교회파 신교도들에게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럼에도 명예혁명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에서 멈췄으며 주권재민의 사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했다. 또한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재산이 있는 귀족이거나 신흥 부르주아지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근대 민주주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진전되었을 뿐이었다. 결국 영국에서 근대 민주주의 발전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계급 출현에 따른 노동운동의 발전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 ① 제1차 영국혁명은 기존의 왕정체제를 붕괴시키고 공화정을 수립하였으나 실제로는 군사독재로 이어졌다.
- ② 명예혁명은 급진적이진 않았지만, 노동계급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 ③ 초기의 영국 절대왕정체제에서는 종교적 자유가 제한되었을 것이다.
- ④ 의회는 (가)와 (나)의 혁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 ⑤ 명예혁명의 한계로는 일부 귀족과 신흥 부르주아들의 주권을 강화시키는 결과에 그쳤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3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고고학 연구자들이 취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가정은 고기 획득을 위한 노력이 인류 진화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사람-동물 관계의 진화가 어떤 맥락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인에 이르는 인류 진화의 주요한 측면을 간략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치아에 남아 있는 굵은 흔적을 분석한 위커는 이들이 주로 과일에 의존하여 살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가 하면, 브레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여러 동굴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동물 뼈를 연구하였다. 대형 육식동물은 뼈에 특징적인 씹은 흔적을 남기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이 동굴들은 원래 육식동물의 소굴이었으며, 그 속에 쌓인 동물과 고인류 뼈는 대형 육식동물이 잡아먹고 버린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트란스발에 있는 스테르크폰테인(Sterkfontein)과 스와트크란스(Swartkrans) 두 동굴 유적에서 발견된 많은 고인류와 영양 뼈에는 이빨 흔적을 비롯해 동물이 씹었음을 말해주는 흔적이 잘 남아 있다. 브레인은 이 유적들에서 인류가 동물들보다 점차 우위를 차지해나감을 시사해주는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는 스테르크폰테인에서 제4층 및 그 위로 50~100만년 정도 뒤에 쌓인 제5층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제4층에서 발견된 영양은 거의 모두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개체로 구성되어 있어 아마도 잡아먹혔을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제4층에는 동물 이외에도 사지가 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위 제5층에서는 어린 개체의 비중이 훨씬 낮고, 무게도 아주 다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층에서는 최소한 한 점의 뼈에 날카로운 날을 가진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는 자른 흔적이 보이고 있다.

유적에서 발견되는 동물을 실제로 잡은 것이 고인류인지 아닌지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몇몇 연구자는 죽어있는 동물 사체에 무슨 일이 어떻게 가해졌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위커 등의 연구자는 쿠비포라 유적에서 거의 완벽한 상태로 발견된 160만 년 전의 호모 에렉투스의 뼈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뼈에서는 비타민 A가 너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었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질환인 비타민과다증의 징후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특히 식육동물의 간을 과다하게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병이다. 킬리와 토스 두 연구자도 쿠비포라에서 발견된 약 150만 년 전의 석기 사용흔을 조사하였다. 두 사람의 견해로는 석기에 남겨진 사용흔이 고기 및 기타 재료를 실험적으로 잘랐을 때 만들어진 것과 유사하다고 한다.

- ① 브레인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동굴에서 발견된 동물 뼈에는 당시 육식동물의 흔적이 남아있다.
- ② 아프리카에서 주로 과일을 먹고 살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냥꾼이 아니라 대형 육식동물의 사냥감이었다.
- ③ 스테르크폰테인에서 발견된 고인류의 뼈에서는 비타민과다증의 징후가 발견되었다.
- ④ 스테르크폰테인 유적의 제4층에서는 육식 동물에 의해 잡아먹힌 동물의 뼈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주로 과일에 의존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식단은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 들어와 고기가 포함된 잡식성 식단으로 변화했을 것이다.

39.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없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늘날 죄수 수감시설을 통칭해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지만, 이 용어는 근대 이후에 들어온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엄밀히 말하면 ‘옥(獄)’이라 했다. 조선에서 죄인에 대한 형벌은 태·장으로 불기를 치거나, 일정기간 노역에 처하거나, 종신 유배형을 내리거나, 심하면 사형에 처했지 오늘날처럼 감옥에 가두는 징역형은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옥은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수감되는 곳이었다.

조선의 수도 한양에 위치한 대표적인 감옥으로는 형조 소속의 구금 전담 기관인 전옥서(典獄署)를 들 수 있다. 국사범, 정치범을 심문·조사했던 의금부는 죄인을 심문하는 호두각(虎頭閣)과 함께 서쪽과 남쪽에 옥사를 두었으며, 그 가운데 남간옥(南間獄)은 사형수를 가두던 옥사였다. 이외에도 죄인을 직접 잡아서 구속할 권한을 가진 관청이 더 있었는데, 이를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고 했다. 직수아문은 병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비변사로 구성되었고, 이들 관청에서도 별도로 구류 시설을 두어 운영하였다.

전옥서는 죄인 구금을 전담하는 관청이었던 만큼 죄수 관리를 맡은 소속 관리나 아전이 적지 않았다. 「육전조례(六典條例)」 기록에 따르면 관리로는 제조(提調) 2명, 주부(主簿) 1명, 참봉(參奉) 2명이 배치되었는데, 주부, 참봉과 달리 제조는 겸직으로서 형조 참판과 승정원의 형방승지가 겸했다. 따라서 종 6품 벼슬의 주부가 전옥서의 실질적인 책임자였으며, 그 밑의 참봉 2명은 중죄인을 안치시키거나 감옥에 비치해두는 형구를 관장했다. 옥내의 제반 실무는 이서(吏胥) 7명이 맡았으며, 이외에 형벌 집행, 시신 검시, 경계 및 감시 등을 위해 사령(使令) 10명, 오작(作作) 1명, 군사(軍士) 10명, 행형쇄장(行刑鎖匠) 1명을 두었다.

전옥서에서 죄수를 가두던 옥사는 광해군 때에는 모두 9칸이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그 이후 남자용 옥사 9칸, 여자용 옥사 5칸 해서 모두 14칸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남자용 옥사는 동쪽 3칸, 서쪽 3칸, 북쪽 3칸이며, 여자용 옥사는 남쪽 2칸, 서쪽 3칸이 배치되었다. 전옥서 내에는 옥사 외에도 관리 집무실, 사령청, 군사 수직방 등 각종 건물을 두었다.

- < 보 기 > —
- ㉠. 형조와 의금부는 직수아문(直囚衙門)에 속하지 않는다.
 - ㉡. 평민 갑이 부모를 살해하여 사형을 선고받았다면, 남간옥(南間獄)에 갇힐 것이다.
 - ㉢. 다른 관직과 겸직하지 않고 전옥서만 담당하는 관리는 3명 이상이었다.
 - ㉣. 광해군 때 전옥서 내에서 남쪽에 위치한 건물은 모두 여자용 옥사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40. 다음 글의 문맥상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근대 수학자 A는 자연수와 정수, 유리수, 실수의 개수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했다. 쉬운 예를 통해서 이해해보자. 지금 운동장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섞여서 놀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를 각각 센 다음 두 수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더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한 명씩 짝지어서 서로 끌어안으세요.”

이제 결과를 보면 된다. 혼자 남아 있는 쪽이 있으면 그 쪽이 더 많은 것이며, 혼자 남은 쪽이 아무도 없으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는 같은 것이다. [A]

다시 말해서 두 집단의 수를 비교하는 것은 그 집단 각각 얼마인지와 전혀 무관한 것이며, 남학생과 여학생이 한 명씩 끌어안듯이 한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에 일대일 대응(one to one correspondence)이 존재하면 두 집단의 수는 같다. 그렇지 않다면 남는 쪽이 더 많다.

이 논리를 자연수 집단과 정수 집단의 수를 비교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자연수 집단과 정수 집단 사이에 일대일 대응이 존재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다음과 같이 일대일 대응을 줄 수 있다.

| | |
|--------|--------|
| 1 → 0 | 5 → -2 |
| 2 → 1 | 6 → 3 |
| 3 → -1 | 7 → -3 |
| 4 → 2 | ⋮ ⋮ |

만약에 자연수 집합과 실수 집합 사이에 일대일 대응을 줄 수 있다면, 즉 모든 실수(무한소수)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1번, 2번, 3번, ...으로 번호를 붙여나갈 수 있다면 실수의 개수는 자연수의 개수와 같을 것이다. 이제 운동장에서 노는 남녀 학생들에게 내린 명령을 자연수와 실수에게 내려 본다.

“자연수와 실수는 한 명씩 짝지어서 서로 끌어안으세요.”

실수(무한소수)와 자연수가 일대일로 짝지어진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나타내자.

| | |
|-----------------------------|----|
| $0.a_{11}a_{12}a_{13}\dots$ | 1번 |
| $0.a_{21}a_{22}a_{23}\dots$ | 2번 |
| $0.a_{31}a_{32}a_{33}\dots$ | 3번 |
| $0.a_{41}a_{42}a_{43}\dots$ | 4번 |
| ⋮ | ⋮ |

(a_{ij} 는 각 소수의 자리수이다. 예를 들어 a_{12} 는 ‘1번 소수의 소수 둘째자리 수’)

바로 여기서 수학자 A는 다음과 같은 무한소수를 생각해 내었다.

$0.x_1x_2x_3 \dots$ (단, $x_1 \neq a_{11}, x_2 \neq a_{22}, x_3 \neq a_{33}, \dots$)

이 $0.x_1x_2x_3\dots$ 라는 무한소수에 대해 대하여 생각해보자. 우선 소수 첫째자리 수 $x_1 \neq a_{11}$ 이므로 $0.x_1x_2x_3\dots$ 는 목록의 1번 소수 $0.a_{11}a_{12}a_{13}\dots$ 와 절대 같을 수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0.x_1x_2x_3\dots$ 는 목록의 어떠한 수와도 같을 수가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목록의 임의의 소수와 ‘적어도’ 하나의 소수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무한소수 $0.x_1x_2x_3\dots$ 가 목록의 어떤 소수와도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은 이 무한소수가 목록에 들어갈 수 없는 수, 즉 자연수와 짝지어질 수 없는 수라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이 수 또한 분명히 무한소수, 즉 실수의 모양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실수의 개수가 자연수의 개수보다 많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한편, 자연수의 개수든 실수의 개수든 그 개수는 모두 무한하다. 결국 수학자 A의 결론을 통해 ‘[B]’라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 [A] | [B] |
|--|---------------------------------------|
| 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몇 명인지 몰라도 두 집단의 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무한대도 유한한 수처럼 서로 개수를 비교할 수 있다. |
| ②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가 같다는 사실이다. | 무한히 많은 수 사이에서도 더 큰 무한과 더 작은 무한이 존재한다. |
| ③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몇 명인지 몰라도 두 집단의 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자연수의 개수와 실수의 개수는 동일하다. |
| ④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가 같다는 사실이다. | 무한대도 유한한 수처럼 서로 개수를 비교할 수 있다. |
| 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단의 수를 비교하는 것은 각 집단의 수가 얼마인지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 자연수와 실수 사이의 일대일 대응을 줄 수 있다. |

2016년 제32회 입법고시 정답표(가형)

|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
| 문제1 | 3 | 2 | 4 |
| 문제2 | 5 | 2 | 3 |
| 문제3 | 1 | 4 | 1 |
| 문제4 | 2 | 5 | 3 |
| 문제5 | 5 | 2 | 5 |
| 문제6 | 4 | 5 | 3 |
| 문제7 | 2 | 3 | 1 |
| 문제8 | 3 | 4 | 4 |
| 문제9 | 1 | 2 | 4 |
| 문제10 | 4 | 1 | 5 |
| 문제11 | 2 | 5 | 5 |
| 문제12 | 2 | 1 | 1 |
| 문제13 | 4 | 5 | 2 |
| 문제14 | 3 | 5 | 3 |
| 문제15 | 1 | 4 | 3 |
| 문제16 | 4 | 3 | 4 |
| 문제17 | 5 | 4 | 2 |
| 문제18 | 4 | 4 | 1 |
| 문제19 | 1 | 1 | 4 |
| 문제20 | 3 | 1 | 2 |
| 문제21 | 3 | 2 | 3 |
| 문제22 | 5 | 2 | 4 |
| 문제23 | 2 | 1 | 2 |
| 문제24 | 1 | 5 | 3 |
| 문제25 | 1 | 3 | 5 |
| 문제26 | 5 | 2 | 2 |
| 문제27 | 5 | 1 | 2 |
| 문제28 | 2 | 5 | 4 |
| 문제29 | 2 | 3 | 5 |
| 문제30 | 5 | 4 | 2 |
| 문제31 | 4 | 4 | 2 |
| 문제32 | 2 | 3 | 2 |
| 문제33 | 3 | 4 | 1 |
| 문제34 | 5 | 5 | 1 |
| 문제35 | 3 | 1 | 4 |
| 문제36 | 5 | 3 | 5 |
| 문제37 | 2 | 3 | 5 |
| 문제38 | 3 | 4 | 1 |
| 문제39 | 4 | 2 | 4 |
| 문제40 | 1 | 5 | 3 |

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어떤 개인이 얼마나 사교적인가(social)를 테스트해 보기 위하여 뉴욕 맨해튼의 전화번호부에서 뽑은 248개의 성(姓) 목록을 주고 그러한 성씨를 갖는 사람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보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하나의 성에 대해 복수의 사람을 생각해도 좋은데, 말하자면 리스트에 있는 존스(Jones)라는 성을 가진 사람을 3명 알고 있다면 3점이 추가되는 것이다. 최근에 이민 온 20대 초반 학생들이 대부분인 맨해튼 시립대학 학생들에게 테스트해 본 결과 평균 점수는 21점이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리스트에 있는 성씨의 사람을 평균적으로 21명 정도 알고 있는 것이다. 실험 결과 주목할 만한 발견은 점수의 분포였다. 대학생들 집단의 점수 분포는 2점에서 95점까지였고, 고학력 백인 교수 집단의 최저점은 9점이고 최고점은 118점이었다. 거의 비슷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최저점은 16점인 반면 최고점은 108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총 400여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사회집단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소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친구나 아는 사람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극히 예외적인 솜씨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커넥터(Connector)라 할 수 있다.”

(나) 현대사회의 실체들은 대체로 복잡계(complex systems)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 이면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하나를 네트워크로 표현하여 모델링하는 복잡계 네트워크 방법으로 무작위 네트워크(random network)가 대표적이다. 이 모델은 실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 그들의 모양이나 구조를 지배하는 법칙 등에 대해 최초로 설명하게 된 모델로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특정 확률에 따라 서로 무작위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에 기반한다. 무작위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서 대부분의 노드들이 평균적으로 균일한 링크 수를 가지는 균일한 네트워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균일한 링크 수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으로 실제로는 각 노드의 링크 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통계적인 분포(정규분포, 포와송 분포)로 나타난다. 이 모델에서 노드의 차수는 종 모양 분포를 나타낸다. 종 모양 분포의 꼬리부분은 평균 링크수로부터 지수적으로 감소하므로 차수가 아주 많다거나 아주 적은 노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정점인 평균값에 의해 지배되는 네트워크의 모양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링크 개수는 평균값(정점)을 나타내며, 소수의 링크 또는 다수의 링크 개수를 가지는 노드의 수는 극히 적다.

<보 기>

- ㄱ. (가)에 따르면, 고학력 백인교수는 맨해튼 시립대학 학생보다 전화번호부 리스트에 있는 성씨의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있다.
- ㄴ. (나)에서 주장하는 무작위적 세계에서는 (가)에서 제시한 커넥터(Connector)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ㄷ. (가)에 의하면 계층에 상관없이 소수의 커넥터(Connector)가 존재한다.
- ㄹ. “전체 인구의 20%가 80%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경제학 원리는 (나)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ㄴ, ㄷ, ㄹ

7. 다음 (가), (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신(神)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합당하다. 하늘, 태양, 달의 운동 및 회전이 보여주는 규칙성과 안정성 그리고 모든 별들의 다채로움과 조화로움과 유용함과 질서가 그 이유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준다. 예컨대 누군가가 어떤 큰 집이나 공공 체육관에 들어가서 이 모든 시설들의 계획성과 조화 그리고 절제미를 갖추고 있는 질서를 볼 때, 그는 이것들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이것들을 관장하는, 그리고 이것들을 초래한 어떤 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엄청난 운동의 규모, 주기적 전환의 규칙성이 엄청난 것들, 그토록 많고도 위대한 것들의 질서정연함,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기만 없는 무한한 지속성을 볼 때, 그는 자연의 이 위대한 운동이 어떤 지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더더욱 확신할 것임에 틀림없다.

(나) 당신이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크고 아름다운, 그러나 비어 있는 집 하나를 보게 되고 길을 멈춰 잠시 같이 구경한다고 해보자. 이 때 당신과 당신의 친구는 집 주인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쥐들과 족제비를 위해 지어졌다는 생각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단히 질서 있는 우주, 대단히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천체, 엄청난 힘과 광대한 규모를 가진 바다와 대륙이 인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불사의 신들의 집은 아니라고 당신 친구가 주장한다면, 당신이 보기에 그 친구는 명백히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는가?

- ① (가)는 계획성과 절제미를 갖춘 질서있는 시설은 우연히 생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② (가)와 (나) 모두 가시적인 결과로부터 비가시적인 원인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 ③ (가)는 신은 지성 자체가거나 지성으로 대표되며, 하늘·태양·달의 운동과 같은 자연 세계의 거대한 운동은 지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 ⑤ (나)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1991년 어느 더운 여름날, 파르마 대학교의 한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연구자들은 뇌의 잠재의식에 관한 실험을 위해 원숭이 한 마리의 두개골에 전극을 꽂아두고 관찰하고 있었다. 전극이 꽂힌 부위는 움직임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을 관장하는 대뇌 피질이었다. 그 원숭이는 차분하고 즐거워 보였고, 두개골에 꽂힌 전극과 실험실 사람들에게 꽤 익숙해진 듯 보였다. 실험실 사람들도 원숭이를 밝고 쾌활한 친구처럼 대했다.

그날은 날씨가 더웠던 탓에, 휴식 시간이 끝난 후 실험실 조수 한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원숭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것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실험실 조수가 아이스크림을 입술로 가져가자, 원숭이의 뇌에서 전기활동이 격렬해졌다. 순식간에 정상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 원숭이는 뇌 속에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신체적 움직임이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그 조수를 따라 원숭이의 뇌는 자신의 팔에게 아이스크림을 입술 쪽으로 들어올리라고, 침을 흘리라고, 만족감을 느낄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실제로는 쳐다보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원숭이는 그의 뇌에서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 원숭이 실험은 저명한 과학자 자코모 리츨라티가 감독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이 그 원숭이에게만 일어나는 고유한 현상인지 아니면 영장류의 두뇌가 지닌,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능력인지를 밝혀내고 싶었다. 그래서 원숭이들을 더 모아서 세계 최초로 거울 뉴런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놀라울 것 없이, 땅콩 실험에서 원숭이들은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전두엽 피질의 뉴런들은 그들이 관찰하는 행동을 인식하는 그대로 반응했다.

1994년, 리츨라티 교수는 새롭게 발견된 뇌 부위인 거울 뉴런에 대해 최초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원숭이 뇌의 운동전 피질과 두정 피질에서 발견된 거울 뉴런 네트워크는 원숭이와 인간의 경우 귀 위쪽에서 머리 뒤쪽 방향에 있는 상측두 고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상측두 고랑은 걷고 팔을 흔드는 것 같은 신체 움직임을 추적하여 그것이 걷기, 달리기, 일어서기 등에 의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위협인지를 감지하는 데 집중한다.

인도 출신의 신경과학자 빌리아누르 라마찬드란 박사는 인간이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유용한 정보를 빨리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10만 년 쯤 전에 인간들은 갑자기 문화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라마찬드란 박사는 이 시기에 인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복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거울 뉴런을 발전시켰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의 경험 속으로 뛰어드는 이 능력의 결과로 종의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기술들이 문화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간다.

거울 뉴런은 단지 무언가를 쳐다보거나 읽거나 혹은 어떤 행동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발화한다. 두뇌가 다른 존재의 동작과 생물학적 움직임을 따라하게 한다는 거울 뉴런 네트워크의 발견은 신경과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 ① 거울 뉴런이 하는 일은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 ② 리츨라티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의 경우 거울 뉴런 네트워크가 상측두 고랑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 ③ 라마찬드란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불을 지피는 방법을 직접 배우는 대신 몇 명이 불을 지피는 광경을 지켜봄으로써 불을 지피는 방법을 확산시킬 수 있다.

- ④ 거울 뉴런 이론에 따르면, 오늘날 CF에서 보여주는 기운차게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나 따뜻하고 향기로운 커피를 음미하는 모습 역시 거울 뉴런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거울 뉴런 이론에 따르면,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 보다는 자동차 판매업체 전시장에 멋진 스포츠카를 전시하여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소비 촉진에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9. 다음 (가), (나)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한편에서는 인격의 개인주의화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별 인격을 사회적 집단에 연결하는 영향력, 이해, 관심 및 관계들이 다음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발전의 양상을 보인다. 개인이 속한 사회적 집단이 확장되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존재와 행위 면에서의 개인주의는 증가한다. 사회적 집단이 확장될수록 집단 내에서는 이질성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집단이 커지면서 애초에는 서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던 집단들이 서로 유사해지면서 이들 간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집단 내부의 결속을 통해 개인을 집단에 종속시키던 힘이 집단 내부의 이질화 때문에 약해지는 반면, 집단들 간에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점하는 개인들 간의 유대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결국 사회적 집단의 확장은 그에 속한 개인들의 자율성과 자유의 여지를 확대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의를 증대시키게 된다.

(나) 사회적 분업이 확대된 결과로 사회적 연대는 변화를 겪게 된다. 사회적 분업의 수준이 낮을 때의 연대는 개인들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가정하며 개인의 인격이 집단 속에 흡수되는 기계적 연대이다. 반면 분업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는 유기적 연대는 개인이 고유한 행동영역을 갖고 개성을 지니는 경우에 가능하다. 노동이 더 분화될수록 개인은 점점 더 사회에 의존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활동은 더 전문화될수록 더 개인적이 된다. 그 결과 개인의 창의성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는 여지를 더 남긴다. 사회는 구성원들이 독자적일수록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이것은 우리가 고등동물의 신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비슷하다. 고등동물의 각 기관은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과 자율성을 지니며 이들 간의 조정과 조율은 고도로 발달한다. 사회에서도 유기체적 통일성은 각 부분의 개체화가 더 현저하게 진행될수록 더 강화된다.

- ① (가)는 집단의 확장을, (나)는 분업의 발달을 개인화의 동력으로 생각한다.
- ② (가)에서는 사회적 집단이 확장되면서 집단 내의 이질성은 늘어나지만 집단 간의 이질성은 줄어든다고 본다.
- ③ (나)는 개인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회에 대한 의존은 더 심화된다고 본다.
- ④ (나)는 사회적 분업의 확대로 사회적 연대가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변화한다고 본다.
- ⑤ (가)와 (나) 모두 개인화의 결과 사회 내부의 결속이 약해진다고 본다.

10. 다음 글의 관점에서 볼 때 ㉠의 탐구 과제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과학적 인식이란 인식의 결과가 진리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화적, 사회적 삶에 관한 경험 과학에서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진리가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존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원리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구속력 있는 규범과 이상을 발견하여 그것으로부터 실제에 필요한 처방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경험 과학이 될 수 없다. 그렇다고 가치 판단이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이상을 기초로 하며 따라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의미 있는 인간 행위의 궁극적 요소에 대해 고찰해 보면, 인간의 행위는 목적 및 수단의 범주와 결부되어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욕하는 것은 그것 자체의 가치 때문이든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의욕한 것을 달성하는 데 소용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과학적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문제이다. 우리는 어떤 수단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효과적 수단인지에 대해 저울질할 수 있다.

의욕의 소유자인 인간은 자신의 양심과 개인적인 세계관에 의거하여 가치들을 저울질하고 선택한다. 경험 과학은 인간에게 모든 행위가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행위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일정한 가치에 가담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다른 가치에 반대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 물론 가치들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들의 소관 사항이다.

개인들이 가치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때 경험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욕하는 것 자체의 의의를 알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의 근거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이념들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경험 과학은 개인들이 선택한 목적의 의의를 알려줄 수 있다. 개인들이 실제로 추구한 목표라고 볼 수 있는 이념들을 정신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은 문화적, 사회적 삶에 관한 경험 과학의 본질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경험적 현실을 사유를 통해 정리하려는 과학의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다.

경험 과학은 그 누구에게도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should)를 가르쳐줄 수는 없고, 단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can) 또한 사정에 따라서는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will)를 가르쳐줄 수 있을 뿐이다. 어떤 가치를 수용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로서 삶과 세계를 사변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에 관한 학문의 과제이며, 여기서 논하고 있는 경험 과학의 대상은 아니다. 과학적 인식과 가치 판단을 구별하는 것, 그리하여 사실의 진리를 직시해야 하는 과학적 의무와 자신의 이상을 옹호하는 실천적 의무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인간의 삶을 그 문화적 의의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경험 과학을 문화 과학이라고 부르며, 사회 과학은 그러한 문화 과학의 범주에 포함된다.

— <보 기> —

ㄱ. 갑이 자신의 궁극적 이념으로 애국주의 대신에 세계시민주의를 선택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한다.
 ㄴ. 을이 중시하는 개인의 자유, 권리, 자율성 등의 가치가 공동체주의보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가깝다는 점을 밝혀 을이 선택한 목적의 의의를 알려줄 수 있다.
 ㄷ. 병이 자본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시장 폐지 정책이 부적절한 정책임을 지적한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1. 다음 <조건>에 따를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조 건> —

- 남은 빵은 열 개이며, 아몬드빵, 초코빵, 땅콩빵, 딸기빵, 생크림빵이 각각 두 개씩 남아 있다.
- 동준, 민혁, 영섭, 창호 네 사람이 남은 열 개의 빵을 모두 구매하였으며, 이들이 구매한 빵의 수는 모두 다르다.
- 빵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같은 종류의 빵을 두 개 구매한 사람도 없다.
- 동준이와 영섭이가 구매한 빵 중에 같은 종류가 하나 있으며, 영섭이와 민혁이가 구매한 빵 중에도 같은 종류가 하나 있다.
- 동준이와 민혁이가 동시에 구매한 빵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 동준이는 딸기빵과 땅콩빵은 구매하지 않았다.
- 영섭이는 아몬드빵과 생크림빵은 구매하지 않았다.
- 창호는 딸기빵을 구매했다.
- 민혁이는 총 네 종류의 빵을 구매했다.

— <보 기> —

ㄱ. 아몬드빵은 동준이와 민혁이가 구매했다.
 ㄴ. 딸기빵은 창호와 영섭이가 구매했다.
 ㄷ. 땅콩빵은 영섭이와 민혁이가 구매했다.
 ㄹ. 초코빵은 민혁이와 창호가 구매했다.
 ㅁ. 생크림빵은 동준이와 창호가 구매했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ㄹ, ㅁ

12. 다음 글을 읽고 난 사람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은 근본적으로 비언어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수용되어 왔으며, 일부는 의사소통 능력 중 비언어적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정도에 이를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비언어적 심리 처리과정의 붕괴가 언어 능력의 붕괴보다 더 크게 일련의 학습 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언어성 학습장애(NLD)의 개념이 성립된 지는 30년 이상 되었다. 이는 온타리오 남부에 있는 윈저대학교의 바이런 루크(Byron Rourke) 박사와 동료들의 작업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들은 비언어성 학습장애 신드롬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일차적, 이차적, 삼차적인 신경생리학 처리과정의 결손에 기초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비언어성 학습장애 성인의 결손을 다룬 문헌들은 이것이 뇌의 손상으로 인한 이차적인 손상이며, 차별적 진단의 수용, 적절한 확인, 재정 지원, 교사교육, 중재계획 등에 있어서 아직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히고 있다.

비언어성 학습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언어발달이 빠르고, 고난이도의 어휘력과 일반 상식을 갖추고 있으며 풍부한 언어 능력을 보인다. 잘 발달된 언어 능력, 훌륭한 작동기억, 초기 음운 인지 기술 때문에 비언어성 학습장애로 진단을 받은 개인들의 의뢰 사유는 종종 학업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들에 집중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교사는 비언어성 학습장애 학생들을 처음 관찰한 결과 ‘행동, 사회 및 감정부분에서의 우려’, ‘감각 입력에 문제가 있음(예: 큰 소리나 밝은 빛 등에 과도하게 민감함)’, ‘운동이 서투르고, 어설피며, 협력이 잘 되지 않음’, ‘친구를 사귀거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다양한 청자에게 적합한 대화 수준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개인적인 영역과 경계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등의 증상 중에서 일부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많은 비언어성 학습장애 학생들이 우수하거나 매우 우수한 언어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들과 함께 살거나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수께끼와 같으며, 그와 같은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학습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타협하는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은 어휘나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에 종종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조금 더 어려운 색칠하기, 쓰기와 다른 소근육 과제들은 지루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으로 영재성 평가에 의뢰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조속한 언어 능력보다 감정적 조속이 포함되는 비언어적 능력이 실제 학습에서 더 요구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한편, 다소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언어성 학습장애인들의 언어능력 강제는 방패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때때로 호언장담하고, 지나칠 정도로 말이 많거나 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어능력을 개인의 일반적인 지능에 대한 예측변수로 이해하므로, 비언어성 학습장애인들이 그들의 뛰어난 언어 능력처럼 다른 임무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비언어성 학습장애인들은 실질적인 임무완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교묘한 말로 빠져나오며, 단어 사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재능은 실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책임감이 위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은 종종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약속하여 실망하게 되고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 비언어성 학습장애를 가진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도 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에 따른 당연한 결과에 자주 좌절감을 느낀다.

- ① 영수: 비언어성 학습장애라는 개념이 처음 성립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비언어성 학습장애는 뇌의 손상으로 인한 이차적 손상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었구나.
- ② 민아: 언어성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보다 비언어성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어휘나 일반적인 지식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
- ③ 범재: 비언어성 학습장애는 비언어성 학습장애를 가진 사람 본인에게만 이상과 현실 간의 모순을 일으킬 수 있겠군.
- ④ 석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 뛰어난 것과 실질적 임무 수행 능력이 반비례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나보군.
- ⑤ 다솜: 밝은 빛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운동이 서투며, 다양한 청자에 적합하게 대화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있다면 비언어성 학습장애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

13. 다음 글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전제는?

이 문서함은 지적재산관리부에서 온 것이 아니면 공보부에서 온 것이다. 지적재산관리부에서 온 문서함에는 모두 보안 등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서함은 보안 등급 표시가 없다. 이 문서함이 공보부에서 온 것이라면 이 문서함은 언론사 배포 문건을 담고 있거나 내부 회람용 문건을 담고 있을 것이다. 언론사 배포 문건을 담고 있는 문서함에 개봉 날짜 표시가 없다면, 그 문서함은 잠기지 않았다. 개봉 날짜가 표시된 문서함들은 모두 보안 등급 표시가 되어 있다.

— <결 론> —

이 문서함은 내부 회람용 문건을 담은 것으로 공보부에서 온 문서함이다.

- ① 이 문서함은 잠겨 있다.
- ② 공보부에서 온 어떤 문서함은 잠겨 있지 않다.
- ③ 지적재산관리부의 어떤 문서함은 잠겨 있지 않다.
- ④ 이 문서함은 개봉 날짜 표시가 없다.
- ⑤ 잠기지 않은 문서함은 개봉 날짜 표시가 없다.

1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뇌는 무척 섬세하다. 그러나 뇌 자체에는 통각수용기가 없다. 그래서 압박하거나, 으깨거나, 잘라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대뇌피질이 직접적인 기계, 화학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뇌피질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19세기까지 활용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뇌세포가 손상되더라도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 확실히 예비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축구선수는 매번 헤딩을 한다든가 하는 상당수의 뇌세포가 손상을 당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예비력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를 은퇴한 일부 프로 권투선수에게서 확실히 볼 수 있다. 그들은 너무 많은 뉴런을 손실해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질환이 진행되곤 한다. 이런 미만성 뇌손상(diffuse brain injuries)의 위험과는 별개로, 뇌의 특정 부위의 직접적 손상과 그에 따른 기능의 상실 위험도 존재한다. 가령 몸에 마비가 온다거나, 언어나 시력을 상실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외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외피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두개골이 한다.

두개골은 몇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봉합선을 따라 결합되어 있다. 이 지그재그로 된 선은 성인 두개골의 표면에서 볼 수 있다. 뼈아가 발달되는 동안 두개골의 뼈는 서로 붙어서 떠다닌다. 이것은 두개골이 극도의 힘을 필요로 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두개골은 뇌를 성장하게 해주고, 태아가 산도를 통과할 때 머리를 압착시켜준다. 태어난 후에 두개골 정수리에 두 개의 틈새가 남아 있다. 작은 틈인 뒤숫구멍은 머리 뒤쪽으로 향하고, 큰 틈인 앞숫구멍은 정수리의 앞쪽에 있다. 두 개의 숫구멍은 18개월이 되면 닫히고 그 자리는 머리뼈로 신속하게 봉합된다. 그리고 나면 유일하게 열려 있는 곳은 두개골 바닥에 있는 큰구멍뿐이다. 이 큰구멍은 척수가 신경섬유다발을 팔다리와 신체 기관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한 두개골 바닥 앞쪽으로 그보다 훨씬 작은 여러 개의 대칭적인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 뇌신경이 두개골 밖으로 나간다. 두개골의 내부는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세 개의 절단면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앞머리뼈우묵, 중간머리뼈우묵, 그리고 뒷머리뼈우묵이다.

머리뼈의 두께는 균일하지 않으며, 뇌의 근본적인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진화는 두개골을 균형적으로 발달시켰다. 그리하여 두개골은 보호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가벼워졌다. 그것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두부 손상에서 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손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두개골의 앞뒤 부분은 비교적 두껍지만 측두엽이 자리한 옆부분은 다소 얇아 외상에 취약하다. 더욱이 두개골을 통과하는 이 지점의 혈관에서 출혈을 일으키면 두개골이 보호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인 뇌에 급속하게 압력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두개골은 외상으로부터 뇌를 아주 우수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내부 용적이 증가하면 밀봉되고 단단한 외피 안에서 압력이 증가해 그로 인해 뇌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성인의 평균 머리 무게는 4.5kg에서 5kg이다. 머리를 콧코이 세우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의 근육군이 두개골 표면에 고정돼 있다. 이 중 가장 방대하고 가장 강력한 근육군은 뒤쪽, 목, 어깨에 있으며 머리 뒤쪽 머리뼈에 붙어 있다. 일부에선 이 근육들이 긴장성 두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류의 두통은 진통제가 잘 듣지 않으며 사실상 진통제의 과다 복용이 오히려 두통을 더 일으킬 수 있다. 마사지와 자세 교정 같은 간단한 처치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지만 전문약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근육들은 영구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수축되기도 한다. 심각한 경우엔 머리가 한쪽으로 영원히 당겨져버릴 수도 있다. 기운목이라고 하는 증상이다.

- ① 두개골을 통과하는 지점의 혈관에서 출혈이 일어나 뇌에 압력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해 심각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 ② 은퇴한 프로 권투선수의 경우 미만성 뇌손상의 위험으로 인해 몸에 마비가 온다거나 언어나 시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 ③ 두개골은 뇌를 성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외상으로부터 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 ④ 두개골의 앞뒤 부분은 다소 얇아 측두엽이 자리한 옆부분에 비해 외상에 취약하다.
- ⑤ 긴장성 두통이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15. 다음 글을 읽고 빈칸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산티아고 라몬이카할은 과학적 관찰과 미술 사이의 경계선이 추상을 거치면서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신경해부학자였지만 미술에도 재능을 보였던 그는 십대 시절에는 회화를 공부했고 자신이 연구한 뇌의 해부도를 직접 그렸다. 사람들은 그가 그 그림을 즉석에서 그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그들의 생각은 빗나간 것이었다. 라몬이카할은 뇌와 척수 부위의 실물을 준비하거나 관찰하면서 오전을 보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야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리곤 했다.

그는 그림과 실물을 비교했다.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분석하고 다시 그렸다.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가 기억에 의지해 그린 그림이 실물에서 보았던 본질을 포착했다고 생각했을 때가 되어서야 작업은 비로소 끝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림은 뇌의 특정한 부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체의 뇌를 채집해 절개하더라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마다 특성 있는 개별 뇌라는 구체적 현실 지면에서 ‘해부라는 추상적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불필요한 세부가 많은 일반적인 표본 사진과는 달리 라몬이카할의 간결한 그림은 어지러운 표본의 세부들 사이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마티스가 그 강의 들었다면 잘 이해했을 것이다. 그 역시 라몬이카할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마티스는 학생들에게 자주 다음과 같이 말하곤 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3층짜리 스튜디오를 갖는 것이다. 1층에서는 모델을 두어 그림 수업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 아주 가끔 1층에 내려와 모델을 보고 가고, 3층에선 아예 모델을 보지 않고 그림 수업을 하는 것이다.” 추상화는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가며 본질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추상화(化)는 화가도, 작가도, 과학자도, 수학자도, 무용수도 모두 한다. _____ (가) _____

- ① 예리한 관찰자들은 모든 종류의 감각 정보를 활용한다.
- ② 그리고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③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자신과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것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이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 ⑤ 핵심은 패턴의 결합방식에서 교묘함과 의외성을 발견하는 재능이다.

16.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생활과 노력을 살펴볼 때 우리의 행동과 욕망이 모두 다른 인간 존재와 결부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인간생활의 본질이 사회적 동물의 본질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남이 만든 음식을 먹고 남이 만든 의복을 입고 남이 만든 집에서 산다. _____ (가)

언어가 없었다면 우리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란 다른 고등동물에 비해 참으로 보잘 것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다른 동물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_____ (나) 개인은 그의 개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태어나는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물질적·정신적 존재를 지배하는 큰 사회적 일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사회에 대한 한 개인의 가치는 그의 감정이나 사고작용, 행동이 얼마나 타인의 선(善)을 증진케 하는가에 달려 있다. _____ (다) 우리의 인간 평가의 기준은 얼핏 보면 그 사회성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이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옳지 못하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받는 모든 가치 있는 것, 즉 물질적·정신적·도덕적인 것들이 모두 몇 사람의 창조적인 개인들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점은 이전 세대로 소급해 보면 명백해진다. 불의 사용, 식용 식물의 재배, 증기기관 등 이 모든 것들이 개인에 의하여 발견된 것들이다. 오직 개인만이 사고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규제할 새로운 도덕적 규범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다. 창조적이며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개성적 인격 없이는 사회의 발전이란 생각할 수 없다. _____ (라) 그러므로 사회의 건전성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독자성과 더불어 그들 사이의 긴밀한 정치적 단결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 <보 기> —
- ㄱ. 우리의 지식이나 신념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창조한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 ㄴ. 이 점에 비추어 우리는 한 개인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 ㄷ. 날 때부터 홀로 있는 사람은 사고력과 감정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인간이 될 것이다.
 - ㄹ. 마찬가지로 사회라는 양육의 지반 없이는 개성적인 인격의 발전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ㄱ | ㄹ | ㄴ | ㄷ |
| ② | ㄱ | ㄷ | ㄴ | ㄹ |
| ③ | ㄱ | ㄷ | ㄹ | ㄴ |
| ④ | ㄴ | ㄷ | ㄱ | ㄹ |
| ⑤ | ㄴ | ㄹ | ㄷ | ㄱ |

17. 다음은 어떤 학자의 강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내가 지적한 세 번째 문제는 역사에서 예언의 역할이다. 역사란 과학과는 달리 미래를 예언할 수 없으므로 역사로부터는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오해 투성으로 에워싸여 있다. 이제 과학자들은 예전에 그랬던 것만큼 열심히 자연의 법칙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과학의 법칙이란 실제로는 경향에 관한 설명, 즉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또는 실험실의 상태 속에 있을 경우에 무엇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다. 그 법칙은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할 수 있다고 공언하지는 않는다. 중력의 법칙은 저 특정한 사과가 땅에 떨어질 것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 사과를 따서 광주리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빛은 직진한다는 광학의 법칙은 어느 특정한 광선이 어떤 방해물에 의해서도 굴절되거나 흩어지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 말한 것이 그 법칙들은 가치가 없다거나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대물리학 이론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만 취급한다고들 말한다. 오늘날 과학에서는 귀납법이 논리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란 그저 개연성이나 합리적인 신념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상의 성과들을 오직 특수한 작용에서만 그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칙이나 지침으로 간주하려는 생각도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 콩트(1798-1857, 프랑스의 철학자)가 지적했듯이 “과학에서 예언이 나오고 예언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역사에서 예언의 문제에 관한 실마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보편적인 것과 유일한 것을 구별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역사는 일반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역사는 비록 특정한 예언은 아니더라도 미래의 행동에 대한 타당하고도 유용한 일반적인 지침을 준다. 그러나 그는 특정한 사건을 예언할 수는 없는 데, 그 이유는 특정한 것은 유일하기 때문이며 또한 거기에 우연이라는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별은 철학자들에게는 성가시겠지만 보통사람에게는 완전히 명백하다. 만일 한 학교에서 두세 명의 아동이 홍역에 걸렸다면, 여러분은 그 유행병이 퍼질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예언이라 부르기로 한다면, 그 예언은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일반화에 근거하는 것이며, 타당하고도 유용한 행동의 지침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은 찰스나 메리가 홍역에 걸릴 것이라는 식의 특정한 예언을 할 수는 없다. 역사가가 하는 일도 이와 똑같다.

- <보 기> —
- ㄱ. 역사가의 예언 역시 타당하고도 유용한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다.
 - ㄴ. 우연성은 역사가가 특정한 사건을 예언할 수 없도록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ㄷ. 과학자의 법칙은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부여된다.
 - ㄹ. 특정한 일을 예언하는 점쟁이의 예언은 역사가의 예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 | |
|-----------|-----------|
| ① ㄱ, ㄴ | ② ㄱ, ㄹ |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 ⑤ ㄴ, ㄷ, ㄹ | |

18. 다음 글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플라톤 이후 현재까지 정의에 관해 논하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지니고 있는 전제는 ‘철학에서 옳다고 제시할 수 있는 분배 체계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의는 인간이 구성한 것이며, 따라서 정의가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심스럽다. 정의의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다원주의적이다. 권력, 명예, 성원권, 부, 여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서로 다른 이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다.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의 고유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그 분배 영역에서는 오직 특정한 기준과 제도들만이 적절하다. 돈은 성직의 영역에서 부적절하며, 이것은 다른 영역에 대한 침해가 된다. 통상적인 의미의 시장이라면 경건성이나 신앙심이 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매매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려는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 지 간에 그것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지배적 가치는, 그것이 무엇이든 평등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독점’이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 주장은 독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만, 어떤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富)가 지배적 가치이면서 광범위하게 공유된다면, 어떤 다른 가치가 독점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모든 것이 상품으로 나와 있고 모든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과 똑같은 돈을 갖고 있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런 사회를 ‘단순 평등’ 체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단순 평등 체제는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의 자유 교환은 결국 부의 불평등, 나아가 다른 가치들의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점의 효과나 제한이 아니라 지배의 축소를 추구해야 한다. 지배에 대한 비판은 분배들의 실질적인 다원성을 새로운 모습으로 제시할 것이다. 서로 다른 가치들이 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지만 어떤 가치도 다른 가치를 지배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이런 사회를 ‘다원적 평등’ 체제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소규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할 것이지만, 불평등이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증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원적 평등 체제는 가치의 지배를 불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나 자녀 취학 등에서 우선권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다방면에서 재능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 또한 지배 계급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모든 분배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관념이 아예 개입할 수 없는 일부 영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적 평등 체제가 각각의 가치 영역에서의 독점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가치의 지배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불평등의 심화를 막아 준다고 볼 수 있다.

- ①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의 분배 방식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
- ②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와 사회적 가치 Y를 함께 분배받아서 안 된다.
- ③ 사회적 가치 X의 독점은 허용되지만 사회적 가치 Y의 독점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④ 어떤 사람이 사회적 가치 X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가치 Y를 분배받아서 안 된다.
- ⑤ 사회적 가치 X가 사회적 가치 Y를 지배하고 있다면, 사회적 가치 X는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19.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나는 세계를 다수의 실재들로 구성된 것으로 인식한다. 한 실재에서 다른 실재로 옮겨갈 때, 나는 그 이동을 일종의 충격으로 경험한다. 이 충격은 그 이동에 수반하는 주의력의 전환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이러한 전환을 가장 단순하게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다수의 실재들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재로서 나타나는 실재가 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실재이다. 그 특권적 지위는 지배적인 실재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의식의 긴장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고조된다. 즉, 일상생활은 가장 육중하고 긴박하며 강렬한 방식으로 의식에 부과된다. 그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약화시키는 것조차 어렵다. 결론적으로 일상생활은 나로 하여금 일상생활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요한다. 나는 일상생활을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로 경험한다. 일상생활의 실재 안에서 완전히 깬 상태로 존재하고 그 실재를 이해하는 일은 나에게 정상적이고 자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그것은 나의 자연적 태도를 구성한다.

나는 일상생활의 실재를 하나의 질서정연한 실재로 이해한다. 그 실재의 현상들은 유형들 안에 미리 마련되어 있는데 이 유형들은 내 마음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며 내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은 강요된 것이다. 일상생활의 실재는 이미 객관화되어 나타난다. 즉, 그 실재는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으며, 내가 무대에 나가기 전에 대상으로 지정되어 온 대상들의 질서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지속적으로 나에게 필수적인 객관화를 제공하며, 이 객관화를 이해하게 해주고 일상생활을 나에게 의미 있도록 만들어주는 질서를 사실로 상정한다. 나는 지리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살고, 통조림 따개에서 스포츠카에 이르는 도구들을 사용하며, 역시 어휘들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는 인간관계의 망 안에서 산다. 이런 방식으로 언어는 사회 속에서 나의 삶의 지표를 표시해주며 내 삶을 의미 있는 대상으로 채워준다.

- ① 일상생활의 실재는 이미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실재이다.
- ② 한 실재에서 다른 실재로 옮겨갈 때 주의력의 전환이 수반된다.
- ③ 나에게 일상생활의 실재 이외의 다른 실재는 무질서로 간주된다.
- ④ 일상생활의 실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재로 나타난다.
- ⑤ 언어는 일상생활의 실재를 유의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20. 다음 (가)~(마)에 대응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모든 국가는 무정부주의 세계에 있다. 심각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자신을 보호해 줄 야간경비원이 없는 세계다. 때문에 저마다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 각 나라가 장래의 생존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쟁국을 희생시키고 자국의 힘은 키우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가상적국에 대항하여 유리한 점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쓸 수도 있다. 여기에는 거짓말도 포함된다. 현실에 있어서 국가 간 거짓말은 서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서로 다른 논리에 따라 작동한다. 다음은 국가들이 서로간에 거짓말을 하는 유형이다.

- (가) 지도자가 특정 군사력의 중요성을 최소화하거나 심지어 경쟁국에게 그 사실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경우
- (나) 한 나라가 경쟁국을 상대로 실제 전쟁을 일으킬 의도가 없는데도 마치 공격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그 나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우
- (다) 한 나라가 동맹국들이 자신들에게 위협한 경쟁국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걱정될 경우, 적대국의 능력이나 행동에 관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동맹국에게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경우
- (라) 지도자들이 때때로 적을 억제하거나 심지어 강제하려는 목적으로 자국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우
- (마)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대적인 의도를 오히려 축소하는 경우

- 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마지막 해에 일본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로간에 맺은 중립 협약을 준수했다. 하지만 1945년 2월 알타에서 스탈린은 윈스턴 처칠과 루스벨트에게 다른 약속을 했다. 소련의 붉은 군대가 나치 독일이 패한 후 3개월 안에 일본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일본 지도자들은 이런 밀약이 알타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소련 측 상대에게 물었다. 소련 측 상대들은 일본과 자신들의 관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상호 중립 협약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일본을 공격했다.
- ㄷ. 히틀러는 1930년대에 자국의 군사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는 독일군의 역량을 부풀려 보임으로써 영국과 프랑스가 1936년의 라인란트 비무장지대의 재무장 같은 자신의 공격적인 외교정책 조치에 간섭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 ① (가) - ㄷ (나) - ㄱ (다) - ㄹ
- ② (가) - ㄷ (다) - ㄴ (마) - ㄹ
- ③ (나) - ㄱ (다) - ㄹ (라) - ㄷ
- ④ (나) - ㄱ (다) - ㄹ (마) - ㄷ
- ⑤ (다) - ㄴ (라) - ㄷ (마) - ㄹ

<보 기>

- ㄱ. 나토 동맹의 공식 입장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서유럽을 공격하고 독일 국경을 넘어 진군하기 시작하면 나토는 핵무기를 사용해 소련과 동맹국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아가 독일 내 국경을 따라 당초 출발 지점까지 격퇴시킨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로버트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미국의 일부 중요 정책 결정자들은 현직에 있을 때는 이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나중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소련의 대규모 재래식 공격이 닥치더라도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ㄴ.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초 미 국가안전위원회 관리를 아시아로 보내 북한이 핵무기 제조의 핵심 요소인 우라늄 헥사플루오라이드를 리비아에 판매했다고 말하게 했다. 하지만 리비아에 우라늄 헥사플루오라이드를 실제로 판 것은 북한이 아니라 파키스탄이었다. 파키스탄이 처음 그 화합물을 구한 곳이 북한일 수는 있지만 북한이 그 물질을 파키스탄에 넘길 때 리비아에 이전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주었음을 입증하는 공식 기록은 없다. 실제 확보된 증거만으로 보자면 북한-파키스탄, 파키스탄-리비아 간의 거래는 별개의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당시 중국, 일본, 한국이 북한이 야기하는 위협의 심각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런 류의 거짓말에 관여했다.
- ㄷ.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은 서부전선의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비밀리에 탱크를 개발했다. 그 과정에서 영국 지도자들은 그 사실에 관해 일련의 거짓말을 했다. 영국 지도자들은 신형 탱크를 두고 무장 전투차량이나 육상선박이 아니라 전방전선으로 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개발한 물탱크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막후 밀실에서는 육상선박이라 불렀다.

21.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다음은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이면서 영화감독인 앨버트 브룩스가 2011년에 쓴 소설 『2030년 그들의 전쟁』의 내용이다. 2026년 캘리포니아 주 팜 데저트의 도심 한가운데를 달리던 버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버스에는 모두 서른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 아홉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40세 미만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사상자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총기를 난사한 26세의 청년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내성적이었지만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가 총기를 난사한 이유는 한동안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러다 그가 사건 직전 한 하원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다. 그는 이 편지에서 “나는 평생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대주는 것을 당장 멈추라고 위협했다.

(나) 베를루스코니가 총리에 당선되었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었다. 1919년 시작된 이탈리아 국민연금을 두고 ‘곧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했지만,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이 임박한 고령층의 반대에 밀려 국민연금 개혁 시도는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보수 우파를 기치로 내세운 베를루스코니의 이탈리아당은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연금 개혁에 도전했지만, 이탈리아의 고령층은 자신들의 연금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격렬히 반대했다. 베를루스코니가 연금 개혁을 추진하자마자 그의 인기는 순식간에 추락했고, 때마침 부패 스캔들마저 터지면서 정권을 잡은지 단 7개월 만에 실각했다.

(다) 미국은퇴자협회는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고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이는 등 응집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은퇴자협회의 로비를 미국에서는 ‘그레이 로비(grey lobby)’라고 부른다. 다른 연령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매우 빈약한 미국에서 유독 노인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발달한 것은 이 은퇴자협회의 활약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공공의료보험 체계가 부실한 미국에서 1965년 노인들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체계인 메디케어(medicare)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바로 이 은퇴자협회였다.

(라) 우리나라는 젊은층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투자가 ‘무상복지’라며 매우 인색하게 굴고 있다. 같은 ‘무상복지’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지출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투자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비록 회수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기성세대가 은퇴이후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무상복지’가 아니다. 특히 넘쳐나는 자본에 비해 투자할 곳이 줄어드는 성숙한 경제에서는 청년복지가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마) 후한 광무제 때 남만족의 봉기가 일어났다. 광무제는 군대를 파견했지만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하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명장 마윈이 62세의 나이였음에도 출정을 청했다. 광무제가 전장에 나서기에는 너무 늙었다며 주저하자, 마윈은 “소신이 비록 나이는 많지만 갑옷을 입고 말도 탈 수 있으니,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말에 훌쩍 올라탔다. 마윈은 남만족의 봉기를 제압하고, 그 뒤 대장군이 되어 흉노 토벌에도 큰 공을 세웠다.

- ① (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우호적인 정책이 채택될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을 보여준다.
- ③ (나)와 (다)는 노인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라)는 젊은층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투자는 결코 ‘무상복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⑤ (마)는 어떠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고령의 나이가 절대적 제약조건이 아님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2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조사 ‘와’와 ‘과’는 한 형태소의 변이형태들이다. 모음으로 끝난 말 다음에 ‘와’가 오고, 자음으로 끝난 말 다음에는 ‘과’가 온다. 너와 나, 사람과 사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런 식으로 접속조사로 많이 쓰인다.

그런데 와/과는 접속조사만이 아니라 부사격 조사로도 쓰인다. 예컨대 ‘시민이 경찰과 싸운다’에서 ‘과’는 부사격 조사이다. 동사 ‘싸우다’가 부사격 조사를 포함한 부사어 ‘경찰과’와 호응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동사를 대칭성 동사라고 한다. 대칭성 동사의 주어에는 반드시 짝이 필요하다. 상대도 없이 그냥 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누구랑 같이, 다시 말해 누구에게 맞서 싸워야 한다. 동사 ‘마주치다’도 마찬가지이다. 누구와 마주쳐야 한다. 또 ‘~와 경쟁하다, ~와 연애하다, ~와 혼인하다, ~와 상담하다, ~와 어울리다, ~와 합치다’와 같은 동사들도 대칭성 동사이다.

대칭성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와’나 ‘과’는 두 주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접속조사가 된다. 예컨대 ‘나는 너와 연애한다’라는 문장의 부사격 조사 ‘와’는 이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나와 너는 연애한다’라는 문장에서는 접속조사로 쓰인다. 물론 뉘앙스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은/는은 흔히 토픽, 화제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그래서 ‘나는 너와 연애한다’는 ‘내 얘기를 해보자면, 너와 연애해’ 그런 뜻이다. ‘나와 너는 연애한다’는 ‘나와 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는 서로 연애해’ 이런 뜻이다. 그렇지만 뉘앙스는 문법 수준에서는 분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칭성 동사가 쓰일 때 그 와/과는 자유롭게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사격 조사 와/과와 같이 쓰이는 것으로 대칭성 동사 말고 비교형용사가 있다. 비슷하다, 닮다, 다르다, 동일하다, 똑같다, 상이하다, 유사하다, 이런 말들 역시 반드시 주어의 짝이 필요하다. ‘나는 ~와 비슷하다’고 해야지, ‘나는 비슷하다’는 말이 안 된다. ‘나는 달라’라는 말이 흔히 쓰이긴 하지만, 그건 ‘달라’ 앞에 뭔가가 생략된 것이다. 가령 ‘나는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는 의미인 것이다.

비교형용사와 쓰이는 와/과도 대칭성 동사와 함께 쓰이는 와/과처럼 자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나는 너와 유사하다’와 ‘나와 너는 유사하다’, 이 둘은 문법적으로 뜻이 같다.

비교형용사의 특징 중 하나는 이른바 비교구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교구문이란 ‘~처럼’, ‘~같이’, ‘~보다’와 같은 말을 포함하는 구문이다. ‘나는 너처럼 비슷하다’, ‘나는 너보다 동등하다’, ‘나는 너처럼 같다’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이다.

- ① ‘철회는 영지보다 다르다’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다.
- ② ‘나와 그녀는 우연히 마주쳤다’에서 ‘와’는 대칭성 동사와 함께 쓰인 부사격 조사이다.
- ③ ‘나리는 연희와 닮았다’에서 ‘와’는 비교형용사와 함께 쓰인 부사격 조사이다.
- ④ ‘오빠는 똑같아’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이다.
- ⑤ ‘나는 경호와 결혼했다’와 ‘나와 경호는 결혼했다’는 문법적으로 의미가 구별되지 않는다.

2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박세당(朴世堂)은 주희(朱熹)의 사상을 고원하다고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도덕경(新註道德經)』에서 도리어 주희의 형이상학적 경전 해석 방식을 수용하였다. 반면 홍석주(洪奭周)는 주희의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그의 『도덕경(道德經)』 주석, 즉 『정노(訂老)』에서 주희의 형이상학적 경전 해석 방식을 거의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양자의 사상이 『도덕경』 주석에서 자신의 근본적 입장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박세당이 『도덕경』을 주희의 형이상학적 경전 해석 방식, 곧 체용론으로 주석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문(文)의 근본이 질(質)에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홍석주가 고원하게 보이는 노자의 사상을 평이하게 주석한 것은 학문의 근본이 문식(文識)에 있지 않고 실질(實質)에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홍석주가 『도덕경』을 주석한 목적을 주희의 사상과 연결시켜 보면, 의리를 주로 하는 주자학의 근본도 결국 경제적 요소와 학문적 실천성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박세당이나 홍석주가 『도덕경』 주석을 통해 이루려 했던 목적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들은 각기 주희의 사상에 대해 이탈과 계승이라는 상반된 입장에 있다. 박세당이 『도덕경』을 주희의 형이상학으로 풀이한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주희를 혹독하게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가 의도적으로 주희의 고원한 경전 해석 방식이 『도덕경』의 주석에나 적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홍석주가 『도덕경』을 가능한 한 평이하게 주석한 것은 박세당의 노자 주석을 비판함으로써 주희의 입장을 되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보기에 박세당과 같이 『도덕경』을 주석하는 것은 노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희의 사상을 함부로 남용한 것이다. 주희의 사상에 대해 홍석주는 학문의 실천성과 경제적 요소가 풍부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학자들은 시대적인 모순을 극복함에 있어 제각기 주희의 사상에 대해 서로 계승과 이탈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비록 그들이 주희의 사상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을지라도 _____ 는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 후기 실학이 주희를 이탈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주희를 계승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실학에 관한 연구도 이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주자학을 계승한 학자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① 문에 치우친 시대상을 바로잡아 실질을 회복해야 한다.
- ② 노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 ③ 주희의 사상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④ 특정한 사상을 고원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 ⑤ 학자들 간의 경전 해석 방식의 차이를 융통성 있게 수용해야 한다.

2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조선왕조실록』 중 『인조실록』에는 “밤에 기운과 같은 흰 구름 한 줄기가 동쪽에서 일어나 곧바로 서북방을 가리켰는데 길이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 남서쪽에 불빛 같은 기운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존재한다. 『인조실록』에는 무려 약 50회나 이 수상한 불빛의 출현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특히 1624년(인조 2년)에서 1626년(인조 4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더구나 이 불빛 기운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이외에도 B.C. 35년경인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때의 『삼국사기』 기록을 시작으로 하여 조선 중기 때까지 무려 700여 회나 등장한다. 도대체 이 불빛 기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지난 2008년 ‘영국 왕립천문학회’가 발간하는 과학전문지에 「불빛기운은 한국의 오로라였다」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에 의하면 1626년 초는 태양 흑점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였는데, 당시 기록의 시간대와 관측 방향 등을 분석한 결과 1624년부터 1626년까지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연평균 20여 차례씩 등장하는 불빛 기운은 오로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로라란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이 방패처럼 지구 주위를 둘러싼 지구 자기장을 따라 극지 쪽으로 흘러가다가 상층 대기와 부딪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태양의 고에너지 입자들이 대기 중의 산소 또는 질소와 충돌하면 녹색 또는 적색의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밤하늘을 신비로운 빛으로 물들이는 원인이다. 오로라는 100km~400km 고도의 상층 대기권에서 생기며, 60도~80도의 고위도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대개 캐나다 중북부, 알래스카 중부, 시베리아 북부 연안 등지에서 볼 수 있다.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보통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인데,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일 때처럼 하늘에서 한 줄기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장관이 연출된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서 1779년(정조 3년) “불빛과 같은 기운이 있었다.”라는 기록 이후 오로라를 추정케 하는 기록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럼 고구려 초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수없이 오로라가 관측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책은 11세기 중국 송나라 때 심괄이 지은 『몽계필답』이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중앙부분을 수평 방향으로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한 작은 영구 자석인 자침을 명주실에 달아매어 방위를 알아내곤 했다. 심괄은 이 책에서 자침은 대략 남북을 가리키지만 그 남북 방향이 진짜 남북(진남, 진북) 방향과는 약간 다르다고 기술했다. 직선으로 이었을 때 지구의 회전축이 되는 것은 바로 진북과 진남이지만, 나침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구 회전축인 진북과 진남이 아니라 지구가 만들어내는 지구 자기장이기 때문이다. 지구 자기장의 북극, 남극은 진북(眞北), 진남(眞南)과 구별해 자북(磁北), 자남(磁南)이라 한다. 다시 말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곳은 자북이고, 실제 지구의 북쪽 중심은 진북이다. 진북과 자북의 차이를 주목한다면 과거 오로라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관측된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의 극지 쪽으로 흘러가다 상층 대기와 부딪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조선의 오로라 현상은 자북이 우리나라 부근에 자리잡고 있어서 나타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럼 지금은 왜 오로라가 관측되지 않는 것일까?

현재 자북의 위치는 캐나다 서북부와 알래스카 접경지대인 레절루트 베이 부근으로 그 곳은 진북에서 남동쪽으로 약 1천 km 떨어져 있다. 흥미롭게도 자북은 한 곳에 고정된 것이 아

니라 계속 이동하고 있으며, 자북이 옮겨 다니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구 자기장의 태동 시스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2005년 미국 오리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알래스카에 위치한 자북은 매년 40km정도씩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바로 여기에 조선 시대 때 관측된 오로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 ①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오로라를 관측할 수 없는 것은 지구 자기장의 태동 시스템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② 『인조실록』 기록에 나타난 ‘기운과 같은 흰 구름’이란 오로라의 흰 연기를 우리 조상들이 흰 구름으로 묘사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③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는 북위 37도 32분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로라를 관측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 ④ 예전에는 진북이 지금보다 훨씬 한반도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오로라를 자주 관측할 수 있었다.
- 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오로라를 빈번하게 관측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29. 다음 <보기>를 읽고 옳은 것을 고르면?

<보 기>

A회사에서 물건 유출 사건이 발생하여 관련자 다섯 명을 소환하였다. 다섯 명의 이름을 편의상 갑, 을, 병, 정, 무라 부르기로 한다. 다음은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참으로 밝혀진 내용들이다.

- ㄱ. 소환된 다섯 명이 모두 가담한 것은 아니다.
- ㄴ. 갑과 을은 물건유출에 함께 가담하였거나 함께 가담하지 않았다.
- ㄷ. 을이 가담했다면 병이 가담했거나 갑이 가담하지 않았다.
- ㄹ. 갑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정도 가담하지 않았다.
- ㅁ. 정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갑이 가담했고 병은 가담하지 않았다.
- ㅂ. 갑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무도 가담하지 않았다.
- ㅅ. 무가 가담했다면 병은 가담하지 않았다.

- ① 가담한 사람은 ‘갑’, ‘을’, ‘병’ 세 사람뿐이다.
- ②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무’ 한 사람뿐이다.
- ③ 가담한 사람은 ‘을’과 ‘병’ 두 사람뿐이다.
- ④ 가담한 사람은 ‘병’과 ‘정’ 두 사람뿐이다.
- ⑤ 가담한 사람은 ‘갑’, ‘을’, ‘병’, ‘무’ 이렇게 네 사람이다.

3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계몽이란 인간 자신이 초래한 미성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미성숙이란 타인의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미성숙 상태를 스스로 초래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의 원인이 이성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바로 이것이 계몽의 표어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의 지도에서 해방된 뒤에도 일생 동안 미성숙 상태에 머무르는 이유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후견인으로 들어앉는 이유는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이다. 미성숙 상태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편안하다. 만약 나를 대신하여 양심을 갖고 있는 목사가 있다면, 나는 조금도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것에 대해 보수를 지불할 능력만 있다면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 골치 아픈 일거리를 다 떠맡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몽을 위해서는 자유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해가 없는 자유, 즉 모든 국면에서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성의 공적 사용은 언제나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이성의 공적 사용만이 인류에게 계몽을 가져올 수 있다. 이성의 공적 사용이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학자로서 독자 대중 앞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반면에 이성의 사적 사용이란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시민적 지위나 공직에서 이성을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근무 중의 장교가 상관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적합하지 또는 유용한지에 대해 시끄럽게 논의한다면, 그것은 매우 쓸데없는 짓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한 사람의 학자로서 병역의 의무가 갖고 있는 결점을 비판하고 그것을 대중의 판단에 호소하는 것은 정당하게 금지될 수 없다. 시민은 그에게 부과된 조세의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의 학자로서 과세의 부당함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대중 앞에 발표한다면, 그것은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의무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종교 문제에서 국민에게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고 그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로만 생각하는 군주, 따라서 관용이란 존대한 칭호도 사양하는 군주야말로 스스로 계몽된 사람이다. 종교적 계몽을 장려하는 국가 지도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입법에 관해서까지 국민이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여 현행 법률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심지어 기존의 법률에 관한 공명정대한 비판까지도 널리 발표하도록 허락하더라도 어떠한 위험도 없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다.

- ① 시민은 자신의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의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스스로 계몽된 군주는 종교 문제에서 국민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로 간주한다.
- ③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의 결핍이 아니라 게으름과 비겁함 때문에 미성숙 상태에 머무른다.
- ④ 자신에게 맡겨진 시민적 지위에서 이성을 사용한 것은 이성의 사적 사용이다.
- ⑤ 계몽을 위해서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필수적이다.

3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근일에 국사를 근심하는 사람들이 혹 말하되, 국세(國勢)를 진기(振起)하여 부강하려 하면 하의원(下議院)을 배설(排設)해야 하겠다 하니, 조금 덜 생각한 일이라. 하의원이라 하는 것은 백성에게 정권을 주는 것이다. 정권을 가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든지 몇 만 명이든지 지식과 학문이 있어서 다만 내 권리를 알 뿐만 아니라 남의 권리를 손상치 아니하며, 사사(私事)를 잊어버리고 공무를 먼저 하며 작은 혐의를 보지 않고 큰 의리를 숭상해야 민국에 유익한 정치를 시행할지니, 무식하면 한 사람이 다스리나 여러 사람이 다스리나 국정을 그르치기는 마찬가지요, 무식한 세계에서는 민주국보다 군주국이 도리어 견고함은 고급 사기와 구미 각국의 정형을 보아도 알지라.

그런고로 어느 나라든지 하의원을 설치하려면 먼저 백성을 흡족히 교육하여 무슨 일이든지 총명하게 의론하며, 대소 사무에 나라 일을 자기 일같이 재미있게 하여야 낭패가 없거늘, 우리나라 인민들은 몇 백 년 교육이 없어서 나라 일이 어찌되든지 당장 자기에게 괴로운 일이 없으면 막연히 상관을 아니 하며, 정부가 누구 손에 들든지 조반석죽(朝飯夕粥)만 하고 지내면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든지 걱정을 아니 하며, 자유니 민권이니 하는 것은 말도 모르고 혹 말이나 들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자유로 알고 남을 해롭게 하여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을 권리로 아니, 이러한 백성에게 홀연히 민권을 주어서 하의원을 실시하는 것은 도리어 위태함을 속(速)하게 함이라.

또 일본 사람은 서양 개화를 모방하기 전에도 우리보다 백 배나 문명한 사람들이요, 서양 정치와 풍속을 배우기 시작한 후에 주야로 힘써서 30년 동안 세계가 놀라게 진보하였으되, 명치 원년(1868)에 상·하의원을 배설하지 않고 겨우 명치 20~30년에야 국회를 시작하고, 또 상·하의원을 실시하기 전에 오히려 미흡한 일이 있을까 하여, 극히 총명한 위원들을 구미 각국에 파송하여 상·하의원 제도의 과정과 사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채용하였으니, 일본도 이같이 삼가서 하의원을 배설하였거늘, 우리는 외국 사람과 통상 교제한 후 몇 해 동안에 배운 것이 지권연(紙卷煙) 먹는 것 한 가지밖에는 없으니, 무슨 염치로 어느새 하의원을 꿈이나 꾸리오.

이런 망발은 하지들 말고 다만 이번에 독립협회에서 조병식 씨가 일을 하듯이, 우리 분내(分內)에 있는 권리나 지켜서 황상 폐하의 덕택으로 정부가 다 맡은 직분들을 하게 되거든, 안으로는 학교를 도처에 실시하여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여 밖으로는 구미 각국에 학도를 파송하여 유익한 학문을 배워다가, 인민의 지식이 쾌히 열려 40~50년 진보한 후이나 하의원을 생각하는 것이 온당하겠도다.

- ①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 나라의 특수한 경험과 우리의 현재 상황을 엄정하게 비교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정치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
- ③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④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경우에 대비하여 백성에게 정권을 주어야 한다.
- ⑤ 국제정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실제로 시행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적절한 제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6. <보기>는 <A>에 대한 반응이다. 이에 근거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A > —

시모니데스가 크레온의 아들 스키타코스에 바친 시에 이처럼 적혀 있네.
 ‘뛰어난 인간이 되기란 실로 어려운 것을
 행실과 마음이 하나같이 흠없는-’
 이 노래의 앞의 구절은 이렇다네. 역시 같은 사람이 읊었지.
 ‘어진 피타코스의 말도 잘못이니
 뛰어난 인간으로 있기란 어렵다네-’

— <보 기> —

(가) 이 시구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네. 처음에 ‘뛰어난 인간으로 있기란 어렵다’고 말한 피타코스의 말을 비난하고 그의 견해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 어렵다고 했네. 이것으로 보아 자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 자를 비난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과 같지 않겠나? 그러므로 앞의 말이나 나중의 말이나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다고 보네.

(나) 시모니데스가 비난하고 있는 피타코스의 말은 그 자신의 주장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지요. 피타코스가 어렵다고 말한 것은 시모니데스의 말처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된다’는 것과 ‘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 무엇으로 있다는 것과 된다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면, 시모니데스의 말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신들은 땀을 흘려야만 덕을 얻게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란 어렵겠지만, ‘덕의 절정에 이르고 나면 앞에서 겪은 어려움은 나중에는 쉬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 그렇다면 부족하지만 이 문제가 된 시구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는 것, 즉 철학은 그리스나 크레타나 라케다이몬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고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많은 소피스트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무식한 듯 가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피스트들과 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인들보다 뛰어난 것은 지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싸움과 용기로 얻어진 것이라고 남에게 인식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뛰어난 이유가 상세히 밝혀지면 모든 사람이 지혜를 갖추려고 애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모두 스파르타인의 교육을 예찬하고 공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지혜란 흔히 앞에서 말한 것, 즉 경우에 따라서 마음에 새길 만한 짙막한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식으로 간명한 말을 쓰는 것이 옛사람들의 철학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피타코스의 시구에 ‘뛰어난 사람으로 있기란 어려운 것’이란 말도 지혜 있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이처럼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시모니데스는 지자(智者)로서의 명성을 얻으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피타코스의 명언을 능가할 수 있다면 당시에 명성을 얻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피타코스의 격언을 과녁으로 삼아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그와 같은 시와 노래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① (가)는 <A>의 시구를 비판하고 있다.
- ② <A>에 주어진 시모니데스의 시구가 모순인지에 대하여 (가)와 (나)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③ ‘뛰어난 사람으로 있는 것’과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본다면 (가)의 주장은 타당하다.
- ④ (다)에 따르면, 시모니데스는 피타코스의 격언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자신의 시구에 ‘되기란’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 ⑤ (나)와 (다)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A>의 시구에서 시모니데스는 ‘뛰어난 사람이 되기란 어려우나 그 상태를 지속하여 뛰어난 사람으로 계속 있기란 더욱 어렵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37.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며 충성과 믿음이 없어진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지나친 혼란이 생기고 예의와 아름다운 형식이 없어진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을 따르고 사람의 감정을 좇는다면 반드시 다투고 뺏게 되며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되어 난폭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의 인도가 있어야 하며 그런 뒤에야 서로 사양하게 되고 아름다운 형식을 갖게 되어 다스림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므로 굵은 나무는 반드시 뿔나무를 대고 찌서 바로잡은 뒤에라야 곧아지며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간 뒤에라야 날카로워지듯이 지금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은 반드시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이 있는 뒤에라야 다스려지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편벽되고 음험하여 바르지 않을 것이며, 예의가 없다면 이치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짓을 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 성왕께서는 사람들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편벽되고 음험하며 바르지 않고 이치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짓을 해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제정해 사람들의 감정과 본성을 바로잡고 수식함으로써 이를 올바르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감정과 본성을 길들이고 교화함으로써 이를 올바르게 인도하였다. 이에 비로소 모두 잘 다스려지고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스승과 법도에 교화되고 학문을 쌓으며 예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본성과 감정을 멋대로 버려두고 멋대로 행동하는 데 안주하고 예의를 어기는 자를 소인이라 한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 ①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므로 사회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므로 성왕의 통치가 필수적이다.
- ③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는 하지만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에 의해 다스려질 수 있으므로 교육이 필요하다.
- ④ 사람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사회의 지배구조는 군자의 소인에 대한 지배로 귀결된다.
- 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는 명제가 거짓임을 논증하기 위한 반명제일 뿐이다.

38.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은 키가 100피트보다 작다”라는 합당한 믿음을 믿는다고 하자. 내가 본 바로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설의 입증 사례들이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서커스에서 나는 키가 99피트인 사람을 본다. 이 경우, 서커스장을 떠날 때 나는 모든 사람이 키가 100피트보다 작다는 데 대해서 덜 확신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99피트의 인간은 분명히 또 하나의 입증 사례인데 말이다. 이 역설의 근거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의 말이 우리가 뜻하는 바를 언제나 제대로 담아내는 것은 아니다. 가끔 말들은 우리가 다소 모호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불완전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내가 어떤 인간도 엄청난 높이로, 예컨대 단위가 다를 정도로거나 평균보다 훨씬 더 크거나 등의 높이로 자랄 수는 없을 거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일 수 있다. 여기서 100피트라는 정확한 수치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숫자는 우리 생각에 절대로 있을 수 없을 높이를 나타내기 위한 한 예로서, 떠오르는 대로 말한 것뿐이다. 내가 미터법을 사용한다면 어쩌면 나는 “모든 인간은 키가 30미터보다 작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30미터는 98.43피트이므로 그 99피트 인간은 30미터 가설의 반례였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키가 100피트보다 작다”는 가설을 말할 때 우리가 의미했던 것이 99피트 인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느낀다. 이것은 마치 범조문의 문자에는 맞지만 의도에는 맞지 않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 역설에는 또 다른 뿌리가 있다. 이 가설을 놓고 친구와 내기를 걸었다고 하자. 키가 100피트인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나는 내기에서 지게 되고 친구에게 멋진 곳에서 저녁을 내야 한다. 이 가설은 지적인 호기심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내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기의 정확한 조건뿐이다. 99피트의 인간은 매우 가깝지만 2% 부족하다. 그 사람 정도는 내가 내기에서 이길 기회를 위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99피트의 인간이 나의 가설이 들어맞게 될 가능성에 위협이 된다고 느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인간의 성장과 변이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어서 99피트 인간이 있다는 사실이 주어지면 100피트 인간이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짐을 추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갖는 거의 모든 속성들은 결국에는 다시, 그것도 더 강화되어 나타난다. 99피트 인간의 존재는 인간이 약 100피트까지 자라는 것이 유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가 이 가설을 어떤 비본질적인 정보도 없이 검사하는 방법을 찾는다고 해보자. 5번가의 제일 번잡한 곳의 길에 지나가는 보행자를 탐지하는 장치를 매설한다. 그 탐지기 위로 100피트 되는 곳에는 전자안(electric eye)이 설치되어 있다. 누군가 탐지기를 밟으면 전자안은 보행자에 의해서 땅 위 100피트 높이를 지나는 광선이 차단되었는지 감식한다. 기록 장치는 통과하는 모든 보행자들과 특히 키가 100피트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보행자들을 기록한다. 나는 탐지기를 열어 결과를 본다. 기록판에는 “0/310,628”이라고 되어 있다. 310,628명의 보행자가 지나갔는데 키가 100피트인 사람은 없었다(0)는 뜻이다. 310,628명의 보행자들 모두가 그 가설의 입증 사례들이다. 각각의 보행자들은 그 가설을 정확하게 같은 정도로 입증한다. 우리가 보행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 100피트보다 작다는 것 뿐인데, 그 보행자들 중 어떤 이가 그 가설을 다른 이보다 더 큰 정도로 입증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키가 99피트인 사람이 5번가를 지나게 되어서 탐지기에 기록된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그 가설을 입증할 것이다. 그가 지나간 덕분에 기록판은 “0/310,627”이 아니라 “0/310,628”라고 말할 것이고 나는 그 가설을 아주 조금 더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남자가 키가 99피트였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인간의 성장의 편차에 대해서 아는 것 등의 부가적인 정보들 때문에 그저 하나의 입증 사례에 불과한 것이 “모든 인간은 키가 100피트보다 작다”는 가설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 ① 99피트 인간의 존재는 “인간은 키가 100피트보다 작다”라는 가설을 의심케 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 ② 부가적인 정보의 존재 유무에 따라 가설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 ③ 언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명제의 의도가 온전하게 전해지지 못할 수 있다.
- ④ 99피트의 사람이 아무리 많이 탐지기를 지나가도 이를 모른 채 탐지기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들은 모두 “인간은 키가 100피트보다 작다”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 ⑤ 인간과 성장과 변이에 대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10피트의 사람만 존재하면 11피트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이를 반복하면 100피트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39. 다음 중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ㄱ. 만약 인재 지역할당제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타 지역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러나 만약 인재 지역할당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지역인의 취업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인재 지역할당제를 실시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타 지역인들에 대한 역차별이거나, 지역인의 취업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ㄴ. 조직화 능력과 동기부여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은 크게 성공한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공무원들 사이에 잘 알려진 인물은 오직 크게 성공한 공무원뿐이다. 또한 동기부여 능력을 갖춘 공무원은 공직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화 능력이 없는 모든 공무원은 공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ㄷ. A국 시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면 A국 시민이다. 양식업을 하고 있는 A국 시민은 모두 해안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제임스가 A국 시민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해안가에 살고 있다면 제임스는 양식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ㄹ. 만약 대학생의 학력이 낮아진다면, 세계화의 추세에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세계화의 추세에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대학생의 학력이 낮아진다면,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2015년 제31회 입법고시 정답표(가형)

|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
| 문제1 | 4 | 5 | 4 |
| 문제2 | 1 | 3 | 5 |
| 문제3 | 5 | 4 | 3 |
| 문제4 | 3 | 1 | 4 |
| 문제5 | 4 | 2 | 5 |
| 문제6 | 3 | 3 | 3 |
| 문제7 | 4 | 5 | 4 |
| 문제8 | 5 | 5 | 1 |
| 문제9 | 5 | 4 | 2 |
| 문제10 | 4 | 5 | 1 |
| 문제11 | 1 | 3 | 5 |
| 문제12 | 5 | 5 | 2 |
| 문제13 | 1 | 3 | 2 |
| 문제14 | 3 | 4 | 4 |
| 문제15 | 2 | 2 | 5 |
| 문제16 | 2 | 4 | 1 |
| 문제17 | 4 | 1 | 3 |
| 문제18 | 4 | 2 | 2 |
| 문제19 | 3 | 1 | 5 |
| 문제20 | 2 | 2 | 5 |
| 문제21 | 3 | 3 | 5 |
| 문제22 | 2 | 2 | 5 |
| 문제23 | 5 | 3 | 1, 4 |
| 문제24 | 2 | 5 | 4 |
| 문제25 | 1 | 4 | 3 |
| 문제26 | 2 | 1 | 3 |
| 문제27 | 5 | 1 | 2 |
| 문제28 | 4 | 5 | 3 |
| 문제29 | 2 | 5 | 5 |
| 문제30 | 1 | 1 | 1 |
| 문제31 | 1 | 4 | 1 |
| 문제32 | 1 | 1 | 2 |
| 문제33 | 1 | 3 | 4 |
| 문제34 | 3 | 4 | 2 |
| 문제35 | 1 | 4 | 1 |
| 문제36 | 5 | 4 | 4 |
| 문제37 | 3 | 5 | 1 |
| 문제38 | 5 | 2 | 1 |
| 문제39 | 5 | 2 | 3 |
| 문제40 | 2 | 3 | 4 |

언어논리영역

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공업화 과정이나 기타 경제 활동의 대부분은 욕망과 이성의 두 가지에 의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인정받고자 하는 영혼의 '패기'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 그 중에서도 보통교육의 보급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인정받기 위한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 만일 인간이 욕망과 이성뿐인 존재에 불과하다면 프랑코 정권하의 스페인, 또는 군사독재 하의 한국이나 브라질 같은 시장경제 지향적인 권위주의 국가 아래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패기' 넘치는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어린아이가 아닌 어른으로서 대해주는 정부,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자주성을 인정해주는 민주적인 정부를 원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가 인정에 대한 중대한 결함을 내포한 통치형태라는 사실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의 원동력인 인정받기 위한 욕망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문화나 종교, 노동, 민족주의, 전쟁 등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가지 현상을 재검토하게 된다. 예를 들면 종교를 믿는 사람은 특정한 신이나 신성한 관습에 대한 인정을 원하고 있다. 한편 민족주의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의 언어적, 문화적, 또는 민족적 집단에 대해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정의 형태는 모두가 자유국가에 대한 보편적 인정에 비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聖)과 속(俗), 또는 인간 사회의 여러 집단에 대한 임의적 구분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나 민족주의 또는 어떤 민족의 윤리적 습성과 관습의 혼합체 등이, 전통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정치제도나 자유시장경제의 건설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 기>

- ㄱ. 공업화의 진전과 경제적 성장은 한국이나 브라질이 시장경제 지향적인 권위주의 국가를 탈피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 ㄴ. 인간의 영혼은 이성, 욕망, 패기(인정받기 위한 욕망) 등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ㄷ.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특정한 신이나 신성한 관습에 대한 인정을 원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까닭은 그들이 인간 영혼의 패기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ㄹ. 공업화의 진전과 보통교육의 보급은 민주주의적인 정치제도와 자유시장경제의 건설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ㅁ. 자유민주주의가 인정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통치형태임에 비해, 공산주의는 인정에 대한 중대한 결함을 지닌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2.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 (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그 하나는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객관적으로 요청받는 것으로 관념하는 법칙, 즉 행동을 의무로 하는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마땅히 해야 한다고 하는 행동에 의지의 결정동인, 즉 주관적 자율규범을 명하는 것으로서 요청되는 법칙이다. 전자의 의무이행은 합법성을 낳고, 후자의 자율규범 준수는 도덕성을 낳는다.
- (나) 자연법론자들은 일정한 시대와 장소를 지배하는 실정법, 즉 성문법의 배후에는 때와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 원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불렀다. 요컨대 자연법은 인류영원의 길이며, 윤리의 본질에 가장 접근한 것이므로, 법의 근저에는 항상 도덕이 깔려 있어 양자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를 이룬다.
- (다) 만일 인간의 행위책임이 주관적 윤리법칙에 위반함으로써 생긴다고 하면 사회인의 대다수가 항상 책임을 추궁 당하게 되며,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 사람은 국가가 정립한 외부적 행위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비로소 벌해질 수 있게 됨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확보된다. 또한 국가는 행위자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 간섭할 수 없다.
- (라) 법은 다른 사회규범과 달리 두 개의 원리 위에 성립하고 있다. 즉 법을 입법할 때 어떠한 행위를 적법으로 하고 어떠한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가 하는 결정은 한편으로는 정의의 요청과 다른 한편으로는 합목적성이라는 2대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실로 정의와 합목적성은 모든 법제도의 정립에 있어 2대 원칙으로서 입법 이전은 물론 그 후에도 법운영의 정신적 안목으로 작용한다.
- (마) 사회는 자신의 존립을 지킬 권리를 가지므로, 지배도덕은 사회존립을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지배적 공공도덕을 훼손한다면, 사회는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 필수적인 질서를 보호하려고 법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공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① (가)와 (나)의 견해는 공통적으로 법에 대한 도덕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다.
- ② (나)와 (다)의 견해는 법과 도덕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 ③ (가), (나), (마)의 견해는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④ 윗글에서 나타난 견해 중 (다)의 견해와 가장 대립되는 것은 (마)의 견해이다.
- ⑤ (가)와 (라)의 견해는 합목적성을 중요한 원리로 인정하고 있다.

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영화 <스타워즈>의 아나킨은 이분법적인 사고로 아군과 적을 구분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둘 사이의 경계를 오고가며 입장의 과격한 변화를 보인다. 가장 극명한 사례는 ‘다스 베이더’가 된 직후 ‘제다이 기사’ 시절 스승이었던 오비-완에게 던진 유명한 대사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도 나의 적입니다.”이다. 다스 시디우스가 악의 세력인 ‘시스’임을 동료 제다이들에게 알려 그를 체포하도록 시도하게 한 장본인이 아나킨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시디우스와 새롭게 형성된 도제관계로 인하여 그는 시디우스를 체포하려는 제다이의 행위를 권력 찬탈이라 비난하며 옛 스승인 오비-완과 사생결투를 벌인다.

이렇듯 극단적인 사고가 압축된 아나킨의 대사는 9.11. 테러 사건 이후 부시대통령의 발언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테러리스트 편입니다.”와 겹쳐져 영화 <스타워즈>의 제작자인 루카스가 부시 대통령을 악의 세력에 견준 것이 아니냐는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아나킨의 도발적 발언에 오비-완은 “오로지 시스만이 절대성을 다룬다.”라고 대답함으로써 관점의 차이로 인한 상대성 혹은 다름을 포용하는 제다이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영화 <스타워즈>에서의 ‘관점의 차이’는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제1편에서 오비-완이 소년인 아나킨에게서 위협한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을 때, 오비-완의 스승인 콰이곤 진은 “자네의 관점에서 그렇지.”라고 반박했고, 제3편에서 오비-완이 아나킨과의 결투 중 그에게 “시디우스는 사악한 자이다.”고 말하자 아나킨은 “내 관점에서는 제다이가 사악하다.”라고 대꾸하며, 이에 대해 오비-완은 “㉠ 그렇다면 너는 틀렸다.”라고 반박한다. <스타워즈> 제6편에서 루크(Luke)는 요다(Yoda)로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아나킨이자 다스 베이더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오비-완에게 “왜 다스 베이더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거짓말했느냐.”라고 책망한다. 이에 오비-완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내가 말한 것은 진실이다. 우리가 고수하는 많은 진실들은 우리의 관점에 의존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해명한다.

그렇다면 <스타워즈>의 ‘관점의 문제’는 오비-완이 수호하려던 민주주의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절대성을 신봉하는 시디우스, 아나킨과 달리 오비-완의 말대로 관점에 따라 진실이 달라질 수 있다면, ㉡ 오비-완의 입장에서 제다이가 사악하다는 아나킨의 관점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만약 아나킨의 관점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오비-완이 믿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인 다양한 관점의 공존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작품 속에서 공화국의 민주주의가 시디우스로 하여금 절대 권력인 제국으로 무혈 입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 이는 영화 <스타워즈>가 진정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모순을 제기한 것이 아닐까?

- ① ㉠은 민주주의에도 전체주의적 요소가 일부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 ② ㉡의 의문에 대하여 오비-완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타당한 해결책이 단일하지는 않지만 모든 의견을 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민주주의 체제인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가 등장한 사례는 ㉢의 의문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 ④ 아나킨과 오비-완 모두 결과적으로는 사회의 모든 가치를 전부 포용할 수 없음에 대해 인정할 것이다.
- ⑤ 아나킨과 오비-완의 관점에 있어 결정적인 차이는 이견을 가진 모든 자를 ‘적’으로 간주하느냐의 여부이다.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우리의 삶 안에는 자신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로 추구될만한 것도 있다. 우리는 후자를 ‘완전한 것’이라고 그리고 전자를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완전하지 않은 것보다는 ㉡ 완전한 것이 더 좋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완전한 것들 중에서도 ㉢ 단적으로 완전한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행복이 이러한 것이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항상 그 자체적으로 욕구하지 결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욕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경, 즐거움, 지성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인격적 훌륭함을 우리는 그것들 자체 때문에 욕구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아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 각각을 욕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것들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욕구하기도 한다. 바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행복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이것들을 위해 욕구되는 일은 없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욕구되는 일은 없다.

선호의 조건으로부터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우리는 행복이 모든 좋음들 가운데 가장 선호할 만한 좋음이지만, 여러 좋음들 가운데 하나의 좋음으로 함께 열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행복이 여러 좋음들 가운데 하나의 좋음으로 열거된다고 가정하면, 터무니없는 결론이 나올 터이니 말이다. 무슨 말이고 하면, 이 가정 하에서는 좋음들 중 아주 작은 좋음은 원래의 좋음에 덧붙이기만 하면 원래의 좋음과 아주 작은 좋음의 결합물은 분명히 그만큼 더 선호할만한 것이 될 터이므로 말이다. 왜냐하면 덧붙여진 것은 좋음의 초과분이 되고, 그리고 두 가지 좋음들 가운데 초과로 인해 더 커져 버린 것이 원래의 것보다 항상 더 선호할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최고의 좋음은 세상의 모든 좋음들을 다 끌어 모아 놓은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데 이런 좋음은 성취 불가능하다.

<보 기>

- ㉠. ㉠은 ‘도구적 가치’로 불릴 수 있다.
- ㉡. 사회적 존경, 즐거움, 지성, 인격적 훌륭함이 ㉡의 예이다.
- ㉢. ㉡과 ㉢은 자기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추구되는 일이 결코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 ㉣. ㉠, ㉡, ㉢은 모두 욕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 ㉤. ㉢의 가치는 ㉠의 함과 비교 불가능하고 ㉡의 함과도 비교 불가능하지만 ㉠의 함과 ㉡의 함을 더한 것과 비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7.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과거에서 미래로의 시간의 흐름이다. 물리학에서는 이 흐름을 날아가는 화살에 비유해서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른다. 시간의 화살의 존재가 불가사의한 것은 그것이 언뜻 물리 법칙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을 지배하는 물리법칙은 시간의 미래와 과거를 구별하지 않는다. 어떤 운동이 가능하다면 그것과 반대의 운동도 똑같이 가능하다. 따라서 운동을 보고 있는 한 시간의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자.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열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흘러서 마지막에는 물 전체가 같은 온도가 된다. 이 현상을 비디오로 찍어 거꾸로 돌리면 그 영상이 거꾸로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똑같은 온도의 물이 뜨거운 물과 찬물로 저절로 나누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물 속의 분자 하나에 착안해서 그 운동을 추적해 보자. 물 분자는 몇 번이나 다른 분자와 충돌하며 지그재그 운동을 한다.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 거꾸로 돌려도 그것이 거꾸로 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전체의 운동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상태가 확실히 다르다. 뜨거운 물과 찬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과거이고, 온도가 똑같아진 상태가 미래이다. 이처럼 시간의 화살은 막대한 수의 입자가 관계하는 현상에만 나타난다. 또한 처음 상태가 특별한 상태여야 한다. 뜨거운 물과 찬물로 나누어진 상태는 똑같은 온도의 물보다는 실현하기 어렵다.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엔트로피가 낮다’고 표현한다. 자연 현상은 반드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변화한다. 이것을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로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것일까?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앞서의 시간의 화살에 대한 설명에서는 시공간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수한 시공간의 구조를 생각함으로써 타임머신의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웜홀이란 시공간의 지름길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시공간 구조이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시공간으로 통일되어 있다. 웜홀이란 교묘한 시공간 구조에 의해 공간의 떨어진 두 지점을 같은 시각으로 연결한다. 다만 웜홀은 아직까지 가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시간론의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의 기원이다. 이것은 우주론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주의 시작은 시간의 시작이기도 하므로, 우주 창조와 시간의 기원은 같은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80년대까지는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였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빅뱅 우주론에서는 밀도나 온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특이점에서는 시공간의 왜곡도 무한히 커져서 이미 시공간조차 없는 것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특이점을 예언했지만 그 성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다. 1980년 무렵부터 호킹, 그리고 러시아 태생의 알렉산더 빌렌킨 등이 우주의 창조 문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초끈 이론 같은 궁극 이론이 이해된 시점에서 무의 상태도 규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 기>

- ㄱ. 시간의 화살을 통해 분자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 ㄴ. 막대한 수의 입자가 있으면 항상 시간의 화살이 나타난다.
- ㄷ. 최초의 상태가 특별하지 않으면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로 변화할 수 있다.
- ㄹ. 웜홀의 존재는 엔트로피 증대의 법칙과 양립할 수 있다.
- ㅁ. 초끈 이론이 완성되면 타임머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①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ㄹ, ㅁ

8.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지난 20년간 정부 관료, 학계, 언론 일반 대중들이 빈곤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엄청난 전환이 있었다. 1980년대 초, 완고한 일부 보수 학계의 학자와 정책 분석가들이 주도하기 시작한 빈곤에 관한 담론은 보수주의자들뿐 아니라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한마디로 빈곤의 원인을 빈곤한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나) 미국에서 ‘빈곤과의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 빈곤은 국가적 수치라는 믿음이 널리 확산됐다. 그 믿음은 그 뒤로도 계속됐다. 빈곤에 대한 당시의 지배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았다. “일부 빈곤층이 실업자나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은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만 그들이 빈곤에 취약해진 것은 현재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자칫하면 빈곤층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복잡한 제도적 요인들의 결과다.”
- (다) 개인적 책임과 빈곤에 관한 이러한 담론과 정책 효과는 미국에서 가장 컸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강력한 복지 국가의 전통을 자랑하던 선진 자본주의 사회 대부분이 비슷한 공적 논쟁과 비슷한 정책 전환을 경험했다. 수요와 생산간의 불일치, 또는 시장 실패라는 구조적 관점에 중점을 두었던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복지 정책 담론도 개인적 책임에 비중을 두고 빈곤한 개인의 행위와 그 속성에 상당 부분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 (라)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빈곤층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비해 자기 삶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은 종종 일탈적이거나 자기 파괴적 행동에 가담하곤 한다. 공공 프로그램은 이들 일탈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게 만들어 문제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새로운 복지국가는 빈곤층의 이러한 의존적인 상태를 종식시키고 그들이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① (가)-(나)-(다)-(라)
- ② (가)-(다)-(라)-(나)
- ③ (가)-(라)-(나)-(다)
- ④ (나)-(가)-(라)-(다)
- ⑤ (나)-(다)-(가)-(라)

9. 다음 글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역사학에서의 설명은 문제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행적 혹은 동시적인 조건에 비추어 예상될 수 있었던 사건임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예상은 예언이나 계시가 아니라, 일반법칙에 기반을 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상이다. 만약 이 견해가 옳다면,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건을 실제로 설명하면서도 역사학이 일반법칙에 의존한다는 점은 부인한다는 사실이 이상해 보일 것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역사학에서의 설명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역사학에서의 설명에서 때로는 설명의 배후에 놓여 있는 보편가설들이 꽤 명시적으로 진술되기도 하지만, 설명에 전제된 일반적 규칙성이 명시적으로 진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이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문제의 보편가설이 개인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과 관련되는 경우가 자주 있고, 개인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은 일상경험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가설들은 암암리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때로는 배후에 있는 가정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경험적 증거에 맞도록 명시적으로 정확히 정식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제시된 설명이 적합한지를 검토할 때, 그 설명이 근거하고 있는 보편가설이 무엇인지를 재구성해 본다면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계속된 가뭄으로 자신들의 생존이 점차 위협받게 되었고 캘리포니아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미시시피 서부지역의 농부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생각해 보자. 이 설명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갖춘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편가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설을 모든 관련 증거에 의해 잘 입증된 일반법칙의 형태로 정확히 진술하기는 힘들다. 사회적 불만이나 환경조건에 의한 혁명의 설명, 계급투쟁이나 경제적, 지리적 조건 등에 의한 역사적 설명에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모두 보편가설을 가정하고, 이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생활의 어떤 특징을 다른 것과 연결 짓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 우리는 주어진 설명에 암암리에 가정되어 있는 가설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설명유형은 통계적 성격을 지닌 현상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런 설명에서는 확률가설만 가정하면 되므로 배후에 놓여 있는 일반법칙을 묻는 것은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역사학에서 제시되는 어떤 설명은 일반적인 결정론적 법칙, 즉 보편조건문 형태의 법칙이라기보다는 확률가설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다른 경험과학의 분야에서 제시되는 여러 설명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이가 그의 형보다 2주 후에 홍역에 걸렸으며 돌이는 홍역에 걸린 다른 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돌이가 형으로부터 홍역에 감염되었다고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위해 필요한 일반가설이 ‘홍역을 앓은 적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홍역을 앓고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예외 없이 홍역에 걸린다’는 식의 일반법칙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역사학에서 제시되는 많은 설명도 이런 식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하고 명시적으로 정식화될 경우, 그것은 일정한 초기조건과 확률가설을 진술해 줌으로써, 확률가설에 비추어 볼 때 초기조건에 의해 설명되어야 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에서의 설명이 인과적인 것으로 이해되든 확률적인 것으로 이해되든, 초기조건과 특히 보편가설은 대개 명료하게 제시되지 않으며, 정확히 어떤 것에 의해 보충되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사실이다.

- ① 좋은 역사학적 설명을 위해서는 초기조건과 일반법칙을 진술해야 한다.
- ②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좋은 역사학적 설명은 그 사건이 예측될 수 있었던 사건임을 보인다.
- ③ 역사학에서 완전한 인과적 설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 ④ 역사학에서의 설명은 보편가설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경험과학에서의 설명과 다르다.
- ⑤ 역사학에서의 확률적 설명과 다른 경험과학에서의 확률적 설명은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의 설명이다.

10.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서사적 존재다. 서사에는 사실을 말하는 역사와 허구를 이야기하는 소설이 있다. 이 둘 가운데 무엇이 더 인간 삶의 진실을 잘 대변할까? 장 폴 사르트르는 한 인터뷰에서 자전적인 진실을 밝히려면, 사실서사인 역사보다 허구서사인 소설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역사가 현상으로 나타났던 외적 사실들의 인과관계를 서술한다면, 소설은 단순한 사건 서술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내적 동기들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역사가는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일을 있었던 그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반면에 소설가는 어떤 구체적 사건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상상적으로 재구성해서 허구서사를 만들어 낸다. [...] 진실은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은 근대 사실주의가 설정한 ‘매트릭스’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 되고, 그런 사실만을 진실로서 공인하는 것이 근대과학의 논리다. 하지만 과학적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과학적 사실은 객관적으로 발견된다고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측면이 더 많다. 사회구성주의자들은 “과학의 객관성은 사회적이며, 그 방법론은 상대주의적이다.”라고 주장한다. 결국 과학이란 세계와 인간을 설명하는 유일한 지식체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담론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근대란 이런 종류의 메타담론에 근거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모종의 대서사에 공공연히 호소하는 과학을 토대로 해서 성립되었다. [] 근대 역사학은 과거와 역사가 일치해야 한다는 역사적 사실주의를 공리로 해서 성립했다. 하지만 모든 과거가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역사로 전환시키는 것은 역사가가 가진 사관이며, 헤이든 화이트는 이를 메타역사라고 명명했다. 그는 역사적 사실주의를 역사적 상상력 차원에서 분석했다. 과거를 역사로 구성하는 것이 역사가의 상상력이라면, 역사학과 역사소설의 차이는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

- ① 따라서 과학적 담론보다는 역사적 사실주의의 서사가 객관적 진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의 역사학은 과학과는 다른 방법론, 즉 역사적 사실주의를 채택했던 것이다.
- ③ 그러나 사실서사인 역사와 허구서사인 소설은 근대에 이르러 동일한 메타담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 ④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사실서사인 역사와 허구서사인 소설은 서로 다른 메타담론의 영향을 반영하게 된다.
- ⑤ 따라서 근대는 메타담론의 진원지인 모든 형이상학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형이상학을 정립시킨 메타담론의 시대였던 셈이다.

1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나는 4시에 피에르와 만날 약속이 되어 있다. 나는 15분 늦게 도착한다. 피에르는 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 그는 나를 기다려 주었을까? 나는 방 안을 둘러본다. 손님들은 본다. 나는 말한다. '피에르는 없다'

확실히 카페는 그 손님, 그 탁자, 그 의자, 그 거울, 그 광선, 그 연기가 자욱한 분위기, 왁자지껄한 목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카페 안을 채우고 있는 발소리 따위를 포함하여 그것 자체가 하나의 '존재충실'이다. 그리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세부적인 직관은, 그런 냄새, 그런 소리, 그런 색깔에 의해, 즉 각각 초현상적인 존재를 가진 모든 현상에 의해서 채워져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모르는 어떤 곳에 있는 피에르의, 지금 이 시간의 현존도 존재충실이다. 우리는 사망에서 존재충실을 발견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지각할 때는 항상 하나의 배경 위에 하나의 형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느 대상, 어느 한 무리의 대상도, 특별히 이것은 배경이 되는 것, 이것은 형태를 구성하는 것 하는 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피에르를 찾으러 카페에 들어설 때, 이 카페의 모든 대상물은 종합적으로 배경으로서 구성되며, 그 배경 위에 피에르가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서 주어진다. 그리고 카페가 이렇게 배경으로 구성되는 것이 최초의 무화(無化)이다. 그 장면의 하나하나의 요소·인물·탁자·의자는 나머지 대상물 전체로 구성된 배경 위에, 스스로 고립시키고 떠오르려 하다가 다시 이 배경의 무차별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희미해져 버린다. 왜냐하면 배경은 덤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며 순전히 난외적(欄外的)인 주의의 대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형태가 잇따라 나타나서 차례차례 하나의 배경의 전면적인 등가성 속에 묻혀 들어가는 것인데, 이 최초의 무화는 중요한 형태, 즉 여기서는 피에르라는 인물의 출현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이 무화는 나의 직관에 주어지는 것이고, 나는 내가 주시하는 모든 대상, 특히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는 것의 증인이다. 그 얼굴들은 한 순간 '피에르인가?'하고 나의 주의를 끌지만, 피에르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분산되어 버린다. 그러나 만일 내가 마침내 피에르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의 직관은 하나의 고정적(固型的)인 요소에 의해 채워질 것이다. 나는 갑자기 그의 얼굴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카페 전체가 그의 둘레에 조심스러운 현존을 유지하면서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피에르는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그 카페의 일정한 곳에서의 그의 부재를 내가 발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상 피에르는 이 카페 안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그의 부재는 그 카페를 소실 상태로 굳힌다. 카페는 배경으로 머무를 뿐이다.

카페는 배후로 물러간다. 카페는 그 무화의 뒤를 쫓아간다. 다만 그 카페는 일정한 형태를 위한 배경이 된다. 카페는 어디서나 그 전면에 이 하나의 형태를 지탱하고 있다. 카페는 사망에서 나에게 이 형태를 제공한다. 나의 시선과 카페의 온갖 고정적·현실적 대상 사이를 끊임없이 줄곧 미끄러져 가는 이 형태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하게 끊임없는 소실이고, 카페의 무화적 배경 위에 무로 떠오르는 피에르이다.

— <보 기> —

ㄱ. 배경과 형태의 지정은 나의 주의가 향하는 방향에 달려있다.
ㄴ. '없는 것'에 대한 직관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ㄷ. '피에르는 그곳에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중의 무화에 대한 파악이다.
ㄹ. 나의 기대가 이 카페에서의 사건으로서 피에르의 부재를 야기한 것이다.

- ①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자는 다수의 약자들입니다. 법을 만듦으로써 그들은 자신을 돌보고 그들의 이해관심에 신경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사용하여 사람들에 대해 칭찬과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강자, 즉 자신의 몫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은 몫을 취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경멸스럽다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부정의(不正義)란 남보다 많이 가지려는 것이라고 정의(定義)함으로써, 이 자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더 많은 몫을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자는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물들의 동등한 배분에 대해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많은 몫을 취하려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경멸스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관습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더 많은 몫을 취하려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은 이런 이유이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자연과 자연적 본성을 관찰하게 되면, 우리는 보다 능력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보다, 다시 말해서 보다 나은 자가 그렇지 못한 자보다 더 큰 몫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도 국가와 민족 간의 관계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 줍니다. 즉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고 이 자보다 많이 가지도록 되어 있고 그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수치스러운 것은 앓은 채로 타인에 의해 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크세르크세스는 무슨 권리로 그리스를 침략했습니까? 확실히 이런 자들은 자연적인 올바름에 일치하여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법에 따라 행위를 한 것이라고 나는 감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탁월한 자들과 우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마치 사자를 다루듯 어릴 때부터 포획하고서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해져야하며 동등한 것이 훌륭하고 올바른 것이라고 그들에게 주술을 걸듯 노래를 불러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 ① 부정의(不正義)에 관한 정의(定義)만 있고 자연적으로 부정의한 일은 없다.
- ② 어떤 행위는 제정된 법에는 위배되지만 자연적 법을 따른다.
- ③ 실정법에서 어떤 것이 '나쁘다'는 말은 항상 '누군가에게 나쁘다'는 말이다.
- ④ 대중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수치를 우월한 자의 조작된 수치로 은폐시킨다.
- ⑤ 실정법 제정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을 생략한 채 실정법의 내용만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13.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대상에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며 사용할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새’라고 부르는 것들은 날개와 부리가 있고, 다리가 두 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들에는 참새, 비둘기, 까치 등이 있는데, 이것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새’라는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를 범주화라고 한다.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여 사용하는 문제는 모두 범주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범주화 이론에 대한 고전적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사물은 본질적 자질로 정의된다고 생각했다. 고전적 범주화 이론에서는 범주가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의미자질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범주를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구성원의 집합으로 보았다. 한 예로 ‘총각’ 범주의 구성원이 되려면 [인간], [어른], [남자], [미혼]이라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언어학자 윌리엄 라보브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그릇 그림을 보여주면서 컵, 꽃병, 사발로 나누어 보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높이가 높고 폭이 좁은 그릇을 꽃병으로, 높이가 낮고 넓은 그릇을 사발로 간주했는데, 높이나 넓이가 어중간한 그릇의 경우에는 병인지 사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라보브는 학생들에게 사발인 것을 확인시킨 후에 으깬 감자를 담아서도 보여주고 꽃을 담아서도 보여주었으며 커피를 담아서도 보여주었는데, 학생들은 으깬 감자가 있을 때는 사발, 꽃을 담았을 때는 꽃병, 커피가 들어 있을 때는 컵으로 대답했다.

이는 고전적 범주 이론에서 주장하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었다. 현실에서는 가장 컵다운 컵, 가장 사발다운 사발을 중심으로 범주에 귀속되는 구성원들의 자격 정도가 다르다. 라보브의 실험에서처럼 범주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가장 컵다운 컵에서 가장 컵답지 않은 컵까지 정도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가장 컵다운 컵은 컵 범주의 원형(prototype)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원형은 한 범주의 중심이 되는 구성원을 뜻한다. 범주를 이루는 구성원들 사이에 범주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원형 효과라고 한다. 원형 효과는 범주의 원형과 구성원이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를 판단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원형과 구성원이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전형성 조건 또는 원형 속성이라고 하며, 전형성 조건을 더 많이 갖추고 있으면 원형에 가까운 구성원이 되고 공유하고 있는 조건이 적으면 그 범주에서 주변적인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고전적 범주 이론에서 가정하는 범주대로라면 물병이나 꽃병의 속성을 결정하는 의미자질은 고유한 것이므로 담고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든 물병이면 항상 물병, 꽃병이면 항상 꽃병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물병이 꽃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상황, 목적, 기능 등의 요인에 따라 범주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 ① 라보브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범주의 속성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 ② 고전적 범주 이론에서는 범주 구성원의 자격기준이 엄격하고 한 범주의 구성원이라도 범주 내 자격에 차이가 있으며 범주의 경계도 확실하다.
- ③ 라보브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컵’의 범주를 정의하고 그 범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필요충분조건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원형 효과는 범주의 구성원들의 자격이 같지 않으며 그 정도에 따라 차이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⑤ 고전적 범주 이론에 따르면 범주가 요구하는 의미자질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로 범주의 구성원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1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개인적 인문주의란 문예부흥운동 초기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전개된 인문주의 경향으로, 이를 시기적으로는 ‘초기 인문주의’, 지역적으로는 알프스산맥 이남의 ‘남부 인문주의’라고도 부른다. ‘개인적 인문주의’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것이 개인의 교양을 넓히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중세적 삶과 스콜라주의 교육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은 개인의 삶을 보다 품위 있게 해 줄 교양을 넓히고 다방면의 재능을 발휘하게 해 주는 새로운 삶을 추구했으며, 고대의 건축양식이나 예술, 고전문학 등을 공부함으로써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초기 인문주의 교육은 개인적이고 심미적인 것이 특징이었다.

사회적 인문주의란 15세기 중반 이후에 문예부흥의 기운이 알프스산맥 이북으로 전파되면서 북유럽 지역에서 전개된 인문주의 경향으로, ‘후기 인문주의’ 또는 ‘북부 인문주의’라고도 부른다. 북부 인문주의 운동은 이탈리아 반도의 인문주의 운동과는 여러 차이가 있었다. 북유럽 지역은 중세적 관습과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서 이탈리아 반도에서와 같은 삶의 활기가 없었고, 되살려야 할 조상의 문화적 전통도 없었다. 그런데 네덜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와의 해상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문예부흥의 기운이 전파되고 인문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북부의 인문주의 운동은 이탈리아로부터 수입된 것이었고, 이전에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화를 새롭게 학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운동은 이탈리아 반도의 삶의 분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동경하는 극소수의 예술가와 학자에 의해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유럽 사람들은 그 운동을 점차 조직화해 나갔다.

그들은 자유분방한 이탈리아에서와 같은 삶을 고향땅에서 펼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세적 관습과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대중의 의식을 계몽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후기 인문주의 운동은 고전을 공부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다수 대중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계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의 교양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종교적 관습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계몽의 수단은 사람들이 고전문학에 드러나는 자유분방한 삶의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고전공부를 보급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고전문학을 담고 있는 그릇인 라틴어는 북유럽 사람들의 생활언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므로, 고전작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학습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리하여 후기 인문주의 운동은 고전 언어 학습에 치중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보 기>

- ㉠. 알프스산맥은 그리스·로마 문화의 유통흐름을 막는 장애물로서 기능하였다.
- ㉡. 남유럽보다 북유럽 지역에서 종교단체의 영향력이 더 컸다.
- ㉢. 15세기 중반 이탈리아인들은 네덜란드인들보다 자유분방한 삶을 영유했다.
- ㉣. 북부 인문주의 운동은 남부 인문주의 운동과는 달리 자국의 문화적 전통과 고전 언어 학습의 조화를 추구했다.
- ㉤. 개인적 인문주의 운동과 사회적 인문주의 운동은 동일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기본권의 충돌이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기본권의 주체들이 서로 충돌하는 각자의 기본권을 주장·행사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기본권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언론기관이 특정한 사람의 사생활에 관해 보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인격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본권의 충돌은 각각의 기본권의 주장·행사가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기본권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본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기본권의 충돌은 한쪽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보유·행사하는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로 가져온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 헌법이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헌법해석을 통해 이를 해결하여서는 안 되고,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률형성의 자유에 의거하여 법률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둘째,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들 사이에는 그 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서열이 존재한다고 보고,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들이 서열에 따라 평가하여 높은 서열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셋째, ㉢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이들을 서로 비교형량하여 큰 법익을 보장하는 상위의 기본권은 보호하고 작은 법익을 보장하는 하위의 기본권은 보호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넷째, ㉣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익형량에 따라 어느 하나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다른 기본권을 배제하는 양자택일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충돌하는 기본권을 가능한 한 모두 보호하는 조화점을 찾아 최적화의 상태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① ㉠을 주장하는 사람은 ㉡의 방법을 채택할 수 없다.
- ②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기본권충돌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면, ㉠은 강화되고 ㉡은 약화된다.
- ③ 헌법이 두 기본권의 서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두 기본권의 충돌에 대해 ㉠과 ㉡은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④ 동일한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나 상황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게 된다는 주장은 ㉡을 약화시키고 ㉢을 강화시킨다.
- ⑤ 타인의 주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통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 주택의 소유자가 주거의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 이들 사이의 기본권의 충돌은 ㉣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18.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인간은 본래 상태가 반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쪼개진 반쪽은 자기와 한 몸이었던 다른 반쪽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네. 이것이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의 근원이라네. 에로스는 모든 인간들 속에서 생겨나며 원래 한 몸으로 존재했던 반쪽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네. 그리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 인간 본성의 상처를 치유한다네.

(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것, 즉 자신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주로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스럽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몇 가지 방법을 따른다. 그 하나는 남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성공을 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허용하는 한 최대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로 여자들이 택하는 방법으로, 몸매와 옷차림을 맵시 있게 가꾸으로써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방법은 남녀가 다 같이 쓰는 것으로 호감을 사는 예절이나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개발하고 항상 남에게 도움이 되며 겸손하고 모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다.

(다) 인간의 짝짓기, 연애, 그리고 사랑을 근본적으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작위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끌리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의 경쟁자를 그저 심심해서 헐뜯지 않는다. 우리의 짝짓기는 전략에 의거하며, 이 전략은 성공적으로 짝짓기 하는 데 따르는 여러 특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설계되었다. 전략은 짝짓기라는 전장에서 승리하여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하다.

(라) 정성스럽게 양육된 젊은이가 가질 법한 최초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친애다. 그의 피어나는 상상력의 최초 활동은 자신과 동류의 인간들이 있음을 가르쳐주며 이 동류의 인간은 이성보다 먼저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 순수함을 연장시킬 때의 또 다른 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즉 갓 피어나는 감수성을 이용하여 젊은이의 마음에 인류애의 최초의 씨앗들을 뿌리는 일이다. 이때야말로 그런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것은 소중한 이점이다.

(마) 완전한 우애는 탁월성에 있어 서로 닮은,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이들은 상대가 좋은 사람인 한 서로에게 똑같이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랄 뿐 아니라 그들 자신 역시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품상 그러는 것이지 유익함이나 쾌락 같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우애는 그들이 좋은 사람들인 한 계속된다. 탁월성은 영속적이기 때문이다.

- ① (가)에서 사랑은 인간의 본원적 결핍을 상징하며 동시에 완전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지향을 의미한다.
- ② (나)에서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내면적 가치를 지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 ③ (다)에서 사랑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고도의 전략을 동반한 일체의 경쟁적 행위를 의미한다.
- ④ (라)에서는 젊은이에게 이성에 대한 사랑에 앞서서 동류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인류애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⑤ (마)에서 완전한 우애는 유익이나 쾌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상호 탁월성에 기반한다고 했다.

19. 다음 (가), (나)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현종 10년(1669) 1월 10일 공사천(公私賤)의 양처(良妻) 소생에 대하여 어머니의 역을 따르는 제도를 세워 정식으로 삼았다. 이에 앞서 판부사 송시열이 상에게 아뢰기를, “이경역이 충청 감사로 있을 때 상소하여 공사천의 양처 소생은 남녀를 논할 것 없이 일체 모역(母役)을 따르게 할 것을 청했는데, 이는 바로 이이의 논(論)이었습니다. 그 당시 묘당이 방계하여 시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양민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진실로 이 법이 행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히 제도를 확정하여 변통하소서.” 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했다.

(나) 숙종 4년(1678) 4월 2일 공사천의 양처 소생에 대하여 어머니 역을 따르는 것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대신과 비변사의 제신을 인견하다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원정이 말하기를, “공천(公賤)·사천(私賤)의 양처 소생은 모역을 따르는 법은 진실로 이것은 국가를 위하는 계책입니다. 하온데 근래의 민속(民俗)이 극도로 간사하여 사천이 양녀(良女)를 취하여 처(妻)를 삼은 자는 양역(良役)을 꺼리고 피하며, 반비(班婢)를 청탁하여 사실대로 현록(懸錄)한 자는 열에 한둘 밖에 없으니, 본시 양민(良民)이 되는 길을 넓히고자 한 것인데 마침 간사하고 거짓된 자질만 자라게 하였습니다. 당초의 사목(事目)은 기유년 정월 1일 자시(子時)로써 한정하였으나 주인을 배반한 종[奴]이 또 따라서 그 생년월일을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하여, 이 때문에 노주(奴主) 사이에 사송(詞訟)이 더욱 번거로와 허실(虛實)을 분별하지 못해서 법을 배운 지 오래 되지도 않아 폐단이 벌써 자심(滋甚)하니, 변통(變通)하는 길이 있어야 합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허적이 말하기를, “기유년에 송시열이 건의할 때, 신은 앞으로 난처(難處)한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진달(陳達)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10년 만에 그 폐단이 이와 같습니다. 노주간의 사송이 분운(紛紜)해서 윤기(倫紀)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변경(變更)하는 것은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니 다시 다른 대신(大臣)에게 물으심이 어떨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뒤에 제대신(諸大臣)의 의논으로 인하여 양녀 소생을 도로 부역(父役)을 따르게 하였다.

- ① (가)의 지문에 나오는 이 제도가 시행되어 그 이전보다 노비가 늘어나게 되었다.
- ② (나)의 지문은 (가)의 지문이 나온 현종 10년에 시행한 법이 폐단이 많다고 하는 논의이다.
- ③ (나)의 지문은 노비와 주인 간에 소송이 많아져 폐단이 심하다는 핑계를 들어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논의이다.
- ④ 이이, 이경역은 이 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이원정, 허적은 이 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 ⑤ (가)의 지문은 노비를 줄이고 양인을 늘리자는 개혁안이다.

20. 다음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 I. 의식은 두뇌의 기능이다.
- II.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의 두뇌는 불가역적으로 정지하거나 정지해 있다.
- III.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의식도 사라지거나 사라지고 없다.

이 논증을 편의상 A라고 불러보자. 논증 A가 주장 a ‘내가 죽은 후 나의 의식은 소멸한다’를 뒷받침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이 논증이 건전해야 한다.

전제 I이 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두뇌와 의식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현대의 여러 과학적 발견들에 입각해서 I을 옹호한다. 그러나 I이 참이라는 것을 보이는 이런 근거 제시에 대해서는 I 외에도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동등하게 해명하고 포괄할 수 있는 다른 명제가 있다는 반박이 가능해 보인다. I* ‘두뇌는 의식활동의 매우 중요한 도구다’라는 명제가 그것으로, I에 의해 해명된 어떤 과학적 사실도 I*명제에 의해 해명될 수 있어 보인다. 가령 두뇌가 손상됐을 때 사고나 인식에 결함이 생기는 것은, 두뇌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인식활동을 하던 의식 주체가 이 도구가 고장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뇌를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기체라고 상상해보자. 이 컴퓨터에 의해서만 모든 정보를 얻은 주체는 이 컴퓨터가 오작동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I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론에 대해 I은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 굳더더기를 가정할 필요 없이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해내는 데 비해 I*는 ‘두뇌와 구별되는 의식 주체’라는 굳더더기를 두고 있으므로 I이 더 그럴듯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실재는 우리의 이론적인 또는 심미적인 취향과는 부합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여기서 I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과학적 사실들을 잘 해명해주는 유일한 명제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I이 참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 경험을 가장 잘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참—앞으로 이런 의미의 참을 ‘경험적으로 참’ 또는 ‘경험적 참’이라고 부르겠다—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I이 근거로 삼고 있는 현대의 과학적 발견들은 바로 인간이 그의 감각 기관을 사용하여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I이 경험적으로 참일 때 I을 그 전제 중의 하나로 삼고 있는 논증 A는 그 결론 III이 경험적 참이라는 것만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논증 A에 의해 III이 경험적으로 참이라는 것만 보장된다면 논증 A는 a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명제가 ‘인간의 감각 경험을 가장 잘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경험적 참이라는 것은 그 명제가 존재의 참 모습에, 즉 칸트의 용어에 따르면 ‘물자체’에 대응하거나 일치한다는 의미에서의 참이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① 논증 A가 경험적으로 참이라면 주장 a도 타당하다.
- ② I이 아니라 I*명제가 옳다면 주장 a는 타당할 수 없다.
- ③ 화자는 ‘필요 없이 많은 전제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원리를 지킬 것이다.
- ④ 전제 II에 대해서는 참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 ⑤ 화자의 논리구조를 따른다면 ‘내가 죽어도 나의 의식은 소멸하지 않는다’를 증명할 수 있다.

21.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62년, 미국의 수학자 코엔은 칸토어의 연속체 가설과 선택 공리라는 잘 알려진 공리가 집합론의 공리계에 대해 결정 불가능한 명제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로써, “산술 체계를 포함하여 모순이 없는 모든 공리계에는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며 또한 그 공리계는 자신의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괴델의 정리가 수학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인 집합론 안에서 수학적 확증을 얻게 된다.

그런데 괴델의 불완전성에 대한 증명이 집합론을 붕괴로 이끌지 않았다. 마치 평행선 공리의 부정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붕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하학의 탄생과 부흥을 가져왔던 것처럼, 공리계의 불완전성은 수학자의 작업이 결코 종결될 수 없음을 뜻했다. 결정 불가능한 명제, 진리가 끝나기에 수학적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반대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었던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수학이 시작되는 지점이 되었다.

이런 결정 불가능한 명제는 주어진 공리계 안에서 참임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지만 반대로 거짓임을 증명할 수도 없는 명제다. 다시 말해 그 공리계 안에서 반드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명제다. 따라서 이런 명제를 공리로 채택한다면 그 공리계 안으로 포섭할 수 있다.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니 차라리 쉬운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추가해야만 한다. 이처럼 결정 불가능한 명제를 공리로 추가한다고 그 공리계가 완전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공리계에 대해서도 또다시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있다는 것이 괴델 정리의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괴델의 정리는 그런 과정이 무한히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정 불가능한 명제를 찾아내 또다시 공리로 추가해도 언제나 또 다른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어떤 공리계도 완전히 닫혀지고 완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공리계도 불완전하다. 이는 공리계의 경계가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불완전성, 그것은 열린 경계를 뜻하는 것이고 새로운 명제가 공리로서 들어와 앓을 수 있는 여백을 뜻하는 것이다.

- ① 결정 불가능한 명제의 증명으로 집합론은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② 결정 불가능한 명제의 존재는 새로운 명제가 공리로 들어 올 수 있는 여백을 갖춘 열린 경계의 불완전함의 미덕을 의미한다.
- ③ 결정 불가능한 명제는 주어진 공리계 안에서 참, 거짓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존재하거나 작용하고 있는 명제다.
- ④ 결정 불가능한 명제의 증명으로 기존 집합론은 붕괴되었으며, 이는 기존 집합론이 원점으로 회귀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결정 불가능한 명제는 주어진 공리계 안에서 모순을 일으키지 않아 그 공리계가 완전한 공리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22. 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근래 국회의 입법개선 의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입법개선 의무란 입법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출현하여 특정한 법률의 합헌성이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 국회가 해당 법률이 새로운 규범현실 하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발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입법 당시에는 합헌적인 법률이었으나 사회의 현실적 여건이 변화해서 위헌인 법률로 된 경우 또는 입법 당시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여 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국회의 입법개선 의무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그리고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임용제 자체까지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가 되므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다.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입법자에게는 법률의 위헌적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거해야 할 입법개선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입법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었다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이 재임용 거부되는 경우에 그 사전절차 및 구제절차규정을 마련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지적된 입법형성 의무의 내용을 이행하는 개선입법에 대한 위헌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등으로 입법자에게 부과된 입법형성 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지의 여부, 입법자가 종전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입법형성 의무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종전 결정에서 심리·검토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한 입법개선 의무에 따라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 소급적용 규정을 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소급적용의 범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의 내용과 정도, 개선입법의 내용과 그 소급적용이 다른 보호법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헌법상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고, 입법자는 이러한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갖는다.

- 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 의무는 입법형성 의무를 포함한다.
- ② (가)의 입법개선 의무는 (나)와 (다)의 입법개선 의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 ③ (나)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법률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경우에도 국회의 입법개선 의무가 발생한다.
- ④ 헌법재판소가 특정한 법률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국회에 그 법률에 대한 입법개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개선입법을 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그 개선입법에 대해서도 위헌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25.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은 그 명칭이 일러주듯 대상의 사실적인 재현을 중시한다. 이 미술이 스탈린 치하에서 공식화되기 전, 볼셰비키 혁명을 대변한 미술은 이런 재현적인 미술이 아니라 보다 추상적인 아방가르드 미술이었다. 따지고 보면 스타일상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은 복고적인 느낌이 강하고, 아방가르드 미술은 진취적인 느낌이 강하다. 진보를 외친 소비에트의 미술이 왜 전위적인 미술 형식을 버리고 복고적인 형식으로 나아갔을까?
- (나) 이들은 리얼리즘 미술의 본산인 제국 미술 아카데미를 폐교했으며, 전위적인 미술을 가르치고 퍼뜨리는 데 주력했다. 이 무렵 혁명 미술로서 러시아 아방가르드 미술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타틀린의 <제3인터내셔널 기념비 모형>이다. 실제로 세워졌더라면 옴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두 배는 되었을 이 기념비 모형은, 철골과 유리 같은 산업문명의 재료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정신을 또렷이 드러냈다.
- (다) 타틀린의 기념비는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 테크놀로지와 노동의 결합을 느끼게 하는 데다, 활기찬 나선형의 구성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는 주제를 선명히 드러내주었다. 이처럼 아방가르드 미술은 대체로 혁명정신에 잘 부합하고 주제 표현에 뛰어났다. 그러나 당시의 교육, 문화 수준에 비춰 러시아 민중의 눈에 매우 난해하게 비쳤다.
- (라) 이 작품이 제작된 배경은, 1918년 레닌이 기존의 차르와 장군의 동상을 대체하기 위해 미술가들에게 마르크스 등 사회주의자들의 동상을 제작하도록 했다가 실패한 데서 비롯되었다. 사실적인 형태로 동상을 만들 경우 자연히 인물 자체를 강조하게 되는데, 이는 공산주의 혁명이 개인적인 성취물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성취물임을 몰각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 (마) 사실 혁명 초기에 사실적인 재현 미술은 낡고 구태의연한 양식으로 치부되어 혁명 주체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볼셰비키 편에 서서 혁명에 적극 가담한 미술가들은 대부분 아방가르드 디스트였다. 혁명 이전부터 구성주의, 절대주의 같은 아방가르드 미술은 러시아 사회에서 진보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10월혁명으로 볼셰비키 정권이 들어서자 아방가르드 디스트들은 예술 행정의 전권을 장악했다. 교육위원회의 미술 책임자로 모더니스트인 슈테렌베르크가 임명되었고, 추상화가 말레비치와 칸딘스키, 구성주의자 타틀린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바) 점점 더 부정적으로 옥죄어오는 현실 앞에서 남은 작가들은 순수미술에서 응용미술 쪽으로 방향을 틀어 디자인에 아방가르드 정신을 접목하려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생산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렇게 아방가르드 미술이 밀려난 자리에는 과거의 리얼리즘 형식에 이념의 색채를 더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이 자리를 틀었다. 러시아 미술사에서 볼셰비키가 그토록 혐오해 마지않던 차르 숭배의 이미지가 스탈린 숭배의 이미지로 되살아난 데는 이런 반전이 있었던 것이다.

(사) 자연히 정치 지도자들은 전위미술의 대중성에 문제의식을 느꼈고, 선전선동 수단으로도 한계가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차르 못지않은 독재 권력을 추구한 스탈린의 입장에서 더더욱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미술이었다. 결국 아방가르드 미술은 1920년대를 지나면서 대대적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많은 진보적인 미술가들이 숙청되거나 해외로 망명을 떠났다. 1921년 칸딘스키가 독일로, 1922년 나움 가보와 샤갈이 베를린으로, 1923년 페브스너가 파리로 떠나버렸다.

- ① (가)-(마)-(나)-(다)-(라)-(바)-(사)
- ② (가)-(마)-(나)-(다)-(라)-(사)-(바)
- ③ (가)-(마)-(나)-(라)-(다)-(사)-(바)
- ④ (가)-(사)-(나)-(다)-(라)-(마)-(바)
- ⑤ (가)-(사)-(바)-(나)-(라)-(다)-(마)

26.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은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소수자집단 권리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적 원칙과 충돌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신념은 집단 권리의 수용을 불가능하게 하며, 보편적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신념은 집단특수적 권리의 수용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골적인 진술들은 자유주의적 전통의 일부가 아니다. 아주 최근까지, 존재하더라도 매우 드문 자유주의자들만이 자유주의적 원칙은 오직 보편적 개인 권리만을 허용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이 확립된 자유주의적 원칙이라고 생각한 것들은 사실 자유주의적 율법에 덧붙인 새로운 첨가물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러한 새로운 ‘원칙들’은 주로 혼동과 과도한 일반화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나는 인종문화적 집단과 민족집단에 적용되는 ‘차등화된 집단 권리’에 반대하는 전후 자유주의적 합의의 발전에 있어 세 가지 요인, 즉 국제 평화에 관한 현실 정치적 공포, 인종적 평등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이민자 집단들의 요구 확대 우려에 대해 주목해 왔다. 이 각각은 정당한 염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또한 모두 각각 과도한 일반화를 범하고 있다. 국제적인 요인에 기반을 둔 특정한 집단의 요구(고도 회복운동, 인종 분리, 자발적 이민)에 반대하는 특정 주장들은 모든 문화적 다원성 문제들에 잘못 확대되어 일반화되어 왔다. 그리고 세 가지 요인 모두가 결합된 결과는 소수자집단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적 사고의 왜곡을 초래했다. 이 혼잡으로부터 소수자집단 권리가 본질적으로 불공정하며, 자유주의적 평등에 대한 배반이라는 믿음이 발생했던 것이다.

- ① 소수자집단 권리의 존중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
- ② 자유주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에만 해당될 뿐, 집단의 권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이민자집단은 그들 자신의 사회고유문화를 재창조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자원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 ④ 차등화된 집단 권리는 자유주의적 정의 원칙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다.
- ⑤ 소수자집단 문화를 보호하는 차등화된 집단 권리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양립 가능하다.

(라) 독서를 정밀하고 부지런히 하기로는 포희(砲穢)씨만 한 이가 없다. 그 정신과 뜻은 천지만물을 포괄 망라하고 만물에 흠어져 있다. 이것은 다만 글자로 쓰이지 않고 글로 되지 않은 글일 뿐이다. 후세에 독서를 부지런히 한다고 하는 자들은 거친 마음과 얇은 식견으로 마른 떡과 썩어 문드러진 종이 사이에 눈을 부비며 그 좁오줌과 쥐똥을 엮어 토론한다. 이는 이른바 술지게미와 묽은 술을 먹고 취해 죽겠다는 꼴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를 적막하게 ‘조(鳥)’란 한 글자로 말할시켜 버리면, 빛깔도 볼 수 없고 그 모습과 소리도 찾을 수가 없다. 어떤 이는 그것이 너무 평범하므로 산뜻하게 바꾼다 하여 ‘금(禽)’자로 바꾼다. 이것은 책 읽고 글 짓는 자의 잘못이다. 아침에 일어나니 푸른 나무 그늘진 뜨락에서 이따금 새가 지저귀다. 부채를 들어 책상을 치며 외쳐 말했다. “이것은 날아가고 날아오는 글자이고, 서로 울고 서로 화답하는 글이로구나.” 오색 채색을 문장이라고 한다면 문장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었을 것이다. 오늘 아침 나는 책을 읽었다.

(마) 선비가 독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말 한 마디, 동작 하나에도 반드시 성현의 일과 행실과 훈계를 생각해서, 이를 끝어와 준칙으로 삼아 전도됨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속인은 한 글자도 읽지 않는지라 지향점도 찾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평소엔 책을 많이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과거 시험 보는 글에 배운 글귀를 써먹을 뿐, 제 몸에도 가는 한 번도 시험해서 그 효험을 보려 들지 않는다. 몹시 슬픈 일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고서를 여러 번 읽어 입만 열면 인용하고 끌어오는데 그 마음가짐을 살펴보면 비루하고 아침 잘 하며 교활하고 속임수를 잘 쓴다. 앞서 인용하여 끌어온 것은 단지 말을 꾸며 대는 껍리로 삼은 것일 뿐이다. 이 같은 독서는 비록 많이 한다 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책을 읽고서 부드럽게 아침하는 자를 사람들은 누구나 아끼니 아, 답답하다.

- ① (가), (나), (마) ② (나), (라), (마)
- ③ (가), (다) / (나), (마) ④ (가), (다) / (나), (라), (마)
- ⑤ (가), (라) / (나), (마)

29. 다음 글을 읽고 ‘A’의 사상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는 한마디로 말해 ‘오직 이름일 뿐’이란 뜻입니다. 무엇이 ‘오직 이름일 뿐’인가? 중요한 건 바로 이것인데, ‘보편적인 것’은 오직 이름뿐이란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란 말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인간’이 아닌 분 있으면 손을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백 명 남짓의 ‘인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 저도 인간이고, 저기 있는 저분도 인간이고, 저 뒤에 있는 저분들 역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의실에 ‘인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매우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철학자들은 대개 이런 어리석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문제를 갖고 붙들고 늘어지거나 때론 논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중세의 수도원에서 연구하던 중세 신학자나 철학자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간’이란 존재는 없다. 다만 김○○라는 개인, 이○○라는 개인, 최○○라는 개인들만 있을 뿐이다. ‘인간’이란 그 개인들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개인이 바로 인간 아닌가? 그렇다면 이 자리에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인간’이라는 보편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서 전자는 보편적인 것은 오직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A’라 하고, 후자는 보편이 실재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B’라고 합니다.

- <보 기> —
- ㄱ.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인간다움’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이 개개의 실재에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 ㄴ. 추상적인 ‘언제’, ‘어디’ 같은 것은 실재하지 않으며, 오직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만이 존재한다. 1, 2, 3 이라는 숫자들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수’ 라는 것은 없다.
 - ㄷ. 인간의 지식이란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기억’일 뿐이며, 따라서 진리란 그 ‘기억’을 되살려 이데아의 세계에 다시 도달하는 것이다.
 - ㄹ. 인간의 개념이란 신이 준 것이 아니며, 타고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추출된 것이며, 불완전한 모습들을 관찰하여 불완전성을 제거하고 완전한 모습을 그려낸 것뿐이다.
 - ㅁ.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각된 것뿐이다. 내 책상은 내가 연구실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존재했던 것’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30. 다음 (가)~(마)에 나타난 각 관점에 근거하여 <보기>의 상황을 소설로 각색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예술은 새롭게 발견된 개인적인 가벼운 웃음으로 이루어진다. 장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문학을 수준 높은 장난이라고 하였다. 예술가에게는 방랑기질이 있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사회적 반칙’을 말한다. 따라서 그는 “예술작품은 도덕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술가에게 도덕적인 목적을 강요하는 것은 예술가로 하여금 파멸에 이끄는 길이다.”라는 유명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술가의 임무는 반칙함으로써 생기를 주는 것이라고 한다.
- (나) 비극에서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정서인 공포와 연민을 통하여 독자의 마음이 흥분되고 그리고 안정된다. 비극이 주는 즐거움이란 바로 지나치게 고조되었던 감정들이 스스로 풀려나갈 때의 쾌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극 역시 모방이고, 모방은 근본적으로 즐거운 것이다. 누구나 갖게 되는 일상생활에서는 해소되기 어려운 욕구불만이 문학을 통해서 해소된다. 한편의 비극 속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낭만적 사랑을 보고 작가와 독자는 심리적 만족을 얻는다.
- (다) 예술작품은 정신의 각 영역과 관련을 맺는다. 무의식이야말로 소위 영감의 근원이다. 예술작품은 자아에 의하여 그 형식적 종합과 통합이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초자아의 특유한 창조물인 이데올로기나 도덕적 방향으로 동화된다. 이렇듯 자아는 무의식의 무질서한 분출물을 질서 있게 종합하고, 초자아는 거기에다 도덕적·사회적 방향을 결정해준다. 그러기에 작품이란 아무리 변형된 형태라도 결국 이 무의식의 반영이며, 이 무의식이 작중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라) 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시인은 글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을 만든다. 쓴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작가는 창작이 곧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작품은 탄약을 쏘는 권총이다. 쏠 것을 택한 이상 정곡을 겨누어 쏘아야 한다. 작가는 쓰는 재미로만 쓰는 어린애가 아니다. 어린애는 눈을 감고 마음대로 쓰지만, 작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 (마) 예술의 평가, 즉 예술이 주는 마음의 평가는 인생의 의미에 관한 인간의 이해에 의존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생의 선이 어디에 있고, 악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 의존하고 있다. 인생의 의의가 자기를 동물성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있다면, 정신을 높여주고 육체를 낮추게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예술이 좋은 예술일 것이다. 예술은 인간의 이성적 의식을 감정에 옮기는 인간생활의 감정이다.

<보 기>

한 평범한 하급 샐러리맨이 술집에서 우연히 불량배와의 싸움에 휘말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그의 어머니는 양로원에서 사망하였으나 그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다. 재판에 회부된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재판 중 어떠한 발언도 거부하였다. 결국 그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고 며칠 뒤 형이 집행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 ① (가): 주인공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심리 상황을 위주로 사건을 전개하며, 일견 무의미하게 지나칠 수 있는 거리의 풍경, 인물의 외양 등에 대해 섬세하고 시적인 언어로 새롭게 묘사한다.
- ② (나): 사건 당일 주인공이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의 양로원에 가던 중 강도를 만나 사투를 벌이다 아내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게 되자 이를 자신이 대신 범죄를 행한 것으로 하여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플롯을 전개한다.
- ③ (다): 마치 신문기사를 쓰는 것과 같이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로 주변 환경을 묘사하고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대화를 중심으로 플롯을 전개한다.
- ④ (라): 주인공이 어머니의 죽음에도 처연할 수 있는 자폐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 현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인공이 삶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플롯을 전개한다.
- ⑤ (마): 사건 초반에는 주인공의 황폐한 심리적 상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내나, 어머니의 죽음과 살인사건 이후 겪게 된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속죄의 의미로 사형선고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플롯을 전개한다.

31. 다음 (가)~(다)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자하가 공자에게 묻기를, “부모의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거적을 깔고 방패를 베개 삼아 잠자고, 벼슬하지 않으며, 원수와는 함께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결심을 해야 한다. 만약 원수와 시장이나 관청 같은 곳에서 만나면 무기를 챙기러 가지 않고 즉시 싸울 수 있어야 한다.” 하였다. 자하가 다시 묻기를, “청하여 묻습니다. 형제의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원수와는 같은 나라에서 함께 벼슬하지 않으며, 임금의 명령으로 출사할 경우에는 비록 원수를 만나더라도 싸우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자하가 또 묻기를, “가르침을 청합니다. 백부나 숙부 또는 종형제의 원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앞장서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 본인이 원수를 갚을 수 있으면 무기를 잡고 뒤에서 도와야 한다.” 하였다.

(나) 통상 자연권이라고 부르는 자연적인 권리는,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본성, 즉 그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마음대로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 갖는 자유이다. 따라서 그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의해 그것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유를 말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의 처해 있는 조건이란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성에 의해 지배되며, 자신의 생명을 적들로부터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가운데 그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하여 심지어는 서로의 신체에 대해서까지도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이러한 자연권이 지속되는 한 거기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 그가 아무리 강하거나 현명할지라도 — 자연이 통상 인간에게 살도록 허용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하는 한 누구나 그것을 얻도록 애써야만 한다는 것이 이성의 계율이자 일반 법규이다.

(다) 자연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체와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한될 수 없는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나 소유물을 파괴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는 못한다.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보존하는 것보다 더 고귀한 목적에 유용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말이다. 자연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자연법이 있으며,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이성이 이 자연법인데 이 이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들이 평등하고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존해야만 하며, 자신의 역할을 고의로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안전이 문제되지 않는 한, 되도록 나머지 인류를 보호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제외하고서는 타인의 생명과 그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자유, 건강, 사지(四肢), 재화 등을 빼앗거나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 ① (가)의 화자가 말하는 자연권이란 자연상태 속에서 모든 사물들이 자신들 고유의 속성에 의해 따르고 있는 자연의 질서이자 자연의 법규이다.
- ② (나)의 화자에게 자연권이란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법이란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자기 파멸을 피하고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이성이 발견한 일반규칙이다.
- ③ (다)의 자연법은 모든 인간들이 실제로 그것에 따라 행위하고 있는 사실의 법칙이 아니라, 마땅히 그것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법칙, 즉 당위의 법칙이다.
- ④ (나)의 화자에게 있어 자연권은 자신의 보존을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가)와 (나)는 자연권과 자연법의 관계에 있어 동일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35.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조선 전기 명과의 대외관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청과의 대외관계에서는 거의 제작되지 않은 사신 영접과 관련된 기록화의 제작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명에서 조선에 파견하던 사신은 명사(明使)라 불렸으며, 봉행하는 외교문서의 종류에 따라 조사(詔使) 또는 칙사(勅使)라 불리기도 하였다.

1537년 태자 탄생에 대한 조서를 받들어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정사 공용경(龔用卿), 부사 오희맹(吳希孟)을 위해 거행한 근정전 연향 광경을 그린 <근정전청연도(勤政殿請宴圖)>도 영접과 관련된 기록화 중 하나이다. 근정전 청연은 명사가 입경한 지 3일째 되는 날 명사 일행을 근정전 경회루로 청하여 왕이 친림한 가운데 치르는 공식적인 연향이었다. 당시 공용경은 아름다운 연향을 그림으로 그려줄 것을 중종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중종은 화원을 궐내에 불러들여 연향 절차를 잘 아는 예방승지(禮房承旨)의 감독 아래 청연도를 그리게 하였다.

1537년 3월, 명사 공용경과 오희맹은 평양에서, 도성에 도착하면 자신들이 조서를 받들고 평양에 당도했을 때 거마(車馬)가 길을 메우며 영송하는 광경과 강산의 좋은 경치를 2장의 그림으로 그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은 당시 명사의 원접사 및 반송사로 차출되었던 정사룡(鄭士龍)이 <평안제관영조도(平安諸官迎詔圖)>에 대한 칠언시를 남기고 있는 점이다. <평안제관영조도>는 앞서 공용경 일행이 그리도록 요구한 평양 대동강을 낀 연로의 영조 광경을 그린 것으로, 명사 일행은 1537년 4월 전별연이 펼쳐진 평양 영귀루에서 이를 전달받고 가보로 삼겠다며 매우 만족스러워 하였다.

1539년 태자 책봉 등에 대한 조서를 받들어 파견된 명사 화찰(華察)은 공용경이 가져갔던 영조도를 본 적이 있다며 자신도 영조도를 보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중종은 내부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던 공용경 사행 때 영조도 2폭을 내리면서 더럽거나 훼손된 부분을 다시 장정하여 화찰에게 보내주도록 하였다. 이에 승정원(承政院)에서 영조도는 명사가 도성에 들어온 뒤에 주는 것이 의당하다고 하자 결국 중종은 중국인들이 모두 볼 것인데 군사의 반열과 위용이 허술해 보인다며 영조도를 새로 제작할 것을 명하였다. 승정원에서는 내부에서 꺼내온 1537년 영조도 2폭 중 한 폭을 화원에게 참고하도록 하였다.

<의순관영조도(義順館迎詔圖)>는 1572년 10월에 명나라 조사 한세능(韓世能)과 부사 진삼모(陳三謨)가 명나라 신종의 등극 조서를 조선에 반포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조선 의주의 의순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기록화이다. 그림은 일반 기록화와 달리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개되는데, 실경에 맞게 명사 행렬이 압록강을 건너 동남향의 의순관을 향해 나아가는 실제 방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접사 일행의 맞은편에서는 조선의 기마대가 호위하고 사신 행렬의 선두에는 깃발·황선(黃扇) 등 황의장(黃儀仗)이 있다.

- ① 국가 전례와 관련된 기록화가 공식 목적 외에 중국 사신을 위한 접대용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 ② 영접 관련 기록화는 그림의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칠언시 등 시구를 넣어 제작하거나 일반적인 기록화 기법을 벗어나는 등의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③ 화원이 영접 관련 기록화를 제작할 때 그림이 의례에 어긋나거나 위의를 잃지 않도록 승정원 관리가 관여하기도 하였다.
- ④ 명사에게 그려준 영조도는 부분(副本)을 만들어 참고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보관하기도 하였다.
- ⑤ 1539년 제작된 영조도는 1537년 공용경 때 그려졌던 영조도를 참조하여 군사의 반열을 보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6.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에는 운이 ‘어떤 개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건이나 상황’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운을 정의해보자. 운이란 개인 또는 스포츠팀이나 기업과 같은 집단에 영향을 끼치는 우발적인 사건이다.

기량은 ‘어떤 일을 실행하거나 수행할 때 지식을 효과적이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달리기와 같은 활동분야에는 운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으므로 육체적·인지적 과업을 계획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량을 획득할 수 있다. 반면 포커 게임이나 투자와 같은 분야는 상당한 수준의 운이 개입된다. 우리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기량을 변동성이 없는 정적인 것으로 취급할 것이다.

기량과 운의 결합물이 무엇인지는 연속체를 그려보면 떠올리기 쉽다. 연속체의 우측 극단에는 기량에만 의존하며 운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육상이나 신체 활동분야 등이 해당할 것이다. 좌측 극단에는 운에만 의존하고 기량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룰렛이나 복권 같은 활동분야가 놓인다.

과거의 사건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먼저 그 사건이 운-기량 연속체에서 놓이는 위치와 표본 크기의 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 하워드 와이너 교수는 ‘가장 위험한 등식’이라는 ‘드 무아브르 등식’으로 이를 입증한다. 프랑스의 저명한 수학자 아브라함 드 무아브르가 착안한 이 등식은 평균값(mean)의 변동성(variation)이 표본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의 개입이 큰 활동분야에서는 표본 크기가 작을 때 표준편차로 측정되는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쉽게 이해하려면 곡선으로 그려지는 종형 분포도를 떠올려보면 된다. 가장 숫자가 많은 표본이 종의 맨 윗부분인 평균값 주위에 몰려 있다. 좌우 경사면은 곡선의 정점으로부터 대칭을 이룬 채 하강한다. 동일한 숫자의 표본이 좌우에 배치되는 것이다. 표준편차는 종형 곡선의 좌우 경사면이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잣대다. 뾰족하고 좁은 종형 곡선은 표준편차가 작음을, 옆으로 넓게 퍼진 종형 곡선은 표준편차가 큼을 나타낸다.

산출되는 결과의 숫자가 작으면, 운의 영향력이 지배적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기 어렵다. 종형 분포도의 형태는 표본이 작을수록 더 넓게 퍼지기 때문이다. 와이너가 이 등식을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등식의 교훈을 간과한 채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결국 심각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이다. 와이너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인의 신장암 발병률을 들었다.

와이너는 미국에서 신장암 발병률이 낮은 군이 표시된 지도를 작성했는데, 발병률이 가장 낮은 곳은 주로 중서부, 남부, 서부의 농촌 지역에 있으며 인구가 작은 군이었다. 발병률이 가장 높은 군도 지도로 작성했다. ㉠ _____ . 그야말로 드 무아브르의 등식을 생생히 보여주는 실례다.

어떤 활동분야가 운-기량 연속체에서 어떤 방향에 있는지 파악한다면 평균 회귀 속도도 추정할 수 있다. 기량과 운이 결합된 활동분야에서는 어떤 것이든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어있다. 현재는 평균에서 벗어난 결과를 얻어도 그 다음에는 평균에 좀 더 가까운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뜻이다. 평균 회귀 속도는 운이 결과를 결정짓는 분야에서 더 빠르다. 따라서 룰렛 게임에서는 5번 정도 돈을 땀을 때 게임을 멈추는 편이 유리하다. 게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돈을 잃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여러분이 기량이 뛰어난 NBA 선수이며 자유투를 던지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의 모든 게임에서 ㉡ _____ 를 얻을 것이 예측된다.

- ① ㉠에 들어갈 진술은 ‘발병률이 가장 높은 곳 역시 중서부, 남부, 서부 농촌 지역의 인구가 작은 군이었다’이다.
- ② 운-기량 연속체 이론에 따르면 경기를 치를 수영 선수에게 “행운을 빈다.(Good Luck)”라고 말하기보다는 “수고하라.(Good Effort)”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 ③ 운-기량 연속체에서는 좌측에 치우칠수록,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려면 규모가 큰 표본이 필요하다.
- ④ ㉡에 들어갈 진술은 ‘자유투 성공률이 게임 전체의 평균치에 가까운 결과’이다.
- ⑤ 테니스경기가 운-기량 연속체의 우측에 위치한다면 정상급 테니스 선수의 순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37. 다음 (가)~(마)를 읽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940년에 ‘미래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기존의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 왔다. 미래학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미래 예측 기법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가) 스캐닝(Scanning)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스캔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예측에 있어서 스캐닝은 관련 데이터와 정보, 단서를 주의 깊게 관찰·분석하고, 이 데이터들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 (나) 네트워크 분석은 대규모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최근 빅데이터가 중요한 정보 소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기존 이슈들의 키워드 검색을 하면 키워드 간의 연관성이 보이고, 이를 통해 새롭게 떠오른 핵심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 (다) 트렌드를 추적해서 분석하고 전망하는 것을 트렌드 파악이라고 한다. 트렌드는 ‘도입기-성장기-쇠퇴기’의 주기를 갖는데, 도입기는 전문가들은 알지만 아직 보편화가 되지 않은 단계를 말한다. 그리고 일반인이 다 알게 되어 원하는 것이 되면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트렌드 분석은 도입기와 성장기 사이 변곡점의 관찰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 (라)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 기법이란 아직 트렌드로 자리 잡기 전의 이슈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관찰하고 분석,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머징 이슈는 나중에 트렌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이슈 발생부터 트렌드로 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추적하고, 핵심 이슈와 관련 이슈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머징 이슈 발굴의 아이디어는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과학기술자들의 논문이나 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 (마) 사회의 주기적 변동 기법은 사회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의 기술, 가치,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한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그 동안 기술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했고, 향후 3D 업체 시대로 변화한다는 가설이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주기적 변동을 읽으면 다가올 미래를 예상할 수 있다.

<보기>

- ㄱ. 로열더치셀은 석유화학업계에서 현재 세계 2위인 회사지만 30년 전만 해도 경쟁력이 바닥권이었다. 그런데 중동전쟁이 아랍권의 완패로 끝난 것을 눈여겨 본 셀의 직원이 본사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아랍권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보고서였다. “아랍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계속 패하는 상황이니 공격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 예상된다. 그것은 바로 석유의 무기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셀 본사는 유가가 떨어 경우를 대비한 경영전략을 세워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 ㄴ. 1990년대에 세계 민간항공기 제조시장은 유럽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보잉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었다. 차기 주력 제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의 경영진은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을 세웠다. 보잉은 미래에 사람들이 속도를, 에어버스는 운임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운명은 확연히 갈렸다.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승객들의 주 관심사는 운임이 되었다.
- ㄷ. 1994년 김정일이 북한의 주석이 된 후 그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 예측이 시작되었다. 우선은 장남이 후계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2001년에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은이 일본에 몰래 입국하다가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것이 김정일의 후계자를 예측하는 데 분석될 하나의 단서였다.
- ㄹ. 대형마트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그래서 고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상품진열을 더 잘할 수 있다. 빵을 사는 사람들이 동시에 우유와 주스를 많이 사더라는 상품 구매의 연관관계를 알아냈다면 빵 진열대 옆에 주스와 우유를 놔두는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데이터라도 분석을 잘하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다.
- ㅁ. 자본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강조되던 자본주의 시대, 1929년 경제 대공황 이후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시대, 1980년대 시장의 기능을 강조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자본주의 시대 등을 거치며 주기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 ① (가)-ㄷ, (나)-ㄴ ② (가)-ㄱ, (라)-ㄷ
- ③ (가)-ㄹ, (마)-ㅁ ④ (나)-ㄹ, (다)-ㄱ
- ⑤ (나)-ㄴ, (라)-ㄷ

38. 다음 (가), (나)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의 개수는?

- (가) 아래 글은 현행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 제4장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중 ‘제2절 동양의 인명, 지명 표기’ 내용이다.
- 제1항 중국 인명은 과거인과 현대인을 구분하여 과거인은 종전의 한자음대로 표기하고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 제2항 중국의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 제3항 일본의 인명과 지명은 과거와 현대의 구분 없이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한다.
- 제4항 중국 및 일본의 지명 가운데 한국 한자음으로 읽는 관용이 있는 것은 이를 허용한다.
- (나) 서구문화권의 제국간(諸國間)에서는 과연 외국지명이나 인명을 그 나라 발음대로 부르고, 또 적고 있는가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각자의 통용어(通用語), 또는 통용어식 독법(讀法)을 다시 없이 존중하고 있으며, 외국의 지명 같은 고유명사도 재래식의 통용어의 방식으로 부르기로 되어 있고, 결코 외국의 발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언어정책의 주체의식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다. 독일은 스스로 ‘도이취’, ‘도이취란트’라고 부르지만, 불어(佛語)로서는 어디까지나 ‘알레망’이요 ‘도이취’ 운운(云云)을 따른다는 것은 천부당만 부당한 일이다.
- 다음에 한(韓)·중(中)·일(日)의 동아시아(東亞) 삼국(三國)의 한자문화권 또는 한자지명·인명의 문화권의 경우를 검토하면 서구의 ‘로마자(字) 문화권의 경우와도 같이 다 자국어의 통용어존중이 지켜져야 한다. 과거 일본도 처음에 중국지명을 중국식으로 한다고 ‘베킹(北京)’, ‘상하이(上海)’, ‘간둥(廣東)’, ‘홍콩(香港)’이라고 해보았으나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시 일본식으로 부르기로 했다. 중국도 그렇다. 한·일 양국의 지명·인명은 중국식 발음대로 읽고 있으니 중국어의 주체성 유지에서 당연한 것이다. 앞의 ‘도이취’, ‘알레망’의 관계와 공통된 현상인 것이 아니라.

<보기>

- ㄱ. (나)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독일을 ‘저매니’라 부르지 ‘도이취’라고 부르지 않는다.
- ㄴ. 일본은 자국어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중국식으로 읽었던 중국지명을 모두 일본식으로 전환했다.
- ㄷ. (가)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도시 ‘上海’는 ‘상하이’로만 표기해야 한다.
- ㄹ. (나)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수도 ‘北京’은 ‘북경’으로만 표기해야 한다.
- ㅁ. (나)의 입장에서 보면 현행 우리의 외래어표기법은 언어정책의 주체성이 부족하다.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
- ⑤ 5개

2014년 제30회 입법고시 정답표(가형)

|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
|------|--------|--------|--------|
| 문제1 | 2 | 3 | 3 |
| 문제2 | 4 | 2 | 5 |
| 문제3 | 5 | 3 | 3 |
| 문제4 | 5 | 3 | 1 |
| 문제5 | 1 | 3 | 2 |
| 문제6 | 5 | 5 | 4 |
| 문제7 | 1 | 1 | 4 |
| 문제8 | 4 | 1 | 2 |
| 문제9 | 4 | 5 | 4 |
| 문제10 | 5 | 5 | 5 |
| 문제11 | 5 | 4 | 1 |
| 문제12 | 1 | 4 | 5 |
| 문제13 | 2 | 2 | 2 |
| 문제14 | 3 | 2 | 5 |
| 문제15 | 3 | 2 | 5 |
| 문제16 | 2 | 5 | 4 |
| 문제17 | 4 | 3 | 3 |
| 문제18 | 2 | 2 | 4 |
| 문제19 | 1 | 4 | 4 |
| 문제20 | 4 | 1 | 5 |
| 문제21 | 2 | 2 | 2 |
| 문제22 | 3 | 3 | 3 |
| 문제23 | 3 | 4 | 1 |
| 문제24 | 2 | 3 | 3 |
| 문제25 | 3 | 3 | 2 |
| 문제26 | 5 | 4 | 4 |
| 문제27 | 1 | 4 | 4 |
| 문제28 | 3 | 5 | 4 |
| 문제29 | 4 | 2 | 1 |
| 문제30 | 3 | 1 | 5 |
| 문제31 | 1 | 2 | 3 |
| 문제32 | 3 | 1 | 2 |
| 문제33 | 5 | 4 | 1 |
| 문제34 | 5 | 5 | 4 |
| 문제35 | 2 | 1 | 5 |
| 문제36 | 4 | 2 | 5 |
| 문제37 | 1 | 3 | 1 |
| 문제38 | 2 | 1 | 2 |
| 문제39 | 5 | 5 | 3 |
| 문제40 | 4 | 4 | 2 |

5.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문예 장르의 하나로 정착된 신화의 개념은 늘 문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신화는 그저 낭만적 열정에 따른 숭배 혹은 미혹으로 간주되는 타기(唾棄)의 대상이었다. 신화를 글 안에 가두고, 예술적인 범주로 환원시키는 신화에 대한 통념은 과연 타당한가? 아마도 신화는 그보다 더 큰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그 영향은 생각보다 강력하고 집요한 것일 터이다.

신화를 문학의 하나로 보는 장르론적 사유에서 벗어나 담론적 실천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신화는 그것과 연루된 인지와 행위를 다른 어떤 담론보다도 적극적으로 호명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신화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행위가 있으며, 이는 곧 신화가 갖는 강력한 지표성을 말해준다. 이러한 지표성으로 인해 우리는 신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화의 지표성은 신화를 개념화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개념이 확정되는 것은 그것이 의미체계 어딘가에 제자리를 잡는 것을 말한다. 확고한 의미체계로 이루어진 담론이 그것과 지표적으로 연루된 현실의 간섭을 받는다면 그러한 세계는 그 확고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화의 개념은 그것이 갖는 지표성으로 인해 의미체계 안에서 늘 불안정한 위상을 갖는다. 그 때문에 신화는 강력한 담론이면서도 늘 해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신화의 해체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화는 탈신화적 해체에 노출된다. 이를 뮈토스(mythos, 신화 체계)와 로고스(logos, 이성 체계)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신화에 내포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지만, 신화는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위장한다. 혹은 탈신화를 통해 얻어진 합리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순간 맹목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신화는 늘 명사가 아닌 동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언제나 이러한 해체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수반되기에 신화는 ‘신화함’이거나 ‘신화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을 필연적으로 함의한 역설적 동사인 것이다.

다음으로, 신화는 사유의 한 형태로 문학이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한다. 기호 작용이라 규정됨으로써 그것은 존재론적이면서 인식론적인 모든 현상에 골고루 침투한다. 신화가 없는 곳은 문화가 없는 곳이고 인간이 없는 곳이다. 한마디로 신화는 필연적인 것이다. 신화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화는 더욱 위험하고, 잠재적이며 때로는 무의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신화를 더욱 노출시키고, 실재화시키며,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앞서 말한 탈신화일 터인데, 그러한 사유는 우리의 문화를 맹목으로 얼룩진 부패한 모습이 아닌 활발한 모습으로 숙성된 발효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 ① 탈신화적 해체에 노출된 신화는 역동적으로 합리성을 추구한다.
- ② 기호작용인 신화를 담론적 실천으로 바라보면 신화의 개념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 ③ 신화는 위험하고 잠재적이며 무의식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탈의식화가 필수적이다.
- ④ 신화의 지표성은 관련된 사고와 행동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므로 확고한 의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⑤ 신화는 강력한 의미를 지닌 담론이므로 문학이나 언어의 경계를 넘는 예술적 장르 안에서 파악해야만 한다.

6. 다음 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워낙 흔히 쓰이는 말이라 대부분 그 뜻을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다. 가령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그렇다. ‘과유불급’은 논어에 나오는 말로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고 풀이해야 옳다. 본래 중용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풀이하면 모자란 것이 지나친 것보다는 낫다는 뜻이 되므로 이 말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고 만다.

그런데도 잘못된 해석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 문화의 특색 탓인 듯하다. 예컨대 어느 신문에나 있는 ‘오늘의 운세’란에는 이런 문구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과유불급이니 겸손하라.”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므로 여기에 쓰인 ‘과유불급’에는 넘침보다는 모자람이 낫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모자람보다는 넘침을 경계했던 것이 우리 문화의 특색이기는 하지만, 실은 공자의 말대로 모자라는 것이나 넘치는 것이나 부적절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경우든 형편과 사정에 꼭 맞는 ‘적정량’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컵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한 물의 적정량은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적정량을 재는 계량컵이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 옛 사람들이 넘치는 것을 경계했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을 것이다. 적정량을 초과해 화를 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모자란 선에서 만족하고 멈출 때 뒤탈이 적다는 것을 경험으로 깨우쳤을 것이다.

그러나 ‘과유불급’을 오독할 정도로 겸손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으로서야 조금 모자랄 때 만족하는 것이 처세의 비법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 사람의 이해가 걸려 있는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사람이 모이면 이해관계가 얽히기 마련이어서, 누군가는 더 가지려 하고 누군가는 덜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정치가 필요하다. 좋은 정치란 곧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정량을 찾아주는 계량컵과 같은 것이다. 모자라는 곳은 채우고 남는 곳은 덜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이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적정량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적정량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면, 아직도 정치는 ‘과잉’이기보다는 오히려 ‘모자라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과유불급’의 정치를 위해서 정치는 지금보다 더 ‘과’할 필요가 있다.

- ① 글의 첫머리에 널리 알려진 소재를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②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음으로써 주제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하나의 소재를 반복해서 활용함으로써 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조함으로써 상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글의 말미에서 연역적 추론을 바탕으로 논증의 설득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9. 다음 글의 ㄱ~ㄷ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저 왕권에 대한 위대한 옹호자 역시 이러한 정도의 저항권은 인정하고 있다. 그가 그것에 첨부한 두 가지 제한은 (ㄱ) 진실이다. 첫째, 그는 저항은 경외감(reverence)을 동반해야 한다고 한다. 둘째, 저항은 복수나 처벌을 동반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이유이다.

첫째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반격을 가하지 않고서 어떻게 힘에 저항할 수 있겠는지, 또 어떻게 경외감을 갖고 공격할 수 있겠는지 하는 문제가 이해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리라고 말이다. 타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패만으로 상대의 맹공에 저항하거나, 그렇게 맹공을 퍼붓는 상대방의 확신과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칼조차 손에 들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존경하는 자세로써 저항하려는 자는 금방 그 저항에 중지부를 찍게 될 것이며, 그러한 방어가 오로지 자신에게 더 심각한 봉변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중략) (ㄴ) 서로 조화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자신의 수고의 대가로서 어디서든 예의바르고 정중한 곤봉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열등한 자는 우월한 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그의 두 번째 주장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다. (ㄷ) 하지만 힘에 힘으로 대항하는 것은 양쪽을 같은 입장에 놓는 전쟁 상태와 같아서 이전의 모든 경외감, 존경심, 우위의 관계를 무효화한다. 따라서 남아 있는 우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공격자에 대항하는 자가 그 공격자에 대해 갖는 우위이며, 저항하는 자가 승리할 경우 공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평화를 해친 것과 또 그렇게 해서 야기된 모든 해악들에 대해서 말이다.

- ① ㄱ: 정치 현실을 심사숙고한 결과물이라는 것이
 ㄴ: 타격을 가하는 일과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② ㄱ: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ㄴ: 복수와 처벌을
 ㄷ: 즉, 그 열등한 자가 우월한 위치로 올라서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③ ㄱ: 절대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
 ㄴ: 복수와 처벌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우월한 자로 군림할 동안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④ ㄱ: 절대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이
 ㄴ: 저항과 처벌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열등한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 ⑤ ㄱ: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ㄴ: 타격을 가하는 일과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을
 ㄷ: 즉, 그 우월한 자가 우월한 자로 군림할 동안에는 그렇다는 얘기다.

1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의(正義)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 첫 번째 관점에 따르면 정의는 우리가 다른 인간들에게 빚지고 있는 동등한 관심 혹은 공정성 의무로부터 도출된다. 이에 따르면 정의의 표준들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와 조직들은 이 관심 혹은 이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가치로서 존재한다. 훌륭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주권국가를 통해 우리는 다른 동료 시민들과 정의로운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국가를 지배해야 하는 정의의 요구들을 위한 도덕적 기초는 그 범위에 있어서 보편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우리가 이 관점을 취하게 될 때 주권 국가들이 분리돼 있다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행한 장애가 된다. 우리가 동등한 기회 및 공정성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의 체계가 우리 사회 안에서 확립되는 것을 바라면서도, 동일한 체계가 세계 전체에서 확립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일관적이다. 부국이 아니라 빈국에서 태어나는 우연한 사건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부유층이 아니라 빈민층에서 태어나는 일만큼이나 사람의 운명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요소이다. 이 관점은 정당한 민주적 지배체제를 더 큰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는 유토피아적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 두 번째 관점에 따르면 정의는 본질적으로 사회 제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德)이다. 정의가 제도의 덕이라는 생각은 정의는 정치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제도들의 존재, 특히 주권국가의 존재는 정의의 가치가 적용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권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사람들은 동료 시민으로서 상호 관계를 맺게 되고, 이 관계는 정의의 내용 및 절차를 채우는 공정성과 동등성의 표준에 의해 평가받게 되어 있다.

국가의 영토와 인구는 우연적·역사적 이유들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국가는 시민들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권을 발휘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주권에 의해 작동하는 법적·사회적·경제적 제도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정의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 의무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지는 다른 그 어떤 의무, 예컨대 인간 존엄성에 관한 의무로부터 파생되는 결과가 아니다. 결국 정의는, 우리가 공유하는 제도들을 통해 우리와 강한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빚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의는 결사적(結社的) 의무이다.

- < 보 기 > —
- ㄱ. ㉠에 따르면 정의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가치로서 개인의 덕이지만 ㉡에 따르면 정의는 정치적 가치로서 제도의 덕이다.
 - ㄴ. ㉠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 정의는 도덕적으로 요청되지만 ㉡에 따르면 인류 보편적 정의는 요청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ㄷ. ㉠에 따르면 정의는 주권국가를 매개로 실현되지만 ㉡에 따르면 주권국가는 정의의 가치를 존재하게 하는 토대이다.
 - ㄹ. ㉠은 유토피아적 정의관으로서 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지만 ㉡은 현실적 정의관으로서 연고주의 가치관을 지향한다.
 - ㅁ. ㉠에 따르면 일관성의 태도는 정의의 의무의 범위를 항상 확장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에 따르면 정의의 의무의 범위와 결사 관계의 범위는 항상 동일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ㄴ ③ ㄴ, ㄷ
- ④ ㄴ, ㅁ ⑤ ㄷ, ㅁ

11. 다음 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세기 후반, 오늘날 ㉠ 철학과 ㉡ 과학의 ‘결별’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별을 먼저 요구한 쪽은 ‘과학’을 옹호하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경험적 관찰로부터의 귀납에 기초한 이론화이며, 이 관찰들은 다른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그 관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형이상학적 연역은 유추일 뿐이며 그 어떤 진리의 가치도 담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철학자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탄생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며, 이것은 결별의 결과였다. 근대의 대학은 중세 대학의 골간 위에 세워지긴 하였지만 실제로는 중세의 대학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근대의 대학은 봉급을 받는 전업교수들을 두었다. 교수들은 대부분 성직자가 아니었으며, 단순한 교수진이 아니라 학과나 학과장 아래 소속되어 있었고, 각 학과는 자신들이 특수한 전공학문을 다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 편성한 학습을 이수함으로써 학위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중세대학의 교수진은 신학·의학·법학·철학 등 네 부류로 구성되어 있었다. 19세기가 되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철학 교수진이 두 개 이상의 교수진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이다. 한쪽 교수진은 과학 분야를 담당하고, 또 한쪽은 인문학을 담당하였다. 후자는 예술, 문학 등으로 불리거나 옛 이름인 철학을 교수하기도 하였다. 대학은 나중에 스노(C. P. Snow)가 ‘두 개의 문화’라고 부른 것에 따라 제도화되었는데, 이 두 개의 문화는 전쟁상태였다. 양쪽 다 자신만이 지식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 혹은 적어도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과학 쪽에서는 경험적인 연구와 가설의 검증을 강조하였고, 인문학 쪽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강조하였다.

과학은 인문학이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지식이 통합되어 있던 지난 시기에는 진·선·미에 대한 추구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이 선이나 미의 추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오로지 진리만 추구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선과 미에 대한 추구는 철학자들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철학자들이 이 분업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식은 두 개의 문화로 분리되었으며, 이는 진리의 추구와 선과 미의 추구 사이에 높은 장벽이 가로놓이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동시에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자는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요구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 ① ㉠과 ㉡의 결별을 요구한 쪽은 ㉡이다.
- ② ㉠을 연구하는 다수는 ㉠과 ㉡의 분업에 동의하였다.
- ③ ㉠과 ㉡의 결별의 결과로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탄생하였다.
- ④ ㉡은 ㉠이 추구한 방식이 진리의 추구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였다.
- ⑤ ㉠과 ㉡ 사이의 높은 장벽이 ‘가치중립성’이라는 ㉠의 요구를 정당화시켜주었다.

12.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부족사회(tribe society)에서 지도자의 지위에 대한 승계 문제는 매우 손쉽게 해결된다. 그곳에는 적어도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수된다는 의미에서의 승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사망과 더불어 그의 권력도 사라진다. 지도자가 되려면 그 어떤 자도 처음부터 다시 권력 기반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지도자의 지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국한된다. 가족을 넘어서는 범위의 권력이란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내려진 결정들을 중재하는데 국한되며, 지도력이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적 능력 또는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원시농경이나 목축을 하는 부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곳에서는 권력 추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정치게임의 규칙이 좀 더 명확할 따름이다.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諸島)의 시우아이(Siuai)족의 경우 야심만만한 대인(big man)은 다른 가족들과 동맹을 맺고 또한 뚜렷이 눈에 보이는 지위의 상징을 획득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부인을 얻어야만 한다. 또한 돼지를 많이 확보하여야 하며 돼지들에게 먹일 타로(taro)를 심어야 하는데, 이는 추종자들을 확보하고 경쟁자들을 모욕하기 위한 경쟁적인 잔치를 벌이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매력 때문이건, 선심을 써서건, 전쟁의 승리 덕택이건 간에 만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커다란 ‘그들만의 공간’을 지을 수 있다면 그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 지위를 노리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지위를 계속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눈덩이처럼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또한 나아가 더욱 많은 추종자와 영광을 불러오게 될 잔치에 더욱 더 많은 수의 돼지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대인 중 상당수는 준(準)계분배 경제와 전쟁수행 능력을 완비한 상당한 규모의 권력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충성은 오직 개인에게 맞추어져 있다. 그가 속한 가족이나 친족집단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 아무런 영속적인 우월성도 확보하지 못하므로 그의 사망과 함께 전체 정치구조는 붕괴하고 충성의 대상도 다른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권력야심가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중앙집권화된 체계와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체계와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이다.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정치적 지도자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또는 전임자의 권력기반 위에 자신의 권력을 구축할 수 없다.

- ① 부족사회의 정치구조는 중앙집권화되지 않은 체계이다.
- ② 부족사회에서 지도자의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③ 부족사회에서 지위 경쟁의 궁극적 목적은 권력보다 명예와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다.
- ④ 시우아이족 내에서 여성은 지위 경쟁을 통해 권력자가 되기 어렵다.
- ⑤ 시우아이족 내에서의 지위 경쟁은 추종자를 많이 얻고 동맹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9~20)

(가)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 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한 고소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 법률조항이 고소권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는 피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비속의 고소권제한규범은 특정한 윤리적 내지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입법자가 재량을 가질 수 있는 형성영역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높아진다.

이 법률조항이 대상으로 삼는 직계존속은,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1차적인 관계로서, 합리성으로 대변되는 이해관계나 수지타산의 논리보다는 이해와 사랑 및 헌신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가치로 유지되고 형성되는 집단이며, 이 영역에서는 법률의 역할보다 사회에 대한 버팀목으로서의 전통적 윤리의 역할이 더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은 불가피하게 도덕과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 법의식의 근저에는 근대 서구에서 비롯한 개인주의적 윤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및 혈연 중심의 유교적 윤리가 혼재되어 있는 형편이다. 직계존속은 비속에 대하여 정신적·육체적인 양육과 보호에 정성을 기울이고, 비속은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족으로서의 책임분담과 존경과 보은의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존·비속 관계의 규율에는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나라와 사회가 선택하고 축적해 온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의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여 이를 체화시켜 왔고, 그 결과 근대 서구의식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있다. 친족관계 내부에서는 자율적인 도덕의 구현이 강조되어 법적 규율보다 유교적 규범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작용해왔고, 특히 부모에 대한 존경은 어느 것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 선으로 간주되어 왔으므로, 우리사회의 존·비속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효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다른 친족들이 해당 존속을 고소하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므로, 범죄를 저지른 존속이 완전히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이 법률조항은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긍정된다. 국가가 문화나 윤리의 보호를 입법의 목적으로 삼을 때, 이를 물적·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률조항은 전통윤리의 고양을 위해 자기의 피해에 대한 고소권을 박탈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기에 차별의 목적과 정도의 비례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한다.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국가 형벌권의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소송조건 내지 수사의 단서로서 기능하고, 고소권자에게는 여러 가지 절차적 보장이 뒤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비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인 가정의 기본질서 유지를 넘어 법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존속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포기하고, 범죄 피해자인 비속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어 차별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존속에 대한 고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 것만으로 정식기소와 재판으로 곧 이어지는 않는다. 사건의 발생경위나 존·비속 간 관계의 특수성, 존속의 악성유무 및 정도 등을 살펴 고소각하 내지 불기소에서부터 기소유예, 약식기소까지 정식기소 이전 단계의 다양한 처분이 있어 개별적 사건의 실체에 맞게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존속이라는 이유로 정식기소 이전 단계의 다양한 처분의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 개별사안에 따른 특수성을 불문하고 고소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만이 존·비속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가족제도의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하고 불가결한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19. 위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헌법과 법률의 구분을 인정한다.
- ② (가)는 (나)에 비하여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더 폭넓게 인정한다.
- ③ (가)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지 않는 데 반해 (나)는 피해자의 고소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본다.
- ④ (가)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을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는 반면에 (나)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 ⑤ (가)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수단의 적정성을 갖지 못하는 데 반해 (나)는 비속의 고소권제한이 수단의 적정성을 갖는다고 본다.

20.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법규범과 윤리규범은 구분된다.
- ② 모든 권리는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
- ③ 윤리가 입법목적의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④ 고소권은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것은 윤리규범에 반한다.

23. 다음 보도 기사 표제어와 본문 간의 논리적 오류로 적절한 것을 <보기1>에서 고르고, 이와 동일한 오류를 범한 것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르면?

구자철, 한일전 당시 박주영에게 “야! xx야!”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활약 중인 구자철(23세)이 2012 런던 올림픽 한일전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구자철은 전반 37분, 일본 수비수 4명을 제치고 선취골을 넣은 박주영이 특유의 기도 세리머니를 하자, “주영이 형이 지금껏 골을 넣었던 것 중 가장 심하게 손을 흔들었다. 너무 좋아서 손을 흔드는 걸 보는데 그게 짜릿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슬라이딩을 하면서 (세리머니하는 박주영과) 함께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얘기만 했다.”며 “욕을 했다. ‘야! 이씨! 야, 박주영! 열여덟! 야, 이 XX야! 열여덟’ 막 이런 식이었다. 진짜 너무 기뻐다.”며 당시 흥분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하락)

————— < 보 기 1 > —————

(가) 하나를 보고 그 전체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부 제한된 경우를 가지고 모두가 다 그런 속성을 가진 것으로 주장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다.

(나) 문장의 한 부분을 불필요하게 강조함으로써 사실을 왜곡되게 판단하게 하는 ‘강조의 오류’를 범했다.

(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논점을 벗어나 관련 없는 것을 주장하는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했다.

————— < 보 기 2 > —————

(1) **보도 기사 표제어**: 살 빠려면 적어도 “밤 10시 이후 7시간 이상 자라.”
댓글: 전 7시간 넘게 낮잠 자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2) **보도 기사 표제어**: 지난 주말 장성들 대거 골프 ... 대통령 “다신 이런 일 없도록”
댓글: 다음부터 주중에 쳐라.

(3) **보도 기사**: 일본 후쿠오카 현에 살고 있는 올해 112세의 주간지 유키치 씨가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주간지 씨는 의식이 분명하고 말하는 데에도 전혀 지장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육류를 즐기는 편이며 우유는 거의 매일 마시고 있다.
댓글: 현재 최장수인 사람은 잡식주의자이다. 잡식주의가 최장수의 비결임에 틀림없다.

(4) **보도 기사**: 폭염과 태풍, 일조량 부족까지 겹치면서 애호박, 오이 등 서민들이 쉽게 접하는 채소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댓글: 보릿고개 시절이 다시 오려나?

(5) **보도 기사**: 여성가족부가 지난 11일 예고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안’을 보면, 경쟁심을 유발하는 특성을 가진 게임은 ‘불건전한 게임’으로 간주된다.
댓글: 공기관이 멍텅구리네. 경쟁심이 얼마나 좋은 건데, 선의의 경쟁심 교육을 강화할 생각은 없고...

(6) **보도 기사**: 최지환 교사는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의 할머니가 “손자 생일이니 반 친구들에게 나눠 달라.”며 가져온 초코파이 13개와 꿀 26개를 학생 13명에게 나눠줬다. 이에 대해 교장은 “학부형들이 주는 것을 받지 말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교장 말을 우습게 아느냐.”고 험한 말을 했다. 수원시 교육청은 이를 ‘불법 기부금품’으로 보고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해당 교사를 경고 조치했다.
댓글: 할머니가 손자 생일에 그 정도 작은 성의를 보이는 것이 뭐 그리 대수라 싶지만, 그마저 못하는 아이를 생각하면 공의(公義)를 위해 금하는 것이 좋으며, 교장이 감정적인 표현까지 한 것은 지나친 처사다.

| | 보기1 | 보기2 |
|---|-----|----------|
| ① | (가) | (1), (5) |
| ② | (가) | (3), (5) |
| ③ | (나) | (1), (2) |
| ④ | (나) | (2), (3) |
| ⑤ | (다) | (4), (6) |

24. 다음 글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인문대 교수가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고무적이다. 하지만 그 내막을 알고 나면 이내 실망하게 된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논문의 대부분이 영향력이 약한 학술지에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 < 보 기 > —————

ㄱ. 어떤 인문대 교수는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이다.
 ㄴ. 연구업적이 많은 어떤 인문대 교수는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이 아니다.
 ㄷ. 연구업적이 많은 인문대 교수들 가운데에는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도 있다.
 ㄹ. 영향력이 강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수들은 모두 학교 전체 연구업적 1등을 하지 못한다.
 ㅁ. 연구업적이 많은 어떤 인문대 교수는 대체로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을 한다.
 ㅂ. 학교 전체 연구업적에서 1등을 한 인문대 교수가 모두 영향력이 약한 논문을 쓴 것은 아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 ⑤ ㅁ, ㅂ

25. (가)~(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화기 시대 ‘사회’의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가) 애국계몽운동기의 대표적인 언론매체였던 「대한매일신보」의 경우는 「만세보」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만세보」가 논설 형태의 글을 통해 의식적이고 이론적으로 사회 개념을 소개하는 방식과는 달리 「대한매일신보」에서는 기사 형태의 글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국가’나 ‘정치’에 관련된 기사에 비하면, ‘사회’ 개념은 아직은 훨씬 빈약하다. 이는 「대한매일신보」의 필진이 일본유학의 배경보다 전통적인 유학교육을 바탕으로 근대적인 문물을 수용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또한 반식민지화의 급박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회’라는 어휘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결국 조선의 독립과 자강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조선사회는 계몽과 개혁의 대상이었지만, 다른 한편 국가의 존폐가 걸린 마당에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형성과 대중의 계몽만을 앞세울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한매일신보」에서 사용되는 ‘사회’의 개념은 당시의 자강론자들이 ‘독립’과 ‘자강’ 사이를 연결 지은 바로 그 논리 위에 위치한다. 따라서 사회는 국가와 무관하게 존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성립기반으로 이해된다. 개인과 국가를 직접 매개하여 ‘국민’ 범주를 강조하던 이전의 논리와는 달리 이제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중간항으로 등장한다.

(나) 사회 개념의 용례는 일종의 신분, 계층 등의 하위범주를 의미하는 경우로 사용된다. ‘사회’란 정치나 경제와는 구별되는 하나의 차원, 하나의 영역으로서 ‘관’에 대비되는 ‘민’, 지배층에 대비되는 피지배층의 개념을 의미하는 경우로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영역과 구분되는 사적 영역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더 좁게 정부의 관료기구와 민간단체들을 대비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또 ‘상등/하등’ 또는 ‘상류/중류’ 사회라는 구별과 마찬가지로 ‘사회’라는 개념은 하위 계층적 범주를 가리키는 데 쓰이기도 했다. 여기서 ‘학생사회’나 ‘문명국부인사회’와 같은 표현까지 생겨나게 된다. 한편 사회에는 중축(中軸)이 있어서 이를 근간으로 통합과 질서가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추계급의 재형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 바로 사회라는 개념이 한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와 그에 속한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는 한국이라든지 또는 조선이라든지, 나라라고 부르는 단위와 일치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국사회’를 ‘외국사회’와 대비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냥 ‘한국’이라고 부르는 상태로부터 ‘한국사회’라고 부르게 될 때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한국을 구성하는 인자들, 즉, 개인이나 각종 조직들이 하나의 단위로 결합·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사회 개념과 함께 단체라는 말도 자주 사용했는데 이 단체 개념도 역시 소규모 집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전 사회적 통합을 뜻하는 동사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중략) 어쨌든 핵심 취지는 소규모 개별 집단의 형성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를 단위로 하는 총체적 결합과 단결을 이루어내는 일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보 기>

- ㉠. 일개인(一個人)이 합하여 사회를 성(成)하고 사회가 합하여 국가를 성함(중략) 국가의 성립이 완전한 자는 사회의 명목이 다차성(多且盛)흔지라
- ㉡. 한국 관인사회가 부패하여 인구의 다수가 로동사회의 버는 것으로 스치하고 게으르게 생활하는
- ㉢. 국가쇠삭(國家衰削) 시에는 사회가 문져 문란하고 사회가 분쟁하면 그 손해가 국가에 지(至)해야
- ㉣. 사회가 아니면 단체를 막성(莫成)홀지오 단체를 성(成)치 못하면 기심(其心)이 불일(不一)하며 역무소취(力無所聚)해야 (중략) 환구열방(環球列邦)에 사회심번(社會甚繁)해야
- ㉤. 오호라 금일 한국사회여 소위 상류사회는 문약허식(文弱虛飾)에 유(流)하며 하등사회는 박지태타(薄志怠惰)하며 여자사회는 열약탕질(劣弱蕩迭)해야 기소양출(其所釀出)한 결과가 국가면목이 방금세계열등지위(方今世界劣等地位)에 타(墮)흔지라

- ① (가) : ㉠ / (나) : ㉡, ㉢, ㉣ / (다) : ㉤
- ② (가) : ㉠, ㉢ / (나) : ㉡, ㉤ / (다) : ㉣
- ③ (가) : ㉠, ㉢ / (나) : ㉣, ㉤ / (다) : ㉡
- ④ (가) : ㉢ / (나) : ㉣, ㉤ / (다) : ㉠, ㉡
- ⑤ (가) : ㉢, ㉣ / (나) : ㉡ / (다) : ㉠, ㉤

26. 다음 글의 '텍스트의 이원대립구도에 대한 해체'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텍스트란 일관되게 엮어진 기호의 복합체로 규정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텍스트는 기호 가운데 특히 구어 혹은 문어 등의 언어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뜻한다. 모든 인문과학이 그 대상으로 인간의 사유를 문제 삼는다고 할 때, 사유를 표출한 결과물인 텍스트는 인문과학의 유일한 현실적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지대하다.

텍스트의 의미는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원대립구도에서 하나의 용어가 나머지 다른 용어에 대해 '특권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미는 존재와 부재의 복합체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텍스트의 이원대립구도에 대한 해체의 목적은 존재의 용어를 문제 삼아서 부재의 용어를 되찾는 것이다. 해체의 궁극적 프로젝트는 기존의 이원대립구도를 역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대립의 관념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다. 텍스트의 이원대립구도를 해체하는 것은 중도의 목소리를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해체는 하나의 텍스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복합방식을 드러내는 체계적 분석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해체를 통해 이전에는 권력관계가 없을 것 같았던 행태와 사고구조에서 권력의 작용을 밝혀낸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해체는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텍스트 내면에 흐르는 억압된 갈등에 초점을 둔다. 그럼으로써 소위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모든 단언(端言)들의 이면을 파헤치는 것이다.

<보 기>

- ㄱ. 이원대립구도에 담겨있는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언급되지 않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다.
- ㄴ. 개념들 간의 속성과 관계를 비교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범주를 만들어낸다.
- ㄷ. 텍스트 또는 맥락에 흐르는 억압적 요소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 ㄹ. 복합적 의미의 원천으로서 은유적 표현을 해석하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분석한다.
- ㅁ. 기존의 관습화된 가정과 사고 유형에 대해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여 더 설명력 있는 논리를 찾아낸다.
- ㅂ. 회피된 개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지배적 개념의 지위로 부각시킨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ㅂ
-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ㅂ
- ⑤ ㄴ, ㅁ, ㅂ

27. 다음 글을 읽고 유추한 것 중 잘못된 것을 고르면?

(가) 하버트 스펜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발표 수년 전에 인간 사회의 변화와 무생물계 및 생물계의 변화를 보편적 진화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스펜서는 콩트가 수립한 전통에 속해 있었으며 실증과학을 인간의 연구에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중심 개념은 진화 또는 진보로, 그는 이 두 개념을 동일시하였다. 스펜서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진화론적인 접근을 모든 학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그는 진화를 기본적인 것이며 그 자체가 통합하는 과정이자 원리라고 강조하였다.

(나) 자연과학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이 통제된 조건하에서의 실험이라는 형태로 확립되었는데, 계몽시대 사회철학자들은 인간의 연구에도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방식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이지 못하였다. ㉠ 18세기의 유럽인들은 자신들 이외의 다른 민족들이 열등한 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이들이 유럽인과 유사한 생활양식을 배우면 이러한 격차는 극복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유럽식 삶의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은 거의 자명하다고 생각하였다.

(다) 미국 인류학의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문화영역이라는 개념을 성립한 것이다. 문화영역은 통상 보에스의 동료였던 위슬러의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가 이 기본개념을 확장시키고 정교화 했기 때문이다. ㉡ 진화단계론 혹은 3시대 구분을 반대했던 위슬러와 보에스는 비교문화유물이라는 전시 기법을 거부하였다.

(라) 위슬러는 인접한 문화들 간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유사한 문화들이 나타나는 지역을 문화영역이라고 불렀다. 그는 유사성의 원인에 대하여 한정된 지역 내에서의 전파와 한 지역에 공통적인 기본적 생계조건만을 제시하였다. 그는 문화영역이라는 개념을 박물관 전시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사용하여 인디언 문화에 대한 자신의 저서를 구성하였으며, 생계에 근거한 분류뿐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특질의 분류를 시도하게 되었다.

(마) ㉢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일부 문화인류학자들은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을 취했는데, 이들은 '미개(primitive)'라는 용어가 경멸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이들은 미개 대신에 무문자(無文字, nonliterate), 즉, 문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 ① (가)에 따르면 하버트 스펜서에게 진화론이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대(大)이론과 같다.
- ② (나)로부터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철학자 역시 인간의 본질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탐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문자사용이전(pre-literate)'이라는 용어도 바람직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할 열등한 단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 ④ 위슬러는 다양한 사회가 보유한 문화적 특질을 일정한 발전단계로 구분하는 입장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은 문화적 특질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28. 다음 글을 읽고 미국 연방의회 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르면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발의권이라 한다. 미국 연방의원은 우리 국회의원과 달리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와 달리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없다. 이처럼 법안제출권은 없지만 행정부가 원하는 법안을 대통령이 속하는 정당의 의원들을 통해 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장관 또는 각 독립기관의 장이 상·하원의 의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입법을 촉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행정부 서한이라고 한다.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을 발의자, 주요 발의의원을 대표발의자, 나머지 발의의원을 공동발의자라 하는데 공동발의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하원에서는 발의하고자 하는 법안을 본회의장 연단 우측 직원석에 있는 의안함에 넣으면 된다. 상원의 경우에는 의장석 옆의 직원에게 발의할 법안을 제출하거나 본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상정한다. 하원에서 본회의 투표권이 없는 의원들, 즉, 서사모아·괌·미국령 버진아일랜드·북마리아나 제도의 준주선출의원(Delegate)들과 푸에르토리코의 상주대표도 법안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하원의장은 곧바로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위원회는 법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일반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법안이 여러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걸친 2개 이상의 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도 많다. 발의된 법안이 어느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지는 각 원의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1975년까지 법안은 한 위원회에만 회부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처럼 복수의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그 법안을 주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주관위원회라 한다. 제108대 의회(2003~2004년)에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관위원회를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하원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관련위원회의 법안심의에 적용된다. 우리 「국회법」 제83조에도 관련위원회 회부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 제도는 제13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1991년 5월 31일)에서 미국의회의 복수회부제도를 변형하여 도입한 것이다.

- ① 괌의 준주선출의원 Bordallo는 제109회 의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각 주에 전자투표 도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의 「선거지원법」 개정안을 직접 상정하였다.
- ②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차관 이한성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당 국회의원 조원태에게 법안의 발의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 ③ 미국 농업위원회는 「농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의결을 위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다.
- ④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승우는 연차유급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으로 법안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찬성 의원을 찾지 못하여 연내 발의는 힘든 실정이다.
- ⑤ 미국 하원의장 Boehner는 대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수산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의 주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2012년 8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

29.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오히려 반대편에서 교통이 더더진다. 사람들이 중앙분리대 너머의 사고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예정 시간보다 10분이나 늦어졌지만 입장료를 냈다고 생각해서 자기 앞으로 도로가 트였는데도 구경을 다 할 때까지 속도를 내지 않는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10초 동안 구경하기 위해 10분을 소비하게 된다. 그들은 10분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여 구경을 하는 것인데, 실제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10초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는 호기심에 들인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운전자들이 조직화된 집합체라면, 고속도로에서 10초 동안의 구경을 포기하고 10분을 절약함으로써 원래의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조직화되지 않았을 경우 그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나) 케이프코드에서 돌아오던 차들이 1마일 이상 거북이걸음을 하게 되었다. 어떤 차에서 매트리스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1마일 이상 서행했고, 5분이 걸려 매트리스가 있는 자리에 도착했으며, 맞은편에서 오는 통행량 때문에 기다렸다가 매트리스를 지나친 다음 속도를 되찾은 차들이 매우 많았다. 누군가 매트리스를 치우도록 선발되거나 그 대가로 보상을 받지 않는 한 그것을 누군가 치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매트리스를 지나친 사람은 그것을 치우으로써 이익을 볼 수 없고 그것을 지나친 사람이 아니면 치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교통 헬리콥터가 있었다면, 뒤의 운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지나치면서 ㉡ 10센트 동전을 던지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매트리스를 치워준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 데 대한 재산권이 부여되었을 것이며, 그에게는 투자회수를, 그의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통신수단이나 커뮤니케이션 없이 단지 같은 길을 갔다는 사실만으로 긴 행렬의 자동차들이 조직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 기>

- ㉠. 이 글은 개인은 각자의 이기적인 동기에 기초하여 행동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 ㉡. (가)에서와 같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기에게 아무 이익이 안 되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를 누군가 ‘하도록’ 하는데 있고, (나)에서와 같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타인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 ㉢. 이 글은 개개인이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최대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해 있다.
- ㉣. ㉠은 개인적 관심사와 집단적 관심사 사이의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을 의미한다.
- ㉤. (나)에서 ㉡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 ㉥. 이 글은 강제력 있는 사회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4. 다음 글의 (가)~(마)에 들어갈 인용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가)

양계초는 ‘중국의 구윤리 - 오륜 - 사덕’과 ‘서양의 신윤리 - 가족·사회·국가 윤리 - 공덕’을 각각 묶음으로 정렬시킨다. 실제로 ‘공덕’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공덕에 대하여」에서 시작해서 「사덕에 대하여」 직전까지 이어지는 각 장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국가사상’, ‘진취와 모험’, ‘권리’, ‘자유’, ‘자치’, ‘진보’, ‘경제’ 등 이른바 유럽의 근대 문명이었다.

이는 ‘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서 추구되어야 할 근대적 가치들이다. 그러나 망명정치자로서 중국인 개개인의 분발을 바란 양계초는 이 모든 과제들을 중국인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 혹은 ‘행동의 원리’로서 요구했다.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열망 속에서 양계초는 유학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전통이념을 ‘사덕’으로 축소했다. 유학 안에서 당시 그가 필요로 했던 ‘국가사상’이 없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양계초에 의하면 국가사상이란 개인, 정부, 세계와의 비교에서 그 우위를 점하는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다. 당시 양계초는 공덕 가운데서도 ‘국가사상’을 근대 유럽 문명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가)에서 양계초는 공덕과 사덕에 부여했던 함의를 각각 ‘신윤리’와 ‘구윤리’에 담았다. 즉, 양계초는 윤리를 신과 구의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나)에서 양계초는 윤리와 별다른 구별 없이 ‘도덕’이라는 말도 썼다.

(나)

(나)에서의 도덕 역시 ‘문명의 도덕’, ‘야만의 도덕’, 혹은 ‘우리 사회의 도덕’처럼 다양한 형용사를 붙여 쓸 수 있는 일반명사다. 즉, 양계초는 윤리와 도덕을 둘 다 일반명사로 사용했으며 둘의 의미를 혼용하고 있었다. 당시 그의 과업은 ‘새로운’ 유럽 문명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문명을 배워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개인의 도덕으로 요구했다. 개인의 노력이 국가의 생존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했기에, 그것은 사덕이 아니라 공덕이어야 했으며 사회의 진보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변하는 것이어야 했다. (중략)

그런데 「공덕에 대하여」와 약 1년 반의 시간을 두고 이어진 「사덕에 대하여」에서는 신문명의 강점과 유학의 미덕에 대한 평가에 변화를 보인다. 그는 공덕보다 사덕이 더 근본적이라고 주장했다. 용어 사용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우선 양계초는 윤리와 도덕을 구별했다.

(다)

(다)에서와 같은 윤리와 도덕의 나눠 쓰기라면 사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윤리다. 양계초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에서 통용되었던 도덕은 오래된 것이라도 ‘구도덕’이 아니다. 도덕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롭게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는 것은 중국의 ‘도덕’을 다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이 구도덕과 신도덕은 「공덕에 대하여」에서 구윤리와 신윤리로 표현했던 것과 일치한다. 즉, ‘구’와 ‘신’은 시간적 구분이지만 실제로는 각각 중국의 전통과 유럽의 근대 문명을 의미한다. 우선 양계초는 이전에 신도덕 혹은 신윤리에 품었던 기대를 철회하고 도덕과 도덕학을 구분한다. 도덕과 도덕학은 각각 이론과 실천의 영역이다. 신도덕과 구도덕이 있는 것처럼, 신도덕학과 구도덕학이 있다. 중국의 것이더라도 그것이 실천과는 관계없이 이론에만 치중한 것이라면 양계초에게 평가받지 못한다. 양계초가 중시하는 것은 중국의 것이 아니라 (라)와 같은 결론이었다.

(라)

그런데 양계초가 중국인을 향해 호소하고 있었던 ‘덕’ 혹은 도덕이란 ‘애국심’으로 환원되는 것이었다. 양계초는 애국의 ‘덕’ 즉, 애국심만이 중국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애국이란 절대적인 것이고 순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사람들에게 도덕으로 요구한 것은 (마)와 같은 헌신이었다.

(마)

<보 기>

- ㄱ. 논자들은 도덕이 왜 일어나는지 아는가? 도덕이 성립하는 것은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문명인가 야만인가의 차이에 따라 적당한 도덕 역시 달라진다.
- ㄴ. 정말로 도덕을 실천하려 한다면 각 사회가 그 사회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각각 이어받은 것에 의거해야 한다. 조상의 업적, 먼 조상에서 내 몸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사회의 자양물이 될 것이다.
- ㄷ. 지금 뜻있는 선비들은 개개인이 뿔뿔이 고립되어서는 이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 반드시 협동하여 움직여서, 분업이 정밀하고 단결이 공고한 단체를 조직한다면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 단체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은 도덕의 감정 말고 어떤 것이겠는가!
- ㄹ. 윤리는 시세에 따라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도덕은 사해에 적용해도 들어맞고 백 세 뒤를 기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임금에게 압력을 넣는 것은 죄라거나 처를 많이 두는 것은 부덕이 아니라는 그런 윤리는 오늘날에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충성의 덕이나 사랑의 덕은 고급과 동서를 관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윤리에 결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중국의 도덕에 결점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 ㅁ. 지금 중국의 구윤리를 서양의 신윤리와 비교해보자. 구윤리는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로 분류되고 신윤리는 가족 윤리, 사회 윤리, 국가 윤리로 분류된다. 구윤리가 중시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과의 일이다. 신윤리가 중시하는 것은 개인과 단체와의 관계다.

(가) (나) (다) (라) (마)

- ①
- ②
- ③
- ④
- ⑤

37. 다음 글의 '세계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는?

“나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콰키우틀족의 외침은 거룩한 공간에 관한 가장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를 제시한다. 성현에 의하여 하나의 차원과 다른 차원 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또한 서로 다른 우주적 차원이 교섭을 갖는다.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 교섭은 때때로 우주의 축(axis mundi)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되는 바 이 축은 천상과 지상을 접촉시키고 떠받치는 것이면서 그 기반은 저 밑의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주적 기둥은 오로지 우주의 중심에만 놓을 수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 전체가 그것을 둘러싸고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불가분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전통적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세계의 체계라고 부를 만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련의 종교적 개념들과 우주론적 이미지들을 알게 된다. 거룩한 장소는 공간의 균질성에 단절을 가져온다. 이 단절은 하나의 우주적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출구로서 상징된다. 천상과의 교섭은 몇몇 이미지들, 이를테면 기둥, 사다리, 산, 나무, 덩굴 등등 가운데 하나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들은 모두 세계의 축과 관련된다. 세계는 이 우주적인 축을 둘러싸고 펼쳐지며 따라서 이 축은 가운데에, 대지의 중앙에 위치한다. 그것은 세계의 중심이 된다.

많은 상이한 신화, 제의, 신앙들이 이 전통적인 세계의 체계에서 파생되어 나오고 있다. 여기서 그것들을 모두 언급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다양한 문명에서 추출된, 그러면서 전통사회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공간이 차지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데 특히 적절한 몇 개의 예를 살피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그런 공간이 거룩한 구역, 예배소, 도시, 세계 등등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세계의 중심의 상징을 발견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 관련된 종교적 행위를 설명해주는 것은 이러한 상징이다.

다른 일련의 우주론적 이미지와 종교적 믿음들도 이와 동일한 상징에 의하여 설명된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거룩한 장소와 성당은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사원들은 우주적 산의 모사이며, 따라서 다른 차원과의 교섭이 이루어진다.

- ① 힌두교 신화에서 주요 신들은 하늘까지 뻗어 있는 메루산 주변에 자신의 낙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건한 신자들은 죽은 뒤 이 낙원에서 영혼의 재생을 기다린다.
- ② 인간은 마고에 의해 창조된 후 마고의 성에 모여 살았으나 인구가 증가하여 성이 황폐해지자 권속별로 신표를 나누어 갖고 성의 사방으로 퍼져나가 정착하게 되었다.
- ③ 코히토족은 사원을 깎아지른 듯한 해안절벽 위에 세우는데, 이 사원은 절벽인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우뚝 솟은 모습으로 표현된다.
- ④ 지구라트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건설된 건축물로 성직자는 지구라트의 일곱 계단을 올라가 그 정상에 위치하는 제단에서 신과 대화를 나눈다.
- ⑤ 바빌론은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혼돈의 물을 가둔 문 위에 세워졌으며 인간은 이를 통하여 하계로 내려갈 수 있었다.

38.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 표현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표현된 것의 전후 문맥에서 추론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표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 표현된 것의 전후 문맥에서 추론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오류의 종류는 매우 많다. 추론이란 미루어 생각하여 논하는 일을 말하는데, 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근거로 삼는 명제를 전제라고 하고 그 명제를 근거로 도출되는 판단을 결론이라 한다. 추론의 오류는 전제와 결론 사이에 정당한 타당성이 없을 때 생겨난다.

(다) '논리(論理)'란 말이나 글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근거나 이치이다. 생각을 표현하는 말이나 글에서, 내용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 가는 과정이나 원리가 논리이다. '논리성'이란 논리에 맞는 성질을 말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들도 우리 사회에 참 많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문도 많고, 옳다고 우기는 주장이 다른 편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으며 공정성과 이성을 결여한 아집도 많다. 즉, '논리성'을 갖추지 못한 말과 글이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이 떠돌고 있다.

(라) 표현된 것이 현실 세계에서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요건을 우리는 '진리조건'이라 한다. 표현된 말이나 글이 논리성을 갖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1조건은 그것이 현실 세계에 부합하는 '참'의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표현이 있을 때, 그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현실 세계에서 참인가에 대해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지금 집에 계신다.”라는 문장의 참, 거짓 여부는 사실 확인에 의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하는 아무개가 지난 번 선거에서 돈을 그렇게 해 먹었다.”라는 문장의 참, 거짓 여부는 개인적 능력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것을 참이니 거짓이니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나쁜 놈이잖아? 또 뺏아주면 안 되겠네.”라고 단정해 버린다. 그러나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판단으로 발전하는 것은 명백히 추론의 오류를 범한 것이 되므로, 논리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 예를 들어, “너에게 모처럼 하는 부탁을 거절하다니, 넌 나를 싫어하는구나.”라는 문장에는 부탁을 들어주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안 들어주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들어 있다. 이것은 좋거나 싫거나 둘 중 하나로 판단해 버리려는 것으로 상당히 빈약한 근거가 된다. 이는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논리학에서는 이를 흑백논리의 오류라고 한다. 흑백논리란 모든 문제를 양극단으로만 구분하고 중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중된 사고방식을 말한다.

- ① (가)→(다)→(마)→(라)→(나)
- ② (다)→(가)→(나)→(마)→(라)
- ③ (다)→(가)→(라)→(나)→(마)
- ④ (가)→(다)→(라)→(마)→(나)
- ⑤ (다)→(가)→(마)→(나)→(라)

2013년 제29회 입법고시 언어논리영역 정답표

| 문항 | 가형 | 다형 |
|-----|----|----|
| 문1 | 1 | 1 |
| 문2 | 5 | 4 |
| 문3 | 2 | 3 |
| 문4 | 1 | 4 |
| 문5 | 2 | 2 |
| 문6 | 4 | 5 |
| 문7 | 2 | 5 |
| 문8 | 4 | 1 |
| 문9 | 5 | 3 |
| 문10 | 2 | 3 |
| 문11 | 5 | 2 |
| 문12 | 3 | 4 |
| 문13 | 1 | 3 |
| 문14 | 4 | 1 |
| 문15 | 1 | 3 |
| 문16 | 5 | 5 |
| 문17 | 1 | 3 |
| 문18 | 2 | 3 |
| 문19 | 5 | 4 |
| 문20 | 2 | 2 |

| 문항 | 가형 | 다형 |
|-----|----|----|
| 문21 | 1 | 1 |
| 문22 | 4 | 5 |
| 문23 | 3 | 2 |
| 문24 | 4 | 1 |
| 문25 | 2 | 2 |
| 문26 | 5 | 4 |
| 문27 | 5 | 2 |
| 문28 | 1 | 4 |
| 문29 | 3 | 5 |
| 문30 | 3 | 2 |
| 문31 | 2 | 5 |
| 문32 | 4 | 3 |
| 문33 | 3 | 1 |
| 문34 | 1 | 4 |
| 문35 | 3 | 1 |
| 문36 | 5 | 5 |
| 문37 | 3 | 1 |
| 문38 | 3 | 2 |
| 문39 | 4 | 5 |
| 문40 | 2 | 2 |

언어논리영역

1. ㄱ~ㄷ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외면이 내면을 도와주지 않는 한 외면은 아무 의미가 없네. 그래서 모든 진정한 예술은 혼의 표현이라네. 외면적인 모습들은 인간의 내면적 영혼 안에서만 가치가 있다네. 곧 진정한 예술은 혼을 도와 내면의 자아를 실현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일세. 인간의 예술작품은 영혼이 자아실현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을 돕는 한에서만 가치가 있다네.

B: 그러나 예술가들은 외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를 보거나 발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리를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까?

A: 나는 그 순서를 뒤집고 싶네. 나는 (ㄱ). 모든 진리, 진실된 관념만이 아니라 진실한 얼굴, 진실된 그림이나 노래는 모두 정말로 아름답다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진리 안에서 미를 보지 못하네. 대개의 사람들은 거기서 도망치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눈 먼 사람처럼 대한다네. 사람이 진리 안에서 미를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예술이 일어날 것일세.

B: 미가 진리로부터 진리가 미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까?

A: 나는 미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고 싶네. 만일 그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을 것이네. 용모가 잘 난 여성이 반드시 아름다운가?

B: 예.

A: 그녀의 성질이 사나워도 아름다운가?

B: 물론 그런 경우라면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얼굴은 언제나 내면의 거울일 것입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데 천재성을 지닌 진정한 예술가는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할 것입니다.

A: 자네는 전체 논점을 교묘히 피하고 있네. 지금 자네는 단순히 (ㄴ) 전제하고 있네. 진실한 예술가에게는 외면과는 동떨어져 혼 안에서 진리와 함께 빛나는 얼굴만이 아름다운 것이라네. 그래서 나는 (ㄷ) 한 것이네.

- ① ㄱ: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다네
 ㄴ: 참된 예술가라면 외면을 통해서도 진정한 미를 발견한다고
 ㄷ: 진리에서 벗어나면 미가 없다고
- ② ㄱ: 미의 본질을 통찰한 후에 비로소 외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네
 ㄴ: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면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ㄷ: 참된 예술가는 영혼을 통해 작업한다고
- ③ ㄱ: 내면의 아름다움을 통해 외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네
 ㄴ: 외면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한다고
 ㄷ: 진리와 미는 연관된다고
- ④ ㄱ: 진리를 통해 미를 발견한다네
 ㄴ: 참된 미는 외면에서도 발견된다고
 ㄷ: 영혼의 진리와 이에 근거한 아름다움만이 진실된 것이라고
- ⑤ ㄱ: 진리 안에서 미를 발견한다네
 ㄴ: 외면의 모습이 사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고
 ㄷ: 진리에서 벗어나면 미가 없다고

2. 다음 글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나치즘]는 ‘명령은 명령’이고 ‘법률은 법률’이라는 두 개의 원칙을 통해 한편으로는 군인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가들에게 족쇄를 채웠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라는 원칙은 결코 무제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명령이 범죄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때에는 복종의무가 소멸하였다. 이에 비해 ‘법률은 법률’이라는 원칙은 한계를 알지 못하였다. 이 원칙이 바로 수십 년에 걸쳐 아무런 이의 없이 독일의 법률가들을 지배하였던 실증주의적 법사상의 표현이다. 실증주의적 관점에서는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은 둘 다 똑같이 개념적 모순이었다.

실증주의는 사실상 ‘법률은 법률’이라는 확신을 매개로 삼아 독일 법률가계급을 자의적이고 범죄적인 내용의 법률에 대한 방어불능상태로 빠뜨렸다. 나아가 실증주의는 법률의 효력을 독자적으로 밀반침할 수 없다. 실증주의는 법률이 자신을 관철시킬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이미 법률의 효력을 증명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힘 위에서는 필연이 성립할지는 모르지만 당위와 효력은 어렵었다. 당위와 효력은 법률에 내재한 가치 위에서만 성립한다. 물론 모든 실정법은 내용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에 기여한다. 즉 법은 최소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이라도 법이 없는 상태보다 낫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은 법이 실현해야 하는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 밖에 다른 두 가지 가치인 목적성과 정의가 있다. 이러한 가치의 서열에서 우리는 공익을 뜻하는 법의 목적성을 맨 뒤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 유용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법이 아니며 오로지 법적인 것,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국민에 유용하다.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갈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정적인 법은 비록 그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우선성을 갖는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실정법의 모순이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법률이 ‘악법’으로서 정의 앞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법률적 불법과 내용상 정의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효력이 있는 법률 사이에 더 예리한 경계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경계를 획정할 수 있다.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경우, 정의의 핵심인 평등을 입법 시에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경우, 그 때에는 법률은 한갓 악법에 그치지 않고 아예 법적인 성격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실정적인 법도 정의에 봉사하는 질서와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보면 나치법은 전부 효력있는 법의 품격에 이르지 못하였다.

- ① 법이 실현해야 하는 가치들이 충돌할 때 그에 대한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② 정의롭지 못한 법도 법이기는 하지만, 그 법에 대하여는 준수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법의 효력과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르다는 것은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 ④ 법은 당국이 원하는 바를 힘으로 강제하는 것이므로 총을 든 강도가 돈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명령과 결국 같다.
- ⑤ 무엇이 법인지는 입법자의 제정행위처럼 누구나 똑같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에 따라서만 확인된다.

3. (가)~(다)를 읽고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우리는 세상의 특정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장 관심을 쏟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상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생생한 시각적 경험 때문에 독특한 심리적 맹시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대상이나 특이한 대상이 나타나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 (나) 기억은 우리의 인지내용을 모두 저장하는 대신, 보고 들었던 사실을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연관성을 만든다. 이런 연관 작업은 우리가 본 것에서 중요한 사실을 포착하고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억을 더 잘 저장하고 꺼낼 수 있도록 회상의 실마리(retrieval cues)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회상의 실마리는 유용하지만 기억의 정확성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 (다) 원인 착각은 우리가 마구잡이 배열 속에서 패턴을 인식할 때 생겨나며 패턴은 우리가 패턴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눈에 잘 들어온다. 인과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믿음 때문에 패턴을 그 믿음에 되도록 일치시켜 인식하기도 하고 인식한 패턴이 종종 새로운 믿음을 낳기도 한다.

<보 기>

- ㄱ. 민주당 후보 지명을 위해 버락 오바마에 맞서 출마한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이 국제문제에 더 폭넓은 경험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 강연에서 힐러리는 1996년 4월 보스니아 투즐라 시에 특별히 어려운 임무를 띠고 방문했던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 “저격수의 총격 속에서 공항에 착륙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공항에서 환영식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 우리는 기지로 가는 차를 타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달려야 했습니다.” 힐러리에게는 불행하게도 워싱턴포스트는 그 이야기를 조사한 뒤 총격을 피해서 달려가는 사진 대신에 환영사를 막 낭독한 후보스니아 아이에게 키스하는 당시 사진을 찾아 실었다.
- ㄴ. 의학박사 도널드 리텔마이어와 인지심리학자 아모스 트버스키는 15개월 간 18명의 관절염 환자에게 매달 두 번씩 통증 정도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관찰했다. 그리고 수집한 통증 데이터를 같은 시기 해당 지역의 기상 정보와 대조해 보았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환자가 날씨 변화에 따라 통증 강도가 달라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리텔마이어와 트버스키가 통증 기록과 당일, 전날, 전전날 날씨를 비교한 결과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 ㄷ. 오토바이가 나타나리라 기대하는 사람들만 오토바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실제로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2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자동차 운전자 중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 (가) | (나) | (다) |
|---|-----|-----|-----|
| ① | ㄱ | ㄴ | ㄷ |
| ② | ㄴ | ㄱ | ㄷ |
| ③ | ㄴ | ㄷ | ㄱ |
| ④ | ㄷ | ㄱ | ㄴ |
| ⑤ | ㄷ | ㄴ | ㄱ |

4. 다음 글의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세기 말 유럽연합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오랜 역사를 지닌 사회주의 정당들이 집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가 무너지자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정당들은 집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강을 오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토니 블레어에 의해 다시 태어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이나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이끄는 독일 시민당의 ‘새로운 중도’가 그들의 라이벌인 영국 보수당이나 독일 기민당의 정책보다 얼마나 왼쪽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냉전 시기 서유럽 최대의 공산당이었던 이탈리아 공산당은 냉전이 끝난 뒤 좌익민주당이라는 이름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나서야 정권에 참여할 수 있었고 프랑스 좌파 정부에 참여한 공산당도 권력의 변동기에서만 서성거리고 있을 뿐이다. 프랑스 공산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정부(1871년 파리 코뮌)를 세웠던 19세기 노동자 계급의 직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정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원칙을 버린 것은 오래 전이다. 탈냉전 시대에 좌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은 냉전 시기 자본주의 사회의 좌파가 현실 사회주의, 곧 공산주의 체제의 덕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좌우의 전선이 예전만큼 질서정연한 모습이 아니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을 떠받치는 주된 지지계층은 예상과 달리 하층 노동자들이다. 많은 사회에서 좌파와 극우파는 한 목소리로 세계화에 반대한다. 한국의 좌파는 IMF가 요구하는 세계화의 한 측면인 재벌개혁을 지지하지만 세계화의 또 다른 측면인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는 반대한다. 반면에 한국의 우파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는 찬성하지만 그것과 짝을 이루는 재벌개혁에는 반대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대하는 태도에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진행되는 세계화는 미국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세계화에 대한 태도는 당사자가 좌파든 우파든 국적의 영향을 받는다. 프랑스 노동자들과 국민전선의 관계에서 보듯이 국적이 계급의 이해관계나 대의를 넘어서는 일은 아주 흔하다. 또 노동문제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의견들이 생물 복제, 환경, 안락사, 마약, 교육, 총기 소지, 낙태, 민족차별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들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1990년대 초의 보스니아 내전이나 1990년대 말의 코소보 내전에서 어느 쪽이 선이었고 어느 쪽이 악이었으며 어떤 처방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문제에서 전통적인 좌우 개념은 효율적인 준거가 되지 못했다. 막연한 좌우의 구분 대신에 자유주의니 보수주의니 사회주의니 개인주의니 집단주의니 하는 범주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이다.

- ① 소련 공산주의의 붕괴는 냉전의 종말을 가져왔지만 공산주의의 이념은 각국의 좌파 정당에 계승되고 있다.
- ② 많은 유럽 국가들에 사회주의 정당이 건재하지만 실제로 그 정책에는 사회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요소가 많다.
- ③ 20세기 말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은 전통적 좌파의 힘을 크게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좌파와 우파의 경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 ④ 냉전 시기 공산주의 체제 덕분에 서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할 수 있었지만 그 정당들은 다양한 정치적 문제의 결정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다.
- ⑤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현실 세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한 원인은 냉전 시기 공산주의의 잔재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5.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외로움과 무질서의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서로 일종의 약정을 맺음으로써 사회가 생겨난다고 가정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에서 인간들이 서로 결속해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가운데 가장 친밀한 사회는 혼인에 의한 결합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발적인 계약에 근거한 사회이다. 사회계약은 (가)_____

전통적 보수주의는 사회를 건강한 인간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연관성 있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유기체로 본다. 유기체적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만의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그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나)_____ 이런 사회제도들과 그 제도들에서 인간의 역할은 오랜 세월을 걸쳐 발전되어 온 것이므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된다.

현대 자유주의는 사회적 다원주의를 강조한다. 정치사회는 인종적, 종족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적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_____ 서로 다른 집단들의 상호 경합하는 이해관계들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제도를 통해 평화롭게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현대 보수주의는 사회가 유기체적이라는 전통적 보수주의의 가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사회를 대단히 복잡적이고 상호 연결된 실체로 파악하며 사회 개혁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두려워한다. 사람들을 지역공동체에 연결해 주고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막아 주는 가족이나 교회 등의 매개 제도를 지지한다. 그러나 현대 보수주의는 전통적 보수주의가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역동적인 시장경제를 지지한다. 잘 조직화된 사회라면 역동적인 시장을 키워야한다고 보면서도 (라)_____

<보 기>

- ㉠.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공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결사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기존의 결사체들이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고 동화시켜 자신들의 가치관을 공유하게도 한다.
- ㉡. 사회구조와 역할을 지나치게 자주 바꾸는 사회개혁가들은 사회의 복잡한 상호 연관성을 간과하기 쉬우므로 자연적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
- ㉢. 정치, 문화, 가족생활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정된 사회 관계를 경제영역이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사람들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좀 더 확실하게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받으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함께 공동체를 결성할 목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행사하던 무제한의 자유를 상호 간에 자제하자고 약속한 조치를 말한다.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6. 다음 글의 입장과 대립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가) A라 불리는 정치철학은 모든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의 소유자라는 원칙,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타인이 지닌 생명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원칙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타인의 동등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나) 그 체제는 어떠한 소유권도 '분배되지' 않는 사회, 다시 말해 인신과 물건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이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침해되거나 간섭받지 않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의미에서의 '절대적 자유'를 고립된 로빈슨 크루소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사람들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복잡하고 발전한 사회의 사람들일지라도 말이다. 모든 사람들이 크루소처럼 절대적인 자유 - 순수한 자유 - 를 누린다면 그들의 (인신과 물건에 대한) '자연적인' 소유권은 타인의 침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 (다) 정치경제와 관련하여 이 마지막 것(재산권)은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일하고 생산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이성의 지도 하에 자기의 생명을 지탱해야 한다. 그가 자신의 생산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면 자기의 노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자기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요컨대 재산권이 없다면 어떤 다른 권리들도 누릴 수 없다.
- (라) 정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최소임금을 법률로 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독점을 금지시키며 관세를 정하고 직업을 보장하며 화폐의 공급을 관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모든 질문들에 대해 A를 옹호하는 자들은 모호한 부정으로 대답한다.

<보 기>

- ㉠. B는 이와 같은 이유로 가능한 한 모든 영역에서 정부의 간섭과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정부의 주요 목표는 시민들이 소비할 어떤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규제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국가는 시장경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숭고한 목적이 있다 해도 정부의 개입은 억압적이며 관료적 비효율성을 빚어내기 때문이다.
- ㉡. 어떤 이들은 결과주의적인 공리주의 관점에서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자연권 및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시장제도가 평화롭고 부유하며 민주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에서 민주주의는 주로 최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 ㉢. C에게는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하나의 원리로서 시장경제의 (도덕적) 결함과 한계를 제약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경제 하의 자유경쟁은 단순히 사람들의 선호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 가족적 배경, 끈공, 필요에 있어서의 숙명적인 차이도 반영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차이의 불평등한 결과를 제한해야만 한다. 복지권은 바로 이와 같은 논리에 입각하여 도출된다.
- ㉣. D는 시장질서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믿음과 자연법 및

로써 공간적으로는 지역 전통적 건축물에서 보이는 중정(中庭)과 건축물 주변을 에워싸며 형성된 회랑 간의 관계를 연상시키고 있다.

ㄹ. 건축물 D는 벼랑의 바위턱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는데, 돌벼랑과 비슷한 느낌의 돌벽들을 세워 은신처의 느낌을 주며, 거의 동굴과 같은 분위기를 창출한다.

ㅁ. 건축물 E에서 조립식 판으로 구성된 각 호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와 완전히 독립되어 설치되는데, 각 세대는 골조 사이의 절연체 위에 얹힌다. 기본 유형으로 구성된 세대는 부엌, 부모침실, 자녀방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공장에서 제작되고 현장에서 조립되는 것이다.

- | | | | | | |
|---|-----|-----|-----|-----|-----|
| | (가) | (나) | (다) | (라) | (마) |
| ① | ㄱ | ㄷ | ㄴ | ㄹ | ㅁ |
| ② | ㄱ | ㄷ | ㅁ | ㄹ | ㄴ |
| ③ | ㄴ | ㄹ | ㄱ | ㄷ | ㅁ |
| ④ | ㄷ | ㄱ | ㅁ | ㄹ | ㄴ |
| ⑤ | ㄹ | ㄱ | ㅁ | ㄷ | ㄴ |

9. (가)~(아) 중 논리 전개가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모든 민족주의자는 애국자이다. 어떤 애국자는 달변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민족주의자는 달변가이다.

(나) 어떤 선비는 명예를 가장 중요시한다.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은 모두 정직하다. 그러므로 선비들 중에는 정직한 사람도 있다.

(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미국의 동맹이다. 어떤 동방국가는 미국의 동맹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동방국가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라) 어떤 공산주의자도 영원히 살지 않는다. 유한한 생명을 지닌 모든 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완전한 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마) 모든 비회원은 소탈하지 않은 사람이다. 모든 소설가는 회원이다. 그러므로 모든 소탈하지 않은 사람은 소설가가 아니다.

(바) 부지런한 사람은 누구나 정치가가 될 수 있다. 부지런하지 않은 어떤 사람도 공무원 자격이 없다. 당신 친구 중에 아무도 정치가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신 친구 중에 아무도 공무원 자격이 없다.

(사) 모든 철학자가 실존주의자는 아니다. 모든 실용주의자들은 실존주의자이다. 어떤 철학자들은 존 듀이 이론의 지지자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 듀이 이론의 지지자는 실용주의자이다.

(아) 도박은 비교육적이다. 악기 연주는 어느 것도 학생들에게 금지되지 않는다. 비교육적인 것은 학생들에게 금지된다. 그러므로 도박은 악기 연주가 아니다.

- ① (가), (마), (사)
- ② (나), (마), (바)
- ③ (가), (다), (바), (사)
- ④ (나), (라), (사), (아)
- ⑤ (다), (라), (마), (아)

10.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됨으로써 복지는 임금이라는 화폐적 관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임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파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들어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생존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앞서 말한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할 때 노동자 자신은 물론이고 노동자가 부양하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원의 생존 또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인간 노동력의 상품화에서 기인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는 인간 노동력을 탈상품화시키는 정책을 제도화했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on)은 탈상품화를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진정한 탈상품화란 시민이 단순히 시장에 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는 수동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노동자 자신의 인적 자본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 여가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노동력의 탈상품화가 필요한 것이다. 탈상품화는 개인적·사회적 필요라는 구체적 목적을 위해 임금노동을 중단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내재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탈가족화 개념은 탈상품화 개념이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돌봄노동)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부터 출발한다. 리스터(Lister)는 탈가족화를 ‘개인의 결혼 여부, 가족관계, 무급 돌봄노동 수행 여부 등과 관계없이 유급노동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터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독립적인 시민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여성이 무급 돌봄노동을 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의존성이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탈상품화 개념이 남성의 시민권만이 아닌 여성의 시민권을 포괄하는 준거가 되기 위해서는 탈가족화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에스핑-앤더슨도 탈상품화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받아들여 복지국가 분석에서 무급노동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탈가족화를 제기한다. 에스핑-앤더슨은 탈가족화를 ‘가구의 복지와 돌봄 책임이 국가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장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 개념은 그가 사용한 탈가족화 지표를 통해 구체화 된다. 탈가족화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족수당과 세금공제를 통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동, 노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는 가구의 복지 책임을, 후자는 가구의 돌봄 책임을 완화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와 리스터의 탈가족화는 탈상품화가 무급노동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개념 간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리스터의 탈가족화는 ‘개인에 대한 적절한 생활보장’이다. 마치 임금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는 수준이라고 정의한 탈상품화 개념과 유사하다. 이는 리스터의 문제의식이 탈상품화가 여성을 분석대상에 포

팔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탈상품화가 남성이 유급노동으로부터 벗어나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로 개념화되었다면, 탈가족화는 여성이 가족관계, 결혼, 돌봄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도 적절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로 개념화된 것이다.

리스트의 탈가족화가 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권리로 개념화된 반면,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는 상품화를 위한 조건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탈상품화가 남성만이 아닌 여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상품화되지 않은 여성의 상품화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탈가족화라고 개념화했다. 에스핑-앤더슨의 탈가족화는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의존과 가족에 대한 책임의 완화'인 것이다.

- ①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일정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된 탈상품화 정책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② 재교육 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진정한 탈상품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③ 탈가족화를 돌봄 책임의 사회화로 정의하는 관점은 에스핑-앤더슨의 견해에서 볼 때, 가정 내 여성의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 ④ 한편에서는 탈가족화를 탈상품화에 대비해 가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이해하는 근거로 접근하는 데 반해, 다른 한편에서는 상품화의 전제로서 돌봄 책임의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 ⑤ 탈상품화 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진영의 비판 중 하나는 논의의 대상을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로 제한하여, 여성을 복지국가의 분석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다.

11. 다음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경제학과 인류학을 화해시키려는 노력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두 학문은 거의 완전히 상반되는 목적에서 탄생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예측을 위한 학문이다. 돈을 가진 자들은 자신처럼 돈을 가진 다른 이들의 향후 선택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경제학은 온갖 종류의 투자와 관련해서 탄생했고 또 그런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 자신이 설명하는 바로 그 세계에 참여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 달리 말해 경제학은 경제학에 익숙한 사람들,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또는 전적으로 경제학적 원칙에 의해 형성된 제도들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학문분과로서의 경제학은 자신의 연구대상의 본질을 동시에 정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경제학의 학문적 조건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당연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에 반해 인류학은 그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인류학은 분석자들의 세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이거나 이론적인 변수들이 거의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을 미개인에 대한 연구로 간주하던 시절에는 더욱더 그러했겠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류학자들은 세계에 대한 이해방식이나 관심, 욕망이 자기 자신들과는 매우 다른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당연히 인류학자들의 연구는 연구대

상의 관심이나 욕망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려는 의도 없이 이루어진다. 말리노프스키가 남태평양 트로브리안드 섬의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설명이 원주민들로 하여금 그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요컨대 경제학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이라면 인류학은 집단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학은 흔히 사람들은 언제나 무언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미개사회의 선물경제에 대한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사회의 중요 인물들은 재화를 소유하는 대신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화를 주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언제나 권력, 지위, 명예, 도덕적 순결성 등과 같은 일련의 '가치들'을 설정하고 이들을 근본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처분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태도이자 오직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 속에는 이미 사회적 관계를 사물로 환원시키는 모종의 태도가 함축되어 있다.

현실세계에서 소고기와 사회적 명예 간의 유일한 공통점은 누군가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뿐이다. 경제학 이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행동을 욕망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다시 자연스럽게 쾌락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소고기는 식욕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당신에게 기쁨을 준다. 하지만 타인들이 당신을 똥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역시 기쁨을 준다. 이성적인 행위자라면 매순간 각각의 기쁨을 비교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선택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가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만족의 예상치이다.

결국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은 '사회'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모든 사회관계를 사물로 환원하고 그 결과 개인과 사물로만 구성된 세계를 상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큰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왜 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에서 더 큰 만족을 느끼는지, 한 지역에서는 비만으로 간주되는 체형이 다른 지역에서는 매력적인 몸매로 간주되는지 등의 질문에 봉착하게 되면 경제학자들은 결국 사회 또는 문화와 같은 개념의 필요성을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 ① 글쓴이는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 ② 글쓴이는 경제학의 학문적 전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 ③ 글쓴이는 경제학과 인류학의 점점 모색이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④ 글쓴이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 ⑤ 글쓴이는 대부분의 경제학 이론이 현실세계를 개인과 사물로만 구성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한다.

12. 다음은 대화의 협력 원리와 대화 격률의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각각의 대화 격률의 위반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라이스(P. H. Grice)는 의사소통을 할 때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고 전제한다. 대화는 참여자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발화의 연속체가 아니라 언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협조하면서 주어진 규칙을 준수한다는 암묵적인 약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라이스는 협력 원리라고 한다. 협력 원리는 일반 원리와 네 가지의 대화 격률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원리 : 대화가 진행되는 각 단계에서 대화의 목적이나 방향에 의해 요구되는 만큼 대화에 이바지하게 하라.

대화 격률 :

가. 양의 격률

- ㉠ 대화의 목적에 현재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라.
- ㉡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나. 질의 격률 : 당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참인 것이 되도록 하라. 즉,

- ㉢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 ㉣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다. 관계의 격률 : 관련성이 있게 하라.

라. 태도의 격률 :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라. 즉,

- ㉤ 불명료한 표현을 피하라.
- ㉥ 중의성을 피하라.
- ㉦ 간결하게 하라.
- ㉧ 순서에 맞게 하라.

<보 기>

대화 격률의 위반 사례

㉠. A : 저녁 모임에 무엇을 입고 나갈까?

B : 너의 검정색 원피스는 정중해 보여서 좋고, 분홍색 투피스는 밝아서 좋아. 한복도 잘 차려 입으면 우아하고 청바지 차림은 젊고 발랄해 보이는데, 너는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릴 거야.

㉡. A : 영호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면서 성실하지도 않아. 그렇지?

B : 나는 내일 교수님을 뵈러 갈 거야. 너는 어때?

㉢. A :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B : 글썄요. 저런 상태로 사나흘 가다가 갑자기 깨어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역섯 달 가는 경우도 있고 식물인간처럼 오래 동안 누워 있는 사람도 있지요. 좀 더 지켜보시지요. 기적같이 깨어나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던가요?

㉣. A :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B :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지요.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13. (가)~(다)는 고려시대 문인들이 삼국시대에 대하여 저술한 글 중 일부이다. (가)~(다)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성상 폐하께서는 “오늘날 학사·대부들이 오경·제자의 글 및 진한 역대 사서(史書)에 대하여는 간혹 환하게 알아 상세히 말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개탄할 노릇이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더군다나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열어 솔밭처럼 맞서면서도 능히 예의로서 ㉠중국과 통하였기에, 『한서』와 『당서』에 모두 그 열전이 있기는 하나, ㉡국내는 상세히 하고 외국은 간략히 하는 바람에 그 일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습니디. 또 그 고기(古記)란 것도 문자는 거칠고 불합리하며 사적(事蹟)은 빠지고 없어져서, 임금의 선함과 악함, 신하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나라의 편안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드러내어 이로써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뛰어난 인재를 얻어 훌륭한 사서를 이룸으로써, 이를 만세토록 남기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말한다. 어리석은 남녀도 흔히들 말한다. 내 일찍이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며, “우리 스승 공자께서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하였다. 나중에 『위서』와 『통전』을 보매, 역시 그 일이 자세하지 못하니, ㉢국내는 자세히 하고 외국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지난번에 『구(舊)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보니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鬼)나 환(幻)으로만 생각했는데, 세 번 되풀이 읽어 점점 근원에 들어가니, 환이 아니고 성(聖)이며 귀가 아니고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國史)는 사실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랴. 김부식 공이 국사를 다시 편찬하면서 그 일을 자못 생략하였으니,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므로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당현종본기」와 「양귀비전」에 방사(放士)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 백낙천이 그 일이 인멸될까 두려워 노래로 기록하였다.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 데도 읊어서 후세에 보였다. 하물며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니,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이에 시로써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다) 신라 고사(古事)에 이르기를 “하늘이 금궤를 내렸으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다.”고 했는데 그 말이 괴이하여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역사서를 편찬함에 그 전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또 들으니 “신라인은 스스로 소호금천씨(小昊金天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씨라 하였고, 고구려 역시 고신씨(高辛氏)의 후예이므로 성을 고씨라 했다.”고 한다. 또 고사에 이르기를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같이 나왔다.”고 하였으며 또 “진·한 난리 때에 중국인이 해동(海東)으로 많이 도망하여 왔다.”고 하였으니 삼국의 선조가 어찌 옛 성인의 후예가 아니겠는가? 어찌 국가를 향유함이 이렇게 장구하였는가! 백제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행하는 일이 도에 어긋남이 많았으며, 또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고 고구려와는 계속 화호하여 침략하고, 이익을 따르고 편의를 좇아 신라의 중요한 성과 큰 진을 빼앗아가기를 마지않았으니, 이른바 “어진 이웃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국가의 보배”라는 말과

다르다. 이에 당나라의 천자가 두 번이나 조서를 내려서 그 원한을 풀도록 하였으나 겉으로는 따르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명령을 어기어 ㉔대국에 죄를 지었으니 그 망하는 것이 또한 당연하다.

- ① (가)~(다)의 저자 모두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려는 관점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 ② (나)와 (다)는 자국(自國)의 과거에 자부심을 드러내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 ③ (나)의 저자와 (다)의 저자는 결국 비현실적인 전승을 사서에 기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④ (가)~(다)의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의 ㉓와 ㉔, (나)의 ㉔, (다)의 ㉔는 지리적으로 동일한 대상이다.
- ⑤ (나)를 보면, 당시 일반 백성에게 동명왕의 신이한 사적이 널리 구전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기존 사서(史書)보다 자세하지 않았다.

1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는 두 개의 상이한 기능을 꿈의 형성과정에서 목격할 수 있는데 꿈의 사고의 생산과 이것을 꿈의 내용으로 변형하는 과정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의 바로 밑에 1925년에 덧붙인 각주에서 “꿈의 근본은 사고의 특별한 형태에 다름 아니다. (...) 그 형태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꿈의 작업’이다.”라고 말해 앞의 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두 진술에서 부각되는 단어는 꿈의 사고와 꿈의 작업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꿈의 사고는 본능의 관념적 표상체와 관련된다. 꿈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잠재적 꿈의 사고, 관념적 표상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상징적 이미지로 변형되어 명시적 꿈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점이다. 이 재현 과정이 꿈의 작업이고, 이 과정이야말로 꿈꾸기의 본질이라고 프로이트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프로이트가 이처럼 꿈의 작업을 통해 무의식의 상징적 재현성을 강조한 대목을 라캉이 바로 이 꿈의 작업 속에서 언어적 무의식을 읽어내고 있는 대목과 병치시켜 놓아보자. 라캉은 우선 “증상, 꿈, 언어의 실착, 조크에는 동질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말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프로이트의 관점을 그대로 따른다. 이어서 꿈의 작품의 대표적 메커니즘인 압축과 치환이란 점을 고려하면서 압축과 치환이라는 동일한 구조적 법칙이 이 네 현상에 작동한다고 본다. 그것이 무의식의 법칙이다. 그는 이 법칙이 언어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법칙과 동일하다고 말해 압축과 치환이라는 꿈의 작업 과정이 다름 아닌 언어 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에크리』의 「무의식에서 글자의 기능」에서는 “꿈의 작업에서 것처럼 특권적 역할을 하는 이 두 메커니즘과 담론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의 상동적 기능을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수사적 질문을 던졌다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잘라 말한다. 이어서 “꿈의 작업은 시니피앙의 법칙을 따른다.”는 직설적 표현도 잊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프로이트의 압축과 치환의 개념이 구조주의 언어학자 야콥슨이 언어의 두 축이라고 설명한 은유와 환유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 ① 꿈의 사고와 작업
- ② 은유와 환유의 구조
- ③ 꿈의 작업과 무의식
- ④ 압축과 치환의 메커니즘
- ⑤ 무의식과 언어 구조의 상동성

15. 다음 글의 ‘지위경쟁이론’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난 20세기 후반의 세계적 현상 중의 하나는 학교교육의 급속한 대중화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교는 폭발적으로 팽창하였다. 학교교육 규모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학력 상승을 가져왔다. 학생 수가 끝없이 증가하여 교육이 팽창하고 그에 따라 학력이 계속하여 상승하자 그 원인의 설명이 학문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왜 교육이 팽창하고 학력은 계속하여 높아지는가?’에 대한 설명 중 하나로 ‘지위경쟁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여 학력이 계속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남보다 한 단계라도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지위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 즉, 상급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확대되지만 그래도 경쟁은 끝나지 않으므로 학교의 확대는 상급 교육기관으로 파급된다.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획득을 위한 합법적 사다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근대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전통적 사회구조를 지탱해 주던 신분제도가 무너지자 우선 필요해진 것이 사회적 선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이제까지는 신분제도 자체가 개인의 자질을 선별하는 기능을 맡고 있었으므로 선별장치는 큰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신분제도가 무너지자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을 가려줄 새로운 선별장치가 필요해졌다. 현대사회도 지위구조와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선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위경쟁의 문호가 개방되었으므로 선별의 필요는 오히려 더 커졌다.

우리나라 역시 좋은 가문의 족보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던 이전의 사회에서 취업, 승진, 결혼, 사고 등 거의 모든 사회생활영역이 학력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로 변화하였다. 몇 가지 자료를 통해 학력은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주며, 직업 지위, 명예 그리고 권력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학력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학교교육의 사회적 가치가 높은 학력사회에서는 남보다 더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회적 지위경쟁에서 유리하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상급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인다. 그래서 학력취득을 위한 경쟁이 심해진다. 지위획득 수단으로 학력이 작용하고 진학률의 상승을 유발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학력의 가치가 떨어져 새로운 상위학력이 등장하는 요인이 되며, 보다 높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경쟁은 한없이 계속된다.

- ① 학력 경쟁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학력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학교 팽창의 원인을 교육 외적인 측면에서 찾지 않고 교육 내적인 측면에서만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 ③ 양적 확대 정책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④ 학교의 팽창이 교육수요자 간의 경쟁에 의하여 주도되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육공급자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 ⑤ 학교의 팽창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되어 사회구성원 간의 자연스러운 학력경쟁으로 발현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16. 다음 글을 읽고 착한 사람들을 모두 고르면?(단, 5명은 착한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이며, 중간적인 성향은 없다.)

주현 : 나는 착한 사람이다.
 영숙 : 주현이가 착한 사람이면, 창엽이도 착한 사람이다.
 혜정 : 창엽이가 나쁜 사람이면, 주현이도 나쁜 사람이다.
 창엽 : 명진이가 착한 사람이면, 주현이도 착한 사람이다.
 명진 : 주현이는 나쁜 사람이다.

A : 위 사람들 중 3명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는 착한 사람이고, 2명은 항상 거짓말만 하는 나쁜 사람이야. 위의 얘기만 봐도 누가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B : 위 얘기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 아냐? 아 잠시만. 알았다. 위 얘기만 봤을 때, 모순되지 않으면서 착한 사람이 3명일 수 있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구나.
 A : 그걸 바로 알아차리다니 대단한데?

- ① 영숙, 혜정, 명진
- ② 영숙, 혜정, 창엽
- ③ 주현, 영숙, 혜정
- ④ 영숙, 창엽, 명진
- ⑤ 주현, 창엽, 명진

17.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존 로크의 『정부론』은 왕이 신탁에 의해서 지배한다는,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인식에 대한 반론으로 쓰여진 것이다. 정치적 환경이 전혀 달랐던 영국 시민전쟁 이전에 쓰여졌지만, 1680년에 발간되었던 로버트 필머의 『가부장제 : 자연적 왕권』이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다. 필머의 군주는 홉스의 군주보다 훨씬 더 두려운 존재였다. 적어도 홉스의 군주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만 필머의 주장에 따르면 왕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면책이 된다.

17세기의 역사는 필머의 편이었다.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나라와 국가들이 왕정을 채택했고 몇몇 왕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독재국가 시대가 문명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은 왕정이 비도덕적인 지배자에 의해서 폭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의 대안은 몇 사람의 현인들에 의한 귀족정치였다. 플라톤은 국민 중에 사악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국민에 의한 지배인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비난했다.

민주주의를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원전 7세기와 6세기의 그리스에서 폭정이 이어진 후 기원전 507년에 아테네에는 민주정부가 출현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민주적 지배는 매력적으로 보였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투키디데스와 같은 인물을 배출했다.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졌고 고대 예술가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명성을 가진 아펠레스의 작품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테네는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고 기원전 411년에 무너져버렸다.

그러나 최선의 정부 시스템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선 정

부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플라톤 시대에는 리더십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어떻게 하면 나쁜 지도자보다 좋은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의문이었다.

홉스에게 그런 문제는 2차적인 것이었다. 괴물이 아니기만 하면 어떤 지도자도 없는 것보다는 나왔다. 지도자가 없으면 이웃과의 전쟁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로크는 인간의 선한 면에 더 집착했다. 그도 역시 국가나 정부가 존재하기 전의 자연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더 높은 사람도 없고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성에 따라 함께 사는 온화한 에텐이었다. 여기에서 이성은 ‘살인하지 말라’처럼 자명한 진리를 존중하는 일종의 성스러운 원칙을 따른다는 뜻이다. 이성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활, 건강, 자유 또는 재산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따라서 로크의 자연상태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홉스의 그것과는 크게 달랐다. 인간 행동을 야만적이라고 보는 홉스의 견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로크만이 아니었다. 그의 후원자였던 새프리베리 백작 3세 에슐리 쿠퍼도 홉스가 친절, 우정, 사교성, 함께 대화하기, 자연에 대한 애정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로크의 신뢰는 인간에게 미치는 신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상태에서 신에 의해 유도된다는 그의 생각은 이해가 된다. 무신론자였던 홉스는 그런 장밋빛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

결국 로크는 낙관적인 견해 덕분에 덜 억압적인 지배시스템을 주장할 수 있었고, 국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 계약은 지도자들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수 있었다. 로크는 정부가 무도한 독재정부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고집했다. 그는 리더십을 서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의회, 왕, 법원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의회, 대통령, 대법원이 그에 해당한다.

인간본성에 대해 너그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로크도 범죄자와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로크의 대안은 자연상태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을 허용하는 무자비한 것으로 잘 알려진 ‘자연법’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텐도 반드시 평온한 곳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면 그런 제약은 더 이상 개인의 손에 맡겨지지 않는다. 자연법은 입법부에 의해서 공포되고 시행되는 실정법으로 바뀐다. 사실 법, 질서, 정의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특히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사람들이 공화국으로 뭉쳐서 정부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적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활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로크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가장 진보적인 정치철학의 시금석이다. 임마누엘 칸트도 역시 가정적인 국가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 국가의 지배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칸트의 정치적인 신념은 프로이센의 빌헬름 폰 훔볼트의 『국가 행위의 한계를 정의하기 위한 방법들』로 이어졌다. 존 스튜어트 밀도 『자유론』에서 문명화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권력이 정당하게 집행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은 개인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그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믿었다. 그런 진

보적 철학의 뿌리에는 밑에 의해서 정의된 공리주의와 온화한 사회적 수확이 자리 잡고 있다. 최소한으로 간섭하는 국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치철학자들도 있다. 루소는 문명은 퇴화된 것이고 오로지 원시적인 야만성만이 고귀하고 선한 것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한 낭만적 무정부주의를 주장했다. 루소는 1754년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이고, 그런 인간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법뿐이라고 주장했다.

- ① 플라톤은 좋은 리더십을 전제로 국민에 의한 지배를 찬성했다.
- ② 로크의 『정부론』을 반박한 것이 왕권신수설에 기초한 필머의 『가부장제』이다.
- ③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왕정체제에 대한 정당성이 확립되었다.
- ④ 로크에 따르면 국민과 정부 사이의 사회 계약이 효과를 내기 위한 조건에는 지도자에 관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로크는 인간의 선한 면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여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았고, 독재정부를 막기 위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주장했다.

18. (가)~(자)는 각기 다른 두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다. (가)~(자)를 각 상황별로 구분한 뒤, 진행 단계별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가) 이 단계에서 생존자들은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려 한다. 사람들은 고인을 보았다고 보고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맬 수도 있다. 그들은 흔히 좌절과 분노와 죄책감을 느낀다. 게다가 그들은 강한 슬픔을 경험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거나 흐느낄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식욕감퇴와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 있다.
- (나) 부정을 한 후에 환자는 흔히 짜증을 내고 지나친 요구를 하며 까다로워지고 적대적이 된다. “왜 나야?”라는 질문을 하고 해결하는 것이 환자가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다)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임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중지된다. 하지만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력감과 절망감 및 우울을 가져온다. 생존자들은 흔히 극심한 피로를 경험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면을 필요로 한다.
- (라) 우울은 수용 과정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신호다. 그는 이 단계를 예비적 비탄 - 죽음의 압박을 예상한 슬픔 - 이라고 언급했다.
- (마)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 우울이 사라지고 규칙적인 수면습관이 회복되며 활력이 증가한다.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면 슬퍼지지만 이러한 감정이 더 이상 압도적이진 않다.
- (바) 이 단계에서는 환자가 더 많은 시간을 원하고 죽음의 연기를 부탁한다. 의사나 더 빈번하게는 신과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사) 부정, 충격, 의심은 생을 마감할 정도로 질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끝까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는 거의 없다.
- (아) 초기 단계에서 생존자들은 전형적으로 멍해지고 어리둥절해진다. 그들은 가슴이나 목구멍이 메스껍거나 답답해지는 신체적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수 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죽음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 주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자) 수용을 한 사람은 마무리되지 않은 일을 처리한다. 환자는 어쩔 수 없는 운명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죽을 준비를 한다. 환자는 가까운 가족,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있길 원할 것이다. 죽어가는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한다. 환자들은 이 시기에 자신을 돌봐주며 수용해 주는 온정적인 누군가가 있길 바라지만 언어적인 의사소통은 전혀 필요 없을 수 있다.

- ① (나, 사, 라, 바, 자) / (아, 가, 다, 마)
- ② (나, 사, 라, 자, 바) / (아, 다, 가, 마)
- ③ (사, 나, 바, 라, 자) / (아, 가, 다, 마)
- ④ (아, 가, 다, 라, 마) / (사, 나, 자, 바)
- ⑤ (아, 가, 다, 마, 라) / (사, 나, 바, 자)

19. (가)~(바)의 논증 중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추론된 것들을 모두 고르면?

- (가) 사치가 심한 여성이 내 친구인 김 군을 사랑한다면, 김 군은 사랑을 거부할 것이다. 그런데 김 군이 고시학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치가 심한 이 양이 김 군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였다. 내 친구 김 군은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 (나) 살인 사건을 저지른 남자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박 씨가 알고 있다. 최 씨가 이 범죄를 저지른 남자이다. 그러므로 최 씨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박 씨는 안다.
- (다) 김 군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배웠고, 이 양은 체코어와 러시아어를 배웠으며, 박 군은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를 배웠고, 정 양은 독일어와 이탈리아어를 배웠다. 만약에 프랑스어가 독일어보다 쉽고, 러시아어가 체코어보다 어렵고, 독일어는 체코어보다 쉽고, 이탈리아어가 프랑스어보다 쉽다면 위의 언어들 중에서 가장 쉬운 언어 두 가지를 배운 사람은 박 군이다.
- (라) 어떤 이는 경제적 빈곤이 범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적 빈곤과 범죄 발생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경제적 빈곤상태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 (마) 전공이 서로 다른 세 사람인 김 군, 이 군, 박 군은 법학, 경영학, 그리고 철학 중 하나를 전공하여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있다. 법학을 전공한 응시자는 박 군과 동일한 대학 출신이다. 이 군은 철학을 전공한 응시자의 옆집에서 살고 있다. 경영학을 전공한 응시자보다 최종 학력이 높은 김 군은 이 군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로 40분 걸린다. 그러므로 이 군은 법학을 전공한 응시자이다.
- (바) 아무도 철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철수는 무척 외로울 것이다. 그렇지만 철수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철수는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① (가), (다)
- ② (마), (바)
- ③ (가), (나), (라)
- ④ (가), (다), (마)
- ⑤ (나), (라), (바)

20.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것은?

경제인류학이 좀 더 응용적 성격을 띠게 되고, 많은 경제인류학자들이 개발 기관에 취업함에 따라 경제인류학은 1970~1980년대에 개발 문제에 더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많은 학자들이 개발도상국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 특히 농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냉전의 긴장 또한 이러한 연구에 자극을 주어 경제 철학의 문제들이 중심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소비에트의 지배와 세계 공산주의에 맞서기 위한 케네디 시대의 철학 중 하나는 빈곤국들에서의 공평한 발전을 장려하여 그들이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대신 서구와의 동맹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평화봉사단’, ‘평화를 위한 식량’ 그리고 녹색 혁명의 활동 초기에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고, 일부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적 지식이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트남 전쟁은 이 같은 생각이 인류학자들의 환상임을 일깨워주었다. 인류학자들은 인류학적 지식이 오용되면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도 있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정부 정책이 때로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경제인류학자들 다수가 개발 이론의 가정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러가지 계획과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또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 직접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종종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개발 정책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음이 밝혀졌다. 예컨대 녹색 혁명은 식량 증산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대개의 경우 가난한 농부들을 땅에서 몰아내어 도시 빈민가에 우글거리게 만들었다.

경제인류학자들은 현장 경험에 입각한 연구 성과를 통해 빈곤의 문제가 가난한 사람들 측의 ‘비논리적’, ‘비합리적’ 나아가 문화적 편견에 의한 행위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 자원을 가지고서도 종종 깜짝 놀랄 정도로 창조적인 일들을 해내며 또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다. 경제인류학은 열대 우림의 파괴, 마약 거래, 도시의 불결함, 대량 이주, 암시장과 지하 경제의 성장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는 정부기관들, 세금 체계, 불공정한 정책, 부패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20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세계은행과 기타 주요 국제기관들이 각국 경제를 개방시켜 경쟁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는 국가 소유의 공공사업 및 공기업들을 매각하고, 공무원들을 대량 감원하며, 빈곤층 대상의 여러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식량 보조금제도를 폐지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동시에 각국은 금융 시장을 개방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여러 토착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관세를 낮춰야만 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틀어 이른바 ‘구조 조정’이라고 했는데 이를 진두지휘한 철학이 ‘신자유주의’이다. 이 모든 조치들이 빈국들의 전통적 수출품들인 면·커피·당콩 등의 가격 하락과 에이즈의 창궐과 맞물리자 생활수준의 급속한 저하, 가난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사망의 증가, 폭력과 사회적 소요의 만연 등이 나타났다. 경제인류학자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최근의 ‘개발’ 정책들의 실패 사례들을 연구하고 증언해왔으며 이 모든 실패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구조 조정을 권고하는 경제학자들의 논리에 도전해왔다.

- ① 경제인류학자들은 각 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 ② 경제인류학은 개발도상국의 개발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혔다.
- ③ 최근의 경제인류학은 신자유주의적 개발 프로그램에 소극적이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④ 개발에 관한 경제인류학의 관심은 정부 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 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에 맞추어져 있다.
- ⑤ 개발도상국의 개발 문제에 대한 경제인류학자들의 연구 성과 중 하나는 빈민들이 가난한 이유가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빈민들 자신들의 행위에도 기인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21. (가)~(라)를 읽고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가) 인간은 자연에 의해 거의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주를 벗어나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동물에게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루소의 멋진 표현에 의할 때, 인간은 “자연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의지가 여전히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결론은, 인간이 동물과 달리 문화적 역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흰개미나 꿀벌, 개미 등은 수천 년 전이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는 이중의 역사성-교육이라는 이름의 개인의 역사와 정치라는 종의 역사-의 작용으로 진보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변화한다. 이것이 루소와 후대의 칸트가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능력에 인간의 고유성이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나) 인간 본성의 일반 형질들은 다른 모든 형질이라는 거대한 배경 앞에 놓고 보면 유한하며 특이해 보인다. 그러나 더 많은 증거들은 수많은 상투적인 형태의 인간 행동들이 일반 진화론에서 예측한 대로 포유동물의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영장류의 특징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사회생활과 정신적 특성을 볼 때, 이전에는 비교 자체가 부적당하다고 여겼던 영역들에서도 침팬지는 인간과 거의 같은 등급에 놓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간과 가깝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유전적 토대 위에 있다는 가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행동이 근연 관계에 있는 종들과 공유하고 있는 일부 유전자와 인간 종 고유의 유전자로 조직된다는 가설과 일치한다.

(다) 누군가 금발에 푸른 눈을 하고 있는데 그의 부모 역시 그런 특징이 있다면, 이런 경우 떠오르는 그럴싸한 가정은 바로 유전형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이치가 적용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특징들도 당연히 많을 줄 안다. 하지만 (복합적인) 시스템 속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면 사태는 본질적으로 더 복잡해진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고도로 복잡한 시스템 속성이다. 그것은 해당 문화 및 특정한 전통, 즉 전승된 규범, 가치관, 관습 등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련을 맺고 있다. 게다가 인간을 특출하게 하는 것은 유전학 및 자연 선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술 활동 같은 것들이다.

(라) 유전자는 사용한다고 개선되지 않는다. 유전자는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실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고 전달된다. 성공이 훌륭한 유전자를 만들지 않는다. 훌륭한 유전자가 성공을 만드는 것이다. 개체는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유전자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개체는 자라서 성공적인 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훌륭한 유전자는 그렇지 못한 것에 비해 미래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 ① (가), (다) ② (가), (라)
- ③ (다), (라) ④ (가), (나), (다)
- ⑤ (나), (다), (라)

22.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스티븐 호킹에 의하면 가톨릭교회는 예전에 과학 문제에 대한 원칙을 세우려는 과정에서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선언함으로써 갈릴레이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우주론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전문가들을 초빙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참석자들은 교황을 알현할 기회를 얻었다. 교황은 우리들에게 빅뱅 이후의 우주의 진화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빅뱅 그 자체에 대해 물음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빅뱅이 창조의 순간이고 따라서 신의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 교황이 방금 전에 내가 회의에서 했던 강연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때 내 강연의 요지는 시공이 유한하지만 경계가 없다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 말은 시공이 출발점, 즉 어떠한 창조의 순간도 가지지 않음을 뜻한다. 나는 갈릴레이와 같은 신세가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사실 나는 갈릴레이에 대해서 강한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부분적인 이유는 우연의 일치로 그가 죽은 지 정확하게 3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 학문 이념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수학적 자연과학에 의해 뒷받침되어진 수학화한 세계로서의 자연에 관한 갈릴레이의 사상에서 유래하였다. 일상적으로 세계는 학문 이전에 감각적 경험의 형태로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우리들은 각자 자신의 걸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걸모습이 각자에게 실제적인 존재자로 간주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수많은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동일하지만 각자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사물들로 이루어진 세계를 믿고 경험하게 된다. 갈릴레이에 의해 이러한 경험적 세계는 수학적 토대로 이루어진 이념의 세계로 대체된다. 이후 물리학자들에게 계승된 이런 사상은 역사적으로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합리적 인식, 즉 우리 우주에 관한 보편적 인식이라는 학문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근세 철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철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편적 합리성이라는 이념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이 이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나타난 수학과 자연과학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인식의 보편성과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이념은 그 이념의 고향인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런 경향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잘 드러난다. 흔히 우리는 수학화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계에 객관적이고 과학적 진리라는 이념의 옷을 입히곤 한다. 수학과 수학적 자연과학이라는 이념의 옷은 과학자들이나 지식인들에게 객관적으로 현실적이며 참된 자연으로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생활세계를 대표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게 된다. 물리학, 또는 물리학적 자연을 완성한 발견자인 갈릴레이는 발견의 천재인 동시에 은폐의 천재이다. 그는 수학적 자연이라는 방법적 이념을 발견하고 물리학적 발견이 무한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세계에 대한 인과법칙이나 자연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법칙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에게 이런 이론들의 근원적 의미가 은폐된 채 남아 있다.

(다) 1633년 6월 22일 수요일 아침 늦고 병든 갈릴레이가 교황 우르반 8세의 명에 따라 교황청 법정 앞에 꿇어 엎드리고 다음과 같이 굴욕적인 맹세를 하였다. “피렌체 출신 빈첸초 갈릴레이의 아들, 나 갈릴레오는 일흔 살의 나이로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전 기독교 세계에서 이단의 망언에 반대하는 종교재판관들이신 여러 추기경 예하 앞에 무릎을 꿇는 바입니다. 성서를 앞에 놓고 성서에 손을 대고 맹세하거니와 나는 성스러운 가톨릭교회와 교황께서 참되다고 여기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언제나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으며, 하느님의 도움으로 앞으로도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나는 교황청으로부터 잘못된 견해, 즉 태양이 세계의 중심이며 움직이지 않고, 지구는 세계의 중심이 아니며 움직인다는 견해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잘못된 학설을 주장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옹호해서도 안 되고, 말로나 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 학설은 성서에 위배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이단 선고를 받은 이 학설을 위해서, 그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면서도 매우 능숙하게 이 학설에 유리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 책을 써서 출판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매우 강력하게 이단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나는 이제 여러 추기경 예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신앙심 깊은 기독교도들 앞에서 내가 받게 될 무거운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명료한 정신을 가지고 일체의 거짓 없이 저 오류와 이단적인 생각들을 맹세로써 철회하고 저주하는 바이며, 나아가서 성스런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일체의 온건한 오류, 이단적 생각이나 종파에 대해서도 저주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이단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말로나 글로써 발표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보 기>

- ㄱ. 과학적 사실과 종교적 신앙은 근본적 차이가 있고 과학자의 신념과 무관하게 자연의 과학화와 수학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 ㄴ. 17세기까지만 해도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는 천동설에 반하는 생각은 오류이며 이단으로 취급되면서 이를 주장할 경우 종교재판에 회부되곤 하였다.
- ㄷ. 근대과학이 지향하는 학문의 이념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편성과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이 이념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경험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전제해야 된다.
- ㄹ. 현대 가톨릭교회도 자연과학의 발전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데 빅뱅이론이나 진화론을 우주의 기원이나 생성이론에 접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ㅁ. 과학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객관적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세계가 갖는 의미를 드러낸다.
- ㅂ. 우주생성과 관련하여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한다는 무경계 우주론은 우주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 ① ㄷ, ㅁ ② ㄴ, ㅂ
- ③ ㄱ, ㅁ, ㅂ ④ ㄷ, ㄹ, ㅁ
- ⑤ ㄹ, ㅁ, ㅂ

23. 다음 글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전이 반드시 간악한 것이 아니다. 간악하도록 만든 것은 법이다. 간악한 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루 다 세기 어렵다. 무릇 직책은 작는데 재주가 넘치면 간악해지고, 지위는 낮은데 지식이 높으면 간악해진다. 노력은 적은데 효과가 빠르면 간악해지고, 자기는 홀로 그 자리에 오래 있는데 감독하는 사람이 자주 갈리면 간악해진다. 자기를 감독하는 자가 반드시 정직한 자가 못되면 간악해지고, 자기의 무리가 아래에 많이 있는데 윗사람이 외롭고 혼미하면 간악해진다. 자기가 꺼리는 사람이 똑같이 법을 범하여 서로 버티고 고발하지 못하면 간악해지고, 형벌이 문란하여 염치가 서지 못하면 간악해진다. 간악하여 실패하기도 하고 간악하여도 실패하지 않기도 하며, 간악하지 않았는데도 간악하다 하여 실패하면 간악해진다. 간악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 이와 같다.

지금 아전을 제어하는 방법이 하나라도 간악을 일으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없고 간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으니, 아전이 어찌 간악해지지 않겠는가. 나라에서 공경과 대부와 사(士)라는 벼슬을 만들어 놓고 공경과 대부와 사의 녹봉을 정해서 공경과 대부와 사라는 사람을 대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이다. 그 직책이 이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무릇 재능을 시험하고 기예를 뽑으며 실적을 고찰하고 계급을 승진하는 것은 하나같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부(試賦)로써 시험하고 씨족으로써 선발하며 과거의 경력이 청화직(淸華職)이었던가를 고찰하고 당론에 과격한 자였던가를 보아서 등용할 뿐이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 하여 아전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는 가끔 한 번씩 와서 엄한 위엄을 가지고 모진 형벌을 가하면서 “간악한 아전을 마땅히 징계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는 손님이 와서 주인을 곤욕하는 것이다. 아전은 또 하늘을 우러러 갓끈이 끊어지도록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백성이 어찌 나와 함께 하겠는가”라고 하니, 어찌 간악한 아전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옛날 조광한은 하간의 군리이었고 윤용귀는 하동의 옥리였으며 장창은 졸사였고 왕존은 서좌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조정에 등용되어 천자의 대신이 되었으며 그 공적이 크게 빛났다. 그들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이 두려워하여 복종하고 고을이 크게 잘 다스려졌다. 이처럼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저들이 익혔던 것으로써 조치했기 때문에 진실로 순탄히 됐던 것이다. 흉년에 도둑떼가 일어나서 삼보 지방에 계엄이 내렸는데, 부를 잘 짓는 사마상여를 보내어 중지하도록 하면 중지되겠는가. 큰 옥사가 일어나서 연좌된 자가 감옥에 가득 하여 해를 넘기면서도 판결하지 못하는데, 송(頌)을 잘 짓는 왕자연을 보내어 판결하도록 하면 판결되겠는가.

그러므로 아전이 간악한 것을 못하도록 하려면 조정에서 사람을 뽑을 적에 오로지 시부를 잘 짓는 사람만을 쓰지 말고 아전 일을 익힌 자가 높은 벼슬길에 오르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고을이 쇠잔한데 대단히 교활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 있으면 이들로 하여금 가서 다스리게 한 다음, 진실로 훌륭한 성적이 있으면 공경을 제수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전의 간악한 것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대대로 직책을 맡아서 뿌리가 깊고 마디가 얽힌 자이니, 이들을 제어하는 데에는 비록 능력 있는 자라도 근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방법이 있다. 무릇 아전의 직책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담당하여 권한이 있는 자리는 한 고을에 10개를 넘지 않는다. 파견의 차송을 맡은 자, 곡식 장부를 맡은 자, 전결(田結)을 관장하는 자, 군정을 담당하는 자

들인데, 이들은 비록 큰 고을이라도 10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10명을 매양 수백 리 밖에서 뽑아와 지금 영리를 뽑아 오는 법과 같이 하고 그 임무를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오래두어도 2년을 넘지 못하고 나머지는 모두 1년으로 만기를 삼는다면 아전은 간악한 짓을 부릴 수가 없게 된다.

무릇 간악함은 오래 있는 데에서 일어나게 마련인데 이미 오래 있지 못하도록 하면 간악이 커지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모두 여러 고을로 떠돌게 되고 옮겨가는 곳도 일정하지 않으면, 창고에 간악한 짓이 있을 경우 은폐되겠으며 군오(軍伍)의 일에 간악한 짓이 있을 경우 숨길 수 있겠는가. 은폐할 수 없고 숨길 수 없으면 간악한 짓이 깨지게 마련이다. 간악함을 깨는 방법을 이처럼 쉽게 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기만 하고 바로잡지 못하니 낸들 또 어찌하겠는가. 그러므로 “아전이 반드시 간악한 것이 아니라 간악하도록 만든 것은 법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 ① 중요한 직책의 아전은 정해진 기간에 한해 근무시켜야 한다.
- ② 요직의 아전을 선발할 때는 타 지역 출신으로 제한해야 한다.
- ③ 상관을 대하는 태도에 이중적인 면을 지닌 아전은 징계해야 한다.
- ④ 아전들의 작폐가 심한 고을은 아전 일에 능숙한 사람을 관리로 보내야 한다.
- ⑤ 공경대부로 승진하는 데 치민의 실적을 중요 고과 항목으로 삼아야 한다.

24.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지금까지 논의된 전통에 대한 태도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부정적 태도가 다른 하나요, 긍정적 태도가 다른 하나이다. 그러나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 부정이나 긍정은 모두 다 논거가 지극히 피상적일 뿐 아니라, 대개의 경우 전통이란 용어의 일면만 추출 확대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나치거나 공소(空疎)한 부정 또는 긍정은 전통의 진의 파악에는 다 함께 장애가 된다.

(나) 애초에 전통을 부정하는 논자(論者)는 전통이란 말 자체를 못쓰거나 버려야 할 것의 대명사로 삼고 있다. 낙후된 전통사회를 하루 바빠 탈각하고 운운하는 사람들은 전통이란 개념을 한갓 완만(緩慢)한 답보(踏步)와 인습(因襲)의 질곡(桎梏)에 사로잡힌 것으로 오인(誤認)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통을 탐구하느니 어찌느니 하는 것을 잠꼬대 아니면 기겁초풍할 궤변이요, 년센스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을 부정대상으로 지칭하는 것은 그들이 전통을 인습이란 개념과 혼동하여 인습이란 말의 동의어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통은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그 역사적 경과에 있어 자연히 인습과는 피와 살의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쉽사리 떼어 놓기는 힘들다. 그러나 전통은 인습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인습은 역사의 대사기능(代謝機能)에 있어 부패한 것으로 버려질 운명에 있고 또 버려야 할 것이지만 전통은 새로운 생명의 원천으로서 좋은 뜻으로 살려서 이어야 할 풍습이다.

(다) 전통을 긍정하는 또 다른 태도는 순수 한국적인 것의 모색이다. 한국문화란 한국의 성격이요, 그 내용은 인류 공동의 세계문화다. 한국문화는 세계문화 안의 한국적 양식의 발견과 형성 속에 있는 것이지 한국 특유의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문화의 주체가 희미해지는 때에 그러한 순수 한국적인 것을 찾는 것이 의미 있다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의 한국문화에 하등의 의의도 없는, 아무 새로움도 없는 것을 굉장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새로운 문화적 원형으로 제시하는 맹목적 전통공정론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

(라) 전통은 역사적 개념이다. 비록 표면상으로는 전통이 단절된 듯이 보여도 역사는 단절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 시대의 전범(典範)으로서의 전통이 무너지고 새로운 전범으로서의 전통이 들어서지 못한 모색의 시기만 보고 전통을 부정한다면 그러한 논리는 새로운 전통의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로운 전통이 종래의 전통과 이질적이어서 전통이 단절된 듯이 보여도 우리 아닌 남의 눈에는 그 이질문화 속에 우리 전통의 작용이 보일 것이다. 이것이 전통으로 하여금 집단적 개념이 되게 하는 소이연(所以然)이다.

(마) 전통을 부정하는 또 다른 논거는 우리에게 의지할 전통이란 것이 없다는 견해다. 조선시대까지는 전통이란 것이 있었지만 우리의 신문화운동은 그 전통을 부정하는데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현대의 우리는 단절된 전통, 곧 전통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현실을 직시한 논리같지만 전통의 본질을 오인했을 뿐 아니라 이론으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

(바) 전통을 긍정하는 논자(論者)들은 전통이란 말에서 복고의 향수와 나태의 이상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 언필칭(言必稱) 4천년 문화민족이니, 활자와 거북선 등이 세계 최초임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론은 외적의 지배 아래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말살되고 문화적 궁지가 교육에서 아주 사라질 시기, 한 마디만 들어도 눈물겹게 감격하던 그런 시절의 공소(空疎)한 내용에서 한 걸음도 진전된 것이 없다.

(사) 무엇보다도 전통은 문화적 개념이다. 문화는 복합생성 그 본질로 한다. 질적으로 유사한 것끼리는 짧은 기간에 무리 없이 융합되지만, 이질적인 것일수록 그 혼용(混融)의 역사적 기간이 길고 길항(拮抗)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전통의 교체가 더디다 해서 전통을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늘날 이미 하나의 문화적 전통이 된 서구의 전통도, 희랍·로마 이래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의 이질적 전통이 융합된 것임은 이미 다 아는 상식이 아닌가. 지금은 끊어졌다는 우리 고대 이래의 전통도 알고 보면 샤머니즘에, 선교(仙敎)에, 불교에, 도교에, 유교에, 실학파를 통해 받아들인 천주교적 전통까지 혼합된 것이고, 그것들 사이의 상당히 이질적인 것이 교착(交錯)하여 곁고튼 끝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들을 '우리'화시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다.

- ① (가)-(나)-(다)-(마)-(라)-(바)-(사)
- ② (가)-(나)-(마)-(라)-(사)-(바)-(다)
- ③ (가)-(라)-(사)-(나)-(마)-(바)-(다)
- ④ (가)-(마)-(나)-(라)-(다)-(바)-(사)
- ⑤ (가)-(마)-(라)-(사)-(바)-(다)-(나)

25. (가)~(라)의 각 기준에 대한 예시로 바르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문언해석

문언해석은 사전적 의미나 일상 언어적 의미에 따라서 법률언어를 구체화하는 해석방법이다. 문언해석은 '법률 해석은 기본적으로 그 문언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가장

충실한 해석방법이다. 문언해석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법해석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나) 체계적 해석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고 있는 법규범이 놓여 있는 법체계상의 위치와 맥락에 비추어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이다. 형법상 책임개념과 민법상 책임개념은 각각의 법률언어가 속해 있는 법의 체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것이다. 즉, 체계적 해석은 어느 법규정의 의미만을 고립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규정 내지 전체 법질서와의 체계적 연관 하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다) 역사적 해석

역사적 해석은 해석되어야 할 법률언어를 담고 있는 법규범을 입법자가 제정하였을 당시의 실제 의사와 목적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해석방법은 법을 제정하던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관적 해석론'이라고도 한다.

(라)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은 법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목적에 따라서 법문언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즉,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법규의 목적을 우선 확정하고 그에 따라 법문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에서 말하는 목적은 역사적인 입법자가 가졌던 구체적인 의도(실제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목적을 말한다.

<보 기>

ㄱ.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는 체계적 해석에 입각하고 있다.

ㄴ. '주먹'은 '물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권투선수가 자신의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충실한 해석이다.

ㄷ. 국가의 법질서는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가치질서에 의하여 지배되는 통일체이며, 그러한 통일체 내에서 상위규범은 하위규범의 효력근거가 되는 동시에 해석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법률 해석 시 헌법합치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목적론적 해석에 입각한 것이다.

ㄹ.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서 입법자가 의도한 법규정의 목적은 교통의 안전과 교통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안전의 도모이지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ㅁ. 「형법」 제347조(사기)의 객관적 목적이 개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와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아 옷을 정상판매가에 팔면서도 판매대에 그보다 높은 가격을 표시한 후 세일가격으로 원래 정상판매가를 적어 놓고 옷을 판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체계적 해석에 입각한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ㄷ, ㅁ

탄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물론 시민정의 판대에 그것만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외부적 요인도 있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 ① (가) - (나) - (다) - (마) - (라)
- ② (가) - (라) - (나) - (다) - (마)
- ③ (나) - (마) - (다) - (라) - (가)
- ④ (다) - (마) - (나) - (가) - (라)
- ⑤ (다) - (마) - (나) - (라) - (가)

28. (가)~(바)를 유사한 주장끼리 묶은 것은?

- (가)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외부의 강력한 위협으로부터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욕망에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다. 우리 스스로는 타인과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더라도 타인 역시 그러한 다짐을 하리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상호 불신과 선제공격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존하기 어렵게 된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켜 줄 공동의 권위, 즉 주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 (나) 개인 간의 갈등은 국가권력에 의해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갈등은 대규모 전쟁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자연 상태에서 생기는 개인 간의 갈등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낳고 있다. 사적으로는 아무런 나쁜 감정도 없는 두 개인이 자신이 속한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개인의 자연적인 권리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우리가 문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 (라) 우리의 권력을 주권자에게 양도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체가 아닌 주권자의 노예로 전락한다. 주권자가 우리를 탄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 권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권자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의 모든 권력을 주권자에게 양도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주권자가 강제하는 행위를 마치 우리도 원하는 것처럼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
- (마) 모든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국가를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오늘날 우리 누구도 그러한 합의를 경험한 바 없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국가에 속한 개인에 불과하다. 이미 성립되어 있는 국가를 사후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우리의 의지에 따라 승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승인한 것은 아니다.
- (바) 우리는 개인의 힘만으로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개인들이 합의하여 만들어 낸 절대적 주권, 즉 국가에 우리의 권리를 양도한다. 그 결과 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게 된다. 개인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국가에 복종한다.

- ① (가)(나) / (다)(라)(마)(바)
- ② (가)(라) / (나)(다)(마)(바)
- ③ (가)(나)(다) / (라)(마)(바)
- ④ (가)(다)(바) / (나)(라)(마)
- ⑤ (가)(라)(마)(바) / (나)(다)

29.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가치(규범을 포함한다)들을 비교하여 어느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덜 중요한 다른 가치들을 물리치고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는 실천적 판단을 이익형량 또는 가치형량이라고 한다. 이익형량은 일반적인 실천적 추론에서는 물론이고 법적 추론에서도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나) 현대의 법체계에는 두 종류의 법규범이 있다. 하나는 확정적 법규범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리규범이다. 확정적 법규범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확정적으로 지시하는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구성요건과 법률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확정적 법규범의 적용은 구성요건과 법률효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사실관계가 그 의미에 포섭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적 삼단논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편 법원리규범은 최적화규범(optimization norms)으로서 특정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가능성 하에서 최대한으로 실현될 것이 요청되는 규범이다.
- (다) 법원리의 실현 범위는 사실적 가능성 조건들뿐만 아니라 법적 가능성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법원리의 실현 범위를 결정하는 법적 가능성 조건이란 실정법규뿐만 아니라 그 법원리와 충돌하는 다른 법원리들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법원리들은 서로 형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익형량은 법원리들에 특징적인 법 적용의 형식이다.
- (라) 모든 법적 삼단논법에는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이익형량이 포함되어 있다. 확정적 법규범의 구체적인 적용가능성은 확정적 법규범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확정적 법규범이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원리가 그것을 배척하는 법원리보다 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보 기>

- ㄱ. 법적 삼단논법에 의한 확정적 법규범의 적용은 이익형량에 의한 법원리의 선택을 위한 논리적 선결과제가 된다.
- ㄴ. 법규범은 가언명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익형량이 필요한 반면에 도덕규범은 정언명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익형량이 필요하지 않다.
- ㄷ. 상이한 법원리들에 대한 이익형량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확정적 법규범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ㄹ. 확정적 법규범은 구체적인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인데 반해 법원리규범은 자신이 결정한 확정적 법규범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0. 다음 글을 읽고 난 사람들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적응주의는 유기체가 지니는 모든 또는 대부분의 형질이 자연에 대한 최적의 적응결과라고 보는 순수한 다윈주의적 견해이다. 도킨즈(R. Dawkins)와 디닛(D. Dennet)이 그 대표적 옹호자들이다. 르윈틴(R. Lewontin)과 굴드(S. J. Gould) 같은 대표적 반적응주의자들은 적응주의가 생물의 진화에서 적응과 자연선택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비판한다. 적응(Adaptation)은 다윈이 발견한 선택의 메커니즘이다. 그에 따르면 특정 형질의 진화는 그 형질이 지니는 적응적 특성이 긴 시간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연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종의 기원』이 소개된 때부터 적응이라는 개념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자연에 있는 대다수 유기체의 대부분 특성들이 자연에 가장 적합하게 적응된 것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 다윈의 적응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시간이다.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의 형질로 고정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동일한 조건에서 충분히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 완전한 적응의 산물이 나타나겠지만, 매우 급격한 생태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영향력이 기존의 자연선택력을 초과할 수 있고, 그 결과 선택노선이 예측 불가능하게 붕괴될 수 있다. 굴드의 단속 평형론은 그런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이론이다.

(다) 적응주의자들은 자연계에 효과적인 적응의 산물로 보기 힘든 형질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으며,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적응과 자연선택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진화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원리들과 복수적으로 작용하는가’이다. 지금으로서는 이 물음에 확정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반적응주의자들은 적응주의자들이 그렇고 그런 식의 임기응변을 통해 빠져 나간다고 비판하고, 적응주의자들은 반적응주의자들이 적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어느 한쪽의 승리를 입증할 결정적 실험은 아직 없다.

- ① 나라 : 굴드는 돌연변이, 이주 등과 같은 임의적인 요소나 유전 시스템의 특성, 각 표현형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발생제약들도 형질의 진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여.
- ② 준하 : 사람의 눈은 혈관이 망막의 표면 위에 있어 충격이나 노화에 의해 망막으로부터 박리되어 시력을 상실할 위험이 커. 이런 사례는 적응주의를 반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거야.
- ③ 인숙 : 적응주의는 진화가 주로 단일 메커니즘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는데 반해, 반적응주의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중요성을 지닌 복수의 메커니즘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고 있어.
- ④ 도형 : (다)의 밑줄 친 문장으로 미루어 볼 때, 적응주의자들은 비적응적으로 보이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보조가설을 통해 적응주의의 수정본을 제시해 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어.
- ⑤ 동원 : 6500만년 전에 직경 약 1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여 공룡을 비롯해 당시 생물종의 약 70%가 멸종하고, 그 후 공룡들이 사라진 무주공산에 설치류가 급격히 번성하게 된 사건은 (나)에서 밑줄 친 문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

31. 다음 (가), (나)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가) 민족주의의 또 다른 속성인 우월성은 역사, 주로 ‘민족사’를 통해 강조된다. ‘국사’는 민족사의 다른 이름이다. 민족사-국사는 민족의 우월성을 천명하는 초월적 역사다. 그것은 조선사와 고려사, 삼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역사를 구성해 내는 거룩한 서사(敍事)를 말한다. 국사는 민족의 우월성에 관한 이야기다. 따라서 국사는 아득한 민족의 기원부터 설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장대한’ 역사다. 민족의 기원은 언제나 신성해야 하기 때문에 단군이 통치하던 신화시대로부터 시작한다. 민족주의 역사학이 구성하는 역사는 단일한 코드, 즉 민족에 의해 구성된다. 시간 위에 전개된 인간의 삶의 자취는 무한하고, 그것을 읽어내는 코드 역시 무수하지만, 민족주의 역사학은 모든 코드를 민족으로 환원한다. 따라서 국사의 주어는 언제나 ‘민족’으로 단일화된다. 예를 들어 금속활자는 기술사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인쇄·출판의 역사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지식사에서 읽어낼 수 있으며, 사대부의 형성과 관련하여 읽어낼 수도 있다. 또 그 활자가 갖고 있는 기술적 결함도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민족주의 역사학은 그것을 ‘민족의 우수한 문화적 업적’이란 단일한 해석으로 이해한다. ‘활자’와 근접해 있는 다른 코드들의 어떤 해석도 배제된다. 역사에 작동하는 민족주의는 이미 결론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나) 민족은 인종학적 특징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믿을 수 있지만, 그 역시 동일하다고 믿어지는 내부에서 수많은 차이와 차별을 지우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다. 현재의 국민국가에서의 유전적 혈통이란 실재하는 구성원의 생물학적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원수의 관계인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는 어떤 인종적 차이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단지 문화적으로 구분될 뿐이다. 더욱이 유태인은 디아스포라 이후 2천 년에 걸쳐 혼혈이 거듭되었기에 순수한 유전적 유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혈통, 혹은 유전적으로 순수한 한민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 한반도 남부의 가야인들의 일본인과의 혼혈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인과 일본인 역시 혼혈이 있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국민에는 고구려인만이 아니라 말갈인도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1만 명의 거란인이 살았다. 몽고 지배기에 몽고족과의 혼혈이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고려의 왕이 몽고의 공주와 결혼하고, 고려인이 원의 수도를 방문하고, 몽고인이 고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혼혈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발해가 한국사 속으로 편입되자, 젊은이들은 발해의 광대한 영토에만 주목할 뿐 발해 인구의 반수가 말갈인이라는 사실은 간과한다. 외관상 아시아 계통의 황색 피부를 가졌다면, 그 민족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없다. 조부가 중국인인 ‘한국인’은 다른 ‘한국인’과 외관상 전혀 구분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구분되지 않는다. 그는 그저 한국인일 뿐이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흑인 혼혈인은 외견상 구분되지만, 한국어를 쓰고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인 생활습관을 따른다. 그는 한국인이다. 개인의 생물학적 존재는 텅 빈 시니피앙일 뿐이다. 그 텅 빈 공간에 국가-사회는 ‘민족’이란 시니피앙을 채워 넣었다. 개인은 후천적으로 국가에 의해 한국인으로 제작된 것이다.

- 주 1) 시니피앙 : 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으로써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外的)형식을 이르는 말. 말이 소리와 그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로 성립된다고 할 때, 소리를 이룬다.
- 2) 시니피에 : 소쉬르의 기호 이론에서,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이르는 말

34. 인간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다루는 지문 (가)와 (나)에 부합하는 비유적 진술로 가장 바른 것은?

(가) 그러므로 굵은 나무는 반드시 댈나무를 대고 썬서 바로 잡은 뒤에라야 곧아지며,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간 뒤에라야 날카로워지듯이, 지금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은 반드시 스승의 법도와 가르침이 있는 뒤에라야 다스려지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에게 스승과 법도가 없다면 편벽되고 음험하여 바르지 않을 것이며, 예의가 없다면 이치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것을 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다. 옛날 성왕께서는 사람들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편벽되고 음험하며 바르지 않으며, 이치에 어긋나는 어지러운 것을 해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 예의를 만들고 법도를 제정해 사람들의 감정과 본성을 바로잡고 수식함으로써 이를 올바르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감정과 본성을 길들이고 교화함으로써 이를 올바로 인도하였다. 이에 비로소 모두 잘 다스려지고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스승과 법도에 교화되고 학문을 쌓으며 예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본성과 감정을 멋대로 버려두고 멋대로 행동하는 데 안주하고 예의를 어기는 자를 소인이라 한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나) 사람들이 이해하자마자 의심할 수 없는 일반적인 명제를 몇 가지 발견하고 나면 이것을 타고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쉽고 안이한 방법인 줄은 나도 잘 알고 있다. 일단 이것이 인정되면, 게으른 자를 탐색의 노력으로부터 편안하게 만들고, 생득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모든 것에 의심을 품는 자의 탐구를 멈추게 하고 마는 것이었다. 또 원리에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리의 원리로 삼는 것은, 대가나 교사인 체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이익이었다. 왜냐하면 타고난 원리가 있다고 하는 교리가 일단 확립되고 나면, 이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가르침을 타고난 원리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이지와 판단력을 쓰지 않게 하고, 가르침을 더욱 검토하지 않게 하며, 하라는 대로 믿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의 자세로는, 자신에게 원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에 능숙하고, 이를 본분으로 삼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한층 손쉽게 지배되고 이용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원리의 교사자로서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교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유리한 것을 타고난 원리로 납득시키는 일은, 그러한 사람에게 타인에 대한 권력을 적지 않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원리의 신봉자들이 많은 보편적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의 길을 검토했다면 알았을 테지만, 보편적 진리는 사물 자체의 존재 양식을 적정하게 고찰할 때 그 양식의 결과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것으로 사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쓰일 때에는 사물을 받아들여 관정하도록 자연히 장치된 여러 기능을 써서 발견된 것이다.

- ① (가) : 지금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려 하면 그것을 본 사람은 누구나 놀라며 측은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 ② (가) : 인간의 본성은 화가가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백지와 같습니다.
- ③ (가) : 인간의 본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나 인생의 모습은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④ (나) : 인간의 본성은 고인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 ⑤ (나) : 인간은 짐승과 비슷하게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으며, 피로하면 쉬고자 하고, 이익을 좋아하며 손해를 싫어합니다.

35. 다음 글의 실옹의 주장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허자(虛子)가 물었다. “공자가 『춘추』를 지어 중국을 안으로 삼고 중국 주변의 오랑캐를 밖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오랑캐의 구별이 엄격한데 지금 선생께서는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고 하늘이 내린 필연적 시대의 형세인 것처럼 말하니 혹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실옹(實翁)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내고 땅이 기르니 모든 혈기를 가진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고, 무리 속에서 뛰어난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은 모두 같은 임금이고, 문을 겹겹이 세우고 성 주위에 못을 파 국경을 엄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같소. 상나라와 주나라의 갯이나 몸과 이마에 새기는 오랑캐들의 문신이나 모두 같은 풍속이요. 그러므로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을 친근하게 여기고 자기 임금을 높이고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들 풍속을 편안해 하는바 이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똑같소.

세상이 변하면서 사람과 만물이 많아지고 사람과 만물이 많아지면서 물아(物我)의 구분이 생겼고, 물아의 구분이 생기면서 안과 밖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고, 오장육부와 팔다리는 한 몸에서의 안과 밖이고 내 몸과 처자식은 한 집안에서의 안과 밖이고 형제와 일가친척은 한 가문에서의 안과 밖이고, 마을과 국경은 한 나라에서의 안과 밖이고, 중국과 오랑캐는 세상에서의 안과 밖이요. 제 것이 아닌데 갖는 것을 ‘도(盜)’라 하고, 죄가 없는데 죽이는 것을 ‘적(賊)’이라 하오. 오랑캐가 중국을 침략하는 것을 ‘구(寇)’라 하고, 중국이 무력을 써서 오랑캐를 치는 것을 ‘적(賊)’이라 하오. ‘구’든 ‘적’이든 모두 똑같은 것이요.

공자는 주나라 사람이고, 주나라 왕실이 날로 기울어지고 제후들이 쇠약해지자 남쪽의 오(吳)나라와 초(楚)나라가 중국을 어지럽히며 끊임없이 도적질했소. 『춘추』란 주나라 역사책이므로 안과 밖을 그런 식으로 엄격히 구분한 건 당연하지 않겠소? 그렇지만 만일 공자가 바다에 배를 띄워 동쪽 오랑캐의 땅으로 들어와 살았다면, 중국의 문화로 오랑캐를 변화시키고 주나라의 도(道)를 중국 밖에서 일으켰을 게요. 그랬다면 분명 중국이 아니라 중국 밖의 동이(東夷)를 ‘안’으로 삼아 『춘추』를 썼을 것이요. ‘역외춘추(域外春秋)’ 말이요. 공자가 성인인 것은 이 때문이요.”

<보 기>

- ㄱ.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 ㄴ. 공자가 성인이 되는 까닭은 천하 형세에 따라 『춘추』를 저술했기 때문이다.
- ㄷ. 주변 국가가 소중화(小中華)라 하는 것이 역외춘추에 해당한다.
- ㄹ. 중국과 주변 국가를 평등한 개체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수면실험실은 꿈 보고의 최선의 원천이다. 그 이유는 수면 실험실을 통해 통제된 조건 하에서 사람들의 꿈에 대한 대표적 표본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수면 중 비REM수면 II단계 또는 REM수면 단계에서 깨우는 방법을 통하여 하룻밤에 최대 4~5개의 꿈을 수집할 수 있고, 회상의 가능성도 최대화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실험실 연구는 도구를 구입하고 연구 진행 요원과 참가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특히 미국에서는 꿈 연구에 관한 외부 연구비 수주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수면실험실은 1970년 이후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수면실험실 외부에서 효율적으로 꿈 보고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상황은 집단 환경이다.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꿈 보고는 연령과 성별과 같은 기본 인적사항만 제시된 익명의 참가자들에게 표준화된 형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Hartmann, Elkin, Grag에 의해 시도된 가장 최근의 꿈 수집방법은 교실과 대기실에서 다양한 지역과 국적 출신의 사람들에게 꿈을 수집했으며, 10대와 취학 전 아동에겐 20~30분, 성인에겐 15~20분 동안 꿈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법의 가장 큰 결점은 꿈을 수집하기 위해 활용하는 시간 동안 꿈 보고를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격 및 인지적 측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아동 연구에서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조사자가 정한 연령에 따른 꿈 보고가 진실한지 여부이다. 동일한 연령의 아동들이 실험실에서 보고한 꿈에서 창조물, 비디오 게임 등장인물, 신체적 공격의 빈도를 비교한 결과, 최소 10세 이하의 어린 아동들은 꿈의 특성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에 적합한 보고를 하기 위해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문제는 특히 남자아이에게서 심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으로 꿈을 수집하는 방법은 6학년 이하 아동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실험실 외부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집방법은 대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 참가자들에게 1주 혹은 2주의 기간 동안 혹은 규정된 개수의 꿈을 작성할 때까지 꿈 저널을 지속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꿈을 수집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8세부터 13세까지의 유능한 소녀들, 성실한 대학생 봉사자, 그리고 시각장애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용한 꿈 보고를 수집했으며 현재 대부분은 DreamBank.net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많은 오차가 따르고 종종 대단히 불충분한 표본이 된다. Bursik의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보인 바와 같이 겨우 네 가지 꿈을 얻기 위해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중 남학생 40명과 여학생 40명에게 네 가지 꿈을 얻는 데 네 달이 소요되었다. 또한 참여자 소수집단의 대부분이 꿈 보고를 중단하거나 겨우 한두 가지 꿈을 보고했으며, 이는 꿈 보고를 한 대상에 대한 대표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예를 들면 Buckley와 Howard 모두는 10대 봉사자와 특히 소년들에게 완성된 꿈 저널을 얻는 것은 어려웠다고 보고하였다.

- ① 꿈 저널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을 통한 수집결과의 대부분은 웹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② 수면실험실에서 꿈에 대한 표본을 수집하는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용빈도가 낮다.
- ③ 꿈 저널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의 경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④ 수면실험실을 이용하지 않고 꿈에 대한 표본을 수집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꿈 저널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 ⑤ 집단 구성원의 꿈 보고를 통한 수집방법의 경우 수면실험실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서 시간이 짧게 걸리나 꿈 저널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오래 걸린다.

37. (가)~(다)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형인 여진의 금나라 황제가 동생인 고려국왕에게 국서를 보낸다. 우리 여진은 조상 때에 만주 한 쪽에 끼여 있으면서 거란을 대국이라 부르고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삼아 조심스럽게 섬겨 왔다. 그런데 거란이 무도하게 우리 여진의 영역을 침략하고 인민을 노예로 삼아 자주 명분 없는 무력을 가해왔다. 이에 우리 여진은 항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하늘의 도움을 입어 거란을 섬멸하게 되었다. 동생 고려국왕은 우리 여진과 화친하고 형제가 되어 영원무궁한 화친을 이루라.

(나) 금나라 사람들이 거란을 격파하고 새로 사신을 우리나라에 보내 형제의 나라가 되어 대대로 화친하자고 하였지만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건대, 중국의 한나라에서는 흉노에 대하여 신하라 칭하고, 당나라에서는 돌궐에 공주를 시집보내기까지 하여 화친을 위한 일은 무엇이든지 다했습니다. 지금 송나라도 거란에 대하여 형제가 되어 대대로 화친하고 있습니다. 송나라 천자는 지존이기에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데도 먼 오랑캐 나라에 굽혀서 섬기는 것은 바로 성인이 임시방편으로 국가를 보전하는 훌륭한 계획입니다. 옛날 성종 때에 국경 지대의 일을 처리하다가 잘못하여 거란의 침략을 받았으니 참으로 거울삼아 경계할 만한 일입니다. 신이 바라는 바는 거룩한 조정에서 장구한 계획과 원대한 대책으로 국가를 보전할 것을 생각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바야흐로 금나라가 강성해지자 고려로 하여금 칭신(稱臣)할 것을 요구하니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분분했다. 그때 윤언이가 홀로 간쟁하여 이르기를, “임금은 걱정하고 신하는 치욕스럽다면 신하가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여진족은 본래 우리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속(臣屬)하여 대대로 조공을 바쳤으며, 국경 근처에 사는 여진족은 모두 우리의 초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도리어 그들의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신이 왕의 명령을 함부로 하여 금나라에 칭신(稱臣)하고 이어 표문(表文)을 바쳤는데, 이는 왕의 본심에서 우리나라가 아니었다.

— < 보 기 > —

ㄱ. (가)와 (나)는 모두 국제질서의 근거를 현재의 세력관계에서 찾고 있다.

ㄴ. (가)와 (다)는 모두 국제질서의 근거를 현재의 세력관계에서 찾고 있다.

ㄷ. (나)와 (다)는 모두 국제질서의 근거를 현재의 세력관계에서 찾고 있다.

ㄹ. (가)와 (나)는 (나)와 (다)의 경우처럼 상호 간에 생각이 달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ㅁ. (가)와 (다)는 (나)와 (다)의 경우처럼 상호 간에 생각이 달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38. 다음 보고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울펜덴 위원회 보고서」 (The Wolfenden Report)

1957년 9월 영국에서 울펜덴경을 의장으로 하는 동성애 및 매춘 위원회(The Committee on Homosexual Offences and Prostitution)는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것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어떤 행위가 공익과 관련된 사안인가 아닌가(따라서 국가의 규제사항인가)의 여부는 그 행위가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그런 우려가 없으면, 문제의 행위가 도덕적이냐 반도덕적이냐에 상관없이 그 행위는 사적인 것이다. 동성애의 경우에 살인이나 절도, 강도 폭행 등과는 달리 그 행위만으로는 동성애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성애는 사적인 행위이며, 그 행위가 반도덕적이냐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적으로 행한 동성애 행위를 더 이상 범죄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부도덕성 그 자체에 관여하는 것이 법의 의무는 아니다. 결국 법의 대상이 아닌 사적인 도덕과 부도덕의 영역은 존재해야 한다.”

<보 기>

- ㉠. 도덕의 법적 강제는 그 도덕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한 사회가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보존(self-preservation)의 근거에서 도출되는 필연적인 것이다.
- ㉡. 사회는 이상, 신념, 관념의 공동체이다. 정치, 도덕, 윤리에 대한 공유된 사상이 없이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 각자는 무엇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며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동떨어져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일군의 남녀들이 선과 악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점이 없는 사회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가치들에 대한 공통된 합의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그 공통합의가 허물어져가면 그 사회는 해체되어 갈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란 물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공통된 사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유대물이 너무 느슨해지면 사회구성원들 역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공통도덕은 이러한 연결끈의 한 부분이다. 이 끈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격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를 필요로 한다면 마땅히 그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
- ㉢. 사회의 유지에 사회구성원들이 하나의 지배도덕을 공유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서로 다른 도덕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궁정과 다른 도덕을 가진 사람에 대한 관용으로부터 생겨난다.
- ㉣. 각각의 사회는 성도덕과 관련해서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진다. 어떤 사회는 동성애를 중대한 반도덕적 행위로, 어떤 사회는 가벼운 잘못으로, 어떤 사회는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사회든지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사회적 사실’이다. 따라서 영국사회의 지배도덕(건전한 영국 시민들의 도덕 또는 영국 시민들을 묶어주는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이 동성애를 비난한다면 법으로 동성애를 금지해야만 영국 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9. 다음은 다른 주제를 다루는 세 개의 글을 흠어놓은 것이다. 이들을 주제가 같은 글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가) 스키복 제조업체인 스포츠 오버마이어는 구매위원회 위원들 중 목소리 큰 사람들이 겨울옷 시장 동향에 대한 합의 예측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 이런 예측은 실제 결과와 매우 어긋나곤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경영진은 새로운 의사결정 방식을 택했다. 구매위원들이 집단으로 모여 토의하는 대신 혼자 심사숙고하여 개인 예측치를 산정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개인 예측치의 평균값은 합의 과정을 통해 얻은 단일 예측치보다 더 정확했다.
- (나) 우리는 직관이 성공했던 경우를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분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직관의 유용성을 과대평가한다. 과잉확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관성의 환상과 실제 현실 세계에서의 비일관성은 좋은 결정에 해가 되며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서도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위험물이다.
- (다) 소수의 관점들은 다양한 사고를 자극하며 때로는 새로운 이해와 창조적 해결책을 이끌어낸다. 소수 의견이 최종 의사결정을 바꾸지 못할 경우에도 그것은 집단으로 하여금 여러 다른 대안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보다 타당한 안을 선택하게 하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정·보완되어 보다 폭넓은 기준에 적합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
- (라) 집단 구성원들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과 ‘집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바람’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피한다. 아무도 다수의 지배적인 입장에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첫 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이 개진되는 것을 들어 보지 못했기에 의심 가진 자는 자신이 유일한 회의론자라고 생각한다.
- (마) 128명의 대학생들에게 50명의 MBA 졸업생들의 평균졸업성적을 직관적으로 예상해 보라고 했다. 대학생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의 진짜 성적을 알고 있었다. 50명의 졸업생들은 이름 없이 무작위로 제시되었고 이들 각각에 대해 입학성적, 학부졸업성적과 같은 기본적 정보만 주어졌다. 3주 후 동일 과제를 반복해서 시키며 가능한 한 3주 전과 일관되게 해보라고 하였으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 (바)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귀찮은 자로 낙인 찍히고 충성심을 의심받는다.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자’, ‘이 일에 모두 함께 매진하자’ 등의 강력한 구호들은 소수 관점을 지닌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게 한다.
- (사) 일본 기업들은 독특한 의사결정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규칙에 의거해 집단 구성원들 중 서열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하급자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게 한다.
- (아) 지금까지의 성공 기록과 집단 구성원들의 뛰어난 자질이 구성원들을 ‘행운의 여신은 우리 편’ 이라거나 ‘우리 사전에 패배란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 (자) 9명의 방사선과 전문의들에게 위궤양이 의심되는 96개의 사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악성 가능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들에게 순서는 다르지만 동일한 자료들을 다시 평가해 보도록 했다. 두 진단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소견이 바뀐 경우가 23%나 되었다.

- ① (가, 나, 라)/(다, 마, 아)/(바, 사, 자)
- ② (가, 다, 라)/(나, 마, 자)/(바, 사, 아)
- ③ (가, 다, 사)/(나, 라, 마)/(바, 아, 자)
- ④ (가, 다, 사)/(나, 마, 자)/(라, 바, 아)
- ⑤ (가, 사, 아)/(나, 다, 마)/(라, 바, 자)

40.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일본을 그린 인쇄본 지도로 가장 오래된 것은 1471년 신숙주(申叔舟)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 실린 지도로서 조선에서 만든 것이다. 신숙주는 초기에 세종이 추진한 여러 연구사업에 참여했고 1443년 일본 사행(使行) 때는 서장관(書狀官)으로 참여했다. 이때의 사행에서 신숙주는 왜구가 조선 해안에서 노략질하는 것을 중식시켰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 전까지 지속된 외교관계의 기초를 만들었다. 나중에는 오랫동안 예조판서를 지내면서 십여 년 이상 조선의 외교 업무를 지휘했다. 그는 평생 일본 문제에 관심을 쏟았으며 조·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도 성종에게 일본과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할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해동제국기』는 일본과 류큐의 역사, 지리, 관습에 대한 개론서로서 이 두 나라와 조선의 관계에 관한 사건일지, 관례, 조서(詔書) 등을 요약하고 있다. 이 책에는 또 일본전도뿐 아니라 일본과 류큐, 그리고 이키섬과 쓰시마섬의 상세 지도가 실려 있다. 이 지도들은 15세기 전반 이래로 예조에 구비되어 있던 여러 지도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박돈지(朴敦之)의 지도는 예조에 있던 지도 가운데 이른 시기의 지도에 속했다. 또 다른 일본 지도와 류큐 지도가 1453년에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류큐의 사신인 일본 승려 도안(道安)이 제공한 것이었다.

이 책에 실린 「해동제국총도(海東諸國總圖)」는 일본의 주요 섬 3개와 류큐, 조선과 규슈 사이의 해협에 있는 이키섬과 쓰시마섬, 한반도의 동남쪽 모퉁이를 보여주는데 일본 상인의 왕래가 허용되던 세 항구도 표시되어 있다. 한 장의 지면에 이 모든 지역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를 통틀어 이것이 유일했던 것 같다. 또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한 장짜리 「일본국대마도지도」이다. 대마도를 말굽 모양으로 묘사한 것은 섬 전체를 한 면에 담기 위한 관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섬의 남북 길이는 약 72km인데 동서로 가장 넓은 곳은 15km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의 지도 제작자들은 일본을 지도 위에 표현하면서 동해의 어디에 배치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했다. 서기 238년 중국의 외교사절이 일본을 다녀온 최초의 기록에는 일본이 남쪽으로 멀리 뻗어 있으며 그 중심이 양쯔강 하구와 같은 위도에 위치하고 기후가 중국 남단의 하이난섬과 같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 잘못된 인상은 중국과 한국의 지도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 명나라의 지도는 대개 일본을 중국 중남부 해안가의 작은 섬으로 묘사했다. 앞 장에서 1402년에 이회(李薈)와 권근(權近)이 편찬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에 일본이 이보다도 훨씬 남쪽에 그려진 이유를 지도의 동쪽에 여백이 적기 때문이라고 추측한 바 있지만, 위의 문제가 다시 한 번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세기에 조선에서 유행한 지도집에 실린 지도들도 대부

분 일본을 조선의 동쪽이 아니라 남쪽에 두었다. 하지만 신숙주가 남긴 정보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신숙주는 『해동제국기』의 서문에 일본의 영역과 위치를 명확히 기록해 두었다. “그 영역은 흑룡강(아무르강) 하구의 북쪽에서 시작되어 우리 제주도의 남쪽에 이르며 류큐 제도에 닿아 있어 매우 길다.”

<보 기>

- ㄱ. 신숙주는 일본 전문가로서 대일본 외교를 지휘했으며, 일본에 대한 친선 외교를 지향했다.
- ㄴ. 중국과 한국을 기준으로 한 일본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신숙주의 견해는 고대 중국에서 형성된 오해에 오랫동안 가려져 왔다.
- ㄷ. 신숙주는 류큐를 일본과 다른 국가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ㄹ. 『해동제국기』에 실린 지도들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매우 정확하게 제작되었다.
- ㅁ. 신숙주는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 ㅂ. 필자는 고지도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고지도에 표시된 장소들의 지리적 위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고려한다.

- ① ㄴ, ㄹ, ㅁ
- ② ㄱ, ㄴ, ㄷ, ㅂ
- ③ ㄱ, ㄴ, ㄹ, ㅂ
- ④ ㄱ, ㄷ, ㅁ, ㅂ
- ⑤ ㄱ, ㄴ, ㄷ, ㅁ, ㅂ

2012년도 제28회 입법고시
정답표(언어논리)

| 가 형 | | | |
|-----|---|-----|---|
| 문1 | 5 | 문21 | 1 |
| 문2 | 1 | 문22 | 1 |
| 문3 | 4 | 문23 | 3 |
| 문4 | 3 | 문24 | 2 |
| 문5 | 4 | 문25 | 5 |
| 문6 | 2 | 문26 | 3 |
| 문7 | 3 | 문27 | 4 |
| 문8 | 4 | 문28 | 4 |
| 문9 | 1 | 문29 | 3 |
| 문10 | 3 | 문30 | 2 |
| 문11 | 3 | 문31 | 2 |
| 문12 | 1 | 문32 | 4 |
| 문13 | 3 | 문33 | 5 |
| 문14 | 5 | 문34 | 4 |
| 문15 | 4 | 문35 | 2 |
| 문16 | 1 | 문36 | 5 |
| 문17 | 5 | 문37 | 3 |
| 문18 | 3 | 문38 | 1 |
| 문19 | 1 | 문39 | 4 |
| 문20 | 2 | 문40 | 2 |

| 다 형 | | | |
|-----|---|-----|---|
| 문1 | 2 | 문21 | 2 |
| 문2 | 1 | 문22 | 5 |
| 문3 | 1 | 문23 | 1 |
| 문4 | 3 | 문24 | 4 |
| 문5 | 2 | 문25 | 3 |
| 문6 | 5 | 문26 | 4 |
| 문7 | 3 | 문27 | 2 |
| 문8 | 4 | 문28 | 3 |
| 문9 | 4 | 문29 | 4 |
| 문10 | 3 | 문30 | 1 |
| 문11 | 2 | 문31 | 3 |
| 문12 | 2 | 문32 | 3 |
| 문13 | 4 | 문33 | 1 |
| 문14 | 5 | 문34 | 3 |
| 문15 | 4 | 문35 | 5 |
| 문16 | 2 | 문36 | 4 |
| 문17 | 5 | 문37 | 1 |
| 문18 | 3 | 문38 | 5 |
| 문19 | 1 | 문39 | 3 |
| 문20 | 4 | 문40 | 1 |

언어논리영역

1.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의 내용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현대국가에서 시민권은 그것이 민족국가든, 다민족국가든, 연방 구조든 간에 일정한 정치 공동체 내의 성원권을 의미한다. 시민이란 한 영토 내에 살 수 있는 성원권을 가진 개인을 말하며, 국가의 행정적 법령 아래 있다. 막스 베버식으로 말하자면, 거주와 행정 지배, 민주적 참여, 그리고 문화적 성원권이 합쳐져 서구 근대 민족국가에서의 시민 모델의 전형을 이룬다. 이 모델은 서구를 초월하여 적용된다. 서구 유럽에 비해 국가 형성 과정이 늦어진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근대국가화는 그것이 어디에서 이뤄지는지를 막론하고 이 모델을 모방했다.

(나) 시민권이 수여자에게 자격과 이익을 부여함과 동시에 의무도 부과한다는 관점은 마샬로부터 비롯된다.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마샬의 시민권 목록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걸쳐 민주주의를 신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펼쳐진 노력의 성과로 달성된 것이다. 시민적 권리는 절대 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나타나며, 초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호 권리, 양심의 자유, 상업과 결혼 등에 관한 특정한 친교권 등이었다. 정치적 권리는 자기결정권, 공직선출 및 출마권, 정치적이거나 비정치적인 모임의 결성권한 그리고 언론 자유와 과학 및 문화기구를 만들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사회적 권리는 대체로 지난 두 세기 동안 노동자나 여성, 다른 사회적 운동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 역사적으로 달성된 것들이었다. 사회적 권리에선 노동조합 결성권뿐 아니라, 직능조합, 상업조합, 건강복지권, 실업수당, 아동복지, 주택, 교육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다) 현재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의 시민적 권리는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권리체제라는 틀 내에서, 제3국가들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한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거주와 맞물린 공유된 국가적 정체성과 정치적 권리의 향유, 공통된 행정법령의 지배 등에 기초한 동일 모델이 해체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와 같이 국가에 속하지 않고도 정치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로서 사회적 권리와 혜택은 받으면서도, 공통된 집합적 정체성을 공유하지도 않고 정치적 성원권이라는 특권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험한 사례는 '영속적인 외국인'의 경우다. 즉, 재산권을 갖고 시민사회에 참여하면서도 정치적 권리에선 접근하지 못하는 집단이 창출되는 경우다.

- ① 시민적 권리는 탈영토적 현상과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다.
- ② 사회적 권리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 ③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구분은 점차 확고해질 것이다.
- ④ 문화적 정체성의 존중은 공동체의 정치적 연대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 ⑤ 지역에 따라서는 정치적 권리보다 사회적 권리가 우선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

2. 다음 제시문은 행위의 가능한 원인들 가운데 어느 원인을 그 행동에 귀속시켜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귀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준거들을 사용한다. <보기>에서 제시문과 동일한 준거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는?

당신이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었는데, 콧물이 났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정원에 있는 서양 진달래가 방금 활짝 핀 것을 보았고 그것이 당신을 콧물이 나게끔 만들었다고 가설을 세운다. 당신이 이 가설을 어떻게 검증하는가에 주목하라.

(가) 당신은 서양 진달래가 있는 지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당신의 증후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지를 알아본다. 즉, 당신은 자신의 증후와 진달래가 공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한다. 그 효과는 의심을 두고 있는 원인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가? 만일 그렇다면, 진달래가 범인이 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의 콧물이 계속 나온다면, 즉 아무런 공변이 없으면, 당신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다.

(나) 만일 당신이 지난 3년 동안에 서양 진달래가 피었을 때마다 동일한 증후를 가졌었다면, 당신은 바로 그것이 범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으로 일어난 증후였다면, 당신은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

(다) 마침내 당신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는 당신이 그 날 그러한 증후로 찾아온 16번째의 사람이고, "그 증후는 서양 진달래가 필 때에는 항상 일어난다."고 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당신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일 자극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한다.

<보 기>

ㄱ. 한 여학생이 TV에 출연하여 지방 중국음식점에서 먹은 최근의 어떤 식사에 대해서 격찬한다고 가정하자. 그녀는 그 식당을 제외하고는 칭찬하는 식당이 없고, 그녀가 그 곳에서 식사할 때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칭찬한다면, 그 식당은 틀림없이 훌륭한 식당일 것이다.

ㄴ. 한 여대생이 TV에 출연하여 지방 중국음식점에서 먹은 최근의 어떤 식사에 대해서 격찬한다고 가정하자. 만일에 그녀가 이전에는 어느 식당이든 간에(이 식당을 포함해서) 칭찬한 일이 없었고, 그 식당에서 식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식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특정 상황(그녀의 생일날 같은)에 관한 어떤 것이 그녀의 식사에 대한 지각들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ㄷ. 한 여대생이 TV에 출연하여 지방 중국음식점에서 먹은 최근의 어떤 식사에 대해서 격찬한다고 가정하자. 그녀는 그 식당을 제외하고는 칭찬하는 식당이 없고, 그녀가 그 곳에서 식사할 때마다 칭찬하는데, 그 식당에서 식사했던 사람들 중에 그 식당의 음식을 칭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광고의 대가로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가 실제로 그 중국음식점의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녀의 진정한 태도를 깎아내리고 그 음식점의 음식이 훌륭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광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ㄹ. 한 여고생이 영화배우 장동건에게 열광한다고 가정하자. 그녀는 장동건을 볼 때마다 열광하고, 다른 배우에게는 열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도 장동건에게 열광한다면, 장동건이 멋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열광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ㅁ. 한 여고생이 영화배우 장동건에게 열광한다고 가정하자. 그녀는 장동건을 볼 때마다 열광하고, 다른 배우에게는 열광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은 장동건에게 열광하지 않는다면, 장동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그녀의 특성 때문에 열광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보기>

- ㄱ.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설한다.
- ㄴ. 조선에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 ㄷ.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ㄹ. 신탁통치안을 조선임시정부와 협의한다.
- ㅁ. 미·소공동위원회가 조선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한다.
- ㅂ. 최고 5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ㄴ, ㄷ, ㄹ, ㅁ, ㅂ, ㄱ
- ③ ㄴ, ㄷ, ㅁ, ㄹ, ㅂ, ㄱ ④ ㄷ, ㄴ, ㄹ, ㅁ, ㅂ, ㄱ
- ⑤ ㄷ, ㅁ, ㄴ, ㄹ, ㅂ, ㄱ

5. (가)~(다)를 읽고 도출할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코넬 대학의 케럴 크럼헨슬은 38명의 학생들에게 6곡의 고전음악 발췌곡을 들려주었다. 이들은 각각 슬픔, 두려움, 행복, 긴장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평가된 곡들이었다. 크럼헨슬은 학생들이 음악을 듣는 동안과 들은 직후에 호흡계와 심혈관계에 일어나는 변화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몸에 전극을 붙였다. 유의미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는 학생들이 듣고 있는 곡, 다시 말하면 그 곡이 표현하는 감정에 따라 달랐다.

(나) 1997년 저슬린은 세 명의 전문 음악가에게 다섯 가지 멜로디를 연주하도록 했다. 멜로디 구조상 여러 감정을 표현하기 적합한 멜로디를 골라 음악가들에게 행복하고, 슬프고, 화나고, 두렵고, 중립적인 감정이 표현되도록 각각의 곡을 연주해보라고 주문했다. 음높이, 멜로디, 기타 사운드를 바꿀 수는 없었다. 이런 제약만 빼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곡을 연주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음악가들은 각 감정을 비슷하게 표현했다. 화를 표현하고자 할 때 음악가들은 빠른 템포와 레가토 주법으로 크게 연주했다. 슬픔을 표현할 때는 느린 템포와 레가토 주법으로 작게 연주했다. 행복을 표현할 때는 빠른 템포와 스타카토 주법으로 크게 연주했고, 두려움은 느린 템포와 스타카토 주법으로 작게 표현했다.

(다) 로나 프리드와 레너드 버코워츠는 위스콘신 대학의 학생들을 데리고 한 연구를 실시했다. 두 연구자는 학생들을 네 집단으로 나누고 세 집단에게 서로 다른 음악을 틀어 주어 서로 다른 기분을 유도했다. 한 집단에는 멘델스존의 음악을 들려주어 편안한 기분을 유도했고, 한 집단에는 듀크 엘링턴의 음악으로 흥분된 기분을 유도했고, 또 다른 집단에는 존 콜트레인의 음악으로 슬픔과 낙담의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네 번째 대조군 집단은 7분 동안 그냥 조용히 앉아 있게 했다. 학생들을 보내기 직전, 연구자는 15분에서 2시간 가량 소요되는 다른 실험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와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험 결과, 멘델스존의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가장 기꺼이 거들었다. 이들은 두 번째 실험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고, 제안한 시간도 가장 길었다. 가장 비협조적인 집단은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들려주어 부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킨 집단이었다.

- ① 음악은 연주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특정한 감정 상태를 유발한다.
- ②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조작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

- ③ 음악에 표현된 감정과 그 음악을 통해 느끼는 감정은 보편적으로 일치한다.
- ④ 그 음악을 통해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음악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 ⑤ 음악이 행동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야 하고 적당한 시간 동안 감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6. 다음의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프랑스와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2차 대전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 때문이다. 그 당시 필요하다고 불려들었지만 그들은 이제 2세대 동안 거주하며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유럽인들은 자녀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고 노령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프랑스나 독일에 유입된 이방인들, 특히 이슬람계 가정은 자녀 출산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의 출산율은 기독교인의 약 3배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럴 경우 이들 국가의 인구는 지금보다 3.5% 정도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이슬람 인구는 약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에 대해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 버너드 루이스는 “21세기 말 어느 시점에 가면 유럽의 다수가 무슬람이 될 것이다.”라고 진단하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오늘날 한국은 1960~1970년대의 독일과 프랑스처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한국은 연수생 제도를 통해 외국인 단순 노동력을 활용하는 비교적 엄격한 노동 이민 정책을 통해 이들의 한국사회로의 영구 거주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사정은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다. 한국의 인구학적 구성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국제결혼 가정이다. 외국인 노동자와는 달리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나 그 자녀는 대부분 한국인으로서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이며 이들의 수효는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다문화가정 한국인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한국사회를 보다 역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한국형 다문화 정책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사회에서 동화주의를 채택하건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건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다행히 한국은 유럽 국가들이 겪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의 종교적인 갈등으로부터는 벗어났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에 유입된 이주민이 대개는 이슬람계(독일은 터키, 프랑스는 북아프리카 국가들)이지만 한국의 경우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서 유입된 소수의 이슬람계 이주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교, 기독교 혹은 불교 문화권 국가 출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 문화와의 차이에 겪게 되는 갈등이 예견되기는 하지만 유럽 국가들에서와 같은 극단적인 종교적 대립은 한국사회에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처럼 종교에서 비롯된 사회갈등은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언어와 생활방식에서 야기되는 갈등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 특히 한국에 온 외국 이주민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능력 부족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이주민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출신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충돌은 있었어도 의사소통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동포를 제외한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한국어 능력은 한국에서의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다. 특히 국

8. 밑줄 친 ㉠~㉣ 중에 서로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묶인 것은?

감내하기 어려우면서도 매력적인 일은, 이미지와 사물, ㉠ 철자와 소리를 뒤범벅하는 거울, 역전, 퇴폐의 결과로, 음성 언어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중심 역할을 찬탈하는 문자 언어의 스펙트럼이 될 정도까지 이르게 하는 ㉡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친밀감이다. 표상은 표상하고자 하는 것과 서로 얽혀 문자로 쓰는 것처럼 말하고 표상된 것이 ㉢ 표상체의 잔영이나 반사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한다. 반영과 자기 도취에 빠져 반영되도록 유혹된 피반영물 사이의 위협천만한 뒤죽박죽이며 혐오스러운 공모이다. 이러한 대리 표상의 놀이에서 ㉣ 원래의 시발점은 파악 불가능하다. 사물과 사물, 이미지 상호간의 끝없는 되돌려 보내기는 있지만 더 이상 근원, 즉 단순 기원은 없다. 왜냐하면 반영된 것은 그 이미지에 자신을 첨가할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분해되기 때문이다. 반사, 이미지 즉 복사본은 그것이 재분해시킨 것을 다시 분해한다. 사변의 근원은 일종의 차이가 된다.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기원과 그 표상을 부가하는 법칙, 사물에 그 ㉤ 이미지를 부가시키는 법칙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최소한 셋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모든 권리에 갖다 둔 역사적 찬탈과 이론적 기묘함은 단순 ㉥ 기원에 대한 망각으로 규정된다. 루소뿐만 아니라 소쉬르의 사상에서도 그렇다. 위치 변환은 기껏해야 철자상의 말 숨바꼭질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끝내 쓰기를 배우기 전에 말하기를 배운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그래서 자연적 관계가 거꾸로 뒤집힌다. 망각의 폭력이며 기억술의 수단인 문자는 ㉦ 훌륭한 기억과 즉자적 기억을 대신하는데, 그 이름은 바로 망각이다. 『페드로』에서 플라톤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플라톤은 문자와 소리를 ㉧ 히포크네시스와 트네메, 즉 보조기억술과 살아있는 기억에 비유하고 있다.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9.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거나 경쟁자들이 있을 때 개인의 수행이 달라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타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주목하는 경우에 수행이 저조해지는 것이다. 이를 사회적 억제 현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타인의 존재가 늘 개인의 수행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도 관찰된다. 타인의 존재가 개인의 수행을 증진시키는 현상을 사회적 촉진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들의 경우에는 다른 존재가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면 각성(arousal) 또는 흥분 수준이 높아진다고 한다. 사람들의 경우 각성이 증가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입에 침이 마르고, 손바닥과 발바닥에서는 땀이 난다. 그런데 타인의 존재 때문에 높아진 각성은 이전에 이미 학습해서 익숙해진 반응이나 쉬운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생소하거나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앞에 관중 또는 타인이 있

으면 왜 각성이 증가할까? 이 질문에는 대략 세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아무도 없을 때와는 달리 누군가가 내 앞에 있으면, 그 사람에 의해 무슨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타인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타인이 존재할 때 유기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심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인간과 같은 사회적 존재의 특성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든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의 존재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잘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데, 이를 평가불안이라고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타인의 존재가 평가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각성이 증가한다고 한다.

세 번째 설명은 타인의 존재뿐만 아니라 주의분산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각성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한다. 주의분산은 우리가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갈등이 각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 (나)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한 킥을 구사한다는 영국의 축구선수 데이비드 벡햄(David Beckham)은 2004년 유럽선수권대회 포르투갈과의 승부차기에서 영국 대표팀의 첫 번째 킥으로 나왔지만 실축하고 말았다. 벡햄은 이렇게 말했다. “골문 앞에서 페널티킥을 차려 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다.”
- (다) 사회적 촉진 또는 억제 현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체들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한다. 1969년에 로버트 자이언스 등(Zajonc, Heingartner & Herman)의 연구자들은 32마리의 암컷 바퀴벌레들이 단순한 일자형 통로와 조금 복잡한 십자형 통로에서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를 측정하였다. 이 실험을 위해 자이언스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통로를 만들었는데, 어떤 바퀴벌레들은 혼자서, 나머지 바퀴벌레들은 다른 바퀴벌레들이 투명한 플라스틱 미로의 장벽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달리기를 하였다.

<보 기>

- ㄱ. 벡햄이 실축한 것은 벡햄에게 페널티킥이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이다.
- ㄴ. 일자형 통로에서는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달렸던 바퀴벌레가 혼자서 달렸던 바퀴벌레보다 더 빨리 목표지점에 도달하였을 것이다.
- ㄷ. 면접 초반에 지원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점수에 안 들어가니까 편하게 하라.”라는 말과 함께 질문을 하면 답변을 잘하던 지원자도 “자, 이제부터 진짜 질문 들어갑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긴장하고 말을 더듬는 것은 평가불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ㄹ. 이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용한 상황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때 더 많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0. 다음 글의 주장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가) 미국 헌법 해석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헌법 해석이 최초의 초안자들의 근본적인 의도와 최초의 텍스트의 의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원본주의’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대에 따라 헌법 조문의 진화된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접근법이 있는데, 헌법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본다는 의미에서 이를 ‘살아있는 헌법주의’라 한다. 이 논쟁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법심사에 있어서 연방 대법원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헌법을 해석해야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두 입장의 대립이 지금까지 미국 헌법 해석 논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헌법 해석의 기초는 특정한 조문을 작성하고 비준한 사람들의 이해에 달려 있지, 이후 세대들의 이해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헌법 조문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헌법초안자들이나 비준자들의 의도를 물어야지, 헌법의 현재적 의미를 추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원본주의적 헌법 해석이 민주주의 원칙과 심각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그러나 원본주의자들에 따르면, ‘살아 있는 헌법’ 이론에 비해 원본주의가 훨씬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즉 만약 사법심사에 있어서 연방 대법관이 헌법 초안자들의 의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결코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리에 앉았다고 볼 수 없는 임명된 연방 대법관이 개인적인 견해에 기대어 헌법을 해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원본주의자들은 이런 접근이 결코 민주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원본주의자들은 헌법적 구속력의 근거를 인민 전체가 헌법적 구속에 동의했다는 것에서 찾는다. 문제는 오늘날의 인민들을 구속하는 헌법은 자신들의 동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200년 전의 조상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조상이 동의한 헌법이 현재에도 구속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원본주의자들은 소위 ‘사전서약이론’을 제시한다. 인민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기에 앞으로 생길 비이성적 상황에서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구속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한 것에 우리의 자손들이 구속받기를 원하듯이 우리가 선대의 인민들의 동의에 구속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원본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만약 각 세대별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실제로 동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암묵적 동의를 통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흐려지게 되고, 결국 세대별 개별적 동의의 문제를 넘어 헌법적 구속력 자체가 약화된다고 본다. 이는 법의 지배의 원칙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일이다.

- ① 원본주의자들은 민주사회에서 대중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제로 헌법을 해석한다.
- ② 원본주의자들은 정치공동체의 헌법적 구속력은 해당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한다.
- ③ 원본주의적 접근의 근본적인 의도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④ 원본주의는 오래 전 과거에 만들어진 헌법이 현재의 인민을 구속하는 근거를 헌법초안자들의 이성적 판단에서 찾는다.
- ⑤ 원본주의자들은 헌법에 대하여 만약 각 세대별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헌법적 구속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11. 다음은 성격이 다른 세 개의 글을 흠어놓은 것이다. 이들을 같은 글끼리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변동의 방법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권력 접근방법과 태도 접근방법 간의 구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구분, 즉 폭력적 접근방법과 비폭력적 접근방법들 간의 구분도 함께 사용하려고 한다. 폭력은 권력전략이지만, 폭력 옹호론자들은 종종 새로운 사회질서로부터 새로운, 그리고 개선된 관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 (나) 이미 시대는 근대와 현대를 넘어 탈근대니 탈현대니 하는 판국에 근대성, 근대화 운운하는 것은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해체되어 가는 전통 사회의 잔재와 세련되지 못한 미숙한 근대성이 착종된 채 새로운 하나의 질서를 융합해 내지 못하고 있는 정황이 아닌가 한다.
- (다) 도움을 주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동료나 환자들에 대해 안정감을 거의 혹은 전혀 갖지 못할 때는 ‘운정으로 인한 피로’라는 것을 쉽게 느낀다. 포옹, 이야기 들어주기, 정이 넘치는 표정은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서비스 업종이 그렇듯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남발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의미를 잃기도 쉬운 것이다.
- (라) 권력전술들은 어느 한 편의 실질적인 양보를 추구하며, 반면에 태도전술들은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확실히 두 결과들에게 몇 가지 딜레마를 야기시킨다.
- (마) 직원 사이의 배려는 안정의 기초를 제공하는 일을 성숙하게 변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루 동안 어떤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기분 띄워주기에서도 볼 수 있다.
- (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근대화된 사회 유형을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도, 서구 근대의 시민 사회도 아닌 시민 공동체라는 형태에서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 (사) 보살핌이라는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동안,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서로를 돌봐줄 필요가 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서비스 조직에서 직원들 간의 연결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
- (아) 물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공했다고만 볼 수 없는 서구 근대화, 현대화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저들의 근대화를 타산지적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근대화, 현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 (자)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행동을 비롯해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불평을 들어주는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또는 존중이나 칭찬하는 말, 혹은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감사의 형태를 펼 수도 있다.
- (차) 비폭력 또한 권력전략일 수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관계들의 창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하면, 폭력 대 비폭력 구분법은 권력 대 태도 구분법을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다.

- 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 ② (가, 라, 자, 차) (나, 바, 아) (다, 마, 사)
- ③ (가, 라, 자) (나, 바, 아) (다, 마, 사, 차)
- ④ (가, 라, 차) (나, 바, 사) (다, 마, 아, 자)
- ⑤ (가, 라, 차) (나, 바, 아) (다, 마, 사, 자)

12. 다음은 옛 책의 형태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책 형태의 발전 순서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필사하거나 간인한 비단을 글의 길이에 따라 알맞게 자르거나 종이를 이어 붙여 한 끝에 둥근 축을, 다른 끝에 죽심을 가늘게 깎아 책가위로 덮어 싸고 중앙에 책 끈을 달아 보존할 때에만 둘둘 만 다음에 매 두는 형태의 장정 : 좁고 길게 짠 겹백(縑帛)에 서사하여 권자(卷子) 형태로 두루말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펴볼 수 있도록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편철하여 사용한 간독(簡牘)에 비하여 서사하거나 펴보기가 쉽고, 부피가 적고 무게가 가벼워 보관하고 가지고 다니기 쉽게 고안한 장정이다. 글자 하나를 찾기 위해서도 전체를 펼쳤다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펴고 감을 때 불편하였다. 식물성 재료인 종이 사용으로 말미암아 서사 재료를 염가로 다량 생산하게 된 뒤에 등장하였다.

(나) 목판과 활판에서 찍어낸 책장이나 필사한 책장을 글자가 있는 면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반접하여 중첩하고 접은 판심의 뒷면에 풀칠하여 전 책장을 서로 붙인 장정 : 절첩한 부분이 헤어져 떨어지는 절첩본(折帖本)의 단점을 김기 위하여 나타난 장정으로, 다음 면이 공백으로 나타나 두 장씩 넘기므로 불편하며, 서배 부분을 풀로 붙였기 때문에 오래 쓰는 사이에 책장이 떨어지거나 풀 붙인 곳이 찢어져 낙장이 생긴다. 판심이 비로소 나타난다.

(다) 판심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곧 책장의 글자가 밖으로 나오도록 정접하여 판심상의 접지 표시에 맞추어 가지런히 중첩하고 서배에 가까운 곳 위아래 두 곳에 구멍을 들썩 뚫어 종이 심지를 박고 난 다음에 다시 맨 앞쪽과 뒤쪽과 서배를 감싸 풀로 붙인 장정 : 두 장씩 넘기는 호접장(蝴蝶裝)의 단점을 김기 위하여 비롯하였으나 오래되면 표지가 떨어져 나가고, 풀 붙인 곳에 좀이 스는 단점으로 말미암아 차차 줄어들어 선장(線裝)에 자리를 내어 주었다.

(라) 종이를 여러 장 붙여서 서사하거나 간인한 다음에 일정한 크기로 접어 제책한 장정 : 권자본(卷子本, 두루마리)의 펴고 감을 때의 불편함을 김기 위하여 당대에 이르러 권지를 알맞은 폭으로 절첩하는 형태로 개장하였다. 오래 사용하면 절첩한 부분이 헤어져 떨어지게 되어 불편하고, 원래 권자 형식의 것을 절첩한 것이기에 접는 부분 주위 글자를 마손하거나 오손하여 판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마) 포배장(包背裝)과 거의 다름이 없는데, 다만 풀칠을 하지 않고 앞뒤 겉표지를 대고 구멍을 뚫어 실로 묶는 장정 : 포배장의 단점을 김기 위해 비롯하였다. 겉표지는 일반적으로 저지를 여러 겹 붙여 썼으나, 귀중본은 색깔이 있는 견포를 쓰기도 했다. 표지가 마련되면 황백이나 피자 줍으로 황염하여 벌레 먹는 것을 막고 미관상 아름답게 보이도록 껴하였다. 특히 우리 것에는 예외 없이 능화문을 찍어 고유한 장식을 나타냈다. 서배 부분을 꿰매는데, 이 때 끈을 베실이나 비단실이나 목실 등을 튼튼하게 꼬아 붉게 염색하여 선장(線裝)하는데, 우리나라는 오침안정법(오침안법, 오침칠장법, 오공찬정법)을, 중국이나 일본은 사침안정법이나 육침안정법, 팔침안정법을 썼다.

- ① (가) - (라) - (나) - (다) - (마)
- ② (가) - (라) - (나) - (마) - (다)
- ③ (가) - (라) - (다) - (나) - (마)
- ④ (나) - (다) - (가) - (라) - (마)
- ⑤ (나) - (다) - (마) - (가) - (라)

13. 밑줄 친 ㉠~㉥ 중에 '지식'의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은 것은?

(가) 모든 사람이 대의(그게 무엇이든 간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너무도 많은 나쁜 사람들이 대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신적 여유가 없다. 그게 뭐든 간에 우연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에 도움이 될 ㉠지식을 제외한 다른 어떤 지식도 습득할 여유가 없다.

(나) 러셀이 주장하는 핵심은 노동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사람들은 노동을 즐길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실제 노동하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일을 피하려 한다. 오직 타인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들만이 노동의 가치를 찬양한다. 만일 게으름, 놀이, 사변적 ㉡지식을 향유하는 능력이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러셀이 제안한 개혁들이 수행될 수 있다.

(다) 앞선 시대들과 비교해 우리 세계의 특징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특징의 근원은 유용한 ㉢지식에 있다. 그리고 어떤 사회도 아직 그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계속 증대시켜 나가려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문화 교육의 많은 부분이 어리석은 교육이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 문법을 배우는데 몇 년씩을 소모했지만 결국 그리스어 및 라틴어 저작을 읽을 수 있게 되거나 읽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

(라) 문화와 직접적 실용성이 결합될 수 있는 경우와는 별도로 다양한 종류의 간접 실용성이란 것도 있다. 간접 실용성에는 기술적 능력에 직접 이바지하지 않는 지식들이 포함된다. 나는 그러한 ㉣지식을 더 많이 장려할수록 현대 세계의 최악의 특징들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직업적인 능력만을 무자비하게 추구하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 필요한 것은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특정한 정보가 아니라 전체의 시각에서 본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지식이다. 여기에는 예술, 역사, 영웅적인 사람들의 인생 접하기, 우주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한심할 정도로 우연적이고 하루살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은 인간 특유의 것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이해하고 아는 힘, 도량 있게 느끼는 힘, 올바르게 사고하는 힘을 키워준다. 비개인적인 감정과 결합된 폭넓은 인식으로부터 비로소 지혜가 솟아나오는 것이다.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18.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통 자연과학에서 ‘인과성’이란 “A면 B다.”라는 것이다.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원인이란 B라는 결과가 나올 때만 A라는 원인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A는 B를 규정하지 않는다. 알튀세르(Louis Althusser, 1918~1990)는 이것을 ‘구조론적 인과성’이라고 불렀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A라는 원인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결코 A라면 B가 된다는 식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인이 발견되어도 그 책임은 물을 수 없다. 무엇을 해도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적절하게 해도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가혹한 일을 겪었다고 하자. 그 일이 트라우마(정신적 외상)가 되어 나중에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트라우마가 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반대로 프로이트가 고민했던 문제 중의 하나는, 여성 신경증 환자의 트라우마를 파고들어 가면 아버지에게 강간당한 사건이 자주 나온다는 것이다.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그것을 진짜로 생각했지만 차츰 그것이 환자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오늘날에는 페미니스트 쪽으로부터의 반론이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잔혹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신적 외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이를 하나의 인과법칙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프로이트나 유아 발달심리학 등을 읽고 그것을 간단하게 바로 육아나 교육에 응용해서는 안 된다.

- ① 자연과학에서는 특정한 원인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② 범죄자에 대한 정신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과거 행동이 범죄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판명되더라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③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응석받이로 자란 사람은 독립심이 약하다.
- ④ 프로이트에 따르면 정신병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그 원인을 발견하여 정신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⑤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억압적 교육에 의해 신경증이 생기므로 아이들을 되도록 억압하지 않으면 신경증 발생을 막을 수 있다.

19.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상 논리는 다양성 논리에 비하면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보상 논리에 근거한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 꼭 원래의 피해자는 아니며 보상하는 사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지적한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의 수혜자 가운데 많은 수가 중산층 학생들이며, 이들은 도시 빈민가의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정책 때문에 입학 허가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더 힘겨운 역경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보상 논리로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정책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입학할 수 있었을 학생들이 왜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짐을 져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가)_____

다양성 논리는 그보다 더 설득력을 지닌다. 이 논리는 우대를 받은 소수집단 학생이 실제로 차별을 겪었는지 증명하는 문제와 상관이 없다. 다양성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입학 허가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끼리 모여 있을 때보다 서로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 출신만 모여 있으면 인식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듯이 동일한 인종, 계층, 민족의 학생들만 모여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나)_____

소수집단 우대정책 반대자들은 그러한 목적은 인정할지 몰라도 그 수단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학교의 다양성 증대라는 목적은 바람직하지만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단지 소수민족이 아니라 해서 입학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은가? 높은 성적과 뛰어난 가능성을 가진 학생은 입학을 허가받을 자격이 없단 말인가?

엄밀히 말하면 그에 대한 답변은 ‘없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양성 논리 밑에 깔려 있는 심오한 가정을 엿볼 수 있다. 입학 허가는 뛰어난 자격을 포상하기 위해 수여하는 영광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도, 불리한 처지에 놓인 소수집단 학생도 입학을 허가받을 도덕적 자격은 없다. (다)_____

다양성 논리가 지닌 도덕적 힘은 입학 허가를 개인이 누리는 영광에서 분리하고 공공선과 연결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공격에 취약한 측면이기도 하다. 일자리와 기회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보상’이라는 믿음이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에 깊이 박혀 있다. (라)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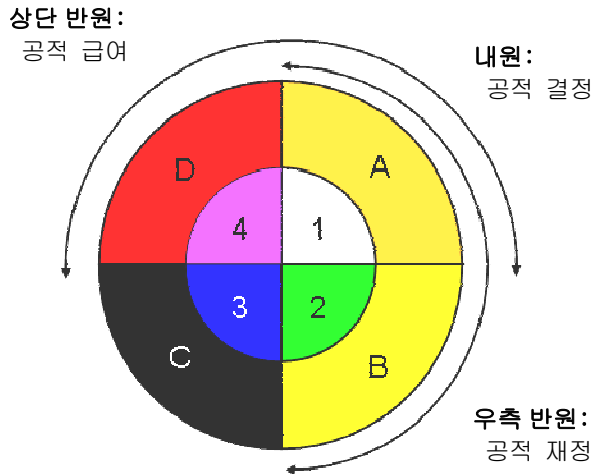
<보 기>

- ㄱ. 그리고 여러 조건에서 불리한 소수집단 학생들을 교육시켜 공직이나 전문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한다면 이는 대학의 시민적 목적을 실현하고 공공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 ㄴ. 즉, 소수집단 우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정당화하기에 보상 논리는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 ㄷ. 성공인들은 “열심히 일하며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앞서 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 ㄹ. 심사 기준이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에 있다면, 그리고 지원자들의 입학 여부가 그에 따라 결정된다면 어느 누구도 불평할 권리는 없다.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ㄱ | ㄴ | ㄹ | ㄷ |
| ③ | ㄴ | ㄱ | ㄷ | ㄹ |
| ④ | ㄴ | ㄱ | ㄹ | ㄷ |
| ⑤ | ㄴ | ㄹ | ㄱ | ㄷ |

20. (가)~(마)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하게 배치한 것은?

아래 그림은 원을 4등분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재원마련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즉, 서비스가 공적으로 제공되고 재원 역시 공적으로 마련되는 공(公)-공(公)의 부분, 서비스는 사적으로 제공되고 재원은 공적으로 마련되는 사(私)-공(公)의 부분, 서비스는 공적으로 제공되면서 재원은 사적으로 마련되는 공(公)-사(私)의 부분,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과 재원조달 모두가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私)-사(私)의 부분이다.



내원(內圓)

- 1 예를 들어, '순수한 공적' 서비스 ; 준시장
- 2 예를 들어, 국가가 구매하는 하청서비스
- 3 예를 들어,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하청서비스
- 4 예를 들어, 공적으로 제공되지만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서비스

외원(外圓)

- A 예를 들어,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바우처를 통해 구매되는 것
- B 예를 들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바우처나 조세감면 혹은 보조금을 통해 구매되는 것
- C 예를 들어, '자유시장' 서비스
- D 예를 들어,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인이 구매하는 것

버차드 등은 더 나아가 자율적 행위능력 혹은 선택이 개입되는 정도에 따라 보다 심층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 부분을 나타내는 원의 우측 상단은 해당 지역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학교가 포함될 것이다. 이는 안쪽에 위치한 내원(內圓)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대비하여 바깥쪽에 위치한 외원(外圓)이 존재하는데, 이는 개인들 스스로가 선택한 서비스에 대해 보다 많은 결정권을 행사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부모가 자녀를 진학시키기 위해 공립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내원과 외원의 개념을 놓고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구분이 가능하다.

- (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순수한 민간구매영역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키보드를 다루는 기술과 관련하여 민간회사로부터 하나의 강좌를 구매하는 경우이다.
- (나) 하청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예를 들어 장애아동을 위해 지방교육청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에서 사적 교육과정을 구매하고, 모든 비용을 부모가 직접 지불하는 경우이다.

- (다) 공공서비스 중 이용자들이 일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재원이 마련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대표적인 예로 직업훈련과정을 들 수 있으며, 지역의 사회서비스국이 제공하는 요양원이나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이용자들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 처방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또 다른 예가 된다.
- (라) 민간공급자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해당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양로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사회서비스국의 점검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설기준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용료가 결정되면 지역 사회서비스국은 누가 입소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서비스가 사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율적 행위능력이나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 (마) 사적으로 구매되는 서비스이지만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학교부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가) (나) (다) (라) (마)

- ① 좌측상단 내원 우측하단 내원 우측하단 외원 좌측하단 외원 좌측하단 내원
- ② 좌측하단 내원 좌측상단 내원 우측하단 내원 우측하단 외원 좌측하단 외원
- ③ 좌측하단 외원 좌측하단 내원 좌측상단 내원 우측하단 내원 우측하단 외원
- ④ 좌측하단 외원 좌측하단 내원 우측하단 내원 좌측상단 내원 우측하단 외원
- ⑤ 우측하단 내원 우측하단 외원 좌측하단 외원 좌측하단 내원 좌측상단 내원

21. 다음 글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진이 먼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을 우리 눈앞에 가져온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흔히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이 자신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관음증적인 향락을 보건대, 흔히 사람들은 타인의 시련, 그것도 쉽사리 자신과의 일체감을 느낄 법한 타인의 시련에 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듯하다.

1993년 4월, 사라예보를 처음 방문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는 그곳의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사라예보 시민으로서 유고슬라비아인들의 이상을 지지하지 않았는데, 내게 이런 말을 들려줬다.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를 침략했던 1991년 10월 저는 깔끔한 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라예보는 평화로웠죠. 제 기억으로는 저녁 뉴스에서 부코바르가 파괴됐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는데, 그곳은 이곳에서 몇 백 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때 전 이렇게 생각했더랍니다. ‘아, 끔찍한 일이군.’ 그리고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독일 사람들이 매일 이곳에서 벌어지는 살육 소식을 저녁 뉴스로 보며 ‘아, 끔찍한 일이군.’이라고 한 마디 하고는 딴 프로그램을 본다고 해서 화를 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늘 그런 식이죠.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느끼는 한, 사람들은 무관심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 그러나 그녀가 외국인들의 무책임함에 그토록 관용을 베풀었던 이유는 그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전쟁의

이미지, 자기 모국에서 곧 벌어질 일을 예견해 주는 듯했던 그 이미지들을 그녀가 그다지 보고 싶어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력감과 공포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보스니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저끔찍한 이미지들을 보고서도 신경을 끄게 된 이유는 보스니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도 않으며, 자국의 지도자들이 이 전쟁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전쟁, 혹은 그 어떤 전쟁일지라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사람들은 그 전쟁이 가져온 참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연민은 변하기 쉬운 감정이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감정은 곧 시들해지는 법이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전혀 없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금방 지루해하고 냉소적이 되며, 무감각해지는 것이다.

어떤 이미지들을 통해서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상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텔레비전 화면에서 클로즈업되어 보여지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특권을 부당하게 향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련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비록 우리가 권력과 맺고 있는 실제 관계를 또 한번 신비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가져온 원인에 연루되어 있지는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연민은 우리의 무능력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고함도 증명해 주는 셈이다.

따라서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우리가 상상하고 싶어하지 않는 식으로, 가령 우리의 부가 타인의 궁핍을 수반하는 식으로)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는 것, 그래서 전쟁과 악랄한 정치에 둘러싸인 채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풀기를 그만둔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는 고통스런 이미지들은 최초의 자극만을 제공할 뿐이니.

- ① 우리는 연민을 통하여 먼 곳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가깝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 ② 연민은 자신이 본 폭력의 이미지에 금방 익숙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연민은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과 공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끊임없이 쏟아지는 폭력의 이미지에 익숙해진 경우 연민을 느끼는 것은 쉽지 않다.
- ⑤ 우리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연민은 어느 정도 뻔뻔한 반응일지 모른다.

22. (가)~(라)에 해당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생명공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비록 인간복제와 같이 가장 중대하고도 극단적인 문제들에 있어서까지 윤리적 관점에서건, 윤리와 무관한 관점에서건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으며 반대론에 못지 않게 찬성론 역시 만만치 않다고 생각된다. 우선 (가) 권리나 존엄성 등 본질가치(intrinsic value)와 관련된 반대 논변이 흔히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나) 동일한 본질가치에 의거해서 찬성 논변을 제시하는 입장 역시 소홀히 다루기 어려워 찬반 양론이 격돌하고 있는 셈이다.

나아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해 (다) 수단 가치와 관련된 결과론적(consequentialist) 찬성 논변과 (라) 반대 논변에 있어서도 생명공학적 성과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면서 개인적 차원과 더불어 사회적 차원에 있어 이해득실이 대립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 예측의 불확실성이 가세함으로써 찬반논의는 더욱 오리무중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이같이 생명공학의 미래에 대한 윤리적 찬반 논변이 현재로서는 승부를 가리기 어려움을 보여준다는 점을 그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서 인간복제 문제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일정한 유형의 사회적 통제일 수밖에 없다는 귀결로 나아가기 위한 잣대로 삼고자 한다.

<보 기>

- ㄱ. 이는 우리에게 인간복제를 이용할 권리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밀의 자유론을 원용한다면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만약 그가 선택한 것이라면, 또한 그 행위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개인은 인간복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보다 제한적으로 말한다면 그러한 인격권을 번식자유권 혹은 출산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피임이나 낙태 등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와 출산을 할 권리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복제도 일부 철학자들의 주장과 같이 동물이 합리적 사고와 더불어 자의식의 능력을 가질 경우 인격(person)에 해당하는 까닭에,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의 여부 역시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 ㄷ. 인간복제는 뒤늦게 태어난 쌍둥이에게 유일한 존재라거나 고유의 개성을 지닌 존재라는 감정에 상처를 줌으로써 심리적 압박감과 피해를 줄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인간복제 과정은 안정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클론에게 용납하기 어려운 위험을 끼칠 것이다.
- ㄹ. 인간복제는 일부 사람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임이라는 짐을 덜어줄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인간복제는 부모가 심각한 유전병을 앓고 있을 때 그 병을 자손에게 물려줌이 없이 출산할 수 있게 한다.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ㄴ | ㄱ | ㄷ | ㄹ |
| ③ | ㄴ | ㄱ | ㄹ | ㄷ |
| ④ | ㄴ | ㄹ | ㄱ | ㄷ |
| ⑤ | ㄷ | ㄱ | ㄹ | ㄴ |

23. (가)~(라)에 대한 판단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예술적 창조성과 과학적 창조성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예술가들은 작품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을 드러내지만, 과학자들은 그들의 희망, 꿈, 열정, 불안 등을 사적인 서신과 미간행 원고 속으로 숨겨야 한다. 작품을 공적인 영역에 내놓을 때마다 명성을 더해 간다는 점에서 과학자와 예술가는 같다. 그러나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쓴 1905년의 논문에서 그의 가정 문제나 정신 상태에 관해서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반면에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은 거의 자서전적이다. 화가는 감상자에게 그림을 마치 과학 논문처럼 해석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과학 논문의 해석은 제한적이지만, 예술 작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나) 기존의 표현 방식에 충실한 묘사가 반드시 자연 세계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고 볼 수 없다. 자연 세계에 대한 기존의 표현은 관찰자가 주관적으로 바라본 대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모델, 이론 또는 그림은 대상에 대한 단순한 복사에 그치지 않고 묘사하려는 대상을 좀 더 흥미롭고 멋지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만들어주는 구조적 특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만일 이론이나 그림이 이러한 특질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실재를 구현해내는 셈이다. 겉으로 보기에 거북스러운 것도 사물을 다른 측면에서 인식하는데 적합하면 그 이론이나 그림은 신뢰할 수 있다. 좋은 표상은 진실해야 하나, 진리는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

(다) 과학에는 경험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개념과 연구 대상의 특징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도 필요하다. 그와 같은 작업에서 기계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은 유사한 점이 있다. 하지만 과학과 예술에는 서로 다른 점도 있다. 미술의 새로운 사조는 수많은 탐구와 비평을 통해 다듬어져 성공적으로 정착된다. 정립된 미술사조는 수년간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최근의 화가들과 대중은 그 이전의 많은 미술 전통과 달리 새로움을 훨씬 높이 평가하는 반면 과학에서는 훨씬 낮게 평가한다. 따라서 미술 사조는 짧은 기간에 극적으로 바뀌기 쉽다. 회화, 조각, 무용 또는 음악에서는 예술가란 컴퓨터와 같은 정확성으로 작업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없다. 왜냐하면 현대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지속될 확고부동한 전통을 발전시킬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기계적으로 창작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술은 실패로 간주된다. 반면에 과학적 추론은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되었다.

(라) 예술에서는 천재가 없이는 가치 있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반면에 과학에서는 범재라도 최상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예술가들은 정서를 자극하려고 노력하지만, 과학자들은 납득시켜야 한다. 과학은 집단적으로 인정된 정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서 모호성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나 예술은 모호성을 주관적 경험의 영역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강조한다. 예술은 누구나 감상할 수 있지만, 과학은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와 예술가는 서로 다르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과학이 논리적·분석적이기 때문에 뇌의 왼쪽을 주로 사용하고, 직관과 상상력의 자리인 오른쪽은 예술가가 더욱 발달한다.

- ① (가)는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을 통해 예술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나)는 예술적 진실과 과학적 진리 사이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다)는 예술 사조는 빨리 바뀌지만 과학적 추론은 오랜 시간에 걸쳐 확립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라)는 과학과 예술을 극단적인 형태로 대비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과학과 예술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에 대한 탐구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24. 다음 글의 논지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현대예술은 미적 주체의 의식적 가공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비판적 리얼리즘처럼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재현해 보여주며 성토했지도 않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처럼 ‘전망’이라는 이름의 선부름 ‘화해’의 상태를 그려 보여주지도 않는다. 카프카와 베케트의 작품은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들의 작품은 현실을 소리 높여 비난하지도, 언젠가 도래할 유토피아를 제시하지도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그 모든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끔찍한 삶의 조건에 대해 계속 각성하게 해준다.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 예술은 사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사회와 거리를 두고 그것과 급진적으로 다른 타자로 머무는 것. 사회와는 비동일자로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예술이 사회를 비판하는 방식이다.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비합리적인 사회. 그 속에서 예술은 저항을 계속해 나간다. 원시인들은 무생물에게까지 생명을 부여했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것까지 모두 사물로 취급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사물화시키는 사회에서 예술은 사회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타자’로 남는다. 예술은 이렇게 합리적 파악 앞에서, 제 모습을 감추어버리는 자연의 존재를 닮아간다. 하지만 사회는 이 반항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관리되는 사회가 행사하는 동일화의 강제는 예술마저 끌어들이려 한다. 자본주의 문화산업은 제법 현실비판적인 작품이나 난해하며 비합리적인 작품마저 체제 내에 포섭하여, 예술이 가진 비판적 잠재력을 무력화시키고, 가장 난해한 예술작품도 간단히 평균적인 코드로 해석해 표준화한 후, 잘 포장된 향유의 대상으로 만들어 대중에게 제공해버린다.

예술은 이 동일화의 강제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사회와 구별하고 그것과의 차이를 주장한다. 소통을 거부하고 의미를 파괴하고 기대의 지평을 배반함으로써, 예술은 사회와 구별되는 자신의 타자성을 주장한다. 소위 ‘합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예술은 스스로 부조리해진다. 소위 관리되는 사회의 ‘질서’라는 게 실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보여주려고 작품에 혼돈을 도입한다. 사회가 행하는 동일화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예술은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해야 한다. 그 결과 예술은 끝없이 난해해지고 점점 더 해석적으로 변한다. 자신의 운명을 건 이 끝없는 탈주를 통해 예술은 비인간적인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남는다.

서정시가 떠난 자리(“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아도르노)에서 현대예술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형식으로 사회의 부정적인 상태를 증언한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사회에 비판을 가하는 방식이다. 예술적 저항의 근거는 예술이 사회에 토해놓은 시끄러운 발언이 아니라, 영원한 탈주를 통해 늘 사회에 불필요한 것으로, 스스로 사회의 영원한 ‘타자’로 머무는 예술의 존재 자체에 놓여 있다. 의미를 거부하고, 소통을 거부하고, 사회에 동화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예술은 모든 것을 동일화하는 비인간적인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것으로 남는다. 예술은 이렇게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현존을 통해 사회를 비판한다. 이렇듯 예술은 존재 그 자체가 ‘반사회성’이며, 이 존재의 사

29. 다음 글은 <보기 1>에 나타난 대표적 의미 유형들을 순서 없이 소개한 것이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의미는 어떤 언어 표현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가) 환경에 대하여 전달하는 의미를 말한다. 부분적으로 한 텍스트의 (가) 의미는 동일 언어권 내의 문체에 대한 서로 다른 차원(dimension)과 층위(level)를 인식함으로써 해석된다. 실제로 우리는 방언으로써 어떤 낱말이나 발음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화자의 지리적, 계층적 출신,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의 예로는 방언, 시대, 분야, 신분, 양식, 특이성 등이 해당된다.

(나) 의미는 어떤 낱말 스스로가 지니는 논리적, 인지적, 외연적 내용으로서 언어전달의 중심된 요소를 이룬다. 이것은 언어 조직에 대하여 선택적 축에 따른 대조성(contrastiveness)의 원리와 결합적 축에 따른 구성 구조(constituent structure)의 원리를 가진다.

(다) 의미는 (나) 의미에 덧붙여 어떤 표현이 지시함으로써 갖게 되는 전달가치를 말한다. (나) 의미가 중심적이고 한정적인 데 비하여 (다) 의미는 상대적인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주변적, 가변적이라는 점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그러하듯이 개방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라) 의미는 어떤 낱말이 배열된 환경에 의하여 획득되는 연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라) 의미는 어떤 낱말이 무엇과 같이 나타나는가 하는 공기성(collocation)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보기 1>

개념적(概念的), 내포적(內包的)
사회적(社會的), 언어적(連語的)

<보기 2>

ㄱ. '부인'이라는 낱말에는 생리적 특성의 [자궁을 가진], 사회적 특성의 [사교적], 문화적 특성의 [모성본능] 및 전형적 특성의 [치마를 입다], 지시물의 추정적 특성의 [변덕스럽다], [감수성이 예민하다]와 같은 의미가 포함된다.

ㄴ. '여자'라는 낱말의 의미는 [+인간], [-남성], [+성숙]으로 규정되어 [+인간], [+남성], [+성숙]으로 규정되는 '남자'와 다르다.

ㄷ. '귀엽다'라는 말은 '귀여운 소녀/동생/병아리/조랑말' 등에서는 정상적이지만 '귀여운 청년/아빠/사자/늑대' 등에서는 어색하다.

ㄹ. 영어에서 말(馬)은 네 가지 경우에서 달리 표현된다. steed(詩的), horse(일반적), nag(속어), gee-gee(유아어).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ㄴ | ㄱ | ㄷ | ㄹ |
| ③ | ㄴ | ㄷ | ㄱ | ㄹ |
| ④ | ㄹ | ㄱ | ㄴ | ㄷ |
| ⑤ | ㄹ | ㄴ | ㄱ | ㄷ |

30.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생각건대, 율(律), 도(度), 양(量), 형(衡)을 한결같이 하는 것은 왕자의 대법이다. 그런데도 도, 양, 형의 무법(無法)이 우리나라보다 심한 데가 없다. 한 성(城) 안이라도 저자마다 같지 않고, 한 고을 안에서도 마을마다 같지 않으며, 한 마을 안에도 집마다 같지 않고, 한 집안에서도 거두고 내는 것이 같지 않아서, 그 전래되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아전들은 이것을 인연해서 간사한 짓을 부리고, 장사치는 의심하고 현혹되어 물자를 유통시키지 못하니, 묘당에 있는 신하는 시가(時價)를 들었으나 사방 실정을 알 수가 없고, 일을 맡은 신하는 수입을 요량해서 지출할 수가 없으며, 감수하는 신하는 문부(文簿)를 상고해서 실수(實數)를 책임지울 수 없다.

(나) 수레를 만드는 것은 동관(冬官)의 직무인데,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수운(水運)하기에 편리한 까닭에 예부터 수레는 없었다. 그러나 풍파에 침몰하기도 하며, 편하게 건너기가 극히 어렵고 채류하는 비용이 많아서 이익이 적다. 그리하여 상업이 흥기되지 못하고 물화도 유통하지 못한다. 나라가 여위고 백성이 가난해지는 것이 모두 수레가 없는 연고이다. 수레의 제작은 모두 다 전궤사(典軌司)에서 제작할 것이다. 공비(工費)를 계상하고 일정한 값을 정해서 백성들에게 값을 바치고 수레를 받아가도록 할 것이며 혹 사사로 만드는 것은 엄금하는 것이 가하다.

(다) 소금을 독점하는 것은 백성의 이(利)를 빼앗고 백성의 먹을 것을 방해하는 것이니 독점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금·은·동·철은 반드시 관에서 채굴함이 마땅하며, 백성에게 허가함은 불가하다.

(라) 직(職)을 농사로 받는 자는 전지를 다스리고, 직을 공장(工匠) 일로 받은 자는 기구(器具)를 다스리며, 장사꾼은 물화(物貨)를, 목자(牧者)는 짐승을, 우자(虞者)는 재목(材木)을, 빈씨(嬪氏)는 베 짜기를 다스려서 각자 그 직으로써 먹을 것을 얻도록 했다. (...) 오직 아홉 가지 직(九職)으로써 만민에게 권해 서로 도와 각자 먹는 것을 얻도록 했을 따름이다.

- ① (가)의 경우 관리가 국가재정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도량형의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 ② (나)의 경우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나)의 경우 수레는 독점적으로 제작·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다)의 경우 한편으로는 국가의 독점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독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⑤ (라)의 경우 계층에 따라 직업을 정함으로써 산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해되는 것이다. 계몽운동도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병전쟁과 비교했을 때, 근대 지향적이기는 해도 구국이념의 성격이 모호했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의병전쟁을 민족운동의 주류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① 1919년 3.1운동의 기본 정신이 잘 표현된 기미독립선언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 선언을 세계 온 나라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크고 바른 도리를 분명히 하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깨우쳐 우리 민족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정당한 권리를 길이 지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9월 11일 일본의 침략을 피해 망명지인 상해에서, 한반도의 강제점령을 부인하고 국내외를 통할·통치하고 항일투쟁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지의 한국의 임시정부들을 통합하여 수립하였다. 초기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을 선포하였는데, 그 첫머리는 “신인일치로 중외 협을 하여 한성에서 기의한 지 30유여 일(有餘日)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 여민(黎民)에게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라고 되어 있다.
- ③ 1923년 진주에서 ‘저울(衡)처럼 평등한[平] 사회를 지향하는 단체(社)란 뜻을 가진 형평사가 창립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된 형평운동은 우리 역사상 평등사회를 이룩하려는 대표적인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백정’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권 존중, 평등 대우를 주창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평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일깨우는 활동이었다.
- ④ 1927~1931년에 국내민족운동을 담당하고 지도했던 민족주의 독립운동세력과 사회주의 독립운동세력이 연합하여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를 창립하였는데, 그 이념은 발기인 대회에서 채택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이라는 강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 ⑤ 조선어학회란 새삼 무엇이뇨. 숨은 신으로서의 ‘한국 국민국가’의 대행기관이자 그 실체였음이 정답이다. 조선어연구회(1921)를 이어받은 조선어학회(1931)는 ‘조선 독립을 위한 실력 신장의 수단’(조선어학회 사건 공판 판결문)이었다. 근대문학이란 무엇이뇨. 국어로 하는 문학의 가리킴이 원칙이다. 국어란 또 무엇이뇨. 국가어의 준말이다. 이 경우 국가란 국민국가를 가리킴이 아닐 수 없다. 곧 문학의 처지에서 보면 조선어학회란 한국의 국민국가의 언어를 관장하는, 국내에서의 실체였다.

33. (가)~(라)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아일랜드와 영국의 복지모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시장 위주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형이다. 이를 위해서 이 모형은 민간의 복지공급을 하나의 규범으로 권장함과 동시에 일시적 시장실패에 대한 공적 책임을 제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제외하고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대상만을 수혜자로 제한하는 공공부문의 잔여적 역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중산층에게는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으로 사적 시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며 정부는 소득 조사를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가) _____

이러한 변화는 적절한 노동동기의 전반적 부재의 문제와 저임금고용의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으로 보인다.

(나) _____ 만일 복지혜택에 노동이 전제된다면 노동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 부양해야 할 아동이 있는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가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 만일 자격조건이 욕구조사에 의해 결정된다면 아마도 복지혜택의 수준은 낮게 책정될 것이며, 그 결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복지 의존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또한 노동을 조건으로 한 급여는 임금감소 압력과 같이 불필요한 외부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_____ 그 가운데 하나는 저소득가구에 복지혜택을 받는 2급시민이라는 신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빈곤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는 위험계층에게 특히 심화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복지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영국에서의 실업 감소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일자리 없는 가정’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다. 가족서비스를 위한 포괄적인 투자 없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애초에 부조를 필요로 하게 만든 원인인 저임금의 덫은 아마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 _____ 만일 복지국가가 중산층에 점점 더 적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면 중산층은 높은 조세부담에 점점 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이제 사적보험을 통해서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복지모형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보 기>

- ㄱ.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 욕구조사에서 노동연계급여로 주요 점이 점차 옮겨가고 있다.
- ㄴ. 자유주의 복지모형의 가장 큰 약점은 사회구성원이 시장으로 빠져나갈수록 정부의 재원조달능력과 효과적인 사회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감소한다는 점이다.
- ㄷ. 사적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강조는 정부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사회양극화 및 여러 가지 이차적 결과를 초래한다.
- ㄹ. 특정대상에게만 한정된 노동을 조건으로 한 복지대책은 전통적 사회보험에 비해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 (가) | (나) | (다) | (라) |
|---|-----|-----|-----|-----|
| ① | ㄱ | ㄴ | ㄷ | ㄹ |
| ② | ㄱ | ㄷ | ㄷ | ㄴ |
| ③ | ㄴ | ㄷ | ㄹ | ㄱ |
| ④ | ㄷ | ㄹ | ㄱ | ㄴ |
| ⑤ | ㄹ | ㄱ | ㄴ | ㄷ |

3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거이론적 접근 방법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의 하나는 연구자가 연구를 시행할 때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없이 백지상태(blank-mindedness) 혹은 판단중지상태(epoché)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거이론적 접근 방법을 다른 귀납적-질적 연구방법과 혼동하면서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현상학적 접근의 인식론적 가정인 ‘사태를 사태 자체’로 보기 위해선 선행지식이 주는 선입견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근거이론적 접근 방법에 그대로 대입하면서 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근거이론적 접근 방법은 실용주의(pragmatism) 및 상징적 상호주의(symbolic interactionism)의 인식론적 배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은 우리 지식의 근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행지식과 경험을 통해 얻은 관찰과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서 온다고 가정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근거이론적 방법은 마치 수메르의 수레바퀴를 발명하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순수하게 자료에서 도출되는 실질이론(substantive theory)과 기존의 연구에 담겨 있는 공식이론(formal theory),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의 도출을 주요한 논리적 작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이론적 논리에서 선행연구나 선행개념 없이 백지상태로 연구에 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비구조적인 연구는 무작위적이고 형체 없는 것으로 전락되어 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근거이론적 방법의 목적이 이론화라고 언명할 때에는 선행연구와 기존의 이론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연구의 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다.

근거이론적 방법은 연구자에게 한 연구를 위해 엄청난 양의 노력과 헌신을 요구한다. 연구의 과정 자체가 선행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적 포화도를 얻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분석 및 코딩 절차를 계속해야 하며, 이 과정은 연구자에게 때론 성가신 것으로 여겨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의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질적 혹은 양적 연구들에 비해 근거이론적 방법은 상대적으로 큰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며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된다. 근거이론적 방법이 추구하는 자료와 이론, 연구자와 연구자 간의 상호관계를 통한 이상적 이론적 민감도(theoretical sensitivity)를 얻기 위해선, 실제 실행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연구과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자료의 양도 역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구자에게 르네상스적인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거이론적 방법은 연구자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되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개별 경험적 연구의 엄밀성보다 그 양적인 측면을 더욱 중요시하는 학문적인 풍토에서, 근거이론적 방법은 어쩌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접근일 수도 있다.

근거이론적 방법이 연구자에게 요구하는 헌신과 노력은 필연적으로 연구의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게 된다. 가령, 특정 연구가 근거이론적 방법의 외피를 쓰고 본 연구의 결과의 엄밀성을 정당화하려는 경우, 심사자나 독자는 연구자가 실제로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과 포화성(saturation)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데이터 분석이나 기술 등에 있어서 반복적인 비교(constant comparison) 등의 기법으로 엄밀성을 추구하였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윤리(ethics)적인 면에 빚대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약 연구자가 근거이론적 방법의 매뉴얼에 따라 제시된 과정을 수행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행에 있어서 연구자의 충실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혹은 단순히 요식적인 것이었는지 등의 요소도 심사자나 독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연구의 신뢰성은 연구자의 윤리적 측면에 기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근거이론적 방법 내에 자의적인 속임수와 태만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음은 주지해야 하는 사실이며, 또 그의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 ① 내용의 전개가 ‘실행상의 어려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의 여부’, ‘연구윤리의 측면’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②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백지상태와 판단중지상태를 강조한다.
- ③ 근거이론적 방법은 개별 경험적 연구의 엄밀성보다는 양적인 측면을 더 중요시한다.
- ④ 근거이론은 연구자의 연구수행 과정의 충실도를 점검하기가 수월하다.
- ⑤ 근거이론적 방법은 선행연구와 기존의 이론에 대한 고려를 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

35. (가)와 (나)의 저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인다고 할 때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4조 2교대란 두 조가 12시간씩 근무하고 맞교대하는 동안 나머지 두 조는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는 쉬고 있던 두 조가 작업에 투입되고 이전에 근무한 조는 쉬는 시스템이다. 간단히 말하면 4일 일하고 4일 쉬는 근무체계다. 4조 2교대제를 선택한 것은 근로자들이었다.

4조 2교대제를 도입함으로써 각각 25퍼센트의 인력 감원 방지 효과와 33퍼센트의 고용 안정 효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근무 체계의 변화가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회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해고 없이 회사를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회사가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떠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노조와 조합원들이 처음에 이 시스템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도 회사가 인건비 부담을 계속 떠안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문 사장과 경영진들은 늘어난 인건비의 부담을 다른 데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4조 2교대제 실시 후 여유시간이 많아지고 조원들끼리 어울릴 시간이 늘다 보니 팀 의식이 생겨서 조끼리 경쟁도 붙었다. 이러한 선의의 경쟁은 자연히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한 노조 간부는 생산성 향상의 또 다른 요인이 직원들의 안정감이라고 말한다.

(나) 브라질 주요 노동단체들은 주 노동시간을 4시간 줄인다면 22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학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세상이 수학적으로만 돌아간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법으로 실업문제가 해결된다면 지구상에 실업자가 없을 것이다.

노조의 주장을 좀 분석해 보자. 만약 노동시간을 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헌법 개정이 현실화됐다고 하자. 그러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브라질의 모든 사업체들이 새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직원의 월급이나 부수 혜택들은 변함없이 종전대로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게 되기 마련이다. 종업원들의 작업

시간이 줄어 새로이 종업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종업원을 더 늘리는 대신 기계화, 자동화를 도입하여 회사 구조를 재편하는 기업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높이려는 시도는 기업주의 전략 앞에 백기를 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주위에 있을 때 회사가 이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 때 고용이 증가한다. 즉 고용이 증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회사가 요구하는 인력이 존재할 경우다. 만약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수혈하기 위해 비숙련 공을 뽑아 연수시켜야 한다면 종업원 한 명당 훈련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으로는 신규채용에 나서기 어렵게 될 것이다

고로 법적 노동시간의 감축은 고용창출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단체교섭을 통해 실질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근로시간 단축의 법제화 노력보다는 협상이 근로자의 뜻을 기업의 구체적인 제반 현실조건과 합치시킬 수 있는 첩경인 것이다. 이것만이 세계 여러 나라는 물론 브라질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지름길이었다.

- ①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브라질의 특수 상황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있다.
- ②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성 향상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
- ③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헌신을 무시하고 있다.
- ④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는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싶어 하는 노동자의 욕구를 무시하고 있다.
- ⑤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는 기업의 핵심적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36.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여기 탐스러운 흰 장미꽃 다발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장미를 보고 한 사람이 “이 장미의 꽃말은 ‘정숙’이야. 그래서 나는 이 꽃을 좋아해.”라고 말했다고 치자. 그 때 이 사람은 이 장미를 장미로서 보기를 그친 것이다. 그의 시선은 장미를 통과하여 그 뒤에 있는 ‘정숙함’이라는 추상적 덕성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흰 장미의 소담스러운 모습이나 은은한 향내에는 관심조차 없다. 마치 우리가 유리창을 통해 밖의 경치를 내다 볼 때 우리의 시선은 유리를 통과하지만 그 유리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과 똑같다. 이 때 장미는 마치 유리창과도 같은 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정숙함’이라는 덕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옆에서, 이 장미의 꽃말에는 아랑곳없이 꽃 자체의 고운 자태와 향기에 감탄했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관심의 대상 즉 목적은 장미꽃일 뿐 그 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그에게 있어서 장미꽃은 그의 시선을 가로막는 불투명성이다. 그의 눈길은 마치 단단한 돌부리에 발이 걸리듯, 그렇게 그 장미꽃에 가서 탁 부딪힌다. 그 장미꽃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멈춰 선다. 이 때 장미꽃은 그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장미는 ‘사물’이 된 것이다. 장미는 원래 사물이 지 않은가 하고 의아해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리의 예를 들어보자. 커피나 홍차를 저은 후 찻순가락을 찻잔

받침에 내려놓을 때 딸각하는 소리가 들린다. 늘 무심히 지나쳐 버렸던 이 소리가 유난히 마음에 파고들며 뭔가 알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을 준다. 나는 머릿속에서 아까 들었던 그 소리를 자꾸만 반추해본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소리에 자꾸만 다시 돌아와, 그 소리의 성질 앞에 멈춰 서서, 그 소리 자체에 매료된다. 평소에 투명했던 그 소리는 지금 불투명하게 되었고, 그것은 사물이 되었다.

이번에는 화폭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생각해 보자. 추상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구상화의 경우에도 화가가 초록, 빨강, 노랑 등의 색깔을 칠하는 것은 단순히 나뭇잎이 초록색이니까, 또는 꽃이 빨간색이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마티스의 빨간 카펫은, 그가 그린 방의 카펫이 실제로 빨간색이어서가 아니다. 만일 그가 현실 속의 어느 방을 그대로 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 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면, 화폭 위의 그 방은 현실의 어느 방을 지시하는 하나의 기호일 것이다. 그러나 화폭 위의 색깔은 전혀 그런 의도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다. 화가는 그 색깔 자체에 매혹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매혹시킨 그 색깔을 내기 위해 고심하며 색 배합을 하고, 그것을 화폭에 옮겼을 것이다. 이 때 색깔은 사물이 되었다.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앞에 와서 머무르는 불투명의 사물이 된 것이다. 사르트르가 말한 ‘물체가 된 색깔(couleur-objet)’이라는 합성어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색깔만이 아니다. 형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모델로 삼은 새나 물고기 혹은 집이 실제로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그림은 그대로 그것들을 형상화한 것은 아니다. 그 대상들을 그대로 옮겨 그린 것이라면 사진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 말은 물론 이 그림들이 사실 속의 물건과 닮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닮고 아니고의 문제는 무의미하다. 이 세상의 어떤 물건을 그림으로 나타내려는 것이 화가의 의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면 화가가 종이 위에 선으로 그린 새나 물고기나 집은 새를, 물고기를, 또는 집을 지시하는 기호가 아니다. 만일 새를 지시하기 위해 새의 그림을 그렸다면 우리는 그 화폭 앞에서 화폭을 유리창처럼 통과하여 그 뒤에 있는 어떤 새의 모습을 연상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화폭을 통과하지 않고 그 앞에 머물러 그 새의 순수한 형태와 색깔에 한없이 감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새의 형태는 사물이 되었다.

물론 이렇게 창조된 ‘색깔-물체’가 화가의 은밀한 경향을 반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말이나 표정이 우리의 분노나 고통, 또는 기쁨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듯이 그렇게 그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기호는 아니다. 가령, 골고다 언덕 위의 하늘을 노란색으로 칠한 틴토레토는 예수의 고뇌를 의미하기 위해, 또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고뇌를 야기하기 위해 이 색깔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가 어떤 고뇌를 느끼며 이 색깔을 칠했다 해도 이 노란색은 고뇌의 기호는 아니고 차라리 ‘사물로 굳어진 고뇌’일 뿐이다. 만일 화가가 또는 음악가가 자신의 어떤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했다면 이때 색과 소리는 완전히 의사소통 수단과 똑같은 기능의 기호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미 예술이 아니라 도로 표지판이나 광고 차원의 실용적인 기술일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말해본다면 예술가는 색깔이나 소리를 표현 기호로 보지 않고 사물로 보는 사람이다.

<보 기>

- ㄱ. 시(詩) 속에 표현된 시인의 감정은 사물이 되어 불투명성을 갖고 있다.
- ㄴ. 시인에게 시적 언어란 투명한 도구이며, 이 도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소통이다.
- ㄷ. 화가는 그의 화폭에 기호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을 창조하기를 원한다.
- ㄹ. 예술가에게 있어서는 색깔과 소리, 인간과 신, 사랑과 미움 등이 모두 사물이 된다.
- ㅁ. 시인은 단지 문장을 하나 썼을 뿐이지만 그 문장은 시인의 가장 고귀한 정신세계의 표현이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 ㅁ

37. (가)~(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통적으로 이른바 ‘황금률(黃金律)’로 알려진 올바른 행위를 위한 형식적 준칙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극적인 형태의 것과 적극적인 형태의 것이 있다. 동서양의 많은 예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논어(論語)와 성경(聖經)에 전하는 것을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소극적 황금률로 논어에서는 자공(子貢)이 “한마디로 평생 행함직한 말이 있습니까?”라고 묻은 데 대하여 공자가 “오직 서(恕)함이니,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라고 한 것을 찾을 수 있고, 성경에서는 “(가)_____”고 하였다. 적극적 황금률로 논어에는 “대저 인(仁)의 덕을 갖춘 사람은 자기가 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세우고, 자기가 달(達)하고 싶으면 먼저 남을 달(達)하게 하여서, 능히 가까운 데서 취하여 남에 견주어 보는 것, 이것이 인(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였으며, 성경에는 “그러므로 (나)_____ 이것이 곧 율법 이요 예언이니라.” 하였다.

이처럼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에 의해서 높이 평가되어 제 시되었던 사회윤리의 중요원리인 황금률에 관한 도덕철학적 및 법철학적 논란에 관해서는 기왕의 연구가 있으므로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원리로서, 특히 규정적(規整的) 법원리로서 지상적(地上的) 삶의 차원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소극적 황금률이라는 사실이다. 일찍이 크리스티안 토마지우스(1665-1728)가 그의 자연법적 의무론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내적(內的) 의무[honestum]를 “(다)_____”로, 다른 동료시민들에 대한 내적(內的) 사회적 의무[decorum]를 “(라)_____”로, 법적 강제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외적(外的) 의무[iustum]를 “(마)_____”로 정식화했던 것도 바로 이 점을 인식한 소이(所以)일 것이다.

- ① (가) - 남이 네게 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너도 언젠가 남에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 ② (나) -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도 또한 그들에게 해주어라.
- ③ (다) - 네가 타인들이 그들 자신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는 그것을 먼저 네 자신에게 행하라.
- ④ (라) - 네가 타인들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라.
- ⑤ (마) - 너 자신에게 행해지기를 원하는 바의 것을 너는 타인에게 행하라.

38.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촘스키의 관점에서 문법은 언어능력 모형이다. 여기서 언어능력은 불규칙성, 착오, 변이형과는 먼 이상적인 언어지식이다. 여기에 카츠는 언어 사용 맥락과는 관계가 없는 이상화를 추가시켰다. 화용론이 언어 사용의 상황 맥락과 관계가 있는 한 화용론은 정의상 언어능력의 일부가 아니며 문법적 기술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문법 기술은 단어의 모든 의미에 대한 상술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언어 사용의 맥락 역시 단어 의미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감탄사 등 일부 단어의 의미는 맥락과 독립하여 설명될 수 없다.

(나) 언어능력은 모국어에 대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지식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언어수행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언어를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능력이 교향곡 악보와 같이 추상적인 대상의 체계라면, 언어수행은 교향곡의 연주에 해당한다. 교향곡의 연주가 교향곡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되는 것과 같이 언어수행 역시 언어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탐구됨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 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다. 촘스키가 언어를 언어 사용, 언어 사용자와 언어 기능을 떠나서 추상적인 장치 또는 심리적 능력으로 다루는 데 대한 반발로 생성의미론자들은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당량의 철학적인 사고에 매혹되었다.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중요한 철학적 개념은 언어철학에서 직접 도출되고 있다. 미국 언어학에서 이처럼 넓은 영역이 설정되자 화용론은 그 자신의 생명을 갖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동기는 각 언어의 문법, 음운, 의미에 대한 지식이 증가됨에 따라 언어 사용 맥락, 즉 화맥에 의해서만이 자연스럽게 기술될 수 있는 특정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라) 언어학의 목표는 우리의 언어능력의 기본이 되는 문장의 적격성에 대한 직관을 파악함으로써 언어이론과 언어습득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특정 언어의 문법을 연구함으로써 언어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여기서 한 언어의 문법은 그 언어의 일반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능력의 모형을 말한다. 촘스키에 따르면 언어능력의 놀라운 점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 친숙한 문장뿐만 아니라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발화에 대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주) 화용론: 말하는 이, 듣는 이, 시간, 장소 따위로 구성되는 맥락과 관련하여 문장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의미론의 한 분야

- ① (가)의 관점에서 완전한 문법 기술을 위해서는 추상적인 언어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나)에 의하면 언어능력은 건축설계도, 언어수행은 실제 건축물에 비유할 수 있다.
- ③ (라)의 관점에서 언어 연구의 주요 대상은 언어능력이며, 언어능력은 언어습득의 현상에 대해 설명력을 가진다.
- ④ (가), (다)는 언어 사용 맥락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언어 분석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⑤ (나), (라)에 근거할 때 언어능력의 완성은 이전에 들었던 문장의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다.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
정답표(언어논리)

| 가 형 | | | |
|-----|---|-----|---|
| 문1 | 5 | 문21 | 5 |
| 문2 | 3 | 문22 | 3 |
| 문3 | 1 | 문23 | 2 |
| 문4 | 5 | 문24 | 5 |
| 문5 | 2 | 문25 | 4 |
| 문6 | 3 | 문26 | 1 |
| 문7 | 4 | 문27 | 4 |
| 문8 | 3 | 문28 | 1 |
| 문9 | 5 | 문29 | 5 |
| 문10 | 2 | 문30 | 5 |
| 문11 | 5 | 문31 | 1 |
| 문12 | 1 | 문32 | 3 |
| 문13 | 2 | 문33 | 2 |
| 문14 | 4 | 문34 | 2 |
| 문15 | 1 | 문35 | 2 |
| 문16 | 3 | 문36 | 3 |
| 문17 | 3 | 문37 | 5 |
| 문18 | 2 | 문38 | 5 |
| 문19 | 4 | 문39 | 1 |
| 문20 | 3 | 문40 | 4 |

| 다 형 | | | |
|-----|---|-----|---|
| 문1 | 3 | 문21 | 5 |
| 문2 | 5 | 문22 | 3 |
| 문3 | 2 | 문23 | 2 |
| 문4 | 5 | 문24 | 2 |
| 문5 | 1 | 문25 | 3 |
| 문6 | 2 | 문26 | 5 |
| 문7 | 4 | 문27 | 5 |
| 문8 | 1 | 문28 | 4 |
| 문9 | 5 | 문29 | 1 |
| 문10 | 3 | 문30 | 2 |
| 문11 | 1 | 문31 | 5 |
| 문12 | 5 | 문32 | 4 |
| 문13 | 2 | 문33 | 1 |
| 문14 | 3 | 문34 | 1 |
| 문15 | 4 | 문35 | 3 |
| 문16 | 3 | 문36 | 2 |
| 문17 | 3 | 문37 | 5 |
| 문18 | 2 | 문38 | 5 |
| 문19 | 4 | 문39 | 1 |
| 문20 | 3 | 문40 | 4 |

언어논리영역

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스튜어트 홀의 근대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권력은 분할되어야 하고, 정부에의 참여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대표성은 광범해야 하고, 국가권력은 세속적이어야” 한다. 이런 개념 규정에 의거하자면, 근대 국가에서 여성은 제대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셈이다.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포함한 제반 정치적, 법적 권리가 제대로 허용되지 않았고, 여성의 재생산과 몸에 관한 권리, 여성의 성은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제되었다. 또 여성의 노동력은 국가에 의해 차별적으로 이용되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를 통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기제는 여성을 국가의 이등시민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점에서 근대국가는 성차별적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그리고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여성운동은 늘 국가적 과제에 의해 선점되었다. 여성의 무조국성을 설파하거나 국제주의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은 그들이 처한 특유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그 구체적인 경로가 결정되었다. 물론 페미니즘 언론과 조직화된 단체 활동을 통해 여성은 국가와의 관계를 재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런 여성의 저항은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중국에는 자본의 이해관계, 시민사회의 통제, 사회주의 정당과 노동운동의 영향력 정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여성의 상대적 역량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 내부에 상존했던 견해차, 즉 평등주의적 이념을 지지하는 집단과 영원한 여성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집단 사이의 분열은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반감시켰다. 이는 모성보호나 여성노동 혹은 가사노동과 같은 여성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서 여성을 ‘시민’으로 혹은 ‘아내와 어머니’로 보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서양의 근대국가에서 여성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여성운동의 지속적인 투쟁,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대, 보다 양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의 이해관계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의 잠재적 영향력 확대를 통한 복잡한 상호관계를 거치는 과정의 산물이었다. 한편 20세기로의 전환기에 현대사가 시작되면서 새로이 나타난 복지국가 혹은 사회국가 모델은 여성과 국가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여성영역으로 간주되던 재생산 부분이 공공영역으로 바뀌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확대되었다. 이제 여성의 생활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여성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시민, 복지서비스의 수혜자 및 소비자, 그리고 국가 부문의 고용인으로서 삼중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이는 재생산의 담당자이자 노동력 제공자인 여성 존재의 필요성을 국가가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 ① 근대국가에서 여성 지위의 점진적인 향상은 권력의 상호 견제 원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 ② 여성운동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시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었다.

- ③ 근대국가는 성에 따른 활동 영역의 분리로 산업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 ④ 복지국가 모델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삼중적 지위의 성취는 페미니즘 운동만이 아닌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 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를 통해 남성은 사적 영역에서 배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2.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가) 사람의 삶은 정신(神)에서 비롯되며 형체(形)에 의지한다. 그런데 정신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고갈되고, 형체를 지나치게 혹사하면 피폐해진다. 정신과 형체가 분리되면 죽는다. 이렇게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고, 한 번 분리된 정신과 형체는 다시 결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형신(形神)을 중하게 여긴다. 이를 통해 볼 때, 정신은 생명의 근본이며, 형체는 생명의 도구이다.
- (나) 정신이 형체에 머무는 것은, 비유컨대 불이 초를 사르는 것과 같다. 서로 잘 부축하고 지지하여, 불이 타들어가면서 초를 녹여 초가 다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초가 없다면 불 역시 허공에서 홀로 타오를 수 없고, 또한 불똥을 튀길 수도 없다. 불똥이 튀는 것은 사람이 늙는 것과 같다. 이가 허물고 머리가 희며 살과 피부가 메마르면, 정신이 형체를 윤택하게 하면서 몸의 안팎에 두루 미치지 못하니 결국 기(氣)가 흩어져 죽게 된다. 이는 촛불과 초가 함께 소진하는 것과 같다.
- (다) 정신의 본바탕(형체)에 대한 관계는, 날카로움의 칼에 대한 관계와 같다. 형체의 작용에 대한 관계는, 칼의 날카로움에 대한 관계와 같다. ‘날카로움’의 이름은 ‘칼’이 아니고, ‘칼’의 이름은 ‘날카로움’이 아니다. 하지만 날카로움을 버리면 칼이 없고, 칼을 버리면 날카로움이 없다.
- (라) 장자(莊子)는 아내가 죽자 곡을 하기는커녕 북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조문 온 친구가 이를 나무라자, 장자는 “기운이 변화해 형체가 생겼고, 형체가 변화해 삶이 생겼다. 그런 아내가 지금 다시 변화해 죽어갔다. 이는 네 계절이 운행하는 것과도 같은 변화로, 그 사람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대한 방 안에 편안히 잠들었다.”라고 하였다.

- ① 정신이 생명의 내적이고 무형적인 심층으로서 ‘근본’(本)이라면, 형체(육체)는 생명의 외적이고 유형적인 표층으로서 ‘도구’(具)의 속성이 있다.
- ② 정신과 육체는 모두 기(氣)가 모인 것이다. 기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므로 “천하를 통틀어 하나의 기운일 뿐이다.”라고 한다.
- ③ 정신과 육체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며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실존할 수 없다.
- ④ 정신과 육체는 대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⑤ 육체가 ‘본바탕’(質)이라면 정신은 그 ‘작용’(用)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3. 다음 글의 논지와 가장 부합하는 것은?

개인들은 결정적인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자기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일 수 있다. 사람들은 본래 그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동정심과 헤아리는 마음을 가졌다. 그 동정과 헤아림의 폭은 현명한 사회 교육에 의해서 더욱 넓어질 수 있다. 사람들의 이성적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감에 민감하게 하며 정의감은 교육적 훈련을 통하여 순화된다. 따라서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성취하기가 더욱 어렵다. 모든 인간 집단에는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지도할 만한 이성이 보다 적고, 자기 초월의 능력이 보다 적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릴 능력이 보다 적어서, 더 많은 무제한의 이기심이 나타난다.

사회의 도덕이 개인의 도덕보다 못한 것은, 일부는 자연적 충동 - 자연적 충동에 의해서 사회가 응집(凝集)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 과 견줄만한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이룩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단지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로 구성된 집단적 이기심의 나타남이기도 하다. 개인적 이기심은 개별적으로 점잖게 나타날 때보다 연합해서 공동의 충동으로 나타날 때에 더욱 생생하게 되고, 보다 더 누적적(累積的)인 효과를 가져온다.

- ① 개인의 이기심은 개인적 차원의 합리성의 발달이나 종교적인 감동을 받은 선의(goodwill)의 성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견제되어 갈 것이다. 모든 인간사회 및 집단들 사이의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데 이 과정이 지속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 ② 1985년 덴버팀과 샌프란시스코팀 간의 미식축구 경기 도중 한 개의 눈몽치가 관중석으로부터 날아왔다. 그 눈몽치는 선수들을 혼란시켰으며 샌프란시스코팀은 공을 실축했고 덴버팀이 게임을 이겼다. 관중석의 흥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몽치를 던졌던 젊은 남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훗날 말했다.
- ③ 나무를 보라. 여린 가지와 연한 잎은 쪽쪽 위를 향해 뻗어 오르지만,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밑동으로 처진다.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위로 추대되지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결국 끌려 내려오기 마련이다.
- ④ 정성을 다하여 정치에 힘쓰시고 신하들을 정책으로 독려하시며,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각자 스스로 삼가고 법도를 삼가 준행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일들이 어찌 쉽게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차례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하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오직 자기를 이기고 사사로운 뜻을 제거하는 학문에 더욱 뜻을 두시는 것입니다. 수신(修身)을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⑤ 인간지능의 발달은 자동적으로 사회부정을 없앨 것이다. 이성의 시대는 사회적 부정과 중세적 전통 및 미신들이 상호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하나의 제거는 다른 것의 폐기를 초래할 것은 당연하다. 이성의 시대의 가장 열정적인 사도 중의 한 사람인 콩도르세(Condorcet)는 교육의 보편화와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상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교는 차이를 만드는가? 학교 또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는 '학교 효과(school effect)' 연구는 교육사회학의 오래된 연구주제이다. 미국의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콜만(J. S. Coleman)과 동료 연구진들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1996)는 학업성취에 미치는 학교 효과에 관한 체계적 연구의 시발이 되었다. 콜만 등은 주로 소수민족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들이 얼마나 불평등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평등한 조건들이 교육기회의 평등에 위배되며, 불평등한 학교자원이 노동계층 아동들로 하여금 중류계층 아동들에 비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없게 만드는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이들은 4,000개 학교의 625,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100여 개의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사회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 보고서가 논쟁의 핵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연구의 가설이었던 학교시설과 교사봉급 등 교육투자경비의 불평등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학교 효과)는 오히려 매우 미약하고, 그 대신 학생의 가정배경과 동료집단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학생의 가정배경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업성취의 차이는 '학교 간', 즉 학교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학생들 간'의 차이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오히려 학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극히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콜만 보고서의 결론은 "학교는 가정배경과 독립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으며, 학교 효과는 기껏해야 약 10% 정도의 영향만을 미침으로써 학교는 별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의 가정배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70년대에는 사회계층과 교육 사이의 관련성 논의에서 사회구조 그 자체를 비판하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노동계층 자녀들은 교육에 의하여 그 계층의 특성을 '학습'하게 되고 학교가 노동시장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고 있으며 현존하는 사회의 불평등을 그대로 영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후속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 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학교의 영향력이 가정배경의 영향력보다 크다.
- ② 학교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학교의 존재가치가 부정되어야 한다.
- ③ 명문학교 진학을 위하여 이사를 가는 것은 학업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 ④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 ⑤ 결과적으로 학교시설과 교사의 질이 높은 고등학교가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을 진학시킬 것이다.

5.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구전에서 기록으로’의 변화가 갖는 문화사적 의미를 검토할 때, 이제는 고전이 되어 버린 에른스트 포스너의 『고대 세계의 아카이브즈』는 우리에게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서양의 고대 문명에서 기록학의 원형을 발견했다. ‘자원과 인간, 인간이 만든 설비에 대한 통제’라는 현실적 필요가 기록물의 생산과 축적을 자극했으며, 이러한 필요가 인류 역사에 상존하는 한, ‘기록 생산의 상수(常數)들’도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포스너는 주로 통치상의 필요라는 효용론적 관점에서 기록 생산의 상수들을 추출했지만, 여기에는 기록 생산과 활용의 비효용론적인 변수들도 추가되어야 한다. 문맹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 필요와 효용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상징적’ 요인들을 다수 포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저린드 토마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록이 일차적으로는 구전 커뮤니케이션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기록은 제식(祭式)이나 장식 같은 비문자적 용도들 역시 가지고 있었음에 주목했다. 제식용이나 장식용 기록의 범주에는 위인을 기리기 위한 기록, 용감하거나 거룩한 행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록, 달력, 심지어 주문(呪文)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

포스너의 ‘상수들’에 몇 가지 ‘변수들’을 더하면, 우리는 문맹이 지배적인 사회조건에서 기록의 용도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보고하듯이, 문맹률이 높고 인구의 대다수가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는 사회조건에서 기록은 그 자체로 존중되며 심지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경향도 있다. 인구의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기록문화에 속한 자들은 기록에 의해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 문화에 속하지 못한 자들의 기록에 대한 신성화에 편승해서 폐쇄적 집단으로 유지된다. 기록문화의 폐쇄성은 구전문화에 속한 대중의 일상에 깊숙이, 그리고 오랫동안 뿌리내린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그 폐쇄된 기록문화의 이중성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것은 구전문화로부터 격리된 섬이었지만, 동시에 구전문화의 대해(大海)에 갇힌 섬이기도 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문맹인 대중의 눈을 신성한 비밀과 빛으로 가렸지만, 그 내부의 변화는 구전문화의 특성에 의존하기도 했다는 뜻이다. 전통 사회의 엘리트층은 기록문화의 건너편에서(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정치활동에서) 구전에 필요한 기술(예를 들어 기억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들 스스로도 기록보다 구전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통로를 거쳐 구전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록문화에도 침투할 수 있었다. 기억에 의존하는 구술의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바뀌는 것처럼, 기록문화 내의 위조와 변조는 의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술문화의 기억 의존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보 기>

- ㄱ. 전통 사회에서 지배 엘리트는 기록문화를 독점하면서도 구전문화적 특성을 유지했다.
- ㄴ. 구전문화 시기에 ‘기록 생산의 변수들’은 지배자의 통치에 따른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 ㄷ. 전통 사회의 엘리트층이 개발한 기억술과 필기술은 구전문화에서 기록문화로의 변이를 완성시켰다.
- ㄹ. 에른스트 포스너의 ‘기록 생산의 상수들’이 포괄하는 범주에 신정일치제 사회에서 지배자의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문이 포함된다.

- ① ㄱ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ㄷ, ㄹ

6.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아편전쟁으로부터 약 100년, 청조 붕괴로부터도 약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1949년 10월 1일에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다. 이날 국가지도자들은 천안문 단상에 나란히 앉았고, 약 30만 명의 시민과 군인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들었다. 린보취 중앙인민정부 비서장이 기념식전의 개막을 선포하자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이 연주되었고, 정부주석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엄숙하게 선언했다. 그러면 새로운 국가체제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최고권력기관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설치할 것이 규정되었지만 당시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가 이를 대신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 회의는 정식 대표와 후보를 합해 각 정당 대표 165명, 지구 대표 116명, 군 대표 71명, 인민단체 대표 235명, 특별 초청 대표 75명, 합계 66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중요 의제를 토의하고 결정했다. 그리고 아직 헌법을 제정하지 못해 정협의 「공동강령」이 헌법을 대신했다.

정권의 구성 측면을 살펴보면 해방구에서 채택하고 있던 ‘3·3제’(공산당·좌파·중간파가 각각 1/3의 비율로 의석을 차지하는 방식)의 연장이었다. 예컨대 정협의 각 정당 정식 대표 142명 가운데 공산당 대표는 불과 16명이었는데, 이 숫자는 국민당 혁명위원회, 민주동맹과 같았다. 중앙정부에도 비공산당계 지도자가 부주석 6명 가운데 3명, 정부위원 56명 가운데 29명, 정무원(국무원의 전신)의 부총리 4명 가운데 2명, 장관에 해당하는 정무원의 부장·위원회 주임 33명 가운데 15명으로 각각 50% 전후를 차지했다.

<보 기>

- ㄱ. 1949년의 시점에서 중국은 국가체제가 확립되었고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 ㄴ. 건국 당시 정권의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ㄷ. 비공산당계 지도자의 정권참여는 단지 민주적이라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걸치레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 ㄹ. 건국 당시 중국 정권은 여러 당파·단체가 협동한 통일전선의 성격이 강했다.
- ㅁ. 건국 당시 중국의 정치체제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12. (가)~(라)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문제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문화산업은 탈(脫)이데올로기적 중립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이데올로기를 숭상하고 추구하고 있다. 그런 한에서 겉으로는 지배계급이나 체제의 정당화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게 가치중립적인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기실 문화산업은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나 시장 이데올로기, 지배계급의 이념을 암묵적으로 대중들에게 끊임 없이 유포하고 세뇌시켜 나가고 있다.
- (나) 문화산업은 자극적이며 유희적인 오락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줌으로써 표면적으로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 줄 정신적 해소처(解消處)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러한 유희적 공간의 상시적 공급을 통해 마치 현실 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바람직한 사회인 양 간주하게 만들면서, 사회적 현안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무관심을 유발토록 조장하고 특정 이념체계에 순응하도록 조종·통제하는 문화적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 (다) 문화산업은 개별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땀 흘려 성실하게 노동함으로써 각자 자신의 소박한 꿈일망정 실현하고자 애쓰기보다는, 우연적인 요행이나 일확천금 혹은 백마탄 왕자를 꿈꾸고 바라는 삶의 방식을 선호하고 추구토록 그 계기 및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영화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마치 현실의 사회에서도 가능한 것인 양 오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라) 문화산업은 대중들로 하여금 일체의 비판적 사유나 성찰적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문화상품을 통해 대중들의 의식을 규제·제어함으로써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삶'을 조장하고 있다. "문화상품에 내재해 있는 속성은, 제작물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첩성과 관찰력 그리고 상당한 사전지식을 요구하지만, 관객으로 하여금 재빨리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는 데 놓여 있다."

<보 기>

ㄱ. 디즈니 만화영화에 출현하고 있는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내면적 고민이나 갈등을 겪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나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현실에 대해 치열한 철학적 성찰이나 각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디즈니 만화영화 몇몇에서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이나 고민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기는 하다. 가령 「미녀와 야수」에서는 악인 개스통 같은 적대적 인물과 주인공 사이에 긴장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러한 악인들은 간단히 제거되어 사라져 버리고 마는 존재에 머무는 까닭에, 그러한 긴장 구도 속에 위치한 주인공의 내적 세계에서는 그 어떤 진지하고 치열한 철학적 사유나 자각, 변민이나 고민의 흔적은 발견되기 어렵다. 동시에 거기에는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초래하고 있는, 그들이 받을 던고 살아가는 현실 세상의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비판적 통찰도 없다.

- ㄴ. 가령 장편 만화영화 「인어공주」 속의 여주인공 아리엘에게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행복한 대가가 주어지는 내용으로 결말이 맺어지고 있다. 이는 디즈니 만화영화를 보고 즐기는 아이들에게, 인생이나 현실의 삶은 아무런 고통이나 희생, 노력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으며, 근면함과 애씀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저절로 주어질 수 있다는 '왜곡된 인생관'을 심어줄 수 있다. 동시에 삶이나 인생에 대한 진지한 반성적 태도는 마치 복잡하고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간주토록 하면서, 오직 쾌락과 유희만을 쫓는 삶을 행복한 삶과 동일시하게끔 만드는 '뒤틀린 행복관'을 아이들에게 조장하기 쉽다.
- ㄷ. 디즈니 만화영화는 기존의 동화를 만화영화로 만드는 과정에서 본래 동화가 갖고 있던 시련의 극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타인을 위한 고통의 감수와 희생 등의 교훈적인 내용을 상당 정도 제거한 채, '전적으로 행복증적인 도취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디즈니 만화영화 속에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빚어지는 온갖 고통이나 비극, 사회적 약자의 차별과 아픔, 소외된 삶에 대한 실존적 고민 등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사이비 순수함과 오락성에 덧붙여진 '유희적 행복'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그에 따라 디즈니 만화영화는,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자본주의 체제를 대안 없는 바람직한 사회체제로 승인하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자본주의적 상품사회를 마치 이상적이며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사회체제로 미화하고 있다.
- ㄹ. 가령 「도날드 덕」과 같은 디즈니 만화영화에서, 돈 많은 자본가는 다수의 약한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으로 결코 묘사되지 않으며, 늘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자로서 친절하고 교양 있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가난한 자를 구원하고 돕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디즈니 만화영화를 즐겨보는 아이들은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여 마치 영화 속에서의 일이 현실에서도 실제 그런 것인 양 받아들여지게 된다. 곧 강자와 부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행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나 착취, 차별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현실 세계는 선한 부자들이 가난한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자 애쓰는, 아무런 갈등이나 대립이 없는 사회로 아이들에게 오인된다. 이런 면에서 디즈니 만화영화는 현실사회의 실상을 왜곡하고 기만하는 이념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배계급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이념을 우리 아이들의 의식구조에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세뇌하고 있는 것이다.

- ① (가) - ㄱ (나) - ㄴ (다) - ㄷ (라) - ㄹ
- ② (가) - ㄴ (나) - ㄷ (다) - ㄹ (라) - ㄱ
- ③ (가) - ㄹ (나) - ㄷ (다) - ㄱ (라) - ㄴ
- ④ (가) - ㄷ (나) - ㄹ (다) - ㄱ (라) - ㄴ
- ⑤ (가) - ㄹ (나) - ㄷ (다) - ㄴ (라) - ㄱ

13. 다음 글의 논리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활발한 사변과 무기력한 실제의 대조라는 17세기 유럽 교육 전반의 특징은 그 다음 18세기에 와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그만 마을 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교육기관이 쇠퇴와 타락을 나타내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와 독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비교적 운이 좋은 사람들도 대다수는 최악의 조건 하에서 교육을 받았다.

(나) 이들을 가르친 교사들은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무식하였으며, 교사로서 내세울 만한 자격이라고는 교직 이외의 어떤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다는 것 정도였다. 학교를 운영하는 일은 대부분의 경우, 다른 장사에서 벌어들이는 빠듯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으며, 학과 공부는 교사의 살림집이나 가게에서, 일상적인 집안 일이나 장사 일과 함께, 그 틈을 타서 이루어졌다. 심지어 별도의 교실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도 학생들은 진도에 따라 등급별로 반을 나눈다든지 하는 특별한 조치가 없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배웠다. 학교에서 가르친 교과목은 대체로 3R - 읽기, 쓰기, 종교 - 이었으며, 보통의 3R에 들어가는 산수(수학)는 교사에게 너무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다) 마치 이 모든 참상의 대미를 장식하기라도 하듯이, 유럽 전역에 걸쳐 대학은 거의 예외없이 지성의 중심지라는 높은 자리로부터 밀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18세기가 지나가는 동안 파리나 옥스퍼드와 같이 오랜 전통을 가진 대학은 그 긴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침체의 늪에 빠졌으며, 심지어 새로 생긴 대학들조차도 대다수가 허약하고 무기력하며, 예컨대 라이프니츠와 같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대학과 관련을 맺기를 꺼렸다.

(라) 그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이미 틀이 잡힌 학교들이 전통에 따라 부득이 가르치고 있던 고전적 교육과정은 라틴어가 구어(口語)나 문어(文語)로 살아 있었던 당시에 그것이 가지고 있었던 매력과 위세를 잃어버리고 당대의 현실적 필요와는 어이없이 동떨어져 있었다. 예컨대 1762년에 프랑스 방방곡곡에서 올라온 예수회 학교의 불모성에 대한 불평이나, 1795년에 영국의 대심원 판사 케니온이 문법학교에 대해서 퍼부은 비난 - 네 벽을 둘러보아도 공부하는 사람은 없고, 봉급이나 기부금을 받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학교 - 중의 어느 것을 들어 보더라도 학교가 빠진 처참한 지경을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다.

(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실한 교육도 불과 몇 년 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아이의 교육은 보통 길어야 열살이나 열한 살이 되면 끝이 났다. 문법학교의 교육도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었다. 여기저기에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이 더러 있어서 학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교사의 일에 대한 보수는 어디에서나 극도로 인색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교사의 질과 교육의 질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어 갔다.

- ① (가) - (나) - (라) - (다) - (마)
- ② (가) - (나) - (마) - (라) - (다)
- ③ (가) - (마) - (나) - (다) - (라)
- ④ (나) - (마) - (라) - (가) - (다)
- ⑤ (다) - (가) - (마) - (라) - (나)

14. 다음 <보기>에서 동일한 종류의 논증을 포함하고 있는 것끼리 묶은 것은?

— < 보 기 > —

ㄱ. 문명화된 모든 사회에서의 생활은 규칙에 의해서 지배 받는다. 규칙 없이 사는 사람이나 자기들이 가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마음의 평정도 미래에 대한 이지적 계획도 불가능하다. 사회를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회도 효과적이고 어느 정도 안정된 정부를 갖지 않고는 정말로 문명화될 수 없다.

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는 지주(地主)와 농부와 노동자라는 세 가지 성격을 한 몸에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생산물은 그에게 지주의 지대와 농부의 이익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ㄷ. 나라의 상태로 보아, 사람들의 습관으로 보아, 또 그 점에 대해 우리가 겪어온 경험으로 보아, 직접 과세에 의해 아주 많은 금액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하다. 세법의 확대는 언제나 효과가 없었고, 새로운 강제 징수 방법은 시도될 때마다 실패하였고, 대중의 기대는 늘 똑같이 실망으로 끝났고, 국고는 텅 빈 채로 있어왔을 뿐이다.

ㄹ. 그러면 왜 원숭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인가? 왜 원숭이는 커다란 고통의 힘에 의해서 귀먹은 병어리가 하는 것 - 발음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동작 - 을 결국 흉내 낼 수 없겠는가? 원숭이의 말하는 기관이 아무리 훈련을 해도 똑똑한 발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는 감히 판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원숭이와 인간 사이의 커다란 유사성 때문에 그리고 원숭이만큼 현저하게 그 외부기관이 인간과 유사한 동물은 없기 때문에, 만약 원숭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나는 놀랄 것이다.

- ① ㄱ, ㄴ — ㄷ, ㄹ
- ② ㄱ, ㄷ — ㄴ, ㄹ
- ③ ㄱ, ㄹ — ㄴ, ㄷ
- ④ ㄱ, ㄴ, ㄹ — ㄷ
- ⑤ ㄱ — ㄴ, ㄷ, ㄹ

19. 다음 글에 나타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일정한 양의 잠재적 자본을 갖고 있다. 인간은 유년기, 학령기 및 초기 직장생활을 지나면서 타고난 자본을 더욱 증가시켜 간다. 그리고 학습이나 훈련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거나 낡아서 활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그 자본의 약화 또는 퇴화를 맛보게 된다.

인간자본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솔츠(T. Schultz)는 교육을 증가된 배당금의 형태로 미래에 되돌려 받을 인간자본에의 투자로 보면서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인간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학력에 따른 수입의 차이는 교육에 의한 지식과 기술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인간자본론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국가의 경제적 발전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도 적용되었다. 기업가에게는 투자로서의 교육이 매력적인 구호가 되었고, 대학 교수나 연구자들에게는 그들의 활동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정치가들에게는 교육기회의 민주화에 대한 지지로 보였으며, 교육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보수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가 확대되리라는 기대를 주었다.

또한 인간자본론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이나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논의에도 응용되었다. 학교교육은 정보처리능력을 증진시키며,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고 새로운 상황이 계속 생겨나는 환경에서 문제해결능력을 높여주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는 개인적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노동력의 기초를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폭넓은 장기간의 학업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유인으로써 교육받은 사람에게 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인간자본론은 기술기능이론과 일치되는 점이 많았다. 두 이론 모두 교육의 기술적 기능과 인간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한다. 낭비의 배제에 대한 관심은 기회균등의 자유주의적 개념을 뒷받침해 준다. 인간자본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육적 투자가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정치인 또는 정책결정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한 설득을 위해 과학적 연구들이 뒷받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자본론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적용되어 ‘교육과 국가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 ① 교육과 사회구성원을 국가와 사회 발전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이다. 교육 본연의 목적과 인간의 존엄성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다.
- ② 교육적 투자가 사람들의 인지적 능력을 높인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같은 인지적 능력이 교육과 수입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 ③ 경제적 발전을 표면적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실체는 노동계층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 ④ 사회구성원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것을 산출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발전에 공헌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 ⑤ 학력과 직업은 당연하게 일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20. 다음 글은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다음 토론자들 가운데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오늘날 시는 마땅히 두보(杜甫)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모든 시인들의 시 중에서 두보의 시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경』에 있는 시 3백 편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경』에 있는 모든 시는 충신, 효자, 열녀, 진실한 벗들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의 발로로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내용이 아니면 그런 시는 시가 아니며,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을 분개하는 내용이 아니면 시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하고 미운 것을 밉다 하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지 않은 내용의 시를 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뜻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고, 학문은 설익고, 삶의 대도(大道)를 아직 배우지 못하고, 위정자를 도와 민중에게 혜택을 주려는 마음가짐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시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니, 너도 그 점에 힘쓰기 바란다.

두보의 시는 역사적 사건을 시에 인용하는 데 있어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스스로 지어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 출처가 있으니 두보야말로 시성(詩聖)이 아니겠느냐? 한유(韓愈)의 시는 글자 배열법을 모두 출처가 있게 하였으나 어구는 스스로 많이 지어냈으니 그분은 바로 시의 대현(大賢)이 된다. 소동파(蘇東坡)의 시는 구절마다 역사적 사실을 인용했는데, 인용한 태가 나고 흔적이 있어 얼핏 보아서는 의미를 알아볼 수도 없으나, 이리저리 살펴보아 인용한 출처를 캐내고 나서야 그 의미를 겨우 알아낼 수 있으니, 그는 시인으로서 박사(博士)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소동파의 시로 말하면, 우리 삼부자의 재주로써 죽을 때까지 시에만 전념한다면 그 근처쯤 갈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태어나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그따위 짓이나 하고 있겠느냐? 그러나 시에 역사적 사실을 전혀 인용하지 아니하고 음풍영월(吟風詠月)이나 하고 장구나 두고 술먹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시를 짓는다면 이거야말로 벽지의 시골 서너 집 모여 사는 촌 선비의 시에 지나지 않는다. 차후로 시를 지을 때는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는 일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라.

- ① 갑: 문학이란 모름지기 삶의 방편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려 독자들에게 삶의 예지(叡智)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위 글에 담긴 문학관의 요체인 듯하군요.
- ② 을: 문학이란 사람들이 선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돕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효용성을 강조한 생각이기도 하겠지요.
- ③ 병: 문학의 효용성을 언급한 점도 중요하지만, 술이부작(述而不作)이라 하여 기술할 뿐 새로 지어 쓰지 않는다는 사대부들의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한 대목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④ 정: 그런데 문학이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점에서도 효용성이 있을 텐데, 위 글에서는 유교적 이념의 가치나 도덕적 교훈만을 강조한 나머지 문학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재미를 지나치게 폄훼(貶毀)하여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 ⑤ 무: 그러게요. 문학 작품은 역사 기록물과는 구별되는 가치가 있는 법인데, 위 글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학을 역사적 사실처럼 기술해야 한다면, 문학 고유의 영역이 사라지는 극단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요.

21.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벨기에의 초현실과 화가인 르네 마그리트는 1936년에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작품을 완성했다. 이 그림은 마그리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사랑 받는 명작이 되었고, 이 인기는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입증한다. 얼핏 보면 진부한 내용이 담긴 것처럼 보인다. 캔버스 위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물건 하나가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바로 담배 파이프(옆모양)이다. 그런데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림에 글씨를 써놓은 것도 이상하지만,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것은 그 기묘한 문장의 의미다. 만일 이것이 어학교재나 어린이용 그림책이라면, “이것은 파이프다.”라고 쓰여 있을 것이다. 파이프를 그려 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써놓은 이 작품을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냥 말이 안 되는 억지일까, 아니면 무언가 배울만한 교훈을 담고 있는 역설일까?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이 그림을 보는 우리들 머릿속은 이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분주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애매한 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림으로부터 현실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생각거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라는 지시어는 그림을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흔히 텍스트의 ‘의미’를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마그리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상의 재현을 대상 자체가 아닌 의미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파이프의 그림은 단지 그림일 뿐이며, 그것으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 그림을 입에 물고 담배에 불을 붙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파이프처럼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림을 대상과 동일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재현도 대상의 단순한 반영에 머물지 않는다. 재현은 늘 현실의 구성을 수반한다. 극 사실주의 작품이라도 대상을 직접 보여주지는 못한다. 현실을 완벽히 묘사한 재현조차 상징이나 은유의 형태로 다른 대상을 의미할 수도 있다. 게다가 파이프의 그림이 있다고 해서 그 묘사와 똑같이 생긴 파이프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 그림은 일반화된 파이프로서, 특정 파이프를 묘사했다기보다는 파이프의 보편적 개념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그리트 그림 속의 글귀는 제목이 아니라 그림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마그리트의 그림은 일종의 낯설게 하기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데 익숙해져 있는 탓에, 그 이름을 넘어 사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술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기도.

- ① 위 그림이 파이프의 모든 속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 ② 그림 속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글은 그림의 이해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 ③ 위의 그림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를 대신 표현한 기호이다.
- ④ 아파트의 조감도와 위의 그림은 재현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하다.
- ⑤ 위 그림은 실제 파이프를 모델로 해서 그린 것이다.

22. 다음 글에 나타난 A의 과학관과 대립하는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만약에 그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믿음들(천동설)을 신화라고 부른다면, 신화들은 지금도 과학적 지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방법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똑같은 종류의 근거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 그는 포기된 믿음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과학사의 전개가 지식의 점진적인 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가끔은 과거 이론들을 전면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때도 있다고 주장한다. (...) 관찰과 경험이 과학적 믿음들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들을 결정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A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개인적인 사건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이 뒤섞여 있어 분명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어떤 특정한 시대의 과학적 공동체가 신봉하고 있는 믿음들을 형성하는 구성요소가 된다.”

A에 따르면 이론들에 대한 평가는 지역의 역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A는 이론과 관찰의 관계에 관해 분석하면서, 관찰들을 수집하는 어떠한 방식도 이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행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론들이 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실험이 가설에 대해 부여하게 되는 확증의 정도라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으며, 증거에 의해서 어떤 이론이 다른 이론들에 비해 더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이론 검사에 관한 단일한 논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개별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들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 과학 공동체가 어떤 이론을 정당화된 것으로 간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 ① 과학적 진보는 불연속적인 변화로 일어나며, 이때 과학자 공동체의 사회학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② 과학적 지식에 대한 증거는 해당 이론들과 관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인과적 기원을 언급하지 않고도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어떤 가설에 대한 증거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확증이나 반증의 논리는 개별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가치관과는 무관하다.
- ④ 관찰과 실험은 과학적 지식에 있어서 혹은 적어도 과학이론의 검사에 있어서 이론 중립적인 기반이 된다.
- ⑤ 과학자들은 앞선 선배들이 성취한 업적들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지식들을 쌓아 나가며, 과학의 진보란 세계에 관한 우리들의 지식이 안정되게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다음 글에 제시된 사례가 설명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의 순환과 심장의 펌프질, 압력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물론 신경구조도 빼놓을 수 없다. 날카로운 돌을 밟았을 때,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발바닥에 전달된 신호가 신경계를 거쳐 통증을 감지하는 대뇌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정말 흥미롭다. 생물학자들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신경이라는 것이 매우 얇고 복잡한 외벽을 가진 미세한 관(tube)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벽을 통해서 이온이 교환되어 세포의 내부는 음이온, 외부는 양이온으로 차게 되는데, 이는 전기회로의 소자로 사용되는 축전기와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 세포막에도 매우 흥미로운 성질이 있다. 막의 특정위치에서 병진이 일어나면(즉, 일부 이온들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그 지점에서의 전위차가 감소하면), 그 전기적 영향이 근방에 있는 이온들에게 전달되어 순차적인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뽀족한 돌을 밟았을 때 발바닥의 신경들은 전기적으로 들뜬 상태가 되고, 이 상태가 이웃의 신경세포들에게 도미노처럼 전달되어 통증을 느끼게 된다. 물론 쓰러진 도미노가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신호를 보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신경세포는 이온을 외부로 서서히 방출하면서 그 다음의 신호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어도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 ① 같은 현상에 대하여 생물학과 물리학은 서로 대립되는 해석을 하고 있다.
- ② 동물들이 겪는 생물학적 과정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③ 신경계가 없어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있다.
- ④ 생명체의 세포 속에서는 정교한 화학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화합물이 다른 여러 종의 화합물로 변해가고 있다.
- ⑤ 뇌의 특정부위에서 내려진 명령이 말단 신경조직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4.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이러한 우려의 밑바탕에는 글로벌 뉴스의 생산과 유포가 서방 통신사의 손아귀 안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 두려움은 나아가 CNN, 뉴스 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 로이터(Reuters), 그리고 BBC 등이 글로벌 뉴스 서비스를 구축하여 글로벌 뉴스와 정보의 흐름의 전략적인 정점에 서고 싶다는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면서 더욱 더 커지고 있다.

(나) 예를 들면, 서방의 뉴스 미디어가 동유럽의 혁명과 특히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믿음이다. 스타TV의 위성 시스템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서방 뉴스의 수용을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들은 글로벌 뉴스의 도래가 야기할 수 있는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다) ‘뉴스’의 생산은 텔레비전에 관한 논쟁에 있어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그러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종종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그에 대한 관심은 국경을 넘나들며 유포되는 전 지구적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더 고조되고 있다.

(라)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을 헛되지만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민주적 정부의 경우에만 국한된다고 간주하면 오산이다. 왜냐하면 많은 비서방 민주국가들도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에 미치는 서방 뉴스의 문화적 영향에 대해 걱정해 왔기 때문이다.

(마) 국익 내에서 뉴스 생산물을 검열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관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방 국가들 역시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 철학적 및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뉴스의 자유로운 흐름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초국적 기업의 하부구조인, 채 여섯 개도 안되는 글로벌 뉴스 조직에 의한 규제와 통제를 더 두려워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 ① (마)-(가)-(나)-(라)-(다)
- ② (다)-(마)-(라)-(나)-(가)
- ③ (다)-(나)-(라)-(가)-(마)
- ④ (다)-(나)-(가)-(라)-(마)
- ⑤ (마)-(가)-(라)-(나)-(다)

25. 다음 글의 논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막스 베버에 의하면 현대적인 지배의 요체는 합리적 이성에 근거하는 정당한 지배에 있다. 그 핵심은 조세프 나이가 말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이에게서 소프트 파워란 갈등 지점에서도 ‘어젠다를 설정하고 다른 나라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즉 소프트 파워는 “타인의 선호대상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 타인과의 일반적인 관계나 결혼생활에서 살펴보면, 반드시 체구가 큰 쪽에 파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미묘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매력이 파워가 있다.” 또 소프트 파워는 갈등이나 전쟁 이후 협력을 손쉽게 이끌어낸다. 소프트 파워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색다른 통용수단을 활용한다. 즉 공동의 가치와 정당성, 그리고 그런 가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매력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나 전쟁에서 이러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은 이미 동양의 유가적 전통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었다.

- ① 『논어』의 ‘위정편’ 3장에서 “인도하기를 법으로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형벌로 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부끄러워 함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인도하기를 덕으로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예로써 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 함이 있고 또 선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나라를 다스리는데 덕으로 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제 자리에 서서 그에 복종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1장에서 “정사를 덕으로 하면 북극성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못 별들이 그에게로 향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였다.
- ② 『논어』의 ‘위정편’ 18장에서 자장이 녹(祿)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자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많이 듣고 의심나는 것을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말하면 허물이 적어지며, 많이 보고서 위태로운 것을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삼가서 말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어질 것이니, 말에 허물이 적으며 행실에 후회하는 일이 적어지면 녹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29. (가)~(라)의 논지에 대한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A는 인간(P)은 다른 사람(O)과 어떤 사물 또는 생각(X) 간의 관계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균형 혹은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이들 세 요소 중 서로 두 개씩 조합했을 때, 즉 P와 O, P와 X, O와 X 간의 관계는 두 가지 유형, 곧 기호(嗜好)관계와 단위(單位)관계로 나뉘어진다. 기호관계는 좋아하거나 반대로 싫어하는 등의 감정적 관계를 말하며, 단위관계란 2개의 요소가 동일한 단위 또는 집단에 속한다고(혹은 속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P와 O 혹은 P와 X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호관계와 단위관계가 모두 정(+)적이거나 모두 부(-)적일 경우에는 평형상태가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P의 내부에서 심리적 균형이 깨져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이를 치유하여 평형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O나 X에 대한 관계를 바꾸려 하며 이것이 태도 변용을 가져온다.
- (나) B는 부르주아는 노동계급과 끊임없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착취를 피하려 한다고 본다. 그 대결이란 착취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 조건이란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조건 등을 포함한다. 착취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계급 대결은 생산과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정의 안팎에서 이루어진다. 생산과정 내에서는 임금을 깎는다든지, 노조에 개입한다든지, 처벌을 한다든지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생산과정 밖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국가적 개입을 들 수 있다.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치시키기 위한 국가적 개입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족이나 학교, 종교기구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요구하는 윤리, 가치, 규범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
- (다) 1920~30년대에는 한 사람의 태도가 그의 외적 행동을 예측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변수라고 보았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러한 태도-행동의 일원론적 관계를 넘어 태도를 행동을 예측하는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하는 입장이 나타났다. 그 한 예로 C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사회학자들은 태도를 다양한 사회적 제약, 즉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 내에서의 심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향들의 상황적 변인과 함께 행동을 결정짓는 요소의 하나로 보았다. 따라서 개인적 변인과 사회적 제약의 변인들을 태도와 결합시켜 행동의 예측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규범(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이 개인의 태도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정도), 준거집단과 유의미한 타자(他者)에 대한 기대, 행위에 대한 보상과 회생에 대한 지각 등이 태도와 행동 간의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 (라) D는 ‘수사학’을 화자(話者)가 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청자(聽者)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설득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기술적(技術的)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세 가지 양식을 제시하였다. 첫째, 로고스(logos)는 메시지 자체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연역적이거나 귀납적인 추론을 통해 논거를 구축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성적 소구방법이다. 둘째, 로고스와 대치되는 개념인 파토스(pathos)는 청자인 대중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은 이성과 감정을 함께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논리와 더불어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메시지의 화자와 관련이 있는 에토스(ethos)는 화자가 자신의 지성, 선의, 도덕적 성격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설득방법을 말한다.

<보 기>

- ㄱ. 해와 바람이 누가 힘이 더 센지 시험을 하기로 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면 이기는 것이었다. 먼저 바람이 시작했다. 바람은 사납게 강한 바람을 불어댔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욱 여미었다. 결국 바람이 포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해가 조용히 햇볕을 나그네에게 보냈다. 점점 더 뜨거운 햇볕을 나그네에게 비추자 결국 나그네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는 가까운 호수로 뛰어 들어 버렸다.
- ㄴ.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다. 소년은 매일 양들을 데리고 언덕 풀밭으로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심심해진 소년은 “늑대요! 늑대가 나타났어요!”라고 외침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수차례 불러모았고, 이웃사람들이 그를 도우러 왔을 때에는 그들의 헛수고를 비웃었다. 결국 어느 날 늑대가 진짜로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은 이제 진실로 힘을 다해 소리쳤다. “늑대가 양을 죽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소년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다. 늑대는 느긋하게 전체 양의 무리를 잡아뜯고 죽여버렸다.
- ㄷ. 굶주린 여우가 포도송이가 잘 익어 매달려 있는 포도밭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포도송이는 너무 높아서 여우에게는 닿기 어려울 만큼 높은 시렁 위에 매어져 있었다. 여우는 어떻게든 거기에 닿아 보려고 훌쩍 뛰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훌쩍 뛰었다. 하지만 모두 헛일이었다. 마침내 여우는 완전히 지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여우는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외쳤다. “아무나 딸 태면 따라지, 저 포도는 시어 먹지 못한단 말이야.”
- ㄹ.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한 마리를 줄로 끌고 시장에 팔러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타고 가면 편할 것이라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는 아들이 타고 가던 중, 어른을 존중하지 못한다고 꾸짖는 소리에 아버지가 타고 가다가, 둘이 타도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두 사람 모두 당나귀 등에 타게 되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당나귀가 불쌍하다고 하여 장대에 당나귀를 매달고 들고 가게 되었다. 다리 위에 다다랐을 때 당나귀가 발버둥치자 장대를 놓쳐 결국 당나귀는 강물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 ① (가)－ㄱ (나)－ㄹ (다)－ㄴ (라)－ㄷ
- ② (가)－ㄱ (나)－ㄹ (다)－ㄷ (라)－ㄴ
- ③ (가)－ㄷ (나)－ㄱ (다)－ㄴ (라)－ㄹ
- ④ (가)－ㄷ (나)－ㄴ (다)－ㄹ (라)－ㄱ
- ⑤ (가)－ㄷ (나)－ㄱ (다)－ㄹ (라)－ㄴ

30. 다음은 정부가 법률안을 성안하여 실제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정부에 의하여 법률안이 준비될 경우에는 행정부의 담당 부처에 의하여 초안이 마련되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성안작업이 사실상 완료된다. 정부제출 법안의 입안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은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입안하고, 그 내용이 2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제안한다. 주무부처안이 확정되면 그 내용과 관련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조정한다. 협의대상기관으로 예산수반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정부의 인사·조직과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상 다른 부처의 고유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그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법률에 의해 관계부처와의 협이가 필수적인 예로는,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 회계관계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감사원법」 제49조)과의 협의 등이 있다. 정부의 당정협의를 대국회 차원의 공식적 업무협조(「법제업무운영규정」 제12조 : 법률안 국회심의과정의 협조)와는 별도로 대정당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무총리훈령(「당정협의업무운영규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 훈령은 주요 당정협의 방식으로 고위당정협의회, 정당정책협의회, 부처별 당정협의회, 정당에 의한 정책설명회 등을 들고 있다.

입법예고제는 원래 선출된 대의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국민을 규율하는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였다. 우리의 경우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공개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를 도모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실시되어 왔고(1983년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1996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정 시 흡수·반영), 1988년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왔다.

각 부처에서 규제에 관한 사항, 즉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포함된 법률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의 대상·범위 및 방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심사를 거치고 공청회, 입법예고,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과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심사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

주무부처로부터 법률안 심사가 의뢰되면 법제처는 내용의 적법·타당성 등 실질적 사항과 체계·자구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한다. 법률안 심사는 헌법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전적 권리구제기능’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되면 그 법률안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부의하게 된다.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중요사항을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국무회의규정」 제5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부서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차관 등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필요한 부서를 받고 나면, 법제처에서 국무총리실을 거쳐 당해 법률안을 대통령실에 이송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후, 법제처는 해당 법률안을 국회에 지체 없이 제출한다.

- ① 법률안의 내용이 2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무부처는 필수적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 ② 법률안의 내용이 2이상의 부처의 소관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무부처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단독으로 제안한다.
- ③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내용을 민주화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3년에 법률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 ④ 정부가 제출하는 모든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나서 차관회의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안전이 될 수 있다.

31. 영희는 학과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올려 놓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민석이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철수와 은수 둘 중 한 사람만이 영희를 사랑한다. 은수가 영희를 사랑할 경우에만 혜경은 민석을 사랑한다.

영희가 “아, 그렇구나! 민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믿기 위하여 보충되어야 할 전제를 고른 것은?

- ① 은수가 영희를 사랑하거나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 ② 은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면, 철수는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 ③ 은수는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 ④ 혜경이가 민석을 사랑한다.
- ⑤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

32. 다음 글을 읽고 바르게 해석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가) 예술의 신전(神殿)에는 순수한 미적 의식에 나타나는 무 시간적 현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여들어 집합하는 정신의 활동이 깃들여 있다. 미적 경험 또한 자기 이해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자기 이해는 이해되는 다른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며, 이 다른 어떤 것의 통일성과 동일성을 포함한다. 우리가 세계 안에서 예술작품을 만나며, 개개의 예술작품 속에서 세계를 만나는 한, 예술작품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 및 순간에 걸쳐 마술에 걸려 빠져드는 낯선 세계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의 불연속성 및 순간성을 우리의 현존재의 연속성 속에서 지양한다는 말이다. 그 때문에 아름다운 것과 예술을 대할 경우 직접성을 요구하는 대신 인간의 역사적 현실에 상응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성 및 순간성을 띤 천재성, 또는 불연속적 체험의 중요성을 근거로 삼는 것은 자기 이해의 연속성과 통일성에 대한 인간 실존의 요구 앞에서 힘을 잃는다. 예술의 경험이 미적 의식의 무구속성으로 내몰려서는 안 된다. 미적 의식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통찰은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예술은 인식의 대상이며, 예술작품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나) 이로써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우리는 ‘생기(生起)’ 그 자체로부터 벗어나서 이른바 그것을 마주보으로써 과거가 우리의 대상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경우, 우리는 역사에 대한 자신의 경험 일반을 포착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항상 역사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은 이렇듯 계속해서 굴러가는 사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매 순간 이렇듯 과거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것, 즉 전수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존재한다. 나는 그것을 ‘영향사적 의식’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로써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식이 영향사적으로, 다시 말해 실제적인 생기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실제적인 생기는 과거를 마주보면서 그쪽으로 걸어간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의식을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작용에 대한 의식을 항상 새롭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경험으로 다가오는 모든 과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의 진리를 우리가 넘겨받도록 한다.

<보 기>

- ㄱ. (가)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해 보면, 가장 참된 미적 경험은 예술작품이 창작되었던 과거를 완벽히 재구성하는 것이다.
- ㄴ. (나)의 ‘영향사적 의식’을 인정한다면,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과거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 수 있다.
- ㄷ. (나)의 ‘영향사적 의식’은 결국 과거를 현재의 주관에 배제된 객관적 사실로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주의적 역사관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 ㄹ. (가)에서 제시한 미적 경험의 태도는 (나)의 ‘영향사적 의식’과 상통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33. 다음 글에서 이황이 경계한 오류와 가장 가까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가) 기대승: 심(心)을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허령불매(虛靈不昧)한 것이 곧 심의 본연의 체(體)입니다. 주자가 심을 논한 곳마다 매양 허령이라 말하고, 혹은 허명(虛名), 혹은 신명(神明)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모두 오로지 심의 본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일찍이 허와 령을 리와 기에 분속하지는 않았습시다. 대개 허령한 것은 기(氣)이고 허령해지는 소이는 리(理)입니다.

(나) 이 황: 천명도(天命道) 속에 리와 기 두 글자를 허와 령 두 글자 밑에 나누어 주석한 것은 나도 정지운의 본설을 그대로 두기는 하였으나, 그 분석한 바가 너무 쇠세(瑣細)하다는 의심이 들어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붓에 먹물을 찍어 지우고자 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새로운 설을 창시한 것을 기뻐하여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이 변론한 글을 받고서 마음이 석연해졌으니, 정지운에게 말하고서 지워버리겠습니다. (...) 그런데 허령을 논한 곳에 허(虛)를 리(理)라고 말한 데 이르러서는 역시 근본한 곳이 있으니, 리·기 두 글자를 허·령에 나누어 주석한 잘못 때문에 이것까지 아울러 잘못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관찰되는 현상에 맞아 떨어진다. 그러나 그가 의존한 일부 원리들은 어리석은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지구가 삼중의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였는데, 이것은 틀린 주장이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② A대학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철학박사 학위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학교에서 최근 학위를 받은 홍길동 역시 뛰어난 것이다.
- ③ B야구팀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B팀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우승할 것이다.
- ④ 민주주의 국가라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 ⑤ 너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한다. 그런데 담배는 폐암의 원인이다. 나는 네가 폐암에 걸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34. 다음은 (가)-(나)-(다)의 순서로 전개되는 하나의 글이다. (나)와 (다)를 각각 가장 적절한 문장 순서로 나열한 것은?

(가) 각국이 평등한 연맹이란 춘추의 진(晉)과 초(楚)나라처럼 권력이 서로 같은 나라가 군대를 없애기로 동맹을 하고 여러 작은 국가가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 각국의 연맹과 근세 유럽의 비엔나 연맹 및 러시아·프랑스 동맹, 독일·이탈리아 동맹이 이런 것들이다. 그 정체(政體)와 주권(主權)은 각기 그 나라에 있고 결코 중앙정부는 없으나, 사신을 파견해서 규약을 맺고 규약서로써 범위를 한정하게 하니, 곧 지금의 네덜란드의 만국미병회(萬國弭兵會)가 이것이다. 이 연맹의 규약에는 주권이 이미 각 나라에 있어서 이미 각자 사사로운 이익이 있게 되어 한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결코 제압할 수 없어서, 어느 날은 애쓰다가 어느 날 그만두게 되어, 오늘 군대를 없애자면서 내일 틈이 생기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각국이 병립하여 있어 하나의 큰 힘을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각국 간의 전쟁을 없애려 한다면 역시 반드시 평등한 연맹이 공의회를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니 이 연합은 거란세(據亂世)의 체제이다.

(나) ㉠ 그러나 프러시아의 재상이 독일 대재상이 되어 드디어 대권을 잡았고, 그 나머지 해군·육군과 체신·철로까지 모두 독일제국에 귀속시켜 통치하게 되었는데 대정부가 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내정에는 간섭하지 못하였다.
㉡ 각 연방이 스스로 자기 나라를 다스리면서 대정부의 체제에 의해 전체가 하나로 통치되는 형태로서 삼대(三代)의 하(夏), 상(商), 주(周)와 춘추시대의 제환공(齊桓公), 진문공(晉文公) 때와 같은 것이다.
㉢ 연합한 후 공의회는 점점 권력을 갖게 되는데, 공정부(公政府)를 설치하여 이것을 각국보다 우위에 둔다. 비록 각국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지만 공병(公兵)과 공률(公律)으로써 각국에 압력을 가하니 또한 독일의 연방제와 비슷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공정한 선거에서 출발하고 또 제왕이 존재하지 않으니 이 연합은 승평세(升平世)의 체제이다.
㉣ 또한, 오늘날의 독일도 이와 같으니 프러시아 왕은 각 연방의 왕들과 평등하여 제나라나 진나라와 같은 형태이다. 그러나 환공이나 문공의 패권은 그 체제가 견고하지 않았고, 삼대와 독일의 경우는 모두 제왕이 있어 비록 정치체제는 같지 않지만 모두 강력하게 다스려졌다.
㉤ 독일연방의 경우 정치체제는 비록 각국에서 각각 의원을 뽑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프러시아에서만 17명을 점유하고 있고 그 나머지 대국(大國)인 베를린에서는 6명, 룡순화툰바오에서는 4명, 시순파툰에서는 3명, 아룬보 공국(公國)에서는 2명을 뽑고, 나머지 17개국과 자유시부(自由市府)에서는 각각 한 사람씩만 뽑았다.

(다) ㉠ 국명(國名)과 국경을 없애고 각각 자주주군(自主州郡)을 설치하되 공정부에 의해 하나로 통치되는 것으로, 미국이나 스위스와 같은 것이다.
㉡ 이 때에는 국가도 없고 제왕도 없으며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친하가 모두 공평하다.
㉢ 이것을 대동이라 하는 것이니, 이 연합은 태평세(太平世)의 체제이다.
㉣ 점차 세계가 하나로 합해지고, 국가들은 주군(州郡)으로 바뀌는데, 주군은 세계 공정부에 의해 통합되고 공민(公民)이 의원(議員)을 선출하며 행정관이 통치하고 각지에는 소정부(小政府)를 설치하니 대략 미국·스위스와 같다.
㉤ 공정부가 이미 설립되어 국경이 날로 없어지고, 군주라는 명칭도 날로 사라진다.

- ① (나) b-a-e-d-c (다) L-M-P-Q-R
- ② (나) b-d-e-a-c (다) T-M-P-L-Q
- ③ (나) a-c-b-e-d (다) T-L-P-M-Q
- ④ (나) b-e-d-a-c (다) P-L-T-M-Q
- ⑤ (나) d-a-b-c-e (다) M-T-L-P-Q

35. 다음 글이 뒷받침하고자 하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세계는 그 대부분이 미지(未知)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지를 열어 두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미리 제약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인식론적 처방이 다른 인식론적 처방이나 혹은 일반적 원리와 비교하여 근사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몇 가지 고립된 '사실들'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자연의 깊이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누가 보증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이유는 앞에서 기술한 (그리고 학교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 같은) 과학교육은 인도주의적인 태도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잘 계발된 인간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개성의 함양'과 상충된다. 그것은 중국 여인의 전족과도 같이 압박에 의해서 인간 본성의 탁월한 각 부분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며, 한 인간을 과학과 과학철학에서 유행하는 합리성의 이상(理想)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간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증진시키고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삶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 또한 그것에 상응해서 자연과 인간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기도(企圖)는 모든 보편적 기준, 모든 엄격한 전통의 거부를 수반한다.

- ① 자연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연 탐구의 방법론을 먼저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과학교육은 지금까지의 과학적 탐구의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론을 단순화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 ③ 과학적 탐구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과 인간의 비밀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 ④ 과학은 그 자체가 인간성을 억압하는 경향성을 갖는다.
- ⑤ 과학적 탐구에서는 신앙, 영감, 직관이나 상상력 등 인간성의 비합리적 부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6. (가)~(라)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공장식 농업에 대한 옹호론 중 몇몇을 검토해 보고, 어째서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가) _____는 주장이 있다. 이는 윤리란 일종의 계약을 토대로 한다고 보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네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는 식이다. 동물은 계약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도덕의 영역 밖에 놓인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면 아기가 회복 불능의 정신지체자 역시 도덕의 주체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도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는가?
육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흔히 나오는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변명’이다. 프랭클린은 오랫동안 채식주의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이 낚시를 하는 것을 보다가, 잡힌 물고기들 중 어떤 것은 더 작은 물고기를 삼킨 상태임을 알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서로를 잡아먹는다면, 내가 너희를 잡아먹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즉, (나) _____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는 보통 동물의 행동을 본때 동물을 대하지 않는다. 가령 고양이가 쥐를 찢어 죽이는 것을 들며 우리가 고양이를 찢어 죽이는 일이 정당하다고 하지는 않는다. 육식성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를 죽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 물고기는 본능에 따라 죽인다. 그러나 인간은 물고기나 다른 동물을 죽이거나 먹는 일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다) 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론은 모든 불평등을 정당화할 것이다. 가령 남성의 여성 억압이나 약자와 병자를 길가에 내버리는 일 역시 아무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윤리론의 논리가 타당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채집-수렵 사회에서 살고 있을 때나 통할 수 있다. 거기서는 지금 우리가 동물을 사육하는 방식이 결코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먹는 일에 대한 프랭클린의 변명처럼, 그것은 하나의 맥락만을 선택하고 다른 맥락은 무시하는 논법이다. 프랭클린은 참으로 예리한 관찰자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선택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인지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그는 물고기를 먹는 일에 대한 변명을 그 물고기가 프라이팬에서 구워지며 '참으로 훌륭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머리에 떠올렸다고 하니까 말이다.

(라) 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는 공장식 농업이 아니면 그것을 그만큼 싸게 구입할 수 없으므로 공장식 농업은 그것이 동물에게 유발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관습이 유해하다면, 그것을 끝이곧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노예제도 또한 한때 미국 남부의 중요한 관습이었다. 여성 차별이나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 역시 한때(어떤 곳에서는 지금도) 관습의 일부였다. 아무리 널리 퍼진 관습이라고 해도 윤리적 문제점이 있다면 바꾸려고 노력해야 한다.

〈보 기〉

- ㄱ. 인간은 동물에게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 ㄴ. 어떤 존재가 상대를 특정한 방식으로 대한다면 사람도 그 존재를 그 방식으로 대해도 된다
- ㄷ. 동물성 식품은 서구식 식단의 중심이며, 정도는 다르지만 다른 여러 문화권에서도 역시 그렇다
- ㄹ. 먹는 자와 먹히는 자가 있는 것은 자연 질서의 일부이며, 그러한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일은 잘못일 수 없다

- ① (가) - ㄱ (나) - ㄴ (다) - ㄷ (라) - ㄹ
- ② (가) - ㄱ (나) - ㄴ (다) - ㄹ (라) - ㄷ
- ③ (가) - ㄴ (나) - ㄱ (다) - ㄷ (라) - ㄹ
- ④ (가) - ㄴ (나) - ㄱ (다) - ㄹ (라) - ㄷ
- ⑤ (가) - ㄴ (나) - ㄹ (다) - ㄱ (라) - ㄷ

37. B, C, D가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A주장의 한계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A에 따르면, 우리는 동기가 유발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일부 동기가 매우 미약하여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없는 때조차도, 실제로 깨어있는 순간마다 우리는 특정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동기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가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동기의 발생순서는 특정 동기가 다른 동기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더 긴급하다는 즉, 다른 동기에 비해 더 우세하다는 사실에 따라 결정된다. 이처럼 인간 동기는 위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위계적 구조 내에서 동기는 긴박성, 강도, 우선성 차원의 수준에 따라 배열된다. 위계의 맨 처음 단계는 생리적 욕구로 구성되어 있다. 배고픔이나 목마름 같은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면 위계상 그 위에 있는 욕구는 행동의 측면에서 볼 때 뒷전으로 밀려난다. 위계상 생리적 욕구 다음의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이다.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는 행동을 유발하는데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사랑 혹은 소속감의 욕구가 등장한다. 사랑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다음 단계인 존중감 욕구가 지배적인 동기로 된다. 이 욕구는 자아에 대해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욕구이다. 욕구의 위계에서 이러한 네 가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사람들은 위계상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자아실현의 단계에 도달한다.

(나) B는 행동이란 외부 자극과 그에 따른 반응 간의 연합에 의한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A+ 라는 좋은 학점을 받았다면, 그는 다음에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이처럼 그는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 자극 및 그 행동을 지속시키는 보상이나 처벌을 연구해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다) C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관찰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TV에서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본 사람이 모방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관찰된 행동은 상징적으로 기억에 저장되고 이것이 나중에 작동하여 행동을 유도한다.

(라) D의 장(field)이론은 여러 가지 힘들이 동시에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관찰된 행동은 그 개인에게 작용한 전체 힘들의 결과로 본다. 장이론에서 장은 상반된 힘으로 이루어지는데, 가령 연의 반응은 바람 조건의 변화, 중력, 연을 날리는 사람이 가하는 저항력 모두가 작용한 결과이다. 인간의 행동도 그 행동에 작용하는 내적 및 외적 힘의 전체적인 결과이다.

- ①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 ② 인간의 인지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 ③ 인간 행동의 연령증가에 따른 발달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 ④ 학습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 ⑤ 행위자의 가치와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40.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모든 것을 파괴하여 손상시키고 더럽히며, 괴이한 것을 좋아하여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인간조차도 조련마(調練馬)처럼 혼련시키고 정원수처럼 자신의 취미에 맞게 모양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것마저도 없다면 모든 것은 더욱 나빠지는 까닭에 인류는 일단 손을 댄 것은 불완전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미 모든 형편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태어난 인간은 그대로 방치하면 더욱 비뚤어질 것이다. 편견이나 권위, 필요와 같은 모든 사회제도는 우리들 타고난 본성을 억제하여 무엇 하나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 본성은 어찌다 길 한 가운데 솟아난 관목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꺾이어 이내 시들어 버릴 것이다. 다정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어머니여! 이 어린 나무를 보호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 당신에게 보답할 것이니 당신 스스로 당신의 어린 나무 주위에 울타리를 치시오.

식물은 재배로, 인간은 교육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인간의 위대한 능력도 사용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약하게 태어났으므로 힘이,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으므로 도움이, 분별력 없이 태어났으므로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교육으로 얻어진다.

이러한 것은 자연교육, 인간교육, 사물교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능력과 내적 성장은 자연교육에 의해 얻어지고, 그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인간교육이며, 인간을 자극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경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사물교육이다. 우리는 세 가지 스승한테서 배움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교사의 교육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동일한 목적을 향할 때 비로소 제자는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세 요소 가운데 자연교육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나머지 교육은 우리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교육 역시 어떤 가정하에서만 가능한데, 그것은 어린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언행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 역시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다. 교육을 하나의 기술로 본다면 전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다.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목표에 근접할 뿐이며, 설령 목표에 도달한다면 그것은 행운인 것이다.

그러면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이미 밝혔듯이, 자연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완전한 교육을 위해서는 세 가지 교육이 일치해야 하며, 이 때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자연교육에 나머지 교육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모호한 의미를 지닌 자연이란 과연 무엇인가? 자연이란 습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수평으로 뻗어나가려는 습성을 방해받는 식물도 있다. 이와 같은 식물은 자유로이 되돌려 놓아도 인위적으로 꺾인 상태로 머무르지만 그 식물의 수액(樹液)은 본래의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면 수직으로 뻗어나가기 마련이다.

- ① 결국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물로부터 갖가지 자극을 받는다. 감각을 의식하게 되면 감각을 주는 대상을 추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유쾌한지 불쾌한지를, 다음에는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성의 판단에 따라 행복이나 선의 관념에 의해 그것을 구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향은 감수성이 예민해지거나 이성이 발달함에 따라서 더욱 넓어지고 강해진다.
- ②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 본래적인 심정상태로 돌아오게 해야만 하는데, 만약 이 세 가지 교육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교육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 때는 자연이나 사회제도 중 한편과 싸워야 하며, 인간을 만드느냐 시민을 만드느냐를 선택해야만 한다.
- ③ 인간의 성향도 이러해서 동일한 기간 동안은 습성에 기인하게 마련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부자연스러운 습성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면 이전의 습관은 없어지고 자연성이 부활한다. 교육은 확실히 습관에 지나지 않지만, 교육받은 것을 망각하는 부류와 그것을 계속 보존하는 부류의 상이성(相異性)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만일 자연에 순응된 습성만을 자연이란 명칭으로 부른다면 이와 같은 모호한 성격은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④ 따라서 소사회란 단결이 긴밀하고 확고할수록 대사회로부터 이탈하려고 한다. 모든 애국자는 외국인에 대해 냉혹하다. 외국인이란 애국자에게는 한낱 단순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스파르타인들은 이기적이고 인색하게 외국인을 대했으나, 그들의 성벽 안에서는 무사와 공평과 화합의 정신이 널리 퍼져 있었다.
- ⑤ 하지만 자연인은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는 단위수이며 절대수인 까닭에 자신이나 자신과 동등한 동료하고만 관계를 가진다. 반면에 사회인은 분모에 의하여 가치가 결정되는 분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회제도라는 것은 인간을 부자연스럽고 의존적인 개체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2010년도 제26회 입법고시
정답표(언어논리)

| 가 형 | | | |
|-----|---|----|---|
| 1 | 4 | 21 | 5 |
| 2 | 4 | 22 | 1 |
| 3 | 2 | 23 | 2 |
| 4 | 4 | 24 | 3 |
| 5 | 1 | 25 | 2 |
| 6 | 5 | 26 | 5 |
| 7 | 2 | 27 | 3 |
| 8 | 4 | 28 | 3 |
| 9 | 2 | 29 | 5 |
| 10 | 3 | 30 | 5 |
| 11 | 1 | 31 | 4 |
| 12 | 5 | 32 | 2 |
| 13 | 2 | 33 | 1 |
| 14 | 1 | 34 | 2 |
| 15 | 4 | 35 | 5 |
| 16 | 3 | 36 | 2 |
| 17 | 4 | 37 | 1 |
| 18 | 4 | 38 | 1 |
| 19 | 3 | 39 | 4 |
| 20 | 5 | 40 | 3 |

| 다 형 | | | |
|-----|---|----|---|
| 1 | 4 | 21 | 5 |
| 2 | 4 | 22 | 1 |
| 3 | 1 | 23 | 5 |
| 4 | 5 | 24 | 2 |
| 5 | 2 | 25 | 3 |
| 6 | 4 | 26 | 2 |
| 7 | 2 | 27 | 3 |
| 8 | 4 | 28 | 3 |
| 9 | 5 | 29 | 5 |
| 10 | 2 | 30 | 2 |
| 11 | 1 | 31 | 1 |
| 12 | 2 | 32 | 5 |
| 13 | 3 | 33 | 4 |
| 14 | 1 | 34 | 1 |
| 15 | 3 | 35 | 4 |
| 16 | 4 | 36 | 3 |
| 17 | 4 | 37 | 2 |
| 18 | 4 | 38 | 5 |
| 19 | 3 | 39 | 2 |
| 20 | 5 | 40 | 1 |

언어논리영역

1. 다음 (가)와 (나)를 읽고 추론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가) 그러므로 나는 인류학적 정신에서 다음과 같은 민족의 정의를 제안한다. 즉,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이다.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의 성원들도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친교(communion)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다.

민족은 제한된 것으로 상상된다. 왜냐하면 10억의 인구를 가진 가장 큰 민족도 비록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한정된 경계를 가지고 있어 그 너머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민족도 그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어떤 구세주적 민족주의자들도 모든 인류의 성원이 그들의 민족에 동참하는 날이 올 것을 꿈꾸지는 않는다.

민족은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계몽사상과 혁명이 신이 정한 계층적 왕국의 합법성을 무너뜨리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족은 공동체로 상상된다. 왜냐하면 각 민족에 보편화되어 있을지 모르는 실질적인 불평등과 수탈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언제나 심오한 수평적 동료의식으로 상상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지난 2세기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제한된 상상체들을 위해 남을 죽이기보다 스스로 기꺼이 죽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형제애이다.

(나) 필자는 민족을 원초적이거나 불변의 사회적 실체로 보지 않는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최근의 특정 시기에만 나타난다. 그것은 특정한 종류의 근대적 영토국가, 즉 민족국가(nation-state)에 관련된 때에 한해서만 사회적 실체이다. 따라서 민족을 민족국가와 연결시키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① 민족은 특정한 시기에 경험을 통해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역사적 공동체이다.
- ② 상상된 공동체인 민족은 그 실체가 없다.
- ③ 민족은 근대적 산물이다.
- ④ 민족은 민족국가 형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 ⑤ 민족은 구성원 간의 계급적 차별을 은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2.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기원전 29년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에 귀환한 아우구스투스는 향후 로마가 취할 체제를 두고 측근 아그리파와 마이케나스가 벌인 토론을 청취했다. 아우구스투스가 이 토론을 듣고 택한 체제는, 아그리파가 주장한 법치와 민주정이 아니라, 마이케나스가 권장한 귀족정과 절충한 군주정이었다. 그 뿐 아니

라, 제국경영의 구체적 과제에 대한 마이케나스의 조언 중 상당 부분이 곧 아우구스투스의 정책으로 구현된다. 제국 수도 로마의 면모를 쇄신하는 일이 그 중 하나였다. 사실 공화정 말, 제정 초라는 이 시기에 수도 로마의 외관과 제국적 위상의 부조화는 자주 등장하는 화제였다. 물론 아우구스투스가 당면한 수도 로마의 문제는 외형적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 인구 70만~100만 명의 로마는, 보다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요하는 대도시형 현안을 안고 있었다. 티베르 강의 잦은 범람, 인구과밀, 부실공사 등이 어우러져 빛은 건물붕괴나 대형화재, 치안불안 같은 고질적 폐단 외에, 식량과 식수의 만성적 공급 부족 등이 그것이다.

그는 종종 주요 인사들을 독려해 각자의 재력에 따라 새 기념물을 짓거나 낡은 것을 복구 혹은 수리해 수도를 장식하게 했다. 특히 공화국의 역사와 전통이 곳곳에 배어있는 로마 광장에서, 이제 새 군주와 그 왕조의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물론 그 변화의 연출자는 기원전 30년대 중반부터 수도 장식을 주도해 온 아우구스투스 자신이었다. 로마의 기원이자, 공화정 시대의 위업을 상기시키는 장소와 기념물이 가득했던 로마 광장이 하나둘씩 새로이 탄생한 율리우스 왕조의 기념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마르스 신전이였다.

마르스 신전의 박공 조각의 중앙에 마르스 신이, 그리고 그 양 옆에 비너스 여신과 신격(神格) 율리우스가 서 있다. 비너스 여신과 마르스 신 사이에 있는 에로스 신은 마르스에게서 무기를 받아 비너스에게 넘겨주고 있다. 복수의 신 마르스의 무장해제, 그것은 평화의 확립, 곧 아우구스투스의 평화가 도래했다는 메시지이다. 한편, 3신 사이의 관계도 주목된다. 비너스는 아우구스투스의 가문인 율리우스 가문의 시조인 아이네아스의 어머니이다. 한편 마르스는, 트로이를 탈출한 아이네아스의 후손인 레아 실비아와 관계하여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낳게 한 장본인이고 로물루스는 로마의 건국자이다. 그러니까 3신 모두 율리우스 가문의 시조신이며, 특히 마르스와 비너스는 로마 국가의 형성에 관여한 신들이다. 마르스 신전의 박공 조각에 구현된 이 상징성은, 그 신전을 둘러싸는 조형물 배치에서 한층 구체화된다. 우선 광장의 한가운데 설치된 아우구스투스의 동상과 그가 개선식 때 탔던 4두마차가 있다. 아우구스투스 동상의 기단에는, 마르스 신전 봉헌 직전에 원로원이 그에게 수여한 ‘국부(國父)’라는 호칭이 새겨졌다. 광장의 좌우 안쪽의 반원형 벽감에서 입구로 뻗은 직선 회랑은 일종의 명예의 전당 같은 곳이다. 광장 입구에서 보아 좌측에는 아이네아스를 중심으로 공화정 이전 시기의 왕들과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의 영웅들의 동상들이, 우측에는 로물루스를 중심으로 공화정기의 위인들의 조상(彫像)이 늘어서 있다.

- ① 전환된 체제에서 권력의 실체는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 ② 권력관계와 이념은 기념물의 위상, 그것의 유래 혹은 건축학적 설계 및 도상적 기호로 표상된다.
- ③ 수도 로마의 정비 및 신축으로 통치자의 역량 선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 ④ 국가적 영웅과 신화적 이미지의 차용과 변용은 통치 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 ⑤ 로마의 웅장한 외관은 제국으로서의 위상을 나타내며, 새 시대의 도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폴드만(Paul de Man)에 따르면, 인간의 사유수단으로서의 언어는 상징과 알레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상징은 언어표상과 의미 기능 사이의 동일화 또는 일체화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나, 알레고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자신과 기원과 사이의 거리나 간극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기원과 일체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단념하면서 그 시간적인 차이의 빈 틈 속에 그 언어를 확립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는 곧 상징적인 언어체계에서는 말과 뜻, 이미지와 원형물, 허구와 실제, 기호와 지시대상, 기호와 기호 사이의 거리나 간극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두 항 사이의 ‘거리와 간극’이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한다면, 상징적 사유방식이란 일종의 자기 기만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거리와 간극’을 스스로 인정한 곳에 좌표를 둔 수사법이 알레고리이며 따라서 알레고리 쪽이 자기 기만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것이라고 폴드만이 말할 때, 그가 내세운 판별 방식은 시간성이었다. 알레고리란 의미 생성을 위해 시간적으로 앞서 존재하는 ‘다른’ 기호를 지칭해야 하기에 기호와 지시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와 기호와의 관계에 기초한다. 즉, 알레고리란 기호와 기호 간의 통합관계가 아니라 ‘단절적 관계’에 기반을 둔 수사법이다.

그렇다면 상징적 사고의 한계 또는 약점은 무엇인가. 벤야민의 선구적인 언급 속에서 다음 두 가지가 손쉽게 지적된다.

A. 특수성 속에서 보편성을 구하는 것이 소위 상징인바, 특수성을 생생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편성을 동시에 파악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상징적 사고의 장치이다. 이 상징적 사고장치가말로 문학영역에서는 근대 리얼리즘 소설의 근간을 이룬다. 가령 작가는 자기만의 특수한 체험, 특수한 자기 내면을 쓰면서도 그것이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믿고 있지 않았던가. 타인의 것이 흡사 자기 자신의 것인 양 공감하기, 특수성을 일반적이라 생각하기란 잘 따져보면 개별성을 깊이 탐구하면 일반성에 이른다는 헤겔적 인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개별성이 일반성에 속한다는 이 논법에 따르면 단독성은 제거되기 마련이다. 개별성과 일반성의 회로에 들어오지 않는 단독성(가령 여자 일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 여자, 반복되는 가을이나 봄이긴 하되, 특정한 연도의 가을이나 봄)을 억압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상징체계라면, 상징은 겉으로는 고유명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내면으로는 고유명(단독성)의 억압이라 할 것이다.

B. 보편이 선행한다는 전제 위에 성립된 것이 알레고리적 사고인 만큼, 알레고리는 상징과 달리 ‘의미’를 문제삼는다. 물론 이 경우의 ‘의미’는 상징적 사고에서 말하는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가령 “1950년에 6·25전쟁이 났다”라고 할 때 이는 개별성이지만, 상징적 사고체계에서 본 의미는 그 사건의 역사적·사회적 의미, 곧 과학적 인과성에 주목하여 보편적 의미를 이끌어낼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 사건 자체가 한민족의 죄의식이랄까 인류사의 모종의 재앙이라는 ‘의미’를 읽는 것(특수라는 것 자체가 보편을 지시해 줌)이 알레고리이다.

상징적 사고체계에 입각한 근대의 역사관이나 문학에서의 리얼리즘이 일반성으로 회수되지 않는 단독성을 결여한 사고형식이라면, 이에 맞선 것이 알레고리적인 사고형식이자 그 수단으로서의 알레고리적 언어관인 것이다.

결국 알레고리적 언어관에 의지한다면, 상징이란 주체가 언어를 통해 세계를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낭만주의자들의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세계가 실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의미가 지워지고 새로운 의미가 그 위에 덧붙여지는 알레고리적 기호의 세계라면 우리는 총체성의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 세계는 단일한 체제, 단일한 기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양한 기호들의 차이와 의미의 지연, 즉 기호의 유희에 의해 임의적으로만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 ① 상징적 언어관에 입각할 때, 염상섭의 작품 『삼대』(1931년)는 식민지 조선의 본질적인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한 리얼리즘 소설의 걸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상징적 사고체계에서는 특수성 속에서 보편성을 구하며 세상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지만, 역으로 단독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 ③ 알레고리란 보편이 선행한다는 전제 하에 보편에 대한 특수성을 구함으로써 자기와 기원 사이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동일성의 사고체계이자 언어관이다.
- ④ 알레고리적 언어관은 언어기호가 현실 속의 지시대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단지 다른 언어기호와의 차이와 의미의 지연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 ⑤ 알레고리적 언어관에서는 주체가 언어를 통해 세상을 투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기호의 유희를 통해 임의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4. 다음 글의 내용으로 볼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미시간 주의 앤아버라는 도시에는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원두막 별장이 많이 있었다. 이 조립식 집들은 배로 운송되어 와서, 열차로 도시까지 배달되고, 나중에는 말들에 의해 산의 언덕까지 운송되었다. 그리고 나면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부분부분이 조립되어 집이 완성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앤아버에서 40마일 정도 떨어진 포드 자동차 회사의 헨리 포드는 소위 일관작업열(assembly line)이라는 것을 도입했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부품을 반복해서 조립하기만 하면 되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서양은, 특히 미국은, 제조업 분야에 ‘자동화’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구식 총에서 가구에 이르는 모든 제조품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단위로 분해되고,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고 조립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동작들이 분석되었다. 그 결과, 이전에 전문 기술자가 몇 달이나 걸려서 만든 제품을 이제는 몇 시간 내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도 하나의 분해 가능한 실체가 되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 볼트에 3분’, ‘스파크 플러그 조립에 2분 30초’ 등과 같은 분석이 가능해진 것이다.

10. 다음 (가)~(라)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가) 상품들은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신들의 외부에, 자신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하나의 상품체에서 발견한다. 이 물건들, 즉 금과 은은 지하에서 나온 그대로 모든 인간노동의 직접적 화신이 된다. 여기에 화폐의 마술이 있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사회제도에서 사회적 생산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오로지 원자들 사이의 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_____
- (나) 사적 소유가 또다시 점유의 이 모든 직접적 실현들 자체를 단지 생활수단으로서만 파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실현들이 수단으로서 봉사하는 생활이란 사적 소유의 생활, 즉 노동의 자본화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대상을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을 가지거나 사용하는 것, 즉 결국 사적 소유의 생활에 봉사하는 일에만 전념한다. 따라서 _____
- (다) 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국내 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며 또한 그 산업의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가 되도록 그 산업을 이끌어 감으로써 사회의 연간 수입을 최대치가 되도록,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사실 그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가 얼마나 그것에 기여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해외 산업의 부양보다 국내 산업의 부양을 선호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국내 산업의 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생산하도록 이끌어간다. 이렇게 함으로써 _____
- (라) 동물은 자신의 생활 활동과 직접적으로 하나이다. 동물은 자신의 생활 활동과 구별되지 않는다. 동물은 자신의 생활 활동인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활 활동 자체를 자신의 의지와 의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인간은 의식적인 생활 활동을 가진다. 인간이 직접적으로 그것에 융합되는 규정성이란 없다. 의식적 생활 활동은 인간을 동물적 생활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별짓는다. 바로 이 때문에 인간은 하나의 유적 존재이다. 혹은 인간이 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적 존재이며 그 자신의 생활이 그에게 있어 대상인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_____

<보 기>

- ㄱ. 인간의 활동은 자유로운 활동이 된다.
- ㄴ. 각 개인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증진시키게 된다.
- ㄷ. 모든 육체적 및 정신적 감각들 대신에 이런 모든 감각들의 완전한 소외, 즉 '사적 소유'가 들어섰다.
- ㄹ. 그들의 생산관계는 그들의 통제와 의식적·개인적 활동으로부터 독립된 물적 성격을 가진다.

- ① (가)-ㄱ (나)-ㄴ (다)-ㄷ (라)-ㄹ
- ② (가)-ㄱ (나)-ㄴ (다)-ㄹ (라)-ㄷ
- ③ (가)-ㄴ (나)-ㄷ (다)-ㄹ (라)-ㄱ
- ④ (가)-ㄹ (나)-ㄷ (다)-ㄱ (라)-ㄴ
- ⑤ (가)-ㄹ (나)-ㄷ (다)-ㄴ (라)-ㄱ

11. 다음 글에서 말하는 포퓰리즘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포퓰리스트는 인민의 주권 회복을 외치며 현상 타파를 장담한다. 그 주장대로라면 포퓰리스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민주개혁주의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 민주주의와의 불화를 피할 수 없다. 이런 한계는 포퓰리즘의 태생에서부터 예견된 것이다.

포퓰리스트는 현실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변변한 이데올로기가 없으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니, 개혁노선을 심각하게 밀고 나갈 마음도, 의지도 없다. 인민들의 분노를 공중에 흩뿌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성체제를 정당화·합리화해주는 셈이 되고 만다.

이런 한계는 포퓰리즘의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퓰리스트 운동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우기보다 기득권 대열에 합류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현실에 안주하기는 대중도 마찬가지이다. 생존 경쟁에 시달리는 다수 대중은 개혁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기보다는 눈앞의 실리에 마음이 급하다.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이 계급 연합 전술을 펴고, 기성 정치체도를 무차별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도 그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간다.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운동이 민주주의와 공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인민을 정치의 주역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공언하지만, 포퓰리즘 운동에서 보통 사람들은 여전히 종속 변수로 살아야 한다. 카리스마 넘치는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 무대의 주인공인 것은 기성체제와 다를 바 없다.

<보 기>

- ㄱ. 미국 제4대 대통령 잭슨은 일반 농민들이 사용하는 '평이한 언어'와 금융 자본가들의 '세련된 언어'를 대비하면서 서민들의 말투를 의식적으로 애용했다. 동부의 적대자들이 그의 말투를 투박하다고 공격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소규모 사업가, 새로 선거권을 얻은 도시 기술자, 공장 노동자 등 신생 다수파의 이익을 돌보면서 미국 중앙은행과 같은 독점 세력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 ㄴ. 페론은 '서즈를 입지 않은 사람(보통 사람)들의 친구'를 자임하면서 일종의 개혁노선을 표방했다. 그러나 통상 '페론주의'라고 불리는 그의 정치 프로그램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그저 '나보다 못한 이웃을 도와주는 연민의 정'이라든가 '약자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동정심' 정도가 눈에 띈 뿐, 뚜렷한 핵심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은 아니다.
- ㄷ. 고이즈미는 일찌감치 미디어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그래서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과거의 규칙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대중적 인기가 높은 스포츠 신문과 인터뷰를 했고, 오락성이 강한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 ㄹ. 이탈리아의 보시는 '혁명'을 주창했다. 부패와 타락의 원천인 정당제도 자체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도 결국 혁명에서 개혁으로 선회하고 만다. 정당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기존 정당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으로 끝났다. 그저 기존 정치체제 안에서 인민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변화의 기대치를 낮추게 된 것이다.

14. 다음 글은 구조주의의 중요한 개념인 계열체와 통합체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할 때 통합체적 특징만을 보이는 것은?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구조주의 기호학 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두 차원은 축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가로축은 통합축, 세로축은 계열축이다. 통합적 차원은 '이것-그리고-이것-그리고-이것'처럼 결합하는 것이다. 반대로 계열적 차원은 '이것-아니면-이것-아니면-이것'처럼 선택하는 것이다. 통합적 관계는 결합의 가능한 경우의 수를 의미하고 계열적 관계는 기능적 차이를 의미한다. 통합적 관계는 동일 텍스트 내의 요소들이 서로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다. 통합체는 특정 계열체에 속하는 기표들 가운데 관습이나 규칙(예컨대 문법)에 부합하는 기표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통합적 관계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중시한다. 계열적 분석은 텍스트에 존재하는 기표들을 부재하는 기표들과 비교함으로써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보 기>

영희는 오늘 철수와 프랑스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 쌀쌀해진 날씨에 집을 나서면서 운동화 대신 부츠를 신기로 한다. 그런데 재킷과 치마의 색깔이 부츠의 색과 어울리지 않아 이것저것 골라본다. (...) 철수는 프랑스 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메인 요리로 스테이크를 주문한다. 영희는 후식으로 치즈 케이크를 한 조각 주문한다.

- ① 영희의 옷차림, 영희의 치즈 케이크
- ② 영희의 부츠, 프랑스 코스 요리
- ③ 영희의 부츠, 철수의 스테이크
- ④ 영희의 옷차림, 프랑스 코스 요리
- ⑤ 프랑스 코스 요리, 철수의 스테이크

15. <보기>의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보 기>

- ㄱ. 수학 선생님이 재미있으면 성진이는 수학을 좋아한다.
- ㄴ. 국어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지 않거나 수학 선생님이 재미있다.
- ㄷ. 수학 선생님이 재미있지 않거나 철수는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 ㄹ. 국어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지 않으면 수학 선생님이 재미있다.

- ① 수학 선생님이 재미있으면 철수가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 ② 철수가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하면 국어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낸다.
- ③ 국어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거나 수학 선생님이 재미있다.
- ④ 성진이가 수학을 좋아하거나 철수가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 ⑤ 국어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내면 수학 선생님이 재미있다.

16. 다음 글의 (가)~(마)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다시 말해서 현상학적 입장에서 볼 때 철학도 지식의 내용이 어떤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과학적 지식의 구조와 다를 바가 없다. 존재하는 것과 그 존재하는 무엇 무엇으로 의식되는 것과의 사이에는 근본적인 구별이 선다. 백두산의 금덩어리는 누가 그것을 의식하든 말든 그대로 있고, 화성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도 누가 의식하든 말든 그대로 존재한다. 존재와 의식과의 위와 같은 관계를 우리는 존재차원과 의미차원이란 말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차원이란 말을 붙인 까닭은 의식 이전의 백두산과 의식 이후의 백두산은 순전히 관점의 문제, 즉 백두산을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 바꿔 말하자면 현상학적 입장에서 볼 때 철학은 아무래도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데 그 근본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데 반해서, 분석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철학은 존재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 서술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철학은 그것이 서술할 존재하는 대상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어떤 존재를 서술한 언어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철학이 언어를 사고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하지만 철학은 언어학과 다르다.

(다) 그래서 언어학은 한 언어의 기원이 라든지, 한 언어가 왜 그러한 특정한 기호, 발음 혹은 문법을 갖게 되었는가, 또는 그것들이 각기 어떻게 체계화되는가 등등을 알고 한다.

이에 반해서 분석철학이 언어를 대상으로 할 때, 분석철학은 그 언어의 구체적인 면에는 근본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그와 같은 구체적인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철학의 기능은 한 언어가 갖고 있는 개념을 해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바꿔 말해서, 철학의 기능은 언어가 서술하는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데 있지 않고, 그와는 관계없이 한 언어가 무엇인가를 서술하는 경우, 무엇인가의 느낌을 표현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경우에 그 언어가 정확히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다. (라)

개념은 어떤 존재하는 대상을 표상(表象)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존재와 그것을 의미하는 개념과는 언뜻 보아서 어떤 인과적 관계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어떤 개념이 어떤 대상을 존재하는 그대로 표상한다 하더라도, 좀 억지 같은 말이긴 하나 그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령 나는 '금송아지'라는 말의 의미, 즉 그 말의 개념을 충분히 그리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와 같은 금송아지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언어의 의미, 즉 어떤 언어가 갖고 있는 개념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마)

<보 기>

- ㄱ. 현상학적 사고를 존재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분석철학에서 주장하는 사고는 의미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ㄴ. 과학에서 말하는 현상과 현상학에서 말하는 현상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같이 어떤 존재, 즉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킨다.

- ㄷ. 언어학은 과학의 한 분야로서 그 연구의 대상을 하나의 구체적 사물로 취급한다.
- ㄹ. 그러므로 인식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지적 활동임이 밝혀진다.
- ㅁ. 따라서 분석철학자들은 흔히 말하기를, 철학은 개념의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 ① (가)-ㄱ (나)-ㄴ (다)-ㄷ (라)-ㄹ (마)-ㅁ
- ② (가)-ㄴ (나)-ㄱ (다)-ㄷ (라)-ㅁ (마)-ㄹ
- ③ (가)-ㄴ (나)-ㄱ (다)-ㄹ (라)-ㄷ (마)-ㅁ
- ④ (가)-ㄷ (나)-ㄴ (다)-ㄱ (라)-ㅁ (마)-ㄹ
- ⑤ (가)-ㄹ (나)-ㄴ (다)-ㄷ (라)-ㄱ (마)-ㅁ

17. 다음 (가)~(라)를 읽고 추론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가) 시간은 흔히 물리적 세계의 구성 요소라고 규정된다. 시간은 밤과 낮이 반복되는 현상이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시간은 자연의 진행 과정을 통하여 인식되는 자연적이며 물리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물리적 현상을 자연적 질서의 객관적 구조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인간은 시간을 시계나 달력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개인적 시간 경험을 동시화하는 데 이용한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것을 물리적 세계의 구성 요소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자연적 현상으로서의 시간을 경험하며, 시간에 의해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간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자아의 개념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모든 인간은 시간 속에서 자신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의식한다. 육체적인 발달, 개성이나 인격의 형성은 모두 시간적 연속과 변화 속에서 경험되는 것들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간은 경험 속에 주어진 것으로서의 시간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은 삶의 조직 속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다.

(나) 시간은 자아의 개념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특별히 의미를 갖게 되며, 또 우리 자신의 유기적·심리적인 성장도 시간 속에서 비로소 의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의 의식과 인간의 삶의 의미는 언제나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정신은 시간을 생의 보편적 조건으로, 그리고 인간과 사회에 관한 지식에서 끊을 수 없는 요인으로 심각하게 의식하는 것이다.

현대의식의 전경(前景)으로서 이같은 시간의 출현은 문학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문학의 시간은 항상 경험 속에 부여된 시간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어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그래서 사적·주관적·유기적·심리적 시간의 한 계열과 관련된다. 토마스 만은 『마의 산』에서 ‘시간은 생의 매개인 것과 마찬가지로 서술의 매개’라고 하였거니와 이상(李箱)의 문학작품에서도 이러한 시간의 의식이 현저하게 확산되고 있다. 근대적 자아의 고독한 내면공간에의 투시(透視)도 물론이지만, 공리(公理)적 가치체계로서의 공적 시간의 규칙이 비산·붕괴됨으로써 그의 소설은 순차적인 시간구조의 공식을 공허하게 만

든다. 이상(李箱)의 문학은 이처럼 시간에 대한 의식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반역(叛逆)의 특이성을 현저하게 지닌다. (다) 시간팽창은 상대적으로 느린 운동에서도 확인되었다. 1971년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개의 세슘 원자시계를 상업용 여객기에 실어서 세계를 두 바퀴 돌았다. 거시적인 시계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번은 동쪽으로, 한 번은 서쪽으로 비행하였다. 그 결과 왕복여행의 시간에서 차이를 발견하였다. 미국 해군성 관측소의 원자시계를 기준으로 관측된 시간의 차이는 10억 분의 1초 정도로서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결과와 같았다. 위치추적장치(GPS)의 일부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원자시계도 시간팽창에 따라 수정해야만 시계에서 나오는 신호로 지상의 한 지점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라)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론에 의하면 중력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간다. 예를 들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즉 마천루의 꼭대기에서 지표면으로 또는 지표면에서 우물의 바닥으로 움직이면 출발점보다는 끝점에서 시간이 더 느리게 간다. 가속되는 기준계에서 등가원리와 시간팽창을 적용하면 시계가 느리게 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시계에 똑같이 적용된다. 높은 마천루의 아래층에서 일하는 회사의 중역은 꼭대기층에서 일하는 쌍둥이보다 천천히 늙어간다. 우주의 크기로 볼 때 마천루의 높이는 너무 작고, 중력 또한 강하지 않으므로 그 차이는 매우 적어서 백만 분의 1초 정도이다. 1960년 방사성 원자의 감마선을 사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하버드 대학교의 실험동 꼭대기층과 바닥층 사이에서 중력에 의하여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확실하게 측정하였다.

- ① 같은 시간이라도 달리 체험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을 물리적 지표로만 환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② 시간은 본디 물리적 실체로서 절대적인 지표이지만, 실제로는 측정 장치의 오차로 인해 측정치의 편차가 생기는 까닭에 일정한 보정이 필요한 상대적인 지표로 인식된다.
- ③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보통 물리적 시간보다 경험적 시간을 의식하게 마련이다.
- ④ 시간과 자의식의 연관성을 전제로 볼 때, 이상(李箱)의 소설에서 공리적 시간 체계에 대한 반역(叛逆) 의식이 뚜렷이 보인다는 것은,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시간의 굴레에 묶인 현실을 거부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⑤ 현대인의 시간의식은 문학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소재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20.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설명하는 ‘그것’의 개념을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와 자기를 구분한다. 자아는 내가 알고 있는 마음, 즉 의식의 중심이지만, 자기는 이 의식과 무의식을 통틀은 인간의 모든 정신현상을 가리킨다. 자기는 전체인격의 통일성과 전일성을 나타낸다. 전체인격이란 그 사람이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서서히 드러나는 것이다. 무의식과의 대면은 정신적 해리, 분열된 자기를 극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자아가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진정한 자기와의 대면, 개성화로서의 자기실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꼭 그런 순서대로 의식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의 첫 단계는 그림자의 인식이다. 그림자는 무의식에 있는 열등한 인격이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남들도 싫어하는 것, 그래서 의식에서 배제되어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린 자아의식의 여러 가지 성격 측면으로 이루어진다. 그 뒤에 무의식의 내적 인격인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의식화가 진행된다. 자아가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고 이에 적응해가는 가운데 형성되는 행동양식으로서, 흔히 사회적 역할로 지칭되는 것이 바로 외적 인격인 페르조나이다. 페르조나에 대응해서 내적 인격이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데, 융은 이를 마음이라고 부른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그 내적 인격의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남성의 여성적 원형상을 아니마, 여성의 남성적 원형상을 아니무스라 불렀다. 외적 인격이 자아가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매개체라고 한다면, 이들 내적 인격은 자아로 하여금 무의식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교량의 역할을 한다.

<보 기>

- ㄱ. ‘그것’은 의식영역의 연계점으로서 모든 적응력의 주체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지식의 확대와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하여 그 영역을 확대하거나 또한 변화하면서 전체정신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하나가 된 인격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전체정신의 일부일 뿐이다. 어떤 개인의 전체정신, 또는 전체인격이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는 미리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두 가지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는 바깥세계와 관계를 맺고 이에 적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의 내면세계를 살펴 이와 관계를 맺고 이에 적응하는 기능이다.
- ㄴ. ‘그것’은 본래 남성에게 안으로부터 오는 어떤 영감, 창조적인 통찰을 갖도록 하는 예감, 개인적으로 배려된 섬세한 정감을 갖게 하는 무의식의 기능이다. 이것으로부터 단절되면 남성은 융통성과 생동감, 창조적 아이디어를 잃어버리고, 경직되고 완고해지며 일이나 말의 기계적인 반복을 일삼게 된다. 감정의 운택을 잃은, 석회화되고 메마른 사람이 된다. 이렇듯 남성이 남성의 페르조나에 일방적으로 현신하면 무의식의 심혼과의 관계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 마치 「처용가」의 처용이 밤새도록 놀러 다닐 때 아내가 역신의 유혹을 받은 것처럼 그것은 버려지게 되며 버려진 그것은 병들고 앓는다.

ㄷ.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므로 보통 밖에 있는 대상에 투사되어 우리는 자신의 그것을 밖에서 본다.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현상이 일어나며,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에 박힌 기둥은 못 보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대상을 잘못 보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의식적인 것은 모두 밖으로 투사되어야만 비로소 인지될 수 있다. 투사가 일어났으면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투사됨으로써 무의식의 콤플렉스를 의식화할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과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반드시 자신 속으로 거두어 들여야 한다. 물론 자신 속에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아와 그토록 밀착하고 있으나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뒷면, 즉 자아의 무의식 측면에 있는 나의 짝, 나의 또 하나의 어두운 형제이기 때문이다.

- ① ㄱ-의식 ㄴ-아니마 ㄷ-마음
- ② ㄱ-자아 ㄴ-아니마 ㄷ-그림자
- ③ ㄱ-자아 ㄴ-아니무스 ㄷ-마음
- ④ ㄱ-자기 ㄴ-아니마 ㄷ-그림자
- ⑤ ㄱ-자기 ㄴ-아니무스 ㄷ-페르조나

21. 다음 (가)~(아)의 논증 중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은?

- (가)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진다.
조씨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따라서 조씨는 간이 나빠지지 않는다.
- (나)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언젠가 죽는다.
- (다) 모란꽃은 향기가 없다.
이 꽃은 향기가 난다.
따라서 이 꽃은 모란꽃이 아니다.
- (라) 모든 한국 청년은 병역의무가 있다.
모든 일본 청년은 한국 청년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일본 청년은 병역의무가 없다.
- (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파면된다.
김사무관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김사무관은 파면이다.
- (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파면된다.
김사무관은 파면이다.
따라서 김사무관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
- (사) 채씨는 미국에서 산 적이 있다.
채씨는 미국에서 봉사상을 받은 적이 있다.
따라서 채씨를 영문학과의 교수로 임용해야 한다.
- (아) 무릇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는 인간의 일반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라), (마)
- ③ (나), (다), (마) ④ (나), (다), (사)
- ⑤ (다), (바), (아)

22.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동체주의에 있어 공동선은 개인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공동체 내에 이미 존재해 있는 것이다. 주로 이러한 공동선은 공동체의 전통 안에 이미 각인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구조를 보호할 의무는 이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선 중의 하나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공동선에 비추어 자신들의 선호의 경중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선이란 결국 동등하게 간주된 개인의 선호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동선보다는 공공선의 개념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자유주의에서 이러한 개인의 선호가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수밖에 없다. 롤즈는 정치적 구성주의를 통해 공공선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정한 합의의 산물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실천이성과 합당성에 기초하여 특정의 인간관과 사회관을 이용함으로써 정치적 정의원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구성주의는 자유주의 전통의 민주사회가 합의의 정치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서구 자유주의 사회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롤즈가 상정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신념을 달리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선을 직관적으로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공공선의 형성은 결국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것을 합의할 때에만 가능하며, 그 합의의 내용이 공공선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공공선은 시민들의 공적 이성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신념체계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기존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공동선이 개인의 선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개인의 자율성은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축소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공동선에 비추어 개인 선호 간의 경중이 가려지는 현상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선을 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구성원 전체에 관계되는 공공선은 결국 당사자의 합의의 산물로 이해한다. 기실 공동체주의자들도 공동선이 사회 내의 구성원의 담론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때 공동선 또는 공공선을 관련 당사자의 합의의 대상이나 구성의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성 있는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된다.

- ①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자유민주사회에서 공공선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의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 ②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선이 개인의 선호에 상관없이 사회의 전통 안에 이미 각인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도 공동선이 사회 구성원들의 담론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 ③ 공동체주의자들에게는 공동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반면,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동선보다는 공공선의 개념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 ④ 정치적 구성주의는 정치적인 정의의 원칙들을 구성절차의 산물로 표현하는데, 그 구성절차는 본질적으로 실천이성, 전통적 가치, 그리고 개인의 선호 등에 기초하고 있다.
- ⑤ 자유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신념을 달리하는 구성원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선을 직관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구성원 전체에 관계되는 공공선은 결국 당사자의 합의의 산물로 이해된다.

23.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는 근사적으로라도 '-4'의 제곱근을 나타낼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 허수라는 것이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다.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부호를 붙이는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허수는 아주 정정당한 숫자 가족의 일원이다. 아니, 그것이 꼭 있어야만 숫자 가족은 완전해진다. 사실 실수함수에 대한 이론을 증명하는 것은 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소수(실수와 허수를 모두 포함)함수만큼이나 일반적이지도 못하다. 방정식이 복소수로 된 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완전히 분리한 다음 이 각각의 방정식을 풀면 된다. 복소수는 벡터를 표기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색깔이 진한 문자를 사용한다.

전기회로에서 전위차는 보통의 경우 실수다. 그러나 복소수를 사용함으로써 그 위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유리의 굴절률도 일반적으로 실수다. 그러나 복소수의 굴절률을 사용하면 이 유리 재질이 얼마만큼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지를 나타낼 수 있다. 양자역학만큼 복소수 벡터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도 드물 것이다. 슈뢰딩거 방정식은 아예 그 속에 단위허수인 -1의 제곱근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다. 상대성 이론에서 4차원의 벡터도 허수를 이용하면 아주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

실수와 허수 사이에는 외견상 보기보다 훨씬 긴밀한 관계가 있다. 무슨 뜻인지 쉽게 알기 위해서, 서로 교차하는 두 개의 곡선과 이 곡선들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살펴보자.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의 좌표는 곧 곡선들을 나타내는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킨다. 예를 들어 $y=1$ 과 $y=2$ 두 방정식을 연립으로 풀다면 해는 없다. 두 직선은 서로 평행이어서 교차하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좀 더 복잡한 방정식의 교차점을 다루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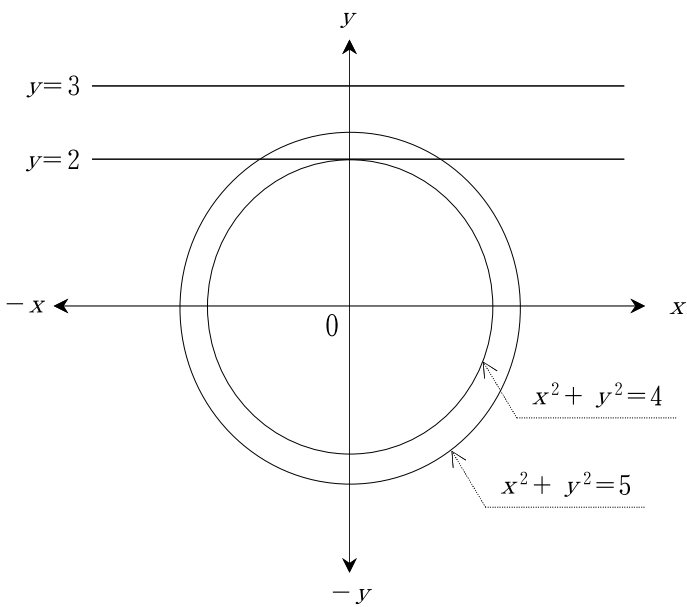
$$x^2 + y^2 = 4$$

$$x^2 + y^2 = 5$$

이 방정식들은 두 개의 크기가 다른 동심원이므로 교차점이 없다. 따라서 두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도 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작은 원인 $x^2 + y^2 = 4$ 과 $y=3$ 이라는 수평선을 생각해보자. 이 수평선은 너무 높이 있어서 원과는 교차점이 없다. 정말 그런가?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으로 풀면 두 쌍의 해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은 $(\sqrt{5}i, 3)$ 그리고 $(-\sqrt{5}i, 3)$ 이다. 그러면 이 점들이 의미하는 두 곡선의 교차점은 어디란

말인가? $y = 3$ 대신에 $y = 2$ 를 사용하면 교차점은 두 곡선의 접점이 된다. 도대체 허수의 평면이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을 사용해 이러한 분석방법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허수의 평면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추적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수와 허수 사이에 숨겨진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묘한 성질은 전위차와 그 위상, 굴절과 에너지 흡수와 같은 물리적 변수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도 이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 사이의 숨겨진 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벨의 이론은 서로 떨어져 있는 한 쌍의 물체 사이의 숨겨진 관계를 다루고 있다.



- ①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 ② 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자연과학 간의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
- ③ 수학적 개념의 자연과학적 응용은 그것의 시각적 표상가능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 ④ 수학에서 새로운 진리 탐구를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사고가 요구된다.
- ⑤ 같은 현상에 대하여 종종 수학과 자연과학은 서로 대립되는 해석을 제공한다.

24. 다음 (가)~(마)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_____ 이런 만큼 이상적인 도시 국가는 너무도 완전해 가깝기 때문에 설마 변할 수 있리라 생각하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그래도 변화는 생기기 마련이며, 이 변화와 더불어 모든 움직임의 원동력인 헤라클레이토스의 투쟁이 시작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사리사욕, 특히 물리적인 또는 경제적인 사욕으로 빚어지는 내면적인 투쟁, 곧 계급투쟁은 사회변화의 주요한 힘이다. “현존하는 온갖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는 마르크스주의적인 공식은 마르크스의 역사주의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역사주의에도 부합한다.

(나) _____ 그러므로 사회는 환자이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정치가는 마치 의사 혹은 치료사이며 구원자이어야 한다는 식이다. 어떤 질병의 전형적인 과정에 대한 기술을 모든 환자 개인에게 반드시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타락에 대한 플라톤의 역사적인 이론도 모든 개별적인 국가의 발달에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 이론은 주요한 형태의 구조적인 타락을 최초로 발생시키는 원초적인 발달과정과 그 전형적인 사회변화의 과정을 동시에 서술하기 위한 것이다.

(다) _____ 완전국가가 퇴화해 가는 최초의 형태, 곧 야심있는 귀족들이 지배하는 명예정치체제는 거의 모든 점에서 완전국가 자체와 비슷하다고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플라톤이 현존하는 국가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오래된 이 국가를 명백히 스파르타와 그레테의 도리아식 정체와 동일시했으며, 이들 부족적인 귀족정치체제는 그리스 안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랜 정치형태를 대표했다는 것이다.

(라) _____ 한때는 통일되어 있던 가부장적 지배계급이 이제 분열되며, 이 분열이 바로 다음 단계인 과두체제로의 퇴화를 초래한다. 분열을 가져온 것은 야심이다. 플라톤은 젊은 명예정치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처음, 그는 자기 아버지가 지배자에 들지 않았음을 한탄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는 야심을 가지게 되고 저명해지기를 갈망한다.

(마) _____ 플라톤의 기술은 탁월한 정치적 선전이다. 뛰어난 학자이며, 『국가』의 편찬자인 애덤과 같은 이도 플라톤의 아테네에 대한 힐난의 변론술에 맞설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이 끼쳤을 해독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애덤은 “민주적 인간의 출현에 대한 플라톤의 기술은 고급의 문헌을 통틀어서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걸작이다”라고 쓰고 있다.

<보 기>

- ㄱ. 민주체제에 대한 플라톤의 기술은 아테네 사람들의 정치생활과 페리클레스가 표현했던 민주주의 신조에 대한 풍자로서, 생생하긴 하나 지극히 적대적이고 공정치 못한 풍자이다.
- ㄴ. 플라톤은 역사를 사회타락의 역사로, 마치 질병의 역사인 것처럼 보고 있다.
- ㄷ. 플라톤의 완전국가를 자세히 논하기에 앞서, 타락해 가는 네 가지 국가형태의 이행과정에서 경제적인 동기가 차지하는 역할과 계급투쟁에 대한 플라톤의 분석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 ㄹ. 최선의 국가 또는 이상적인 국가와 명예정치체제의 주요한 차이는 후자가 불완전성이라는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 ㅁ. 『국가』에 따르면, 원초적이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형상이나 이데아에 가장 가까운 사회형태, 곧 최선의 국가는 가장 현명하고 가장 신성한 인간의 왕국이다.

- ① (가)-ㄱ (나)-ㄴ (다)-ㄷ (라)-ㅁ (마)-ㄴ
- ② (가)-ㄴ (나)-ㄷ (다)-ㄹ (라)-ㅁ (마)-ㄱ
- ③ (가)-ㅁ (나)-ㄴ (다)-ㄷ (라)-ㄱ (마)-ㄴ
- ④ (가)-ㅁ (나)-ㄴ (다)-ㄷ (라)-ㄹ (마)-ㄱ
- ⑤ (가)-ㅁ (나)-ㄷ (다)-ㄴ (라)-ㄱ (마)-ㄴ

25.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과 동일하게 <보기>의 내용을 적절히 골라 가장 알맞게 배열한 것은?

대학교 2학년인 철민은 좋은 학점을 받아 장학금을 받을 때는 자신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국비 장학생 선발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는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이 유지되거나 향상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적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는 외적 상황이나 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편향을 나타낸다.

<보 기>

(가) 대학교 3학년인 철수는 혼자 사이클을 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때 더 빠르게 달린다. 또한 그는 그가 좋아하는 낚시를 할 때에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열심히 낚시를 한다. 마찬가지로 모형비행기를 조종할 때에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할 때 확실히 더 잘한다. 철수는 이들 세 종류의 행동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매우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나) 다른 이들의 존재는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 사람들은 완전한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쉬운 과제를 할 때에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함으로써 주의산만을 보완하고, 그리하여 실제로 과제를 더 잘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타인들의 존재에 의해 야기되는 주의산만은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방해가 된다. 이러한 견해를 더 확장시킨 것으로 소위 '주의산만-갈등모델(distraction-conflict model)'이 있다. 이 모델에서는, 다른 이들의 존재가 (1) 관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2)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두 가지 경향들 사이에 갈등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다)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인 영희는 연극동아리에 가입한 지 1개월 되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극을 하기 위해 대사를 열심히 외우고 있다. 그런데 혼자서 자신의 대사를 읽을 때는 정확하게 암송을 하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듬거리며 제대로 읽기조차 하지 못한다. 또한 혼자 있을 때는 정확하게 춤동작을 하지만, 동아리 회원들 앞에서는 연습했던 춤동작도 생각이 나지 않아 그 순서를 자주 틀리는 경우가 많다.

(라) 앞의 (가)와 같은 현상은 인간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쥐, 바퀴벌레, 앵무새와 같은 것들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개미들은 혼자 모래를 팔 때보다 집단 내에서 함께 할 때 3배 이상 깊게 모래를 판다.

(마) 사람들이 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수행을 도와주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존재는 단순하고 잘 숙지된 과제를 할 때는 복잡한 과제를 할 때보다 과제수행에 대한 동기를 향상시켜 과제수행력을 높인다.

(바)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인 광수는 암산에 매우 약하다. 그런데 매우 어려운 암산문제라도 혼자 있을 때는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의 문제는 맞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틀린다.

- ① (가), (다) → (나) → (마)
- ② (가), (라) → (마) → (나)
- ③ (가), (바) → (마) → (나)
- ④ (나) → (마) → (가), (다)
- ⑤ (마) → (나) → (다), (라)

26. 다음 글에 나타난 기호의 유형별 예시를 가장 바르게 연결한 것은?

피스는 기호를 도상, 지표, 상징이라는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기호가 기호의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다.

- 도상: 기호가 대상과 유사하거나 대상을 흉내내는 것으로서 인식되며 서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한다. 즉, 도상 기호는 대상을 유사성에 의거해서 재현한다. 예를 들어, 건물을 찍은 사진은 실제 건물을 유사하게 재현한 도상 기호라 할 수 있다.
- 지표: 기호가 대상과 자의적이 아닌 인과관계나 물리적 근접성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표 관계는 직접 관찰하거나 추론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래 위에 발자국 두 개가 나란히 찍혀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지나갔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발자국은 두 사람이 지나갔음을 인과적으로 알게 해주는 지표 기호가 되는 것이다.
- 상징: 기호와 대상 사이에 아무런 유사성이 없으며 근본적으로 자의적이고 관습적이다. 학습하지 않으면 기호와 대상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 상징은 일반적 의미의 상징과 구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나무'라는 단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상징 기호이다.

| | 도상 | 지표 | 상징 |
|---|--------|-----------|--------|
| ① | 초상화 | 풍향계 | 삼색 신호등 |
| ② | 딸기맛 우유 | 온도계 | 초상화 |
| ③ | 풍향계 | 화재 현장의 연기 | 삼색 신호등 |
| ④ | 결혼반지 | 삼색 신호등 | 풍향계 |
| ⑤ | 삼색 신호등 | 초상화 | 딸기맛 우유 |

27. 다음 (가)~(다)는 귀류법에 의거한 논증이다. 각 논증에서 반론하고 있는 주장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생물이 진화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생물이 진화하지 않고 창조되었다면,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와 동일한 생명체가 수천만 년 전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 예컨대 지금의 포유류에 속하는 많은 동물들은 수천만 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생물은 진화한다.

(나) 세계가 전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건물이 완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목수와 벽돌공이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이 그 원인

29.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이성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아 자율적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으로 전제되고 있다. 이런 전제를 받아들일 때 이성이 제시하는, 오직 이성이 제시하는 판단 근거만이 권위를 갖는다는 주장이 서고, 그에 따라 이성은 자신의 주장을 확일적으로 모든 이에 대해 독단적으로 강요하고 자신과 다른 모든 입장을 제거하려는 전제주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계몽주의자들에 의한 이른바 ‘근대성 프로그램’이 서구 문화의 독선적 제국주의 성격을 띠고 비서구 문화에 군림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규정된 이성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픽션에 지나지 않는다. 이성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의식의 여러 기능과 완전히 구별되어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분리할 수 없는 총체적 의식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편적 이성 일반’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모든 이성은 언제나 누군가의 구체적 개인의 의식이다. 각 개인의 이성은 그의 심리적·생물학적·역사적·사회적 및 문화적 조건에 따라 어딘가 조금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성이 보편적인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가장 엄격한 인식 대상인 수학적 진리에 관해서도 때로는 두 수학자가 하나의 수학적 이론을 놓고 똑같이 이성애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다른 판단과 주장을 하는 현상으로 입증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율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성은 사실인즉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조건지어지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투명하다는 이성은 사실인즉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가려지고,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이성은 사실인즉 시간과 장소, 역사와 문화에 따라 특수하다는 사실이 최근 엄격한 철학의 차원에서는 ‘해체주의적’ 분석에 의해서,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서 입증되거나 아니면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포스트모던적 입장에서 볼 때 판단의 규범/권위로서의 이성은 한 문화, 한 공동체, 한 분야 등에 공통될 수 없고,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권위도 수없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근대성의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그것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들과는 달리 ‘근대성의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하버마스조차도 ‘합리성’을 한 개인의 이성에서가 아니라 한 사회 공동체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합의’로 정의함으로써 이성이 역사·문화·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모든 인간은 그의 주어진 여건을 반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월적이지만, 인간의 사고/관찰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특수한 자신의 시간적 및 공간적, 역사적 및 문화적인 특수한 관점을 완전히 초월할 수 없고 반드시 그러한 입장에서만 가능하지, 시간과 공간이라는 특정한 지점을 초월한 보편적 지점, 즉 아무 지점도 아닌 공백 지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성은 고정된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 유동적이고, 따라서 ‘편견적’이라 할 만큼 특정한 관점일 수밖에 없다.

- ① 이성은 투명하지 않으며, 유동적이다.
- ② 이성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 ③ 이성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총체적인 의식의 일부이다.
- ④ 이성은 다른 이성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⑤ 이성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인식적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한 존재이다.

30. <보기>의 논증과 동일한 형식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보 기〉

수사학은 사기를 가르치거나 설득술을 가르친다. 수사학은 사기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수사학은 설득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 ① 아인슈타인은 철학자이거나 과학자이다. 아인슈타인은 철학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이다.
- ② 그 후보는 악당이든가 바보일 것이다. 그 후보는 상대방 후보의 이름으로 금품을 돌려서 상대방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등 악랄한 짓을 했다. 따라서 그는 바보가 아니라, 악당이다.
- ③ 만약 미정이가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운전경험이 있을 것이다. 미정이는 운전경험이 있다. 따라서 미정이는 운전면허증이 있다.
- ④ 철수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거나 축구를 좋아한다. 철수는 야구를 좋아한다. 따라서 철수는 축구를 좋아한다.
- ⑤ 모든 고양이는 조류가 아니다. 모든 말은 조류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고양이는 말이 아니다.

31. <보기>를 뒷받침하는 사실 또는 가설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인간의 뇌는 “네 삶의 가장 초기에 네가 친밀하게 알고 지냈던 사람에 대해서는 성적인 관심을 끊어라”라는 규칙을 따르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 ① 키부츠에서는 탁아소에 맡겨진 아이들이 마치 전통적인 가정의 형제자매처럼 친밀하게 양육된다. 인류학자 조셉 셰퍼와 그의 동료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란 2,769쌍의 신흠부부 중에서 같은 키부츠 출신은 한 쌍도 없다는 사실을 1971년 보고했다.
- ② 친족 이성 간의 욕정은 근본적이고 강제적인 것으로서 그 어떤 억제본능보다 강하다. 따라서 근친상간과 그로 인한 가정의 재앙을 막기 위해 사회는 ‘금기’라는 것을 고안하였다.
- ③ 타이완의 민며느리제는 성비 불균형과 가난으로 인해 나중에 아들의 혼삿길이 막힐까봐 미리 어린 나이의 며느리를 데려오는 전략이다. 이런 부부들은 정상적으로 결혼한 부부에 비해 이혼율이 세 배나 높다.
- ④ 여러 사회에서 수집된 자료를 보면 유년기의 결정적인 기간 동안 이성 간의 관계가 친밀하면 할수록 그 둘 간의 성 접촉 빈도가 감소한다.
- ⑤ 사회성을 가진 영장류 종(種)에서 젊은 개체들은 인간의 족외혼을 연상케 하는 짝짓기 패턴을 보인다. 그들은 몸이 어른 크기가 되기 전에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떠나 다른 집단에 합류한다.

34. 다음 (가)~(마)는 서로 대립되는 두 역사관 중 어느 하나를 담고 있다. 유사한 역사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끼리 묶은 것은?

- (가) 워털루 전투에 대한 저술은 프랑스인, 영국인, 독일인, 네덜란드인이 모두 다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누구라도 필자 목록을 들춰보지 않고서는 옥스퍼드 주교(主教)가 어디에서 펜을 놓았는지, 그 펜을 집어든 사람이 페어베언인지 개스케인지 리베르만인지 해리슨인지 알 수 없어야 한다.
- (나) 18세기 이래 근대적 학문으로서 역사학은 ‘계몽의 수사학’이었다. 과거를 순수하게 재현한다는 그 슬로건의 배후에 계몽적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즉, 국가주의, 자유주의, 인간 해방, 또는 단순한 교훈, 그 무엇이든 계몽적 정신의 발현이라는 특징을 지녔던 것이다. 여기에서 진실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진실에 이름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계몽적 의도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에 이르는 과정과 역사학의 학문적 방법 및 절차야말로 전형적인 이항대립의 과정이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누고, 수많은 사료와 문서에 대해서도 적합한 것과 적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그 적합한 것(실은 의도에 맞는 것)들의 연쇄와 상호 관련성을 통하여 진실에 이르는 작업을 계속한다.
- (다) 역사가의 제1법칙이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두 번째 법칙 역시 진실을 말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그 누가 모르겠는가? 역사서 어느 곳에서도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역사가의 악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 (라) 지금까지 역사에는 과거를 판단하거나 운택한 미래를 위해 교훈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 있었다. 이 책은 이러한 고상한 과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진실로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려고 할 뿐이다.
- (마) 과거 역사학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면 역사가라고 해서 결코 다른 역사적 행위자를 심판하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신이 역사 형성의 한 요인에 불과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할 수 있다. 역사가는 일견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물인 역사적 ‘해석’은 역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역사가들이 ‘사실’에 대한 과신 때문에 자신의 해석이야말로 역사적 ‘진실’이라는 자기 확신에 매몰되는 경우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목격하지만, 역사학이란 좀 냉혹하게 말하자면 ‘사실’-‘사실 조각’이라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진실 게임’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사가라면 누구나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이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일 뿐이므로, 누구의 해석이 더 진실에 가까운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 얼마나 더 정확한가보다는 얼마나 많은 동료 역사가와 대중이 그 해석을 지지하는가에 달려 있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마)
-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 ⑤ (다), (라), (마)

3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후 파시즘에 대한 연구는 도덕주의적 이분법에 안주해왔다. 소수의 나쁜 ‘그들’과 다수의 결백한 ‘우리’라는 이분법은 좌파 진영이나 우파 진영 모두가 공유하는 냉전적 패러다임의 전형이었다. 우파의 전체주의론은 국가의 테러와 폭력, 권력의 강력한 통제 등 강압적 정치체제를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의 공통점으로 간주했다. 이 틀에서 파시즘과 나치즘, 현실 사회주의 등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반동이라는 범주로 한데 묶인다. 그 근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근대의 피상적 발전 과정으로 이상화하고, 파시즘이나 스탈린주의 등은 ‘전근대의 잔재’ 혹은 ‘일탈된 근대’의 불가피한 산물로 보는 인식론적 발상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그것은 파시즘과 현실 사회주의를 한데 묶어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나치즘의 과거와 동독이라는 또다른 현재에 맞서 자기 체제의 역사적 우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서독의 예에서 이 경향은 가장 두드러진다.

파시즘을 위기에 빠진 독점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의 반동적 발현이라고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해석은 우파의 전체주의 패러다임과 대척점에 서 있다. 여기에서 전선은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가 아니라 파시즘 대 사회주의의 전선으로 대치된다. 이 구도 위에서 자본주의는 파시즘과 자유민주주의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기능한다.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대립구도가 사회주의 대 파시즘이라는 대립구도로 전화(轉化)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나아가 사회적 파시즘 테제는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조차 파시즘으로 못박음으로써, 스탈린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다. 서독을 나치즘의 연장선상에 놓고 자신은 나치즘의 과거로부터 자유롭다고 여기는 동독의 자기규정도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당대의 정치적 대립물을 파시즘과 한데 묶어 배척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와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은 닮은꼴이다. 사실상 양자는 그 현상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위기 또는 대중에 대한 독재 권력의 테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틀을 공유한다. 국가 기구의 폭력, 강제와 억압의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결국 주어만 다를 뿐, 공통의 술어와 문법을 구사하고 있다.

— <보 기> —

- ㉠. 필자에 따르면 서독은 나치즘과 동독의 사회주의를 봉건적 잔재로 보았다.
- ㉡. 필자는 마르크스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반(反)파시즘이라는 면에서는 입장이 같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 ㉢. 필자에 따르면 파시즘에 대한 도덕주의적 이분론은 이데올로기적 선전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 ㉣. 필자에 따르면 동독은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을 자본주의라는 점에서 비슷하게 보았다.
- ㉤. 필자에 따르면 전후 파시즘 연구는 대중 동원과 대중의 체제 참여를 강조한다.

- ① ㉠, ㉡ ② ㉢, ㉣
- ③ ㉢, ㉣ ④ ㉠, ㉤
- ⑤ ㉣, ㉤

36. 다음은 전쟁에 관한 두 주장이다. 각 주장에 맞는 글을 <보기>에서 골라 논리 전개상 가장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 (가) 모든 나라가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성하게 하는 바람직한 결과는 모든 나라가 민주제를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민주제를 채택한다면, 인민의 신체는 군주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인민이 스스로 자신을 소유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었는데 서로 죽이는 것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 (나) 대저 전쟁이란 학자풍의 이론에서는 아무리 혐오해 마땅한 것이라고 해도, 실제 현실에서는 결국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게다가 승리를 좋아하고 패배를 싫어하는 것은 동물의 본성이지요.

<보 기>

- ㄱ. 소위 학자라는 사람은 이론을 존숭(尊崇)하고 싸움을 경멸하지만, 실제로는 역시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두 학자가 마주 앉아 각각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서로 논쟁을 주고받고, 반박하다가 목소리를 높이고, 무릎을 들이밀며 다가왔고, 눈을 치켜뜨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짱을 끼고 서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상대의 말 따위는 들으려 하지도 않지요. 그들은 아마 말할 것입니다. 자기가 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도리가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라고요. 핑계일 뿐입니다. 혹 정말로 자신의 도리가 이기기를 바랄 뿐이라면, 왜 허심탄회하고 냉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려 하지 않는 겁니까?
- ㄴ. 그러므로 문명국은 반드시 강국입니다. 전쟁은 하지만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법률이 있으므로 개인과 개인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강대한 병력이 있으므로 나라와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만적인 인민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전쟁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금의 문명국은 과거에 훌륭히 전쟁을 수행했던 나라입니다. 현대의 문명국은 현대에 훌륭히 전쟁을 치르는 나라입니다.
- ㄷ. 생피에르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시의 각국 현실 정세에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다. 단지 옛날 그대로의 제도를 답습했을 뿐, 그것을 개혁하려 하지 않고 다만 조약이나 동맹과 같은 지엽말단에 의지하여 평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 ㄹ. 예나 지금이나 나라들이 전쟁을 시작하고 서로 공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잘 살펴보면 제왕과 장군 그리고 재상의 무리가 지닌, 공명을 좋아하고 무위(武威)를 즐기는 감정, 그것이 언제나 재앙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민주제를 취하지 않는 한, 전쟁을 멈춘다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가 없습니다.
- ㅁ. 싸움은 개인의 분노입니다. 전쟁은 나라의 분노입니다. 싸움을 잘 못하는 자는 약골일 뿐입니다. 전쟁을 잘 못하는 나라는 약소국일 뿐입니다. 혹 싸움은 악덕(惡德)이며 전쟁은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개인에게 실제로 나쁜 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나라가 실제로 하찮은 짓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러한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ㄴ. 제왕과 장군, 재상의 무리는 다만 서로의 힘의 강약만을 비교하여 상대가 강하고 이 편이 약하면 할 수 없이 일시적으로 강화하고 조약을 맺어 숨을 돌리고자 하겠지만, 일단 나라가 풍요롭고 병사가 강해지는 날에는 비록 천 가지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불령(不逞)한 욕망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가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 ① (가): ㄱ-ㄴ-ㄱ (나): ㄴ-ㄷ-ㄱ
- ② (가): ㄷ-ㄴ-ㄱ (나): ㄴ-ㄱ-ㄱ
- ③ (가): ㄴ-ㄷ-ㄴ (나): ㄱ-ㄱ-ㄴ
- ④ (가): ㄴ-ㄱ-ㄱ (나): ㄴ-ㄷ-ㄱ
- ⑤ (가): ㄷ-ㄴ-ㄱ (나): ㄱ-ㄴ-ㄱ

37.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책상의 모양이라고 해서 이보다 사정이 낫지는 않다. 우리 모두는 사물의 '실체적인' 모양에 대해 판단하는 습관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반성 없이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통 실제의 모양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려고 할 때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상 하나의 사물은 보는 관점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중략) 실제적인 모양은 우리가 본 것으로부터 추리된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방 안에서 움직일 때마다 항상 변하는 모습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명을 통해 볼 때 감각은 책상 그 자체에 대한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상의 감각적인 현상에 대한 사실만을 전해주는 것 같다. 이와 같은 곤경은 촉각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책상은 항상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는 책상이 단단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우리가 책상에 대해 갖는 이러한 느낌은 책상에 얼마나 힘을 주느냐에 따라, 또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로 누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신체의 부위나 누름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느껴지는 감각들이 책상의 어떤 불변적인 속성을 직접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한 감각은 기껏해야 모든 감각들을 촉발하는 어떤 속성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표지(sign)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논의들은 책상을 가볍게 두드릴 때 들리는 소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① 동일한 대상이라도 관찰자의 상태나 관찰 상황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 ② 감각은 외적인 물리적 대상의 실제에 대해 직접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 ③ 감각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감각하는 사람의 정신 속에 있는 관념이다.
- ④ 하나의 감각을 촉발하는 복수의 상황이 가능하다.
- ⑤ 후각은 사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40.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문단 배열이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결국 이렇게 보면, 서구형 민족주의와 동구형 민족주의, 프랑스적 민족주의와 독일적 민족주의, 공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 요컨대 데모스와 에트노스의 구별은 너무 과장된 것이다. 이것이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논점이다. 데모스와 에트노스는 프랑스와 독일에 공히 존재한다. 문제는 상황이 변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역사적 변수들을 지나치게 절대화한 것이다. 한때 독일 사민당 정권은 프랑스의 이민 정책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통합적인 이민 정책을 취하지 않았던가? 켈너의 독특한 표현법을 빌리자면, 모든 민족 운동에는 ‘서구화하는 경향과 나로드니키의 경향’이 공존하고, 양자택일의 딜레마는 ‘다분히 허구적’이다.

(나) 그러나 실제 민족주의의 역사에서 선한 데모스와 악한 에트노스의 분열은 날조된 이야기일 따름이다. 그동안 살펴 보았듯이, 민족주의가 데모스와 에트노스로 쪼개져 반쫓가리들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양자의 우세한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민족주의의 한 몸 속에 있었다. 동양의 대포 때문에 두 동강이가 났다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 이미 서양 민족주의에 그런 분열의 잠재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데모스에 입각한 영국과 프랑스의 공민적 민족주의에도 에트노스에 입각한 종족적 민족주의의 요소가 강하게 잠재해 있었다. 거꾸로 동유럽의 종족적 민족주의에도 서유럽의 공민적 민족주의의 요소가 잠재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물론 공민적 민족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통상의 민족 국가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제국적인 영(英)연방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국 출신 의사가 사태를 바로잡는다는 발상은 흥미롭다. 트렐로니 박사가 반쫓가리들로 나뉘어 피투성이 결투를 벌이는 민족 국가들의 유럽에서 동떨어진 신대륙으로 떠난다는 발상도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영국의 분신이며 오리엔탈리즘의 또다른 발상지가 아닌가!

(다) 17세기 말쯤 전쟁에 참가한 테랄바의 메다르도 자작은 터키군의 대포에 맞아 몸이 산산조각 났다. 의사들은 아직 살아있는 몸의 반쪽을 꿰매어 살려 놓았다. 고향에 돌아온 반쫓가리 자작은 ‘악한’ 반쪽이라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다가 남은 반쫓가리도 어찌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선한’ 반쪽이라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그런데 두 반쫓가리들은 파멜라라는 여인을 동시에 사랑하게 되어 각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지만, 정작 결혼식 당일엔 만난 두 반쪽은 결투를 벌이고 서로 자기를 찢러 피투성이가 된다. 다행히도 트렐로니라는 영국인 의사가 덕택에 두 반쫓가리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한 몸이 된다. 완전한 인간이 된 자작은 올바른 통치를 하려고 마음먹지만, 그동안 세상이 복잡해져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상은 이탈리아 소설가 이탈리아 칼비노의 우화 「반쫓가리 자작」의 줄거리이다.

(라)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로드니키의 민족주의와 서구적인 민족주의가 똑같다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종족의 요구들이 요란하게 즉출한 동구의 ‘뜨거운’ 민족들의 경우와 서구의 ‘냉철한’ 민족주의적 민족들의 경우를 분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이지 ‘뜨거운’ 민족주의는 21세기의 ‘냉철한’-말 그대로 ‘쿨한’-탈근대 시대에도 원시적인 야성을 발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강조했듯이, ‘뜨거운’ 민족주의와 ‘냉철한’ 민족주의 모두 ‘민족주의’인 한, 양자 사이에서 반토막이 난 내적 원리의 차이는 없다. 차이가 있다면, 원리의 차이가 아니라 상황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적 원리의 차이에 입각한 서구형 민족주의와 동구형 민족주의라는 구분보다는 차라리 외적 상황의 차이에서 기인한 ‘뜨거운’ 민족주의와 ‘냉철한’ 민족주의라는 구분이 더 적절할 듯하다.

(마) 이 우화를 읽으면, 메다르도 자작이 민족주의의 의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비극의 원인이 하필이면 터키군의 대포라는 비유도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터키군의 대포로 대표되는 동양의 충격으로 민족주의가 선한 데모스와 악한 에트노스로 쪼개져 버렸다는 것일까? 그 이후로 민족주의의 ‘악한’ 반쫓가리인 동양의 종족적 민족주의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민족주의의 또다른 ‘선한’ 반쫓가리인 서양의 공민적 민족주의와 결투까지 벌여 스스로를 죽게 만든다. 정말로 다행인 것은 영국인 의사가 사태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것이다. 결자해지라는 동양의 격언이 맞다면, 터키인 의사가 등장해야 마땅할 텐데도 말이다. 다시 서양인에 의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한 트렐로니 박사는 영국 국기를 매단 배를 타고 유유히 떠난다. 다시 한 번 더 의미심장하게도 행선지는 “오! 오스트레일리아!”였다.

- ① (나)-(다)-(마)-(가)-(라)
- ② (나)-(라)-(다)-(마)-(가)
- ③ (다)-(라)-(나)-(가)-(마)
- ④ (다)-(마)-(가)-(라)-(나)
- ⑤ (다)-(마)-(나)-(가)-(라)

제25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정답가안

【언어논리영역】

| 문 번 | 가 형 | 다 형 |
|-----|-----|-----|
| 1 | 2 | 2 |
| 2 | 3 | 3 |
| 3 | 3 | 4 |
| 4 | 4 | 3 |
| 5 | 4 | 4 |
| 6 | 5 | 1 |
| 7 | 3 | 1 |
| 8 | 5 | 4 |
| 9 | 2 | 1 |
| 10 | 5 | 5 |
| 11 | 3 | 2 |
| 12 | 2 | 2 |
| 13 | 4 | 3 |
| 14 | 4 | 2 |
| 15 | 2 | 3 |
| 16 | 2 | 4 |
| 17 | 2 | 3 |
| 18 | 5 | 2 |
| 19 | 1 | 3 |
| 20 | 2 | 4 |
| 21 | 3 | 4 |
| 22 | 4 | 5 |
| 23 | 3 | 3 |
| 24 | 4 | 5 |
| 25 | 1 | 2 |
| 26 | 1 | 5 |
| 27 | 4 | 3 |
| 28 | 1 | 2 |
| 29 | 5 | 4 |
| 30 | 2 | 4 |
| 31 | 2 | 2 |
| 32 | 3 | 2 |
| 33 | 2 | 2 |
| 34 | 3 | 5 |
| 35 | 4 | 1 |
| 36 | 3 | 2 |
| 37 | 2 | 3 |
| 38 | 2 | 2 |
| 39 | 1 | 1 |
| 40 | 5 | 5 |

3. 다음 글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대와 중세의 서양사상은 인간을 철저히 ‘간주관적’(間主觀的, intersubjective)인 존재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간주관적이란 인간을 규정하는 데 있어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맥락에서 접근하였다는 뜻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들은 인간을 폴리스(polis) 속에서 생활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인간은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zoon politikon)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사상은 이상적인 폴리스를 건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도덕과 정치의 문제를 논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기독교가 전파된 중세에 들어오면서 사상가들은 인간의 존재를 신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면서 신의 대리인인 교회라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 특히 세속적인 군주와의 관계 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같은 사상가들은 각기 나름대로 세속적인 국가의 질서와 신의 나라의 질서의 관계를 탐구하고 정립한 사상가들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철저히 공동체적인 존재로 규정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에도 세속적인 국가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오직 ‘신국’(Civitas Dei)만이 참된 정의와 진리가 가능한 세계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인간을 신, 그리고 신이 창조한 우주의 질서, 그러한 질서의 현세적인 반영인 교회 공동체와 구분된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대사상은 고대와 중세의 ‘공동체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개인주의’를 태동시켰다. 고대와 중세의 사상가들이 인간을 공동체의 일부로서 또는 간주관적인 존재로서 규정해 왔음에 반해 근대 사상가들은 인간을 개인의 차원에서 자체만의 존재성과 고유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개체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사상은 인간을 설명하고 묘사하는데 더 이상 가족이나 교회, 사회 또는 국가 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인간 ‘자체’만으로서의 논리를 개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루터나 칼뱅과 같은 종교사상가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교회가 규정하는 성경의 해석을 따라서 또는 교회라는 제도를 거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grace)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종교혁명을 일으켰다. 이들은 성경의 해석도 공식적인 언어인 라틴어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 언어를 통하여 그 참다운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중세 천년을 통하여 서구인들을 지배해 온 교회라는 절대적인 공동체로부터 개인을 분리시켰다. 물론 그들은 인간과 신의 관계의 긴밀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교회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개인’은 점차 신의 존재로부터도 유리되면서 ‘절대 개인’(absolute individual)으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과 신을 분리시키고 ‘세속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데카르트이다. 데카르트는 공동체와는 무관하게 규정되는 개체로서의 인간의 전형을 제시해 주었다. 그는 지식의 근원을 하나님, 성경, 교회, 전통, 역사, 관습 등에서 찾던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내부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인간 내부의 앎의 근원을 인간의 인식을 가능케 하는 ‘코

기토’(cogito), 즉 사고 또는 의식(consciousness)에서 찾았다. 이 과정에서 데카르트는 세상을 사고하는 ‘주체’와 이 주체가 인식하는 외부세계인 ‘객체’로 나누었다. 여기서 주체는 외부의 세계와는 아무런 선형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 독자적이고 자족적인 존재로 규정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근대의 철학은 이 주체가 어떻게 외부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푸는 하나의 일관된 문제의식 하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 ① 그러므로 주체와 객체를 가르는 기본적인 이분법의 사고 방식,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정확한 표상으로서의 인식에 대한 개념, 인간 이성은 그 자체로 편견, 선입견, 전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자신감, 우선 인식의 확고한 토대를 확보하고 그 위에 보편과학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의 이상, 자기반성의 힘에 의해 역사적 문맥과 지평을 초월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물자체를 인식할 수 있다는 믿음 등이 데카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개념들이다.
- ②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근대사상이 형이상학을 극복하였다고 말한다. 특히 근대사상의 총아인 자연과학을 형이상학과는 극단적으로 상치되는 사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과학사상을 포함한 근대사상은 결코 형이상학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이렇게 설정된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근대철학자들은 데카르트가 모든 공동체와 신과는 무관하게 설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 ‘주체’의 모습을 보다 다양하게 묘사하기 시작하였다. 즉 데카르트가 사고 또는 의식으로 규정한 ‘주체’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해 나가면서 ‘살’을 붙여나가기 시작하였다.
- ④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지식, 주관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완벽하게 가치중립적인 지식의 추구는 ‘주관적인 견해’(doxa)를 비판하면서 불변의 이데아 차원의 앎을 설파하였던 플라톤이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지식을 거부하고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라고 부르짖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식관과 동일하다.
- ⑤ 그리고 이러한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데에 데카르트가 필수적인 방법으로 생각한 것은 수학과 기하학이다. 즉 절대적인 지식에의 회구는 데카르트에게도 수학과 기하학적 지식을 진리에 가장 근접하는 앎으로 간주하게 하였다.

4.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현상학의 발견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최초의 두 가지는 생활세계(life-world)와 삶을 살아가는 육체(lived body)이다. 그것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현실 지평으로서의 생활세계는 체현된 주체에 서식했고 서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서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삶을 살아가는 육체는 사회성의 기본적인 문법이다. 육체가 우리를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의 세계와 원초적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존재하는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체이다. 삶을 살아가는 육체가 없다면 인간은 영원히 수동적인 방관자, 인체해부용 모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사회성은 결코 탈체현(脫體現)되고 비가시적인 마음이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상호 육체적인, 즉 체현된 육체가 대결(confrontation)하는 곳이다. 마음은 독백적인 반면 육체는 필연적으로 대화적이다. 삶을 살아가는 육체 때문에 인간은 분리될 수 없도록 사회적 존재가 된다. 달리 말하면, 육체의 죽음은 사실상 사회적인 것의 죽음이다.

삶을 살아가는 육체 혹은 주체로서의 몸(body-subject)은 푸코의 정치적 육체의 윤리학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대한 현상학적 응답이다. 한편으로 푸코의 철학적 공헌은 권력관계로서의 정치적 육체의 윤리학-의학적, 감금된, 그리고 성적 육체-에 대한 심오한 통찰에 있다. 그러나 정치적 육체에 대한 그의 계보학은 사회적 존재론의 중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몸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

다른 한편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절름발이이거나 혹은 기껏해야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주체로서의 육체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버마스가 철학적 근대성을 옹호하는 것은 사회적 존재론을 정당화할 수 없는 탈체현된 이성으로서의 마음, 즉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을 옹호하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사회에 관한 이론은 여전히 탈체현된 이성이라는 계몽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다.

결국 육체 해석학 혹은 그 중심점이 삶을 살아가는 몸에 놓여 있는 정치적 육체의 현상학은 탈체현된 이성으로서의 근대적 마음을 위한 파르마콘(Pharmakon), 즉 치료제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대화적, 의사소통적, 공동체적이다. 탈체현된 이성 근대성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 육체 해석학은 하나의 탈근대적인 프로젝트이다. 그것은 탈체현된 이성을 해체한다. 탈체현된 이성의 종말은 근대성의 종말이며 탈근대성의 시작인 것이다.

- ① 푸코와 하버마스는 자신의 철학적 체계를 세우는 데 바쁜 반면, 삶을 살아가는 몸의 현상학을 사회세계의 물질적 정박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② 푸코와 하버마스는 사회성의 근본이념은 무엇보다도 먼저 상호 육체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고 만다.
- ③ 푸코는 평생 동안 정치적 육체(몸의 정치학)의 고고학과 계보학에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곳게도 인간의 육체를 세계의 능동적 존재(체현)로 이해하는데 실패하였다.
- ④ 푸코와 하버마스는 사회존재론에 대한 현상학적 답변으로서, 몸 자체가 사회적 담론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떤 종류의 사회존재론이든간에 삶을 살아가는 몸의 현상학이 그것의 선결조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 ⑤ 하버마스는 후설(E. Husserl)의 생활세계(Lebenswelt)에 관한 근본적 현상학을 기꺼이 재전유하고자 하며, 왜곡되지 않은 대화와 소통의 철학자로서 자기 자신을 옹호한다. 그러나 역시 상호 육체적인 소통 가능성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소통 행위에 전제된 기초, 즉 삶을 살아가는 육체를 무시한다.

5.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보기>가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당한 곳은?

글을 잘 짓는 사람은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로다.

글자[字, 단어]는 말하자면 군사요, 뜻[意, 주제]은 말하자면 장수에 해당한다. 제목은 적국이요, 전거(典據)로 삼을 지식은 전장(戰場)의 보루(堡壘)와 같다. 글자를 묶어서 구(句)로 만들고 구를 합해서 문장을 이루는 것은 대열을 짓고 진을 짜는 것과 같으며, 운을 가다듬어 소리를 내고 수사로써 빛을 내는 것은 북과 종을 울리고 깃발을 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 조응(照應)이란 봉화, 비유(譬喻)란 유격대에 해당하고, 억양(抑揚)과 반복(反復)은 육박전(肉薄戰)으로 적을 무찌르는 것과 같다. 제목을 미리 설파하고 나서며 매듭을 지어놓는 것은 적진에 먼저 뛰어 들어 적을 생포(生捕)하는 것과 같고, 함축(含蓄)을 귀중히 여김은 적의 노폐병(老廢兵)을 사로잡지 않음과 같고, 여운을 두는 것은 기세를 떨치면서 개선하는 격이다.

대저 장평(長平)의 군사는 날랜이 지난 때보다 달라진 것이 아니요, 활이나 창, 칼날의 날카로움도 전날보다 변한 것이 아니련만 염파(廉頗)가 거느릴 때는 승전하다가 조괄(趙括)이 대신 거느리자 몰살을 면치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버릴 군사가 없고 글을 잘 짓는 사람에게는 쓰지 못할 글자가 없다. 만약에 적당한 장수만 얻는다면 썩어, 자루, 창 막대기만 든 농군이 날래고 사나운 군사가 될 수 있고, 두건 자락을 찢어내 장대 끝에 달아도 빛나는 깃발이 될 수 있다. (나)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이치를 담고만 있다면 집안에서 나누는 일상 대화도 교과서에 실을 수 있고 아이들 노래와 속담도 훌륭한 고전의 사전에 넣을 수 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글이 정교하지 못한 것이 글자의 탓은 아니다.

저 자구(字句)가 우아하다거나 비속하다거나 평하고, 어느 장(章)의 격조가 높다거나 낮다거나 의논하는 무리들은 모두 구체적 상황에 따라 방법이 변해야 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응용에 의해서 승리가 얻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비유해 말하자면 용감치 못한 장수가 속으로 아무런 요량도 없이 갑자기 적의 굳은 성벽에 부딪친 것이나 마찬가지로 글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속으로 아무런 요량도 없이 갑자기 글 제목을 만났다고 하자. 겹겹에 산 위의 풀과 나무에 지레 걸려 넘어지듯 눈앞의 붓과 먹이 다 결판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외우던 문자조차 쓸모없이 흩어져서 남는 것이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글을 짓는 사람의 걱정은 언제나 제풀에 갈팡질팡 길을 읽고 요령(要領)을 잡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다. (라)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한 글자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채 더디고 까다로움만을 고되게 여기게 되고, 전체의 핵심을 잡지 못하면 겹겹으로 꼼꼼히 둘러싸 놓고서도 오히려 허술함을 걱정하는 것이다. (마) 한 마디의 말만 가지고도 요점을 찌르며 나가면 마치 적의 아성(牙城)으로 감쪽같이 쳐들어가는 격이요, 단 한 구절의 말만 가지고도 핵심을 끌어낸다면 마치 적의 힘이 다할 때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 진지를 함락시키는 것과 같다. 글 짓는 묘리는 바로 이와 같아야 최상이라 할 수 있다.

— <보 기> —

비유해 말하자면 아무리 맹장이라도 군대가 한 번 제 길을 잃어버릴 때에는 최후의 운명을 면치 못하며 아무리 물썰 틈 없이 포위한 때에라도 적이 빠져 도망칠 틈은 없지 않은 것과 같다.

- ① 한국어의 기본색의 종류에 대한 인식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의 것보다 많은 차이가 있다.
- ② (나)에 따르면 우리말 색깔 어휘의 질은 정도의 모음의 교체보다는 자음의 교체가, 자음의 교체보다는 접사의 부착 여부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
- ③ (다)의 ㉠도 여유 있는 행위 모습을 나타내고자 할 경우라면 ‘서나서나’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④ ㉡로 보아 ‘장감장감’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서둘지 않고 걷는 모양’의 뜻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 ⑤ ‘짜드락짜드락, 싸박싸박, 서나서나, 장감장감’은 상황에 따라 표준어의 ‘천천히’로 교체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8. 다음은 논리적 오류가 포함된 주장들이다. 오류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 ① 나는 네가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너도 알다시피 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출신이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 중에 그 대학 출신들이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대학의 출신자가 유능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유능하겠나? 그 대학 출신자들이 모두 유능하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 ②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법학, 의학, 공학, 경제학을 공부한다. 그러니 자녀가 대학생인 이상 자녀 역시 법학, 의학, 공학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 ③ 세상에 흔한 동물이 개다. 요즈음은 많은 가정집에서 애완견을 키우기도 한다. 우리들이 알고 있다시피 키우다가 싫증나면 버리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진돗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진돗개도 개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진돗개 역시 흔한 동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 ④ 물체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초등학교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최근의 과학적 발전은 원자가 다시 쪼개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어쨌건 원자도 너무나 작아서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불펜도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너도 인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펜을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람들은 내 주장을 황당하게 생각하겠지만, 나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희랍의 철학자 제논도 눈에 보이는 운동의 존재를 부정했었다.
- ⑤ 요즘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만약 누군가가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운다고 생각해 보자. 한 개비의 담배를 피우면서 흡입하게 되는 니코틴의 양이 0.1mg이라고 해 보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에 2mg의 니코틴을 먹는 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 년 동안 730mg의 니코틴을 먹는 셈이다. 이 양이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 것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누군가가 180mg의 우유통 4개 분량의 니코틴을 한꺼번에 들이켰을 때 어떤 생리적 변화가 생길지 상상해 보라.

9. 다음 글을 읽고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개념들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바르트(R. Barthes)에 따르면 의미작용(signification)은 일종의 과정으로서 그것은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é)를 결합시키는 행위이다. 그런데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관계를 주장하는 소쉬르(Saussure)와는 다르게 엘름슬레우(Hjelmslev)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새로운 의미를 낳는 기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하며, 이 기표가 또 다른 기의와 결합되는 형식을 공시(connotation)로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단어가 어떤 문맥 속에서 기호로 작용하면서 본래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고 부가적인 새 의미를 산출하는 현상을 공시현상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의미작용은 외시적(denotatif)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 공시적(connotatif)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르트의 신화분석과 연결되는데, 그는 일반적인 기호개념에서 출발하여 기표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기호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보 기 >

영희가 철수를 짝사랑하다가 급기야 장미꽃을 바치는 행복한 상황을 떠올려보자. 영희가 철수에게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호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장미꽃을 불쑥 내놓는다고 하여 기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기호를 만들어서 기호작용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기의와 그것을 운반하는 기표가 필요한데, 영희는 선희의 조언에 따라 장미를 기표로 택한 것이다. 이 때 영희가 장미보다 더 붉게 물든 얼굴을 차마 들지 못하고 철수에게 건넨 장미꽃은 ‘사랑의 기호’가 된다. 이렇게 기표와 기의를 결합시키는 작용을 (㉠)이라 부른다.

장미꽃을 받아든 철수가 그 장미꽃(기표)에 어떤 의미(기의)가 담겨있는지 알아차리면(기호해석) 철수 쪽에서도 동일한 의미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기호작용 때의 의미작용(의미생산)과 기호해석 때의 의미작용(의미재생산)이 같을 때, 우리는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의미공유)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곧바로 커뮤니케이션을 뜻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의미는 전달될 수 없고 다만 재생산되며 이 때 매개가 되는 것은 기표 또는 메시지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메시지의 전달과정으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동일한 (㉠)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쌍방이 참여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꽃을 받아든 철수가 “에취~ 나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해서……”라고 답했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의미작용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 동일한 의미를 재생산하지 않은 (㉠)이 있었고 따라서 의미공유가 발생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차원에서는 장미꽃은 영희나 철수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 차원에서 장미꽃은 영희에게는 ‘사랑’이라는 의미로, 철수에게는 재채기와 콧물이 나게 만드는 ‘고통’의 의미로 나타난다. (㉣) 의미가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지만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 의미이다.

- ① ㉠-공시현상, ㉡-기표, ㉢-기의
- ② ㉠-의미작용, ㉡-외시적, ㉢-공시적
- ③ ㉠-공시현상, ㉡-외시적, ㉢-공시적
- ④ ㉠-의미작용, ㉡-공시적, ㉢-외시적
- ⑤ ㉠-의미작용, ㉡-기표, ㉢-기의

10. 다음 글들을 읽고 <보기>에서 잘못된 진술을 모두 고르면?

(가) 많은 것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다면 더 적은 학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난해한 대상들에 몰두해서 참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부터 구별하지 못한 채 의심스러운 것을 확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구를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지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희망 못지않게 지식이 감소될 수 있다는 염려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규칙에 따라 단지 개연적인 인식을 모두 내던지고, 완벽하게 인식된 것 및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만을 신뢰해야 한다. …… 우리가 진리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곤란과 오류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전투와 다름없으며, 일반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관해 그릇된 의견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전투에서 패하는 것이다.

(나) 진보적 사유라는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계몽은 예로부터 공포를 몰아내고 인간을 주인으로 세운다는 목표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완전히 계몽된 지구에는 재앙만이 승리를 구가하고 있다. 인간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무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이 신화와 계몽주의의 성격을 규정한다. 신화가 죽은 것을 산 것과 동일시한다면, 계몽은 산 것을 죽은 것과 동일시한다. 계몽주의는 신화적 삶이 더욱 더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계몽주의의 최종적 산물인 실증주의의 순수한 내재성은 보편적 금기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바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관계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바깥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허용할 수 없다.

(다) 인간의 이해라는 것은 인간 현존재의 사실성, 즉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전통의 근원적인 제약 속에 있는 현존재가 부단히 미래의 가능성으로 기획하여 나아가는 자기이해이다. 따라서 이해는 탈역사적, 비역사적인 것을, 즉 주관 내의 의식적이고 심리적인 과정 또는 이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는 사건이 아니다. 이해는 어디까지나 시간과 역사 속에서 가능하며, 진리라는 것도 이미 역사적 진리다. 인간은 시간 속에 놓여 있는 존재로서, 그의 이해 역시 전승된 역사와 결별하여 어떤 대상을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권위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先) 판단은 이해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라) 우리는 권력의 관계가 중단된 곳에서만 지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지식은 권력의 명령, 요구, 관심의 밖에서만 발전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권력이 사람을 미치도록 만든다고 하여, 바로 이 권력을 포기할 경우에만 학자가 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믿음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권력은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권력과 지식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 결과적으로 인식하는 주체, 인식해야 할 대상, 그리고 인식의 양식들은 모두 ‘권력 즉, 지식’에 근본적으로 그만큼 연루되어 있다. 따라서 권력에 유용하거나 반항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것도 인식주체의 자발적 활동의 산물이 아니다. 인식의 가능한 영역과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그 주체를 관통하고, 그 주체가 구성되는 투쟁과 과정, 그리고 권력 및 지식이다.

<보 기>

- ㄱ. (나)의 관점에서 보면, (가)의 입장은 주체가 알지 못하는 타자가 남아 있는 데서 발생하는 불안증이나 공포증을 벗어나려다 스스로를 절대화하는 내재주의나 실증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몽은 다시 신화로 둔갑한다.
- ㄴ. (나), (라)의 관점에서 볼 때 계몽주의적 주체는 등장해서는 안 되는 주체이다.
- ㄷ. (나), (다), (라)의 관점에서 보면, 의심 불가능한 지식을 세우고자 하는 (가)의 입장에는 계몽주의의 비극과 근대적 인간의 문제점이 담겨 있다.
- ㄹ. (다)의 관점에서 보면, (가)의 주장은 인간 존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역사적임을, 또한 인간의 인식 역시 선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주장은 자신 이외에 어떠한 존재도 신뢰할 수 없는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의 주장을 따르면, 결국 전통과 권위에 굴복하는 보수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 ㅁ. (라)의 관점에서 보면, (가)에서 주장되는 지식의 추구는 이미 인정투쟁의 과정으로서 권력의 체계와 연루되어 있으며, 인식 주체가 참된 인식을 얻고자 하면 이들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반성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①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11. 다음 글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보기>의 사례들과 적절하게 연결하지 못한 것은?

(가)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저기에도 존재할 수 있다. 통신과 같은 원격기술에 힘입어 누구나 쉽게 편재(遍在)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신(神)만이 이 우주의 모든 사물에 예외 없이 편재할 수 있었다지만, 이젠 인간도 나름대로 편재함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원격현전(遠隔現前)은 단순한 신체 이미지의 투사가 아니고 그 이상의 무엇이다. 가상현실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단순히 이미지들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가상적 현전을 거의 현전의 수준으로 제공한다.

(나) 있지도 않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 재현하려는 이미지가 실재하는 어떤 것의 이미지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미지 자체가 바로 실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이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은 그와 같은 만드는 행위 안에서만 존재한다. 오늘날 가상화가 바로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작업일 수 있다.

(다) 한편 우리의 신체는 겉으로 그 피부나 머리털 그리고 눈 빛 등을 통해 남에게 보여진다. 그러나 최신 의료장비들은 신체의 겉 부분에 전혀 메스를 대지 않고서도 그 내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신체의 또 다른 피부표면을 보여주는 이 장비들은 신체의 표면을 이른바 가상화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가상화된 신체공간을 바탕으로 진단과 시술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새로운 의료장비

들이 각기 더 많은 새 가상피부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신체조직의 내부는 분명 내부이면서도 점차 외피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 신체의 가상화는 집단적 신체, 이른바 ‘하이퍼(hyper)신체’라는 개념에 이르게 된다. 형체가 없이 거대한 하이퍼신체를 이루는 살과 피는 주체적 신체의 은밀한 내부로부터 외부로 나오고 또 이 외부화된 신체는 다시 개인적인 신체 내부에 자리잡기를 반복하고 있다. 또한 신체가 자신으로부터 외부로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또 인공적인 외적사물이나 생물학적 이물질들이 주체적 내부영역인 신체 안에 넣어지기도 한다면 자기동일성의 기준일 수 있었던 신체는 더 이상 일자(一者)가 아니라 다자(多者)가 됨을 뜻한다.

(마) 원격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지각 기능은 현격히 외부화(外部化)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전화는 청각, 텔레비전은 시청각, 원격조정장치는 촉각과 감각·운동적 상호작용을 외부로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 장치들이 결국 우리의 감각을 가상화(사이버화)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가상화된 감각기관들을 공동화(共同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 기>

ㄱ. 전화는 단순히 목소리의 이미지나 재현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 그 자체를 전송한다. 전화는 ‘만져지는 신체’로부터 ‘소리나는 신체’, 즉 목소리를 분리시켜 전송함으로써 ‘만져지는 신체’는 여기에만 있지만 ‘소리나는 신체’는 이중화되어서 여기에도 또 저기에도 지금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소리나는 신체’에 관한 한, 전화통화의 쌍방은 서로 두 곳에 동시에 있다.

ㄴ. 내시경이나 CT, MRI와 같은 의료장비는 나의 몸의 내부를 마치 외적 사물인양 환히 들여다보거나 영상화할 수 있다. 또한, 초음파를 이용하여 산모의 자궁내 태아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ㄷ. 우리들이 동시에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면 공동의 큰 눈을 갖게 되는 것과 같다. 또 사진기나 녹음기는 타인의 감각을 다른 순간 다른 장소에서 지각 가능하게 해준다.

ㄹ.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듬고 가꿀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 미용술과 식이요법 등은 모두 육체미를 염두에 두고 우리 자신의 몸을 개척하는 수단이며, 또한 우리는 약을 복용하여 몸의 신진대사를 바꿔놓음으로써 병을 고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

ㅁ. 각막이나 정자와 난자 그리고 특히 혈액은 사회화, 상호화(相助化)되어 각각 전문적 ‘은행’에 보관되고 있다. 탈영토화된 혈액은 경제와 기술과 의학이 참여하는 거대한 유통조직을 통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흐른다.

- ① (가) - ㄱ ② (나) - ㄹ
- ③ (다) - ㄴ ④ (라) - ㅁ
- ⑤ (마) - ㄷ

12.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불행이란 사물의 결핍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핍감을 느끼게 하는 욕구에서 온다. 현실세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상의 세계에는 한계가 없다. 현실세계를 확대시킬 수는 없는 일이므로 상상의 세계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불행하게 하는 모든 고통은 오로지 이 두 세계의 차이에서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체력과 건강과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제외한 그 밖의 인간 생활의 모든 행복은 모두 사람들의 억측에 불과한 것이다. 신체의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불행은 공상적인 것이다.

인간은 약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는가? 이 약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의 상대적 관계를, 즉 그 말이 적용되는 자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능력이 모든 욕구보다 넘치고 있는 경우에는 곤충이든 벌레든 간에 모두 강자임에 틀림이 없다. 욕망이 그것을 능가할 경우에는 그것이 코끼리든 사자이든, 또는 정복자든 영웅이든, 심지어 신이라 할지라도 모두 약자이다. 자신의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반항한 천사는 자신의 본분에 따라서 평화롭게 산 지상의 행복한 인간보다 더 약한 존재였다. 인간은 지금 있는 그대로 만족할 때는 대단히 강해지고 인간 이상이고자 할 때는 대단히 약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욕망을 확대하면 여러분들의 힘도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오만이 힘보다도 더 확대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힘을 줄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들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의 반경을 재어보자. 그리고 마치 거미가 거미줄 한가운데 있듯이 그 범위의 중심에 머물러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만족하고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허약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 보존에 필요한 만큼의 능력만을 지니고 있다. 인간만이 오직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여러분의 능력이 인간의 불행을 만들어 내고 있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닌가? 어느 나라에서나 인간의 팔은 생활필수품 이상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만약 인간이 상당히 현명하여 여러분의 능력이란 것에 무관심해진다면 결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손에 넣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것만을 갖고 있게 될 것이다.

<보 기>

- ㄱ. 현실세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불행의 시작이다.
- ㄴ. 인간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란 주관적인 것이다.
- ㄷ. 상상력이 없는 곤충들은 항상 행복하다.
- ㄹ. 인간만이 자기 보존에 필요한 능력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기에 인간의 불행은 필연적이다.

- ① 없음 ② ㄱ
- ③ ㄱ, ㄴ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13.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나는 하나의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의심하고, 긍정하고, 부정하고, 약간의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모르며, 바라고 바라지 않으며, 또 상상하고, 감각하는 어떤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내가 깨달은 바와 같이 설사 내가 감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이 내 밖에서는 아마도 무(無)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각 및 상상이라고 부르는 이 사고 방식만큼은, 그것이 하나의 사고 방식인 한, 확실히 내 속에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몇마디 말로써 나는 내가 참으로 알고 있는 것을 혹은 지금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요약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전에 내가 매우 확실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한 것으로서 그 후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알게 된 것이 많다. 무엇이 이런 것들이었는가? 그것은 땅, 하늘, 별들, 이 밖에 내가 감각을 통하여 알게 된 모든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명석하게 지각하고 있었는가? 물론 이것들의 관념 자체, 즉 이것들에 대한 생각이 내 정신에 나타났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술이나 기하학에 관하여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 가령 2에 3을 더하면 5가 된다고 하는 것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내가 고찰하고 있었을 때, 나는 적어도 이것들을 참되다고 긍정할 만큼 명료하게 직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확실히 나는 나중에 이것들에 관해서도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하느님과 같은 어떤 전능자라면, 다시없이 명백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관해서도 속을 수 있는 본성을 나에게 줄 수 있었다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올랐기 때문일 따름이었다.

그러나 한편 나는, 내가 아주 명석하게 지각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음과 같이 외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든지 나를 속일 수 있거든 속여 보라.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결코 나를 무(無)이게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혹은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참이라고 할진대 내가 현존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언젠가 참된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혹은 2에 3을 더할 때 5보다 크게 되거나 작게 될 수 없으며, 이 밖에 이와 비슷한 일, 즉 거기서 내가 명백한 모순을 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확실히 나에게서 어떤 하느님이 기만자라고 보아야 할 아무 이유도 없고, 또 도대체 한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그저 저러한 선입견에 기초를 둔 의심의 이유는 매우 박약하다.

<보 기>

- ㄱ.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 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 ㄷ. 나의 존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어떤 전능자도 부정할 수 없다.
- ㄹ. 감각을 통해 얻은 지식은 의심스럽다.
- ㅁ. 기하학적·산술적 진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하느님이 보증한다.
- ㅂ. 감각의 내용은 의심스러워도 이로부터 유래한 관념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ㄴ, ㄷ, ㄹ, ㅁ
- ③ ㄴ, ㄷ, ㄹ, ㅂ
- ④ ㄴ, ㄹ, ㅁ, ㅂ
- ⑤ ㄷ, ㄹ, ㅁ, ㅂ

14.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갈 가장 알맞은 곳은?

- (가) 생물학에 있어서의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한 문제는 학문적으로 흥미로울 뿐 아니라 인간사 일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사랑과 증오, 다툼과 도움, 주는 것과 훔치는 것, 그리고 욕심과 자비심 등이 모두 이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나) 만약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유일한 원리가 인간 유전자의 철저한 이기주의라면 이 세상은 매우 삭막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인간 유전자의 철저한 이기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나 원숭이나 모두 자연의 선택 과정을 거쳐 진화해 왔다. 그리고 자연이 제공하는 선택 과정의 살벌함을 이해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은 모든 개체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 (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인간, 원숭이 혹은 어떤 살아있는 개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행동양식이 매우 이기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우리의 이런 예상과 달리, 인간의 행동양식이 진정한 이타주의를 보여준다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며 뭔가 새로운 설명을 필요로 한다.
- (라) 나는 성공적인 유전자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기주의이며 이러한 유전자의 이기성은 개체의 행동 양식에 철저한 이기주의를 심어주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유전자는 그 이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체로 하여금 제한된 형태의 이타적 행태를 보이도록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나 종 전체의 이익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그런 개념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진화론과는 상충되는 생각들이다.
- (마)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기주의-이타주의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가장 타당한 견해는 자연의 선택이 유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나는 자연의 선택이 일어나는 근본 단위는 혹은 생물의 이기주의가 작동하는 기본 단위는, 종이나 종에 속하는 한 그룹 혹은 개체가 아니며 바로 유전자라고 주장한다.

<보 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와 저서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진화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 즉 기존의 이기주의-이타주의 연구에서는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체'의 살아남음이 아니라 '종' 전체 혹은 어떤 종에 속하는 한 그룹의 살아남음이라고 가정했다.

- ① (가)의 뒤
- ② (나)의 뒤
- ③ (다)의 뒤
- ④ (라)의 뒤
- ⑤ (마)의 뒤

- ①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 (다)의 이성은 법칙과 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광기를 감금하고 있다.
- ② (나)와 (다)는 자연스러움보다는 이성이 기획한 원리와 법칙을 중시함으로써, 우연과 필연, 혼돈과 조화를 대립시킨다.
- ③ (라)의 입장에서 볼 때, (나)는 통일성을 추구하는 전체주의적 테러가 내재되어 있으며, (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 주체 중심적 사유가 지배하고 있다.
- ④ (라)의 입장에서 볼 때, (나)와 (다)는 근대적 이성이 지니고 있는 특징으로서 이 이성 안에 들어 있는 통일성과 일방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성 중심의 패러다임을 폐지시켜야 한다.
- ⑤ (가)의 입장에서 볼 때, (라) 역시 합리성과 반합리성이라는 대립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보기>의 물음에 답한 것은?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도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메시지 구성논리(message design logic)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메시지의 구성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가지는 믿음체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나 특성에 대한 사람들의 차별적인 관점이 메시지 구성에서 차별화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메시지 구성은 사람들이 갈등적 관계에 있을 때 특히 명확하게 드러난다. 오키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메시지 구성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표현적 메시지 구성논리(expressive message design logic)는 송신자 중심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표현(self-expression)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송신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표현적 메시지 구성논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 힘들며,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입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솔직함이나 개방성, 명쾌함 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곧바로 말하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메시지 내용의 대부분은 송신자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습적 메시지 구성논리(conventional message design logic)이다. 두 번째 메시지 구성논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협동적으로 이뤄지는 게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적절함에 관심을 가지며, 대화의 맥락, 역할, 관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것을 말하고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들은 공손하려고 애쓰며, 사회적 규칙 등을 암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이 사회적으로 잘못했을 경우 그 사람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사람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성논리는 수사적 메시지 구성논리(rhetorical message design logic)이다. 이러한 구성논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상황을 만들고 복수(자신과 상대방)의 목표를 타협

하는 도구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적 능력과 세심함과 함께 유연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수사적 메시지 구성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주목한다.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상황으로 기존의 상황을 재정의함으로써 문제를 예방하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표현적 메시지 구성논리가 반응적(reactive)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면, 수사적 메시지 구성논리는 예방적(proactive)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에게 특정한 사안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 수사적 메시지 구성논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 내용에 주목하고 불만적 상황을 새로운 다른 상황으로 재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다. 그럼으로써 불만을 가진 상대방과 자신에게 모두 혜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타협안을 만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다.

<보 기>

중소기업에 다니는 미진이는 연말 망년회에서 유부남인 부장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모욕적인 취급을 받았다. 미진의 부장에 대한 다음의 가상적 커뮤니케이션 내용 중에서 인습적 메시지 구성논리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무례하고 역겨운 사람이다. 나이 많고 더러운 인간이야.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나를 우습게 본 모양인데 나는 너 같은 인간에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취급받을 사람이 아니야!
- ② 제가 부장님하고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저를 해고하려 하신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직장상사로서 부장님의 행위는 부적절했으며, 특히 부장님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저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③ 부장님과 저는 지금까지 좋은 직장 선후배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부장님이 요즘 회사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과도하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군요. 부장님도 요즘 피곤하신 것 같으니 휴가를 내서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마음의 여유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장님은 현명하시고 회사 내에서도 촉망받으시는 분이시니 육체적, 정신적 건강 관리에도 힘쓰셔야죠.
- ④ 제가 이 직장에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환멸스럽군요. 부장님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남자들이란 하나같이 똑같군요.
- ⑤ 부장님께서 요즘 연일 관련기관 망년회 참석으로 정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부장님이 여직원들에게 신사분으로 인기가 최고였던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사모님과 요즘 사이가 안 좋아 괴로워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오늘 일은 없던 것으로 할 테니 잊어버리시고 부장님의 본 모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도 옆에서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할게요.

㉔. 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이 있는 모든 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㉕.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은 항상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㉖.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위해서 노예제가 왜 편리하고 좋은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㉗. 아리스토텔레스는 열등한 사람들과 우월한 사람을 누가 판별할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다.

- ① ㉔, ㉕, ㉖ ② ㉔, ㉖, ㉗
- ③ ㉔, ㉕, ㉖, ㉗ ④ ㉔, ㉕, ㉖, ㉗
- ⑤ ㉕, ㉖, ㉗, ㉘

20. 다음 글의 맥락상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끼리 묶은 것은?

(가) 탐내는 바가 있어서 글을 읽는 자는 아무리 읽어도 깨우침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자는 입술이 찻고 이빨이 문드러질 지경에 이르도록 글을 읽더라도 막상 글 읽기를 멈추면 마치 ㉑소경이 입으로는 희고 검은 것을 말하면서도 정작 희고 검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상태가 된다. 그것은 뜻도 모른 채 귀로 듣고 입으로 짹짹 읊조려대는 것에 불과하다. 비유컨대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 다시 토해내 버리는 것이 몸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마음에 해를 끼치는 것과 같다.

(나) 배움의 도리에서 어려운 것은 스승을 존경하는 일이다. 그런데 스승을 존경한 다음에야 도(道)가 존엄해지고 도가 존엄해진 다음에야 배우는 사람들이 배움에 대해 소중히 하고 삼갈 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태학(太學)의 예법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리 높디높은 ㉒천자(天子)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를 제자로 대하지 왕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천자도 그를 스승으로 대하지 신하로 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스승을 존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스승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상서로운 ㉓봉황새가 우연히 산모퉁이에 날아와 있는데 내 걸음이 더더 미처 보지 못할까 조바심 내듯 해야 하고, 스승을 만난 뒤엔 사랑하는 ㉔어머니와 오래 헤어져 있다 다시 만난 것처럼 해야 한다. 학문을 익히고 연구할 때에는 마치 병을 잘 고치는 ㉕용한 의원에게 아픈 자식의 병에 대해 문듯이 하고, 마음으로 터득할 때에는 길을 가다 갈증 날 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듯이 한다. 또 배운 것을 실천할 때에는 마치 보검(寶劍)을 갈아서 시험 삼아 한번 베어보듯이 해야 한다. 이런 상태를 일러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조리며 마음으로 궁리하고 손으로 조처해 보는 게 다 딱 들어맞는다는 것이니, 그 얼마나 바람직한가! 옛날에 ㉖남영주(南榮趯)*가 노자(老子)를 만나자, 공손히 몸을 기울여 노자의 그림자도 밟지 않고 공경하며 ㉗기(夔)**라는 짐승처럼 꼳꼳이 서고 뱀처럼 스르르 나아갔다. 그러다 ㉘노자에게 한 마디의 가르침을 받고는 마치 열흘 동안이나 굶었다가 진수성찬을 받은 것처럼 여겼다고 하니, 바로 공부하는 자세를 말한 것이다.

* 남영주(南榮趯) : 중국 전국(戰國) 시대 사람. 7일 밤낮을 걸어 노자를 본 후 아버지처럼 공경하여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함.
 ** 기(夔) : 외발을 가졌다는 상상 속의 동물.

- ① ㉑, ㉒, ㉓, ㉔ ② ㉑, ㉒, ㉓, ㉔
- ③ ㉒, ㉓, ㉔, ㉕ ④ ㉒, ㉓, ㉔, ㉕
- ⑤ ㉓, ㉔, ㉕, ㉖

2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올바르게 묶은 것은?

(가) _____ 권력은 제도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며 일부 사람들에게 부여되고 있다고 간주되는 특정한 권세도 아니다. 그것은 주어진 한 사회에서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부여되는 이름이다. 권력이란 특정한 전략적 효과를 통해 정의되는 어떤 관계로서, 그러한 효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관계에 부여된 이름이다. 권력이란 관계의 특정성과 무관한 불변적 실체가 아니며 여러 관계들을 포괄하는 유기적 실체도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어떤 사람은 감시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일 뿐이다.

(나) _____ 권력은 단순히 지배계급의 특정한 집단에 의해 행사되는 권한이나 특권, 강제나 금지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차라리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며 매우 불균등한 형태로 행사되는 지배의 효과를 지시한다. 즉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장치와 메커니즘을 통해 행사되며 그로써 지배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과 전술을 통해서 어쨌든 지배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표—그 목표에 전체가 합의한 적이 없이—를 관철시키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종종 실패하기도 하는 전략의 효과다. 이런 점에서 그것은 그 효과가 지배적임을 확보하지 못하고는 지배가 지속될 수 없는 지배의 조건이기도 하다.

(다) _____ 권력은 지배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지배당하는 사람 자신들에 의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명제는 권력은 행사되는 것이고 그 결과 형성되는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명제와 연관된다. 예를 들면 파놉티콘의 감시장치에 수감자를 배치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그 경우에도 파놉티콘은 다시 말해 보이지 않으면서 보는 권력의 도식은 그대로 유효하게 작동한다.

(라) _____ 권력은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성적 능력을 생산함으로써 그러한 능력의 차이로 규정되는 관계 자체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좀 더 포괄적인 차원으로 확장하자면 권력은 개개인에게 지식이나 활동능력, 성적 능력 등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들 각각을 특정한 ‘주체’로 생산하게 된다. 즉 규율권력 혹은 지식권력이라고 부르든 생체권력이라고 부르든, 요체는 개인에게 특정한 형태의 실천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를 ‘주체’로 생산하는 권력이라는 점이다.

<보 기>

- ㉑.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다.
- ㉒. 권력은 명시적으로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이다.
- ㉓. 권력은 지배계급의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 효과다.
- ㉔. 권력은 아래로부터 나온다.

- ① (가)-ㄱ, (나)-ㄴ, (다)-ㄷ, (라)-ㄸ
- ② (가)-ㄱ, (나)-ㄷ, (다)-ㄷ, (라)-ㄴ
- ③ (가)-ㄷ, (나)-ㄱ, (다)-ㄴ, (라)-ㄷ
- ④ (가)-ㄷ, (나)-ㄱ, (다)-ㄷ, (라)-ㄴ
- ⑤ (가)-ㄷ, (나)-ㄷ, (다)-ㄴ, (라)-ㄱ

22.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세기말이 되어서는 많은 수의 시민들이 나라 일을 정치계급에게 맡기고는 자신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서로의 연설문과 논설을 읽는 정치계급은 직업적인 정치가, 언론인, 로비스트 등의 특별이익집단으로서 그들의 직업은 신뢰도에 대한 사회학적 조사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과정은 자신과 무관한 것이거나 단순히 자신들의 생활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부, 생활과 오락의 개인화, 소비자 이기주의가 정치를 덜 중요하고 덜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에서 얻을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정치에 등을 돌렸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한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비율은 1960-1988년 사이에 3분의 1이나 줄었다. 계급에 기반하거나 이데올로기적이거나 둘 다인 대중정당조직들의 쇠퇴는 남녀들을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주된 사회적 동력을 제거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에 대한 집단적 일체감조차 이제는 국가와 제도들을 통해서보다는 국민적 스포츠, 선수단, 비정치적 상징물들을 통해서 더 쉽게 형성되었다.

탈정치화로 인해 권위체들의 정책결정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때때로 공적인 이익의 특정한 쟁점들을 위해서, 보다 빈번하게는 일정한 분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벌인 소수집단들이 만능의 정당들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각각의 압력집단은 정당과는 달리 자신의 힘을 단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순탄한 통치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들이 갈수록 조직적으로 선거과정을 비껴가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대중매체의 정치적 기능이 더욱 커졌다. 이제는 모든 가정에 확산된 대중매체가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성인남녀 및 아동에 이르기까지 단연 가장 강력한 의사전달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대중매체는 권위체가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표하는 능력과 공식적인 민주주의 장치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았거나 더 이상 그렇게 표현될 수 없었던 국민대중의 감정을 표현해주는 능력 덕분에 공적인 무대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정치가들은 대중매체를 이용했고 대중매체를 두려워했다. 기술의 발전은 고도로 권위주의적인 나라들에서조차 대중매체를 갈수록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국가권력의 쇠퇴는 비권위주의적인 나라들에서 대중매체를 독점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 ① 공적 영역에서의 대중매체의 정치적 역할 강화는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② 정치계급이란 특정한 사회계급을 대표하는 정치집단을 의미한다.

- ③ 이익집단정치는 정당정치를 보완한다.
- ④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이익 반영을 위해 언제나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다.
- ⑤ 사회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은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한다.

23. 다음 글로부터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자본주의 시장은 모든 것을 상품화, 즉 가격으로 환원하는 시장체제에 의해 작동된다. 노동시장을 통해서 상품화되는 노동력은 여타 상품과는 달리 재고로 쌓여 있을 수 없으며 끊임 없이 재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품화에 실패할 때 재생산의 위기, 곧 그 소유자인 노동자의 생존의 위기가 초래된다.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생산체제는 거기에 내재된 본래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노동력을 적절히 상품화시키는 데 실패하는 시장 탈락자들을 체계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실업자뿐 아니라 저임이나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탈상품화란 재생산이라는 절박한 필요로 인하여 쉽사리 시장으로부터 철수되어서는 안되지만 현실에서는 빈번히 철수되거나 철수의 위험 혹은 위협에 직면해 있는 노동이 '비인격적 시장의 작동 원리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화를 확장하면, 복지체계란 하나의 탈상품화 체계이며, 비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밀려난 자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도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장치인 것이다. 그리고 모든 복지국가는 복지 지출의 종류와 규모, 복지 대상의 선정, 복지 공여의 방식 등에 따라 탈상품화의 효과에서 다양한 양적·질적 차이를 보인다.

물론 탈상품화를 위하여 우리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민간 부문에 의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민간 부문의 장치들은 대부분 기여와 급여에서 보험식 산정에 입각해 있는, 즉 화폐관계(cash-nexus)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화폐관계의 그물인 시장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한 탈상품화 장치로 기능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더욱이 세계화 담론의 범람과 더불어 양산되며 전통적 계급 스펙트럼 밖에 위치하는 이른바 저변 계급 혹은 만성적 복지 의존 계층에게 민간 보험상품이란, 그렇지 않아도 꺾진한 현재적 소비자원을 희생해야만 구입이 가능한, 접근 자체가 원천적으로 힘겨운 사치품일 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는 복지국가란 일차적으로 '국가'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 ① 민간보험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더라도 복지국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②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노동의 상품화를 필요로 한다.
- ③ 시장이 낳은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시장 외부, 즉 국가의 개입을 통해 완화되거나 해소되어야 한다.
- ④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workfare)를 장려해야 한다.
- ⑤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효과는 단순한 양적 지표를 넘어서야 한다.

24. 다음 글에 등장하는 ‘홍길동’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카피레프트(Copyleft)는 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를 패러디한 신조어이다. ‘공유저작권’으로 해석되는 카피레프트는 정보의 공유를 주장하며 정보의 상품화와 독점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을 총칭한다. 카피레프트 진영의 기본 입장은 정보란 상품화의 도구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며, 창작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발표된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카피레프트는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배포시 저작자가 이용자에게 복제와 수정의 권리를 함께 주는 것이다. 따라서 카피레프트가 적용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는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다시 배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카피레프트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저작권에 포함되어 있는 독점권과 복제금지를 반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카피레프트가 설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카피레프트는 저작자의 창조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저작권을 설정한 다음, GPL(General Public License)을 함께 설정한다. 카피레프트의 핵심은 GPL로서 누구나 복제와 수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원본 및 어떠한 형태의 변형본 역시 같은 원칙 속에서 배포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배포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란 사람이 A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가정하자. 홍길동은 우선 A의 개발자가 자신임을 밝히는 저작권을 설정한 후, GPL을 설정하여 인터넷에 배포한다. A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던 B는 A의 단점을 보완하여 A-1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카피레프트 규약에 따라 A의 저작권은 홍길동에게 있으며, A-1의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역시 GPL을 설정하여 인터넷에 배포한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개발된 운영체제가 바로 카피레프트 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리눅스이다.

카피레프트가 저작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카피레프트된 정보를 수정해 현행 저작권법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즉 원저자의 창작 노력을 중간에서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부당한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카피라이트 진영이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하여 카피레프트 진영은 순수한 창작은 있을 수 없고, 인터넷 공간에서 창작을 촉진시키는 것은 독점이 아니라 오히려 공유로부터 시작되며, 저작권이 창작자가 아닌 창작자를 고용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 기>

- ㉠. 내 초에서 불을 붙여가는 사람은 내 초의 불빛을 조금도 흐리게 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초에 불을 밝힐 수 있다.
- ㉡. 지적재산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더 많은 창작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과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이다.
- ㉢. 저작권법이 우리의 적은 아니다. 우리의 적은 무익한 규제다.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모든 영역으로 저작권법의 규제를 확장하는 것이 유익한가 하는 점이다.
- ㉣.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지식이나 정보는 그 이전에 존재해 왔던 지식이나 정보에 기초해서 생산된다.
- ㉤. 공짜로 다운로드 받는 음악파일이 난무하는 현실은 위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문제임을 말해준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25. 다음 글의 빈칸 (가), (나)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문장은?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아메리카 정복 시기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못 기록하거나 왜곡하여 서술한 오류도 자주 발견된다.

(가)

위의 인용문에는 유럽 사람들이 “라틴아메리카를 탐험하고 정복하였다.”고 기술했는데, ‘라틴아메리카’를 ‘아메리카’로 정정해야 한다. 이 사건은 영국이 아메리카 북동부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670년 에스빠냐와 영국 간의 협약에 따라 북쪽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야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에스빠냐인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16세기 중반에 멕시코를 탐험했다는 내용도 오류다. 그는 16세기 중반이 아니라 초반인 1519년에 멕시코의 베라크루스 지역에 도착했고, 아스떼카 제국의 수도인 메쉬꼬-떼노츠티뜰란을 멸망시킨 것은 1521년이었다. 그리고 엘도라도가 ‘황금으로 가득 찬 도시’라는 뜻이라고 설명한 것도 오류다. 에스빠냐어 El dorado는 직역하자면 ‘황금으로 도금된 사람’ 정도이고, 의역을 하면 아메리카에서 황금을 찾아 벼락부자가 된 ‘황금의 사나이’란 뜻이다.

이외에도 아메리카 정복에 관해 흔히들 오해하는 내용이 있다.

(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스빠냐 왕실이 아메리카 정복을 직접 지휘했고 정복자들은 에스빠냐의 정식 군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완전히 착각이다. 아메리카 정복은 민간 사설 무장 집단이 주도했고, 정복자들도 일반 민간인이었다.

- ① “엘도라도에 대한 호기심과 황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라틴아메리카를 탐험하고 정복하였다.”
- ② “1532년 11월 16일 잉카 제국은 에스빠냐의 피사로가 이끄는 180여명의 군대에 의해 멸망했다.”
- ③ “이후 16세기 중반에 멕시코를 탐험하였던 코르테스가 카카오를 에스빠냐의 귀족과 부유층에 소개하여, 17세기 중반에는 유럽 전역에 퍼졌다.”
- ④ “코르테스는 이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여 폐허로 만들고, 그 위에 ‘새로운 에스빠냐’라고 불리는 멕시코시터를 건설하였다.”
- ⑤ “엘도라도는 에스빠냐어로 ‘황금으로 가득 찬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문장을 <보기>에서 골라 올바르게 묶은 것은?

첨단 생명공학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가) _____ 장기 이식, 정자은행, 난자은행, 체외수정, 인체실험, 실험적 치료, 배아연구, 태아조직 이식, 성감별, 냉동수정란, 대리모 임신, 인공자궁 개발, 임상시험, 성장호르몬, 유전자 진단, 인간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치료, 유전자 개선, 인간복제 등 이 모든 기술적 성과들을 위해 우리 몸은 과학자들의 탐구욕의 대상이자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암투장이 되고 있으며, 국가의 생명공학 육성책의 전략기지가 되어가고 있다.

둘째, (나) _____ 만약 각종 생식보조기술과 유전자 진단 기술로 비정상적인 자녀의 출산은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모가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에 따라 장애를 지닌 자녀를 출산한다면, 이런 행위는 어떻게 이해될까? 기술사회의 분위기는 부모의 자유로운 결정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임을 알고 분만하는 그들의 행위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나 않을까? 만약 아이들이 완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처럼 '건강한 가계를 지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면, 결함을 가진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돌봐준다는 사회의 적극성은 필경 손상될 것이다.

셋째, (다) _____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술을 적용받을 권리는 아랑곳없이, 외부에서 정해주는 기준을 좇아가야 하는 생활환경에 은연중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인공수정, 체외수정, 냉동수정란, 배아복제, 대리모, 산전 유전검사, 산전 유전자치료 등 각종 생식보조기술 덕분에 불임부부, 특히 여성들이 진정 자율적으로 확대된 출산의 권리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불임은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신념을 확산시키는 의과학 메커니즘에 종속되어 오늘도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고 그리고 필경 건강마저 상하게 되는 많은 여성들이, 진정 출산의 결정과 자신의 건강상의 결정에서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지 의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 혹은 가정의 선택권, 결정권이 확대된 것 같지만 실은 기술의 필연성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넷째, (라) _____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나 DNA 염기서열 등 일정한 기법으로 인체로부터 분리해 낸 생체조직에 대한 특허 확대는 생명에 대한 유물론적 사고를 조장하는 데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발명과 저작의 권리들을 왜곡시켜,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로막는 배타적 울타리로 작용하고 있다. 인간유전자를 비롯하여 인류의 공동유산인 생명물질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발견이 아닌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는 전통적인 특허법 원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체로부터 분리된, 기능이 알려진 유전자 염기서열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기술개입에 의해 분리시킨 것이기에 발견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은 결국 형용모순에 불과하다.

<보 기>

- ㄱ. 인간의 유전적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분류에 주목하는 기술의 확대적용은 은연중에 한 사회의 관용의 폭을 점점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ㄴ. 과학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은 효용과 합리성을 대변하는 전문가 내지 과학기술관료의 기준에 맞추어 눈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 쉽다.
- ㄷ. 치료, 예방, 연구,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몸에 대한 각종 개입이 쉽게 정당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이다.
- ㄹ. 생명물질에 대한 사적 소유권 개념 확대도 경계해야 할 추세이다.

- ① (가) - ㄷ, (나) - ㄱ, (다) - ㄴ, (라) - ㄹ
- ② (가) - ㄷ, (나) - ㄱ, (다) - ㄹ, (라) - ㄴ
- ③ (가) - ㄷ, (나) - ㄴ, (다) - ㄱ, (라) - ㄹ
- ④ (가) - ㄹ, (나) - ㄱ, (다) - ㄴ, (라) - ㄷ
- ⑤ (가) - ㄹ, (나) - ㄱ, (다) - ㄷ, (라) - ㄴ

27.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상·하원 의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의 이 명령이 학자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과장해서 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종류의 엄격한 심문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열거해서 말할 수 있다.

나는 영예스럽게도 그 나라의 학자들과 자리를 같이 한 바 있는데, 그들로부터 나는 철학적인 자유가 있는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행복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다. 반면 그들의 학문은 노예상태에 있으며 그들은 그저 이를 슬퍼할 뿐이었다. 이것이 이탈리아에서 지혜의 영광을 시들게 한 원인이었다. 그곳에서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아침과 과장을 하는 글 이외에는 다른 아무 것도 씌어지지 않았다.

그 곳에서 나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연금 상태에 있는 노년의 갈릴레이를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성 프란체스코와 성 도미니크의 허가관(許可官)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천문학을 연구했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죄수로 지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당시 고위성직자들의 속박 아래서 영국이 극심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감명을 받고 있는 영국의 자유에 대한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나라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현인(賢人)들에 대한 나의 기대가 지나친 것이라면 누가 지도자로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어떤 대변혁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그러한 일을 할 것인가. 허가명령이 처음 만들어지려 할 때 나는 이를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의회가 소집되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들었던 것과 같은 종교재판에 대한 식자(識者)들의 반대와 불만의 소리가 국내에서도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① 이 글의 필자는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 ② 이 글의 필자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 ③ 이 글의 필자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 ④ 이 글의 필자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 ⑤ 이 글의 필자는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매우 위험한 장면에서 매력적인 가해자가 등장하거나, 폭력이 정당하고 문제해결의 현실적 수단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사례는 드물고 폭력이 희생자에게 미치는 효과도 크지 않은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연구책임자이자 텍사스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 학장인 앨런 워털라는 “이 연구를 통해 우리가 밝혀낸 것은 폭력의 묘사에 전혀 변화가 없고 방송산업이 큰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TV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TV는 폭력 반대의 메시지를 내보낼 기회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폭력 반대의 주제를 담고 있는 프로그램은 폭력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의 5%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전국 텔레비전 폭력 연구」라는 제목이 붙여진 이 연구의 최종 보고서는 목요일 아침에 워싱턴 D.C.에서 공표되었다. 하지만 320만불의 연구비를 들여 6,000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검토한 이 연구의 결과는 공중과 방송사들이 후원했던 유사한 연구의 결과와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CLA 대학의 연구진이 수행하여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연구결과는 ‘충격 다큐멘터리’ 형식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TV 폭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케이블 텔레비전 연합회 후원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994년 이후 황금시간대 프로그램에서의 폭력은 공중과 방송사의 경우 53%에서 67%로 증가했으며 기본 케이블 방송의 경우 54%에서 64%로 늘어났다.
2. 현재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61%가 일정 정도의 폭력을 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연구의 첫 해였던 1994년의 58%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3. 폭력적 장면의 거의 75%가 자책이나 비난, 처벌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4. HBO와 쇼타임 등 극장용 영화를 편집하지 않고 보여주는 프리미엄 케이블 채널에서 폭력적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 수치는 1994년 이래 평균 92%였다.

공중과 방송사의 대변인들은 이 연구에서 공중과 방송 프로그램들이 더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 이유의 하나는 이 연구가 폭력을 너무 넓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케이블 텔레비전 연합회 연구는 폭력을 ‘물리적 폭력의 행사에 대한 확실한 위협이나, 그런 폭력을 실제로 행사하여 생명체에게 해를 미치는 상황을 명시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른 말로 하면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다른 등장인물에게 총을 쏘거나 한 대 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실제 총을 쏘거나 싸우는 것과 똑같이 폭력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UCLA 대학의 연구에서는 단지 실제 폭력행위만을 집계했다.

전국 공중과 방송사업자 협회의 대변인인 데니스 워튼은 새 연구의 결과에 대해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폭력의 압도적 다수는 공중과 방송이 아니라 유료 케이블에서 나온다”고 얘기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전 두 해의 연구에서처럼 케이블 텔레비전 연합회의 3년 차 연구에서도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만화영화에서의 폭력이 가장 유해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자들은 환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는 평균적인 미국의 비취학아동

이 매우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폭력장면을 매년 500개 이상 시청한다고 주장했다.

연령별 시청등급제를 비판했던 이 연구는 ABC, CBS, FOX와 여타 케이블 방송사들이 성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S, 폭력적 장면에 대해서는 V, 폭력적 언어에 대해서는 L, 성적 암시를 담은 언어에 대해서는 D 등의 표시를 덧붙이기 전에 수행된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표시를 덧붙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인정하면서 내용 표시의 채택을 거부한 NBC도 이 표시를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 ① 두 연구는 모두 텔레비전에서의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 ② 두 연구는 텔레비전에서 어떤 것이 폭력적 장면인가를 해석할 때 동일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 ③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케이블 방송사보다 공중과 방송사들의 입장에 좀 더 동조적인 편이다.
- ④ 연구자들은 텔레비전에서 폭력 장면이 사실적이고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 ⑤ 케이블 텔레비전 연합회 후원의 연구는 연령별 시청등급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용등급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34. 다음은 어떤 책의 서문 일부이다. 내용 전개상 가장 적절한 문장 배열은?

- (가) 전통적으로 조선 유학은 이기론(理氣論), 심성론(心性論), 수양론(修養論), 경세론(經世論)의 영역을 포괄하였으며, 이는 결국 인간의 삶과 자연의 변화를 망라하는 체계였기 때문이다.
- (나) 중국과 조선 유학자들의 원전과 철학사 속에서 몇 백 개의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계층화시켰다.
- (다) 한 개념의 출발과 전개 과정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정리함과 동시에 개념이 표출하는 다양한 의식의 스펙트럼을 쟁점으로 꺼내 보여 주는 것이 그 개념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를 가능케 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라)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표제 개념을 선정할 수 있었고, 그 표제 개념이 다룰 영역을 설정할 수 있었다.
- (마) 각 표제 개념을 다룸에 있어 그 개념의 어원, 중국 사상 속에서의 의미 변천, 조선 유학사 속에서의 쟁점, 그리고 현대적 함의를 함께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 (바) 그리고 표제 개념을 각각 자연, 인간, 학문, 사회 분야로 묶었다.

- ① (나) - (라) - (마) - (가) - (바) - (다)
- ② (마) - (다) - (바) - (가) - (나) - (라)
- ③ (마) - (라) - (다) - (가) - (나) - (바)
- ④ (나) - (바) - (라) - (가) - (마) - (다)
- ⑤ (나) - (라) - (바) - (가) - (마) - (다)

35. 다음 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프랑크푸르트학파는 대중문화의 정치적 기능을 중요하게 본다. 20세기 들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중문화가 대중들을 사회의 권위에 순응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순응의 기능은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한편으로 대중문화는 대중들에게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적인 도피를 유도하여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유명한 3S(Sex, Screen, Sports)는 바로 현실도피와 마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도구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중문화는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은연중에 대중들이 받아들여 하게 하는 적극적인 세뇌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영화나 드라마, 광고나 대중음악의 내용이 규격화되어 현재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주입함으로써, 대중은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나은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 부정의 능력을 상실한 일차원적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도르노(Adorno)는 특별히 「대중음악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대중음악이 어떻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대중음악은 우선 규격화되어 누구나 쉽고 익숙하게 들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익숙함은 어려움 없는 수동적인 청취를 조장하여, 자본주의 안에서의 지루한 노동의 피난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나아가 대중음악의 소비자들이 기존 질서에 심리적으로 적응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정착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① 대중문화의 영역은 지배계급이 헤게모니를 얻고자 하는 시도와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서로 얽혀 있는 곳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대중이 문화 산물을 생산한 사람이 의도하는 그대로 문화 산물을 소비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 ③ 발표되는 음악의 80%가 인기를 얻는 데 실패하고, 80% 이상의 영화가 엄청난 광고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한다는 사실은 대중이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예이다.
- ④ 대중의 평균적 취향에 맞추어 높은 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19세기까지의 대중이 즐겼던 문화에 비하면 현대의 대중문화는 훨씬 수준 높고 진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⑤ 대중문화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지배문화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에 저항하여 자발적으로 발생한 저항문화로만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36. 다음 글에서 필자의 주장과 부합하기 어려운 것은?

테일러(Taylor)의 ‘차이의 정치’ 기획은 그 어떤 종류의 차별이나 차등도 거부하며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승인하고 그것에 대해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모든 특수성과 차이성을 인정하라는 요구, 다시 말해 ‘차이의 존중으로서의 보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테일러는 기존의 ‘절차적 공정성으로서의 보편성’ 또는 ‘동등한 존엄성으로서의 보편성’ 대신에, ‘다양성과 차이성의 인정이 토대가 되는 새로운 보편성’을 정립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에 강하게 편향된 다원주의 옹호자로 읽혀진다. 하지만 이처럼 다원성이 주(主)가 되고 보편성이 종(從)이 되는 방향에서 보편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본래 목표로 삼았던 새로운 보편성의 수립 대신에 상대주의적 상황을 초래하기 쉽다. 설령 상대주의 자체는 아니라 해도 유사(類似) 상대주의로 고착화됨으로써 상충하는 가치와 진리에 대한 주장을 판가름할 잣대를 문화적 전통이나 관습에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에 따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 민족과 민족, 문화와 문화의 관계마저도 진리나 이성이 매개되지 않은 적나라한 의지와 힘의 관계로 전락하게 된다.

물론 테일러 자신은 그 같은 힘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의 자유주의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문화도 문화적 우위성을 앞세워 자신의 문화를 다른 문화에 강요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은 강한 문화적 다원주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주의가 봉착하는 난점과 한계를 그대로 답습할 여지가 농후하다. 일례로 이 같은 테일러식의 다원주의는 문화적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논리체계로서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문화적 식민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적 자기모순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상이한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모든 문화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테일러의 추정은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갖춘 문화가 그렇지 못한 문화를 흡수하거나 지배하는 사태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채 용인해버리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한 문화 다원주의의 입장 역시 아주 쉽게 가장 위협적인 문화 제국주의로 변신할 수 있다. 인종이나 민족, 소수나 하위 집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장과 문화를 존중하자는 주장은, 궁극적으로 주관주의적 상대주의로 귀착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은 특정 문화 내부에서 벌어지는 차별적이며 비합리적인 요소들 모두 또한 승인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① 동등한 중요성과 가치를 가지는 다양한 신념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다른 문화권의 도덕적 현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다원주의가 자동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이를 혼동하고 있다.
- ② 테일러식의 강한 다원주의적 논변은 타자의 입장이나 존재를 일절 인정하지 않는 근본주의 혹은 유사 근본주의의 입장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 ③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테일러의 추정은 결과적으로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갖춘 문화가 그렇지 못한 문화를 흡수하거나 지배하는 사태를 용인하는 결과를 허용할 수 있다.
- ④ 절차적 공정성으로서의 보편성 대신 다양성 및 차이성의 인정이 토대가 되는 새로운 보편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테일러의 시도는 새로운 보편성의 수립 대신에 상대주의적 상황의 연출을 초래하기 쉽다.
- ⑤ 모든 각이한 문화는 각각 중요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으므로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테일러의 입장은 여러 문화의 융합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37. 다음에 제시된 두 사람의 대화를 읽고 <보기>의 내용 중에서 실용의 입장과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허자 : 몸의 본질에 대해서 말한다면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이요, 발이 모난 것은 땅이며, 살과 털은 산림(山林)이요, 진액과 피는 하해(河海)이며, 두 눈은 해와 달이요, 호흡은 바람과 구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신체는 천지를 축소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태어나는 이치에 대하여 말한다면,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수태되어 달이 차면 출생하고, 이가 나면 지혜가 발전하며, 이목구비(耳目口鼻)의 기능이 발달하고, 다섯 가지 성품[仁義禮智信]을 구비하게 되나니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몸이 온갖 생물들과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실용 : 허! 너의 말대로 해석한다면 사람이 온갖 생물과 다른 점이란 거의 없구나! 털과 살의 본질이나 정기와 피에 의하여 수태되는 것은 초목도 사람과 같거든 하물며 날고 기는 동물이야 사람과 다르겠느냐? 내 또 너에게 묻노라. 생물의 종류에는 셋이 있으니, 사람과 짐승과 초목이 그것이다. 초목은 거꾸로 생겼으므로 감각은 있되 지각이 없으며, 짐승은 가로 생겼으므로 지각은 있되 지혜가 없다. 그러나 이 세 종류가 끝없이 복잡하고 연관된 환경에서 서로 흥망성쇠를 같이하나니 또한 귀천의 차등이 있는가?

허자 : 온갖 생물들 중에서 오직 사람이 귀합니다. 짐승과 초목은 지혜도 없고 지각도 없으며 예절도 없고 의리도 없으니, 사람은 짐승에 비하면 존귀하고 초목은 짐승보다도 천합니다.

실용 : 너는 진실로 사람이로구나! 오륜(五倫)에 충실하고 오사(五事)를 옳게 하는 것은 사람의 예절이며, 때를 지어 다니고 어미새끼가 서로 부르며 먹이는 것은 짐승의 예절이며, 떨기로 무성하고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은 초목의 예절이니, 사람으로서 다른 생물들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다른 생물들이 천하지만 다른 생물로서 사람을 보면 그들이 귀하고 사람은 천할 것이며, 하늘에서 전체를 보면 사람과 모든 생물이 균등할 것이다. 대체로 지혜가 없는 까닭에 거짓이 없고 지각이 없는 까닭에 자연스러운 것이니, 그렇다고 하면 일반 생물이 사람보다도 훨씬 존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봉황(鳳凰)은 높이 천 길 을 날고 용은 하늘에 날아오르며, 시초(蓍草)와 울창주(鬱鬯酒)는 신명(神明)을 통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재목으로 쓰이나니, 보통 사람 따위에 비하면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하겠느냐? 무릇 큰 도(道)에 주는 해독은 자만심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일반 생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자만심의 시초인 것이다.

<보 기>

- ㄱ. 사람만이 자연계의 형상과 기능을 모방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된다.
- ㄴ. 짐승과 초목은 형상과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도 기본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
- ㄷ. 사람만이 지혜, 지각, 그리고 예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
- ㄹ. 사람과 다른 생명체를 상대화시켜 보면 가치상으로 같다.
- ㅁ. 사람과 다른 생명체는 가치상 상대적인 만큼, 관점을 객관화하면 사람과 다른 생물은 다르지 않다.
- ㅂ. 관점의 상대화를 넘어 객관화할 때에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다.

- ① ㄴ, ㄷ
- ② ㄱ, ㅁ, ㅂ
- ③ ㄴ, ㄷ, ㅂ
- ④ ㄴ, ㅁ, ㅂ
- ⑤ ㄴ, ㄷ, ㅁ, ㅂ

38. 다음은 논증에서의 몇 가지 오류들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중 이 설명을 잘못 적용한 것을 모두 고르면?

- 강조의 오류 - 주어진 말의 강조점을 옮김으로써 원래의 의미와는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
- 인신공격적 오류 -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는 논증
- 우물에 독 뿌리는 오류 - 반대 주장은 불건전한 것이라고 미리 못을 박아 반론 제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경우
- 정황적 오류 - 상대가 처해 있는 정황을 이용하여 논박하는 논증
- 힘에 호소하는 오류 - 힘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상대를 논박하려는 논증
- 애매어의 오류 - 어떤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보 기>

- 갑 : “엄마는 내게 밤늦게 친구와 다니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언니와 밤늦게 다니는 것은 괜찮아요.” - 애매어의 오류
- 을 : “그 사람은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이므로 그가 쓴 역사소설은 읽을 가치가 없다.” - 인신공격적 오류
- 병 :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제안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정황적 오류
- 정 : “내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었다고요? 따지기 좋아하는 기자 양반들, 당신들은 부동산 투기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나만 죄인 취급을 하시지?” - 우물에 독 뿌리는 오류
- 무 : “나는 이 지역 유권자들을 다 끌어 모을 수가 있어요. 만일 당신이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당신이 낙선되도록 할 거요.” - 힘에 호소하는 오류
- 기 : “김구 선생님은 한국 근현대사의 큰 인물이다. 어! 그럼 이 바지는 작아서 못 입으시겠네.” - 강조의 오류

- ① 을, 병
- ② 을, 정, 무
- ③ 갑, 병, 기
- ④ 갑, 을, 정, 기
- ⑤ 갑, 병, 정, 기

39. 다음의 진술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항상 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시험기간이 되면 민아는 도서관에 간다.
- 시험기간이 아니면 경호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 경호가 커피를 마시든가 혹은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
- 민아는 도서관에 가고, 성환이는 수정과를 마신다.

- ① 경호가 커피를 마시면 민아는 도서관에 간다.
- ② 시험기간이다.
- ③ 경호가 커피를 마시면 시험기간이다.
- ④ 시험기간이거나 경호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 ⑤ 성환이가 수정과를 마신다.

40.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가장 적절한 문단 배열은?

휴대폰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주기도 하며, 또 자신의 호주머니나 입속에다 쑤셔 넣기도 하는 곰돌이 인형과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곰돌이 인형은 휴대폰과는 달리 말하는 사람에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준다는 것이다.

(가) 그리 오래 전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해야 독백을 하거나 글쓰기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다. 하지만 글을 써본 사람이라면 펜을 가지고 구어(口語)적 사고를 진행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안다.

(나) 휴대폰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바로 이러한 모순 가운데 있다. 곰돌이 인형과는 달리 휴대폰을 통해 듣는 목소리는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것과는 다른 대답을 자주 한다. 그것은 특히 우리가 대화 상대자와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 그리고 다른 정신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다) 어린이에게 자신이 보호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발명된 곰돌이 인형을 어린이는 가장 좋은 대화 상대자로 이용한다. 마찬가지로 통신 수단으로 발명된 휴대폰은 고독 속에서 우리를 안도시키는 절대적 수단이 될 것이다.

(라) 곰돌이 인형에게 이야기하는 어린이가 곰돌이 인형이 자기 말을 듣고 있다고 믿는 이유는 곰돌이 인형이 결코 대답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곰돌이 인형이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어린이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듣는 말일 것이다.

(마) 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에 따라, 그때그때 우리가 취하는 어조와 몸짓들은 얼마나 다양한가! 휴대폰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자 말하는 행복을 되찾게 되었다. 더 이상 독백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혼자 숨어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 ① (나) - (가) - (마) - (라) - (다)
- ② (다) - (가) - (마) - (라) - (나)
- ③ (다) - (나) - (가) - (마) - (라)
- ④ (라) - (나) - (가) - (마) - (다)
- ⑤ (라) - (나) - (다) - (가) - (마)

제24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 정답가안

【언어논리영역】

| 문 번 | 가 형 | 다 형 |
|-----|-----|-----|
| 1 | 4 | 5 |
| 2 | 4 | 2 |
| 3 | 3 | 5 |
| 4 | 4 | 3 |
| 5 | 5 | 3 |
| 6 | 3 | 4 |
| 7 | 3 | 4 |
| 8 | 4 | 3 |
| 9 | 2 | 4 |
| 10 | 5 | 5 |
| 11 | 2 | 3 |
| 12 | 5 | 3 |
| 13 | 3 | 4 |
| 14 | 3 | 2 |
| 15 | 2 | 2 |
| 16 | 4 | 4 |
| 17 | 2 | 2 |
| 18 | 1 | 1 |
| 19 | 3 | 1 |
| 20 | 5 | 1 |
| 21 | 2 | 3 |
| 22 | 5 | 5 |
| 23 | 4 | 2 |
| 24 | 2 | 5 |
| 25 | 4 | 4 |
| 26 | 1 | 2 |
| 27 | 1 | 4 |
| 28 | 1 | 3 |
| 29 | 4 | 4 |
| 30 | 3 | 2 |
| 31 | 4 | 5 |
| 32 | 2 | 5 |
| 33 | 5 | 1 |
| 34 | 5 | 4 |
| 35 | 4 | 4 |
| 36 | 5 | 5 |
| 37 | 4 | 4 |
| 38 | 5 | 5 |
| 39 | 2 | 2 |
| 40 | 4 | 4 |

- ② **석립** : 우리를 속이는 것들은 잘못된 추리에 기인한 이성적인 것이거나 변화무쌍한 감성적인 것이다. 하지만 진짜 이성적인 것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고로, 감성적인 것이야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 ③ **슬이** : 잠 잘 때 꾸는 꿈이 참된 진리라면 확실한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꿈속의 환상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거나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꿈은 참된 것이 아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 ④ **주연** :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라면 장소를 점유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장소를 점유한다. 그런데 모든 것은 장소를 점유하지 않는 것이거나 점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거나 물질적인 것이다.
- ⑤ **제성** :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이라면, 나는 반드시 어떤 무엇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이라면, 신체보다 더 인식되기 쉬운 어떤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어떤 때 생각하지 않고 있기도 하거니와 혹은 나를 나 되게 하는 본질 따윈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고로, 나는 어떤 무엇일 필요도 없거니와 또는 신체보다 더 인식되기 쉬운 어떤 것일 필요도 없다.

3.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김치’라고 부르는 음식을 지칭하던 원래의 말은 ‘디히’였다. 이 말은 『두시언해(杜詩諺解, 1481)』라는 책에 ‘겨슌디히’의 형태로 처음 보이는데 ‘겨술’이 ‘겨울’이고 ‘ㅅ’은 사이시옷이니 오늘날 말로는 ‘겨울의 김치’ 또는 ‘겨울에 먹는 김치’이다. 같은 책에서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가 ‘冬菹’(겨울 동, 채소 절임 저)인 것을 보면 이런 해석은 거의 틀림이 없는 듯하다.

‘디히’가 김치를 나타내는 것은 16세기 초반의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에 보이는 ‘장앳디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장’은 간장, 된장, 고추장 하는 장(醬)의 옛말이고 ‘앳’은 ‘~에의’, 즉 ‘~에 있는’ 또는 ‘~에 넣은’의 의미이고 나머지 ‘디히’는 이런 장에 넣어 절인 채소를 의미한다. ‘장앳디히’는 이후 ‘장앳디히’로 그리고 다시 ‘장앳지히’로 바뀌면서 오늘날 ‘장아찌’로 바뀐 것이다.

이 ‘디히’는 그러나 ‘김치’라는 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오히려 ‘짬지, 오이지, 썬박지’ 등에 보이는 ‘지’라는 말과 상관된다. 우리말에서는 말의 첫머리가 아니면 ‘ㅎ’이 제대로 소리 나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때문에 ‘디히’는 ‘디이’가 되었고 여기에 17, 18세기 무렵 국어에 나타나기 시작한 구개음화 현상으로 ‘ㅣ’모음 앞의 ‘ㄷ’이 ‘ㅈ’으로 바뀌어 ‘지이’가 된 후 음절의 축약을 거쳐 ‘지’가 된 것이다.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평안도 방언에서 여전히 ‘짬디’가 사용되고 전라도 방언이나 경상도 방언에서 ‘묵은 지’ 등이 쓰이는 것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김치’라는 말의 기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딤치’이다.

16세기 초엽의 『훈몽자회(訓蒙字會, 1527)』에는 ‘菹 딤치 조 醃菜爲菹 亦作菹’ 즉 ‘저(菹)는 딤치 조인데 절인 채소를 저(菹)라 하며 또한 저(菹)로도 쓴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한자어 ‘沈菜’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16세기 후반의 『내훈(內訓, 1573)』에 ‘저(菹)’를 한자 ‘沈菜’와 대응시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沈菜’는 ‘절인 채소’를 말하므로 김치의 원래 의미와도 동일하다.

이 ‘딤치’의 변천 과정에는 우리말의 여러 변화 현상이 관여한다. 먼저, 우리말에는 ‘ㅣ’모음 앞에서 ‘ㄷ’이 ‘ㅈ’으로 변하는 현상이 17, 18세기 경에 나타났는데 그 현상은 ‘딤치’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결과 ‘딤치’는 ‘짐치’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모음 ‘.’의 소멸 현상이 적용되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는 옛말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음은 18세기 경에 이르러서 우리 국어에서 그 소리값이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짐치’의 경우도 ‘김치’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것이 ‘김치’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김치’로의 어형 변화는 대략 19세기에 들어서서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 ① ‘딤치’라는 말은 ‘沈菜’의 당시 한자음이었을 것이다.
- ② 한국인들은 적어도 15세기 말엽에는 김치를 만들어 먹었다.
- ③ ‘김치’라는 말이 완성된 시기는 ‘.’가 소멸된 이후이다.
- ④ ‘김치’의 ‘치’와 ‘장아찌’의 ‘지’는 동일한 어원을 가진다.
- ⑤ ‘디히’와 ‘딤치’의 어형 변천과정에는 모두 구개음화 현상이 관여했다.

4. 다음 글을 바탕으로 독서 지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기 연구자들에 의하면 글을 읽고 독자가 구성하게 되는 표상(representation)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째는 글의 표층 기억(text surface trace) 표상이다. 이는 실제 쓰인 단어와 구, 글의 직접적 표상의 사실적 입력이다. 표층 기억은 글 기억 표상의 토대를 제공한다. 사람들이 글의 표면적 특징 중 일부를 보유하고 하더라도, 글 형태에 대한 기억은 글이 처리된 직후에 급속히 사라진다.

둘째는 글 기저(text base) 표상이다. 이는 담화의 의미적, 명제적 표상으로서 글 명제의 의미를 포함한다. 글 기저란 글 자체의 기억을 표상, 그것을 재인, 회상, 요약 등의 형태로 재생하는 독자 능력과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황 모델(situation model) 표상이다. 이 단계에서 결정적인 것은 어떻게 글 정보가 독자의 배경지식 구조에 관련되느냐이다. 그러므로 상황 모델 구성은 글 기저 더하기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글 정보가 추론을 통해 다른 지식과 결합되며 어떻게 기존 지식 구조를 수정하는가와 관련 있는 것이 상황 모델이다.

독자는 제재나 과제 성격에 따라 글을 명제적으로 혹은 상황 모델로 처리한다. 글 기저는 구체적 글에 관심 있을 때, 요약 과제, 재인이나 회상들로 평가될 때 중요하다. 독자가 글로부터

배운 것, 어떻게 새로운 상황에서 글 정보를 이용할지에 관심이 있다면 상황 모델이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글 요약의 목표로 하는 독자는 명제적 정보를 더 기억하고, 지식 획득의 목표로 하는 독자는 상황 모델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한다. 또한, 조건에 따라 글 기저를 형성한 독자는 회상과 요약을 잘 하고, 상황 모델을 형성한 독자는 추론을 잘 한다. 글 기저가 글 자체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나타낸다면, 상황 모델은 추론적 이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의 관련성이나 차이점을 밝히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 사실적 이해와 관련지어, 추론적 이해에 대하여 제기된 질문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사실적 이해는 추론적 이해에 선행하는가?
- 추론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보다 더 어려운가?
- 추론을 많이 요구하는 글은 그렇지 않은 글보다 더 어려운가?

첫째, 사실적 이해는 추론적 이해에 선행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추론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떤 추론은 이해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다른 추론은 이해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요컨대, 추론은 단일 개념이 아니다. 추론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보다 먼저 일어나거나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추론적 이해는 원래 사실적 이해보다 어려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도 있고, 이를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 긍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추론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보다 원래 더 어려우며, 내용 난이도가 항목 유형별로 조절되거나, 추론 전략을 지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추론적 이해는 더 어려우며 반응 시간도 더 걸린다. 부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추론의 양이나 유형이 난이도를 예언하는 것은 아니며 난이도는 처리될 정보의 양과 활동 기억 속에 간직해야 할 대안의 수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글이 추론을 많이 요구하면 더 어려운가 하는 문제도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론을 요구하는 글이 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연구자들은 설명적 글에서 추론을 많이 하게 되면 학습에 장애가 되고, 학생들은 추론을 덜 해되는 글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부분적 응집성에 기여하는 참조적인 추론을 들어 설명하였다. 반대로, 추론 요구가 많아도 적절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견해와 설명적 글에서 추론을 하는 것이 읽기 시간을 더 걸리게 하지만, 예견이 맞아 떨어질 때는 오히려 더 빨리 읽힌다는 견해가 있다. 추론은 난이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주요 요인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추론에 필요한 정보를 글이나 지식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추론은 글 이해에 장애가 되지만, 어떤 추론은 글 이해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 ① 글의 종류에 따라 글의 특성에 맞는 독서 지도를 고안한다.
- ② 글에 제시된 명시적 정보를 이해하게 한 다음 추론 지도를 한다.
- ③ 글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 학생들에게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

- ④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글 내용과 배경 지식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⑤ 독서 평가의 난이도 조절은 추론의 양이나 유형, 처리될 정보의 양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5.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시간은 단수(單數)가 아니다. 단수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일직선 위에 배열하는 것을 뜻한다. 시간이 단수라고 여기는 한, 앞의 물음들은 그저 불가지(不可知)나 신비주의의 영역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시간은 단수가 아니다. 유(有)와 무(無)의 경계를 넘나들고, 관현악의 화음처럼 중첩되어 있으며, 피비우스의 띠처럼 시작과 끝이 맞물려 있다. 시공간이 연출하는 이 화려한 퍼레이드를 목격하면서 어떻게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의 선분 위에 일렬로 늘어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이것들을 그저 ‘포스트모던’의 징후로 돌리는 건 적절치 않다. 분명 근대 이전에도 시간은 복수(複數)였다. 중세적 문명론은 천(天)·지(地)·인(人)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적 시공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단수가 된 건 20세기 근대의 산물이다. 오직 인간의 활동만으로 역사를 구성하게 되면서 시간은 단 하나의 척도로 가능되었다. 시간의 ‘주름들’이 얇게 펼쳐지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일직선으로 늘어지게 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시간은 계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어떤 대상을 수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건 모든 것이 동일한 질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한다. 균질화!

모든 시간이 동일한 질량으로 이루어졌다고? 오, 그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사랑하는 이와 뜨겁게 교감하는 시간과 증오와 분노로 마음지옥을 헤매는 시간, 혁명적 열정으로 바리케이드 위를 지키는 전사의 시간이 어떻게 동질화될 수 있단 말인가? 토굴에서 7년 동안 면벽하는 달마 대사의 시간과 아무런 목표도 의지도 없이 방황을 거듭한 나의 20대가 어찌 같은 척도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을 수로 계산하고, 그에 대한 맹목적 집착을 강제한다.

그 이유는 바로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균질화하는 배후의 동력은 화폐라는 ‘숨은 신’이다. 시간은 돈이다! 돈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낭비하는 자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자본주의 사회가 고귀한 가치처럼 내세우는 ‘노동의 신성함’ 역시 그 기저에는 ‘시간의 화폐화’라는 원리가 작동한다. 그러므로 상식처럼 통용되는 ‘노동/게임의 이분법’은 사실 돈이 되는 ‘짓’을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자신이 아무리 즐거워도 돈이 안 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죄의식을 느낀다. 자신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국가와 인류에게. 속도에 대한 신앙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속도의 문화는 화폐화된 시간의 단선성 그 자체에 있다. 잘게 쪼개서 화폐로 계산하고 오로지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강제하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피로함.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맹목의 리듬, 속도! 이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삶은 산산이 부서지고 만다. 죽거나 나쁘게

도록 만들게 되기까지 그럴 결세. 이렇게 그려낸 나라가 바로 아름다운 나라이고, 이 나라의 백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네. 물론 이 아름다운 나라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현실의 (㉔).

(다) 인간만이 자신의 생명을 자유로이 내던지고 거침없이 자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로지 인간만이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대상화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세계를 (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실을 최소한 (㉖)으로 지양해보는 것, 즉 주어진 현실에 대해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부정의 말을 내던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다. 이와 같은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부정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계를 탈현실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실재의 모든 계기들과 실재에 대한 모든 인상들을 시험적으로 지양하여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오로지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같은 탈현실화의 금욕 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자신의 충동적인 감정들을 억제하고, 배제하면서, 그 충동적 감정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하기를 거부하면서- 격렬하게 자기를 위협하는,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 원칙적으로 금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생물이다. 동물은 현실에 대해 언제나 긍정의 행동만을 보인다. 동물과 비교하자면 인간은 아니라고 하는 부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 생의 금욕자, 즉 모든 단순한 현실에 대한 영원한 반항자이다. 인간은 새 것을 가장 열망하는 동물이며,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에 결코 안주하지 못하면서, 언제나 자기의 '지금·여기'에 '이렇게 있음'의 한계와 자기의 환경의 한계를 철폐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 ① ㉗ : 신앙심, ㉘ : 결핍, ㉙ :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은 아닐세, ㉚ : 초월, ㉛ : 폭력적
- ② ㉗ : 불만족, ㉘ : 발견, ㉙ :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은 아닐세, ㉚ : 재편, ㉛ : 부정적
- ③ ㉗ : 상상력, ㉘ : 결핍, ㉙ : 어디에도 존재하는 것은 아닐세, ㉚ : 초월, ㉛ : 시험적
- ④ ㉗ : 상상력, ㉘ : 결여, ㉙ :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은 아닐세, ㉚ : 개선, ㉛ : 혁명적
- ⑤ ㉗ : 불만족, ㉘ : 결여, ㉙ :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은 아닐세, ㉚ : 재편, ㉛ : 혁명적

8. 다음은 민주주의에 관한 글이다. 이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요소이다. 첫째 요소는 사회성원이 공유하는 공동 관심사의 수가 많고 다양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관심사의 인정을 사회통제의 방법으로서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요소는 여러 사회집단 사이의 보다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습관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바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 운영되는 사회의 특징이다.

교육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민주적인 사회는 그 안의 여러 관심들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진보 또는 재적응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회이므로, 이러한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면 민주적인 사회는 다른 형태의 사회보다도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에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교육에 열성을 가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대한 피상적인 설명은,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의 투표에 의존하는 만큼, 대의원들을 선출하고 그들에 복종할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정치가 잘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사회는 외적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성향이나 관심으로 외적 권위를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발적인 성향과 관심은 오직 교육에 의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 그러나 이 피상적인 설명 이외에, 더 본질적인 설명이 있다. 즉,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의 형태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생활의 형식이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관심사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수가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관련짓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의 목적이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곧, 계급, 인종, 국적 등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행동의 완전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가 철폐된다는 뜻이다.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개인이 반응해야 할 자극이 다양하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행동의 다양화를 촉진한다.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행동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던 힘이 그것을 억압하던 사슬에서 풀려 나와서 십분 발휘된다. 여기에 비하여, 집단의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의 관심들이 표현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힘이 억압당할 수밖에 없다.

- ① 민주사회의 특징은 사회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관심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다.
- ② 민주사회는 외적 권위보다는 자발적 성향과 관심이 중요하며, 그것은 정치활동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 ③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면에서 정치형태보다는 공동생활의 형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④ 민주주의 사회는 여러 사회집단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과 그에 대한 적응이 중요하다.
- ⑤ 민주주의는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교육에 열성을 가져야 한다.

9. 다음 중 이 글의 글쓴이가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들 수 있는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문명 중 유일하게 서구는 다른 모든 문명에게 대대적인, 때로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따라서 서구의 힘과 문화, 다른 문명들의 힘과 문화의 관계는 문명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특성으로 나타난다. 다른 문명들의 상대적 힘이 증가하면서 서구 문화의 매력은 반감되며 비서구인들은 점점 자신들의 고유 문화에 애착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서구와 비서구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서구 문화의 보편성을 관철 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노력과 그들의 현실적 능력 사이에서 생겨나는 부조화라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자유 민주주의 이념이 지구적 차원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므로, 서구의 이념이 보편타당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부조화는 한층 심화되었다. 서구, 그 중에서도 특히 예부터 민주주의의 선교사 역할을 자임해온 미국은 비서구인들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제한된 정부, 인권, 개인주의, 법치주의 같은 서구의 가치에 동조해야 하며 이러한 가치들을 자신들의 제도에 구현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다른 문명들 내의 소수 집단은 이러한 가치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선전하지만 비서구 사회의 지배적인 태도는 대체로 회의주의 아니면 격렬한 반발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서구의 보편주의가 비서구에게는 제국주의로 다가온다.

서구는 자신의 주도적 위치를 고수하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세계 공동체’의 이익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이익을 수호하려고 한다. 이러한 구호는 미국과 여타 서방 국가들의 이익이 반영된 행동에 범지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완곡한 집합명사(‘자유세계’를 대체하는)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비서구인들은 서구의 원칙과 서구의 행동 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을 서슴지 않고 지적한다. 위선, 이중 잣대, 단서 조항은 보편주의가 한낱 제스처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 ①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niqab)을 착용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고된 뒤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차도르(chaddor)는 격리의 상징이다. 이는 무슬림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사이 영국의 한 대학도 캠퍼스 내에서 히잡(hijab) 착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 ② 십자군 전쟁은 11세기말부터 13세기까지 8차례에 걸쳐서 이슬람교 세력이 그리스도의 무덤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지를 차지하자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가 팔레스타인으로 쳐들어가면서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서구인들의 눈에는 이슬람교도들이 성지를 점령한 사탄으로 보였던 것이다.
- ③ 영화 ‘007 어나더데이’에서 제임스 본드와 맞서는 악당은 국적이 불명이기는 하지만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 사람임에는 분명하다. 영화 속의 악당은 “서양은 신뢰할 수 없다.”, “서양에서 공부해서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매우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른다. 제임스 본드는 혼자 힘으로 이들을 모두 물리친다.
- ④ 1990년 석유 자원이 풍부한 쿠웨이트를 이라크가 침공했을 때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은 군대를 보내서 이라크를 몰아냈다. 그러나 1992년 보스니아가 침공을 당했을 때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보스니아에는 서구 문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석유 자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⑤ 빅맥 지수(The Big Mac Index)는 전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 값을 비교해서 각국의 통화 가치와 각국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지수이다. 세계적으로 품질·크기·재료가 표준화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나 값이 거의 일정한 맥도널드 햄버거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각국의 통화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10.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그러나 국민주권이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론은 아마도, 그 이론이 비합리적인 이데올로기이며 미신을 조장한다는 논박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또는 국민의 다수는 틀리거나 부당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생각은 권위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미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비도덕적이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한다.

아테네의 민주주의(여러 측면에서 그것을 칭찬한 바 있다) 역시 약간의 범죄적 결정을 하기도 했음을 우리는 투키디데스를 통해서 알고 있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도시 국가인 펠로스 섬을 공격했으며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말이다. 이건 사실이다) 그 섬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대규모 노예 시장을 열어 팔아 버렸다. 그건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자행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출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원들은 권능법(Enabling Law)이라는 헌법적 수단을 통해서 히틀러를 독재자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비록 히틀러가 독일에서 실시된 자유선거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강제 합병 이후 오스트리아에서 실시된 선거에서는 크게 승리했다.

우리는 모두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민이든 인간이라는 존재로 구성된 어떤 집단이든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내가 국민이 그 정부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독재 정권을 피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길을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 법정(popular tribunal)으로서 이해되는 민주주의—내가 지지하는 민주주의—조차도 결코 오류가 없을 수는 없다. 윈스턴 처칠이 반어적으로 표현한 익살은 이런 사태에 꼭 들어맞는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형태이다. 물론 다른 모든 정부의 형태를 제외하고.’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국민주권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이념과 국민의 심판대로서의 민주주의, 또는 제거할 수 없는 정부(다시 말해서, 독재 정권)를 피하는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이념 사이에는 단순히 언어적인 차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차이는 실제적으로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

이를테면, 스위스에서도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체계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는 독재정권을 피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좀 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이론 대신에 해롭고 이데올로기적인 국민주권이론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나는 독재 정권은 참을 수 없고 도덕적으로 옹호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의 얼굴에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을 하면서 그 결과를 사진에 기록하였다. 그의 목적은 인간의 표현력에 대한 보편성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진은 그의 프로젝트에서 필수불가결한 도구였다. 피험자가 범죄자의 사진과 다를 바 없이 카메라 앞에 위치 지워져 있는 사진을 그는 수도 없이 찍었던 것이다.

- ① 과학적 이미지는 개인적인 믿음이나 선입견 등의 영향을 받는다.
- ② 과학적인 이미지들이 반드시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③ 과학적인 관찰 방식도 결국에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
- ④ 사진은 인간의 관찰력 확장에 이상적인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 ⑤ 과학적 연구의 도구로서 사진은 인종적, 계급적 타자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13. 다음 글로부터 가장 올바르게 추론된 것은?

지혜는 어떤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과학적 인식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리들에 대한 과학이 지혜인지를 탐구해야 한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면, 이는 보다 분명하게 될 것이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보편적인 과학을 가장 탁월하게 소유한 자로서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안다. 다음, 어렵고 사람이 알기 쉽지 않은 것들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지혜롭다. 가장 보편적인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알기에 가장 어려우니, 그 까닭은 그것들이 감각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과학의 분야에서나 더 엄밀한 사람이, 그리고 원인들에 대해 가르치는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더 지혜롭다. 주로 제1원리들을 다루는 과학들이 과학들 가운데 가장 엄밀한 것이다. 왜냐하면 보다 적은 수의 원리를 전제로 삼는 과학들은 부가적 원리들을 필요로 하는 과학들보다 더 엄밀하기 때문이다. 가령, 수를 고찰하는 수론(數論)은 도형을 고찰하는 기하학보다 더 엄밀하다.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에서 보면, 원인들에 대한 이론과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그런 능력을 갖는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각 사물의 원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들 가운데 그것 자체 때문에 그리고 오직 앎을 위하여 추구되는 이론과학은 파생하는 결과 때문에 추구되는 과학보다 지혜에 더 가깝다. 그리고 더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과학이 종속된 과학보다 지혜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제1원리들로부터 다른 것들이 알려지는 것이지, 그것들에 종속되는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디 지혜로운 자는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내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따라 나오는 바, 우리가 찾는 이름은 하나의 동일한 과학에 붙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제1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이론과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것에 그 자체로서 속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다. 하지만 형이상학은 이른바 개별 과학들 가운데 어느 것과도 같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과학들 가운데 어떤 것도 '있음'(존재)을 그 자체로서 보편적으로 탐구하지 않고 단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런 과학들은 있는 것의 일부를 떼어내어 그것에 부수적으로 속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데, 이를테면 수론이나 기하학과 같은 수학적 과학들이 그렇다. 우리가 찾고 있는 과학은 바로 있는 것으로서 있는 것에 속하는 제1원리들을 고찰하는 형이상학이다.

- ① 수론은 과학이고, 모든 과학들 가운데 가장 엄밀한 과학이다.
- ② 모든 수학적 과학들이 궁극적으로 전제하는 가장 보편적 원리는 수이다.
- ③ 기하학은 거짓 원리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론에 비해 덜 엄밀하다.
- ④ 개별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 ⑤ 이론과학으로서 기하학은 유실된 토지의 정확한 넓이를 측량하기 위해 탐구된다.

14. 다음 대화를 읽고 올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소크라테스 : 멜레토스를 비롯한 그 동료들의 고발에 대해 변호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제출한 공술서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신을 끌어 들인다…….” 이것이 나를 고발한 죄목입니다.

소크라테스 : 멜레토스, 내가 어떻게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인지 대답해 보게. 자네가 써낸 공술서에 있듯이, 내가 그들에게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렇게 했다는 뜻인가?

멜레토스 :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자네가 분명히 말해 줄 것은 내가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특정 신들을 믿도록 가르쳤다는 것인가의 여부이네. 이 경우라면,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고, 따라서 무신론자라는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네. 다만, 내 죄는 국가가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었다는 것에 있네. 아니면, 나는 아예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라는 말인가?

멜레토스 : 당신은 아예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소크라테스 : 그런 말을 하다니, 자네는 이상한 사람일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태양이나 달이 신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멜레토스 :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멜레토스여, 신에 맹세코 내가 어떤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인가?

멜레토스 : 그렇습니다. 당신은 전혀 신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 자네 말은 믿을 수가 없네, 멜레토스여. 자네 자신조차 자네 말을 믿지 못할 것이네. 배심원 여러분, 이 사람은 매우 오만하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의 오만함과 난폭함과 치기 어린 열정이 이 고발장을 써내게 한 것입니다. 그는 애써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저 현명한 소크라테스는 내가 농담을 지껄여서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릴 것인가, 아니면 그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속아 넘어갈 것인가?” 그는 진술서에서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 죄와 신을 믿는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모순을 범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레토스, 내 질문에 대답해 보게. 여러분, 내가 처음에 했던 부탁을 잊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말하던 방식대로 말하더라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멜레토스, 인간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인간사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나? 말(馬)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말에 관련된 일(馬事)들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나? 플룻 음악이 있다는 것은 믿으면서 플룻 연주자의 존재는 믿지 않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번 질문은 꼭 대답해 보게. 어떤 사람이 신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신과 관련된 일들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겠나?

멜레토스 :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 하기 싫은 대답이었겠지만, 이 배심원들 때문에 억지로라도 대답해 주다니 고맙네. 자네 말에 의하면, 나는 모종의 신성한 활동, 즉, 다이몬의 활동을 믿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네. 자네의 고발장에는 내가 그런 다이몬의 활동을 믿는다고 되어 있네. 그런데 만일 내가 다이몬의 활동을 믿는다면, 나는 또한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되네. 그렇지 않은가? 그럴 수밖에 없지. 자네가 대답하지 않으면, 나는 자네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네. 우리가 말하는 다이몬, 곧 신성한 존재란 신을 말하거나 신의 이세(二世)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멜레토스 : 물론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자네가 말하듯이, 내가 다이몬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자네가 수수께끼를 내서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네. 자네는 한편으로 고발장에서 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말하고서는, 다른 한편으로 내가 다이몬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네. 이것은 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긍정한다는 말과 같네. 다이몬의 존재는 신의 아들, 곧 신과 님프 사이에 혹은 신과 다른 어머니들 사이에서 태어난 영웅신들을 말하는데, 이 신의 이세들은 존재한다고 믿으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마치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의 존재는 믿으면서 말이나 당나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것이네.

〈보 기〉

- ㄱ. 소크라테스가 무신론자라는 멜레토스의 대답은 공술서의 내용과 다르다.
- ㄴ.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신론자라는 멜레토스의 주장이 논리적 모순임을 드러낸다.
- ㄷ. 이 글에 나타나 있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포인트는 국가가 믿는 신을 믿는다는 것이다.
- ㄹ. 이 글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국가가 믿는 신을 부정한다는 것을 여전히 변론하고 있지 않다.
- ㅁ. 다이몬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국가가 믿는 신을 믿는다는 뜻이다.
- ㅂ. 소크라테스의 변호로 공술서의 내용은 완전히 해명되었다.

- ① ㄱ, ㄷ, ㄹ
- ② ㄴ, ㄹ, ㅁ
- ③ ㄱ, ㄴ, ㅁ
- ④ ㄱ, ㄴ, ㄹ
- ⑤ ㄷ, ㅁ, ㅂ

15. 다음 글은 내부고발의 주요 요소를 설명한 글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보기> 중 내부고발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일반적으로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공공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조직 내의 불법, 비윤리적인 활동을 내부인이 외부에 폭로하는 행위’를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를 내부고발의 3가지 요소에 따라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속한 기관 내지 조직 내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뭔가가 일어났다는 혹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여기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무엇에는 행위, 무위, 관행,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된다.
- (나) 조직 내 사람이 그 기관의 상부나 조직 밖의 제3자에게 그 인지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외부에 밝힌다.
- (다) 적어도 그 조직의 일부 간부는 그러한 고지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보 기〉

- ㄱ. ‘갑’은 우연히 자신의 직장 상사가 여고생과 원조 교체를 하는 것을 목격한 후 도덕적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였다.
- ㄴ. ‘을’은 현직 경찰 공무원인 자기 어머니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 ㄷ. ‘병’은 병원장이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앙심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건복지부 민원실에 신고하였다.
- ㄹ. 서울시청 시설과에 근무하는 ‘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과장에게 건물 붕괴의 위험을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자 서울시 감사실에 이를 알렸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 ⑤ ㄱ, ㄷ, ㄹ

16. 다음 글에서 말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나라는 빈자가 부자를 이겨서, 다른 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추방한 다음, 나머지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시민권과 관직을 배정하게 되고, 또한 관직들이 대체로 추천에 의해서 할당될 때 생기게 된다네.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는, 비록 자네가 능히 통치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꼭 통치해야 된다는 아무런 강요도 없네. 또한 자네가 원하지 않는데도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그 어떤 강요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네가 전쟁을 해야 한다는 강요도,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낸다고 해서 자네가 원하지 않는데도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는 강요도 전혀 없다네. 반면에 비록 어떤 법조문이 자네로 하여금 관직을 맡거나 배심원 노릇을 하는 걸 못하게 할지라도, 만약에 자네 자신으로서 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럴 경우에 관직을 맡거나 배심원 노릇을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적 제약 또한 없다네. 이와 같이 지낸다는 것이 당장에는 놀랍고 신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 나라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평등한 사람들에게도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종의 평등을 배분해 주는 정체인 걸로 보이니 말일세. 모든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똑같이 존중된다네.

- ① 사람들이 기르는 개들도 주인을 맞상대하고, 말들과 당나귀들도 당당하게 길을 가는 버릇을 들여서는, 길에서 언제고 만나게 되는 자가 비켜서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를 들이받는다네.
- ② 통치자들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며 아무 것도 아닌 자들이라 모욕적으로 비난하는 한편으로, 피통치자들 같은 통치자들과 통치자들 같은 피통치자들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칭찬하며 존중하네.
- ③ 선생은 학생과 같아지도록 버릇 들이는 한편으로, 학생은 선생과 같아지도록 버릇 들이며 선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버릇 들인다네. 또한 거류민이 시민과 같아지고 시민은 거류민과 같아지며,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로 되는 것일세.
- ④ 누군가가 어떤 즐거움은 아름답고 좋은 필요한 욕구들에 속하는 것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불필요하고 나쁜 것들에 속하는 것들이며, 한쪽 것들은 추구되고 존중되어야 하나 다른 쪽의 것들은 추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누구나 그에 동의한다네.
- ⑤ 이 나라는 공경을 어리석음이라 일컬으며 망명자처럼 불명예스럽게 밖으로 내몰아 버리는가 하면, 절제를 비겁이라 부르며 모독하면서 내쫓아 버리고, 오만함을 교양으로, 무질서를 자유로, 낭비를 도량으로, 부끄러움이 없음을 용기로 미화시키면서 부른다네.

17. 다음 글을 읽고 흡연자가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전략의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은 페스팅거(Festinger, 1957)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갈등을 몰아내고 균형, 평형, 또는 조화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동기화된다고 한다. 보다 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이론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세계에 대한 능률적이고 균형되고 잘 조직된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갈등은 그 개인으로 하여금 갈등적인 경험을 통해 생성된 불안을 몰아내도록 압박을 가한다고 한다.

- ① 흡연과 암이 무관함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찾아 읽는다.
- ② 흡연이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 ③ ‘죽음은 어차피 고통스럽고 불가피한 것이니, 암인들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
- ④ 담배를 끊는다.
- ⑤ 의사들이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완고하게 주장한다.

18.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그러나 하나의 유전자, 더 정확하게는 한 염색체의 경우는 그런 끔찍한 복잡성과 무관하다. 그것은 바로 Y-염색체인데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남자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Y-염색체는 인간의 다른 염색체들에 비해 작고 보잘 것 없어서 정말로 중요한 1개의 유전자만 지니고 있다. 이 유전자가 바로 모든 태아가 소녀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 Y-염색체가 없으면 태아는 자연적으로 여자로 발달하게 된다. 만일 태아가 Y-염색체를 갖고 있고 또한 SRY라는 평범한 이름을 지닌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면, 이것이 다른 염색체들에 있는 많은 유전자들을 발현시켜 태아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발달하도록 이끈다. SRY 유전자는 난소의 발달을 억제하는 대신 정소의 성장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을 촉진시키는, 다른 염색체들을 활성화시킨다.

성 결정에 있어서 SRY 유전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밝혀진 것은 두 가지의 관찰 덕분이었다. 아주 드물게 약 2만 명당 1명꼴로 Y-염색체를 가진 여아가 태어난다. 이런 여아들은 대부분 평균 키보다 약간 크지만 지능도 정상이고 발달도 정상이다. 그러나 사춘기에 이들의 난소와 자궁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여자들의 Y-염색체를 유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SRY 유전자가 없거나 또는 그것의 정상적 작동을 막는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다. SRY 유전자 홀로 충분히 남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확실한 증거로 쥐에 대한 연구결과를 들 수 있다. 수컷 쥐도 Y-염색체를 가지며 사람의 SRY 유전자에 대항하는, 구별을 위해 Sry라고 부르는 유전자를 지닌다. 아주 멋진 유전공학적인 실험에서 수컷 쥐로부터 Sry 유전자를 클로닝하여 그냥 두었다면 암컷 쥐가 되었을 수정란에 이식했다. 쥐의 태아는 완전한 Y-염색체가 아니라 단지 클로닝한 유전자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컷이 되었다.

24.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만한 핵심어를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때때로 이 움직임은 매우 빠르고, 때로는 거의 느낄 수 없다. 동시에 현존하고 있는 표상들의 전체 집단 안에서 일정 시간 동안 일어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부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마음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한다. 마음의 진행 방식 자체는 비밀로 덮여 있다. 비록 이러한 예비적인 관찰들이 우리에게 매우 일반적인 개념들을 적용 가능성의 영역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구분 근거를 자주 제공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심화(深化)들은 변화한다. 그들은 상호 간에 이행하고, 그 다음에 숙고(熟考)로 이행하며, 숙고는 다시 새로운 심화로 이행한다. 그러나 저마다 그 자체로는 자신을 유지하고 있다.

정적(靜的)인 심화는 그것이 순수하고 단순할 경우에는 개별 대상을 구분해서 보는데, 이것이 (㉠)이다. 표상 속에 탁한 혼합을 만드는 모든 것이 배제되어 있거나, 또는 교육자의 배려를 통해 혼합이 제거되어 여럿의 상이한 심화들이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심화는 순수함을 지닌다.

하나의 심화로부터 다른 심화로의 진행은 표상들을 서로 묶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 과정이다. 서로 관련된 다수의 표상들의 한가운데에는 상상이 떠돈다. 이 상상은 모든 혼합들을 필요로 하며 무미건조한 것을 물리친다. 그러나 모든 표상들이 서로 섞여 들자마자 전체 표상의 집단은 무미건조하게 된다. 개별자들의 분명한 대답들이 그것을 보호하지 않으면 서로 섞여 들게 된다.

정적인 숙고는 여러 표상들의 관계를 본다. 숙고는 모든 개별 표상들을 이 관계의-이 관계 안의 올바른 위치에 놓여 있는-구성요소로 본다. 풍부한 숙고의 풍부한 질서가 (㉢)이다. 그러나 개별 대상에 대한 (㉠)성이 없이는 (㉢)도 없고, 질서도 없으며 관계도 없다. 왜냐하면 혼합 가운데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관계는 분리되고 다시 결합된 구성요소들 사이에 존재한다.

진행되는 숙고가 (㉣)에 해당된다. (㉢)의 새로운 골조들을 산출하여 이를 숙고의 과정에 적용시키면서 그 결과를 지켜본다. 많은 경우에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로만 교육을 하고 있다. (㉣)을(를) 구성하는 어려운 작업은 대개의 경우 교육자로부터 면제되고 있다. 자신의 교육적인 사고를 (㉣)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교육자에게 불가결한 것인데도 말이다.

- ① ㉠-체계 ㉡-연합 ㉢-명료 ㉣-방법
- ② ㉠-방법 ㉡-명료 ㉢-연합 ㉣-체계
- ③ ㉠-연합 ㉡-방법 ㉢-체계 ㉣-명료
- ④ ㉠-방법 ㉡-체계 ㉢-방법 ㉣-연합
- ⑤ ㉠-명료 ㉡-연합 ㉢-체계 ㉣-방법

25. 다음 괄호 안에 용어 A나 용어 B 중 어느 하나를 채운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용어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 모방은 외계의 (㉠)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가치가 부여되었다. 예술의 임무는 자연을 직접 모방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의 내적 관념 세계에 머물러 있었던 (㉢)를 독립시켜 객관적 존재로 확고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점이야말로 중세의 자연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이다. 주지하다시피 원근법은 (㉣)와 (㉤)의 정확한 거리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는 (㉤)를 보다 분명하게 대상화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인간은 자연을 철저히 모방함으로써 비로소 (㉥)와 (㉦)의 분명한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세에서는 현실적 세계를 모방하는 예술 형식이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한 현실 세계의 모방은 중세적 사유의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현실 묘사도 기독교적 계시와 가치와 관련되어서만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 ① A-B-A-A-B-B-A-B ② B-A-B-A-B-B-A-B
- ③ A-A-B-A-B-A-A-B ④ B-B-A-A-B-A-A-B
- ⑤ B-A-A-A-B-A-A-B

26. 다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우리는 일종의 범죄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첫 번째 범죄 이야기는 부모의 살해 음모 부분이다. 가난한 나무꾼의 두 아이들은 엄마의 사주로 숲에 내버려진다. 이 첫 번째 살인 음모는 헨젤의 꾀에 의해 실패한다.

부인이 남편을 사주했기 때문에 남편은 책임이 없어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남편도 명백히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만 숲에 아이를 유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가 죽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행위가 완전한 살인 기도로 묘사될 수 없을 뿐이다. 이러한 첫 번째 살인 음모를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법률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동화의 두 번째 부분, 곧 두 번째 범죄 이야기 부분은 좀더 비판적인 태도로 읽어야 한다. 제시된 사실들은 모두 두 아이의 보고(報告)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 근거는 부족한 것들이다.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노인을 보자마자 마녀 할멈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 노인을 마녀 할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마녀를 본 적도 없고, 또 마녀는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살던 동네의 사람들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집시를 보고도 마녀라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을 헨젤과 그레텔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꼬부라지고 흉측하게 생긴 늙은 노인을 그저 마녀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누이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할머니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였고,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었으며, 그들을 포근하고 예쁜 침대로 데려다 주었다.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아이들의 보고는 정말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노인은 심한 근시였고 힘이 없어서 강하고 재빠른 사내아이를 가둘 수 없을 뿐더러, 또 노인이 왜 하필이면 계집애를 안 잡아먹고 사내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는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순전히 꾸며낸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오누이가 몇 주 뒤에 노인을 살해하고 보물을 강탈한 사실을 단지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경악시키는 것은 노인이 훗날 헨젤을 잡아먹기 위해 살지게 하였다는 말과 노인을 마녀라고 비방하는 말이다. 그레텔에 대한 노인의 살인 음모도 결코 믿을 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인이 정말 마녀였다면 어떻게 아이들이 마녀를 뼈다귀 하나로 피어내고, 또 불가마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말인가.

헨젤을 가두고 그레텔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아이들의 주장은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 헨젤을 특히 잘 먹여서 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몸무게를 부쩍 늘렸다는 것을 아이들은 범죄에 설득력있는 이유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롭게 살고 있는 노인의 좋은 마음씨를 말해 주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마녀가 있고, 또 마녀를 죽여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대중적인 선입견이 아이들의 행동을 법률적으로 조사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헨젤과 그레텔’은 명백하게 파시즘적 박해에 관한 이야기이다. 독일 파시즘이 ‘마녀’와 같은 유대인을 ‘불가마’와 같은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넣었던 사실을 기억하자. 당시의 많은 독일인들이 그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듯이, 우리는 이 ‘헨젤과 그레텔’을 거의 백오십 년 동안 가장 재미있고 멋진 동화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아우슈비츠를 이용한 독일인들도 결국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안의 파시즘이다.

- ① 영준 : 많은 여성들은 ‘신데렐라’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 즉, ‘신데렐라’를 구원할 ‘백마 탄 왕자’는 찾기 어렵다는 뜻이야. 하지만 아직도 TV드라마는 ‘신데렐라’이야기로 가득해. 그렇다면 이 사회는 ‘신데렐라’를 통해 남성의 구원만을 바라는 ‘신데렐라’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② 민이 : 몇 년 전 TV광고에서 모두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있게 ‘네’라고 답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중 일상 속에서 모두가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때 용기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용기 문제로만 넘겨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
- ③ 아형 : 지난 2006년 월드컵 당시 한국과 스위스전에서 일어났던 오프사이드 논란은 많은 사람들의 맹목적인 국가대표팀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골 판정에 대한 이슈는 더 이상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어.
- ④ 영환 : 파시즘은 단순히 전체주의적 정치질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파시즘은 우리 일상 곳곳에 널려 있을 수 있어.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노골적 비판과 혐오, 그리고 이에 대한 암묵적 동의도 넓은 의미에서는 파시즘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몰라.

- ⑤ 소정 : 독재정권, 혹은 파시즘에 대항했던 한국의 민주화 세력 중 학생 운동권은 어떤 의미에서 자체적인 조직이 매우 일사불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들의 조직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에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끼친 이들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

27. 다음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밑줄 친 대담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다면 당시 순 한글로 되어 있는 조선 문학의 위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1920년대 조선 문학가들은 한자와 일본어 해독 능력이 식민지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을 알았다. 더구나 문학가가 되려면 일본어 책을 비롯한 외국어 책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창작 활동만은 온전한 조선어 순 한글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으며, 이를 신념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인식이 식민지 시기 조선 문학의 특수성을 규정한다.

稻香(나도향) : 언제나 말하는 바지만 月灘(박종화)君은 漢文套를 너무 써.

尙燮(염상섭) : 그런데 이것은 딴 말이지만(두툽한 眼鏡을 번득거리면서) 작품에 京語를 씹니까? 어떤 作品에는 地方語가 많아서 理解키가 어려워요.

仁根(방인근) : 對話에는 地方語를 써도 관계치 않겠지만 說明에는 京語를 써야겠지요.

...<중략>...

尙燮(염상섭) : 任英彬君의 『亂倫』도 좋아요. 이 行文이 아주 流暢하던데요.

月灘(박종화) : 그런데 漢文을 너무 쓴 것이 덜 좋아요.
『조선문단』 합평회 2월 창작총평, 『조선문단』 6호, 1925년 3월

憑虛(현진건) : 그런데 그거(『땅속으로』) 웬 漢字를 그리 썼는지?

春海(방인근) : 그래요, 釜山驛이니, 東京驛이니.

憑虛(현진건) : 지명은 괜찮으나 그 밖에도 아니 써도 좋을 한자를 너무 써서!

『조선문단』 합평회 3월 창작총평, 『조선문단』 7호, 1925년 4월

『조선문단』 합평회에서 염상섭, 나도향, 현진건, 방인근 등은 박종화와 조명희의 소설에 불필요한 한자어가 사용된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작가들이 소설 작품은 순 한글로 써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러나 이 원칙이 작가 지망생들인 지식인 전체에 온전히 통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자 남용을 파해야 한다는 논의 자체가 위와 같은 한자 투성이 문장에 얽혀 지식 청년들에게 전달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1920년대 ‘순조선어 창작’에 대한 문학가들의 의식은, 무엇보다도 당대 독자의 책 읽기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한편 1890년대~1900년대에 이어진 ‘국어국문 운동’ 정신의 계승 변용으로 볼 수 있다. 1890년대 이후 ‘文’의 개념이

크게 변화하고 새로운 지향성을 가진 계몽 지식인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소설의 문장은 순 국문체 문장의 대표적인 매개가 되었다. 그리고 단지 ‘표기’가 아니라, ‘문체’ 차원에서는 1900년대 최남선과 이광수의 작업이 선구성을 띠는 점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詩文體’라는 기준을 만들어 스스로 순 한글 문장 쓰기를 실천하였는데, 그것이 문학가들에게 하나의 모범으로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다.

- ① 한자를 남용한다고 비판받던 박종화가 임영빈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순 한글 소설에 대한 관념과 실제 창작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② 서울 출신인 염상섭이 京語를 인정하고 地方語를 배척한 것은 명백한 자기중심적인 태도이다.
- ③ 地名은 한자로 써도 된다는 현진건의 태도는 일본어 표기에 익숙해져 있는 당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④ 대화에는 地方語를 쓸 수 있지만 설명에는 京語만 써야 한다는 방인근의 태도는 이중적인 태도이다.
- ⑤ 염상섭이 임영빈의 『亂倫』을 놓고 行文의 流暢함을 논하는 것은 논의의 주제를 보다 다양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28.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멋’은 획일적인 데에서 변화를 찾고 구속 속에서 자유를 찾는 감정이다. 그것은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개인의식이었다. 개인의식과 자유의식이 늘 억제당해 왔던 유교의 전통 속에서는 ‘멋대로’ 행위 한다는 것이 곧 ‘죄악’과도 통하는 것이었다. 멋있고 멋진 것을 찬양하면서도 ‘멋대로’ 구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 왔던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멋’은 자유와 해방과 개인의식 속에서 우러나는 감정이었지만 오직 ‘풍류’ 하나로 그 뜻이 제한된 것은 유교적인 사회에 있어 제 흥과 제멋을 살리는 길이란 자연을 상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우리는 ‘멋’ 속에서미를 찾으려고 하고 ‘멋’ 속에서 인생을 살려고 애썼다. 그것을 보면 사실 우리는 개성과 자유의식을 존중하는 민족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유 의식을 갖고 싶어 하면서도 부자연스러운 사회 예의나 유교적인 고식성 밑에서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이다.

규칙에 사로잡히고 격식에만 얽매어 있을 때 ‘멋’은 생겨나지 않는다. 차라리 그것은 ‘스타일’이라기보다 고정된 ‘스타일’을 파괴하는 순간에서 맛볼 수 있는 생의 진미라고 말할 수 있다. 형식의 가면에 은폐되어 있고, 규칙의 사슬에 얽매어 있는 생을 거부하고, 그리하여 그 안에 감추어진 사물의 진미를 자유로운 맛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멋’의 참뜻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구인은 자유에서 법칙을, 개체에서 전체를, 그리고 혼돈 속에서 어떤 격식을 쟁취해 내려 했다면, 우리는 정반대로 법칙에서 자유를, 전체에서 개체를, 그리고 격식에서 어떤 혼돈을 회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멋을 찾는다는 것은 한국인의 그러한 미의식과 자유의식을 찾는 것이다.

- ① ‘스타일’은 격식화된 일정한 법칙, 그리고 특정한 양식과 질서를 의미한다.
- ② ‘멋’은 유교적 전통을 가진 한국인의 미의식과 자유의식을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다.
- ③ 유교적 전통은 멋진 것을 찬양하면서도 ‘멋대로’ 구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도록 했다.
- ④ ‘멋’은 규칙과 격식에 얽매이기 보다는 구속에서 자유를 찾을 때 그 참 뜻이 나타난다.
- ⑤ ‘스타일’을 벗어난 파격성에서 ‘멋’이 우러난다고 할 수 있다.

29. 다음 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글쓴이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메트로폰티가 몸을 ‘예술작품’이라 말한 것은 니체를 떠올리게 한다. 문명의 ‘내과 의사’라고 자처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내 몸은 나의 전부이며 그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영혼이란 몸의 어떤 면을 말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관조적인 ‘테오리아(theoria)’에 도전하여 벗어나는 한편, 그 자리에 ‘아이스테시스(aisthesis)’를 대치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니체는 ‘마음의 눈’을 통해 영원한 천상의 이데아(eidos)를 추구하고, 지상의 덧없는 순간들을 포기해 버리는 플라톤주의를 전복하려 했다.

니체의 몸의 정치는 플라톤 이래 아주 오래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론적 관조의 전통에 대한 대항이다. 청년 니체는 첫 저서인 『비극의 탄생』에서 음악을, 고대 희랍적인 음악(공연 예술)을 지고의 미학으로 평가했다. 고대 희랍의 ‘무지케(mousike)’는 낭송시, 무용, 극 그리고 음악을 포괄하는 것이다. 니체에 따르면 오직 미적 현상으로서만 존재와 세계가 영원히 정당화되며, 오직 음악만이 미적 현상으로서의 세계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 요컨대 니체에게서 세계는 음악적 미에 의해 ‘측정’—‘메트론(metron)’이라는 음악적 의미에서—되며, 이러한 음악의 일차적 존재조건은 인간의 세계와 인간 바깥의 세계 모두에 우리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몸은 늘 철학의 담론에서 고아였다. 주류 서양사상은 신체를 어두운 석굴 혹은 어두운 대륙이라고 주장했고, 신체를 벗어난 불멸을 옹호하면서 신체를 덧없고 소멸하는 상품이라고 매질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희랍 사상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엄격하고 금욕적인 기독교인이자 신학자였으며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거세했던 오리게네스(Origenes)는—거세는 그 당시 흔한 일이었다—신체를, 더욱 구체적으로는 성을 순간적인 현상으로 묘사했으며, 육으로부터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종말적인 희망을 암시한 적이 있다.

- ① 유기체로서 정신은 다른 정신들과 관련되어 있다. 정신은 우주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몸은 오직 하나의 신체에만 관련되어 있다. 몸은 세계, 다른 신체들, 다른 정신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
- ② 몸은 '존재'의 질서가 아니라 '소유'의 질서에 속해 있다. 살아가는 몸은 대상들 속의 한 가지 대상일 뿐이다. 몸은 느끼는 주체가 아니라 타성적인 것이다.
- ③ 우리는 몸으로, 살로 존재한다. 하나의 존재자인 살로서의 몸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다. 인간존재가 관념이 아닌 것은 곧 몸이 구체적 실재이기 때문이다.
- ④ 종래의 서양철학에서는 몸의 형태로 된 사상과 지식, 즉 몸의 지혜를 매우 중시하였다.
- ⑤ 생각하는 실체로서의 정신은 몸, 즉, 연장자(res extensa)에서 독립해 있으며, 존재하기 위해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0. 다음 글의 핵심적 논지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국만큼 평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평등의 개념은 철학으로서의 재건주의가 출현하기 150년 전에 벌써 미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 공립학교의 시초도 또한 기회의 평등 개념과 보편적인 무상교육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되었다. '보통학교'의 출현은 "일체의 출신성분을 뛰어넘는 교육은 인간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장치이며 사회 전체의 균형을 이루는 바퀴이다."라고 말한 호레이스 만(Horace Mann)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평등까지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계층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데이비드 타이악(David Tyack)이 쓴 것과 같이 대체적으로 말하여 노동자들은 부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기회의 순간에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어주려는 것이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기까지 기회의 평등은 모든 아동들에게 첫 출발을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였고 결과에 있어서는 어떤 아동이 다른 아동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었다. 동기나 운뿐만 아니라 능력과 배경의 차이는 개인 간의 결과적인 불평등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학교는 어떤 계층의 가정에서 태어나든 다른 계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이 성취하는 것만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관점에는 '학교는 모든 계층의 모든 아동들에게 목표 성취를 위한 수단과 성공을 향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생각이 함의되어 있다.

- ① 사회 불평등 문제를 재생산하는데 학교교육의 역할은 그동안 과대평가되었다.
- ② 학교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교육 결과의 평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 ③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학교교육은 사회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해 왔다.

- ④ 학교교육 제도는 애초에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
- ⑤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교교육의 역할은 그동안 과대평가되었다.

31.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후기 산업사회에서 인터넷 폭증이 함축하는 바에 대해 자신을 가지고 완벽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일지는 몰라도, 사회학적 연구물 가운데에는 이미 그 파급 효과를 진단한 내용들이 있다. 2000년 2월의 출판물로서 4,000명이 넘는 미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조사가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는 규칙적 인터넷 사용자들은 비사용자나 사용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족생활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시간을 적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가 가정과 직장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였으며, 적어도 주당 5시간을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규칙적 사용자'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중요한 경향을 파악하였다. 첫째, 인터넷은 다른 형태의 대중매체에의 접근을 멀리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규칙적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60%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이제는 줄어들었다고 말했으며, 1/3은 신문 읽는 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인터넷은 가정과 직장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규칙적 사용자의 1/4은 재택근무 형태로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한편, 직장 근무 시간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증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의 저자에 의하면, 우리 삶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막힘 없이 '지속해서 흘러가는' 형태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직장인들은 이제 인터넷을 '정규' 근무 시간에 더 많이 사용하며, 그 결과로서 하루 근무를 마감함과 더불어 책상 정리를 하는 대신에 일감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향이 농후해졌다.

<보 기>

ㄱ.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적어도 주당 5시간을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ㄴ. 규칙적 인터넷 사용자의 20%는 신문 구독 시간이 감소했다고 말하고 있다.

ㄷ.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14%가 재택근무 형태로 더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

ㄹ. 인터넷으로 인해 일상의 변화가 다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ㅁ. 규칙적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 인터넷의 영향으로 근무 시간 외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ㄹ, ㅁ
- ⑤ ㄱ, ㅁ

32. 다음 글의 내용 전개상 가장 적절한 문단 배열은?

(가) 이런 통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게 있어 엇비슷하며—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웨덴도 마찬가지다—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들, 특히 중국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몇몇 지역, 예컨대 중부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남부 스페인에서는 출산율이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더 낮다.

(나) 독일의 인구 통계 변화는 전혀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일본은 2005년경, 인구가 1억 2,500만명으로 절정을 이룰 것이다. 보다 비관적인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인구가 9,500만명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3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성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일본의 출산율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가입 여성 1인당 1.3명이다.

(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노년층의 지지를 받는 것은 모든 선진국에 있어 정치적 규범이 된다는 사실이다. 연금은 선거 때마다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인구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을 완화하려는 정책 또한 점점 더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슈들은 모든 선진국들의 정치 상황을 크게 바꾸고 있는 중이다.

(라) 2030년이 되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성인 인구의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은 5분의 1 수준이다. 따라서 만약 지금 여성 1인당 1.3명까지 떨어진 독일의 출산율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35세 미만의 독일 인구 감소율은 노인 인구의 증가율보다 2배나 빠를 것이다.

(마) 노동 인구가 지불해야 하는 연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 대책으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정년퇴직 연령 제도는 철폐될 가능성이 높다. 일터에 나가고 있는 젊은 인구와 중년 인구층은 자신들이 전통적인 은퇴 연령에 도달할 즈음에는 연금 기금이 바닥나지 않을까 이미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어디서나 현행의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 ① 가-나-다-라-마 ② 가-라-나-마-다
- ③ 다-마-가-라-나 ④ 라-나-가-다-마
- ⑤ 라-나-다-가-마

33.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입비용의 면에서, 진입비용이 높은 시장에서 진입비용이 낮은 시장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다. 높은 진입비용은 이를 회수하는데 더 많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해야 하고 따라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더구나 제품시장에서 특유의 자산에 관한 비용이 퇴출비용으로 작용한다면 상황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즉, 높은 퇴출비용이나 자산 특이성은 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다. 실업 또는 해고에 따른 퇴출비용도 고려되어야 하는

데, 정부가 개입하는 프랑스의 Aribus Industrie와 같은 컨소시엄에서는 해고비용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면에서, 한 제품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가능성이 다른 시장보다 크다면 그 시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다. 반도체 시장을 예를 들어보자. 누적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 원가가 감소하는, 이른바 경험곡선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원가절감을 통해 이익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쟁기업이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기가 쉽지 않는데, 예로서 화학제조 산업이 그러하다. 규모의 경제에서 진입비용의 효과는 시장크기 대비 최소한 유효생산 규모의 비율로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장점유율의 지표로서 해석할 수 있다. 최소 유효생산규모비율이 높을수록 자사의 점유율 또는 시장 입지를 지키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며, 그 비율이 낮을수록 경쟁기업의 이익이 더 커질 것이다.

한 제품시장에서 제품라인을 생산하거나 여러 제품시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때 그 기업은 생산, 마케팅 그리고 기타 활동으로부터 비용절감을 할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범위의 경제가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면 경쟁사의 행동에 대해 관련되는 제품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 ① 진입비용이 낮으면 시장에서 경쟁정도가 낮아진다.
- ② 자산이 특정 제품의 생산에 맞도록 특유성이 높으면 퇴출비용이 높아져 경쟁이 치열해진다.
- ③ 규모의 경제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경쟁정도는 높아진다.
- ④ 유효생산규모비율이 높을수록 시장진입비용이 낮아진다.
- ⑤ 범위의 경제가 있는 제품라인은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34. 다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따라서 같은 소득을 가진 두 사람이 그 소득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 같거나 같은 소득 감소에서 받는 고통도 같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연소득이 3백 파운드인 두 사람에게 1파운드의 세금을 거두었을 때, 각자 쉽사리 내겠지만, 그것은 1파운드어치의 쾌락(또는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1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기하지만, 이들이 포기한 1파운드의 만족도는 대체로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별적 특성이 상쇄될 정도로 충분히 폭넓게 평균을 내보면,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내는 돈은 그 이득과 손해에 대한 적절한 척도이다. 각기 연 소득이 1백 파운드인, 셰필드에 사는 1천 명과 리즈에 사는 1천 명에게 1파운드씩 세금을 부과한다면, 우리는 이 세금이 셰필드에 유발하는 쾌락의 감소 또는 손해는 리즈에 유발하는 것과 거의 같은 중요도를 가진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으며, 또 소득을 1파운드씩 늘려주는 모든 일도 두 도시에 동등한 쾌락과 여타 이득을 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모두 같은 업종에 있는 성인 남자라면, 그래서 감수성이나 심성, 취향이나 교육이 어느 정도 유사하면, 그럴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또 만약 가족을 한 단위로 해서, 두 도시에서 일 년 소득이 1백 파운드인 가정에서 1파운드씩 소득을 줄였을 때 유발되는 쾌락의 감소를 비교한다 해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같은 값을 지불해야 할 때, 그가 부유할 경우보다 가난할 경우에 더 강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1실링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에게 적은 쾌락 또는 만족을 준다. 의심할 여지없이, 부자가 시가를 사는 데 1실링을 쓸 것인가를 따질 때, 한 달 생활비인 1실링을 담배에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덜 중요한 쾌락들과 비교할 것이다. 연 소득이 1백 파운드인 직장인은, 연 소득이 3백 파운드인 직장인보다는 더 심한 빚속에서도 걸어서 출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차나 버스를 타는 비용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큰 쾌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돈을 쓴다면, 쓰고 난 후 그는 돈의 부족함 때문에 부자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 비용이 가난한 사람에게 의미하는 것은 부자에게 의미하는 것보다 크다.

- ① 개인들 사이에 상품이나 화폐가 주는 쾌락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
- ② 상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얻어지는 쾌락의 크기는 줄어든다.
- ③ 화폐 1단위가 주는 쾌락이 동일하도록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쾌락을 최대화하는 방법이다.
- ④ 소득이 1파운드 늘어날 때 쾌락의 증가와 세금 1파운드를 낼 때 쾌락의 감소는 서로 크기가 같다.
- ⑤ 합리적인 사람들은 상품 소비를 통해 추가로 얻는 쾌락의 크기와 지불하는 가격이 동일한 수준까지 소비한다.

35. 다음 글은 한 영화의 줄거리이다. 이를 근거로 추론할 때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21세기 초 타이렐 주식회사는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복제 인간, 넥서스 6형의 리플리컨트를 개발한다. 리플리컨트는 사람과 모습이 똑같지만 사람보다 체력과 지능이 뛰어난 대신 수명이 4년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수명이 짧아도 뇌에서 싹트는 자의식은 억누를 길이 없다. 지루하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하던 리플리컨트는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키지만 실패하고 지구에서 추방당한다. 이제 리플리컨트는 지구에서 눈에 띄지만 하면 사살이다. 블레이드 러너는 리플리컨트를 색출하고 죽이는 임무를 맡은 특수 경찰의 별명이다.

2019년 로스앤젤레스에는 매일 산성비가 내리고 스모그가 짙게 깔려 있다. 리플리컨트 몇 명이 수명을 연장하는 길을 찾으러 지구로 잠입하고 퇴직한 블레이드 러너, 데커드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복직한다. 리플리컨트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으므로 스스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 자기 정체

알 수 있다. 또 블레이드 러너가 예리한 질문을 던지면서 동공의 반응을 검사하면 정체가 드러난다. 데커드는 타이렐 회사에 조사하러 들렀다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비서, 레이첼을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데커드는 타이렐 회장의 지시로 동공의 반응을 검사한 결과 레이첼이 리플리컨트인 것을 알게 된다. 레이첼은 가짜 기억까지 이식되어 있는 최신 모델이어서 여러 질문에 동요하지 않고 쉽게 대답했지만 파티에서 개고기 요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데커드의 질문에 동공이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만다. 레이첼은 실망하고 데커드는 갈등한다.

데커드는 지구에 잠입한 리플리컨트를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한다. 한편 리플리컨트의 우두머리 로이는 타이렐 회사의 회장이자 자기들을 창조한 천재 과학자 타이렐에게 접근한다. “난 긴 수명을 원해, 아버지.” 그러나 타이렐은 리플리컨트의 수명이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어서 연장할 길이 없다고 대답한다. 로이는 절망한다. 로이는 두 손바닥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감싼 채 작별 키스를 하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지성의 창인 두 눈을 꼭 누르면서 힘껏 조여 타이렐의 두개골을 부순다.

그 사이 데커드는 로이의 애인인 프리스와 대결한다. 프리스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직전 데커드가 방아쇠를 당기고 프리스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죽는다. 마침 로이가 나타난다. 죽은 프리스를 보고 오열하는 로이, “무기도 없는 상대를 죽여? 아주 잔인하군!” 로이는 데커드를 붙잡아 오른쪽 손가락 두 개를 부러뜨린 뒤 몇 초를 셀 동안 도망쳐 보라고 말한다. 데커드는 공포를 느끼며 달아나고 로이는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쫓는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데커드는 옆 건물로 점프하지만 미처 건너지 못하고 툭 튀어나온 철근에 간신히 매달린다. 뒤쫓아 온 로이는 가볍게 옆 건물로 건너가서 데커드를 내려다 본다. 데커드는 팔에서 힘이 빠지고 손이 스프르 풀리며 철근을 놓친다. 그 순간 로이의 손이 데커드의 손목을 꼭 붙잡는다. 그리고 옥상으로 천천히 끌어올린다. 로이는 수명이 다했다. “난 너희 인간들이 믿기 힘든 것을 봤어. 오리온좌 옆에서 불에 타는 전함, 탠하우저 게이트 근처에서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C-빔도 봤어. 그 모든 순간이 시간 속에 사라지겠지. 빛 속의 내 눈물처럼. 죽을 시간이야.” 로이가 고개를 숙이고 죽어간다. 죽은 로이의 손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 오른다.

그 때 종이접기 취미를 가진 또 다른 블레이드 러너, 개프의 불길한 목소리가 들린다. “그 여자 죽어야 하니 안됐어. 하긴 누가 영원히 사나?” 레이첼은 이미 타이렐사를 빠져 나와 데커드의 아파트에 숨어 있다. 데커드는 급히 아파트로 돌아온다. 다행히 레이첼은 아직 살아 있다. 데커드는 레이첼과 함께 로스앤젤레스를 탈출하기로 결심하고 사망을 경계하며 아파트 문을 나선다. 그 때 데커드는 아파트 복도에서 종이접기 하나를 발견한다. 유니콘 모양의 종이접기다. 데커드는 가끔 유니콘 꿈을 꾸지만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데커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채 레이첼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 ① 서양에서 자라난 역사의 나무는 잔인한 핏방울의 토양에서 성장하였다.
- ② 우리나라 문화의 토양은 서양이나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피의 싸움이나 잔인한 복수극과는 거리가 있는 편이다.
- ③ 집단적 체함을 나타내는 감정과 사고의 원형이 되는 신화와 설화의 구조를 통해 그 나라 사람의 성품을 추측할 수 있다.
- ④ 우리의 설화는 영웅 추대형 구조를 갖거나 도피형 설화로 잔인한 살육의 현실 세계에서 취약점이 되고 있다.
- ⑤ 주택 구조, 일상생활의 도구 등을 통해서 민족의 기본 정서에 대한 추측과 비교가 가능하다.

38. 다음 글에서 직접 이끌어낼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계약설은 현실적인 국가가 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가는 그 구성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계약은 결코 하나의 사실로 전제될 필요가 없고, 그럼에도 실천적 현실성을 갖는 이성의 순수이념이다. 즉 이 이념은 입법자로 하여금 마치 모든 법률이 전 인민의 연합한 의지에서 기원할 수 있는 것처럼 법률을 제정하도록 구속하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공민이고자 하는 한에서 각자가 이 의지에 동의를 한 것처럼 간주하게 한다. 그래서 만일 계약설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계약설이 ‘의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것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이익이라는 표현을 삽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사회계약은 이념이다.
- ② 입법자는 전 인민의 동의를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
- ③ 공민이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연합한 의지에 동의한 것처럼 행위해야 한다.
- ④ 연합한 의지는 이익이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⑤ 연합한 의지는 세대마다 헌법으로 구현된다.

39. 다음 두 글이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가장 적절한 주장은?

(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기계방 A(지구에 있는)로 들어가서 잠시 후 사라지고, 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의 또 다른 기계방 B(화성에 있는)에서 그들이 다시 나타난다. 이 기계방들은 공간이동기라고 불린다. 자 이제 철민이가 A로 걸어 들어간다. 그리고 몇 분 후 이 공간이동기의 작동 후 그는 사라진다. 한편 거리가 많이 떨어진 B에서 철민은 다시 나타나 존재한다. A는 철민의 모든 물리적 속성들을 완벽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그의 몸을 원자로 분해한다. 그리고 분해된 그 원자덩어리들은 B로 엄청난 빠르 속도로 보내지고 B는 그 자료 위에서 그 원자덩어리들을 철민으로 완벽하게 재구성해낸다. 이제 철민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업무를 계속한다.

(나) 성훈이가 자고 있는 방의 창문을 통해서 외계인 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구를 방문해서 성훈의 방을 그들의 최종목적지로 정했다. 그들은 전자총으로 성훈을 쏘서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사를 얼마간 하고 그 곳을 떠나려고 하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그들은 다시 성훈을 살리기로 결정했다. 이미 성훈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목욕탕으로 가서 수도꼭지를 통해서 받은 물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탄소를 추출해내고 그것으로 다시 성훈을 재구성해 살리고 침대에 눕혀놓고 지구를 떠난다. 다음날 성훈은 아무 일도 없이 잠에서 깨어나 일상생활을 한다.

- ① 물리적 속성들의 복원은 정신적 속성들의 복원을 수반한다.
- ② 공간이동기는 철민과 성훈의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완벽하게 분해하고 재구성했다.
- ③ 사건 전과 사건 후의 철민과 성훈의 물리적 성질들은 동일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성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사건 전과 사건 후의 철민과 성훈의 정신적 속성들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와도 예전처럼 행동하지 못한다.
- ⑤ 사건 전과 사건 후의 철민과 성훈의 물리적 상태는 다르더라도 정신적 상태는 동일하다.

40.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의 지배는 분명히 자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법적 체계라는 관념과 그것이 규칙성으로서의 정의로 규정되는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법적 체계는 합리적 인간들에게 제시되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적 협동의 구조를 제공해주기 위한 공공 규칙의 강제 질서이다. 이러한 규칙이 정의로울 경우 그것은 합당한 기대의 기반을 확립해 준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들의 기초가 불안정하면 인간의 자유의 영역도 불안정하게 된다. 물론 다른 규칙들도 이러한 특성의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경기나 사적인 조직의 규칙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합리적 인간들에게 제시되어 그들의 행위를 규제해 주는 것이다. 이들 규칙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울 경우에는 일단 사람들이 그 체계 속으로 들어가서 결과하는 이득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책무는 합당한 기대의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법적 체계에 특징적인 것은 다른 조직과 대조해 볼 때 그것이 갖는 적용 범위와 규제력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강력한 형태의 강제를 할 수 있는 합법적 전유권을 갖는다. 사적인 조직이 가할 수 있는 종류의 자유 구속은 엄격히 제한된다. 나아가서 법적 질서는 어떤 분명한 영역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그것은 또한 그것이 규제하는 행위의 영역이 넓고 그것이 보장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보다 근본적인 것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들이 법이 모든 다른 활동의 추구가 일어나는 기본구조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

질서 정연한 사회에 있어서까지도 정부의 강제력은 사회적 협동체의 안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들이 그들은 공통된 정의감을 공유하고 있으며 각자는 현존 체제를 고수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리라고 의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도 자신의 본분을 행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유혹이 널리 의식되면 결국에는 체제가 붕괴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으리라는 의혹은 법규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과 강력한 시행이 없을 경우 그것을 위반할 구실을 발견하기가 특히 용이해진다는 사실에 의해 증대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적인 조건 아래서도 예를 들어 성공적인 소득세 체제가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체제는 불안정한 것이다. 공동의 형벌제에 의해 밀받침된 법규들에 대한 유권적인 공공 해석이 갖는 역할은 바로 그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공공적인 처벌 체제를 시행함으로써 정부는 타인들이 법규에 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근거를 제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비록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 형벌제가 가혹하거나 지나칠 필요는 결코 없을지라도 강제력을 가진 통치권은 언제나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서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상호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형벌 제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제헌위원회의 당사자들은 그것이 갖는 불리점도 고려해야만 한다.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른바 징세에 의해 운용될 관계 기관의 유지비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러한 형벌 제도가 대표적 시민의 자유를 그르치게 될 가능성에 의해 판단될 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강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리점이 불안정에서 오는 자유의 상실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최선의 체제는 이러한 위협들을 극소화하는 체제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경우 자유에 대한 위협은 법이 합법성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규칙적으로 운용될 때 보다 작아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 ①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논거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
- ② 일부에게 보다 큰 선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작은 선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법이 구현해야 하는 체제이다.
- ③ 법의 지배에 의해 보다 큰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보다 작은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다.
- ④ 불가피한 사회악으로부터 자유의 상실을 줄이기 위하여 평등한 자유라는 조항을 위반할 수는 없다.
- ⑤ 사회질서에 있어서 어떤 부정의도 허용하지 않는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법의 지배의 목적이다.

2007년도 제23회 입법고시 정답표(언어논리영역)

| 문 번 | 가 형 | 다 형 |
|-----|-----|-----|
| 1 | 3 | 4 |
| 2 | 3 | 2 |
| 3 | 4 | 5 |
| 4 | 2 | 3 |
| 5 | 3 | 2 |
| 6 | 2 | 4 |
| 7 | 3 | 2 |
| 8 | 2 | 3 |
| 9 | 5 | 5 |
| 10 | 4 | 2 |
| 11 | 5 | 5 |
| 12 | 4 | 1 |
| 13 | 4 | 2 |
| 14 | 4 | 3 |
| 15 | 3 | 3 |
| 16 | 4 | 4 |
| 17 | 2 | 3 |
| 18 | 5 | 3 |
| 19 | 3 | 4 |
| 20 | 2 | 2 |
| 21 | 4 | 3 |
| 22 | 2 | 2 |
| 23 | 3 | 3 |
| 24 | 5 | 2 |
| 25 | 2 | 5 |
| 26 | 5 | 4 |
| 27 | 1 | 5 |
| 28 | 2 | 4 |
| 29 | 3 | 4 |
| 30 | 3 | 4 |
| 31 | 4 | 3 |
| 32 | 4 | 4 |
| 33 | 4 | 4 |
| 34 | 2 | 2 |
| 35 | 1 | 1 |
| 36 | 3 | 3 |
| 37 | 4 | 4 |
| 38 | 5 | 5 |
| 39 | 1 | 1 |
| 40 | 1 | 1 |

언어논리영역

1. 다음 글에 제시된 한국 친족지칭어의 구성 원리를 통해 볼 때, 자신이 친외종숙(陳外從叔)과 증대고모(曾大姑母)라고 지칭하는 친족원이 누구인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한국의 친족지칭어는 거의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단일 한자로 구성된 친족지칭어는 부(父), 형(兄), 처(妻) 등과 같이 소수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형수(兄嫂), 제수(弟嫂), 고모부(姑母夫)와 같이 2개 이상의 개별 한자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수의 한자어로 구성된 친족지칭어는 '친족관계를 지시하는 유의미한 최소단위'인 친족형태소가 결합된 형태를 취하는데, 친족형태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독립적으로 개별 친족용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부(父), 형(兄), 수(嫂)와 같은 명사적 형태소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친족관계의 지시와는 무관하고 독립적으로 친족용어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는 대(大), 고(高), 종(從)과 같은 관형사적 형태소이다.

관형사적 형태소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신과 친족원과의 세대 차이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대(大)는 자신으로부터 2세대 높거나 낮은 친족원을, 증(曾)이나 증대(曾大)는 3세대 높거나 낮은 친족원을, 고(高)는 4세대 높은 친족원을 지시한다. 두 번째는 방계의 정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종(從)은 한 세대 위에서 방계로 나뉜 친족원임을, 재종(再從)은 두 세대 위에서 방계로 나뉜 친족원임을 지시한다. 세 번째는 출계집단을 구별하는 형태소로서, 외(外)는 어머니 쪽 친족원을, 진외(陳外)는 아버지의 어머니 쪽 친족원을 지시한다.

관형사적 형태소는 명사적 형태소와 결합하여 친족지칭어를 구성한다. 아버지의 남자 동생(형제)을 지시하는 형태소 숙(叔)을 예로 들면, 종숙(從叔)은 아버지보다 한 세대 위에서 방계화된 친족원임을 보여주는 형태소 종(從)과 숙(叔)의 결합형으로서, 조부(祖父)의 남자형제의 아들을 지시하며, 외숙(外叔)은 외(外)와 숙(叔)의 결합을 통해 어머니의 남자형제를 지시한다.

| | |
|------------|------------|
| 친외종숙(陳外從叔) | 증대고모(曾大姑母) |
|------------|------------|

- | | |
|------------------|--------------|
| ① 친할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 | 고조부의 여자형제 |
| ② 외할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 | 고조부의 여자형제의 딸 |
| ③ 외할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 | 증조부의 여자형제 |
| ④ 친할머니의 남자형제의 아들 | 증조부의 여자형제 |
| ⑤ 친할머니의 남자형제의 손자 | 고조부의 여자형제 |

2.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옹호하는 세계관에 부합되는 의견을 <보기>에서 가장 바르게 골라 묶은 것은?

탈중심화는 우리가 이룩해야 할 가장 필요한 구조적 변화이지만 그것은 그에 상응하는 세계관의 변화에 동반되어야 한다. 증가하는 생태적 재난은 자연계의 광범위한 상호관련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지만 대부분의 학술기관은 갈수록 좁게 집중된 전문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실제로 산업문화라는 질병의 근본원인 중의 하나이다. 역설적으로 보다 작은 규모의 정치적·경제적 단위를 향할 때 우리는 보다 넓은 세계관 - 상호관련성에 기초한 세계관 - 을 발전시킬 수 있다. 공동체와 삶에 대한 긴밀한 연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에 대한 이해를 장려해줄 것이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발발의 땅과 주위의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상호의존성을 일상사로서 경험한다. 그러한 상호관련성에 대한 깊은 경험적 이해 - 자신을 생명의 연속체의 한 부분으로 느끼는 것 - 는 현대사회의 분석적이고 단편화된, 그리고 이론적인 사고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 보 기 >

- ㄱ.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은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데 있다.
- ㄴ. 생태적 재난을 막는 유일한 길은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제하는 데 있으므로 현재의 자연과학과 그에 기초한 테크놀로지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 ㄷ. 이제까지 과학을 지배해 온 자연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유기체적 자연관을 되살려야 한다.
- ㄹ. 어떠한 정치적 질서도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에 반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기 마련이므로 거부해야 한다. 탈중심화가 시대적 요청이라면, 그것은 무정부주의로 귀결되어야 한다.
- ㅁ.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이 성인 남성들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 | |
|--------|--------|
| ① ㄱ, ㄷ | ② ㄱ, ㄹ |
| ③ ㄴ, ㄷ | ④ ㄷ, ㄹ |
| ⑤ ㄷ, ㅁ | |

3. 다음 글에 직접 나타난 글쓴이의 견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의 이론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고용이 증가하면 총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공동체의 심리는, 총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총소비도 증가하지만 소득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만약 고용 증가의 전체가 당장의 소비에 대한 수요 증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고용주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주어진 양의 고용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 수준의 고용에 공동체가 소비하기로 한 양을 초과하는 총산출량을 흡수할 만큼 충분한 양의 경상 투자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만큼의 투자량이 없다면, 기업가들의 수입은 그만큼의 일자리를 주도록 기업가들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액수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의 소비 성향이 일정할 때, 균형고용수준 즉 고용주 전체가 고용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아무런 유인이 없는 수준은 경상 투자량에 의존한다. 그리고 경상 투자량은 우리가 '투자 유인'이라고 부르려는 것에 의존하며, 투자 유인은 '자본의 한계효율스케줄(schedule of marginal efficiency of capital)'과 다양한 만기와 위험을 가진 대출에 대한 이자율 체계의 관계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분석으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완전 고용의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의 증가가 멈출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한계생산의 가치가 여전히 고용의 한계비용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유효 수요의 부족이 생산 과정을 저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부유할수록 실제 생산과 잠재적 생산의 차이가 커질 것이고, 따라서 경제 체계의 결점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공동체는 산출물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주 적은 투자량만으로도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지만, 부유한 공동체는 비교적 부유한 구성원의 저축성향이 가난한 구성원의 고용과 양립하기 위해 훨씬 더 풍부한 투자 기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잠재적으로 부유하지만 투자 유인이 약한 사회에서는 그 잠재적인 부에도 불구하고 유효 수요의 원리가 작용해서, 사회 전체가 매우 가난해질 것이다. 또한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 충분히 줄어들어 취약해진 투자 유인에 맞을 정도에 이를 때까지 부득이 실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 ① 한 공동체의 소비 성향이 일정할 때 균형고용수준은 경상 투자량에 의존한다.
- ② 유효 수요가 부족할 때, 부유한 공동체일수록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 ③ 소비성향이 일정하다면, 자본의 한계 효율과 이자율의 관계는 고용 수준에 영향을 준다.
- ④ 임금이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도 유효 수요가 부족하면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과잉 생산의 문제가 나타날 때 정부가 개입하여도 유효 수요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없다.

4. 다음 글에서 A의 설명과 지적을 모두 파악했을 때 ()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많은 서양학자들은 도(道)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도로를 은유로 사용해 왔다. 예를 들면 A는 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도로라는 은유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禮)를 도의 '도로 구조'로 묘사하고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도로'가 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길들(roads)은 확실히 도의 범주에 포함된다. 도로가 길을 의미하는 똑같은 예가 고전 문헌에도 나타난다. 또 주(周) 왕조 금문에 서도 도의 의미 가운데 '도로'가 들어 있다. 하지만 A는 길의 은유가 철학적 개념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도와 연관된 원칙이나 이미지가 십자로에 의해 함축된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의 길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처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도가 길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 수로나 도로, 즉 사람이 따라 걷는 땅 위뿐만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수로 등은 모든 종류의 길을 포함하는 일반적 범주이다. 만약 우리가 도의 은유 뿌리로서 도로를 취한다면 그것은 () 그러나 만약 개념의 전형으로서의 도로보다 물의 흐름이나 수로의 자연적 코스를 취한다면 더 이상 특이한 점이 없어진다. 비록 수로는 지류들에 의해 함축되지만 원천을 갖고 있으며 한 방향으로 흘러 결국 바다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아래로 움직일 것이다.

도를 길로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길은 서양에서 친근한 형이상학적 이미지가기 때문이다. 길에 의한 반항은 '다마스쿠스로 통하는 길'에서부터 현대의 영화에서 표현되는 길에 관한 이미지까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길에 대해 심원한 이미지에 쉽게 반응한다.

그러나 도로를 길로 해석하는 것은 길이 '잘못된 인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데에 호소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에게 길은 정신적 여행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그 여행의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하고 낯선 사람들과 만나면서 깨닫고 자기를 구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서양 사람들은 신이든 자기 자신이든 길 위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길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길이다. 반면 고대 중국인들은 도로 따름으로써 신이나 내적 자신과 만나지는 않으나 인간으로서의 가장 높은 가능성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장 완전한 사람이 도로 따르는 것이다.

- ①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다가 결국 한 곳으로 모이는 길이 될 것이다.
- ②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교차점이 없는 특이한 길이 될 것이다.
- ③ 모든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순환 구조를 가진 특수한 길이 될 것이다.
- ④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두 길이 끊임없이 평행하게 진행될 것이다.
- ⑤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교차점이 있어 순간의 선택이 허용되는 길이 될 것이다.

5. 다음에 제시된 상훈과 형진의 대화 내용을 읽고 <보기>에서 상훈의 입장에 대한 해석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상훈 :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나 공정성이라는 덕목이 요구하는 바이지요. 윤리적인 교육자들은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형진 : 하지만 교육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을까요? 장학사는 교사보다 더 높은 보수를 받지요. 그리고 교사는 어떤 학생에게는 A라는 성적을 주고 다른 학생에게는 D라는 성적을 줍니다. 또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에게 방과 후 보충 수업도 해 주고 영재에게는 특별한 교육의 기회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교육에서는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상훈 : 그것은 바로 선생님께서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관련된 차이에 상관없이, 단순히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학사는 교사보다 더 큰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D를 받은 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학업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A를 받은 것입니다.

형진 : 그렇다면 동등한 대우가 아니라 차이가 중요한 것이군요.

상훈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동등한 대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우해야 합니다. 둘째, 일을 A 수준으로 수행한 사람의 경우처럼, 관련된 차이를 가진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즉,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업적을 달성했을 때 어떤 학생에게는 B를 주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A를 주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형진 : 다소 혼란스럽군요.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동등한 대접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한 괜찮다는 말씀이군요.

상훈 : 네, 바로 그것입니다!

< 보 기 >

- ㄱ. 동등한 대우는 '동일한' 대우를 의미할 때 가장 적절하다.
- ㄴ. '동등한' 대우를 '공정한' 대우로 정의함으로써 '동등한 대우'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다.
- ㄷ. 다르게 대우해야 하는 준거가 되는 '관련된 차이'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교육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ㄹ. 동등성의 개념은 모든 이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상위 동등성 개념과 차이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하위 동등성 개념 간에 개념적 우선순위를 인정할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 ㅁ. 능력주의적 입장을 '평등주의'라는 옷을 입혀 정당화하고 있다.

- ① ㄱ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ㅁ

6.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논증 방식을 A와 B로 나타낼 때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과학은 관찰과 실험에 근거한 (㉠)에 의해서 세워진 구조물이라는 소박한 생각은 마치 집을 지을 재료만 가지고 있으면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소박하기 그지없다. 물론 이때 '소박하다'는 말은 삶을 소박하게 욕심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과는 의미의 맥락이 다르다. 이 경우의 소박함은 관찰과 실험에 호소하는 지식만이 가장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지식이라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소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순전히 관찰에만 호소하여 얻어진 지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를 물을 때 드러난다. 아무리 중립적인 태도로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관찰된 사실에서 일반적인 법칙이 이끌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관찰을 넘어 설명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관찰자가 단순히 관찰하는 기계와 같은 사물이 아닌 이상, 관찰자는 자신의 관찰을 통해 얻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화이트헤드의 말대로, 베이컨의 (㉢)주의는 과학적 발견의 과정에서 자유로운 상상력의 구실을 생략한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진정한 과학적 발견을 비행기의 비행과 비유한다. 발견의 과정은 특수한 관찰을 토대로 이륙하여 상상력을 통한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 비행한 후, 합리적 해석에 의해 새롭게 얻은 관찰로 다시 착륙하는 일련의 비행과 같다고 말한다.

순수한 관찰을 통한 (㉣)적 추리만이 객관적 지식을 보증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소박한지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그 유명한 버트란트 러셀의 칠면조의 슬픈 이야기이다. 주인이 아침 9시만 되면 모이를 가져온다. 칠면조는 수많은 시간을 다양한 조건 아래에서 9시에 주인이 모이를 준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인은 항상 9시에 모이를 갖다 주는 것이다. 이러한 수많은 관찰(?)을 토대로 칠면조는 드디어 "나는 항상 9시에 모이를 주인에게서 받아먹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이브 날 칠면조의 결론은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칠면조는 모이를 받는 대신에 자신의 목을 주인에게 내놓고 말았다.

이 예는 특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진 법칙과 이론 위에서 (㉤)적 추론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이다.

- ① A, A, A, A, A, B
- ② A, B, A, A, B, A
- ③ A, B, A, B, B, A
- ④ A, A, B, A, B, A
- ⑤ A, B, A, A, A, B

7. 다음 글 (가)에서 제시된 개념을 바탕으로 글 (나)에서 묘사되고 있는 상황을 적합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가) 권력관계와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질서가 생산, 지각, 경험되는 일상생활의 장을 부르디외(Bourdieu)는 '아비투스(habitus)'라 부른다. 아비투스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실천을 추동하는 배경인 동시에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화의 상호작용의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비투스는 몸, 몸에 대한 사고, 몸짓, 행동양식, 자세 등을 형성한다. 몸은 아비투스를 표현하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의 집적체로서 아비투스를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아비투스는 사회질서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사회적 필요에서 생긴 행위를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으로 전환시킨다. 흔히 자세나 표정, 감정, 행동양식, 취향 등에서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인 것으로, 혹은 겸손하거나 품위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많은 요소들은 계급질서나 성적 위계질서 등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들이다. 이른바 상식이라는 이름 하에 기존의 세계를 이미 지어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화된 이념들에 의해 고착된 의식작용보다는 몸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몸은 권력이 만들어내는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수용하고 습득하고 반복한다. 일상을 이루는 육체적 습관 속에 지배관계가 각인되고 체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 간의 지배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몸이 특정한 사회적 기준에 적응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과 행동들을 되풀이하여 스스로를 주어진 사회적 규율에 길들이기 때문이다.

(나) 오늘날 여성의 상품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진다. 대중문화의 흥행은 여성의 몸을 시각적으로 상품화하는 전략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성매매처럼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상품화되기도 하고 대리모나 난자 판매의 경우처럼 여성의 모성적 육체가 상품적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 여성의 모성적 육체의 일부인 태반은 산모의 동의 없이 모성적 기능과는 별개의 용도를 위한 미용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여러 문화에서 결혼시장의 관행들은 신부를 상품처럼 취급하고 있으며 상품과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판매라는 서비스의 일부로 몸을 전시하고 사용하도록 고용된 여직원의 몸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상품의 일부가 된다. 상품화의 논리에 직접 연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여성의 몸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특정한 소비성향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오해나 마른 몸매에 대한 병적인 선망, 바람직한 여성의 성격이나 자세 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들은 특정한 여성의 몸의 이미지에 대한 대중적 강박증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강박증은 기호나 취향 등의 명분 속에 잘 가려진 채로 여성들의 생활 속에, 여성의 몸 위에 각인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은 타의에 의해 상품으로 대상화되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상품화하기도 한다.

- ① 모성적 기능이나 성적 대상으로 환원된 여성의 몸이 상품화되는 것은 남성지배의 아비투스 속에서 여성에게 특정한 몸의 개념 및 이미지가 강요되기 때문이다.
- ② 일상에서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원리로 교육되고 수용되고 실천되는 많은 것들이 남성지배의 아비투스를 재생산하면서 여성의 몸을 교환대상이자 육체자본으로 인식하게 하는 성향들을 양산한다.
- ③ 남성지배의 아비투스는 의식적인 학습이나 이념적 강요를 통하여 평범한 여성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비현실적인 체형의 몸을 선망하게 만든다.
- ④ 남성지배의 아비투스가 재생산되는 이유는 여성이 강요된 몸의 이미지 및 환원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 ⑤ 아비투스라 몸의 상호작용 속에서 여성의 몸은 불균형적으로 구조화된 남성지배체제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몸으로 생산된다.

8. 다음 글에 <보기>의 내용을 첨가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은?

< 보 기 >

물론 이 양자 사이의 관계는 패러디를 여러 유형들로 범주화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

사실 패러디는 문학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패러디와 문학은 그 성격상 동질적인 것이다. (ㄱ) 문학사에서 모든 개개의 작품은 결코 고립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시대의 작품들과의 '관계' 속에 놓인다. 개개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이 관계에 의해서 비로소 획득된다. (ㄴ) 문학사의 이런 관계성과 연속성은 패러디에도 그대로 그 본질이 된다. 왜냐하면 원전의 풍자적 모방, 또는 희극적 개작으로 정의되든, 이런 문학적 문맥의 한계를 벗어나 다 문맥적·사회적 문맥에서 '과거와 비판적 거리를 가진 반복'으로 정의되든, 패러디는 패러디 '원' 작품 (또는 과거) 없이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ㄷ) 패러디를 모방의 한 형식이나 비평의 형식 또는 문학의 형식, 심지어 '해석의 형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이런 관계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이 관계성에 의하여 패러디는 예술의 연속성을 보증해 주며 따라서 문학사에 유추되는 것이다.

패러디와 문학사의 연관은 언제나 패러디와 장르 사이의 문제로 대체된다. 문학사의 전개란 새로운 단계마다 장르들이 재생되거나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ㄹ) 다시 말하면 어떤 시대의 문학 장르는 선행 장르들을 가지고 있으며 장르의 변화란 주로 이런 선행 장르들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 (ㅁ) 장르는 패러디에 의하여 끊임없이 재형성되거나 변형되면서 문학을 지탱한다. 장르는 패러디의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다. 요컨대 패러디는 장르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 ⑤ (ㅁ)

9. 모순관계에 놓인 두 주장은 동시에 참으로 주장될 수도 없고 또한 동시에 거짓으로 주장될 수도 없다. (가)와 (나)의 주장이 서로 모순관계가 아닌 것은?

- ① (가) 새로 부임한 구청장의 키는 적어도 180cm는 된다.
(나) 새로 부임한 구청장의 키는 아무리 커봤자 180cm는 못 된다.
- ② (가) 이것의 모양은 동그랗다.
(나) 이것의 모양은 동그랗지 않다.
- ③ (가) 이것은 길긴 실이다.
(나) 이것은 길지 않지만 실이거나, 질기기는 하지만 실은 아니거나, 질기지도 않고 실도 아닌 것이다.
- ④ (가) 소풍가는 유치원생들은 모두 노란 모자를 썼다.
(나) 소풍가는 유치원생들은 아무도 노란 모자를 쓰고 있지 않다.
- ⑤ (가)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조는 사람은 최소한 30명은 된다.
(나)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조는 사람이 많아야 30명도 안 된다.

10. 다음 각 글들과 이를 토대로 추론한 진술들 사이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음조와 색채와 형태는 기호가 아니어서,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저항하지 않는다. 물론 그것들을 엄밀히 그 자체로만 환원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며, 가령 순수한 소리라는 개념은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다. 메를로퐁티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의미가 전혀 배어 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순수한 성질이나 감각이란 없다. 그러나 어떤 성질이나 감각에 깃들여 있는 어렴풋한 작은 의미, 가령 가벼운 기쁨이나 수줍은 슬픔 따위는 그것에 내재해 있거나 또는 그 주위에서 마치 아지랑이처럼 바르르 떨고 있는 것이다. 그 작은 의미가 바로 색채나 소리 그 자체인 것이다. 누가 뜻사과의 빛과 그 새콤한 기쁨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나) 화가는 그의 캔버스에 기호를 그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물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그가 붉은색과 노란색과 초록색을 함께 칠할 때, 그 집합체가 어떤 분명한 의미를 지니야 할 이유, 다시 말해서 어떤 다른 물체를 또렷이 지시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기가 그 집합체에도 어떤 영혼이 깃들여 있기는 할 것이다. 그리고 화가가 보라색이 아니라 노란색을 택한 데에는, 비록 감추어진 것일망정 어떤 동기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창조된 물체는 그 화가의 가장 깊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물체들이 화가의 분노나 고뇌나 기쁨을, 말이나 얼굴의 표정처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기에는 도리어 그런 감정들이 배어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원래 그 자체로서 무슨 뜻과도 같은 그 무엇이 깃들여 있는 색조 속으로 감정이 녹아들어 갔기 때문에 그 감정들은 뒤섞이고 흐려져서 이미 아무도 그것을 알아낼 수 없게 된다.

(다) 시인에게 언어는 외적 세계의 구조이다. 이에 반해서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언어적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말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다. 말은 그의 감각 기관의 연장이어서, 말하자면 그의 집게, 안테나, 안경과 같은 것이다. 그는 그런 것들을 내부로부터 조종하고 제 몸의 일부처럼 느낀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언어라는 신체에 대해서 그는 거의 의식하지도 않는데, 그것이 그의 행동을 세계로 펼쳐나가게 한다. 그러나 시인은 언어 밖에 있다. 그는 말을 거꾸로 본다. 마치 자기는 인간 조건에 속하지 않는 존재인데, 인간 세계로 다가오니 우선 말이라는 장애물에 마주쳤다는 듯이 말이다. 시인은 먼저 이름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대신에, 우선 사물들과 무언의 접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말이라는 또 하나의 사물 쪽으로 돌아서서는 그 말들을 건드리고 더듬고 만져보는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고유의 작은 광채를 찾아내고, 또 땅과 하늘과 물과 창조된 모든 것과의 독특한 유사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라) 한 선율의 의미 역시 선율 그 자체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여러 방법으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념들과는 다르다. 어떤 선율이 즐겁다거나 우울하다고 아무리 말해 보아도, 선율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넘어서거나 또는 그것에 못 미친다. 그것은 음악가가 우리보다 한결 풍부하고 다양한 정념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된 테마의 근원을 이루었을 그의 정념이 음조에 녹아들어서 그만 변질되고 흐려졌기 때문이다. 고통의 외침은 그 외침을 자아내는 고통의 기호이다. 그러나 고통의 노래는 고통 그 자체인 동시에 고통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

(마) 작가는 오막살이 한 채를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거기에서 사회적 부정의 상징을 보게 하고 독자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화가는 말이 없다. 화가는 다만 하나의 오막살이를 보여줄 따름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의 자유이다. 그 고미다락은 결코 가난의 상징이 아니다

주) 고미다락 : 다락방

- ① (가) - 어떤 성질이나 감각에 대해서도 의미는 배어 있으나, 그것과 그것의 의미는 구분되지 않는다.
- ② (나) -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화가의 의도가 배어 있으나 그것을 분명히 구별해 낼 수는 없다.
- ③ (다) - 시인은 말을 마치 자신의 신체처럼 사용하면서 사물과의 관계를 발견해 내어 의미를 말에 담아낸다.
- ④ (라) - 선율에는 정념이 배어 있으나 정념의 기호는 아니다.
- ⑤ (마) - 화가가 그린 오막살이를 보고 감상자는 가난을 떠올릴 수도 있다.

11. 다음 글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부문의 비대화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늘리기가 쉽지 않음을 눈치챈 각국 정부는 다른 방법을 통해 활동 반경을 넓히려 노력하고 있다. 규제의 확대가 바로 그것인데, 규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도는 정부가 직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보조를 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처럼 규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재정 지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예산의 규모만 보고 정부부문의 크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규제가 대폭 늘게 되면 정부부문의 실질적인 규모는 예전에 비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를 놓고 정부부문의 비중을 비교할 때도 단순히 정부지출의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만을 보고 평가를 내리서는 안 된다. 지난 15년 동안의 통계에서 이 비율을 구해보면, 일본은 32.4% 수준에 머물고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32.9%로 이보다 높았던 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정부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규제는 공공정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개인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미국을 대상으로 행한 한 연구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시행한 규제로 말미암아 민간부문이 저야 했던 비용이 1995년 한 해에만 6,68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였다고 한다. 그 해의 연방정부 예산이 1조 5,000억 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규제에 의한 비용 부담의 규모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한 가구당의 비용으로 환산하면 무려 7,000달러나 되어, 한 가구당 평균 소득세 납부액 6,000달러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더구나 이 비용의 수치는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수치에는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직접적 비용만이 고려되고 그 밖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 기업들이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생산성 저하 같은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의 실제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규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규제예산(regulatory budget)'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제도는 각 정부부처에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한 한도를 배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어떤 부처에 배정된 규제관련 비용의 한도가 2,000억원인데, 그 부처가 이미 도입한 규제에 말미암아 민간부문이 1,8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자. 이제 그 부처는 민간부문에 2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제약은 각 부처로 하여금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만을 실시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정부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규제가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하게 될지 명백히 드러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통해 수행해야 할 사업을 규제에 대체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합당한 이유 없이 규제를 남발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 ① 정부의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의 크기는 잘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②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효율성이 저하된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 ③ 1995년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중 약 40%가 가계의 소득세 납부를 통해 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④ 규제예산제도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규제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한도를 각 부처에 배정하는 것이다.
- ⑤ 일본에서 각종 정부 규제로 발생하는 비효율의 대 GDP 비율은 미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일 것이다.

12. 다음 괄호 속에 용어 A나 용어 B 중 어느 하나를 채운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용어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하물며 A는(은) 주인이요 B는(은) 손님이거늘, 오늘날 동양주의 제창자를 살펴 보건대 (㉠)는(은) 주인 되고 (㉡)는(은) 손님이 되어 나라의 흥망은 하늘 밖에 놔두고 오직 (㉢)를(을) 이같이 지키려 하니, 슬프다. 어찌 그 우미함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그런즉 한국이 영구히 망하며 한족이 영구히 멸망하여도 다만 이 국토가 황인종에게만 귀속되면 이를 낙관이라 함이 옳을까. 아, 옳지 않은 것이다. 후자는 또 일컨대, 저 동양주의를 외치는 자도 진실로 (㉣)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주의를 이용하여 (㉤)를(을) 구하고자 함이라 하나, 우리가 보건대 한국인이 동양주의를 이용하여 (㉥)를(을) 구하는 자는 없고 외국인인 동양주의를 이용하여 국혼을 잔탈하는 자가 있으니 경계하며 삼갈 것이다.

- ① A-B-A-B-A-A
- ② A-B-A-A-B-B
- ③ B-A-B-B-A-A
- ④ B-A-A-B-A-A
- ⑤ B-A-B-A-B-B

24. 다음의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건국시기의 헌법상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관은 아래 원칙에 의거함>
 (가) 중앙정부는 건국 제1기에 국내에서 총선거한 중앙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하여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행정기관임. 분담할 部는 內·外·軍·法·財·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道에 道政府, 府·郡·島에 府·郡·島政府를 두고 道에 道議會, 府·郡·島에 府·郡·島議會를 둠.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連環關係를 가지게 하되, 아래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경제정책을 推行함>
 (가) 대생산기관의 工具 및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沼澤과 水上·陸上·空中의 운수사업과 은행, 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城市·공업 구역의 公用的 주요 房産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은 중등기업은 私營으로 함.
 (나) 적의 侵佔 후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 房産과 基址와 기타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附屬者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貧工, 貧農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 혹은 공영의 집단생산기관에 充供함을 원칙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 매매, 抵押, 典讓, 遺贈, 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私人的 고용농업제도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 국영공장, 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農工大衆의 물질 및 정신상 생활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 전기, 自來水와 대규모의 인쇄, 출판, 電影, 극장 등을 국유·국영으로 함.
 (바) 老工, 幼工, 女工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工人과 農人의 免費醫藥을 普施하며 질병소멸 및 건강보장을 勵行함.
 (아) 토지는 自力自耕人에게 分給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 자작농, 소지주농, 중지주농 등 農人의 지위를 보아 저급에게부터 우선권을 줌.

- ①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려 했다.
- ② 섬주민의 생활을 고려하여 섬을 지방자치의 한 권력으로 설정했다.
- ③ 대규모 생산기관 등에 대한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 ④ 특정계급의 독재를 배격한다.
- ⑤ 출판·극장 등의 문화산업을 국유화하려 하였다.

25. <보기>에서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이 적은 것들로만 묶여 있는 것은?

지난 세기말 영국의 윌버트 박사가 복제양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세계는 마치 경쟁이라든가 하듯 인간 복제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해 왔다. 우리는 바야흐로 우리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인지 종교계는 신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술렁이고 있다. 과학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적으나 웬지 더 거대한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는 느낌 역시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좀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사람들은 마치 금방이라도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온 세상을 쑥밭으로 만들거나 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제는 어디까지나 유전자 복제이지 생명체 복제가 아니다. 아무리 청기즈칸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그가 청기즈칸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대한 정복자가 될 약간의 포악한 성격은 타고날 지 모르나 세상이 완전히 판판으로 바뀐 현대에 그가 제2의 청기즈칸이 될 확률은 거의 영에 가깝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를 여럿 복제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남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지 않을 것이다.

복제인간은 출산 시간이 좀 많이 벌어진 쌍둥이에 불과하다. 나는 쌍둥이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내가 만일 지금 나를 복제한다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머니 뱃속에서 몇 십 년을 더 있다가 나온 쌍둥이 동생이 뒤늦게 태어난 것뿐이다. 몇 초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도 결코 똑같은 인간으로 자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늦둥이 쌍둥이 동생이 나와 완벽하게 똑같은 인간이 될 리 없다. 유전자는 나와 완벽하게 같을지라도 그 유전자들이 발현하는 환경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유전자 복제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유전자 조작의 문제이다. 복제인간은 한두 번 만들어보다 시들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유전자 조작은 걸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마구 뻗어나갈 것이다. 유전자의 기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내가 가진 결함들이 어떤 유전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지 알게 될 때 그 유전자를 보다 훌륭한 유전자로 바꾸고 싶은 욕망이 왜 일지 않겠는가. 노화의 비밀이 밝혀져 다만 몇 개의 유전자만 바꾸면 몇 십 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면 누군들 마다하겠는가.

< 보 기 >

ㄱ. 유전자가 같다고 해서 동일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ㄴ. 현재의 인간복제기술이 인간의 유일성과 일회성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ㄷ. 현재의 인간복제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ㄹ. 유전자 조작은 유전자 복제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쁜 일이다.
 ㅁ. 유전자 복제와 유전자 조작은 모두 유전자 결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ㅁ
- ⑤ ㄱ, ㅁ

26.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신체의 감각으로부터 얻는 '느낌'과 개념적 사고로부터 얻는 '이성'을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느낌은 명료하게 정의내릴 수도 없고 명확히 분류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명확한 경계가 있는 언어야말로 이성의 초석이다. 즉 포유류와 어류, 삼각형과 원, 숫자 등의 개념은 언어가 마련해 준다. 그래서 유일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로서 다른 생물들과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레이코프(George Lakoff)와 존슨(Mark Johnson)은 이성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사상을 비판한다. 범주화는 언어가 마련해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흔히 생각되지만, 모든 생물이 사물을 범주화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가장 하등한 동물이라고 여겨지는 아메바도 자기와 마주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또는 다가가야 할 대상과 멀어져야 할 대상으로 범주화한다. 이런 범주화는 동물계의 모든 층위에 적용된다. 동물들은 음식, 약탈자, 가능한 짝, 자신들의 종에 소속된 동물 등을 범주화한다. 동물들이 범주화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감각기관과 이동능력 및 대상 조작 능력에 의존한다.

인간이 사물을 범주화하는 일도 신체화되어 있는 방식의 한 결과이다. 대체적으로 범주화는 의식적인 사유작용의 산물이 아니다. 범주화는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의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인간은 신경을 가진 존재로서, 두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 연결체가 있다. 정보가 뉴런들이 뻗뻗이 들어온 한 집합에서 비교적 드문드문 있는 연결체들의 집합을 통해 다른 집합으로 보내지는 것은 두뇌에서 흔한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뉴런들의 첫 번째 집합에 대해 분산되는 활성화의 패턴은 너무 커서 드문드문 있는 연결체들의 집합에서 일대일 방식으로 표상될 수 없다. 그러므로 드문드문 있는 연결체들의 집합은 어떤 입력 유형들을 출력 집합에 사상할 때 그 유형들을 반드시 분류해 놓는다. 한 뉴런 집합이 다른 입력들을 동일한 출력에 제공할 때마다 신경망의 범주화가 존재한다.

범주들 중 소수만이 의식적인 범주화 행위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범주는 세계 안에서 기능화의 결과로서 자동적·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 비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새로운 범주들을 배우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식적인 재범주화 행위를 통해 우리의 범주 체계에 대규모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범주화 방식을 의식적으로 완전히 통제하지도 않고 또한 통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심사숙고하여 새로운 범주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무의식적 범주들은 모든 의식적 범주들의 선택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 ① 모든 생물은 사물을 범주화한다.
- ② 인간이 이성으로만 사물을 범주화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인간은 의식적인 재범주화를 통해서 동물과 변별된다.
- ④ 아메바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인간의 이성은 정도의 차이이지 질적인 차이가 아니다.
- ⑤ 인간이 인간의 범주화 방식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사회의 주류적인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통제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는 이단적 견해를 가진 당사자에게보다는 그러한 통제를 지켜보는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더 크다. 앞날이 촉망되지만 성격이 소심한 지식인은 독창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처벌되는 것을 목격하면 처벌이 무서워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를 꺼리고 주류적인 생각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위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은 스스로 결코 침묵시킬 수 없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지성을 케번으로 기만하려고 노력하면서 일생을 보낸다. 자신의 양심과 지성을 정통 학설과 조화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그들의 풍부한 상상력은 소진된다. 이것은 얼마나 큰 손실인가? 자신의 양심과 지성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그것을 속이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고뇌를 거치지 않고 획득하는 진리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해낸 오류에 의하여 진리는 발전된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위대한 사상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리 보잘 것 없더라도(오류투성이라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낸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도록 하는 데에 있다. 원칙이 논박되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 관습이 있는 곳에서,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억압된 곳에서는 높은 수준의 정신적 활동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견해도 사실은 오류일 수 있다는 가정을 무시하고 그것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견의 소유자는 그러한 자신의 의견이 어찌하면 오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다음의 사실은 명심해야 한다. 만일 그 자신의 의견이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토론의 도마 위에 올려진 적이 없다면 설명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있는 진리라고 할 수 없으며 죽은 독단으로서 지지되는 진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 보 기 >

ㄱ. 죽은 진리보다 살아있는 오류가 인류에 더 공헌한다.
 ㄴ. 원칙이 논박되지 않는 선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어야 한다.
 ㄷ. 위대한 사상가를 낳는 사회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사회이다.
 ㄹ. 믿을 만한 지식인의 견해에 의지하기보다는 오류투성이더라도 스스로 생각해 낸 견해를 더 중시하는 보통 사람들의 사회는 좋은 사회이다.
 ㅁ. 토론으로 도전 받지 않은 진리는 그것이 옳더라도 죽은 진리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ㅁ
- ③ ㄱ, ㄹ, ㅁ
- ④ ㄱ, ㅁ
- ⑤ ㄴ, ㄷ, ㅁ

31. 다음 글에서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전국적으로 주목되는 민속놀이로는 남정네들의 동체싸움과 아낙들의 뚝다리밟기가 있다. 현재는 제각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수하면서 민속축제 때 선을 뵈는 정도이다. 이들 놀이는 놀이 주체의 남녀, 놀이 방식의 음양, 놀이 시기의 낮과 밤 등으로 서로 대조적이긴 해도 한결같이 정월 대보름 때 하는 풍년기원의 놀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농경사회에서 패를 갈라서 하던 놀이를 현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기능보유자도 지정되어 있고 이를 전수하고 있는 학교도 있으나 현대적 계승보다는 최소한의 전수 구실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의 현대적 계승에 관해서는 한층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놀지도 탈춤처럼 그대로 재현할 것이 아니라 오늘에 맞게 재구성해야 현대적 변용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뚝다리밟기를 할 때에도 공주를 뽑아서 공주만 밟아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서 밟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밟히는 사람들도 끌고루 다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민주적이다. 이 놀이의 본디 양식도 공주만 밟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은 공민왕이 몽진한 이후부터였다. 현대적으로 계승한다고 하여 반드시 새롭게 변형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 변질된 후대적 양상을 본디대로 돌이키는 것도 민주적 계승이자 현대적 변용이다. 그리고 뚝다리밟기 외에 실감기와 실풀이, 얼얼이청정, 꼬리따기, 대문놀이, 콩심기, 청어장사 등 여흥놀이도 함께 되살림으로써 밟기 형식의 단순하고 지루한 놀이에 머물지 않고 신명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본래의 흥겨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사라져 버린 민속문화의 전형을 총체적으로 되살려내는 길이기도 하다.

꾸며서 하는 가짜 민속이나 구경거리를 위하여 조작된 민속도 현대적 계승이라 할 수 없다. 본래대로 놀이하는 사람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종교 주술적 의미와 세시풍속에 입각한 전승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 때나 동원되어 동체싸움을 하고 어디서나 하회탈춤을 추는 것은 민속문화를 값싼 구경거리로 전락시켜 문화재로서 품위를 잃게 하는 일이다. 일정한 때에 일정한 장소에서 볼 수 있어야 문화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고 전승의 의미도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학생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동체싸움처럼 지도자의 일정한 연출 아래 놀이가 진행되고 사전에 정해 놓은 대로 승부를 낼 뿐 아니라 한결같이 연습한 대로 용의주도하게 보여주는 것도 현대적 수용이라 할 수 없다. 실제로 승부를 겨루고 그 승부에 따라 반대급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적어도 놀이하는 동체꾼들이라도 신명풀이를 할 수 있다. 관광자원으로 간주하여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구경거리로서 민속을 복원할 것이 아니라 민속을 전승하는 주체가 본디대로 민속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용과 변용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① 동체싸움이나 뚝다리밟기는 전통 민속놀이로서 현대적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전수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② 뚝다리밟기 등 전통놀이도 현대인들의 가치관에 맞게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 ③ 동체싸움 등의 전통놀이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민속문화는 현대적으로 계승할 때에 본디 전통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시기를 뛰어 넘는 복원도 가능하다.
- ⑤ 민속문화의 전승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전승주체들이 신명을 가지고 이에 종사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32. 다음의 추리들은 잘못된 추리들이다. 같은 방법으로 반박될 수 있는 것끼리 빠르게 묶은 것은?

- (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은 필요가 없다.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공부할 테니까. 게으른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은 효과가 없다. 그들은 여차피 공부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장학금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불필요하고 게으른 학생에게는 효과가 없으므로 장학제도는 없어야 한다.
- (나)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한다면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쟁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평화가 없거나 발전을 못하거나이다.
- (다) 남자가 독신이라면 그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만약 그가 기혼이라면 그는 처자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는 결혼을 해야 하거나 독신으로 지내야 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는 여차피 불행할 수밖에 없다.
- (라) 만일 내가 옳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고, 만일 내가 옳지 않은 말을 하면 신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옳은 말을 하거나 옳지 않은 말을 하거나이다. 그러므로 너는 여차피 사람들의 미움을 받든지 신의 미움을 받든지 할 수 밖에 없다.
- (마) 사람들이 착하다면 나쁜 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란 것은 불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사람들이 악하다면 그들은 범법을 피해서라도 악행을 저지를 것이기에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법은 불필요하거나 악행을 막지 못하거나이다.

- ① (가), (나), (다) ----- (라), (마)
- ② (가), (나), (마) ----- (다), (라)
- ③ (가), (라), (마) ----- (나), (다)
- ④ (나), (다), (라) ----- (가), (마)
- ⑤ (다), (라), (마) ----- (가), (나)

33. 다음 (가), (나)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공통의 중심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가) ‘아, 재목으로 쓸 나무는 보면 쉽게 드러나고, 판단하기도 쉬운 법이다. 그런데 이 나무를 내가 세 번이나 바라보고서도 재목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 겉으로 후덕해 보이고 인정 깊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그 본심을 알 수 있겠는가? 말을 들어 보면 그럴 듯하고 얼굴을 보면 선량해 보이고 세세한 행동까지도 신중히 하므로 우선은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큰일이나 중대한 일에 당하여서는 그의 본색이 드러나고 만다. 국가가 망하는 원인이 따지고 보면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무가 자랄 때는 짐승들에게 짓밟히거나 도끼 따위로 해를 받은 일이 없이 오직 이슬의 덕택에 날로 무성하게 자란다. 따라서 마땅히 굵은 데 없이 곧아야 할 텐데 꼬부라지고 뒤틀려서 이처럼 쓸모없는 재목이 되고 말았다. 하물며 요즘 같은 세상살이에 있어서이겠는가? 물욕이 진실을 어지럽히고 이해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천성을 굽히고 당초에 먹은 마음에서 떠나고 마는 자가 많다. 때문에 속이는 자가 많고 정직한 자가 적은 것을 이상하게 여길 일은 아니다.’

장씨가 이러한 생각을 내게 전하기에,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대는 정말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서경』 ‘홍범편’에 오행(五行)을 논하면서, 나무를 곡(曲)과 직(直)으로 설명하였습다. 그렇다면 나무가 굵은 것은 재목감은 안 될는지 몰라도 나무의 천성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공자(孔子)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는 요행히 죽음만 모면해 가는 것이다.’ 하였습다. 그렇다면 정직하지 못한 자가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요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이 세상에서 굵은 나무는 아무리 서투른 목수일지라도 가져다 쓰지 않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잘 다스려지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큰 집의 구조를 살펴보십시오. 공(公)과 경(卿)과 대부(大夫) 그리고 사(士)가 예복을 갖추어 입고 궁전에 드나드는데, 그 중 정직한 도리를 간직하고 있는 자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굵은 나무는 쓰임을 얻지 못하는데, 사람은 정직한 자가 버림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옛말에 ‘곧기가 현(絃)과 같은 자는 길거리에서 죽어 가고 굵기가 구(鉤)와 같은 자는 공후(公侯)에 봉해진다.’고 하였습다. 이 말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굵은 나무보다 많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나) 본래 그물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깨어 놓는 버리가 있고, 그 버리에 매달린 그물의 눈, 곧 그물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물은 그물코가 없이 혼자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그물코도 버리가 없이 스스로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협조하여 그 질서가 문란하지 않아야만 사람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이 만들어지면 처음에는 버리와 코가 서로 잘 조화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다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 낡고 찢어져서 못 쓰게 되는데, 그것은 대개 개의 발가락에 찢기고 좀벌레나 쥐의 이빨에 의하여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울이 가는 그물코가 먼저 헤어지지만 나중에는 버리도 따라서 못 쓰게 되지요. 결국에 가서는 마치 밭 없는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고 헤어진 그물코는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손을 쓸 수 없다고 하여 내다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 쓰게 된 그물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서는 마당에 펼쳐 놓고 찢어진 곳을 자세히 조사하고 손볼 곳을 검토한 뒤에 천천히 그리고 익숙한 솜씨로 하나하나 헤어진 것을 찾아 집습니다. 맨 처음 문제가 되는 버리부터 고치고 다음에 그물코를 하나하나 기워 나갑니다. 곧 끊어진 곳은 있고 낡은 것은 보충하여 며칠만에 완전히 고쳐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쓴다고 버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새것처럼 된 그물을 보고는 감탄하여 부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동안 내가 그 물건을 고치느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고심하였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주인 어른께서 버리겠다는 사람의 말만 듣고 이 그물을 수리하면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다면 이 물건은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또 비록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셨더라도 평범한 종들에게 수리를 맡겼다면, 이 그물은 잘못 손질되어 도리어 더 못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수리한 그물은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으며 잘 간직해서 헤어지면 바로 집되, 평범한 종들에게 수리를 맡기지 않는다면 오래오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감탄하면서 생각하였다.

‘이 사람의 말은 나라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시사하는 바 크구나. 오늘날, 그물의 버리, 그물코와 같은 기강이 어느 것 하나 헤이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렇게 헤이해진 기강을 보며 이제 더 이상 구제할 만한 희망이 없다고 내버려두고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혹 희망을 가지고 그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하지만, 평범하고 옹졸한 종이 그물을 버려 놓듯이, 오히려 나라의 법도와 기강을 해치는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마치 정군처럼 생각을 가다듬고 천천히 손쓸 곳을 찾아서 얼굴빛이나 말에 자신의 표정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자기가 할 일의 순서를 찾아 헤이해진 기강을 정돈하는 자는 없을까? 그리고 그렇게 정돈한 기강을 날마다 애써 지키며 그것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 자는 없을까?’

- ① 부유한 세상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 ②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세상을 등진 채 자기만의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 ③ 혼탁한 시대에 능력있는 인재가 등용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 ④ 무사안일에 젖어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관리들의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 ⑤ 현실을 감안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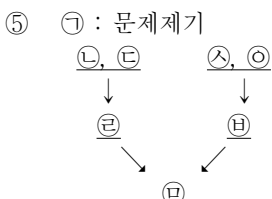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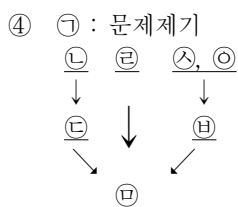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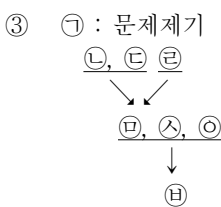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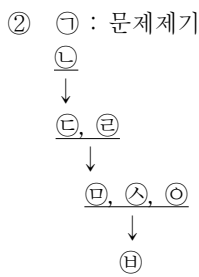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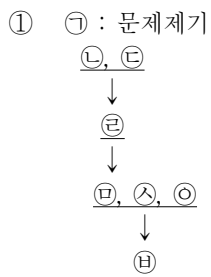
언어논리영역

| 가형 | | | | 나형 | | | | 다형 | | | | 라형 | | | |
|----|----|----|----|----|----|----|----|----|----|----|----|----|----|----|----|
| 문번 | 정답 | 문번 | 정답 | 문번 | 정답 | 문번 | 정답 | 문번 | 정답 | 문번 | 정답 | 문번 | 정답 | 문번 | 정답 |
| 1 | 4 | 21 | 3 | 1 | 4 | 21 | 3 | 1 | 4 | 21 | 3 | 1 | 4 | 21 | 4 |
| 2 | 5 | 22 | 3 | 2 | 5 | 22 | 5 | 2 | 5 | 22 | 4 | 2 | 5 | 22 | 3 |
| 3 | 5 | 23 | 3 | 3 | 5 | 23 | 4 | 3 | 5 | 23 | 2 | 3 | 5 | 23 | 2 |
| 4 | 2 | 24 | 4 | 4 | 2 | 24 | 2 | 4 | 2 | 24 | 3 | 4 | 2 | 24 | 3 |
| 5 | 3 | 25 | 3 | 5 | 3 | 25 | 3 | 5 | 3 | 25 | 5 | 5 | 3 | 25 | 4 |
| 6 | 2 | 26 | 3 | 6 | 4 | 26 | 3 | 6 | 4 | 26 | 4 | 6 | 4 | 26 | 2 |
| 7 | 3 | 27 | 3 | 7 | 1 | 27 | 3 | 7 | 3 | 27 | 2 | 7 | 2 | 27 | 3 |
| 8 | 3 | 28 | 3 | 8 | 3 | 28 | 4 | 8 | 3 | 28 | 3 | 8 | 3 | 28 | 5 |
| 9 | 4 | 29 | 4 | 9 | 3 | 29 | 3 | 9 | 4 | 29 | 3 | 9 | 4 | 29 | 4 |
| 10 | 3 | 30 | 2 | 10 | 2 | 30 | 3 | 10 | 1 | 30 | 3 | 10 | 3 | 30 | 2 |
| 11 | 4 | 31 | 3 | 11 | 3 | 31 | 3 | 11 | 3 | 31 | 4 | 11 | 3 | 31 | 3 |
| 12 | 3 | 32 | 4 | 12 | 3 | 32 | 3 | 12 | 3 | 32 | 3 | 12 | 4 | 32 | 3 |
| 13 | 2 | 33 | 3 | 13 | 4 | 33 | 4 | 13 | 2 | 33 | 3 | 13 | 1 | 33 | 3 |
| 14 | 3 | 34 | 3 | 14 | 3 | 34 | 2 | 14 | 3 | 34 | 3 | 14 | 3 | 34 | 4 |
| 15 | 4 | 35 | 4 | 15 | 4 | 35 | 3 | 15 | 3 | 35 | 3 | 15 | 3 | 35 | 3 |
| 16 | 2 | 36 | 1 | 16 | 3 | 36 | 4 | 16 | 4 | 36 | 4 | 16 | 2 | 36 | 3 |
| 17 | 3 | 37 | 3 | 17 | 2 | 37 | 3 | 17 | 3 | 37 | 2 | 17 | 3 | 37 | 3 |
| 18 | 5 | 38 | 4 | 18 | 3 | 38 | 4 | 18 | 4 | 38 | 4 | 18 | 3 | 38 | 4 |
| 19 | 4 | 39 | 5 | 19 | 4 | 39 | 5 | 19 | 3 | 39 | 5 | 19 | 4 | 39 | 5 |
| 20 | 2 | 40 | 4 | 20 | 2 | 40 | 4 | 20 | 2 | 40 | 4 | 20 | 3 | 40 | 4 |

언어논리영역

문 1. 다음 글에 담긴 논증구조를 분석하여 도식화할 경우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는 밑줄 위의 문장들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문장을 논리적으로 지지함을 의미한다)

- ㉠ 현대의 과학이론은 대부분 관찰 불가능한 세계를 서술 대상으로 하기에, 과학이론이 참이라는 주장을 정당화하기란 쉽지 않다. 과학적 실재론은 과학이론은 참이며 이론 안에 표현된 관찰 불가능한 존재물들(소위 이론적 존재물들) 역시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철학의 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입장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 ㉡ 코난 도일(Conan Doyle)의 이야기에서 셜록 홈스(Sherlock Holmes)가 제시한 설명은 항상 왓슨(J. B. Watson) 또는 통상적으로 어떤 난처한 사실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찰이 처음에 제시한 설명보다 항상 완벽하고 포괄적이다.
- ㉢ 홈스의 설명이 갖는 완전성은 다른 설명에는 결여되어 있는 증명력을 그에게 부여한다. 즉 범인이 잡히기도 전에 다른 어떤 설명들보다도 홈스의 설명이 옳다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
- ㉣ 과학의 많은 경우들에서도 이와 매우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 다만 소설과는 달리 관찰 불가능한 존재물을 가정하고 있기에, 과학이론의 높은 설명력은 이론의 옳음을 증명할 수는 없고 대신 그것이 옳다고 믿을 좋은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
- ㉤ 이처럼 만일 하나의 이론이나 주장이 어떤 데이터를 다른 이론이나 주장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잘 설명한다면, 그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그 이론을 참이라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가질 수 있다.
- ㉥ 과학적 실재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우리는 과학적 실재론 역시 옳다고 믿을 좋은 이유를 가질 수 있다.
- ㉦ 실제로 과학사를 보면 과학은 많은 경우 매우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 ㉧ 그런데 과학적 실재론적 입장이 아닌 다른 입장들은 이러한 과학에서의 성공 현상을 충분히 잘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어떤 과학이론이 세계에 관한 참된 혹은 적어도 근사적인 서술이라면, 그 과학 이론은 당연히 성공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 2. 다음 글에서 밑줄 친 ‘한글의 역할’로 문맥상 적절한 것은?

사대부들이 훈민정음의 사용을 반대했던 내면적인 이유는, 문자 체계에 대한 그들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었다. 사대부들은 문자 체계의 독점으로 인한 상대적인 이득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문자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말과는 달리 원거리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기록으로 남겨 권리의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대대로 지식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자를 모르던 일반 백성들은 행정절차나 법률, 경제활동 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에, 신분 체계에 유동성이 생기고 상업이나 공업 등 근대적 산업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과 - 비록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보급되기는 했으나 - 한글의 보급 현상과는 무관하지 않다.

현대를 일컬어 흔히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정보화 시대란 지식이 곧 권력을 낳는 시대라는 말과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도 한글이 공헌한 바가 크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문맹률을 낮추었고, 결과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권력을 형성하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공유시켜 민주주의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자의 보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오늘날, 인터넷을 중심으로 개별적이면서도 대량의 정보가 유통되는 컴퓨터 통신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쌍방향 의사소통 체계로 보다 진보적인 민주주의적 의사소통 수단이다. 컴퓨터 통신 시대에는 한글의 역할도 그만큼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문맹률을 낮추는 역할
- ② 근대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역할
- ③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
- ④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
- ⑤ 개별적이면서도 대량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역할

문 3. 다음은 타인을 평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관련된 것끼리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이번에 승진한 김과장은 너무 일하기 편한 부서에서만 근무해서 승진된 것이다.
- ㉡ 그는 매우 부지런하기 때문에 책임감도 강하고, 능력도 있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뛰어날 것이다.
- ㉢ 박씨의 사고방식은 나의 사고방식과 비슷해서 내가 일하는 인사과에서도 일을 잘할 것이다.
- ㉣ 슈미트는 독일인이기 때문에 근면한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김씨는 경리과에 근무하기 때문에 융통성은 없지만 꼼꼼할 것이다.

- a 평가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상을 보고 평가 대상자의 전반적인 평가요소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 b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특정 집단이나 소속에 대한 시각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향
- c 다른 사람이 행한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지각에 의존하는 경향
- d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자신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키는 경향

- ① ㉠-a, ㉡-c, ㉢-b, ㉣-d
- ② ㉠-a, ㉡-c, ㉢-d, ㉣-b
- ③ ㉠-c, ㉡-a, ㉢-d, ㉣-b
- ④ ㉠-c, ㉡-b, ㉢-a, ㉣-d
- ⑤ ㉠-d, ㉡-a, ㉢-b, ㉣-c

문 14.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든 문화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물질적·기술적 측면에서 뒤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일지라도, 예컨대 자연 환경이나 다른 생물에 대한 존중과 같은 측면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인류학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놀랄 만큼 다양한 생활 양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때문에 모든 문화권의 행동 양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배우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일종의 판단 정지를 하게 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 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다른 문화권 내에 존재하는 명백한 폭력적 행동 양식마저 그들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컨대 우리가 비폭력적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폭력적 문화를 가진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경우 그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따라서 큰 틀에서는 문화 상대주의를 따르더라도, 모든 인간을 상대로 일반화할 수 없는 가치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비인간적이며, 보편화될 수 없는 모든 행위 또한 비인간적이다.

- ① 문화 상대주의로 폭력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
- ② 비인간적 행위를 문화적 맥락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 ③ 타인 역시 존중받을 인간이라는 사실은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과는 상치된다.
- ④ 문화적인 특수성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충돌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 ⑤ 인간의 존엄성을 상대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가치들은 문화 상대주의를 따르더라도 용인되기 어렵다.

문 15. 다음 각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주제는?

가. 2001년 1월 20일, 필리핀 대통령 조셉 에스트라다는 영리한 군중에게 권력을 잃은 역사상 최초의 국가 수반이 되었다. 100만 명 이상의 마닐라 거주민들이 문자 메시지의 파도에 휩쓸려 동원되고 통합되어, 1986년 마크코스를 권좌에서 몰아낸 평화적인 ‘피플 파워’ 시위가 발생했던 현장에 다시 모였다. “에드사로 갈 것, 흑의(黑衣) 착용”. 에스트라다는 실각했고 ‘문자 세대’라는 전설이 탄생했다.

나. 1999년 11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회의에 항의하는 자발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위집단들이 ‘시애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휴대전화, 웹사이트, 랩탑 컴퓨터, PDA 등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다. 2000년 9월, 수천 명의 영국 국민이 휘발유 가격의 갑작스러운 인상에 격분하여 기습 불법 정치집회를 열었고, 특정 정유소들로 흩어져 연료 배달을 차단하는 집단들을 조직하기 위해 휴대전화, SMS, 노트북의 전자우편, 그리고 택시의 CB 무선통신을 이용하였다.

라. 1992년 이래 매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시위하는 수천 명의 ‘비판적 대중’이라는 시위대가 집단을 이루어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누볐다. 비판적 대중은 느슨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한다. 그들은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으며, 필요한 때에는 먼 거리에서 조정되는 작은 집단들로 쪼개진다.

- ① 뉴미디어의 보편화와 시위의 전세계화
- ② 모바일 미디어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
- ③ 뉴미디어 기술의 혁신적 발달과 세계화
- ④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뉴미디어의 잠재력
- ⑤ 군중 동원을 위한 모바일 미디어의 악용 가능성

문 16. 경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판단의 기초를 바르게 묶은 것은?

경미는 정원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친구인 진우, 상호, 민주가 그 일을 매우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세 명 모두에게 줄 수는 없다. 경미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같은 일을 시키고 같은 임금을 주겠지만, 그녀는 누구를 고용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하고 있다.

그녀는 셋 중 진우가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녀는 진우를 고용할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상호가 최근에 갑자기 가난해졌다는 것과 그 때문에 심리적으로 가장 침울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상호가 셋 중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이 일을 통해 다른 둘보다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미는 이런 이유로 상호에게 그 일을 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경미는 조경학과를 나온 민주가 오랜 전업주부 생활로 권태와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다. 민주는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자신을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는 이 일을 민주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미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한다. 그녀는 각각 충분한 사유를 가진 세 가지 사연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 | 진우 | 상호 | 민주 |
|---|------|------|------|
| ① | 소득평등 | 공리주의 | 자기성취 |
| ② | 공리주의 | 소득평등 | 자기성취 |
| ③ | 공리주의 | 자기성취 | 소득평등 |
| ④ | 자기성취 | 소득평등 | 공리주의 |
| ⑤ | 자기성취 | 공리주의 | 소득평등 |

문 17. 다음 글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가장 적절히 배열한 것은?

(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임금 체계를 성과 지향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도의 틀과 운용 기준을 설계하여야 한다. 성과 지향적 임금 체계의 틀은 기업의 도입목적, 성과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철학, 적용대상의 지위, 임금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나) 기업에서 연봉제와 같은 성과 지향적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엄정한 운용 관리를 위해 대상층에 대해 업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 지향적 임금 체계를 통해 관리직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의식개혁과 도전의식을 함양하고 이들의 능력 개발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다) 따라서 새로운 발상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성과 지향적 임금 체계의 틀을 구축할 때는 제도운영의 엔진이 되는 공정한 평가제도에 기초하여 보상이 인상 또는 삭감되는 틀을 설계하고 엄정하게 운용하는 것이 성과 지향적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지름길이 된다.

(라)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은 기존의 임금 수준은 보전하면서 근로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임금 수준의 상승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성과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근로 시간의 양에서 질로 옮겨야 한다.

(마) 단순한 종래의 연공형 임금 체계의 연장선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무늬만 생색내기식의 임금 체계 변동은 필요 이상의 재원만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무익하다 할 것이다.

(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임금 수준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의 한 방안으로 임금 체계를 성과 지향형으로 바꾸는 것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된 사항이고 이는 많은 기업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검증된 방법이다.

- ① (가) - (라) - (바) - (나) - (마) - (다)
- ② (라) - (바) - (가) - (다) - (마) - (나)
- ③ (라) - (바) - (가) - (마) - (다) - (나)
- ④ (바) - (가) - (라) - (마) - (다) - (나)
- ⑤ (바) - (라) - (가) - (마) - (나) - (다)

문 21. 다음 글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가장 적절히 배열한 것은?

(가) 빈약한 정보 보호 투자도 문제이다. 정보화에 투자되는 정부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투자는 인색한 편이다. 정보통신부 자료를 보면, 지난 해 정보화에 쏟아 부은 예산은 5,789억원이지만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예산은 306억원으로 5.3%에 불과했다. 이는 민간부문(6.2%)이나 미국(8.1%)보다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민간 기업들은 43%가 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유관 부서에서 병행하고 있으며, 44%는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내 기업들의 정보 보호 상황이 위험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 비율, 초고속 인터넷 접속 비율, 사용자 수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이 증대되면서 이제 사이버 공간은 제2의 생활 공간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은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전화선만큼, 어쩌면 전화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 기간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 이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와도 일맥 상통한다.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자동차 사고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자기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 액수나 형사 책임이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몰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안전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라) 그러나 정보 보안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93.9%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면서도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컴퓨터·인터넷 이용 시간이 늘면서 사이버 공격에 의한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이용자 중 42%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이와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마) 큰 사고가 터질 때마다 ‘예고된 사고’, ‘인재’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이 ‘예방’을 위해 쓰는 돈과 노력을 ‘비용’이 아닌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안전 비용은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안전에 필요한 노력이나 비용은 처음에는 필요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큰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안전에 드는 노력이나 비용은 각각의 회사 또는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바)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보안에 대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정부가 관리하는 컴퓨터들은 보안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행해져서 다른 부문에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민간에 대해서도 보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고함과 동시에 세계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서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보 보호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그 동안 정보 보호 예산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예산에 묻혀왔으나 앞으로는 별도로 예산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① (나) - (바) - (라) - (가) - (다) - (마)
- ② (나) - (라) - (마) - (다) - (가) - (바)
- ③ (나) - (라) - (가) - (마) - (다) - (바)
- ④ (마) - (다) - (나) - (라) - (가) - (바)
- ⑤ (마) - (다) - (바) - (나) - (라) - (가)

문 22. 다음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통된 주제로 적합한 것은?

가. 권력과 이익, 국가적 안보가 전쟁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므로 전쟁에는 정의와 같은 도덕적 판단이 적용될 수 없다. 즉 “전쟁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전쟁은 언제나 도덕적, 법률적으로 양 당사자들에 의해 정당화되므로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에 호소하는 것은 어떤 정당화도 필요가 없다.

나. 자연은 인간이 만든 거대한 사회나 국가 체제에서까지도 인간들 사이의 불화를 수단으로 하여, 그와 같은 불가피한 대립 속에서 평화와 안정의 상태를 찾아내도록 한다. 자연은 처음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불완전한 시도들을 감행하게 하고, 결국 무수한 황폐화와 몰락을 거쳐 그들의 모든 힘을 고갈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그렇게 많은 불행한 경험 없이도 이성이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즉 야만의 무법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들 사이의 연맹을 이루는 것으로 몰고 간다. 이러한 국제연맹에서는 모든 국가가, 비록 가장 작은 국가일지라도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 질서와 시민의 권리가 신성시되면서 수행된다면 전쟁조차 어떤 숭고한 면모를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어떤 민족이 이런 식으로 전쟁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민족이 위험에 처하여 담대히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면, 위험이 크면 클수록 전쟁은 그 민족의 사고 방식을 더욱 더 숭고하게 만든다. 이에 반해 오랜 평화는 한낱 상인기질만 퍼뜨리며 그와 함께 천박한 이기심과 비겁함, 그리고 유약함을 만연시켜 민족의 사고방식을 천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라. 전쟁은 개인 전사를 둘러싼 가족과 동료, 왕에 대한 신의, 우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이다. 이를 통해 부족, 씨족, 민족이 맥락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한 남성이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운 인격이었는가를 기억하고 기념한다. 전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은 형편없이 싸울 수도 있고 아주 잘 싸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전쟁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상태의 일부로 당연시되어야 한다.

- ① 전쟁의 정당성
- ② 전쟁의 자연성
- ③ 전쟁의 불필요성
- ④ 전쟁의 위험성
- ⑤ 전쟁의 역사성

문 23. 여동생이 1명씩 있는 A, B, C, D, E 5명의 청년이 있다. 이 5명의 청년과 각각의 여동생을 합한 10명 모두가 아래의 <전제조건> 하에 단체미팅을 하여 5쌍의 커플이 탄생했다. <미팅결과> 로 볼 때, C의 여동생의 상대가 된 청년은 누구인가?

— <전제조건> —

1. 미팅에 참가한 청년은 자신의 여동생과 커플이 될 수 없다.
2. 두 사람이 서로의 여동생과 커플이 될 수 없다.
(예, 갑이 을의 여동생과 커플이 되었다면, 을은 갑의 여동생과 커플이 될 수 없다.)

— <미팅결과> —

1. A의 상대는 B의 여동생도 D의 여동생도 아니었다.
2. B의 상대는 C의 여동생도 D의 여동생도 아니었다.
3. C의 상대는 B의 여동생도 E의 여동생도 아니었다.
4. D의 상대는 E의 여동생이 아니었다.
5. E의 상대는 A의 여동생도 D의 여동생도 아니었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문 24. 다음 글의 흐름 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것은 곧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도로 환경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폐수를 강에 쏟아 붓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분하기 위한 매체로 강이라는 환경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이며, 시커먼 매연가스를 뿜어대는 기업은 그 매연가스를 처분하기 위한 매체로 대기의 일부를 이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환경오염이란 환경을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특정 용도에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이 환경의 다른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공해업체가 우리의 대기를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일반 시민들이 호흡하는 용도에 이 대기를 이용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해업체가 환경을 오염물질 배출 용도로 과도하게 쓰는 이유는 그 환경의 다른 용도에 미칠 지장에 상응하는 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이 환경문제에 대하여 제시하는 대책이란 원칙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간단하다. 즉,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하여금 환경의 이용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마치 쌀이나 옷에 가격을 매겨서 유통시키듯이 환경에도 적정가격을 붙여서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 가격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응분의 가격을 치르게 만든다면, 반대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행위는 응분의 가격을 받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 ① 이와 같이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라는 것도 거래대상이 되는 자원처럼 취급되게 해야 한다.
- ② 즉 어떤 자원이든지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공급된다.
- ③ 말하자면 정부가 환경에 대한 시장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 ④ 요컨대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에 있다.
- ⑤ 다시 말해서 이미 자본화된 자연자원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된다.

문 25. 다음 (가), (나), (다)를 토대로 한 연구주제로 적절한 것은?

(가) 성(城)·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대(人大)에서 선출되는 대표의 숫자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농촌 대표 1인당 인구수를 도시 대표 1인당 인구수의 8배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이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농촌 성(省)·구(區)는 인구가 비교적 적어 만일 이 원칙에 따른다면 불과 몇 명의 정원밖에 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거법에는 인구가 특별히 적은 성과 자치구의 대표는 최소한 15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약 10만 8천명당 1명의 비율로 확정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선거방식이 자주 변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나를 놓고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비교적 최근까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현재는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현행 제도는 단기명 투표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결선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차 투표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도 1차 투표시 투표수의 5%(1958년), 10%(1966년), 12.5%(1976년)로 바뀌어 왔다. 결국 현행 12.5%는 결선투표에서 최다 8명 이내로 후보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 형식적인 선거는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각 주의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시 득표율은 선거인단 선출시 각 주별로 후보가 득표한 비율에 비하여 약간 다를 수도 있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거 시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 선출은 하원으로, 부통령 선출은 상원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하원에서는 각 주가 1표씩 선거권을 가지며, 총 3분의 2 이상의 투표에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면 선출된다.

- ① 바람직한 의회 - 행정부간의 관계
- ②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출방법
- ③ 중국정치경제의 발전방향
- ④ 국민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 ⑤ 대통령의 민주성 확보

문 2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하천은 자연공물로서, 자연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치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보다 풍부하고 윤택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하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첫째, _____ 하천구역을 자연우선공간, 인공이용공간 및 공존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자연우선공간에 대하여는 그 곳의 생물들이 충분히 서식할 수 있도록 생태계 피라미드를 토대로 일정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는 등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_____ 하천은 생물에게 있어서 산과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산에서부터 바다까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서는 풍부하고 깨끗한 수량과 수질을 확보하면서 물고기의 소상 및 강하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_____ 생물적 자연을 보전하고 재생함에 있어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종의 다양성, 유전자의 다양성 등 3가지 생물적 다양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적 다양성이 높고 많은 생물종으로 구성된 생태계는 안정성이 높아 다소의 환경조건의 변화에도 저항력이 있으므로 생물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생물사회의 유지·형성이 중요하다.

<보 기>

- (가) 생물적 다양성의 확보
- (나) 자연과 인간의 영역구분
- (다) 물과 녹음(綠陰)의 네트워크 형성

- ① (가) - (나) - (다)
- ② (나) - (가) - (다)
- ③ (나) - (다) - (가)
- ④ (다) - (가) - (나)
- ⑤ (다) - (나) - (가)

문 27. 다음 글의 내용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은?

예컨대, 내가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지킬 생각을 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장 빠르고 또 가장 확실하게 찾으려면 먼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면 된다. 즉, "(거짓 약속을 통해 곤경을 벗어난다는) 나의 이러한 준칙이 보편 법칙으로서 (나와 다른 사람 모두에게) 마땅히 통용된다면, 과연 이 사실에 만족할 수 있을까?" 라고 말이다. 그러면 나는,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만일 다른 방법으로는 그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누구나 거짓 약속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비록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원할 수 있을지라도, 거짓말하는 것을 보편법칙으로 만드는 일은 결코 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법칙에 따르게 되면 약속이란 것은 아예 성립할 수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래의 행위에 관한 나의 의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또한 비록 그들이 경솔하게 나의 말을 믿게 될 경우라도 그들은 다시금 나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나의 그러한 준칙은, 그것이 보편법칙으로 됨과 동시에 곧바로 파기되고 만다.

- ① 거짓 약속은 불가피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 ② 나의 준칙은 언제나 보편법칙이 될 수 없다.
- ③ 약속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 ④ 거짓 약속은 상대방이 믿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 ⑤ 거짓 약속을 보편법칙화 하려는 의도는 약속 개념 자체의 파기를 뜻한다.

문 34. 다음 실험결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범죄통제전략상의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심리학자 짐바르도(Zimbardo)는 차량번호판이 없는 한 대의 자동차를 준비하였으며, 그 자동차의 본넷을 열어 놓은 채 A시의 어느 가로변에 주차시켜 놓았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종류의 멀쩡한 자동차를 마련하여 B시의 어느 가로변에 주차시켜 놓았다. A시에 세워둔 자동차는 ‘방치해’ 놓은 지 10분 이내에 곧바로 파괴자들(Vandals)에 의하여 공격을 받게 되었다. 자동차 주변에 처음 도착한 무리 중의 첫 번째는 한 가족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아들이었다. 그들은 차량의 라디오와 배터리를 제거하였다. 24시간 이내에 값어치가 나가는 모든 차량부품들은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는 마구 파괴되기 시작했다. 자동차의 창문은 박살났으며, 다른 부품들도 파괴되었으며, 실내장식들도 찢어 없어졌다. 아이들은 마치 자동차가 운동장인 것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 놀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성인 파괴자들은 말쑥하게 차려입은 아주 깔끔한 백인들이었다.

그런데 B시에 세워 둔 자동차는 1주일이 넘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 그 때 짐바르도는 큰 쇠파시로 자동차의 일부를 부숴 버렸다. 그러자 곧, 지나가는 행인들이 가담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안에 그 자동차는 완전히 뒤집어졌으며, 파괴되었다. 이번에도 첫 번째 실험에서 목격된 것처럼 상당히 품행이 방정한 백인이 파괴자로 나타났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파괴된 자동차는 일종의 약탈품이나 재미거리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그러한 짓을 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에게조차 정당한 게임거리로 전략하게 되었다.

- ① 지역 사회 내 기초질서 위반행위들을 계속 방치하면 비공식적 통제능력이 약화된다.
- ② 지역 사회 내 어떤 질서 위반 행위의 발생은 추가적인 범죄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 ③ 경찰은 마약, 강도, 살인 등 중범죄 통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 ④ 기초질서 유지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찰활동이 중요시 되고 있다.
- ⑤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법집행활동을 정당화시킨다.

문 35. 다음 글의 흐름상 괄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A는 월소득이 100만원이다. 이 100만원으로는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다. 당연히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적자분은 정부 보조로 메우거나 적자 그 자체로 계속 쌓여간다. B는 월 200만원을 번다. 적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지출이 같다. 저축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그나마 수입과 지출의 끝수 맞추기가 점차 힘들어진다. ○○ 은행 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는 월평균소득 115만 - 135만원 계층에서 소득대비 적자폭이 5.8%에 이르렀는데 올 1/4분기 들어서는 월평균 소득 135만 - 155만원 계층까지 적자로 돌아섰다. C는 월소득이 1000만원이다. 생활비는 600만원이면 족하다. 나머지는 저축한다. 저축은 통상 금융기관을 경유해 기업투자로 이어진다.

국민소득은 국민 각자의 소득차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해서 다시 생산부문에 순환되고, 투자분은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다시 소득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순환과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C가 자신의 잉여소득 400만원을 저축하지 않고 외국계 투자펀드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직접 해외유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재산의 국내·외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C는 요즘 들어 일부러 해외로 나가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에 없던 주변 눈총 때문이다. 이 부분까지 합하면 해외 유출분은 더 늘어난다.

A, B, C를 합쳐 매달 1300만원의 돈이 우리 사회를 돌아야 그나마 재생산을 유지할 텐데 전체 지출액수가 줄어들면 각자에게 돌아오는 미래 소득 역시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은 국가 규모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현금보유액만 40조 - 50조원에 달한다거나 아니면 수출 호조로 호황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매스컴을 장식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내수시장에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

- ① 가계의 월평균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한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 ③ 돈 있는 사람들의 해외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 ④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를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 ⑤ 소득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 36. 다음 글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일화는 행성의 기묘한 운동에 대하여 상상해 본 것이다. 아인슈타인 이전 시대의 물리학자는 뉴턴 역학 및 그의 중력 법칙 N과 초기 조건 I를 수용하고, 그것들의 도움으로 새롭게 발견된 작은 행성 P의 진로를 계산했다. 그러나 이 행성은 계산된 진로에서 벗어났다. 뉴턴 물리학을 신봉하는 물리학자가 이것을 뉴턴 역학 법칙과 그의 중력 법칙 N에 대한 반박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행성이 존재하며, 이 행성이 P의 궤도를 교란시켰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가정된 행성의 질량, 궤도 등을 계산하여 가설을 세우고 관측 천문학자들에게 그 가설의 테스트를 의뢰할 것이다.

행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망원경 가운데 가장 큰 망원경을 통해서도 이 행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관측 천문학자들은 더 큰 망원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비를 신청하였다. 3년 후에 새로운 망원경이 완성되었다. 만일 이 망원경을 통해 행성이 발견되었다면 이것은 뉴턴 과학의 새로운 승리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행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학자는 뉴턴의 이론과 교란의 원인으로 여겨진 행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포기할 것인가?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주진(宇宙塵)의 구름 때문에 우리가 그 행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그는 이 우주진의 위치와 성질을 추정하여 이 추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인공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연구비를 요구할 것이다. 만일 인공 위성의 측정 기구들(가능한 한 새롭고 어느 정도 테스트된 이론에 기초한 기구들)이 추정된 우주진의 구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면, 이 결과는 뉴턴 과학의 놀라운 승리로 환호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학자는 뉴턴의 이론, 교란의 원인으로 여겨진 행성, 그 행성을 가리고 있는 우주진에 대한 생각을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다시 우주의 어디엔가 존재하는 자력장 때문에 인공 위성의 측정 장치들이 방해받는다라는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새로운 인공 위성을 발사한다. 만약 이 자력장이 발견된다면 뉴턴의 과학은 극적인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력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이 뉴턴 이론에 대한 반증으로 간주되는가? 그렇지 않다. 또 다른 기발한 보조 가설이 제안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모두 학술 잡지의 한 모퉁이에 사장되어 다시는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 ① 과학 이론은 영원한 진리이다.
- ② 과학자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 ③ 이론을 지지하는 사례가 많으면 그 이론을 받아 들여야 한다.
- ④ 이론과 관찰 사실이 일치하지 않아도 그 이론은 살아남을 수 있다.
- ⑤ 뉴턴 역학은 어떤 관찰 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문 37. 다음 글에 담겨 있는 주장과 거리가 먼 것은?

사상 체계의 제일 덕목이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正義)는 사회 제도의 제일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緻)하고 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善)을 위해서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됨을 거부한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은 강요해도 좋다는 것은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사회의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하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채택된 것이라야 한다. 이 때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란 전통적 사회계약론이 가정하는 자연 상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원초적 입장은 역사상에 실재했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 원초적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은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이라 불리는 것인데, 말하자면 계약 당사자 중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떤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정의의 원칙들은 이런 무지의 장막 속에서 선택된다. 무지의 장막이 필요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무지의 장막에 의해 아무도 타고난 운수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해 지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 때문에 비롯되는 불평등도 정의롭지 못하지만 자연적 우연성 때문에 귀결되는 불평등도 정의롭지 못하다. 따라서 천부적 재능을 한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 재능이 산출하는 이익을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야 한다. 누구이든 간에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 이유만으로 이득을 볼 수 없으며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켜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들은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는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
- ②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다.
- ③ 모든 사회적, 자연적 불평등은 정의롭지 못하다.
- ④ 천재의 재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자산이다.
- ⑤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타고난 행운에 의한 이익도 정당화 된다.

문 38. 다음 글에서 필자의 주장과 다른 것은?

우리가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빨간 신호등이 켜져 당신이 차를 멈추었다고 하자. 그때 내가 왜 차를 멈추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신호등을 가리키면서, “빨간 불이 켜지면 저는 항상 차를 멈추죠.” 라고 대답할 것이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내가 “왜 수화기를 듭니까?”라고 물으면 당신은 “전화벨이 울렸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할 것이며,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묻는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당신은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항상 차를 멈추고 전화벨이 울렸을 때 항상 수화기를 들었는가? 아주 급한 일로 인해 의식적으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한 적은 없었는가? 비록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 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가 때때로 있지는 않았는가? 빨간 신호등이 차를 멈추게 하고 벨소리가 전화를 받게 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빨간 신호등과 전화소리가 차를 멈추게 하고 전화를 받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강한 욕구를 내면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차를 멈춘다. 또한

우리들 대부분은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화벨이 울릴 때 수화기를 들게 된다. 복잡한 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린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결국 당신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작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내면적인 작용에 의한 것임이 명백해질 것이다. 만일 우리들의 행동이 외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기계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다.

- 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잘 대우해 주길 몹시 바라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슬퍼하는 것은 나의 선택 때문이다.
- ② 인생의 실패는 무관심했던 부모, 나의 비열했던 배우자, 혹은 불만스러운 직업 때문이다.
- ③ 어떤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 행동은 자신의 내면적인 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 ④ 인간의 행동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 ⑤ 인간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느끼는 것은 내면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

문 39. 다음 글에 이어질 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11년, 영국 노팅검 지역에서는 네드 러드(Ned Lud)라는 사람이 주도한 비밀결사가 하나 조직되었다. 당시 노팅검은 영국의 대표적 섬유산업 도시였는데 방직기와 직조기계들이 도입되자 이전의 숙련공들은 모조리 실직의 위협에 처했다. 네드 러드와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불행이 악마와 같은 기계 탓이라고 믿었고 밤마다 복면을 쓰고 공장의 기계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비밀결사는 대규모 실업과 함께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 기계파괴 운동은 네드 러드의 이름을 따서 ‘러다이트(Lud-diet)’로 불렸다. 이 운동은 당황한 영국 정부가 투입한 군대에 의해서 곧 유혈 진압되었지만 러다이트는 반(反)테크놀로지의 정신과 운동을 뜻하는 일반명사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역사의 뒀안길에서 만나게 되는 우발적 해프닝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1980년대에 불어 닥친 컴퓨터 도입과 사무자동화의 흐름이 엄청난 수의 화이트칼라들을 직장에서 몰아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결코 과거형 사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코 역사의 흐름을 뒤로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러다이트 운동은 틀린 것이었지만 역사의 패러다임 전환이 결코 순조롭거나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운동은 되새겨 볼 만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평등과 민권을 향한 역사의 흐름은 프랑스에서 엄청난 유혈혁명을 요구했으며 고급 귀족문화의 깊이를 묻어 버렸다. 프랑스 혁명의 성공과 과오는 이후 모든 민주주의 혁명에서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었다. 자본주의와 기술문명의 확산도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과학기술과 자본주의의 만남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간의 편익을 눈에 띄게 증대시켰으나 과도한 자원낭비와 환경 파괴, 인간소외와 빈부격차의 그늘을 드리웠다. 이처럼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다른 모든 거대한 전환의 흐름들은 빛과 그늘을,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지구화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 ① 러다이트(Lud-diet) 운동의 교훈
- ② 반(反)테크놀로지의 정신과 운동
- ③ 지구화의 빛과 그늘
- ④ 프랑스 혁명의 성공과 과오
- ⑤ 과학기술과 자본주의의 만남

문 40. <보기> 는 다음 책문(策問)에 대한 답안의 일부이다. (가) - (바)를 논리적 순서대로 적절하게 배열한 것은?

책문 :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를 다스리는 요령은 당시의 시급한 일을 잘 파악하는 데 있을 뿐이다. 만약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면, 비록 날새기 전에 일어나 옷을 차려 입고 밤 늦게 저녁을 먹으며 부지런히 힘쓴다 해도 끝내 위태로움과 패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옛날 요순시대와 하·은·주 세 왕조에서 제대로 행한 일은 어떤 것이었는가? 또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면서 오랫동안 나라를 안정시켰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한나라나 당나라 이래 마땅히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결국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줄줄이 난리가 일어나 망했던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 <보 기> —

- (가)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참으로 짝 막혀 식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바닷가 한 구석에서 올라온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분개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님을 바르게 보필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아,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 (나) 첫째, 책문에는 국가운영을 위한 큰 구상과 옛날의 이상적인 시대를 염원하는 성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정치를 해나갈 방도를 논해 풍속을 교화하고, 이 시대의 시급한 일을 가려서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시니, 여기서 전하의 지극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다) 부디 전하께서 조금이나마 관용을 베푸셔서, 훌륭한 임금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정직한 말 때문에 화를 입는 사람이 없게 하신다면, 참으로 나라의 복이 될 것입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대답하겠습니다.
- (라) 둘째, 책문에는 인재를 구해 폐단을 없앤다는 말과 세금제도를 바르게 정하고 부역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으니, 전하께서 온 마음과 힘을 기울여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재를 가려 쓰는 까닭은 나랏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 (마) 이렇게만 된다면 어찌 임금님께서 시의에 맞게 조치하지 못하는 폐단 때문에 근심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급하고, 절실하며, 근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해, 죽기를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삼가 대답합니다.
- (바) 공납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나 그 나머지 과제는 상황에 따라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 신축성있게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선한 제도가 편리할지 불편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하는 문제도 서로 마음을 합해 공경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으니, 전하를 위해 따로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 ① (가) - (나) - (라) - (다) - (바) - (마)
- ② (가) - (다) - (나) - (라) - (바) - (마)
- ③ (가) - (다) - (나) - (바) - (라) - (마)
- ④ (다) - (가) - (나) - (라) - (마) - (바)
- ⑤ (다) - (가) - (나) - (마) - (라) - (바)

정답표 ["가"형]

제 1과목 : 언어논리영역

제 2과목 : 헌 법



| 언어논리영역 | | | | 헌 법 | | | |
|--------|----|----|----|-----|------|----|----|
| 문번 | 정답 | 문번 | 정답 | 문번 | 정답 | 문번 | 정답 |
| 1 | 3 | 21 | 3 | 1 | 4 | 21 | 2 |
| 2 | 3 | 22 | 1 | 2 | 5 | 22 | 4 |
| 3 | 3 | 23 | 5 | 3 | 3 | 23 | 2 |
| 4 | 5 | 24 | 1 | 4 | 5 | 24 | 3 |
| 5 | 4 | 25 | 4 | 5 | 4 | 25 | 5 |
| 6 | 4 | 26 | 3 | 6 | 4 | 26 | 3 |
| 7 | 1 | 27 | 5 | 7 | 2 | 27 | 2 |
| 8 | 2 | 28 | 5 | 8 | 3 | 28 | 1 |
| 9 | 4 | 29 | 5 | 9 | 4 | 29 | 2 |
| 10 | 4 | 30 | 1 | 10 | 1 | 30 | 5 |
| 11 | 3 | 31 | 5 | 11 | 4 | 31 | 3 |
| 12 | 5 | 32 | 1 | 12 | 3 | 32 | 2 |
| 13 | 1 | 33 | 2 | 13 | 5 | 33 | 3 |
| 14 | 3 | 34 | 3 | 14 | 4 | 34 | 2 |
| 15 | 4 | 35 | 4 | 15 | 2 | 35 | 3 |
| 16 | 1 | 36 | 4 | 16 | 5 | 36 | 4 |
| 17 | 3 | 37 | 3 | 17 | 2 | 37 | 2 |
| 18 | 3 | 38 | 2 | 18 | 2 | 38 | 3 |
| 19 | 4 | 39 | 3 | 19 | 1, 5 | 39 | 3 |
| 20 | 4 | 40 | 2 | 20 | 1 | 40 | 3 |